

# 2012

## 신진연구 논문집

2012 북한 및 통일관련



본 논문집은 2012년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  
연구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1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통일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

<b>01</b>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소설 연구 :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과 남한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소설을 대상으로 권세영(아주대학교 강사)	1
<b>02</b>	최근 북한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양상 고찰 김미향(인천대학교 강사)	85
<b>03</b>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9
<b>04</b>	북한 문화예술정책과 공연예술계의 실천양상 분석 : 1980년대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전망 김정수(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249
<b>05</b>	국가명칭표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형태에 따른 통일의식 추이분석 : 2006년~2012년 언론사별 보도태도 및 국가명칭 분석 여현철(☎코리아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329
<b>06</b>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essentials) 분석 : 특성과 응집력을 중심으로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421
<b>07</b>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 북한이탈주민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윤인주(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491
<b>08</b>	해외원조가 북한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원조효과성의 향상방안 :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의 극복을 위한 대안모색 윤철기(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555
<b>09</b>	북한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정은이(경상대학교 강사)	631

---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소설 연구  
: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과 남한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소설을 대상으로

권세영  
아주대학교 강사

---

제1장 서론	7
제2장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10
제3장 북한이탈주민 등장 작품의 현황	16
제4장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작품 분석	34
제5장 남/북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방식의 차이 비교 분석	5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69
[부 록] 1 온라인 북한이탈주민 시 목록	72
[부 록] 2 온라인 북한이탈주민 수기 목록	74
[참고 문헌]	82

---





## 표 목차

---

<표 1> 북한이탈주민 출간 소설 목록(16편) .....	28
<표 2> 북한이탈주민 시집 목록(7편) .....	29
<표 3> 북한이탈주민 출간 수기 목록(80편) .....	29
<표 4> 한국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소재 소설 목록(36편) .....	32

---



## 요 약 문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문학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전무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창작한 문학을 북한이탈주민 문학이라는 범주로 개념화하고 이들이 의해 창작된 소설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문학과 관련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저술 목록과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소설, 시, 수기 그리고 남한 작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형상화한 작품 목록을 정리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유형을 정치 소설적 작품, 자전 소설적 작품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남한작가의 북한이탈주민 등장 작품을 고발 소설적 작품, 대중 소설적 작품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창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자전적 소설적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으며 북한의 실상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서술되어 있다. 그중 이항구, 김대호, 립일의 작품의 경우 정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항구의 소설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소설에는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 인사들 그리고 주요 시설, 외교 정책, 정치 방식, 남북관계 정책 등 사실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북한과 북한정치인들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전적 소설의 경우 김대호의 소설 분석에 따르면 작품에 배면에 깔린 갈등의식은 북한의 신분제도에 있음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신분 차별에 따른 저항의식은 여타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이들의 자전적 성격의 작품에서는 개인사와 함께 북한 체제 비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작품 소설 유형은 고발소설적 작품, 대중 소설적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박덕규의 단편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전면에 내세워 이들간에 갈등을 그려내지만,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남한 사회가 지닌 모순과 문제점들이었다. 그리고 대중 소설적 작품에서는 반공주의 사상에 경도된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하에 남북관계를 그리며 북한이탈주민은 단지 남한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로 형상화 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과 남한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등장 소설이 동일한 소재를 다룸에도 전혀 다른 문제의식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내면화된 북한문예사

상과 그들이 지닌 억압된 욕망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한작가들은 그들의 형상화에 있어 외적인 측면에서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내면적 갈등과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북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시에도 작가별 유형 분석시에 나타났던 경향이 유사하게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작품의 경우 긍정적인고 진취적인 인물 형상화가 두드러졌다. 진취적인 인물 형상화는 북한문학이론에서 소설 창작에 있어 강조하는 모범적인 인간의 형상화에 그 맥이 닿아있다. 남한작가의 인물형상화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한에서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나 대부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좌절하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그들이 비극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그들의 비극의 원인을 외부적 폭력성에 있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물의 내적 갈등 양상에 있어서도 인물형상화 양상과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지니고 있는 죄의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남한사회에서 부채의식으로 내적 갈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나, 남한 작가들에 의한 작품의 경우 외부적 폭력에 의한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은 창작층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학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소설이 지니고 있는 북한문학적 특성과 더불어 이들의 소설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고 작가의 내면의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물에서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면모들을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남한 작가들에 의해 형상화된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과의 비교가 효과적이라 본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소설과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남한 작가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작품 유형별 분석과 인물 형상화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내적 갈등과 남·북작가들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거주에 있어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인권적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이뤄져왔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 초반까지 정부와 대중매체에서 ‘월남귀순용사’, ‘귀순 북한동포’라고 표현한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들의 삶과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써 관심은 뒤늦게 시작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경제체제 붕괴와 이에 따른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남한 내 입국이 증가라는 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 활발해졌다.

문학 논의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에야 비평 분야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비평적 논의는 대부분 한국작가들의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은 문학 연구의 주요 경향을 바탕으로 볼 때 양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해방후 남북분단 상황에 기반을 둔 작가들에 문학이라는 점에서 분단문학으로써이고, 다른 하나는 1990년 이래 전개된 조선족, 고려인, 재일교포 문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적 관점에서 또한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 측면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작품이 드물게 논의 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학적 논의가 미진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작품의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남한의 문학 연구의 경향성에 따른 이유로는 2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90년대 이후 거대담론의 쇠락이라는 거시적 맥락 하에 탈정치적 성향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정치성이 두드러진 작품에 대한 관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약 60여 년 간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 문학의 이질화에 따른 작품이 지닌 미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문학성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sup>1)</sup>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창작 문학에 개념과 범주 설정과 더불어 발표된 작품들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의한 문학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범주를 용어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검토하면, 이성희, 고인환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소재한 작품을 ‘탈북자 문학’이라 칭하였고, 강정구, 정병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작가가 창작한 시를 ‘탈북이주민 시’로 칭하였으나<sup>2)</sup> 이러한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소설인지,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소설인지 용어만으로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남한 작가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소설과 구분 짓고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해 한글로 창작된 소설, 시, 수기<sup>3)</sup>를 ‘북한이탈주민 문학’이라고 칭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 창작 문학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sup>4)</sup>라는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문학이란 개념은 남북한 분단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전에도 ‘분단문학’, ‘실화문학’이란 용어를 통해 분단 현실과 관련한 문학적 접근이 이뤄졌으며, 작가군과 관련해서 ‘월북작가’, ‘월남작가’들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다. 한국문학 연구에 있어 분단체제에 따른 특수한 범주들의 사용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 창작 문학과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남한작가들의 작품은 남북분단 상황이란 정치적 현실이라는 특수성에 기반을 둔 개념이기에

1)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2012, p.294.

2) 위의 논문, p.292. 참조.

3) 수기의 경우 남한에서는 문학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경우 실화문학이란 범주에 포함시켜 주요 문학 장르로 인식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1980년대 르포, 노동자 수기를 중심으로 실화문학적 특성을 지닌 작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라진 상황이다.

4) 북한이탈주민이 타국으로 망명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창작한 작품 또한 작품의 내용과 성격을 가늠하여 북한이탈주민 창작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 있어 의미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양 작가군의 작품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내적 갈등과 남한작가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과 남한 작가들의 북한이탈주민 소재 소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과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창작 문학은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 발표되는 방식은 개별 작품 출판, 북한관련 잡지와 소식지, 시사잡지를 통해서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단체나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또한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표 방식들 중 지속적으로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고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 대상은 개별 출판 작품,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발간 잡지와 사이트로는 탈북자동지회가 발행한 『망향』, 『민족통일』, 『탈북자』와 NK지식인연대가 발행한 『북녘마을』, 『림진강』, 과 탈북자 동지회 사이트<sup>5)</sup>가 있다. 남한 작가들의 북한이탈주민 소재 소설에 대한 현황은 남한의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과 개별 발간 작품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에 대한 연구는 통일문학사적 관점에서 한국 문학 연구 심화 차원에서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전무한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 연구가 지닌 의의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의 삶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살피는 것과 북한체제하에서 체제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작품들만이 발간되고 기록에 남겨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체제와 사회에서 억압되는 미시적인 역사 기록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 이후 탈북자 강제 소환 문제로 남북 갈등이 국제적으로도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 남한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남북관계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써 기초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탈북자 동지회”, 《<http://nkd.or.kr/>》

## 제2장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 제1절 북한이탈주민 문학의 개념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개념 하에 이들에 의해 창작된 소설, 시, 수기, 희곡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자 ‘북한이탈주민 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문학’의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1997년 1월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근거한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초기 법령은 1962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sup>6)</sup>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정의와 초기 법령이 제정된 시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은 해방 후 월남한 이들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해방기 월남자와의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체제 하에서 비교적 오랜 경험으로 인해 북한의 사상, 문화, 교육 등이 그들의 문학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전제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남한의 문학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탈북자 문학, 탈북이주민 시<sup>7)</sup>가 있다. 탈북자 문학의 경우 남한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하는 소설을 일컬으며, 탈북이주민 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시라는 의미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장르와 창작주체에 따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과 범주도 분명치 않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북한이탈주민 문학의 시기적 범주는 6.25 전쟁 이후 북한에 국적을 두었던 이가 탈북이후 창작한 작품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별도로 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 작품과 수기 중 남한인과 공동 집필한 경우와 비록 현재까지 작품이 발견된 경우는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 이후 중국을 비롯한 타국을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남한이 아닌 다른 국가로 망명한 상태에서 창작한 작품의 경우이다.

6)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법령은 이전인 1962년 「국가유공자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된 이래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있었으며, 각 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칭하는 용어의 변경과 더불어 정책에 있어 변화가 있어왔다.

7) 권세영, 위의 논문, p.292.



작품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인 정성산이 남한인인 조일환의 도움을 받아가며 집필한 『장백산』(토지, 1999)의 경우와 북한이탈주민인 조영호의 증언을 토대로 남한작가 이철원이 집필한 『평포』(금문서관, 1995)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이주자로써의 특수성과 북한의 집체창작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남한작가들과 비교할 때 다른 문화, 정치체제, 사상 하에서 살았던 이로써 창작에 있어 남한문학계가 지니고 있는 직접적 혹은 암묵적 관습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므로 창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의 작품의 내용과 북한이탈주민의 창작에 있어 참여 수준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남한이 아닌 타국으로 망명한 경우나 남한으로의 이주 이후 재차 타국으로 이주한 경우 또한 논할 수 있다. 현재까지 타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발표한 작품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후 이러한 재외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작품이 발견된다면 충분히 북한이탈주민 문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문학의 범주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경우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월남자들 중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된 이후 북한에 적을 두었으나 6.25 전쟁기간에 월남한 경우이며, 둘째는 북한에 의해 납북된 이후 북에 적을 두었다가 돌아온 경우이다. 셋째는 북한 출신 남파간첩 출신 무기수의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이석, 강용준<sup>8)</sup>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북한체제하에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기존 문학연구에서 월남작가군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이은희, 신상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북한으로 납북된 이들은 3700여명에 이르며 일부 복귀한 이들에 의한 체험기, 수기가 일부 있으나 이들에 의한 작품 활동도 미비하며 원적이 남한에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이다. 이종, 정순택<sup>9)</sup>의 경우처럼 남파간첩으로 무기수였던 경우, 분명 이들은 북한에 적을

8) 김이석의 경우는 193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부어』로 등단한 이래 북에 적을 두고 북한의 문단에서 활동하였으며, 1.4후퇴 시기에 월남하였다. 그는 월남이후에도 동면(1957), 광풍 속에서(1957) 등의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용준의 경우 북한 출신자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포로로 잡힌 후 남한의 전향하였다. 그는 1960년 사상계를 통해 『철조망』을 통해 등단하였다.

9) 이종은 남한 출신의 남로당 소속이었으나 월북이후 간첩으로 남파 되어 무기수로 복역했던 그는 1995년 시집 『독방』(일송정)을 발간하였으며 정순택 또한 월북이후 남한으로 간첩으로 남파된 경우로 무기로 복역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1997년 간행된 『보안관찰자의 꿈』(한겨레 신문사)이 있다. ; 비전향 장기수 이종 선생의 시집.

두고 있으며 남한에서 시집과 자서전 또한 발표하였기에 북한이탈주민 문학 작가로써 칭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의 창작은 분단현실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넓게 분단문학의 맥락에서는 이해될 수도 있으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작품과 차이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학이라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은 글과 작품은 기존 북한이탈주민 작품들이 지닌 공통된 특성을 감안할 때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문학이란 개념과 범주는 이들 작가들이 지닌 북한체제내에서의 삶과 북한이탈이라는 유사한 체험이 이들의 문학의 특수성을 고찰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 제2절 이론적 접근 방법

어떤 조건하에서 순수하게 일원적인 목소리만 지낸 채,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제외된 담론이 문학에서 가능한 것일까? 작가가 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담론, 단지 작자 자신만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담론이 문학 작품의 일차적 질료가 될 수 있는가? 주체와 타자와의 다소간의 관계는 모든 문체의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 작가는 늘 문학 작품의 질료로서의 언어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작가는(순수한 서정시인이라 할지라도) 작가의 모스(그리고 작가의 다른 가면들)과 함께 자신 이외의 다른 목소리를 그가 쓰는 모든 담론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늘 연극적이 아니던가? 아마도 한 가지 목소리로 되어 있는 담론, 주체-객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모든 담론은 어리석고 진정한 창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하게 창조적인 목소리는 담론에서 늘 <이차적인> 목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작가는 진행되는 언어 외곽에 그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언어를 제공할 줄 아는 자이고 간접적으로 말할 줄 아는 재능을 소유한 자이다.<sup>10)</sup>

바흐친은 문학 작가의 창작행위는 작가 자신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개인의 생각 뿐 아니라 작가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담론과 외적 질서 하에서 이뤄진다고 밝힌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학은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북한체제내에서의 삶에 따른 사회적 체험 외에도 문화체험, 사상교육, 북한문학에 의한

10) Bakhtin, "Problema teksta v lingvistike, filologii i drugikh gumanitarnykh naukakh. Opyt filosofskogo analiza," pp.288-299, '金旭東, 『바흐친과 상호텍스트성』,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1990, pp.197-198에서 재인용.'

영향으로 북한문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문학적 특성이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적 기법 뿐 아니라 주체문예이론적 특성을 의미한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러시아 사회주의 문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민족중심의 문예이론 정립을 시도한 이래 김일성의 창안했다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김정일이 명의로 주체문예이론으로 정립되었다.<sup>11)</sup> 이는 북한의 공식적인 문학론으로 설정되어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급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의 미학적 원칙은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sup>12)</sup>고 한 규정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으로 구현되는 창작방법론과도 직결된다. 북한이탈주민 문학을 북한문학적 특성이란 표면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다면, 북한문학이 지닌 도식성이 전이된 형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문학에서는 그들에게 내면화된 북한문학적 특성과 더불어 탈출과정과 남한에서의 체험들이 그들의 문학작품 형성 교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읽을 때 그들 작품의 심층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작품분석에 앞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학적 논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학적 논의는 크게 두 경향으로 구분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문학에 관한 기존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하는 남한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문학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윤여상, 강정구, 권세영<sup>13)</sup>의 논문이 있다. 윤여상의 연구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적응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수기를 분석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연구 목적상 수기에 대한 문학적 분석이 아니나 북한이탈주민 남한에서의 적응과정과 인식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학 분석을 통한 사회학적 접근의

11) 북한 문학 연구의 난점 중 하나는 모든 새로운 사상과 이론이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의 경우도 황장엽이 실질적으로 창안하였으나, 김일성이 창조한 사상이라 발표하는 것과 같이 주체문예이론도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다른 문학 연구자들이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12) 한중모, 『주체문예이론의 기본 1』, 사회과학출판사, 2000, p.13.

13)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1994.

강정구, 「탈북이주민 문화의 시적 수용-탈북이주민 시의 개념과 특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3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 pp.9-27.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5집, 한중인문학회, 2012, pp.291-310.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북한이탈주민 창작 문학에 문학적 접근은 강정구에 의해 이뤄졌다. 그의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창작 문학에 대한 용어문제를 검토하며 탈북이주민 시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장진성, 김옥애, 이대호, 김성민의 작품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시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소수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에 관한 연구로는 권세영의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2011년까지 단행본으로 발간된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과 시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소수집단 문학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학이 지닌 특성을 ‘자전소설’, ‘증언문학’적 특성이라 제시하였다.

남한 문학계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학연구의 주된 경향은 분단문학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단문학의 연장선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미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형상화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남한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북한이탈주민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분단문학의 관점과 이주와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등장 소설에 관한 연구로는 고명철, 우찬제, 양영길, 최병우, 홍용희의 연구<sup>14)</sup>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논의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고인환, 김효석, 이성희의 연구<sup>15)</sup>가 있다.

분단문학 관점과 이주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국가의 사생활>, 권리의 <원손잡이 미스터리>, 정도상의 <찔레꽃>, 황석영의 <바리데기>, 강영숙의 <리나>, 전성태의 <목란식당>, 손홍규의 <도플갱어>, 최용탁의 <바하무트라는 이름의 물고기>, 강

- 
- 14) 고명철, 「분단체제에 대한 2000년대 한국소설의 서사적 응전」, 『한국문학논총』, 58집, 한국문학회, 2011, pp.293-317.  
 우찬제, 「분단 환경과 경계선의 상상력」, 『동아연구』, 61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1, pp.5-36.  
 양영길, 「통일문학 어디로 가고 있나」, 『평화연구』, 16권 2호,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6, pp.113-126.  
 최병우,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이주의 인간학」,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이주의 인간학』,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pp.1-13.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4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pp.377-396.
- 15)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집, 한국문학회, 2009, pp.215-245.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pp.141-170.  
 김효석, 「‘경계境界’의 보편성과 특수성」, 『다문화콘텐츠 연구』, 7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pp.126-152.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한국문학논총』, 51집, 한국문학회, 2009, pp.261-288.  
 이성희,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56집, 한국문학회, 2010, pp.481-507.

영숙의 <리나> 등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조선족 등 분단 혹은 이주와 관련한 소재와 제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남한사회내에서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과 소수자의 형상화와 서사화 양상을 고찰하며 현 사회의 주요 이슈인 이주민 문제를 살피고 있다.

이에 반해 고인환, 김효석, 이성희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작품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작품들만을 대상으로하여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회 이슈들을 문학적 논의와 결부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학적 형상화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맞물린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일부 연구는 남한작가들에 의한 상상력에 바탕을 둔 북한이탈주민의 형상화와 서사적 양상을 일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내면적 갈등과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현실의 북한이탈주민 논의가 혼재되어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한 작가들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형상화는 타자적 시선으로 인해 한계를 지니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있어서 남한작가의 시선과 인식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실제 북한이탈주민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앞서에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특성과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양상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들뢰즈·가타리의 ‘소수집단 문학’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소수집단이란 개념은 민족, 인종, 문화, 경제, 계급, 젠더 등 다양한 층위에서 언급된다. 분명한 것은 들뢰즈·가타리가 칭한 소수집단에서 소수란 양적 차원이 아닐 사회 내 지위 그리고 권리와 관련된 질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배집단에 대한 단순한 대립관계가 아닌 지배집단의 해체와 전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집단이라는 용어이다 이들은 소수집단에서는 개인적인 발화가 집단의 발화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집단을 이름으로써 다양성의 확보를 통해 개인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고 밝힌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수집단은 정치성을 띠다 들뢰즈·가타리의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은 (들뢰즈 가타리의) 소수자 정치학은 스스로를 민중people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민중의 창조 즉, 도래 할 민중으로 본다는 클레어 콜블록(Claire Colebrook)의 해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하

에 들뢰즈·가타리는 소수집단의 문학에 접근하며 소수집단의 문학이 지배 집단의 언어권에서 소수 집단이 지탱해나가는 문학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들뢰즈·가타리는 소수집단 문학의 특성을 짚어낸다.

들뢰즈·가타리는 소수집단의 문학의 특성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탈영토화된 언어 둘째 작품이 띄고 있는 정치성 셋째가 집단적 성격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을 정리하면 탈영토화 된 언어는 지배집단의 언어권내에서 차별적 언어적 특성을 지녔음을 의미하며 다수 집단으로부터 단절된 언어를 문서 언어 또는 정략적 언어로 사용하는 억압받는 소수 집단의 언어로써 설명하고 있다 작품이 띄고 있는 정치성은 다수 집단의 문학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개인적인 문제로 나아감에 반해서 소수집단의 문학의 경우 이들이 지닌 억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인 문제가 정치에 직접 연결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 특성인 집단적 성격의 경우 소수 집단의 경우 다수자의 거장의 발화 행위로서 개별적 발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문학활동 자체가 집단적 행동으로써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수집단의 문학이 자체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지니는 물론이고 소수집단의 작가들의 체험과 내재된 차이가 창작에 있어 결정적 요인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소수집단 문학의 개념과 특성은 북한이탈주민 문학이 지닌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 문학이 남한 내에서 소수집단으로써 남한의 주류문학과는 분명한 언어적, 정치적으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소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제3장 북한이탈주민 등장 작품의 현황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작가별 저술 목록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작품에 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작가와 작품 또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 문단에서 관심 밖에 있음으로써 작품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작가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

16)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2012, pp.299-300.

민에 관한 신상에 관한 정보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기에<sup>17)</sup> 본고에서는 그들이 저술한 책자와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이항구〉

- 1934년 경기도 안성 출생.
- 1950년 서울 휘문중학교 44회 졸업 민주애국청년동맹원으로 활동.
- 1951년 북한 서울정치학원(금강학원 전신) 졸업.
- 1956년 인민군 특무상사로 제대.
- 1958년 북한 흥남질소비료공장에서 근무 중 <안전띠>가 『청년문학』지에 당선.
- 1962년 평양문학대학 문학과(한설야 초대학장) 졸업.
- 1965년 북한중앙방송위원회 소속 기자, 문예총 출판사 편집부(청년문학지), 평양문학대학 연구원으로 근무.
- 1966년 공작원으로 남파된 후 귀순.

### － 저술목록

- 이항구, 유치진 연출, (희곡)산하는 다시 푸르러지리, 육군방첩부대, 1967.
- 이항구, 얼음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 邦亞文化社, 1969.
- 북한대사전 편찬위원회, 北韓大事典, 共產圈問題研究所, 1974.
- 이항구, (방송드라마)모란꽃 소대-북괴여자암살공작조의 정체, 甲子文化社, 1978.
- 김현수 외 3명, 眞相은 이렇다, 韓國教養文化院, 1978.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北韓作家들의 生活相, 국토통일원, 1979.
- 이항구, 北韓의 靑少年, 大學生,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1.
- 이항구 외, 통일문단, 民族統一中央協議會, 1985.
- 이항구, 분단 40년. 북의 실상과 허상, 안보교육연구소, 1985.
- 이항구, 등지없는 작은 새(반공교실 하늘 없는 땅), 안보교육연구소, 1985.
- 이항구, 불타는 싸릿골, 안보교육연구소, 1985.
- 이항구, 잃어버린 얼굴, 안보교육연구소, 1986.
- 이항구, 내 고향 남쪽 바다, 안보교육연구소, 1986.
- 이항구, 돌개바람, 안보교육연구소, 1986.

17) 북한이탈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과 북한에 남아 있는 그들의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한다.

- 이항구, 北韓實相 百聞百答 : 하늘없는 땅, 안보교육연구소, 1986.  
 이항구 외 7명, 南北의 生活相 : 그 삶의 現住所, 박영사, 1986.  
 이항구, 분단 44년. 북한의 현실(북의 실상과 허상-개정판), 신태양사, 1988.  
 이항구, 소설 김일성, 신태양사 1993.  
 이항구, 小說)金日成, 萩原遼 譯. (東京, 文藝春秋), 1994.  
 이항구, (필화집)金正日과 그의 參謀들, 신태양사, 1995.  
 이항구, (장편필화)제5전선, 다나, 1996.  
 조한범, 구술로 본 북한현대사 재인식, 선인, 2006.(김남식, 이항구 구술)

#### － 논문/월간 북한 기고문

- 이항구, 북한의 문화예술, 북한학보, 6집, 북한연구소, 1982.  
 이항구, 최근 북한의 실상, 最高政策管理論集, 11집, 북한연구소, 1997.  
 이항구,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북한학보, 28집, 북한연구소, 2003.  
 이항구, 김일성의 여성행각(I), 北韓, 4, 북한연구소, 1972.  
 이항구, 북괴 문예정책비판, 北韓, 5, 북한연구소, 1972.  
 이항구, 춘원선생은 이렇게 최후를 마쳤다, 北韓, 6, 북한연구소, 1972.  
 이항구, 북한연구(2)-인민의 사회화 과정 : 사회, 北韓, 15, 북한연구소, 1973.  
 이항구, 문화정책과 대줄예술, 北韓, 15, 북한연구소, 1973.  
 이항구, 년. 픽션 : 북한의 작가대열속에서, 北韓, 25, 북한연구소, 1974.  
 이항구, 북한의 내용 : 북한으로 간 사람들 그후, 北韓, 71, 북한연구소, 1977.  
 이항구, 북한의 내막2 : 북한주민의 연애와 결혼, 北韓, 72, 북한연구소, 1977.  
 이항구, 북한의 내막3 : 북한의 종교.탄압과 수난의 장, 北韓, 73, 북한연구소, 1978.  
 이항구, 이달의 내막4 : 북한도시주민의 일과시간표, 北韓, 74, 북한연구소, 1978.  
 이항구, 북한의 내막5 :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점묘, 北韓, 75, 북한연구소, 1978.  
 이항구, 북한의 내막6 : 김일성족벌체제의 내분-그 진상, 北韓, 76, 북한연구소, 1978.  
 이항구, 북한의 내막7 : 북한농민의 일과시간표, 北韓, 77, 북한연구소, 1978.  
 이항구, 북한의 내막8 : 북한학생들의 일과시간표, 北韓, 78, 북한연구소, 1978.  
 이항구, 북한의 내막9 : 북한의 대학체제와 교과과정, 北韓, 79, 북한연구소, 1978.  
 이항구, 북한의 내막10 : 북한대학의 정치조직과 교과목, 北韓, 80, 북한연구소,



1978.

- 이항구, 북한의 내막11 : 북괴군사제도와 병영생활, 北韓, 81, 북한연구소, 1978.
- 이항구, 북한의 내막12 : 북괴군사제도와 병영생활하, 北韓, 82, 북한연구소, 1978.
- 이항구, 북한의 내막13 : 북괴치하에서의 노동생활실태, 北韓, 83, 북한연구소, 1978.
- 이항구, 북한의 내막14 : 북괴치하의 반항운동(1), 北韓, 84, 북한연구소, 1978.
- 이항구, 북한의 내막15 : 북괴치하의 반공운동(2), 北韓, 85,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16 : 북괴치하의 반항운동(3), 北韓, 86,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17 : 북한의 사회단체(1), 北韓, 87,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18 : 북한의 사회단체(2), 北韓, 88,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19 : 북한의 사회단체(3), 北韓, 89,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20 : 북한의 천리마운동, 北韓, 90,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21 : 북괴의 출판현황, 北韓, 91,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22 : 북한의 체육정책현황, 北韓, 92,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23 : 북괴의 신문현황, 北韓, 93,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24 : 북한의 잡지, 北韓, 94,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25 : 북한의 문화시설, 北韓, 95,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26 : 북한의 과학연구기구 현황, 北韓, 96, 북한연구소, 1979.
- 이항구, 북한의 내막27 : 북괴에서의 각종 회의, 北韓, 97,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28 : 북한의 주택, 北韓, 98,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 작가들의 생활상, 北韓, 99,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주민들의 의생활, 北韓, 100,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상업현황, 北韓, 101,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주민들의 여가생활, 北韓, 102,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사회의 이질적 풍조, 北韓, 103,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후방전시체제, 北韓, 104,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 여성들의 노동생활, 北韓, 105,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권력구조, 北韓, 106,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 권력구조 하, 北韓, 107,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임업현황, 北韓, 108, 북한연구소, 1980.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각종경쟁운동상, 北韓, 109,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각종경쟁운동하, 北韓, 북한연구소, 110,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음악, 北韓, 111,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협동농장, 北韓, 112,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우당, 北韓, 113,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공장기업소, 北韓, 114,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 노동당원, 北韓, 115,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I), 北韓, 116,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II), 北韓, 117,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III), 北韓, 118,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IV), 北韓, 120, 북한연구소, 1981.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VI), 北韓, 121,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VII), 北韓, 122,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VIII), 北韓, 123,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IX), 北韓, 124,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 北韓, 125,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I), 北韓, 126,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II), 北韓, 127,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III), 北韓, 128,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IV), 北韓, 129,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V), 北韓, 130,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VI), 北韓, 131,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VII), 北韓, 132, 북한연구소, 1982.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XVIII), 北韓, 133,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 北韓, 134,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괴치하의 특이용어, 北韓, 135,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특이한 용어들, 北韓, 136,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특이한 용어들, 北韓, 137,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특이한 용어들, 北韓, 138,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특이한 용어들, 北韓, 139,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특이한 용어들, 北韓, 140,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북한의 내막 : 북한의 특이한 용어들, 北韓, 141,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金正日, 그는 누구인가, 北韓, 142, 북한연구소, 1983.

- 이항구, 교육행정 이원화 형성하는 정치조직체계, 北韓, 155, 북한연구소, 1984.  
 이항구, 김정일의 권력승계 임박설에 이의있다, 北韓, 158, 북한연구소, 1985.  
 이항구, 분단 40년 특집 : 6·25남침과 平壤·북경·모스크바 : 50년, 北韓, 164, 북한연구소, 1985.  
 이항구,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후, 北韓, 164, 북한연구소, 1985.  
 이항구, 金正日정권을 지탱하는 인물들, 北韓, 304, 북한연구소, 1997.  
 이항구, 金正日, 권좌승계 조건과 전망, 北韓, 310, 북한연구소, 1997.  
 이항구, 6.25 당시와 오늘의 북한 대남전략 전술, 北韓, 378, 북한연구소, 2003.

### 〈안명철〉

- 1969년 함경남도 홍원군 출생.  
 1985년 함경남도 홍원군 홍원고등학교 졸업.  
 1987년 홍원농업전문학교 졸업.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에 입대.  
 11호(함경 경성) 정치범수용소에서 신병교육 받음.  
 1987년 7월~1990년 12월국가안전보위부13호(함북 종성) 정치범수용소 근무.  
 1990년 1월~1991년 10월국가안전보위부22호(함북 회령) 정치범수용소 근무.  
 1991년 11월~1992년 3월국가안전보위부26호(평양시 승호구역 화천동) 정치범수용소 근무  
 1994년 9월 22호 정치범수용소를 탈출.  
 1994년 10월 한국으로 망명.  
 1997년 건국대학교 입학.

### - 저술 목록/관련 서적

- 安明哲, 北朝鮮の政治犯收容所, 北韓人權改善運動本部, 1994.  
 安明哲, 北韓의政治犯收容所 : 前北朝鮮政治犯收容所警衛人員 安明哲의 體驗證言, 北韓人 權改善運動本部, 1995.  
 안명철, 池田菊敏 譯, (圖說)北朝鮮強制收容所, (東京, 雙葉社), 1997.  
 안명철, 그들이 울고 있다, 천지미디어, 1995.  
 안명철, 완전통제구역-북한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의 수기, 시대정신, 2007.  
 Hawk David, 감춰진 수용소 :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폭로한다, 이재광 역, 시대정신, 2003 (안명철 증언 수록)  
 강철환, 아! 요덕, 월간조선사, 2006.

편집부, 정치범 수용소 혹은 인간소각장(안명철의 ‘완전통제구역’), 위기의 자유  
주의 읽기 아이엘앤피, 2009.

〈조영호〉

1963년 평양시 서성구역 상흥동 출생.  
1974년 평양 상흥인민학교를 졸업.  
1980년 함경남도 북청군 성동고등중학교를 졸업.  
1994년 2월 탈북.  
1994년 6월 한국으로 망명.

－ 저술목록

이철원, 평꼬, 금문서관, 1995. (조영호 증언 토대)  
조영호,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탈북자 조영호 이야기, 태인문화사, 2004.

〈전철우〉

1967년 6월 9일생.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출생  
평양에 있는 김책 공업종합대학에서 기계 제작 전공.  
동독 드레스덴 공업종합대학 정보학부 제어계측과에서 3년 6개월의 유학생할  
동서 베를린 장벽 붕괴시 남한으로 망명.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저술목록

문용수 외 10명, 마지막 선택 : 북한,소련,동구 그리고 서울, 하나로, 1991.(소·동  
구권에서 온 북한 유학생 11인 망명수기)  
한성호, 초상집이라 해서 초상화 그리는 줄 알았더니, 다나, 1994.(43인 귀순자  
수필)  
전철우 세종대왕, 여기 와서 알았어요 54-57  
전철우, 평양놀새 서울오렌지, 자유시대사 1994.  
전철우, 나는 행복하지 않다, 웅진출판, 1995.  
전철우,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 상·하, 시아 1996.  
ナンパにふける, 「平壤の遊び鳥」たち / 全哲宇, 259-262.

아사히신문 아에라헨슈부, 北朝鮮.亡命者五十人の証言, (東京, 朝日新聞社),  
1997

아사히신문 아에라헨슈부, 北朝鮮からの亡命者 : 60人の証言, (東京: 朝日新聞  
社), 1998<sup>18)</sup>

### 〈김대호〉

1986년 북한 영변 핵단지내 4월 기업소(우라늄 정련공장)의 기동예술 선전대에  
서 작가 및 연출가로 활동

1987년 원자력 공업부 남천 화학연합기업소 우라늄 폐기물 1작업반장, 부문당  
부비서.

1989년 원자력 공업부 남천 화학연합기업소 우라늄 폐기물 부직장장, 당세포  
비서를 겸임.

1992년 핵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외화벌이 상무 겸 서해지구 수산 외화벌이  
채취대 대장으로 파견.

1994년 한국으로 망명.

### － 저술목록

김대호, 「북한 문단의 개황과 작품 창작 실태」, 『남북 문화교류 토론회』 문화체  
육부, 1996.

김대호,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상·하, 예음, 1997.

김대호, (시집)가장 슬픈날의 일기, 동해, 1997.

김대호, (시집)행복, 진리와 자유, 1998.

김대호,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상·하, 리빙북스, 2001.

김대호, (실화장편소설)영변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 북치는마을,  
2004.

### 〈정성산〉

1969.11.17 평양 출생, 평양에서 장현인민학교와 성북 고등중학교를 졸업.

1969년 평양 출생북한 인민군 제2군단 정치부 작가 겸 연출가.

18) 이 책은 당저부 관계자, 군인, 노동자/학생, 제일조선귀국자, 轉落者たちの証言, 엘리트후  
보 유학생, 여만철 일가, 시베리아 이주자로 나누어 6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담  
고 있다.

평양 연극영화대학 영화연출학과 4년 재학.

1995년 1월 한국으로 망명.

－ 저술/활동 목록

1998년 KBS 미니시리즈 “진달래꽃 필 때까지” 집필.

1997년 단편영화 “자유로” 집필 및 연출 .

1996년 극단 오마니 창단 연극 “코리랑” 집필 및 연출.

1995년 KBS 코미디 “인민군 동작 그만” 집필.

정성산, 평양 무공해 섹스 모르디요, 제일미디어, 1996.

정성한, 홍영의, (實錄)北朝鮮の性, (東京: 라인브ックス), 1997.

정성산·조일환, (공화국 사람들의 이야기)장백산 1~3, 토지, 1999.

정성산 글·남기보 그림, 요덕스토리, NK문화재단, 2010.

〈김용규〉

1936년 서울출생.

1951년 서울중학교 재학중 강제납북, 납북후 526군부대 루트공작원, 금강학원, 중앙당학교, 김일성대학 철학과 수료.

1957년 남도당 2차 숙정시 문천기계공장 노동자로 좌천, 문천기계 직장장 재직 중, 문평공대 야간학부 졸업.

1967년 노동당 연락부 공작원으로 선발. 김일성 군사정치대학 수료(1년) 10년간 공작활동에 종사.

1976년 7차 남파공작시 의거후 동국대 행정대학원 안보행정학과 졸업.

치안본부 내외정책연구소.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 전문위원.

경찰청 공안연구소 분석과정.

－ 저술목록

김용규, 時敎人間, 나라기획, 1978.

김용규, 자수간첩 김용규 수기 : 대남공작전술, 정보사령부, 1977.

시효인간, 드라마 1981.09.22~1982.01.05

김용규, (대남 공작 비화소설)소리없는 전쟁, 원민, 1999.

김용규, 북한의 실상과 허상, 국방부 정훈국, 1982.

김용규, 이철우, 홍승직 北韓研究資料集 . 第11輯, 高麗大學校出版部 , 1991.  
 김용규, 박춘호, 박선권, 北韓研究資料集 . 第12輯, 高麗大學校出版部 , 1992.  
 김용규 외, 『전시 비군사분야 대비 연구』, 행정안전부, 2009.

### 〈리지명〉

1953년 2월 함경북도 청진 출생.  
 1971년~1980년 인민군 제1군단(강원도 회양군) 사령부 군복무.  
 1974년 4월 평양 연극영화 대학 추천 입학.  
 1984년 5월 조선작가동맹 후보맹원.  
 1992년 5월 조선작가동맹 정맹원.  
 1998년 탈북.

#### － 저술목록

리지명, (장편소설)장군님 죽갔시요! 1·2, 글힘, 2004.  
 리지명, (장편소설)삶은 어디에, 아이엘앤피, 2008.

### 〈림일〉

1968년 평양에서 출생.  
 평양대동강고등중학교 졸업.  
 사회안전부, 대외경제위원회 근무.  
 1996년 11월부터 쿠웨이트 주재 '조선광복건설회사'에서 근무.  
 1997년 3월 한국으로 망명.  
 국기술교육대학교와 서강전문학교에서 산업디자인교육과정을 수료.  
 통일교육자문위원, 강사.

#### － 저술목록

림일, (에세이)평양으로 다시 갈까, 맑은소리, 2005.  
 림일, (에세이)평양이 기가 막혀, 맑은소리, 2007.  
 림일, (에세이)평양보다 서울이, 맑은소리, 2009.  
 림일, 소설 김일성 1·2, 시대정신, 2011.

## 제2절 북한이탈주민작가 창작물 현황

현재 조사된 북한이탈주민 작가가 집필한 글 중에 산문은 80편의 수기와 에세이류가 있으며, 직접적으로 소설임을 밝히고 있는 작품은 16편이 있다. 이들의 수기나 수필류에서는 수기, 탈출기, 실화, 체험기, 고백, 증언, 에세이 등 다양한 명칭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수기류 중에서는 소설적 특성을 보이는 작품들 또한 있다. 남한의 경우, 작가의 체험을 토대로 실제 인물과 사건을 작품화 하는 경우를 자전소설이라고 구분하여 문학 장르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사건을 토대로 창작한 작품 또한 있다.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의 영향으로 문학에 있어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 일부 수기류 또한 소설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북한에서 1950년대 초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창작이 이뤄지고 있는 장르인 실화문학 개념을 참고로 할 때 실제인물과 실제사건을 소재로 창작한 글을 소설에 포함시켜야 할지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 문학은 작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별로 나눌 수 있지만, 먼저 창작 방식에 따라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소설 중 다섯 작품은 남한작가와 공동 집필하였거나, 구술과 증언을 토대로 남한 작가가 집필한 경우이다. 좁은 의미로 북한이탈주민 문학의 개념이 북한이탈주민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서도 여타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이 지닌 내용적, 구성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문학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학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문학은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창작한 작품, 남북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 북한이탈주민의 직접적인 구술과 증언을 토대로 남한작가가 집필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창작에 직접적으로 깊이 개입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문학 논의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하였거나 북한이탈주민과 직접적 교류 없이 창작한 경우는 포함시킬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창작 방식들을 작품들을 북한이탈주민 문학 논의에 포괄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민으로써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단독으로 창작한 경우와 공동집필하였거나 직접적 증언을 토대로 창작하였음 밝힌 작품들을 구분지어 정리 하였다.

이러한 창작 방식과 연관하여 작가들을 살펴보면, 이들 작가 중 일부는 북에서 창작활동 혹은 문예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1966년 남파되었다가 그해



바로 귀순한 이항구의 경우 북에서 1958년 『청년문학』지에 <안전띠>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이후에도 북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하였다. 남파 되고 전향 후에는 군기관, 반북사상을 지닌 단체에서 활동하며 희곡, 드라마 시나리오,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청소년을 위한 단편소설 등을 창작하였다. 이 외에도 김정일과 북한 정치인을 다룬 글인 『眞相은 이렇다』(韓國敎養文化院, 1979)와 『金正日과 그의 參謀들』(신태양사, 1995)의 경우 실록과 필화로 장르적 성격을 밝히고 있으나 서술 방식은 소설적 형식으로 쓰여진 경우도 있다. 1994년 남한으로 입국한 김대호는 북에서 기업소 소속 기동예술 선전대에서 작가 및 연출가로 활동하며 <영변의 아침>, <수령과 전사> 등 북한사회와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류의 극본과 합창시를 집필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1995년 귀순한 정성산은 평양 연극영화대학 영화 연출학과 4년을 재학하고 북한 인민군 제2군단 정치부 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하였으며, 국내에 와서는 『장백산』(토지, 1999)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안혁, 강철환을 비롯한 북한의 제15호 정치점 수용소 출신들의 체험을 토대로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1998년 탈북한 리지명은 북에서 군 생활 중 극을 조선인민군 신문에 발표하였으며, 조선작가동맹정맹원으로 활동하며 창작한 시나리오 3편이 영화화되기도 하였으나, 출신신분으로 인해 작품에 이름이 표기되진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인 2012년 4월 작품을 발표한 김유경의 경우도, 조선작가동맹 출신으로 평양에서 작가로 활동 중 탈북하여 <청춘연가>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가 증가하며, 이전 비전문적인 일반인들에 의한 수기가 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북한 출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에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향후 북한이탈주민과 문학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정리 차원에서 소설 뿐 아니라 간행된 시, 수기 목록을 정리하였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출간 소설 목록-(16편)<sup>19)</sup>

구분	저자	도 서 명	출판사	간행년
장편소설	이항구	소설 김일성 1,2,3 (2005년 이가서 재간행)	신태양사	1993
실화	안명철	그들이 울고 있다 1(미완성 작품)	천지미디어	1995
장편실화소설	전철우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 상 하	시아	1996
실화장편소설	김대호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상 하	예음문화재단	1997
비화소설	김용규	소리없는 전쟁	원민	1999
실화장편소설	김대호	영변 약산에는 잔달래꽃이 피지 않는다. 상, 하	북치는마을	2004
장편체험소설	리지명	장군님 죽갔시요 1부 2부	글힘	2004
시,수필, 실화소설	새터민 50명	나는 땅크병 이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6
장편소설	리지명	삶은 어디에	아이엘앤피	2008
장편소설	림일	소설 김정일 1, 2	시대정신	2011
장편소설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b>공동 집필한 작품/ 구술 및 증언 토대 작품</b>				
장편소설	이병주 박갑동(북)	소설 남로당	청계연구소	1987
증언소설	이철원 조영호(북)	평꼬	금문서관	1995
장편실화소설	조일환 정성산(북) 공동집필	장백산	토지	1999
장편소설	차성주, 강현진(남) 공동집필	달아 달아	이지다	2000
장편소설	정원석 성일기(북)	북위 38도선	교학사	2006

19) 권세영, 위의 논문, p.296.

〈표 2〉 북한이탈주민 시집 목록(7편)

저자	도 서 명	출판사	간행년
김대호	가장 슬픈 날의 일기	동해	1997
김대호	행복	진리와자유	1998
이대호	별거벗은 시의 고백	리빙북스	2003
김성민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	다시	2004
김옥애	죽사발 소동	삼우사	2005
장진성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조갑제닷컴	2008
장진성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강남지성사	2009

〈표 3〉 북한이탈주민 출간 수기 목록(80편)

저자	도 서 명	출판사	간행년
서울중앙방송국 編	北에서 왔수다 : 北傀對南間諜의 正體	춘조사	1967
김용규	시효인간	나라企劃,	1978
문용수	아, 따뜻한 南쪽나라	지문사	1987
박갑동	서울 평양 북경 동경	기린원	1988
김응교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 조국 상,하 (김진계 구술·기록)	현장문학사	1990
고영환	김일성의 꿈 평양에서 이루어지다	조선일보	1991
문용수 편저	마지막 선택 북한, 소련, 동구, 그리고 서울	하나로	1991
김용	머리를 빠는 남자	자작나무	1992
김현희	사랑을 느낄때면 눈물을 흘립니다	고려원	1992
김지일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고려원	1992
고영환	평양 25시	고려원	1992
강철환 안혁	대왕의 제전 1,2,3	향실	1993
장기홍	울음보가 터진 남자 1, 2	성심도서	1993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1부 2부	고려원	1993
김균태	안경 없는 군대 이야기	의암출판문화사	1993
김신조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동아출판사	1994

저자	도 서 명	출판사	간행년
안혁	네가 남이나 내가 남인가	오대양출판사	1994
임영선	남쪽으로 흐르는 강	한가람	1994
신중철	육십만원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탈	1994
조창호	돌아온 死者	지호	1995
전철우	나는 행복하지 않다	웅진씽크빅	1995
김영성	오, 수령님 해도 너무합니다.	조선일보사출판국	1995
안혁	요덕 리스트	천지미디어	1995
김현희	이은혜 그리고 대구치 야에코	고려원	1995
김정연	평양여자 상 하	고려서적	1995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중앙일보사	1995
이순옥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	천지미디어	1996
백영길	서울에서 손 씻은 평양주먹	쟁기	1996
신영희	진달래꽃 필 때까지 1, 2	문예당	1996
여만철 외	흰것도 검다	다나	1996
이한영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잡행 14년	동아일보사	1996
김용	너무 외로워서 혼자사는 남자	큰바위	1997
장영철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사회평론	1997
박갑동	북조선 악마의 조국	서울출판사	1997
김형덕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창해	1997
42명 귀순자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	남북문제연구소	1997
김호	남녘으로 가는 길	생명과 인간	1998
박선희 박춘식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시대정신	2000
이용평	기수를 삶으로 돌려라	한울	2000
장길수	눈물로 그린 무지개	문학수첩	2000
성혜량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김소연	죽을 문이 하나면 살 문은 아홉	정신세계사	2000
김대호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상 하	리빙북스	2001
이영국	나는 김정일 경호원이었다.	시대정신	2002

저자	도 서 명	출판사	간행년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두솔	2002
이민복	말씀에 기초한 북한선교방법 총론	한사랑통일출판사	2002
황만유	반역자의 땅	삶과 꿈	2002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상하	시대정신	2003
장용철	니들이 북한을 알아?(북한 바로알기)	참세상닷컴	2003
편집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Defector's Vision	2003
조영호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태인문화사	2004
이한영	김정일 로열 패밀리	시대정신	2004
주성일	DMZ의 봄	시대정신	2004
탈북자 수기 모음	사랑의 날개	서울특별시	2004
지해남	(지해남이 부른 통곡의 노래)홍도야 우 지마라	태일출판사	2004
림일	평양으로 다시 갈까	맑은소리	2005
최진이	국경을 세번 건넌 여자 최진이	북하우스	2005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 평양의 어항	시대정신	2005
임홍균	흔들리는 북한군	신서&생명의 숲	2005
강철환	아! 요덕	월간조선	2006
함기식	자유의 품을 찾아서	.	2006
이정연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	플래닛미디어	2007
최금희	금희의 여행	민들레	2007
림일	평양이 기가 막혀	맑은소리	2007
신동혁	북한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세상 밖으로 나오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김광호	붉은 장막이 신음소리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탈북자 25명 하나원	새터민에 길을 묻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7
안명철	완전 통제구역	시대정신	2007
리준하	교화소이야기	시대정신	2008
김영순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	서울문학	2008
허재석	내 이름은 동간새끼였다	원북스	2008

저자	도 서 명	출판사	간행년
주순영	축복의 땅으로 1, 2	예찬사	2009
림일	평양보다 서울이	맑은소리	2009
주성하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기파랑	2010
이정학	두 번의 탈출 하나의 꿈	텍스트	2010
지현아	자유 찾아 천만리	제이앤씨커뮤니티	2011
장진성	시를 품고 강을 넘다	조갑제닷컴	2011
최선웅	통일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노사과연	2011
신정아	자화상	FNK미디어	2012
이태형	한국에서탈북자로 산다는것	좋은생각	2012

### 제3절 남한작가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작품 현황

〈표 4〉 한국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소재 소설 목록(36편)

구분	저자	작 품 명(도서명)	출판사	간행년
단편소설	최윤	아버지 감시<저기 소리 없이 한잎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1992
단편소설	김지수	무거운 생	창작과 비평 가을호	1996
단편소설	박덕규	동화읽는 여자<고양이 살리기(2004)>	동서문학 봄	1998
단편소설	박덕규	세 사람<고양이 살리기(2004)>	동서문학 봄	1998
단편소설	박덕규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단편소설	박덕규	청둥오리<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단편소설	박덕규	노루사냥<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단편소설	박덕규	기러기 공화국<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대중소설	김정현	길 없는 사람들	문이당	2003
대중소설	김제국	적명 1,2,3	인간과자연사	2003
단편소설	김남일	중급 베트남어 회화	실천문학 여름호	2004

구분	저자	작 품 명(도서명)	출판사	간행년
단편소설	이종학	고향을 잃은 사람들<눈 속으로 간 여자>	백암	2004
단편소설	정선태	강을 건너는 사람들	문학수첩 가을호	2005
단편소설	박충훈	남녘형님 북녘형님<남녘형님 북녘형님>	남양문화	2005
청소년 소설	이지원	나는 통일복서 최현미	서울문화사	2005
장편소설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장편소설	김영하	빛의 제국	문학동네	2006
단편소설	문순태	올타리<올타리>	이룸	2006
장편소설	정철훈	인간의 악보	민음사	2006
장편소설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장편소설	황석영	바리테기	창비	2007
장편소설	이대환	큰돈과 큰덤	실천문화사	2008
장편소설	이호림	이매, 길을 묻다	아이엘앤피	2008
연작소설	정도상	함흠 · 2001 · 안개<짚레꽃>	창비	2008
연작소설	정도상	소소, 눈사람이 되다<짚레꽃>	창비	2008
연작소설	정도상	짚레꽃<짚레꽃>	창비	2008
청소년소설	김현화	리남행 비행기	푸른책들	2008
단편소설	문순태	탄피와 호미<생오지 뜰뿌기>	책만드는 집	2009
장편소설	정수인	탈북 여대생	새움	2009
장편소설	이건숙	남은 사람들	창조문예사	2009
장편소설	이용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대중소설	정진섭	황장업을 암살하라 1,2	연인M&B	2010
장편소설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2011
장편소설	강희진	유령	은행나무	2011
대중소설	김진명	제3의 시나리오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 제4장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작품 분석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유형별 작품 분석

#### 1. 정치 소설적 작품

정치소설은 서구의 개념에 따르면 좁게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두고 직접적인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 소설로 보고 있으나 넓게는 문학을 정치적 도구로 여김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주장이 작품에 포함된 소설을 아울러 지칭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소설적 작품은 일반론 차원의 정치 소설이 아닌 그들에게 작품에 다양한 양태로 드러나는 정치성에 의한 작품이란 의미이다. 그들이 지닌 정치성은 북한체제에서의 내면화된 사회주의 문예이론과 주체문예이론에 영향을 받는데 연유하며 북한 이탈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은 한국으로 입국 과정에서 보호신청시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과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조사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출신, 성장, 교육과정, 직업 등 개인사는 물론이고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의 제공을 요청받는다. 이러한 조사과정은 보호결정 기준에 따른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임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sup>20)</sup> 제 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항 통일원 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이후 한국 정착에 있어 필요한 지원의 수준이 결정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 삶과 북한 내부의 인물, 사건, 기관 등을 회상하며 진술하였던 것이 곧 수기와 소설 창작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탈북이전 혹은 이후 북한체제의 허위성을 인식함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니게 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비판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작품이 지닌 정치적 성격과 직결되는 북한 지도층과 사회의 비판적 성향은 작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정치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강조되는 작품으로는 이항구의 『소설 김일성』, 김대호의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 립일의 『소설 김정일』이 있으며 이러한 작품

20) 제정 97. 1.13법률 제 5259호, 이후 일부 개정.



이외도 신분차별, 당간부들의 비리, 강제수용소, 경제적 궁핍에 따른 비인간적인 세태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북한 사회가 지닌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대다수의 작품에서 그려진다. 그중 이항구의 작품이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정치소설적 측면을 가장 잘 드러낸다.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남한정부는 북과의 이데올로기적 경쟁구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을 귀순용사로 칭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북한 체제 비판하기 위해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1966년 간첩으로 남파된 후 귀순한 이항구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북에서 작품활동을 한 등단 작가였으며, 평양문학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 수행기자, 문예총 출판사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북에 의해 남파되고 귀순 직후부터 남한의 정보당국과 군기관에 근무하며 반공사상을 지닌 각종 서적을 집필 하였으며 안보교육연구소, 국토통일원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해 출판하였다. 이러한 그의 이력으로 인해 그의 작품에는 정치소설적 면모가 뚜렷히 반영되어 있다.

1993년 11월 첫 출판된 이항구의 『소설 김일성』<sup>21)</sup>에는 다양한 측면의 정치적 성격이 드러난다.<sup>22)</sup> 이 작품은 소련에 반고르바초프 쿠데타가 일어난 1991년 8월부터 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60주년 기념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군통수권자를 의미하는 원수 칭호를 공식적으로 받는 시기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미완성 작이다. 소설 김일성 1, 2, 3권을 출간하고 이뤄진 인터뷰에서는 총 10권을 창작 할 것이라 언급하였으나, 3권에 그치고 만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권력집단 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체제 유지를 위한 지배방식이 묘사되며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그려진다. 그리고 남한 출신이란 이유로 사회적 신분 차별을 겪는 이재훈, 이후재를 비롯한 북한의 국민들의 북한체제 내에서 삶과 내면적 갈등을 그려낸다. 작품의 성격은 작가 본인은 장편소설이라 언급하였지만 북한의 실제 인물, 법, 기관 등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 제시와 북한내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점을 볼 때 북한 문학 장르인 실화문학<sup>23)</sup>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1) “김일성 알아야 北韓이해”, 《동아일보》, 1993.11.4, p.15.의 인터뷰에 따르면 10권을 출간할 계획이었음을 밝혔으나 3권 이후로는 저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완성작으로도 볼 수 있다.

22) 2005년 아가서에서 재출간

23) 실화문학은 북한에서 6.25전쟁 이후 도입된 장르로 러시아 문예장르인 오체르크가 변이된 장르이다. 실화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목적문학으로써 레포르타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설 김일성』의 주요 서사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서사를 주축으로하여 혁명 투사 집안인 황민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서사, 부모가 남한 출신임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는 리정훈을 중심으로 한 서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북한사회의 계층구조의 반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각 서사별로 계층에 따른 삶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갈등이 그려진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주축으로 한 서사는 1990년대 초반 동구권과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따른 대응 양상과 내부 결속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김일성에서 김정일의 권력이양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황민수를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는 북한에서 상층 집단의 몰락을 대변하며 저항과 순응이 그려진다. 그리고 북한의 상층집단인 황민수 일가와 친분이 있는 강상오 일가를 통해 절대적으로 수령에 복종적인 지배계층 뿐 아니라, 황민수를 비롯한 북한 상층집단 중 일부가 김부자를 중심으로 한 체제에 비판적 태도를 지니며 탈북을 시도하나 좌절되고 마는 내용을 그림으로 상층집단 내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대별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이재훈과 그의 아버지인 이후재를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는 남파되어 남에서 투옥되어 있던 어머니가 변절했다는 불확실한 정보와 남한 출신자라는 이유로 중앙 기관지의 기자에서 지방 방송위원회 기자로 전락한다. 그리고 남파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김일성을 서사의 중심인물로 내세운 것의 의미는 이항구가 『소설 김일성』 발표이후 행해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소설을 썼다'고 말했다. '김일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상당 부분이 김일성 등 권력층의 모습을 그렸고 나머지 50%정도는 북한의 평범한 국민들을 묘사했습니다.<sup>24)</sup>

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실 그대로 보여줘야한다는 사명감'이란 표현을 통해 창작의식과 창작방법이 북한의 문예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비판적 사실주의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빚어낸 온갖 사회악과 부조리를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밝혀내고 그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중략)나아가서는 당대의 사회악과 지배자들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 반항과 투쟁정신을 고취하<sup>25)</sup>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의식을 지니

24) "김일성 알아야 北韓이해", 《동아일보》, 1993.11.4, p.15.

25) 리동수 지음, 『북한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김재남 해제, 살림터, 1992, p.16.

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항구의 작품은 그 비판의 대상이 자본주의의 권력자와 자본가가 아닌 북한의 권력자 김일성을 대상화함으로써 전도된 양상을 보일 뿐 북한의 문예 사상과 방법론을 근간으로 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작품이 지닌 정치적 성격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최광은 22년 전인 1969년 총참모장으로 있다가 숙청 당해 지방 공장 지배인으로 쫓겨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성질이 급하고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해 언행을 제멋대로 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처 김옥순도 해방 전부터 김일성 부대에서 '항일 무장 투쟁'에 참가한 직계 부하로 '혁명 일가'라는 제세를 부렸다. 그러나 좌천되었던 13년 동안의 모진 고생 속에서 그의 성격은 많이 바뀌었다. 매사에 신중해지고 어지간해서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입이 매우 무거운 인물로 변했다. 그래서,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 검은 테 안경을 걸친 기름한 얼굴의 무표정한 그에게 '군복 입은 돌부처'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sup>26)</sup>

『소설 김일성』에서는 최광 뿐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실존 인물들에 대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인물들로는 김정일, 김성애 오진우, 장성택, 오극렬, 이을설, 황장엽 등이 있다. 이러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그의 다른 저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북한 군부의 제1인자인 인민군 총참모장 차수 최광은 유달리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 온 인물이다. (중략) 69년 1월 군대내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해 황남 지방공장 노동자로 쫓겨 났다가 82년에 복권되어 정무원 부총리 직을 거쳐 88년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다시 군복을 입었고, 오진우(吳振宇)가 사망하자 명실공히 군부의 제1인자 자리에 올랐다. 좌천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질이 급하고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해 언행을 제멋대로 하였으며, 그의 처 김옥순(金玉順)도 김일성 부대 적식대원이었던 직계 부하여서 '혁명일가'라는 갖은 세도를 부렸으나, 지방 공장에 내려가 있던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겪은 후에는 매사에 신중하고 어지간해서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입이 매우 무거운 인물로 변했다. 그래서 작달막하고 단단한 체구에 검은테 안경을 걸친 기름한 얼굴이 늘 무표정하여 '군복 입은 돌부처'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sup>27)</sup>

26) 이항구, 『소설 김일성』1, 신태양사, 1993. p.52.

이 글은 『소설 김일성』 발표 이후인 1995년에 발간한 『金正日과 그의 參謀들』에서 서술된 내용이다. 『金正日과 그의 參謀들』에는 1980년대 북한체제 내 실제 지도 부들과 김일성과의 관계를 수기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최광 이외에도 당 선전선 동담당 김기남, 시나리오 작가 백인준, 총리 강성산, 총리대행 김달현, 국가계획위원장 홍석형, 당 공안·행정담당비서 계응태, 무력부 보위국장 한영옥 등 북한 체제를 유지하며 지배하는 핵심권력집단에 대해 작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책은 김일성이 1948년 7월 8일 사망한 후 나온 책으로 정치적 성격을 보여준다. 서문에서 또한 이항구는 ‘김정일과 그 참모들이 어떤 상호 관계를 맺고 어디에 역량을 집중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현실을 올바르게 알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sup>28)</sup>고 밝히며 저술의 목적이 정치적인 동기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항구의 소설에 나타나는 김일성과 권력집단내 인물들의 형상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인물들에 관한 서술이외에도 북한체제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분석적인 서술 또한 있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이양 작업은 김평일의 짐작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 작업은 김일성의 구상과 지도에 따라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와 당사상 담당 비서 황창엽<sup>29)</sup>, 그리고 김정일의 매제인 중앙당 청년 및 3대 혁명 소조부장 장성택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었는데, 1980년대 말부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바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호시로 가혹화된 동구 공산권 여러 나라들의 자본주의 체제에로의 회귀와 공산권 중심이던 소련의 급속한 변화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심대한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끼쳤다. 더구나 1990년 9월 30일, 소련이 한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한국의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하기에 이르자, 북한 지도층은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 더욱 심각한 고립을 실감하게 되었다.<sup>30)</sup>

위 글에서는 김일성 체제 유지를 위한 김정일로 체제 이양 작업에 대한 서술과 국제 사회 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고립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현실에 관한 서술은 정치 논평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치 논평적 서술은 작품의 정치적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작가가 지닌 북한 그리고 북한 지배체제에

27) 이항구, 『金正日과 그의 參謀들』, 신태양사, 1995. p.13.

28) 위의 책, p.8.

29) 황창엽의 오기로 판단된다.

30) 이항구, 『金正日과 그의 參謀들』, 신태양사, 1995, pp.110-111.

대한 탐구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체제로의 이양 작업과 관련한 서술은 작품의 초반부부터 서술되기 시작하여 3권에서 김정일이 원수 칭호를 부여 받고 인민군 창건일 60주년 기념일 행사로 작품이 끝나는 것을 볼 때, 작품에서 김일성과 지배체제에 대한 서술임과 동시에 북한 지배체제의 변모 양상을 담아내고자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정권의 부자계승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판의식이 표출된다.

작품이 지닌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 유일체제와 사상에 관한 것, 둘째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한 것, 셋째, 북한 지배집단의 대한 비리에 관한 것, 넷째 북한내에서의 정치적 폭력성에 관한 것, 다섯째는 북한 사회내의 신분적 차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같은 맥락이다.

김일성, 김정일 유일 체제에 대한 비판은 작품 전반에 나타나지만, 유일체제의 기반이 되는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갑산파가 1950년대 중반 반종파투쟁의 과정에서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파를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독재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맑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두고 민족의 자주성과 사상적 독립성을 수립하려는 목적에서 창안되었으며 김일성 중심 독재체제의 이론적 토대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기원과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 이론가인 황장엽의 증언적 진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55년 12월 28일에 당 선전일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김일성이 주체는 조선혁명이라고 지적한 사실이다. (중략)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아 그것을 새로운 김일성 저작집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 문건이 김일성이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지적한 문건인 것은 틀림없었다.<sup>31)</sup>

황장엽의 진술은 주체사상에 대한 기원 뿐 아니라 근본 원리와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북한의 기본노선을 또한 밝히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입장과 근본방법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이며 견지해야 할 기본노선과 정책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것이다.’<sup>32)</sup> 로 요약된다. 황장엽이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하기 전인 1993년

31)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시대정신, 1999, pp.130-131.

32) 황장엽, 위의 책, p.133.

『소설 김일성』에 주체사상에 대해 쓰여진 것을 고려하면 『소설 김일성』에 제시된 주체사상과 관련한 주요 문건들과 이론은 『소설 김일성』이 지닌 기록문화적 성격을 이해 할 수 있다. 『소설 김일성』에서는 주체사상의 기원, 기본 이념, 발전양상, 그리고 1982년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주체 사상에 대하여’란 사실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주체사상에 대해 심도있는 언급들을 하고 있다.<sup>33)</sup> 그리고 황장엽이 남한으로 망명하기 이전 시점에 주체사상의 실질적인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황장엽을 작품에 등장시켜 주체사상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과 외부 비판들을 서술하며 주체사상 확산에 장애되는 요인들을 해결과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지닌 모순들이 구체적으로 진술된다. 비판의 요지는 주체사상이 독재자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며 체제 유지 무기라는 것이며, 개인 숭배의 합리화 논리라는 점, 인민 대중의 희생적 노동 동원을 극대화하는 논리라는 점, 정통성을 조작, 확보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점과 끝으로 계급 투쟁의 논리라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적 서술은 이 작품이 지닌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중심의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의 모순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정치사상적 측면의 비판적 언급의 진술은 이 작품의 정치소설적 성격을 선명히 보여준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한 작품내에서 비판적 형상화는 김일성의 대남전략과 관련한 직접적 진술과 더불어 이정훈이 간첩으로 남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려진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이 동시 가입한 이후 제4차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정식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주재하에 ‘대남 공작 분야에 제기된 당면 과업’을 토의하는 대남 공작 분야 일꾼 확대 회의가 열린다. 이곳에서 김일성은 간부들에게 북과 남의 화해와 교류라는 평화적 분위기에 휩싸여 혁명 과업에 대한 나태함을 꾸짖는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다시금 당 규약에 명시된 남한의 혁명화와 해방이란 목표를 주지시키며 실천적 방법들을 제시한다.

니런 관점에서 내래 대남 공작 분야 일꾼들한테 몇 가지 당명 과업들을 제시하겠어. 첫째로, 국제 정세래 매우 복잡하구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현시기에 남조선 혁명의 기본 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 격랑을 보분하는 동시에 기결 부단히

33) 이항구, 『소설 김일성』3, 신태양사, 1993. pp.152-153.

추적하구 장성시켜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야.(중략)넝째루, 반혁명을 고립시키구 혁명 격랑을 작성시키는 모든 사업에서 인민 대중을 정치적·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선차적인 문제루 제기해서 주체 사상을 전파, 확산시키는 사업을 비롯한 사상전을 대담하게 전개하라는 거야. 동무들!<sup>34)</sup>

남북이 화해 분위기 일 때, 김일성이 대남 공작 분야 인사들에게 남한의 혁명화를 고취시키며 방법론을 연설하는 장면은 남한 독자들에게 김일성과 북한지도부의 외교정책에 있어 이중성을 폭로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리고 작품에서 북한지도부의 기만적 행태는 남한출신자의 이정훈의 남파를 위한 훈련과 절차의 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면화된다. 대남외교 정책과 간첩남파 외에도 간접적으로도 남한의 분리 회책을 노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작품에서 주체 사상연구소 부소장인 강상구가 황장엽을 만나 건네는 자료는 ‘남조선 인테리와 학생들’에 관한 자료로서 남한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남한의 혁명화의 도구로 북한이 이용코자 함을 보여준다.

"우선 남조선 학생 운동권의 핵심이 수령 동지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동무들루 구성돼 있는 데는 아무런 변화래 없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이백삼십여 개 대학들 가운데 백칠십 개 중요 대학의 총학생회래 망라된 전대협이 주사파 학생들에의해 지도되구 있습니다. 서울의 모대학 신문에 이러한 기사래 실렸습시다."

"어드런 기사?"

"주체 사상이 유물 변증법을 계승하되 그 일면성을 극복한 사상 체계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뉴턴의 격학 법칙을 발전시킨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기섭니다."<sup>35)</sup>

작품에서는 강상구가 황장엽에게 주체사상의 남한의 파급됨을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이 언급을 통해 작가가 주사파 학생들의 활동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님을 보여준다. 즉, 작가가 지닌 남한 내에서 주체사상에 경도된 운동권 학생들의 친북 성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항구의 『소설 김일성』에서는 그이 남한의 대북기관에서의 활동 경력과 60-70년대 극심했던 반공주의적 사상으로 인해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북한 고위

34) 이항구, 『소설 김일성』3, 신태양사, 1993. pp.245-246.

35) 이항구, 『소설 김일성』3, 앞의 책 p.157.

층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북한의 정치, 지배체제에 대한 서술과 비판이 주를 이루며 정치소설적 성격을 선명히 보여준다. 작품내에서 이정훈, 이후재, 김철과 같은 북한 사회내에서 하위계층의 인물들을 통해 하위계층들의 물질적 궁핍과 신분차별에 따른 고난을 그리고 있다. 이정훈은 당 중앙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납파되었다가 검거되어 비전향장기수로 있던 어머니가 전향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지방 기관의 기자로 좌천된다. 이후 연인관계이던 강연실의 가족들에 의해 남한출신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만남이 가로막히게 되며 이들가족의 계략으로 인해 납파관점으로 선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정훈은 신분적 차별과 북한지도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니게 된다. 이정훈의 아버지인 이후재는 평양문학대학 출신이나 1950-60년대 문인등에 대한 숙청과 억압적이고 일률적인 문예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며, 문인으로써 꿈을 접은 인물이다. 이 인물은 작가 자신이 투영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청소년기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과 월북의 과정, 북에서의 『청년문학』을 통해 <생명><sup>36)</sup>이란 작품이 당선되어 등단 한 것, 남한 출신자로서의 차별의 경험 등으로 그려진다. 이로 인해 이후재가 지닌 북한 체제와 문예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곧 작가의 인식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김철은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노동자로 일하던 아버지의 허무한 죽음에 격분하여 사회체제와 기업소의 간부들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쓴 죄로 퇴학당한 후 노동자로 전락한 인물이다. 그는 기업소의 시설을 파괴하며 북한 사회에 대한 저항적 행위를 실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하위계층들의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지도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소설 김일성』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자전 소설적 작품

자전소설은 ‘저자 자신이 주인공과 동일인임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자가 그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저자 자신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때문에 작가와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허구의 텍스트들을 자전적 소설이라 부를 것이다’<sup>37)</sup>라는 필립 르죈의 정의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자전소설은 한

36) 이항구는 실제로 『청년문학』을 통해 <안전띠>라는 작품을 통해 북에서 등단하였다. 작품에서는 이후재의 등단작으로 <생명>을 들고 있다. 그 내용은 ‘비료 공장에서 질안직장 110m 높이의 굴뚝 위에 올라가 일하다가 실족하여 떨어졌지만, 안전띠에 매달려 목숨을 건진 동료의 얘기를 쓴’(『소설 김일성』2, p.142) 작품이라 설명함으로 통해 리후재가 작가가 투영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37) Philippe Lejeune,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p.35



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서사가 이뤄짐으로써 성장소설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성장서사의 구조는 세계와의 대면과 이로인한 성찰과 각성이 드러나며 작가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 형성 혹은 변화되는 과정의 서사가 전개된다.

북한이탈주민 다수의 작품이 수기적 면모를 지님으로 인해 자전소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기와 자전소설의 차이는 허구성의 정도에 달려있다. 수기는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기억을 통해 재현하기에 허구성이 상대적으로 덜 가미되나, 소설은 그 장르적 성격으로 인해 허구성이 좀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소설에서도 실제 인물, 혹은 실제 사건, 공간 등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작품은 사실성을 강조하는 북한 문예이론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그 유형과 방식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김대호의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의 경우처럼 자신과 동일시 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린 시절부터 탈북 과정까지를 그리며 전형적인 자전소설적 성격을 보이는 작품이 있으며, 전철우의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의 경우처럼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작가의 주변인물을 내세우며 작중 관찰자로서 자신이 체험을 그려내는 작품도 있으며, 김유경의 『청춘연가』의 경우처럼 작가와 동일시 되는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이탈주민을 내세우며 직접 서술과 함께 회상의 형식으로 작가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일화들을 서사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전적 특성은 작품을 통해서도 파악되지만, 작가의 서문이나 후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처음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한 것은 수기였다. 그런 것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 형식을 빌렸다. 자전소설을 쓰는 동안에 견지한 원칙이 있다면 북한 사회에 대한 제도적 비판을 떠나 나의 지난 추억과 더불어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애정과 의리를 가지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sup>38)</sup>

이 소설은 나와 함께 동독에서 공부하던 북한 유학생 친구인 권승혁(소설에서는 김성혁으로 지칭됨)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중략) 얼마 전, 나는 이전부터 품어오던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송 녹화를 끝내고 돌아오면 밤을 새며 전력을 다해 미친 듯이 소설을 써내려 갔다. 그들의 이야기가 원고지로 옮겨지는 것과 함께 그들로부터 멀리 탈출하고 싶었다.<sup>39)</sup>

38) 김대호,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하, 예음, 1997, pp.366-367.

39) 전철우,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상, 시아, pp.5-7.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거다듬어 소설을 집필하도록 나의 등을 떠민 것은 내 고향 사람들의 수난이었다. 너무도 비참해 스스로도 부끄러운 삶의 설움이 저도 몰래 터져나왔다. 다만 이 소설은 고통의 일부만을 그렸다. (중략) 북한 사람들과 탈북자들의 힘겨운 삶을 진실 그대로 충실하게 그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연민을 얻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 40)

김대호는 직접적으로 수기를 창작하던 중 소설형식으로 변형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 언급을 통해 소설형식으로 창작한 이유가 작품내 인물의 언어 습관과 행위가 북한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 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서술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존재 구속성이 작품을 창작하는데 큰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즉, 이들이 창작행위가 작품을 통해서 북한 체제와 문화를 보여주고 알리려는 측면이 있는 것과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와 문화에 대한 서술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전철우의 서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창작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전철우는 동독에서 유학생으로 체류하며 동료의 연애를 이해하나 이들의 관계가 당에 의해 발각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여야 했음을 서문과 작품을 통해서 고백한다. 이러한 전철우의 동료에 대한 죄책감은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는 가족과 친지를 두고 떠나옴으로 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자신들로 인해 겪게될 가족과 친지들의 고초에 대한 죄책감으로도 치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변형되며 억압적인 북한체제 하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연민의식으로도 나타난다.

김유경은 현재까지 조사된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작가 중 유일한 여성작가이다. 그래서인지 섬세한 필치로 자신의 내면풍경을 그려냄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삶의 궤적들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그려낸다. 그녀의 작품은 자신의 체험과 더불어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일화들을 토대로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자전소설적 성격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자전소설적 양상과 내면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김대호의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은 1997년에 첫 발간 되었으며, 2004년 『영변

40)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pp316~317.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의 원작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두 작품간 가장 큰 차이는 형식상에 있어서는 자전소설적 경향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며 서사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이고 내용상으로는 핵발전소와 이와 관련한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서술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두 작품 중 자전소설적 성격이 두드러진 『연변에 약산 진달래꽃』를 통해 자전소설에서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화 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자전적 성격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변에 약산 진달래꽃』에서는 작가의 실명(?)을 그대로 작중 인물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민학교 시절부터 청소년기, 인민군 복무 시기, 핵관련 시설 재직 시기를 거쳐 강제노동집결소, 중국 연길에서 남한으로 망명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는 북한의 신분질서에 대한 인식과 이웃이자 연인이었던 은실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중후반부에는 핵관련 시설 재직시기 일화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60여 명의 우리 학급에는 간부집 자식들이 많았다. 김원호(현재 수리공학 기사)의 아버지는 군 인민위원회 교육담당 부위원장이었고, 이종혁(현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촬영가)의 아버지도 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그리고 교장 아들인 염기일(현재 단천제련소 근무)과 교무부장 아들인 김경용(현재 인민군 군과) 등 대부분이 아버지가 기관 기업소의 간부로 사임하는 집 자식들이었다. 당연히 학급에서는 내가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것이다.<sup>41)</sup>

어린 시절에 관한 서술 부분에서의 주요 내용은 낮은 신분의식과 이에 따른 당 고위층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당 고위층 자녀들과의 갈등 구조는 북한 체제가 지닌 신분 질서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신분 제도는 해방직후인 1946년 2월 8일에 조직된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민주 기지 창설 노선’에 따라 실시된 민주 개혁의 전개의 일환으로 신분조사와 계급 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1958년부터 중앙당 집중 지도와 1964년 주민 등록 사업을 거쳐 1971년 2월에 3계층 51개 부류로 성분을 분류함으로써 체계화 되었다.<sup>42)</sup> 김대호의 작품 이외에 대다수 북한이탈주민 작품에서 신분에 따른 계급차별과 계급에 따른 갈등의식, 신분상승의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북한 사회가 지닌 신분에 따른 수직적

41) 김대호, 『연변에 약산 진달래꽃』상, 예음, 1997, pp.18-19.

42) 이성우 외 6명,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89, p.239 참조.

구조가 북한이탈주민 작품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갈등구조의 근간으로 파악된다. 작품에서는 대호는 당간부 출신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부러움과 아버지가 중국 출신자여서 낮은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가계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려진다. 그리고 ‘나는 이답에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문을 빛낼 테야!’<sup>43)</sup>라는 다짐을 통해 신분 상승의 욕망을 표출한다. 이러한 욕망은 당간부 자녀들과의 대립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난다. 안전부장의 아들과의 패싸움은 상층집단에 대한 도전 의식으로 치환된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신분 질서는 연애에서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작품에서 연애는 김대호, 남한 출신자 가족인 은실, 당간부 집안의 정혁의 삼각구조를 지니고 있다. 은실과 어려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지니는 대호는 청소년기가 되자 은실과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시당 간부의 자녀인 정혁의 은실에 대한 연모가 개입되며 대호와 정혁은 갈등을 겪게 된다. 대호는 정혁을 찾아가 모욕을 준다. ‘그는 그렇게 다섯 번이나 반복하여 강에 뛰어들어 물쭉 흥내를 내었고, 나와 친구들은 흥미 있는 구경거리에 웃음을 터뜨리며 즐겼다. 또한 나는 그 잔인한 오락을 통해 비천한 신분으로 모욕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었다.’<sup>44)</sup>는 언급을 통해 대호가 정혁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은실과의 연애문제 뿐 아니라 신분의식에 따른 일종의 콤플렉스에 기인한 것이다.

대호와 은실의 관계는 은실의 신분적 몰락과 함께 끝이 난다. 같은 마을의 이웃이었던 남한출신자 집안의 은실은 아버지의 간첩혐의로 집안의 몰락과 신분의 전락을 겪는다. 동향의 남한출신자였던 최진수와 가까운 관계로 지내던 은실의 아버지는 평소에 함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곤 하였다. 이후 최진수가 월남을 감행하다 체포되자 은실 아버지에게 남한 가족들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 받은 편지가 수사기관에 발견되어 은실 아버지 또한 투옥되어 고문을 당하게 된다. 간첩 혐의를 받은 은실의 아버지가 자살하게 됨으로써 은실은 반동의 딸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래서 은실은 인민군 협주단에서 생활제대<sup>45)</sup>를 당하고 식료품공장으로 가게 된다. 은실이 식료품공장에서 일하던 시기 정혁이 다시금 그녀에게 구애를 하나 은실은 대호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해 거절한다. 그리고 김대호 집안의 반대와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대호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은실은 대호와 헤어질

43) 김대호, 상, 위의 책, p.26.

44) 하, 위의 책, p.102.

45) 남한식으로 말하면 불명예제대이다. 북한에서 생활제대자들은 열악한 조건의 직장에 배속된다든지, 당 입당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다.

것을 결심하고 군사 건설단에 지원한다. 그곳에서 군사부장인 정혁이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고 임신하게 된다.

이러한 은실이의 신분적 전락 과정은 북한의 신분질서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의식과 북한 사회의 상층계급들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설마하고 떠나나섰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인간의 도덕적 윤리와 정의를 부르짖는 당간부가 차마 그렇게 사람이 아닌 승냥이가 되어 저를 산 속에 끌고 들어가 강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중략) 그러나 저는 매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한테 유린당한 거예요. 제 동창생의 아버지한테 말예요.<sup>46)</sup>

은실은 대호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 정혁의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음을 알린다. 이 부분은 자전적 요소일 수도 있지만, 소설적 허구성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간을 당해 임신까지 한 여자가 연인이었던 남자에게 자신의 강간 사실을 연인에게 알린다는 것은 북한의 보수적인 남녀문화와 성에 대한 문화를 고려했을 때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된 것으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든 허구이든 이러한 서술이 지닌 의미이다.

작가 김대호가 이후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을 개작하여 발표한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를 통해 ‘당 간부가 차마 그렇게 사람이 아닌 승냥이가 되어 저를 산 속에 끌고 들어가 강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란 표현의 은유적 의미를 알 수 있다.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에서 개작 이전 작품과 비교해 가장 주목되는 내용상의 변화는 작품내 김정일을 비롯한 최고 권력집단의 등장과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색채가 강화됨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의 망명이후 북한체제가 지닌 모순에 대한 인식이 선명해지며 강화된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이후에도 북한체제에 하에서의 습성으로 내면적 욕망 및 비판의식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기검열적 태도로 인해 억압당함으로써 이들의 작품은 북한 사회만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탈북과 탈북이후에 체험하는 개인적 고뇌와 죄책감 등이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 인식되며 작품의 정치성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실의 당간부에 의한 강간 장면과 배신

46) 상, 위의 책, p.278.

감은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에서 중심인물인 김혁이 탈북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며 북한체제에 대해 지니게된 배신감으로 해석된다. ‘김혁은 다시 한번 김일성, 김정일에게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다. 속고 살아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치관의 뿌리까지 완전히 세뇌를 당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던 것이다’<sup>47)</sup> 이처럼 자신을 짝사랑 했던 이의 아버지에 의한 강간은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배신감의 은유인 것이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이외에도 『장백산』, 『장군님 죽갔시오!』의 경우도 신분 인한 내적 갈등과 신분적 갈등이이 빈번히 그려진다. 이러한 신분제도는 개인이 아닌 집안 단위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공식적인 성분 분류에 따르면 항일 투쟁에 희생된 자의 가족을 혁명 유가족으로 6.25 전쟁 당시 비전투원으로 희생된 자의 가족을 애국 열사 유가족으로 지칭하며 핵심 계층으로 간주하여 당, 공직, 군간부에 임용된다. 이러한 공식적인 신분제도가 지니는 허위성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북한사회는 김일성·김정일 가계를 중심으로하여 8.15 해방전 김일성과 함께 항일 혁명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특별한 예우와 사회적 진출시 특혜를 배풀며 김일성·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인물들로 대우한다. 이에 반해 항일혁명과 민족운동에 투신하였더라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갑산파와 갈등 관계였던 계파들에 대하여서는 반당, 반혁명분자, 종파 분자로 규정지어 숙청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하였다. 그리고 해방전후 노동자와 농민 신분으로써 당의 체제와 규범을 잘 수행하는 이들을 일반 인민으로 여기며 당에 대한 충실도와 업무의 성과에 따라 당에 입당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재일교포, 남한출신자, 만주 이주자에 대해서는 진학과 직업에 있어서도 제한을 둬으로써 차별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반당분자, 친일 경력자, 북한 건국이전 지주계층이나 자본가 계층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소에 억류함으로써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계급 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북한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이상과는 모순되며 김일성·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계급사회임을 그려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47) 김대호,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 북치는 마을, 2004, p.346.

## 제2절 남한작가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소설 유형별 작품 분석

### 1. 고발 소설적 작품

박덕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작가이다. 그는 1996년 『한국소설』 가을호에 <노루사냥>을 발표하여 이들을 대하는 남한인들의 태도와 북한이탈주민들 간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갈등을 그려내었다. 이후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동서문학 겨울 1996), <기러기 공화국>(문학정신 봄, 1997), <기러기 공화국>(문학정신 봄, 1997), <청동오리>(문예중앙 겨울, 1997), <동화 읽는 여자>(동서문학 봄, 1998), <세 사람>(동서문학 봄, 1998)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묶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웅진출판, 1998), 『고양이 살리기』(청동겨울, 2004)<sup>48)</sup>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작품의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아니나 북한이탈주민의 내면 풍경을 은유적으로 그려낸 <고양이 살리기>, <식인일기><sup>49)</sup> 또한 있다.

현재까지 많은 한국작가들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등장시킨 혹은 관련된 소설이 발표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작가는 단편적인 관심에 그치며 작품 발표에 있어서도 일회적인 것에 그치며, 대중소설적인 작품에서는 간첩, 군인출신, 정보요원 등의 지닌 인물을 내세우며 한 개인으로써의 형상화가 아닌 북한과 동일시 되는 인물이 라던지 혹은 상징적인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영합하고 있는데 비해 박덕규의 작품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는 평범한 북한이탈주민을 등장시켜 그들이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문제와 남한인들의 이들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그려내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이유로 박덕규의 북한이탈주민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이들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초기작인 <노루 사냥>,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북한이탈주민 소재 첫 작품인 <노루 사냥>은 1994년 말 귀순한 함경도 출신 박당삼을 중심으로 그를 이용하고자 하는 남한인 사업가를 그리고 있으며,

48) 『고양이 살리기』(청동겨울, 2004)에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웅진출판, 1998)에 발표된 <노루 사냥>, <단식>, <청동오리>,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이 실려있다. 중복 발표한 작품중 <단식>을 제외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인물로 내세운 세 작품인 다시금 실은 것을 통해서도 이들에 대한 작가의 꾸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49)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 청동겨울, 2004.

50) 이성희는 박덕규의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한 소설을 대상으로하여 자본주의 체제에 노출된 이들의 심리적 적응 문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를 고찰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이성희, 앞의 논문.)

당간부 출신자에 대한 박당삼의 복수를 그리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 박당삼이 시식자인 북한 보위부장의 아들 유성도에게 생아편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여 독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나, 작품의 전반은 아내인 오지혜의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남편의 박당삼에 대한 태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박당삼은 남한에 온 이후 이전 북한에서의 요리사 경력을 통해 호텔에서 북한 음식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객들의 호기심과 반응이 시원치 않던 중 그를 이용해 ‘요리 학원’을 부흥시키려는 요리학원 원장의 남편에 이끌려 방송국의 요리 특강을 하게 된다. 여기서 뚜렷히 드러나는 점은 요리학원 원장의 남편은 그를 사물화된 타자로 대하는 태도와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인물이다.

"아 새끼, 꼭 인민군 패전병같이 해가지고……."

그를 요리 강사로 추천했던 남편마저도 그가 요리학원에 처음 출근하던 날 그렇게 말하곤 찌익, 하며 침 뱉는 소리를 냈다.

(중략)

"그 자식이 머 써먹을 데 있다고 자꾸 끼고 노나 그래.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다가 잘 구슬려서 북한 부동산 얘기나 쓰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sup>51)</sup>

원장의 남편의 박당삼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요리학원 원장의 남편은 북한이탈주민인 박당삼을 그의 사업 발전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원장 남편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된다. 그는 빌딩의 주인으로써 세를 받고 있으며, 아내의 요리학원을 돕기 이전 출판사를 시작했으나 잘 되지 않아 폐업한 상황이다. 그래서 박당삼을 이용해 요리학원의 발전시키려 방송출연을 기획한다. 그는 이후 통일되면 북한에서의 사업도 구상중이다. 이처럼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만을 생각을 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 중 북한 고위층에 있던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재가 함흥에 마누라를 두고는 평양 가서는 처녀 여럿 울렸대. 그걸 별 거리낌 없이 얘기하더라니까. 고위층 가족 얘기는 저 친구만큼 아는 놈이 없더라구. 새끼, 북쪽에서도 땡땡거리고 잘 살다가, 그걸 남쪽에다 정보로 팔아먹고, 기자회견하고,

51) 박덕규, 「노루 사냥」,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p.53.



책 내세 인세 받아먹고, 연예인들이랑 어울려서 잘 살고……. 개판이야, 개새끼들!”<sup>52)</sup>

이처럼 북한에서 고위층 출신인 유성도에 대해서도 원장의 남편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북에서 하층민이었던, 상층민이었던 남한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남한에서 경제적 하층민으로써 혹은 북에 대한 배신자로 인식됨으로써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2등 국민으로 여겨짐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원장 남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지니고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심하는 남한인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작품의 결말부분에 박당삼이 탈북하며 검거될 때 먹고 죽으려고 보관하던 생아편을 유성도에게 먹여 살인을 시도하자, 하는 발언을 통해서도 원장 남편의 전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새끼, 미친놈이잖아. 이 새끼 땀에 우리 사업 다 망쳤어. 확 죽여 버릴까, 이걸!”<sup>53)</sup> 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유성도의 죽음도, 유성도를 독살을 시도 할 만큼 박당삼이 지닌 상처에도 무심하며 그저 자신의 사업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을 통해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비인간성과 이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당삼이 유성도에게 방송촬영 중에 살해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북한권력층에 대한 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박당삼을 통해 그려진 북한의 하위 계층이 남한으로 귀순이후 남한에서 다시금 재회한 이전 북한의 권력층에 대한 복수심은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에>에서 이어진다. 이 작품은 북에서 보위부 간부로서 탈북하는 북한주민을 잡는 노루 사냥꾼이었던 염정실과 그를 남한으로 귀순시킨 김선생, 출판사의 최사장, 그리고, 염정실을 이슈화 시키려는 김선생의 계획으로 염정실의 일화를 토대로 한 책의 집필을 맡은 고창규, 형이 염정실에게 잡혀 죽어서 그녀에게 복수심을 지닌 정남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주된 서술은 남한 사회의 타락한 유흥문화에 대한 비판적 서술과 정남의 염정실 살해가 두 축이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를 알려면 한국의 단란주점에 가면 된다. 장기간 외국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김선생은 그 사실을 깨닫고 껌쩍껌쩍 놀라곤 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홍콩도 미국도 일본도 한국에서의 변화만큼 급격하고 휘황

52) 박덕규, 위의 작품, p.61.

53) 박덕규, 위의 작품, p.65.

찰란하지는 않았다. (중략) 누구는 쓰러져 자고 누구는 싫다는 여자애를 침을 질질 흘려 가며 빨아 대고 누구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먼저 나가 버리고 누구는 그래도 무슨 질서를 잡아 보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구경을 외쳐 대는 이 기상천외한 풍습을, 이 나라 방방곡곡 사람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sup>54)</sup>

인용문에서는 남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단란주점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작품의 배경은 단란주점이다. 한국의 자본주의체제의 타락한 유흥문화의 상징인 단란주점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작품의 곳곳에 그려진다. 그리고 밀실인 단란주점에는 돈, 권력, 성에 대한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 모여 있다. 이 곳에서 김선생, 최사장, 고창규, 염정실이 책을 탈고한 기념으로 술자리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막노동,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남한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정남이 위안삼아 오는 곳이기도 하다. 즉, 정남의 단란주점 행은 곧 남한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든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외로운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김선생과 최사장은 자신의 지위와 돈에 여념이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김선생은 남한의 첩보기관에서 근무하며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이끄는 인물이다. 그는 북한주민 탈북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내 자신이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우려해 의욕적으로 비교적 고위직인 염정실의 탈북을 이끌었다. 하지만, 기관으로 파면되어 권력욕에 목마른 인물이다. 최사장은 대학생시절 운동권 학생이었으나 김선생에 의해 쫓나폴로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이후에도 김선생과 최사장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의 욕망을 추구한다. 이러한 최사장과 김선생의 관계는 금권결탁을 의미하며 권력을 욕망하는 자와 금력을 욕망하는 자의 결합으로 생성된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드러낸다.

꼭이 김선생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김선생을 비롯해서 최사장이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분을 맺어 온 사람들이란 것이, 결국 모두들 겉으로는 그럴싸한 표정으로 웃고들 있지만 날이 갈수록 구차하게 제 실속만 차리려 드는 불품없는 인간들이었다.<sup>55)</sup>

54) 박덕규,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p.110.

55) 박덕규, 위의 작품, pp.108-109.

인용문에서처럼 김선생과 최사장의 관계는 남한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지닌 인간관계에 있어서 허위성에 대한 비판의식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내 문제점들을 전반에 그리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형상화와 이들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단편적으로 그려진다. 앞서의 <노루사냥>에서도 박당삼이 유성도를 살해하는 것과 정남이 염정실을 살해하는 것은 남한에서의 이들간의 갈등의 가능성을 소설적 상상력으로 극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북한의 상층집단에 대한 분노로 상징화 될 수 있다. 이렇듯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을 형상화한 남한작가의 서사는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인물로 내세우며 이들의 부적응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는 하나, 작품에 주제의 식과 내용전개는 결국 남한이 지닌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들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대중 소설적 작품

북한이탈주민을 등장시킨 남한 작가들의 작품들 중 김정현의 <길 없는 사람들>(문이당, 2003), 김제국의 <적명>(인간과 자연사, 2003), 정건섭의 <황장업을 암살하라>(연인M&B, 2010), 김진명의 <제3의 시나리오>(랜덤하우스코리아, 2011)는 장르소설 혹은 대중소설<sup>56)</sup>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들의 작품이 지닌 대중 소설적 특성은 전형적 인물 형상, 흥미 위주의 서사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록 순수문학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문학적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 문단의 소설작품들이 순수 소설과 대중 소설이 상호 침투적인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중소설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방식 또한 남한작가 그리고 남한인들의 그들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으로써 의미가 있다.

김제국, 정건섭, 김진명의 작품에서는 작품내 북한이탈주민을 주변 인물로 다룸으로써 단편적으로나마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폭력적인 행태를 그려냄으로써 남북분단에 따른 개인들의 고통을 드러내려 하였다. 하지만, 작품내 주변 인물로써 북한을 상징하는 폭력적인 인물 혹은 동일 민족이라는 민족애적 감정이 투영된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화나 이들이 지닌 다양한 면모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들을 지닌다. 김정현의 <길 없는

56) 근래에는 대중소설이라는 용어보다는 장르문학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작품이 지닌 장르적 성격보다 작품이 지닌 흥미위주, 통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중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경우도 그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나, 작품의 중심 서사가 북에서 국군 포로 출신 아버지의 아들인 권장혁이 탈북이후 중국, 미얀마를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까지를 다룸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의 탈북과정에 면밀하게 접근을 시도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형상화 방식과 그들에 대한 작가적 인식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작품은 남의 비전향장기수인 김영식과 북에서 국군 포로 출신의 아버지(권오철)를 둔 권장혁의 서사가 두 축을 이룬다. 김영식과 권장혁이란 인물은 김영식의 딸인 김지숙으로 매개된다. 김영식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좌익계의 활동이 불법화 되자 월북하였다가 1962년 간첩으로 파견되었다가 검거된 인물이다. 이후 전향을 거부하고 26년간 비전향장기수로 복역 중이다. 권장혁은 북한의 신분에 따른 차별로 인해 탄광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이다. 이로 인해 체제 비판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며 탈북을 감행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나 그에게 남한의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김지숙은 북에서 혁명 열사 가족으로 우대를 받으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외로움 때문에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권장혁과 엮이게 되어 함께 남한행을 시도하게 된다. 이렇듯 작중 인물들을 통해 북은 부정적인 공간으로만 표현되며, 남은 상반되게 희망과 자유의 공간으로 이상화되어 그려진다.

그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모진 소망이 있었다 만약 그에게 그 소망마저 없었다면 아마 진자게 스스로 세상을 버렸을 것이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뿐인 자식만은 따뜻한 남쪽 아비의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내 자식 하나 정도는 돌봐 줄 형제가 있으며, 함께 어우러져 통곡하고 기뻐할 핏줄도 있으니.<sup>57)</sup>

‘따뜻한 남쪽’이라는 말을 통해 권오철에게 남한은 고향으로써 뿐만 아니라 북에서의 억압적인 체제와는 대별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권오철이 국군포로 출신임이 강조된다. 비전향장기수인 김영식과 함께 사상과 남북분단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전쟁세대를 의미한다. 북한은 권오철에게도 김영식에게도 부정해야 할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남은 이상적인 공간은 북은 억압적인 공간으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공간 인식은 이데올로기 시기의 이분법적 인식이 그대로 작품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북의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권장혁과 김지숙을 쫓는 리형철 대좌의 형상화

57) 김정현, 『길 없는 사람들』1, 문이당, 2003, pp.60-61.

를 통해서도 그려진다. 리형철은 정부의 명령으로 탈북한 그들을 중국에서까지 쫓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들의 부하를 죽이고 김지숙까지 데려간 권장혁을 악착같이 추적하며 폭력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에 반해 작품에 그려진 남한 인사들은 이들의 탈북을 적극적으로 돕는 선한 인물로만 형상화 되어 있다. 리형철 대와의 추적과 이들이 탈출을 돕고자 하는 남한 관계기관 사람들은 남북체제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과 갈등 구조를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리형철은 북한체제가 지닌 폭력성과 반인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며, 남한의 90년대 초반까지 군사정권 시기에 주입된 반공주의 사상에 의해 형성된 북한과 동일시 되는 절대악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인물 형상화와 이분법적인 대립구조가 <길 없는 사람들>의 대중소설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배면에 깔린 반공주의적 사상은 이에 경도된 작가 그리고 남한인들이 지닌 인식으로도 치환될 수 있다. 독자의 관점에서, 작품은 단순 명료한 이분법적 구조로 인해 어떠한 질문도 고민도 필요 없으며 기존의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순치되므로 이분법적 인식의 강화를 가져다 준다.

권장혁과 김지숙의 탈출 서사는 옌지시에서 투먼, 룡징으로 이어진다. 탈출이란 고된 과정에서 둘은 사랑을 하게 된다. 북의 국군포로 출신의 장혁과 남파간첩출신의 딸인 지숙의 사랑은 얼핏 보면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호적인 방식이 아닌 장혁의 지숙을 향한 지속적인 희생적 헌신을 통해서 이뤄지는 시혜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지숙을 보위부를 두 명을 살해하고 탈출시킨 것이나, 미얀마에서 지숙이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닙니다. 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게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을 버리 고는 나도 살지 못합니다.

장혁 씨, 부탁이에요. 날 버리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로 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루이리에서처럼 단 며칠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난 이제 혼자이기 싫습니다. 죽는 날까지 당신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무섭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sup>58)</sup>

58) 김정현, 『길 없는 사람들』2, 문이당, 2003, p.37.

장혁과 지숙이 미얀마의 마약 군벌인 평자젠에 의해 구원되었을 때 장혁이 지숙을 치료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 남한으로 가려는 상황에서 지숙은 장혁에게 가지 말라고 한다. 다소간 신파극적인 이 장면은 남파간첩출신의 딸인 지숙은 권장혁의 사랑의 대상임과 동시에 장혁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이는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체제에서 억압받는 불쌍한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반공주의인 통일 논리와 동일하다. 이러한 반공주의적인 통일 논리는 ‘흡수 통일론’으로 집약된다. 작품에서 김영식과 어린시절부터 친구이자 현재는 중앙정보부에서 대북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재열과 비전향장기수인 김영식의 대화 장면을 통해 통일 방식에 대한 견해가 파악된다. ‘허허…… 어떤가? 이 친구는 이제 그 옛날의 혁명적 통일론은 버렸을 것 같은데 자네는 여전히 흡수 통일론인가?’<sup>59)</sup>라고 윤박사가 말한다.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한 재열과 영식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정치학 박사인 윤박사는 기존의 남북의 통일론에 대해서 제3자적 입장에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재열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흡수 통일론이라고 말하지는 말게. 나는 도탄에 빠진 북녘 동포를 우선 생각하는 것뿐일세.’<sup>60)</sup>라는 말을 통해 장혁과 지숙을 관계가 곧 남북 관계에 대한 은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한 중심의 흡수 통일론은 반공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공주의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갈등 상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습적인 사유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작품이 지닌 반공주의적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들 중 대중소설적인 작품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작품의 결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상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장혁은 국군포로인 아버지를 데려오려 시도하고 비전향장기수인 영식은 전향을 하여 지숙과 만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듯 영식의 전향, 지숙의 남한행, 그리고 장혁과 장혁 아버지의 남한행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남한 중심적인 통일 논리가 작품의 기저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 제5장 남/북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방식의 차이 비교 분석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과 남한 작가의 소설을 등위에 두고 작품 전반을 비교하

59) 위의 작품, p.258.

60) 위의 작품, p.258.

는 것에는 난점들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작가가 지닌 문학과 북한사회에서의 삶, 탈북과정 혹은 이후에서 겪는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남한 작가의 것과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이데올로기와 삶에 있어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존재구속성을 지님으로 인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남북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방식의 비교 분석에 앞서 남북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작품 분석들을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작품에는 이항구의 <소설 김일성>의 경우처럼 북한체제와 권력층에 대한 형상화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비판의식이 두드러진 정치소설적인 작품으로는 김대호의 <영변에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 립일의 <소설 김정일>이 있으며 김대호의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의 경우처럼 자전소설 혹은 다른 탈북자들의 체험을 토대로 쓴 작품으로는 전철우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 이철원의 <평꼬>, 김유경의 <청춘연가>, 리지명의 <장군님 죽았시오!>가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소설적 특성과 자전소설적 특성은 명확하게 갈린다기 보다는 대다수 작품이 이 두 경향을 함께 지니고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직접적으로 실제 북한의 권력층을 등장시키지는 않더라도 당 간부와 권력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모든 작품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특히, 북체제에 대한 비판 중 작품들의 주요 갈등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은 신분적 질서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설 김일성에서는 작가의 자전적 서술로 보이는 남한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김대호의 작품에서는 또한 가계의 낮은 신분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그려지며, <장백산>과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의 경우처럼 신분질서에 따른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용소나 교화소와 관련한 서술이 작품들에서 그려진다. 이외에도 <평꼬>와 <청춘연가>에서는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과 고통을 겪는 북한인민들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작품은 2012년 발간된 김유경의 <청춘연가>나 유학생 출신인 전철우의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북한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지도층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북체제가 지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들이 탈북이후 겪게 되는 남은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 혹은 남은 북한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 이들의 작품은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 작품의 목적성은 북권력층에 대한 비판, 당간부와 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알리려는 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의식과 작품이 지닌 목적성은 북한의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이 지닌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남한 작가들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방식과 갈등양상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 작가들의 작품이 지닌 차이가 지닌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남한작가의 작품으로는 정도상의 <짚레꽃>을 북한작가의 작품으로는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작품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작가 작품들이 북한이탈주민 문제보다는 북한체제와 사회내에서의 갈등을 그려냄으로써 남한에서의 적응 문제를 살필 수 없으며 한국작가들의 작품의 경우도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약자로 혹은 북한체제를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로 형상화 함으로써 실제적인 북한이탈주민 형상화에는 못미치는데 반해 김유경의 <청춘연가>와 정도상의 <짚레꽃>의 경우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인물로 내세워 탈북과정과 남한에서의 적응 문제를 두루 서사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기에 비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 제1절 인물형상화 방식

분석에 앞서 두 작품의 특성과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면, 김유경의 <청춘연가><sup>61)</sup>는 정선화를 중심인물로 삼아 남한 하나원에서의 체류 기간에서부터 남한에서의 적응과 삶 그리고 중국에 있는 딸과의 재회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경옥, 복녀, 화영 등 주변 탈북여성들의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이 회고적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은 자전적 성격을 확연히 지니고 있다.

북에서 정선화는 선생님이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중 ‘고난의 행군’시기 갑작스런 배급의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며 아버지까지 잃게 된다. 이후 살아가기 위해 장바닥에서 장사도 해보지만 힘에 부친 일이었다. 그러던 중 인신매매의 유혹에 넘어가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게 된다. 선화는 중국 남자와 시어머니로부터 항상 감시 받으며 성적으로 착취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이후 그 남자의 딸을 출산하게 된다. 남자와 시어머니가 그녀를 조금 풀어주기 시작하자 그녀는 기회를 봐 딸을 두고 집을 도망나와 남한으로 향한다. 그녀는 하나원의 교육을 거쳐 서울에 집을 배경 받아 남한의 삶을 꾸려간다. 이후 조금씩 남한에서의 삶에 적응이 되어가자 두고 온 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결국은 예전의 중국 남편께 찾아가 딸과의 재회를 한다. 이러한 정선화를 중심으로 한 서사 외에

61)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도 남한남자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화영, 자신만의 힘으로 식당 차린 복녀, 노래방 도우미로 전전하는 경옥와의 관계와 그들의 과거 일화들이 서술된다.

정도상의 <짚레꽃><sup>62)</sup>은 연작소설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작품은 탈북여성인 충심을 때론 관찰자적 시선으로 때론 화자로 내세워 그녀의 탈북과 한국에서의 삶을 그려낸다. 충심과 충심의 사촌인 미향은 조선족 아주머니의 말에 쫓아 인신매매 탈북하게 된다. 조선족 깡패인 친구의 손에 이끌려 충심과 미향은 조선족 남자와 결혼한다. 미향은 남편과도 시아버지에게도 강간을 당해 임신하게 되나 충심은 합방을 강요받지만 버티던 중에, 나중에 그녀를 찾아온 친구의 손에 이끌려 빠져나오게 된다. 이후에는 중국의 안마방에서 일하던 중 순덕과 함께 남한선교사의 알선으로 남한으로 향하게 된다. 남한에서도 그녀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탈북 과정을 알선했던 선교사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다. 그녀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여 번 돈을 벌어서 북의 가족에게 보내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살아간다.

이처럼 <청춘연가>와 <짚레꽃>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중심으로 탈북과정부터 중국에서의 원치 않던 결혼, 남한에서의 삶까지 유사한 궤적을 지니고 있다. 현재 조사된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절대 다수가 남성작가이며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탈북 전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이후의 생활까지 서술되어 있기에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청춘연가>의 인물 형상화 방식의 가장 주된 특징은 다른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중심인물과 공통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인물상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선화는 북한에서 선생님이로 중국에서 원치 않던 중국인 남자와 결혼했지만, 폭력적인 중국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탈출을 감행한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가 ‘북한 사람들을 계몽하고 한국 사회에 북한을 바로 알리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sup>63)</sup>에서 일을 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간다. 그 방송국의 건물 이름은 ‘프론티어’이다. 정선화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긍정적으로 형상화되는 인물로는 복녀가 있다. 그녀는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부끄러울 수도 있는 자신의 과거를 웃으면서 말하며 주변과도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복녀는 하나원을 나온 후에도 식당일을 성실히 하여 돈을 모아 자신의 식당을 차리게 된다.

62) 정도상, 『짚레꽃』, 창비, 2008.

63) 위의 작품, p.119.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인물 형상화는 여타 북한이탈주민 창작 작품의 중심인물들이 지니는 공통점이다.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의 대호는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당에 입당하여 이후 고위직에도 오르는 인물이며, <장백산>의 강철민도 생활제대 후 로중광산에 배치되나, 그곳에서도 자신의 조직을 만들어 우두머리가 되고 지역의 불의한 무리와 맞선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중심인물들은 소영웅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중심인물들은 체제와 외부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내는 인물이다. 이는 이들 작품이 지닌 자전적 성격으로 인해 자기공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도 이해 될 수 있지만 북한의 문예이론과 창작 방식이 그들에게 내면화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창조하는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이란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투쟁대오의 앞장에서 있는 자주적 인간,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자기의 창작활동에서 마땅히 인민들의 요구와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과 그 대오의 앞장에 서있는 자주적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하여야 합니다.》<sup>64)</sup>

북한은 체제 특성상 법보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가 상위에 있으며 그의 교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모든 문예작품들이 그의 교시와 김정일이 창안한 주체 문예이론에 따라 창작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그들에게 내면화된 창작 원리에 따라 창작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긍정적인 인물 형상화는 ‘1980년대 10월 6차 당 대회에서 공산주의 인간의 전형을 ‘숨은 영웅’으로 규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sup>65)</sup> 여기서 ‘숨은 영웅’이란 김일성에 충실하며 자신의 맡은 직분을 성실히 해가는 이를 칭한다. 즉, 작품의 중심인물은 상황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헌신해야 한다는 북한문예사상과도 일치한다. 그래서 작중 인물은 전형적인 선인으로 형상화 되며 공공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인생에 대한 자부심? 흥! 그게 다 텅 빈 삶을 가리려는 허세지. 난 말이요. 지금도

64) 한중모, 『주체적문예이론의 기본1』, 사회과학출판사, 2010, pp.49-50.

65)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p.319.

잡고대를 하면 '동무들 우리 여전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위한 총폭탄이요. 우리 기꺼이 한목숨 바쳐 장군님께 충직한 딸이 됩시다'하고 외친다니까. 이게 바로 아주 열정적으로, 아니 거의 광적으로 살아온 내 인생이 모든 것이야."

"그래서 지금 북한 민주화를 위해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중략)

"내가? 그래. 지심으로 그걸 바라지. 난 밥벌이나 하려고 이 방송국에 다니는 게 아니야."

<청춘연가>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는 인물은 선화와 선화가 일하는 방송국 상사인 박애란이다. 박애란은 북에서 인민군 대대장 출신이다. 그녀는 이전 북한에서의 군생활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긴 하나, 어려운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소에 갈등을 빚던 이동화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말한다. 이러한 가치지향적 태도는 북한 문학작품에서 대개 형상화되는 인물상과 겹쳐진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작품의 이러한 전형적인 인물들은 경직된 도덕적 판단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경직된 도덕적 판단 태도는 '북한에서 교육은 물질적 측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가장 숭고한 삶을 추구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다른 경제적 보상을 해줄 능력도 제도도 가지지 못하였던 북한으로서 인민들이 계속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교육과 공산주의 도덕성의 호소밖에는 없었'<sup>66)</sup>기 때문이라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작중 긍정적 인물들은 물질보다 정신과 사상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집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작품에서 부정적인 인물들은 하나 같이 권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추구나 돈에 집착하는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청춘연가>에서도 여타 북한이탈주민 소설과 동일하게 간부 그리고 간부들의 자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물들로 묘사한다. 그리고 선화의 주변 인물로써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인물로는 경옥이 있다. 경옥은 북에서의 가난했던 기억으로 인해 남한에서 돈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 이러한 경옥은 선화와 복녀가 바로 잡으려고 한다. 이처럼 선화가 남한에서 한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자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과 벗어나는 경옥을 계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등을 통해 선화는 선각자적인 인물로써 그려짐을 알 수 있다.

66) 이영선, 전우택,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오름, 1996, 46. 참조.

<짚레꽃>에서 중심인물인 충심은 <청춘연가>의 선화와 유사한 삶의 경로를 살아가나 끊임없이 남성들의 폭력에 시달리며 방황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충심의 탈북은 그녀의 뜻이 아닌 폭력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 이뤄진다. 충심은 조선족인 갑봉과 춘구에 이끌려 원하지 않던 결혼을 하지만, 도망 나오는 것 또한 춘구에 의해서이다. 이후 안마방에서 일하면서도 조선족인 최옥화와 김화동에게 사기를 당하고 탈북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오히려 쫓기는 처지가 된다. 충심의 모습은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인으로 형상화된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 하지만 언제나 좌절되곤 한다.

온몸을 새우처럼 웅크리고 옆으로 누워 떨리는 몸을 막막하게 지켜보았다. 살아오는 동안,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다. 길의 끝이 낭떠러지가 분명한데도 그냥 가야만 했던, 돌아서고 싶었지만 인간의 의지를 비웃으며 저절로 걸음이 옮겨지던 속수무책의 순간들. 왜 다른 길로 가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다른 길로 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sup>67)</sup>

‘다른 길로 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통해 충심이 지닌 좌절감을 확인할 수 있다. 충심의 이러한 소외인으로써의 면모는 그녀의 변화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파악된다. 안마방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미나라는 가명을 쓰지만 중국인들에게는 메이나라 불리며 동거하는 한국인 사업가에게는 소소로 남한에서는 은미로 불린다. 특히, 어디에서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쓸 수 없고 불리어 질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상황을 대변한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소박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충심은 다시금 남자에게 기댄다. 기대는 남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혼남이다.

“한국에 데려다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충심은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랐다. 그만 울고 싶어졌다.

(중략)

“한 달만 나랑 살면, 반드시 데려다줄게.”

그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 말에 충심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그가 그토록 치사해 보일 수가 없었다. 상대방의 불우한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

67) 정도상, 위의 작품, p.150.

를 채우려는 인간들이 어찌 이리도 많은지...68)

이처럼 작품에서는 춘심은 나약한 존재로 조선족, 한국 남성들은 폭력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특히, 남한 출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는 구체적이며 반복적으로 서술된다. 위의 예시문의 남성처럼 남한행을 조건으로 동거를 요구하는 이도 한국인이며 그녀의 한국행을 주선하는 박선교사 또한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작품에서 박선교사는 종교인이나 한국행 브로커로써 춘심과 순덕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주기 보단 정확한 비용 계산을 강조한다. 박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는 춘심이 한국이 들어온 이후에도 그려진다. 이처럼 한국작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작품의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 사회 한국민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북한이탈주민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 박덕규의 소설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한국작가들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하는 작품이 이전 다뤄지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작품의 중심 인물로 내세움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가치는 지닌다. 하지만 타자적 시선으로 인해 정작 북한이탈주민의 내면적 갈등과 인식을 작품을 통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제2절 인물의 내적 갈등 양상

<소설 김일성>과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장백산> 등에서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은 북한 체제가 지닌 신분제도에 따른 계층차별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분 질서에 따른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북한체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체제적 평등사회라는 사상적인 면과 연관이 있다. 대개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계층차별에 대한 비판의식은 당간부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나타난다. <청춘연가>에서 이전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들과는 다르게 북한에서의 삶보다는 남한에서의 삶을 작품에 전면화하고 있다. 선화의 탈북은 고난의 행군시기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지만, 그녀가 남한으로 입국하려는 이유도 남한에서의 지향하는 삶도 하위계층에서의 이탈이다.

---

68) 위의 작품, p.162.

그들의 혐오와 멸시는 아무 이유도 없다.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들였다는 이유로 선화는 자기들하고는 절대로 동급이 될 수 없는 인간 이하인 것이다. 선화가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야랑곳없다. 선화는 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순종하며 살아야 했다. 쓰디쓴 혐오감은 늘 가슴을 허비었다. 그녀는 자신도 멸시하고 그 남자도 멸시했다.<sup>69)</sup>

선화는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간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감시 그리고 폭력 모멸적인 대우에 좌절하고 절망한다. 심지어 남편과 남편의 친척에게 윤간을 당하기도 한다. 선화가 바라는 것은 동급의 인간으로써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녀에게 남한은 희망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녀들에게 조국이란 정치적인 개념보다 어버이처럼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다.’<sup>70)</sup>라는 말을 통해 그녀가 남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간파할 것은 낯선 공간에서 타인으로 살며 겪은 고난으로 인해 조국의 의미는 그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각별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인식은 북한 사회주의의 국가주의적 사고와도 유사성을 띤다. 김일성을 아버지로 당을 인민의 보호자로 인식시키는 북한에서의 인식 방식이 그대로 전이된 것이다.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의 작품에서 그러하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과 증언적 진술이 빈번한 것에 비할 때 남한에 대한 그리고 남한사람들에 비판의식의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김대호의 <영변에 약산에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에서 북한체제의 핵개발에 대해 알리려는 그를 제재하는 남한당국자들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하나 남한인 그리고 남한사회가 지닌 문제들에 대한 비판은 북한이탈주민 작가 작품에서는 표면화 되지 않는다. <청춘연가>에서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단편적으로 그려질 뿐이다.

선화와 하나원에 함께 머물던 강화영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다. 고급 자동차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강화영은 행복에 빠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녀의 정착금을 빌려간다. 이후에 그 남자와는 연락이 안되자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영은 ‘누구를 탓하랴. 모든 것이 자기 허영심 탓이다. 제 손으로 벌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덕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을 한 자기가 자초한 일이다.’<sup>71)</sup>라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울분을 삼킨

69) 김유경, 위의 작품, p.61.

70) 위의 작품, p.88.

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선화와 복녀도 그녀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만 그 남자에 대해서도 남한 사회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남한 사회에 대해 두려운 느낌을 서술할 뿐이다.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진술이 표면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남한 사회와 남한인들에 대한 부채의식 그리고 자격지심에 기인한다.

그래서인가 남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늘 소심해지고 마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 못살고 낙후한 제 고향을 탈출하여 더부살이처럼 얽혀 있는 신세라는 자격지심이 눈치를 보게 한다. 사실 많이 송구하고 고맙다. 남한 사람들이 피땀 흘려 잘사는 나라를 세우는 데, 우리 탈북자들은 벽돌 한 장 올린 적 없고 세금 한 푼 낸 적도 없다. 그래도 남한은 빈손으로 살길을 찾아온 탈북자들을 품어주고 정착 지원을 해준다.<sup>72)</sup>

‘작가의 말’을 말을 통해 김유경은 창작의 동기와 심경을 밝힌다. 남한에서 소수 자로써의 소심해질 수밖에 없음과 남한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인식은 김유경만의 것이 아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심리로 인해 <청춘연가>에는 남한인과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작중 다른 인물을 통해 언급된다.

"우선 제일 맘에 안 드는 거. 끼리끼리 사람 가림 너무 하는 거야. 잘 난 사람, 있는 사람만 사람이구. 저 북쪽으로 말하면 즐기 없는 사람은 애초에 사람값에 들기 힘들더라고, 남한 토박이들끼리도 그렇게 장벽을 만들고 경계를 하는데 굴러온 돌인 탈북자들이야 오죽하겠시오?" (중략)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니까.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폰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난다니까. 동네도 그래. 사회도 그래."<sup>73)</sup>

평소에 회사에서 다소 갈등을 빚던 박애란과 이동화가 화해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다. 그 자리에서 박애란의 입을 빌어 남한 사회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겪는 소외감과 냉담한 인간관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러한 작품내 진술은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파악된 내용이다. ‘2001년

71) 위의 작품, p.183.

72) 위의 작품, p.317.

73) 위의 작품, pp.231-232.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조사에 따르면 '남한사람의 편견과 차별'이 사회(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up>74)</sup> 이러한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와 관련한 내적 갈등 외에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작품의 말미에 그려진다. 복녀는 자궁 암에 걸려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다.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중국인 남편 집에 두고 온 아이에 대한 죄의식에 괴로워 한다. 작품에서는 비록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지만, 이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으로도 치환된다. 복녀는 중국으로 아이를 찾아가 재회를 하고자 하나 중국인 남편과 시어미에 의해 제재 받는다. 이는 북의 가족과의 만남이 가로 막힌 상황에 대한 은유로도 이해할 수 있다. 선화는 딸인 메이밍과 재회하며 작품은 끝을 맺는다. 이처럼 <청춘연가>에 드러난 내면적 갈등은 남한에서의 하위계층으로써의 소외감, 남한사회에 대한 부채의식,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요약된다.

<청춘연가>에서는 선화를 중심으로 선화의 내적 갈등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찔레꽃>에서는 충심이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그러한 폭력에 휘둘리며 피해를 보는 심리를 그리고 있다. 충심 또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며 삶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지니게 된다. 충심을 향한 외부적 폭력은 그를 인신매매한 조선족인 춘구와 갑봉, 중국인 남편과 그의 친척들, 안마방의 김화동, 탈북 브로커인 선교사, 노래방에선 충심을 멸시하는 손님과 종업원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러한 외부적 폭력과 모멸에 부대끼며 충심의 삶은 끝없는 나락을 떨어진다. 이러한 외적 갈등 중심의 전개는 중국과 한국에서도 약자로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이들에 대해 배타적인 문화와 차별적 인식에 노출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형상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충심이 이렇듯 고향을 떠나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그녀를 인신매매한 춘구와 갑봉이 아니라 북한 경제체제와 붕괴와 더불어 나약해진 이들을 경제적인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본주의가 지닌 폭력성으로 해설될 수 있다. <찔레꽃>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빈번히 제시된다.

춘구는 까탈스럽게 구는 충심이 마음에 들었다. 씨가지없이 굴다가 겨우 입술만 주고 해림을 떠나버린 설매(雪梅)를 쏙 빼다박아서 괜히 가슴이 설레곤 했다. 쥐새끼처럼 눈치가 빠른 갑봉이 몸값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못을 팽 박았다. '새끼 낳기 전엔 금(金)유방, 새끼 낳고 나면 개(狗)유방'이라는 갑봉의 말에 춘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74) 윤인진, 『북한이주민』, 집문당, 2009, p.157.



이처럼 춘구와 갑봉에게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이윤 추구를 위한 상품에 불과하다. 이들에 의해서 조선족 남성에게 팔린 충심과 미향은 성적,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놓인다. 이후에 춘구에 의해 빠져나오기는 하나 미향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이다. 이후에도 그녀에게 고난은 이어진다. 충심은 친하게 지내던 조선족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나, 그 부부는 그녀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공안에 그녀를 신고한다. 남한에서도 돈과 차별로 인해 그녀의 삶은 피폐해 진다.

그러나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탈북자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였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외국인노동자보다도 차별이 더 심했다. 조금이라도 번듯해 보이는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면, 탈북자라는 사실에 모두들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 탈북자라면 고개를 외로 고았다.<sup>75)</sup>

작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또한 차별을 경험하며 직업을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한에서의 적응은 조사를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뚜렷한 직업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기란 어려우며 파트타임 일과 고된 노동에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인 간병인, 미화원, 화장품 판매,(중략) 등에 주로 취업한다”<sup>76)</sup>는 조사를 통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제한된 직업 선택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게 된다. 이처럼 충심은 북, 중국, 남한 어디에서도 쉽사리 정착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 북에서는 배신자, 중국에선 불법입국자, 남한에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각종 폭력과 모욕을 겪게 된다.

이처럼 정도상의 『짚레꽃』에서는 어디에서도 안주할 수 없으며 폭력과 차별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내세우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있다.

### 제3절 형상화 양상 차이가 지닌 의미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김유경의 <청춘연가>와 정도상의 <짚레꽃>을 인물형상화와 갈등 양상을 통해

75) 정도상, 위의 작품, pp.202-203

76) 박윤숙, 「탈북 여성의 삶의 과정과 지원 방향」, 『국내외 탈북자를 위한 민간 지원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우양, 2005, p.265.

비교하면 두 작품의 중심인물은 유사한 탈북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청춘연가>의 선화의 경우 남한에서의 삶이 긍정하며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형상화 되는데 비해 <짚레꽃>의 중심의 경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삶이 피폐해져 간다. 중심인물 뿐 아니라 주변인물들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 선화의 동료인 복녀와 성철의 경우도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특별한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중심의 주변인들의 경우, 정림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희는 많은 남자들과 동거를 하며 타락한 듯한 삶을 살아간다.

작품내 내/외적 갈등에 있어서도 <청춘연가>의 경우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은 남한에서의 하위계층으로써의 소외감, 남한사회에 대한 부채의식,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단편적으로 서술 되는데 그친다. 이에 반해 <짚레꽃>의 경우 인물의 내적 갈등 보다는 중심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들과 이익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폭력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내적 갈등으로는 짚레꽃으로 상징되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작품의 후반에 심도 있게 형상화 된다.

이러한 확연히 구별되는 인물 형상화와 작품내 두드러진 갈등 양상은 차이의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창작에 있어 북한 문예이론이 내면화 되어 있음으로써 북한 문학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 사회내에서 소수자 그리고 이방인으로써 일종의 자기 검열로 인해 남한 사회와 체제에 대해 쉽사리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검열적 경향은 엄격한 사상검열과 감시가 이뤄지는 북한 체제에서의 삶의 후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작품에는 북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선명히 드러나나 남한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서술한다. 덧붙이면,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가족과 고향뿐만이 아니라 앞서 박애란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듯 이들의 작품에서 북한은 고통의 기억임과 동시에 고향, 가족, 친구들이 남아있는 그리움의 공간이다. 특히 인간관계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순수성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의 형상화가 대다수 작품에서 빈번히 형상화 된다. 개인, 돈, 실용적 가치만이 중시되는 남한 사회와 달리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북한 사회에 대한 그리움 또한 작품 창작의 주된 의식으로 여겨진다. 흔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반공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반공주의가 아닌 반김일성·김정일 주의이지 사회주의에 내재된 공동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문학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전무 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창작한 문학을 북한이탈주민 문학이라는 범주로 개념화하고 이들에 의해 창작된 소설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문학과 관련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저술 목록과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소설, 시, 수기 그리고 남한 작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형상화한 작품 목록을 정리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소설의 유형을 정치 소설적 작품, 자전 소설적 작품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남한작가의 북한이탈주민 등장 작품을 고발 소설적 작품, 대중 소설적 작품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창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자전적 소설적 성격을 함께 띄고 있었으며 북한이 실상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들이 서술되어 있다. 그중 이항구, 김대호, 립일의 작품의 경우 정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항구의 작품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작품에는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 인사들 그리고 주요 시설, 외교 정책, 정치 방식, 남북관계 정책 등 사실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북한과 북한정치인들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전적 소설의 경우 김대호의 작품 분석에 따르면 작품에 배면에 깔린 갈등의식은 북한의 신분제도에 있음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신분 차별에 따른 저항의식은 여타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이들의 자전적 성격의 작품에서는 개인사와 함께 사회 비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작품 소설 유형은 고발소설적 작품, 대중 소설적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박덕규의 단편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전면에 내세워 이들간에 갈등을 그려내지만,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남한 사회가 지닌 모순과 문제점들이었다. 그리고 대중 소설적 작품에서는 반공주의 사상에 경도된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하에 남북관계를 그리며 북한이탈주민은 단지 남한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로 형상화 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과 남한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등장소설이 동일한 소재를 다룸에도 전혀 다른 문제의식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북한이탈주민들에

게 내면화된 북한문예사상과 그들이 지닌 억압된 욕망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한작가들은 그들의 형상화에 있어 외적인 측면에서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내면적 갈등과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북 작가의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에도 유형 분석시에 나타났던 경향이 유사하게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작품의 경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의 형상화가 대다수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진취적인 인물 형상화는 북한문학이론에서 소설 창작에 있어 강조하는 모범적인 인간의 형상화에 그 맥이 닿아 있다. 남한작가의 인물형상화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나 대부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좌절하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그들이 비극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그들의 비극의 원인을 외부적 폭력성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물의 내적 갈등 양상에 있어서도 인물형상화 양상과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지니고 있는 죄의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남한사회에서 부채의식으로 내적 갈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남한 작가들에 의한 작품의 경우 외부적 폭력에 의한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은 창작층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이들의 문학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적응지원을 위한 법적, 경제적, 인권적 차원에서 외부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나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들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남한인들이 지닌 차별과 편견어린 인식의 전환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남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를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이 한국 적응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남한인들의 색안경을 벗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방법의 예로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들 수 있다. 이 프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등장시켜 북한의 문화,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삶 등을 일반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소개함으로써 이전의 진지하고 딱딱한 통일 관련 프로가 아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정서를 지니고 있는 이들로 느끼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나 시사 프로 뿐만 아니라 아닌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 혹은 제작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기 공모전은 이뤄지곤 있으나, 그들이 지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소설, 시,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창작 활동을

증진시켜 그들의 스스로의 치유를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의 기억과 아픔을 많은 남한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 록] 1

온라인 북한이탈주민 시 목록(60편)<sup>77)</sup>

- 김성민 시 통일 열원  
김성민 시 나, 어머니를 생각하다  
김광천 시 내 고향 뒷밭에는  
김성민 시 자유  
김승철 시 별목공의 노래  
김성민 시 고향사랑 1  
김성민 시 고향사랑 2  
장진성 시 우리의 밥  
장진성 시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장진성 시 숟가락  
장진성 시 나의 옆집  
장진성 시 나는 살인자  
장진성 시 밥이 없는 집에  
장진성 시 모성애  
장진성 시 불타는 대풍년  
장진성 시 맹물장사  
장진성 시 눈물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  
김성민 시 아픔  
김광천 시 우리는 하나입니다.  
김광천 시 나는 누구인가  
김성민 시 철민이에게 바치는 시  
한정숙 시 추억으로 그 시절그려봅니다.  
한정숙 시 고향 유정  
한정숙 시 산중턱 어머니의 집  
한정숙 시 고향을 떠난 아이  
한정숙 시 그곳에 가면

---

77) “탈북자 동지회 문학작품”, 탈북자 동지회 사이트, 2012.8.2, 《<http://nkd.or.kr/news/letters>》

- 한정숙 시 마가을의 들국화  
 김광천 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프로 시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해리맘 시 자유가 너무 좋습니다.  
 김지송 시 철민아~ 소연아~  
 김영조 시 고향의 추억  
 김영조 시 들국화  
 김영조 시 당신의 아픔을 몰랐더라면  
 한은희 시 두만강이여  
 한은희 시 숲박꼭질 민족  
 한은희 시 힘들어도 지금이 행복하다  
 한은희 시 갯가의 가재소년처럼  
 한은희 시 하늘처럼 땅처럼  
 한은희 시 호미자루  
 한은희 시 엄마의 얼굴  
 한은희 시 바람의 여인  
 한은희 시 고독의 밤  
 한은희 시 첫 사랑  
 이미연 시 어머니는 그 어느곳에  
 이미연 시 그대 그리고 나(산문시)  
 한은희 시 아픈 가을의 편지  
 한은빈 시 내 인생  
 김현철 시 나는 어디로  
 김현철 시 아빠 엄마 미안해  
 이지명 시 휴전선아리랑  
 이지명 시 한강메아리  
 이지명 시 어느 가을날에  
 김현철 시 꿈속의 약속  
 김현철 시 돌아가리라  
 김현철 시 나의 꽃  
 김현철 시 늦은 후회  
 꼬제비 시 꼬제비의 하소연

이지명 시 천사가 오신다

미소천사 시 고향생각

## [부 록] 2

### 온라인 북한이탈주민 수기 목록(단편)(364편)

- 나의 북한집결소생활 - 방성운
- 북한의 강제 납치와 나의 북한 생활 - 이재근(납북)
-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난것을 저주해요! - 임철·소원
- 우리도 여자처럼 살고 싶다 - 김영옥
- 『나도 여자에요, 내가 북한 여자란 걸 저주해요』-김수희
- 죽음의 요덕 수용소 - 이백룡
- 북한의 공개처형 ,인권유린을 세상에 고발한다 - 조영철
- 황해제철소 노동자 폭동사건 - 이춘구
- 북한의 꽃제비들(거지)
- 평양에서 추방지에서 - 옥별이
- 나의 탈북 수기 - 김성민
- 북한군 6군단 사건의 어제와 내일 - 박태영
-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야수들이었다 - 조영철
-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난 월드컵 영웅 - 강철환
- 영화배우 우인희 총살사건(북한판 정인숙사건) - 강철환
- 국가 강도들이 하는 짓 해외송금 - 이애란
- 아들의 사망통지 조회 - 장인숙
-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 소원
- 말기암 환자와 북한 - 이애란
- 장마당에서의 사형식 - 소원
- 북과 남에서 체험한 선거제도 - 이민복
- 한반도와 나의 꿈 - 평위짱
- 백도라지 농장과 세 청년의 운명 - 이애란
- 황폐화되어 가는 내 고향의 산하 - 최동철
- 아버지생각 - 김길선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역사에 고발합니다. - 리백용
- 한 화가의 죽음 - 유지성
- 40년간의 생이별 (상) - 김원형
- 40년간의 생이별 (중) - 김원형
- 40년간의 생이별 (하) - 김원형
- 내가 생각하는 북한은 - 이미영
- 모란꽃이 필 때까지 - 김용
- 내 분야에서만은 세계정상에 오르고 싶다 - 정갑렬



- 코리랑고개를 넘어서 - 정성산
- 장애인과 탈북자 - 김승철
- 나의 선택에 대한 찬가 - 안찬일
- 한국사회에 적응하려면 좋은 생각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 강철호
- 마지막 종점에서 평범한 서울시민으로 태어나기까지 - 고영환
- 북녘땅에서 의사로 봉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 김은철
- 활기찬 열린 세상 - 조명철
- 땀방울의 가치를 생각하며 - 임영선
- 성공할 수 있는 사회 - 강철환
- 나는 BABARIAN(야만인) - 김영성
- 잃어 버린 꿈을 찾아서 - 김승철
-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 김지일
- 희망없는 세계와 희망있는 세계를 살아보며 - 최주환
- 북에서 온 보험 아줌마 - 이애란
- 목숨과 바꾼 자유 - 김길송
- 서울 촌놈 - 최영석
- 새처럼 날아 나의 결혼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 탁영철
- 인터넷에 폭빠져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 한성호
- 끝내 완성하지 못한 원고 - 장해성
- 침술의 의미 깨닫기 - 이충국
- 희망의 등대 - 최현실
- 실패의 미학 - 백호철
- 희망의 새 밀레니엄을 맞으며 - 허광일
- 초보운전수의 좌충우돌 - 정태성
- 天運을 만난 사람들 - 박수현
-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도시, 서울 - 윤철
- 성공이라는 봉우리를 향해 - 이금혁
- “나는 이 사회의 이방인이 되고 말 것인가?” - 이영훈
- 좌절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진 평양각시 - 이영광
- 망향 시인의 한 - 김대호
-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 - 허창걸
-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 - 김순희
- 정착의 지름길은 실력을 닦는 길 - 이규창
- 통일된 조국에 태극기 휘날리는 그 날을 위해 - 김재원
-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 - 김순영
- 시련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행복 - 장기홍
-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을만큼 열심히 살아보련다 - 곽경일
- 탈북 형제끼리 일군 느릅국수 공장 - 윤성철
- 대가없는 성취는 없다 - 김영철
- 이젠 당당히 경쟁하고 싶다 - 김성민
- 북한 토목전문가에서 건설관련 벤처기업 고문으로 - 장인숙
- 오산의 토박이로 자리잡기까지 - 전성철
- 도전으로 풍요로워지는 나의 삶 - 여금주
-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심신복
-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일어서다 -

## 안선국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박호삼
- 내가 가고자 하는 길 - 김남길
- 나의 정착생활 1년 - 조성문
- 더불어 사는 삶의 시작 - 김영일
- 서로 돕는 길 - 김봉철
- 꿈을 향해, 배움을 향해 - 최진이
- 한국에서 교편을 잡기까지 - 천정순
-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자유 - 김철민
- 「청류관」 냉면 드시로 오시라요! - 이정국
- 이미영씨의 증언 - 이미영
- 나의 탈북동기와 북한군의 도망병 처리 조회 - 한성룡
- 뚝뚝! 빵빵! 난 희망을 배달하는 트럭 기사 - 강석남
- 꽃밭에서는 꽃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 주명신
- 4층 아저씨와의 만남 - 장국철
- 단고기 먹고 힘내세요. - 마영애
- 눈이 침침하신 분, 안경하나 맞춰 드릴까요? - 황영
- 견습공에서 과장까지 - 김태수
- 나는 행복을 만드는 요리사 - 한종구
-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긍지와 자부심 - 김은철
- 실패와 좌절을 넘어 희망의 미래로 - 윤인호
- 내가 체험한 북한정치범수용소의 현실 - 김용
- 경계하라! 점잖고 간부 티 나는 사람

## - 김정현

- 내가 찾은 자유 - 유화
- 허철호 중대장 동지께(고향에 보내는 편지 1) - 김철민
- 대대 정치지도원 동지 앞(고향에 보내는 편지 2) - 탁은혁
- 가족간의 유대는 역경을 이기는 힘 - 최주활
- 늦깎이 대학생의 희망찾기 - 김영옥
- 희망을 배달해 드립니다 - 명철환
-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한다! - 안혁
- 보고싶은 정련에게 <고향에 보내는 편지>
- 다시 바라본 고향 - 박진성
-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 임윤미
-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 - 탈북자들 2003 5월
- 공주병에 걸린 피부관리사 - 최경희
- 중국내 탈북자들의 삶 - 탈북자동지회 회보 2003년 7월호
- 머나먼 북녘 땅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며 - 탁은혁
- 나의 대학생활 - 조철진
- 추적, 중국 내 탈북자들의 삶 - 정일영
- 얼음판을 녹인 땀방울 - 황보영
- 예술로 승화한 통일의 꿈 - 김수정
- 연구원이 되기까지 - 최단
- 나도 이제 어엿한 사업가입니다 - 박강인
- 초상화 분실사건과 누명 - 최정화
- 나라 없는 백성 - 조일훈
- 그날 황해제철소에서는 - 정철민

- 군인들의 선물금 생산 - 김종화
- 경험이 인생 밑천이랍니다 - 김화영
- 마음을 담은 포토 스탬프 - 오수형
- 탈북자 선생님의 영어수업 “에이 비씨” - 이은혜
-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인생 - 김성훈
- 어느 거짓말쟁이의 고백 - 주혜순
- 사랑에 감전된 전기기사 - 장천식
- 자유를 꿈꾸는 새끼 독수리의 날개짓 - 강소영
- 희망의 펜으로 적어 가는 일기장 - 여정옥
- 송환된 탈북여성들의 운명 - 김은혜
- 서관히 비서 공개처형 - 김명희
- [북녘추억] 90년대 함흥 집단아사의 악몽 - 김영순
- 나는 반혁명분자의 딸 - 최순희
- [북녘추억] 죽기골에서 무슨 일이
- 밀대전략을 우습게 보다니(군사관련)
- 유고(遺稿) 1-꿈으로 보이는 7년
- 유고(遺稿) 2-꿈으로 보이는 7년
- 유고(遺稿) 3-꿈으로 보이는 7년
- 유고(遺稿) 4-꿈으로 보이는 7년
- 유고(遺稿) 최종화-꿈으로 보이는 7년
- 임신부에게 말뚝박기를 시키다니 - 박광일
- 짐승도 안먹는 나무껍질 먹었다 (시)
- 희망의 불씨를 품은지 6년 - 김은주
- 고향에 대한 생각이 사무칠수록 - 김봄빛
- 북한 동무, 남한 친구 - 김새벽
- 공기업 사원이 되기까지 - 장동혁
- 사이버닥터가 원하는 “마라톤 인생” - 김지은
- 탈북 여대생의 좌충우돌 학교생활 - 조현주
- 성공의 정상을 향하는 도전은 아름답다 - 한성공
- 마음을 열면 사랑이 보여요 - 정은주
-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 김은미
- [북녘추억] “북한은 인민반장이 지킨다” - 김영순
- “평양으로 다시 갈까?” - 림일
- [북녘추억] “사장동지, 우리 보고 죄인이래요” - 김태산
- “순자야, 한국생활 재미있니!” - 박순자
- “늦깎이 중학생의 힘찬 출발” - 임혜린
- “희망을 배달해 드립니다.” - 장사민
- 김진명의 중국기행기(수기아님)
- [북녘추억] ‘믿음이 지옥을 이기게 했다’ - 김태진
- “내 맘에 품은 성공의 씨앗을 안고.” - 이수복
- 주판알에서 IT까지 - 허금희
- “아바이 김정일 장군에게 올립니다.” - 아침이슬
- “아오지에서 왔어요.” - 아침이슬
- [북녘추억] “南지원 기저귀 생리대로 인기폭발”
- [연재수기]빛을 찾아 만리 (1) - 홍은영
- [연재수기]빛을 찾아 만리 (2) - 홍은영
- [연재수기]빛을 찾아 만리 (3) - 홍은영
- [연재수기]빛을 찾아 만리 (4) - 홍은영
- [연재수기]빛을 찾아 만리 (5) - 홍은영

- [연재수기] 빛을 찾아 만리 (6) - 홍은영
- [연재수기] 빛을 찾아 만리 (7) - 홍은영
- [연재수기] 빛을 찾아 만리 (8) - 홍은영
- [연재수기] 빛을 찾아 만리 (9) - 홍은영
- [나의 인생] 헤어져 50여 년의 긴 세월 (1) - 최정화
- [나의 인생] 헤어져 50여 년의 긴 세월 (2) - 최정화
- 중국에서의 삶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습니다 - 아침이슬
- “도둑이 아닌 도둑, 강도 아닌 강도였습니다.” - 아침이슬
- 나의 북한집결소 생활 - 김영훈
- 남행길 1 - 김영권
- 남행길 2 - 김영권
- “꿈에도 못 잊은 사랑하는 언니에게” - 마옥순
- “집결소에서 유아살해를 목격” - 박순자
- “인간다운 삶이 없는 곳 북한” - 김명숙
- “여성들이 겪는 수모와 인신매매” - 이경희
- “또 다른 만남 제주도” - 서지영
- 죄수도 인간이다.(1) - 김혁
- 죄수도 인간이다.(2) - 김혁
- 죄수도 인간이다.(3) - 김혁
- 죄수도 인간이다.(4) - 김혁
- 부르면 눈물날 것 같은 이름 아버지 - 명순
- 새롭고 낯선 땅 대한민국 - 최선희
- 아픔의 감수(甘受)속에 열린 사랑의 열매들 - 김미애
- 인신매매, 그 아픔의 현주소 - 김춘애
- “너도 자유가 그리운게구나” - 한영진
- “5살 아기에게 족쇄를 채웠어요” - 김춘애
- 다시 시작하는 삶 - 이연경
- 좌충우돌 정착기 - 박영희
- 굶주림과 발맞춰 찾아 온 전염병들 - 아침이슬
- 우리 가족의 운명 - 아침
- 도전하는 삶, 함께하는 삶 - 김하늘
- 죄수도 인간이다.(5) - 김혁
- 잇몸에 대한 이야기 - 김성민
- 때로는 그리운 배급제 - 김승철
- 남북을 오가며 고향을 찾다 - 김승철
- 중산 단련대에서의 1년6개월 - 최금순
- 잡초같이 일어서립니다 - 아침이슬
- 두가지 악몽 - 한영수
- 긴 여정 속에서 - 이순희
- 핑크빛 사과 - 김옥선
- 김정일 정권, 침묵하면 더욱 오만해진다 - 정영
- 나도 이제 할 수 있어요 - 서지영
- 자유와 풍요속에 홀로 서기 - 김승철
- 헌혈에 대한 생각 - 김춘애
- 어느 한 아줌마의 정착이야기 - 이영희
- 죄수도 인간이다.(6) - 김혁
- 택배는 제게 맡겨 주십시오 - 이정훈
- 나는 왜 조선노동당을 깨끗이 버렸나 - 허영식
- 건설현장에서 흘린 나의 땀방울 - 김웅길
- 책가방 찬가 - 김성민
- 기분 좋은 만남 - 김창선

- 힘들었던 지난날을 되새기며 - 이일
- “백룡 애즈나”에 내 꿈을 실어 - 이영국
- 이산은 약이 없는 아픔 - 김봉수
- 마음의 편지 - 황수정
- 중국에서 다시 바라 본 고향 - 박부성
- 희선의 일기 - 김희선
- 춘석의 일기 - 김춘석
- 탈북자들의 삶에도 봄은 오는가? - 김상명
- 장춘아지매의 탈북일기 - 리수희
- 중국에서 팔려다니는 탈북여성들 - 이신
- 나의 탈북 이야기 - 김한나
- 사랑으로 새로운 나의 삶을 찾다 - 강상원
- 新 탈출기
-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눈물나는 이야기 - 아롱이
- 김정일 장군에게 바치는 편지 - 프로
- 죄수도 인간이다.(7) - 김혁
- 죄수도 인간이다.(8) - 김혁
- 부시 대통령과 나는 이야기(편지) - 김성민
- 아버지를 그리며 - 한정숙
- 죄수도 인간이다.(9) - 김혁
-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면서 - 미영
- 南탈북자 北아들에게 - 이주일
-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 김은주
- 아들이 로마에 갔었습니다 - 김기혁
-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 푸른바다
- 북한의 물난리 - 김명실
- '농촌지원전투' 체험기 - 한성주
- 장군님 자살하시옵소서 - 은희
- 동생의 죽음 앞에서 탈북을 결심했다 - 김기혁
- 북한군의 실태 - 푸른바다
- 보고 싶은 아버지에게 - 푸른바다
- 북한에 대한 추억 - 푸른바다
- 지난 1년을 돌아보며 - 김정숙
- 북한청년들의 정신상태와 행동 - 푸른바다
- 아버지에 대한 추억 - 푸른바다
- 지옥이었던 세상 - 푸른바다
- 행복한 삶 - 김동훈
- 한국생활 5년 - 이건강
- 나의 남한사회 체험기 - 정남
- “나의 지금과 다음은” - 나성학
- 다섯번째 도전끝에 성취한 소중한 열매 - 조경애
- 죄수도 인간이다.(10) - 김혁
- 죄수도 인간이다.(11) - 김혁
- 2000만분의 1 - 최금희
- 인정받을 때까지 뛰리라! - 정영
- “장미의 전쟁”을 이겨낸 통일부부 - 김승철
- 죄수도 인간이다.(12) - 김혁
- 강제송환 이후 요덕수용소에서의 3년 - 김은철
- 스스로를 돌아보며 - 김수민
- 시작은 미약하나 - 강현옥
-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 - 이명선
- 평양이 기가 막혀! - 림일
- 사랑한다 동생아 - 강웅민
-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 아침이슬

- 평양24시 - 박철용
- 농촌동원이 사람 죽인다 - 이경희
- 아빠! 좋은 곳에 가서서 편히 계십시오 - 물고기자리
- 맨몸으로 수류탄 막은 병사가 '혁명의 적'? - 이정연
- 청진 '수재학교' 재학중 비디오 보다 퇴학 당해 - 박영남
- “테러집단 누명쓰고 中 무장공안에 체포당해” - 이성
- 김정일 생일파티에 아내 안 보냈다 처형당해 - 김철민
- “대장염 균이 우글거리는 북한 아이스크림” - 이경희
- 자화상 - 신문
- 북한군 병영추억 '없으면 흠쳐서라도 보충하라' - 김민세
- 종교탄압의 국가 북한 - 강옥주
-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 김철민
- 악몽 - 리순녀
- 탈북자가 본 “이해할 수 없는 한국” - 김운주
- 회령보위부 지하감방과 요덕수용소에 겪은 참혹한 고통 - 김광수
-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 이영
- 희망이 없는 땅을 뒤로하고 - 정미옥
-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 - 허영금
- 행복을 만들어가는 작은 “도배손” - 황명옥
- 내가 한국으로 오기까지 - 김원정
- 배가 고파 탈북 한 것이 죄가 되어 - 정학민
- 대학 농촌지원은 전투...중노동·배고픔·각종임무 3중고 - 박철용
- 北 최고신랑감은 ‘3外’...돈 많아야 인기 - 박철용
- 北 대학 ‘제대군인’ 평양처녀와 탄살림 다반사 - 박철용
- 나는 도토리가 싫습니다 - 김태산
- 사장이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가 - 김태산
- 꽃제비의 설움 - 이충실
- 구름아, 딸에게 전하다오 - 정학민
- 친구마저 잃어버린 한국 성인TV 포르노의 기억 - 박경민
- 용서 - 예은
- 햇빛을 그리며 - 햇빛
- 화약 놀이로 경비대까지 혼비백산 만든 내 친구들 - 김호영
-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치범이었다 - 신동혁
- 엄마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아들 - 최진이
- 송례문과 대동문 - 김성민
- 다음 목표는 인생성공입니다 - 정수반
- 나도 이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 김성철
- 北청년들 김정일 생일에 '집단 동상' 걸린 사연은 - 문성휘
- 사랑합니다.그리고 행복합니다 - 박연옥
- 도전하는 삶, 함께하는 삶 - 김향미
- 아들에게 들려 줄 엄마의 “서울살이” 이야기 - 윤혜영

- 집으로 가야한다 - 이일선
- 내가 찾은 성공정착의 왕도 - 김현순
- 입국하여 1년 - 미소천사
- 남한에서 맞은 새봄 - 미소천사
- 당(黨) 믿고 아편농사 짓다 마을주민 모두 떼죽음(상) - 한순희
- 김정일이 남긴 가슴아픈 역사 보여주 고 싶어(하) - 한순희
- 나는 브로커였다(1) - 유상준
- 나는 브로커였다(2) - 유상준
- 나는 브로커였다(3) - 유상준
- 나는 브로커였다(4) - 유상준
- 나는 브로커였다(5) - 유상준
- 나는 브로커였다(6) - 유상준
- 나는 브로커였다(7) - 유상준
- 수난에 찻던 내 운명의 역사를 올립니 다 - 소향
- 북한은 왜 가난할까 - 미소천사
- 뼈라와 나의 생각 - 감사해요
- 편지를 기다리는 우리 집 우체통 - 박 선미
- [교도소이야기]충격 고발 北 제22호 교화소...탈북자 리준하 육필수기 연 재1 - 리준하
- 두만강가에 나의 인생을 물었다 - 정 은아
- 나의 탈북스토리 - 장진성
- 前 평양시민의 설 - 립일
- 소설 “인간이고 싶다” 후기 - 김혜숙
- 남과 북의 전사자들을 보며 - 립일
- 무죄(1) - 김광일
- 무죄(2) - 김광일
- 무죄(3) - 김광일
- 무죄(4) - 김광일
- 무죄(5) - 김광일
- [교도소이야기]충격 고발 北 제22호 교화소...탈북자 리준하 육필수기 연 재2 - 리준하
- 농장 간부 밥상은 쌀밥 돼지고기 명태 기본이 7찬 - 김재숙
- 곡절 많은 내 운명 - 김광혁
- 나는 악몽 속에서 살아나왔다. - 김옥금
- 돈의 위력 - 김명옥
- 시, 그리고 탈북자의 삶 - 최명선
- 기나긴 겨울 - 전현아
- 나는 이렇게 탈북한 사람입니다. - 김 철수
- 불쌍한 어머니 - 이광호
- 내 인생을 바꿔준 극과 극의 두 사회 - 박명순
- 탈출 - 이진옥
- 나를 버린 조국 - 전영숙
- 행복을 넘어 고통을 나누며 - 최영학
- 나의 꿈 - 김영호
- “저는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 김대길
- 한 소녀의 지옥 탈출기 - 이명일

## [참고 문헌]

### <기타 자료>

- 김대호,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상, 하), 예음문화재단, 1997.  
김대호, 『영변 약산에는 잔달래꽃이 피지 않는다』(상, 하), 북치는마을, 2004.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김정현, 『길 없는 사람들』1, 문이당, 2003.  
리지명, 『장군님 죽았시오』(1부, 2부), 글힘, 2004.  
리지명, 『삶은 어디에』, 아이엘앤피, 2008.  
림 일, 『소설 김정일』(1,2), 시대정신, 2011.  
박덕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 청동거울, 2004.  
이병주, 『소설 남로당』, 청계, 1987.  
이철원, 『평꼬』, 금문서관, 1995.  
이항구, 『소설 김일성』(1,2,3), 신태양사, 1993.  
이항구, 『소설 김일성』(1,2,3)(재간행), 이가서, 2005.  
전철우,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상1996, 하1997), 시아, 1996.  
정도상, 『짚레꽃』, 창비, 2008.  
정성산·조일환, 『장백산』, 토지, 1999.  
정원석·성일기, 『북위 38도선』, 교학사, 2006.  
차성주, 『달아 달아』, 이지다, 2000.

### <단행본>

- 권영민, 『북한의 문학』, 공보처, 1996.  
金旭東, 「바흐친과 상호텍스트성」,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1990.  
리동수, 『북한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김재남 해재, 살림터, 1992.  
박윤숙, 「탈북 여성의 삶의 과정과 지원 방향」, 『국내외 탈북자를 위한 민간 지원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우양, 2005.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이성우 외 6명,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89.



- 이영선, 전우택,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오름, 1996.
- 이항구, 『金正日과 그의 參謀들』, 신태양사, 1995.
- 윤인진, 『북한이주민』, 집문당, 2009.
- 최 명,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6.
- 한중모,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1』, 사회과학출판사, 2010
-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시대정신, 1999.
- 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 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조한경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2.

### 〈논문/기타〉

- 강정구, “탈북이주민 문화의 시적 수용-탈북이주민 시의 개념과 특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35호, (2009), pp.9-27.
- 고명철, “분단체제에 대한 2000년대 한국소설의 서사적 응전”, 『한국문학논총』 58집, (2011), pp.293-317.
-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집, (2009), pp.215-245.
-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39집, (2012), pp.141-170.
-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5집, (2012), pp.291-310.
- 김효석, “‘경계境界’의 보편성과 특수성”, 『다문화콘텐츠 연구』 7집, (2009), pp.126-152.
- 양영길, “통일문학 어디로 가고 있나”, 『평화연구』 16권 2호, (2006), pp.113-126.
- 우찬제, “분단 환경과 경계선의 상상력”, 『동아연구』 61집, (2011), pp.5-36.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1994).
-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한국문학논총』 51집, (2009), pp.261-288.
- 이성희,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56집, (2010), pp.481-507.

최병우,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이주의 인간학”,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이주의 인간학」, (2012), pp.1-13.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40집, (2009), pp.377-396.

“김일성 알아야 北韓이해”, 「동아일보」, (1993.11.4), p.15.

## 최근 북한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양상 고찰

김미향  
인천대학교 강사

---

제1장 서론 .....	91
제2장 북한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	93
제3장 《로동신문》에 비춰진 북한의 여성 .....	96
제4장 ‘청춘’으로서의 여성성과 대담한 환상 .....	108
제5장 소설작품 속의 북한여성의 특징과 혁신자로서의 ‘신여성’ ...	114
제6장 결론 .....	159
[참고 문헌] .....	167

---



## 표 목차

---

<표 1> 부문별 여성 노동력 비율 .....	96
<표 2> 1990년 《로동신문》 제4면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분류(총30회) .....	97
<표 3> 2009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	105
<표 4> 2009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분류(총40회) .....	106
<표 5> 2012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	107
<표 6> 2012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분류(총 25회) .....	108

---

## 사진 목차

---

<사진 1> 2009년 5월 9일자 《로동신문》 .....	97
<사진 2> 2009년 5월 15일자 《로동신문》 .....	98
<사진 3> 2009년 5월 24일자 《로동신문》 .....	99
<사진 4> 2009년 5월 29일자 《로동신문》 .....	99
<사진 5> 2009년 5월 27일자 《로동신문》 .....	100
<사진 6> 2012년 5월 6일자 《로동신문》 .....	101
<사진 7> 2012년 5월 16일자 《로동신문》 .....	101
<사진 8> 2012년 5월 18일자 《로동신문》 .....	102
<사진 9> 2012년 5월 21일자 《로동신문》 .....	102
<사진 10> 2012년 5월 23일자 《로동신문》 .....	103
<사진 11> 2012년 5월 24일자 《로동신문》 .....	103
<사진 12> 2012년 5월 31일자 《로동신문》 .....	104

---

## 그림 목차

---

<그림 1> 주체적 인간이 '성격의 전형화'를 이루는 과정 .....	121
<그림 2> 21세기형 북한의 슈퍼우먼 /슈퍼맘의 참모습 .....	141
<그림 3> 조정자로서의 신여성상 .....	151
<그림 4> 남편과 아내사이의 비적대적 갈등 .....	159

---

## 요 약 문

북한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김정은에게 세계상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시행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개최된 제12기 5차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집권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변화양상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 김정은 시대의 여성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을까?

첫째 북한여성들에게 건강한 여성상을 주문하면서 21세기의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전문가형 근로인테리’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2010년 1월 김정은이 CNC화를 통해 최첨단과학기술의 돌파구를 열어준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변영옥의 단편소설 「까치봉의 큰집」의 주인공인 하선금은 북한에서 여성으로는 드물게 도농업건설 설계연구소의 설계기사이다. 그녀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설계연구소에 머물지 않고 발전소 건설현장에 뛰어들어 예성강 물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가 여성에게서도 전문가형 근로인테리의 전형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둘째, 『조선녀성』은 가족주의 전략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소설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슈퍼맘과 슈퍼우먼의 역할을 주문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결혼 전 처녀시절에 근로자로 근무했던 주부계층들은 다시 공장이나 협동농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다. 2011년 3월호 「다시 찾은 모습」은 식료공장 기능공이며 동창생인 주부계층 혁신자 미옥과 영옥의 몇 십 년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영옥은 식료공장 혁신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미옥의 주택을 방문하고 잘 갖춰진 세간살이를 비교해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며 우연히 마주친 조원택 지배인으로부터 다시 공장에 출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인간의 행복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긴다.

셋째, 김정일의 말기부터 북한의 노동당은 ‘강성국가’ 건설과 조정자로서의 여성 역할 주문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인간의 향기」의 주인공 우인향은 남성들이 가지지 못한 모성애를 가진 여성지도자이다. 그러한 여성특유의 모성애를 활용하여 조직의 화합을 깨는 조직원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어 안아서 인간 개조를 성취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조정자로서의 신여성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2010년과 2011년의 『조선녀성』을 분석해보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자는 캠페인과 더불어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과 여성돌격대운

동을 힘차게 펼치자는 논설들이 많이 눈에 띈다. 석남진의 「비날론을 사랑한다」는 주부계층 여성을 공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캠페인성 작품이다. 2.8비날론 연합기업소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10여 년간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추어 섰다. 따라서 이 작품은 2.8비날론 연합기업소의 재가동에 관한 혁신이 야기에 해당된다. 결국 석남진의 「비날론을 사랑한다」의 아내 선미가 남편의 국가에 대한 헌신적 노력에 대한 참의미를 깨닫고 자신도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실정을 감안하여 수직방사선직장에 재취업하겠다는 생각을 굳힌다. 경공업은 여성들이 책임지라는 김정은 시대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제1장 서론

최근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후에 체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3대 세습으로 김정은 체제를 선택한 이후 조심스럽게 세대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대로 구성된 김정은의 사조적인 봉화조가 세대교체의 선봉에 설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김정일의 운구를 담당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그리고 리영호 총참모장·김영춘 인민무력부장·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당분간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운구를 책임졌던 군부지도자들의 변화가 매우 컸다. 리영호 총참모장이 전격 해임되어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대신 최룡해 총참모장이 크게 부각되었다. 여성으로는 고모 김경희와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아내 이설주 이외에는 크게 부각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는 북한여성에 대한 막연한 추정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삶에 대해 알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탈북여성들을 통해 북한여성들이 삶에 대해 잡초처럼 강인한 면모를 보이며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의 위상과 존재의의는 어떠한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겉으로만 보면, 대다수의 북한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상당히 다르다. 북한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은 남성들만으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주로 남성들에 의존한 노동은 천리마운동, 속도전, 붉은 기 쟁취운동 등 그동안 계속된 군중노선으로 인해 피로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그 부족분을 여성노동력으로 충원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해방 직후 남녀평등법을 만들고 시행했기 때문에 남녀평등이 남한보다는 일찍부터 이루어져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중국의 경우, 현대에 와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우 여성들의 발언권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이유는 남한에서보다도 훨씬 봉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 남존여비적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 형태를 보임에 따라 여성들은 직장생활과 가사부담의 이중고를 앓고 있으면서도 실상 사회적 위상은 미미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직장에 나가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가사부담을 남성과 나눠서 할 것으로 생각하기 싶다.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탁아소도 많이 설립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설작품을 살펴보면, 육아와 가사부담은 거의 여성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가중되는 여타의 일들이 많은 실정이다.

한마디로 북한 여성들은 가사부담과 육아 그리고 직장생활 등 일인 3역으로 과노동에 시달리며, 가정 내에서도 자신의 위상을 차지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가정 내에서는 남편의 출세에 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육아문제에 있어서도 직장과의 병행문제로 허덕이는 양상을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노동현장에서의 여성들의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성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 특히 1990년대 이후 2000년까지의 북한의 소설문학에서는 직장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을 독려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잡지 『조선여성』을 분석해보면 점점 더 여성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인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당국은 새로운 여성상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한 주문은 크게 세 갈래의 형태를 보인다. 첫째, 공장에서의 CNC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에게도 지식경제사회의 도래에 발맞추어 현대화·과학화·자동화의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공장대학으로의 진학 등을 권유하고 있다. 둘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힘 있게 펼쳐나갈 것과 여맹 조직원들에게 여성돌격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취한 실천 투쟁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셋째, 남편에 대한 내조와 아이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위해 공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사 일에 전념하는 주부들에게 공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 최근의 북한 소설문학에서 여성들의 위상과 존재가치 그리고 혁신자로서의 신여성의 모습을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여성』 그리고 『조선문학』을 텍스트로 하여 ‘자료실증적 연구방법’과 북한의 문학이론을 인용하며 비판적 해석을 하는 ‘내재비판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 제2장 북한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 제1절 북한식 가부장제적 사회주의의 특징

북한에서 가족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을까? 소설작품에서나 영화 등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러한 겉으로의 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해방이후 북한은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하여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 방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가정을 ‘온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의 기층생활단위’, ‘최저생산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학습장’으로서 기능<sup>1)</sup>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는 발전과정에서 세 가지 기본형, 즉 혁명적 이행기 체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세 가지 모델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 고전적 체제는 스탈린 모델을 원형으로 삼는 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은 개혁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는 가부장제적 사회주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가부장제적 사회주의 사회에는 온정주의적 가부장제의 공적 가부장제, 사회적 가부장제, 사적 가부장제의 세 가지 수준의 가부장제가 존재<sup>2)</sup>한다. 여기에서 공적 가부장제에서는 관료제가 인민들을 돌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지도의 정점은 가부장제의 가장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된다. 북한에서 인민들은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곧 국가의 가족화를 증진시켰다.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같은 가부장제적인 담론의 연원을 유교적 전통보다는 고전적 사회주의체계의 작동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박현선의 견해이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자녀를 돌보아 주는 아버지로서의 수령(지도자), 어머니로서의 당, 자녀로서의 인민이 사회정치적 혈연관계에 의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다는 논리이다.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정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주식제를 폐지하고 유일한 수령은 김일성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상징적인 수령의 자리는 현실적

1)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p.343.

2)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 아카데미, 2003, pp.42-43.

으로 지도자 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대치되었다. ‘수령 - 당 - 대중’의 삼위일체적 관계로 형성된 국가는 가부장제적이고 유기체적 성격을 갖는다.

동일한 맥락에서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에서 여성문제는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줄 문제이고, 여성해방도 국가에 의해 달성될 과제로 인식된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후원적 기능은 성평등정책, 가족 기능의 사회화 등으로 남녀평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여성에 대한 억압적 기능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는 성별고정성에 의해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 주변적 노동자로 간주하여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 확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sup>3)</sup>한다.

북한 가족제도의 특성은 사회주의적 특성과 가부장제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가족은 물질 토대이자 사회구성의 기초단위이며, 사회의 기본세포로 인식된다. 특히 북한은 식량배급이나 협동농장의 분배 등을 가족단위로 실시함으로써 가족이 중요한 배급단위로 자리 잡는다. 사회주의 가족 제도를 이데올로기, 구조, 사회적 재생산 기능,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족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가족과 혁명적 가족을 지향한다. 따라서 평등관계와 혁명적 동지애를 기초로 한 가족을 추구한다. 둘째, 가족구조의 측면에서 사회주의 가족은 핵가족이 일반적이어서, 결혼 후 분가하도록 되어 있다. 가족구조의 형성과 해체의 계기가 되는 결혼과 이혼의 경우 ‘자유’ 원칙이 강조된다. 셋째,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 기능의 측면에서 사회주의 이론과 현실사회주의 모두 가족을 통한 사회 재생산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론은 부부 모두가 가족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인 책임을 지며,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주의 혁명주체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성차에 의한 역할분업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가족 내 성별 분업이 초래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 가족관계에서 중심적인 관계는 부부관계로 설정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부부는 이론적으로 참된 성애에 기초하여 절대 평등의 관계를 형성하며, 혁명적 동지애를 나누는 것으로 인식<sup>4)</sup>된다.

## 제2절 7.1 경제조치와 슈퍼맘의 등장

북한 사회는 개인적인 욕망 자체를 강하게 통제하는 억압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위의 책, pp.44-45.

4) 위의 책, pp.53-54.

오직 집단적인 통제 속에서 약간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용인할 뿐이다. 특히 2002년 7. 1경제조치의 실패이후 많은 혼란과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왔다. 북한의 어려움은 식량난 등으로 인해 완전한 국가배급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상품거래를 목인했다. 따라서 중국 상품과 한국 상품이 밀거래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공산당 간부를 비롯한 특권층에서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욕망을 드러내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중국이나 한국 상품 등 명품선호현상이 있으며, 아파트 내에 갓출 수 있는 필수적인 가구나 전자제품의 구비정도를 가지고 상호비교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적 아파트에 사는가 아니면 누추한 단독가옥인 살림집에 사는가를 비교하거나 휴일에 가족끼리 놀이공원이나 유적지를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만 보더라도 주인공 여학생은 학교친구의 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하면서 가족보다는 과학이라는 국가적 일에만 매달리는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다.

사실 7. 1조치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초부터 북한사회는 구소련연방의 해체와 중국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내부적인 통제에 주력했다. 하지만 국경지대로부터 넘어 들어오는 개방화의 물결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가 없었다.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유난히 김일성 수령이나 김정일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개인주의나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사적인 영역의 확대가 상당한 정도로 인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7. 1경제조치로 국가적인 배급망의 붕괴를 초래하여 개별 가정이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으로 내몰렸다. 이제 주부로서 북한여성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합법성을 지니지 않는 장마당으로 다가가 수밖에 없었다. 욕망을 내세우고 여성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단계가 아니라 기본적인 호구지책을 생각해서 장마당을 통제하는 국가보위부원들과 싸움닭도 마다하지 않아야 했다. 이제 북한여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다소곳하며 순종적인 여성상의 이미지를 내던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북한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아내로서의 내조라는 본업에서 확장성을 지녀야 했다. 주부의 제3의 역할은 장마당에서 쌀과 각종 야채를 구해 와야 하는 역할까지 떠맡았다. 이제 북한여성들은 소위 슈퍼맘의 확장성에 스스로 만족감을 표시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사회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선군시대 여성들의 본분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경성 대국건설을 위해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중략)……

우리 여성들 앞에는 가정을 건전하게, 혁명적으로 꾸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조국과 사회앞에 훌륭히 내세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이 임무를 다하자면 자신부터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야 하며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떳떳한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sup>5)</sup>

### 제3장 《로동신문》에 비취진 북한의 여성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북한 여성들의 직업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의 여성 노동자 구성비는 70%와 15%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표 2> 《로동신문》 기사에 기사화된 횟수는 모두 4회로 같다. 또한 <표 1>의 교사 직종 역시 인민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는 80%와 30%로 인민학교 교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지만 <표 2>의 《로동신문》에 기사화 된 인민학교 교사 3회, 고등중학교 교사 2회, 교수 2회 등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공업 부분과 인민학교 교사 부분에 비해 중공업 부문이나 고등중학교 교직, 대학교수직, 연구 직종에 참여하는 여성의 활동을 북한이 정책적으로 점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표 1> 부문별 여성 노동력 비율

(단위 : %)

농업	경공업	중공업	인민학교 교사
60%	70%	15%	80%
고등중학교 교사	교수	지하노동	임업
35%	15%	20%	30%

출처 : 통일원, 1986, 『북한의 여성생활』, 통일연수원, 17쪽,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1997, p.33, 재인용.

5)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37호, 근로단체출판사, 2011.6, p.33.

6) 1980년대 여성과 1990년대의 여성의 직업 분류는 김귀옥 외 의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대동, 1997)를 참조하고 있다.

〈표 2〉 1990년 《로동신문》 제4면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분류(총30회)

농업	경공업	중공업	인민학교 교사
6회	4회	4회	3회
고등중학교 교사	교수	의사/연구사	서비스
2회	2회	4회	5회

출처 :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1997, p.33.

2000년대로 들어서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된다. 북한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인력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혁신자로서의 ‘신여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신여성’은 CNC화와 더불어 부각된 전문가형 근로인테리 계층의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며,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의 혁신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가정을 위해 공장을 그만두었던 주부들의 공장으로 복귀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로동신문》에 비취진 이러한 북한 여성의 모습을 2009년 5월 기사와 2012년 5월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맛좋은 젓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차 리원국 찍음

〈사진 1〉 2009년 5월 9일자 《로동신문》

먼저 2009년 《로동신문》을 보면, 5월 9일자 <사진 1>은 평양시 구빈축산협동전문농장에서 젓가공품을 생산하는 여성, 5월 15일자 <사진 2>는 삼일포 특산물공장에서 갖가지 식품과 경공업품을 생산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또한 5월 24일자 <사진 3>은 동대원애국편직물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5월 29일자 <사진4>는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그리고 5월 27일자 <사진 5>는 문덕군 독립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홍보하고 있다.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라 - 경공업혁명의 봉화를 높이 든 삼일포특산물 공장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

<사진 2> 2009년 5월 15일자 《로동신문》





〈사진 3〉 2009년 5월 24일자 《로동신문》



년간계획을 넘어서 완수한 혁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꽃다발을!  
-사리원방직공장에서- 리진명 찍음

〈사진 4〉 2009년 5월 29일자 《로동신문》



모 판 관 리 를 과 학 기 술 적 으 로 하 고 있 다.  
—문덕군 동림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문길수 찍음

〈사진 5〉 2009년 5월 27일자 《로동신문》

다음, 2012년 《로동신문》을 보면, 5월 6일자 <사진 6>은 무산식료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5월 24일 <사진 11>은 평양대동강피복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지배인 맹진주의 모습 등 ‘경공업의 혁신자로서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다. 5월 16일자에 실린 <사진 7>는 “산업미술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창작토론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예술분야’의 계통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홍보하고 있다. 5월 18일자에 실린 <사진 8>은 “효능있는 식물성 농약생산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 있는”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에서 박사 김영설, 5월 23일자에 실린 <사진 10> 역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여성 과장 김명진 등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과학자의 모습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기 시작한 ‘전문가형 근로인테리 계층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5월 21일자에 실린 <사진 9>는 농장에서, 5월 31일자에 실린 <사진 12>는 분지만간석지의 소금밭건설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신문》의 기사에 실린 여성의 모습을 보면 경공업 분야, 예술 분야, 과학 분야, 농업·광업·어업 등 북한의 주요 산업 현장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더구나 이들 여성은 분조장, 책임

비서, 연구사, 박사, 소장, 방직장, 총지배인, 과장, 실장 등 각 부분에서 주변적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사진 6〉 2012년 5월 6일자 《로동신문》



산업미술을 적극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창작토론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사진 7〉 2012년 5월 16일자 《로동신문》



효능높은 식물성농약생산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고산군식물방역소에서— 본사기자 적음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에서 박사 김등무, 김영설동무를 비롯한 이곳 과학자들은 지방별 특성에 맞는 유기질재료와 집집승배설물, 적은 량의 화학비료를 리용하여 유기질복합비료를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사진 8〉 2012년 5월 18일자 《로동신문》



평담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며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장 청 일 적음

〈사진 9〉 2012년 5월 21일자 《로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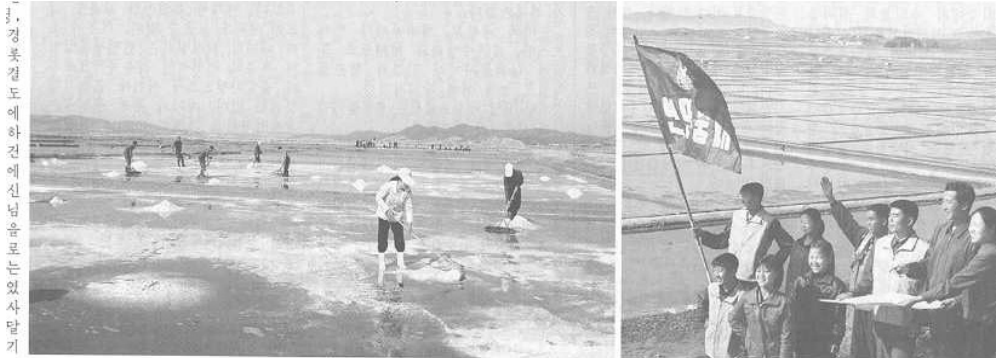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과장 김명진 : 최근 분원의 연구소들에서 10여종의 병원성 미생물과 유전자전이작물을 검사할 수 있는 생물소편을 제작하는 등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사진 10〉 2012년 5월 23일자 《로동신문》



평양대동강피복공장 지배인 맹진주동무에 대해 이곳 종업원들은 모르는 것이 없는 박식가, 무슨 일이나 앞장에 서서 끝장을 보고야마는 실천가형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군 한다.

〈사진 11〉 2012년 5월 24일자 《로동신문》



분지만간석지의 소금밭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치는 김설경, 김성애, 장은희, 김향미, 김은하, 윤향희 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처녀 결사대원들과 매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넘치게 수행하고 있다.

〈사진 12〉 2012년 5월 31일자 《로동신문》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고찰하기 위해 <표 3>에서는 2009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을, <표 5>에서는 20012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을 분류해 보았다.

2009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들의 특이점 중의 하나는 가족을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 구심점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아홉 번째 자식을 낳은 평강군 기산리 송금숙 가정, 2012년 5월 2일자, 5면)과 더불어 마을의 구심점으로서의 여성의 역할(북창군 송남로동자구13지구 98인민반장 김금녀 동무, 2009년 5월 12일자, 4면)을 강조하는 기사가 있었다. 더불어 원군에 앞장서는 여성에 대한 기사(피현군 성동리 김용천·안은숙부부 - 원군, 2009년 5월 11일자 4면, 영예 군인들의 치료와 재활 리만녀 동무 - 원군, 2009년 5월 19일자 4면, 남포시 서흥동 15인민반 류혜옥 동무의 가정 - 2009년 5월 29일자 4면)도 3회에 걸쳐 실렸다. 여성들의 역할이 가정에서의 구심점은 물론 마을에서의 구심점에 이어 원군에 까지 다양하게 요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09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날짜	직업 분류	기사인물
2009.5.1일자, 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여성들
2009.5.1일자, 4면	의주군 읍협동농장	분조장 한명희 동무
2009.5.2일자, 4면	보통 강려관관리국	로동자 김영희 동무
2009.5.4일자, 4면	중앙동물원 사양관리직장	수류 2작업반 반장 김순옥동무
2009.5.4일자, 4면	자강도 도서관	김명희 동무
2009.5.6일자, 3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경선동무
2009.5.6일자, 4면	철산영예군인고려약공장	김춘심동무
2009.5.6일자, 4면	황해북도육아원	우현순동무
2009.5.7일자, 3면	서두농장 제1작업반	최명희동무
2009.5.8일자, 3면	군상업관리소	군당직외강연강사 김행화동무
2009.5.8일자, 4면	지방산업공장	주복순 동무
2009.5.9일자, 4면	천마광산	로동자 박영실, 한명희 동무
2009.5.9일자, 4면	구성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
2009.5.10일자, 3면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 김명화
2009.5.13일자, 3면	평상제사공장 조사1직장	1작업반 반장 조영실동무
2009.5.14일자, 3면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한창화, 김순희, 강진옥 동무
2009.5.14일자, 3면	신흥군 경흥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	진용희 동무
2009.5.15일자 1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 공장	평안남도 녀맹조직들
2009.5.16일자, 3면	구성방직공장 방적중학집장직장장	김영월동무
2009.5.16일자, 4면	특수 가발제작	공훈 예술가 김순녀동무
2009.5.17일자, 3면	문덕군 안흥협동농장	제1작업반 리설옥, 김명옥 동무
2009.5.17일자, 3면	순천리 평리협동농장	조순희, 한춘화, 정춘영 동무
2009.5.17일자, 4면	만수대 예술단	공훈배우 리순애 동무
2009.5.19일자, 4면	영예 군인들의 치료와 재활	리만녀 동무
2009.5.19일자, 4면	강령군 내동협동농장	뜨락또르 운전수 가정
2009.5.19일자, 3면	락원군 세포협동농장	농근맹원 동금옥 동무
2009.5.20일자, 4면	평양일용품공장	직장장 정옥진 동무
2009.5.20일자, 4면	염주군 다사협동농장 제4작업반	1분조 김금실, 장명순, 한송희 동무

날짜	직업 분류	기사인물
2009.5.20일자, 4면	만경대구역 당상 2동 8 인민반	김종한 동무 가정 - 박사가정
2009.5.21일자, 4면	3대혁명붉은기 선봉피복공장	김현숙 동무
2009.5.22일자, 4면	국가과학원	로동자 림성순 동무
2009.5.22일자, 4면	사리원 하피복공장	전순옥 동무
2009.5.23일자, 4면	덕천 시제2인민병원 고려치과	장혜경 동무
2009.5.24일자, 3면	삼지강협동농장 제3탁업반 1분조포전	오순영, 리경애 동무
2009.5.25일자, 3면	신의주 방직공장	오영란 동무
2009.5.26일자, 3면	신리탄광에서	김태순동무
2009.5.26일자, 3면	연산군피복공장	장경애동무
2009.5.27일자, 4면	온천군 안석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순득 동무
2009.5.29일자, 4면	박천견직공장 제2직포직장	준마처녀-최문희, 김은숙동무
2009.5.30일자, 4면	강서군 고려병원	김경해, 리필녀동무

출처 : 2009년 5월 1일~2009년 5월 31일 《로동신문》 기사 분석

〈표 4〉 2009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분류(총40회)

농업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
12회	9회	6회	1회
의료업	교수·과학자	광업	예술단
3회	5회	2회	2회

출처 : 2009년 5월 1일~2009년 5월 31일 《로동신문》 기사 분석

2012년 5월 《로동신문》을 살펴보면 ‘CNC화 등 최첨단 과학화, 정보화 실현’ 기사가 전체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장 비중이 많은 기사로는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인민소비품 생산성 확대와 경공업 박차’였다. 그리고 인민들의 ‘문화 생활의 향상’을 위한 유원지 개발 등의 기사가 많았는데, 룡라인민유원지개발사업(2012년 5월 1일 1면), 강성원(2012년 5월 4일 2면), 은하수 음악회(2012년 5월 15일 4면), 개선청년공원유희장(2012년 5월 26일 3면), 류경원과 인민 야외빙상장 건설사업(2012년 5월 26일 3면), 중앙동물원(2012년 5월 28일 1면), 창전거리 아동백화점(2012년 5월 31일 1면) 등을 김정은이 방문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표 5〉 2012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날짜	직업 분류	기사인물
2012.5.1일자, 3면	녕변건직공장	초급당비서 홍영실
2012.5.6일자, 3면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	안옥영동무의 가정
2012.5.6일자, 4면	룡양광산으로 자원진출한 평양문 신중학교 졸업생들	조장향 8남매와 리용녀 녀성
2012.5.6일자, 4면	신발수리공 부부	정춘화 동무
2012.5.8일자, 4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연구사 박사 최영희
2012.5.11일자, 3면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 피복기술 준비소	소장 리영애 동무
2012.5.11일자, 5면	평양안경상점 지배인	송성희 동무
2012.5.13일자, 3면	량강도 통신초소	신옥희 동무
2012.5.16일자, 4면	홍남은하피복극장	로동자 한경숙 동무
2012.5.17일자, 4면	수평방사직장	방사공 신현애 동무
2012.5.18일자, 3면	회창기초식품공장	제대군인처녀
2012.5.18일자, 4면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	김영설동무
2012.5.19일자, 1면	창대직포직장	련조방직장 리순희, 1정방직 장 림순희, 량현미, 양정희, 3 정박직장 김혜옥 동무
2012.5.19일자, 3면	대동강축전기공장 3대 혁명 소조원	소조원 박수정, 최경원, 김예 은, 김윤미 동무
2012.5.21일자, 3면	정방산종합식료공장 3대혁명 소 조원	소조원 리신명 동무
2012.5.21일자, 4면	강계편직공장	지배인 강성화 동무
2012.5.23일자, 3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과장 김명진
2012.5.24일자, 4면	평성대동강피복공장	총지배인 맹진주 동무
2012.5.25일자, 4면	황해남도농기계부속품 상점 종업 원들	최세옥 동무
2012.5.28일자, 4면	고참탄광 대사갱	윤정공 리철옥 동무
2012.5.28일자, 4면	체육과학원 체육의학연구소	실장 김성실 동무
2012.5.28일자, 4면	온천군 온천중학교	생물교원 리영순 동무
2012.5.30일자, 면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여성동무들
2012.5.31일자, 5면	분지만 간석지 소금발전설장	김설경, 김성애, 장은희, 김향 이, 김은하, 윤향희 동무

출처 : 2012년 5월 1일~2012년 5월 31일 《로동신문》 기사 분석

〈표 6〉 2012년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여성의 직업 분류(총 25회)

농업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
2회	10회	1회	1회
간석지 개척	연구사·교사·과학자	광업	
1회	6회	2회	

출처 : 2012년 5월 1일~2012년 5월 31일 《로동신문》 기사 분석

2009년(김정일 시대)과 2012년(김정은 시대)의 북한 여성들의 직업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의 《로동신문》에 기사화 된 여성의 직종은 농업(12회), 경공업(9회), 전문가형 근로인테리로 분류되는 의료업·교수·과학자(8회), 중공업(6회) 순이다. 또한 <표 6>에서는 경공업(10회), 전문가형 근로인테리로 분류되는 연구사·교사·과학자(6회), 농업(2회) 순이다. 경공업과 전문가형 근로인테리로 분류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2009년 총40회 중 17회, 2012년 총 25회 중 16회로 각각 42.5%, 64% 등 여성 직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직종으로 여겨졌던 중공업과 광업으로의 여성 진출도 2009년 8회, 2012년 3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정책이 여성에게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제4장 ‘청춘’으로서의 여성성과 대담한 환상

### 제1절 청년들의 애정관과 노동관

청춘이란 용어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돋게 하고 힘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작용을 한다. 원래 이 말은 사람의 어떤 특정한 젊은 시기를 계절에 비유하는 용어이다. 즉 청춘의 사전적 의미는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이다. 1914년 최남선이 주재한 『청춘』이란 계몽적 대중잡지가 있었으며, 청춘이란 말이 들어가는 TV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었다. 이를테면 「청춘예찬」(2009년, KBS 1TV 드라마), 「청춘」(2000년, 박지균 감독의 로맨스 영화), 「청춘불패」(2010년, KBS 2TV 예능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이러한 청춘이란 용어가 북한문학에서는 독특한 위상을 획득하고 있다. 북한문학에서 청춘은 단순하게 청년시기를 의미 할뿐만 아니라 ‘새 세대’라는 의미도 지닌다. 독특하게도 청춘이란 용어는 북한에서는 일종의 군중노선이나 대중노선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젊은이들을 노동현장에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일에 동원하기 위한 과포장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문학에서 청춘이란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천리마운동을 통해 전후 복구 작업을 독려할 때부터 사용한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4년에 평양에서 출간된 『청춘송가』<sup>7)</sup>라는 시집이 있다. 당시 북한의 젊은 시인들인 안룡만, 정문향, 리호일, 정서춘, 김광섭, 백하, 상민, 리효운, 신진순 등의 시와 중견시인들인 박팔양, 김조규, 리찬, 김복원, 김순석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시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새 세대」, 「좋다, 청춘이여」, 「청춘의 노래를 부르며」, 「처녀 차장에게」, 「처녀의 마음」, 「청춘 시절」, 「청춘을 노래한다」, 「조선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집 간행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차승수의 「새 세대」를 보면, 당시 국가와 노동당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조국의 열렬한 축복 속에  
 의무 교육 정문으로 들어 선 첫 세대,  
 우리는 비발치는 탄우 속에 한 치 또 한 치  
 부모님들 배밀이해 지나간 땅 우에  
 또 다시 배움의 아침길 맞이한 세대.  
 .....(중략).....

기뻐하노라, 오오 기뻐하노라,  
 조국 위해 흠뻑 땀 흘리고  
 가슴 불태울 엄청난 일감을  
 어디서나, 언제나 받으러 갈 수 있음이.  
 우리 몸에서 흘러 내린 땀방울들이  
 조국의 행복 우에 귀중한 무늬로 수놓아짐이,

— 차승수, 「새 세대」 일부<sup>8)</sup>

7) 오영재 편, 『청춘송가』,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청년들은 해방 후의 의무교육의 혜택을 본 새 세대로서 전후 복구시기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북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청년전위로서 앞장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 시집에서 청춘은 바로 ‘세 세대’를 의미한다. 또 청춘의 강조는 청년세대들이 천리마운동 시기에 전후복구의 전위에 서야함을 촉구하는 균중노선인 캠페인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천리마운동 시기의 청춘 예찬이 다시 등장한 시기는 김정일 시대를 알리는 고고성과 함께 하였다. 북송자녀 중 한 명인 소설가 남대현은 장편소설 『청춘송가』<sup>9)</sup>를 발표하여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청춘송가』는 소위 북한문학에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던 것이다. 『청춘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김정일의 지도와 독려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중장편소설 창작전투기간에 집필된 장편소설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소위 그것은 북한에서 청년인텔리계층을 청년전위로 내세워 세대교체를 시도하려는 김정일의 의도에서 비롯된 문예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숨은 영웅 찾기’라는 캠페인으로 이어진다. 『청춘송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연구소에 남지 않고 자신의 새 연료안을 완성하기 위해 제철소 강철직장의 기사로 취업한 남주인공 이진호가 금속공업부 심사실장이나 초급당 비서 그리고 강철 직장 동료들의 냉대와 질시 속에서 불굴의 투지로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새로운 연료안에 대한 실험을 성공시키는 인간 승리의 기록이다. 남대현의 『청춘송가』는 북한문학사에서 소위 청춘시리즈의 계보에 속한다.

북한의 비평가들도 이러한 독특한 청춘물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춘식은 “청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지향과 전투적이며 량만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 것은 시대적으로 매우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이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사회에서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다. 청년들은 진취성이 강하고 전투적이며 량만적이다”<sup>10)</sup>고 청년들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청년문학의 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청춘을 강조하는 문학작품들이 청년들의 활동만을 부각시키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이후부터는 처녀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소설작품으로는 1991년에 발표한

8) 위의 책, pp.31-34.

9) 남대현, 『청춘송가』, 평양, 문예출판사, 1987.

10) 오춘식,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이상에 대한 형상문제」, 『조선문학』(1991년 제11월호), 평양, 문예출판사, p.30.

류정옥의 「매력」과 1996년의 조근의 「녀전사의 길」 그리고 2000년에 발표한 한원희의 「갈매기」가 있다. 이렇게 처녀들의 직장에서의 활동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생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북한현실에서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당국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류정옥의 「매력」은 고교를 졸업하고 함께 직포공으로 취업한 문경실과 리지예의 여성으로서의 질투와 라이벌의식을 다룬 단편소설이다. 직포공 문경실은 학창 시절 1등을 놓치지 않고 외모도 예쁜 지예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예가 뚜렷하게 삶에 대한 지향점과 견해를 가지지 않고 시대유행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직장생활을 하면서 뒤처지는 동창생들 대신에 분공장 확장공사에 솔선수범하여 나가는 등 헌신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매력」은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예욕과功名심이라는 허울 속에 안주하여 편한 삶을 추구하는 자신보다 집단과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예와 같은 인물이 더 가치가 있다는 여성으로의 자각과 새로운 품성 높은 가치관 추구를 강조하는 작품이다. 작품에서 1인칭 시점의 경실은 “나는 귀중한 보물을 바라보듯 뜨거운 이슬이 반짝이는 그 눈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사랑의 아름다운 빛이 분출하고 있다. 저 소중한 것이 있기에 지예는 어디에 가거나 여기서처럼 이내 정들 것이며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품성을 지녔다. 모든 사랑의 표적은 헌신이고, 사랑이 없을 때 헌신할 수 없기에 사랑은 귀중한 것이다”라고 헌신의 덕목에 대해 무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 제2절 낭만적 사랑과 생산적 사랑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사랑은 근원적 고통을 간직한 인간에게 소통의 기회를 줌으로써 외로움의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낭만적 사랑의 열정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가정을 이루게도 해준다. 인간은 왜 끊임없는 사랑의 욕구를 느끼는가? 라캉(J. Lacan)은 이러한 사랑의 과정을 ‘근원적 분리감’으로 설명한다. 인간은 태아일 때는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지만, 탄생과 더불어 두 몸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와 애초에 한 몸이었던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삶의 전 생애를 통해 어머니와의 근원적 분리감을 느낀다. ‘근원적 분리감’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욕구’의 다른 측면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머니와 한 몸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근원

적 분리감은 분리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상태를 근원적 결핍감으로 느끼게 만든다. 근원적 분리감을 극복하는 동인이 되는 근원적 결핍감이라는 이 원초적 요구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강력한 힘<sup>11)</sup>이다.

그리스에서는 욕망에 대해 두 단어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부재하는 이에 대한 욕망으로 포토스(Potos)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이에 대한 욕망으로 강렬한 히메로스(Himertos)<sup>12)</sup>가 있다. 사람들이 첫사랑을 못 잊어하는 이유는 포토스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없을 때 몹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바로 포토스 때문이다.

북한 소설문학에도 처녀와 총각 사이의 사랑에 대한 진솔한 감정 표현과 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개념 차이에 따른 변민 등이 묘사된 작품들이 많다. 특히 198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투성을 벗어나 소설문학에서의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는 후로 더욱 청춘예찬과 낭만적 사랑에 대한 표현이 급증했다.

그러면 북한여성들의 애정관은 어떠한가? 첫째,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낭만적 사랑’으로 출발해야 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져야 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감정만을 고려해볼 때는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친밀성과 열정의 단계를 넘어서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다른 변별성이 나타난다.

석남진의 「한 녀교원의 사랑」에서 여주인공인 인민학교 교사 금숙은 8년 전에 눈보라치던 겨울 밤 극적으로 만났던 남자친구 황명진에게 낭만적 사랑의 기분을 느낀다. 현재 인민군대의 병사인 그가 애초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부대 부소대장이 자연관찰을 하던 인민학교 학생을 덮치는 통나무 발구를 멈춰 세우려다 희생당하게 되자 그를 대신해 군대에 계속 남기로 결심한다. 금숙은 31살의 노처녀이지만, 부친의 칠순잔치에 3시간 조건으로 어렵게 참석한 황명진을 만나 포옹하면서 사랑을 확인한 후 언제일지 모를 그의 제대를 기다리기로 결심한다. 금숙은 곧 한동안 이별해야 할 황명진과 다음과 같이 말없이 걷는 것으로 벽찬 사랑의 감정을 억제한다. 황명진은 그가 4년 동안 군대에 있는 동안 금숙이 시집간 줄로 착각했다. 하지만 금숙은 “우리가 말없이 작별인사를 나누던 그날에 나를 보던 명진동지의 눈빛을

11) 배은경 외 편, 『성·사랑·사회』, 한국방송대출판부, 2006, p.75.

12)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김희영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1, p.30.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며, 낭만적 사랑의 열정으로 인해 그를 평생 기다리기로 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한다.

그러나 금숙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마디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무엇이 라고 말하랴. 사랑이란 결코 백지에 수표를 받는 경수증같은 것일 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 심장에 느껴지는 다른 심장의 고동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침묵속에서 헤어질 때까지 견는것뿐이었다. 드디어 명진의 발걸음이 주춤했다.

<금숙동무, 정말 고맙소.> (무엇이 고맙단말인가? 내가 아버지의 생일에 온 것이... 아니면 바래주러 따라나온 것이?...)

그들은 다시 침묵속에 걸어갔다. 명진은 참으로 말하기 힘들어했다. 그야말로 무진애를 쓰며 말마디를 골랐다.

<금숙동무, 솔직히 말해서 난 동무가 시집간줄로 생각했댔소.>

<예?> .....( 중략 ).....

<금숙동무, 그러나 난 병사요. 언제까지라도...병사요.>

금숙은 눈물속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있어요. 하지만 저도... 병사예요. 언제까지라도...>

다음순간 그는 자기를 와락 포옹하는 뜨거운 가슴을 느꼈다.<sup>13)</sup>

둘째, 총각과 처녀들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믿으며 동반자로서 미래의 행복을 열어나갈 상대를 찾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국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희생적인 상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소설문학에서는 묘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 세대 청년들로서의 성격을 북한문학은 주문하고 있다. 한원희의 「갈매기」는 독특하게도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소설로서 남녀주인공 홍명애와 남태성간의 사랑의 갈등과 소통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서해바다의 천해양식장에 떼바줄을 실어 나르는 선박의 14명 선원들의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선원인 홍명애는 선원 남태성의 노골적인 구애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그런데 홍명애는 나침반과 기관의 고장으로 백령도 근처 남쪽으로 표류하는 배를 구하기 위해 11월 추운 바다로 뛰어들어 배 밑창에 걸린 밧줄을 풀어내어 조난위기의 배를 구해낸 남태성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에 감동을 받아 그의 사랑을 받아주기로 결심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북한 작가가 제시하는

13) 석남진, 「한 녀교원의 사랑」, 『조선문학』1996년 9월호, p.47.

애정관은 개인주의적인 행복관에 바탕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해와 국가를 위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생산적인 애정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제5장 소설작품 속의 북한여성의 특징과 혁신자로서의 ‘신여성’

### 제1절 건강한 여성상과 ‘전문가형 근로 인테리’의 조성

북한에서는 모성의 건강함을 매우 강조한다. 모성의 건강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튼실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 노동력이 부족한 북한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튼튼한 자녀를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한 사회이므로 여럿의 아이를 낳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성을 강조한다. 정신적인 건강함은 주체의 조선여성이라는 포부를 지녀야 함으로 역설하고, 동시에 여성의 고유 본성인 어머니라는 모성애를 갖춰야 함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여성들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것은 1980년대의 『조선녀성』과 2011년의 『조선녀성』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걷는 것과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첫 교양을 잘 주는가, 못 주는가가 아이들의 발전에 큰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녀성』 1980. 4)<sup>14)</sup>

가정교육에서는 부모의 교양이 중요하며 특히 녀성들, 어머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눈동자에 비끼는것도 어머니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걷는 것과 말하는 것, 옷 입는 것과 밥 먹는 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첫 교양을 잘 주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선녀성』 2011. 8)<sup>15)</sup>

14)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1997, p.93.

15)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639호, 근로단체출판사, 2011.8, p.23.



이렇게 북한의 『조선녀성』은 모성은 강조하면서도 부성은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북한의 자녀교육관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면에서 떠오르는 것은 집안일은 어머니, 바깥 일은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론<sup>16)</sup>이다.

하여튼 북한당국은 여성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매우 강조한다. 북한여성들에게는 모성에 대한 역설을 하는 동시에 인테리에게는 좀 더 다양한 역할을 주문한다. 노동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여성지식인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지식인들은 ‘전문가형 근로인테리’가 되어야 함을 주입시킨다. 여성지식인들은 첫째, 최첨단과학기술과 핵심기초기술의 혁신과 비약을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 주어진다. 미사일기술이나 핵개발 기술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거론했으나 최근에는 여성과학자들에게도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변화된 특징이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서 과학기술전선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과학기술의 강국이다. 우리의 가장 위력한 사상과 총대에 최신과학기술을 결합시키는 것은 불패의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담보이다.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 강성대국은 과학기술을 떠나 실현할 수 없다.

여성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조국,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불타는 애국의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하여 핵심기초기술과 최첨단과학기술, 중요부문 기술공학과 기초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sup>17)</sup>

둘째, 문화의 창조자, 전파자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주문하고 있다. 소위 전세계적으로 21세기가 신지식인의 시대이고, 문화콘텐츠의 시대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문화의 창조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총대정신과 쌍벽을 이루는 붓대정신을 들고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김정일이 일찍이 당 마크에 망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긴 김일성의 붓대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여, “총대와 함께 붓대를 선군혁명승리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로, 강성국가 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시고 지식인들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승

16) 김귀옥 외, 앞의 책, p.93.

17)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42호, 근로단체출판사, 2011.10, p.21.

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고 김정일의 업적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 권력자를 거론한 것은 바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셋째, 여성지식인들이 과학탐구의 어려운 길에서 실패 앞에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용기가 요구된다고 주문하고, 그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여성지식인들은 자기 전공분야에 정통하고 현대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밝으며,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소유한 박식가가 될 것을 주문<sup>18)</sup>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과학자나 기술인 등 지식인에게만 전문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와 협동농장 관계자에게도 ‘전문가형 근로인테리’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1세기가 지식경제사회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명진이 창작한 1인칭 시점의 단편소설인 「얼굴」은 도시설계사업소의 도시설계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도시설계사업소의 기사장인 명국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도미술창작사에서 화가 일을 보고 있는 아들 명수가 그린 처녀초상화에서 머느리 감인 신정희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신정희의 아버지는 바로 자신과 고등중학교시절 단짝이었던 신현규인 것이다. 신현규는 대도시의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서중군의 지질탐사대의 일원으로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친구의 이러한 국가를 생각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칭찬하던 명국은 서중군의 새로 건설할 거리 현상안 공모에서 자신의 설계도면이 부결되고 신정희의 안이 채택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건설전문학교 교원으로 있는 신정희의 설계안은 그녀의 아버지 신현규의 설계초안과 모델이 될 수 있는 동산군 학생소년회관을 아버지가 스케치해온 것을 참작해 새롭게 만든 설계도면인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작품은 친구사이인 명국과 현규 사이의 우정과 추억을 바탕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여성지식인인 도시설계사 신정희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의 창조력을 강조하는 북한당국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지식인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한 것이다.

《아버지가 가져온 그 도면은 정희동무의 설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면에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거리를 일떠세우려는 정희동무의 불같은 지향

18)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42호, 근로단체출판사, 2011.11, pp.21-22.

이 어려웠습니다.……(중략)……

감회가 깊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소심하고 참하기만 했던 현규의 성격에 환멸을 느꼈었다. 곱살한 그의 얼굴마저도 역겹게 보았었다. 현대 오늘은 … 설계도면에 비친 현규의 얼굴은 전혀 새롭게 느껴진다. 땅속에 묻혀있는 귀중한 광물들을 찾아 낸것만으로도 자기존재를 뚜렷이 한 사람, 어제 난 품었던 소중한 꿈을 시대의 높이에서 꽃피우려는 열렬한 지향을 안고 불같이 사는 사람, 세월의 흐름이 그를 퍼그나 변모시켰을테지만 나는 분명 새로운 모습, 시대를 안고 사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sup>19)</sup>

북한당국이 여성들에게 전문가형 근로인테리를 강조하는 것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들어서서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고 권력기반도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해서 그런지 김정은 동지 두리에 굳게 뭉쳐 함남의 불길 높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을 힘차게 펼쳐 나가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것의 토대로 다음과 같이 김정일의 유훈을 앞세우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김일성의 항일대전의 고귀한 전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권력의 3대 세습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논리전개로 파악된다.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혁명은 단결로 시작되었으며 단결의 위력으로 고수되고 전진하여왔습니다. 우리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언제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 것은 단결이었습니다.)

위대한 경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이 어제든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승리해나갈 수 있게 하는 불패의 기치이다.

백두밀림에서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근 한세기가 흘러갔다.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단결의 전통이 창조되고 대를 이어가며 그 순결성이 고수되어온 승리의 역사로 천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간고한 항일대전의 혈전만리를 헤치며 마련된 단결의 고귀한 전통은 대를 이어 끊임없이 흐르며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19)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 2009년 3월호, p.60.

중심, 경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여왔다. ……(중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 일심단결의 중심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전 세대 여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성혁명가들의 고귀한 전통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것을 따라 배워야 강성국가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를 펴다. 특히 확고한 신념을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도자 김정은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사설에서의 논리전개는 진실한 인간, 영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 뛰는 참된 인간이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다.

경도자를 삶의 태양으로 여기고 자지 경도자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투쟁해나가는 것은 우리 여성혁명가들의 고귀한 전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혁명적 신념으로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높이 발휘되었던 전세대 여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어려운 때일수록 경도자와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는 진실한 인간, 경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동지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여성 과학자와 여성 기술자가 많으며 그들이 헌신하여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경제시대이므로 최첨단 과학기술로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CNC화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의 돌파구를 열어준 이가 바로 김정은동지라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0년 1월 1일 당이 CNC화를 주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다. 김정은은 “CNC화는 오늘 첨단을 돌파할 데 대한 당의 사상을 집약화한 시대어입니다. 우리 식 CNC기술을 개척하는 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첨단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자는 것이 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첨단돌파사상이고 강성대국건설 구상입니다”<sup>20)</sup>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CNC사업을 김정은 등장의 상징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만들어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CNC화에는 남성 전문가형 근로인테리도 필요하지만, 여성 전문가들의 창안능력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을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 못지않게

20)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45호, 근로단체출판사, 2012. 1. 24, p.24.

일을 해내는 여성군인들과 여성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노력혁신자들이 많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과학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모와 투쟁기풍 그리고 생활기풍이 높히 발양되어야만 강성국가 건설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선군시대 우리 녀성들의 혁명적이고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와 투쟁기풍, 세워할 기풍은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높히 발양되고 있다.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서있는 녀성군인들과 남성들 못지 않게 일을 해제끼는 녀성일군들, 녀성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력혁신자들이 많으며 수많은 녀성들이 자기 초소를 지켜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지어 가두녀맹원들까지 돌격대를 무어가지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누구나 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경도자의 어깨에 실린 중하를 최선을 다하여 덜어드리는 참된 동지,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용기백배하여 억척같이 버티고 일떠서서 경도자의 사상과 경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실현해나가는 불굴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21)

『조선문학』 2012년 3월호에 게재된 「까치봉의 큰집」은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요구되고 있는 전문가형 근로인테리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인공 하선금이 예성강 물길을 옆에 끼고 서쪽으로 뻗어가는 산줄기가 기름진 송세벌에 주저 않으며 봉긋한 자태를 남겨놓은 까치봉의 두툼한 눈길을 헤치며 걸어가는 것으로 소설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하선금은 도농업 건설설계연구소의 설계기사로 일하고 있다. 층층돌계단 위에 서있는 작은집을 향해 하선금은 배낭을 메고 오르고 있다. 그 집은 1호발전소 건설을 마감 짓는 날까지 거처하면서 설계도면을 완성한 숙소로서 대체로 건설근로자들은 ‘큰집’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하선금의 꿈은 예성강의 새 물길이 쪽쪽 뻗어가게 새로운 공법을 창안하여 발전소의 건설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현장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일군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선금은 처녀가 아니라 남편 철진과 아들 위성으로 구성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주부이다. 그녀는 대학에서 건축설계를 공부한 소위 전문가형의 근로인테리 여성이다. 20세기까지의 북한소설과 달리 이러한 전문가형 근로인테리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이 창작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김정은 시대를

21)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47호, 근로단체출판사, 2012. 3. 24, pp.3-4.

맞이하러 고급 인텔리 여성들이 부쩍 소설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 김정은이 집권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새롭게 보여주는 문예이론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약간의 개방성을 지니는 경제부문을 제외하고는 소위 유훈통치에 가까운 행보를 보임에 따라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주체문학의 이론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주체문학이론에서도 소설문학에서 성격창조는 제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리얼리즘이론을 차용하여 성격의 전형화이론을 앞세운다. 어떤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인물성격을 어떻게 형상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학예술의 성격과 특징이 규정되며 그 사회적 가치와 인식교양적 역할이 좌우된다고 본다. 사실주의 문학예술에서 인물성격은 반드시 전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물성격의 전형화는 사실주의 문학예술발전의 매 단계에서 각이하게 진행되었으며 우리 시대 사회주의 문학예술에 와서 성격창조의 기본원칙으로 되었다고 본다. 다만 리얼리즘을 발전시킨 주체문학에서는 산 인간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주체적 문예이론은 이전시기에 제기되었던 성격의 전형화에 관한 이론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 풍부화하고 전일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물성격을 전형화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징을 옳게 파악하고 진실하게 그려내는 데 있다고 파악한다. 인간을 진실하게 그리는 것은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문학사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유물변증법적 철학은 인간을 사회적 제관계의 총체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이해를 확립하였으며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을 사실주의적으로 전형화하기 위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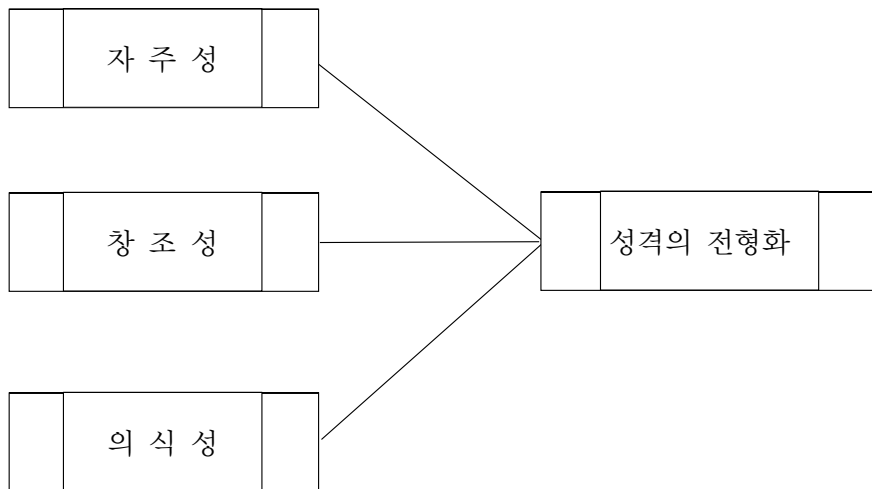
인물성격의 전형화라는 리얼리즘이론과 자신들의 주체문예이론을 절충하여 변증법적인 이론을 만들어낸다. 보편적인 전형 인물의 창조에 대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주체적 인간학의 기본적 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 주체사상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본질적 속성을 이룬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 없이는 사람이 사람으로 될 수 없으며, 살아 나갈 수도 활동할 수도 투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특성으로 파악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라는 뜻이다. 자주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생명으로 본질적 속성으로 되지만, 그것이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속성의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과

의식성도 사람의 속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사람의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은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와 개조자가 된다고 역설한다.

변영옥의 단편소설 「까치봉의 큰집」의 주인공인 하선금은 북한소설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가형 근로 인테리계층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21세기의 북한사회가 조금씩 국제적인 관점에 맞춰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선금은 ‘자주성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북한에서 여성으로는 드물게 도농업건설 설계연구소의 설계기사이다. 그녀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설계연구소에 머물지 않고 발전소 건설현장에 뛰어들어 예성강 물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까치봉의 큰집」의 소설 서두에서 하선금은 솜옷을 입고 진자주색 목도리를 두른 채 불룩한 배낭을 짊어지고 눈 덮인 까치봉을 오르고 있다. 인간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구나 그녀는 처녀설계사가 아니라 남편과 아들 위성을 가진 가정주부이지만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발전소건설장의 설계사로 당의 부름을 받아 떠난다. 일반적인 북한의 가정주부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인물로 묘사된다. 따라서 현실보다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성격의 인물인 것이다.



〈그림 1〉 주체적 인간이 ‘성격의 전형화’를 이루는 과정

하선금은 자주성만 지닌 것이 아니라 ‘창조성도 지닌 인물’이다.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서에서 창조성은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창조성을 지닌 인물성격이라는 점에서 하선금은 김정일 시대의 주체소설문학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 모두의 공통점은 현장에서 사회주의 현실주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정일시대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거칠고 개척적인 현장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분투하고 투쟁하는 격동적인 삶을 주로 그려나갔다. 또한 전문가형 인테리보다는 근로대중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김정일의 교시가 자주 내려졌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서는 근로대중들을 다룬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전문가형 인테리계층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전문가형 근로인테리로서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는 1983년 5월 사회주의현실주제소설 창작전형을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에 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중략)……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은 우리 소설문학이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로동자들보다도 과학자, 기술자, 교원 등 인테리들의 생활을 많이 그리고 있는 편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시기 우리의 적지 않은 작가들은 사회주의 현실을 취급하면서도 혁명의 경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생활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었으며 생산로동과 유리된 연구사, 기사, 교원들의 생활에서 그 어떤 문제성을 제기하려는 편향을 발로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소설문학에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세우고 로동계급의 문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서 바로잡아야 할 하나의 편향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는 로동계급소설문학의 계급적 본성과 사명 그리고 우리 소설문학의 실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할 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의 로동계급성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sup>22)</sup>

그러므로 전문가형 근로인테리계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까치봉의 큰집」은 김정일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김정은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노동력집

22) 오승련, 『주체소설문학건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p.248-249.



중형의 일반근로자가 아닌 하선금의 등장은 김일성의 교시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는 여성에게서도 전문가형 근로인테리의 전형을 찾으려 하고 있다. 하선금은 오랫동안 발전소건설장의 물길굴 설계를 맡아 해오던 현민석연구사가 불치의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당위원회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것으로 묘사된다. 보조연구사였던 하선금이 중요한 발전소 건설장의 설계를 책임지는 정식연구사로 부임한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정해졌다면 페미니즘이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실정에서는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직위부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일자리까지 모두에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노동력이 부족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특히 21세기의 지식경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고급 노동력의 수요는 북한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급 인테리 그룹을 갑자기 양산할 수 없다. 특히 현 교육체계에서 북한이 공급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을 활용할 계획을 입안하고 소설문학과 영화를 통해 그러한 미래의 인력 운용계획을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까치봉의 큰집」에서 하선금은 주부계층으로 묘사된다. 상식적으로 집을 떠나 벽지인 예성강가의 발전소 건설현장을 가려면 공사가 진행되는 몇 년 동안 가정주부역할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남편과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작품에서 남편은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교육과 뒷바라지는 누가 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제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소설문학은 선전선동의 매체로서는 가치를 입증 받을지 몰라도 사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텍스트에서 하선금의 남편은 아내의 걱정은 상관도 없이 웃음 띠 얼굴로 긍정적으로 외조를 장담하면서 발전소건설 현장으로 떠나는 아내를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있다.

그날 저녁이었다.

하선금의 말을 들은 남편은 싱글벙글 웃더니 <앞에 전사가 쓰러졌으니 다음 전사 출발진지로!>하고 오른손까지 척 들어 선금의 앞에 비껴그으며 호탕하게 말했다.

<아이참, 남은 걱정이 산곁에서 앉아있는데 당신은 그런 룡을 다해요?>

선금은 곱게 눈을 흘겼다.

남편은 다시 무릎을 바싹 마주대며 말했다.

<아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산곁소? 당당한 대학졸업생에 다년간의 현장경험도

있겠다. 또 이렇게 바위같은 남편도 있는데 이제부터 당당하게 실력행사를 해볼판이지 뭐.)

〈위성이 아버지, 그래도 난 어쩐지 두려워요. 현동지에 비하면야 난 아직 조수나 같은데...〉

그제서야 남편은 정색한 어조로 말했다.

〈현동지도 생각되는게 있어 당신을 추천했겠는데 맘먹고 잘해보오. 당신은 잘할 수 있소. 단지 내가 걱정되는건...〉

〈걱정되는건 뭐예요?〉

선금은 바싹 남편의 말꼬리를 잡아물었다.

남편은 선금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정색기를 썩 지워버렸다. 그리고는 능청스레 즉흥시 한구를 내뱉었다.<sup>23)</sup>

앞서 하선금은 창조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였다. 물론 그녀는 노동당의 지침에 부합되는 ‘의식성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집을 떠나 현장으로 가는 하선금을 바라다주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지난 기간 발전소들에서는 대체로 아치형물길굴을 설계하고 건설해왔어요. 그런데 현민석연구사동진 구배조건이 심한 ㄱ구간에 원호형 물길굴을 설계했어요. 이걸 최첨단의 요구에 올라선 새로운 방법이에요. 여기서 기본은 기부점을 해결하는건데 그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현민석연구사가 병원에 실려갔는데...여보, 지금 발전소에서는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자고 총공격전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ㄱ구간에 원호형물길굴설계가 도입되지 못하며 장마철전으로 물길을 완성할 수 없어요.>”<sup>24)</sup>라고 압박을 가한다. 이러한 압박은 남편의 압박이기 보다는 독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압박이라고 느껴진다. 그만큼 북한문학의 선동성은 뻔한 이야기전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데 한계가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남편의 압박 속에 전문가형 근로인테리인 하선금이 앞으로 떠맡아서 창안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공법과 달리 공사비용을 줄이고 공기도 줄이는 새로운 공법을 창안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선금이 창조성을 지닌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소설의 구성조직에 있어서 북한문학은 예술적 갈등을 반드시 삽입시킨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재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주인공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조직은 북한문학이 주체사상을

23) 변영옥, 「까치봉의 큰집」, 『조선문학』 2012년 제3호(통권 제773호), p.62.

24) 위의 책, p.63.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사실주의적인 문예사조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이론을 기본적인 틀로 사용한다. 따라서 문학예술은 부르주아적 사회의 모순을 퇴치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예술적 갈등에는 적대적 갈등과 비적대적 갈등이 있다. 적대적 갈등은 착취사회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문학예술 작품에서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근본원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착취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적대적 갈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적대적 갈등을 삽입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낙후한 생활습성을 반대하며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sup>25)</sup>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대적 갈등과 비적대적 갈등의 등장은 김정일 시대의 주체문예이론의 기본틀로 작용하지만 2012년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창작된 작품에서는 약간의 변화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비적대적 갈등의 변이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낡은 사상 잔재에 젖은 계층과 새로운 창발계층과의 싸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발방식을 두고 ‘주인공과 보조인물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파생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은 정통적인 비적대적 갈등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까치봉의 큰집」에서 주인공 하선금과 갈등을 빚는 인물로는 조광철대대장이 나온다. 그는 예성장 발전소건설장의 경험 많은 현장대대장이다. 하선금과 조대대장과의 갈등을 비적대적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대대장이 여성설계사인 하선금을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보았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조대대장도 당위원회결정에 수긍을 하고 하선금을 받아들인다.

두 사람간의 갈등이 첨예화하게 된 계기는 인간적인 결함이나 낡은 사상적 잔재 때문이 아니라, 하선금이 창안해낸 설계기법인 원호형물길굴설계안에 대한 과학적인 담보문제와 현장 가설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둘러싼 갈등이다. 즉 기술적인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한 갈등이다. 따라서 낡은 것과 새로운 것과의 갈등이라는 정통 비적대적 갈등의 유형과는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까치봉의 큰집」에서 하선금은 현연구사가 이루지 못한 설계안을 완성하여 조대대장에게 제시한다. 하지만 조대대장은 탐탁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인다. 설계기사 하선금이 컴퓨터로 계산된 수치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는 데 비해 조대

25) 김정웅, 『주체적문예이론의 기본2』,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243.

대장은 현장에서 물 흐름 속도 등 자연재해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유발한다.

〈참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하선금은 도면을 펴놓고 간단히 설명했다.

〈이건 물길굴건설에서 첨단이라고 볼 수 있는 원호형물길굴설계입니다. 이 설계대로 하면 강재소비를 종전보다 훨씬 줄이면서도 많은 로격과 시간을 절약하며 원공기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현민석연구사동지도 이 설계를 지지했습니다.〉

하선금은 현민석연구사란 말에 격점을 찍어 말하였다. 그 말속에는 높은 실력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로연구사의 후광의 덕을 입고싶은 알곳은 마음이 온근히 승배어있었다. 허나 그것이 어쩐지 떳떳치 못하여 그는 말끝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대대장은 병식 웃으며 도면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시간이 펍 흘렀다.<sup>26)</sup>

하부와 상부의 연결점인 기부점에 대한 대대장의 부정적인 반응과 앞으로의 자연피해에 대한 예견도 했느냐는 질문에 하선금은 “그 부분의 안전도 컴퓨터로 확인된 겁니다”, “예, 그것도 고려하여 이 막돌타입구간을 기준수치보다 0.5배의 여유를 더 주었습니다” 등으로 과학적인 담보를 근거로 답을 해나가지만 점차 자신감을 잃어간다. 결국 조광철대대장은 컴퓨터로 계산된 숫자도 때로는 자연의 천변만화 앞에서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연구해보자고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도면에서 눈길을 떼면 대대장은 응답없이 괴로운 표정으로 가설막문설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펍 낮아진 어조로 말하였다.

〈저두 압니다. 기사동무가 이 설계에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였는지...헌데 제가 생각되는건 기사동무가 우리 건설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계했다면 더 좋았을걸 하는 겁니다. 우린 이 물길굴에 자기 자식과 가정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큰 사랑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거 안됐습니다. 우리 좀 더 깊이 연구해봅시다.〉

대대장은 열적은 표정으로 말을 끝내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sup>27)</sup>

26) 변영옥, 앞의 책, p.64.

27) 위의 책, p.67.

현장일군인 조광철대대장의 부정적 태도에 불만을 품은 하선금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현민석 연구사를 찾아가고, 건설현장 근로자인 곽성태와 돌격대원들의 토의안을 수용하여 모의실험 끝에 성공적인 설계안을 완성한다. 이러한 타협적 조합은 김정일시대의 주체적 인간학과 김정은시대의 실용적 인간형의 절묘한 화학적 결합의 절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형 근로인테리의 창안적 방안을 현장의 노력영웅 근로자의 착안과 조합시키자는 20세기형 인간유형과 새로운 시대에는 전문가형 근로인테리, 그것도 여성도 남성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21세기형 인재활용방안이 극적으로 타협을 본 것이다.

특히 돌격대원 중 한 명인 곽성태와 그를 좋아하는 순아의 사랑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와 사색의 인물 전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순아는 하선금에게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곽성태가 함마나 두드리는 일반 노동 근로자로 안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순아는 그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대학을 졸업한 후 이상을 꿈꾸면서 좀 더 지적인 직업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곽성태는 “나야 그저 이 넘치는 힘을 바치는것밖에...”라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 그래서 순아는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라는 행동양태를 보인다. 두 청춘남녀의 애정전선에 갈등양상을 보이는 핵심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경둥이! 동무가 푸른 하늘을 안고 사는줄 알았었는데 고작 암탉의 리상이군요. 좋아요. 동무에게 하나 부탁하자요. 앞으로 동문 손에서 절대로 함마를 놓지 마세요. 그리고 대대로 자식들에게 꼭 물려주길 바래요.>

달빛이 흐르는 참나무밑에서 순아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선금은 순아의 토라진 마음이 심분 이해되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때인데...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고 날수도 없는 현시대에 대학공부마저 포기하고 배움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지 않는 그가 리상이 한껏 높은 순아의 눈에 찰리 만무했다. 하지만 하선금은 성태가 아니라 순아를 나무람하고 싶었다. ....(중략).....

<.....전호가에서 총대를 사랑하던 성태동무가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나나 너, 현민석연구사 못지 않은 지식의 힘을 발휘할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네가 바쳐온게 뭐냐?.....그런데 뭐 결별한다구?.....절로 찾아든 사랑은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가꾼 사랑은 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걸 잊지 말어.)  
 하선금은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어쩐지 순아에게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공명되어 들려오는것이 이상했다.<sup>28)</sup>

## 제2절 가족주의 전략 속의 '아내'의 역할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은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어떠한 사회를 불문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제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즉 가족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어릴 때는 가족의 울타리에서 살게 되지만 일정한 나이 즉 스무 살 정도가 되면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생활습관과 제도로써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결혼은 아주 보편적인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이다. 그럼에도 여러 다른 사회적 삶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과 결혼 형태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은 무엇을 말하며, 여타의 친족과의 연계성,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는 누구이며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우선 가족이란 친족관계에 의해 직접 연결된 일군의 사람들과 자녀 양육의 책임이 전제된 성인으로 구성된 집합체<sup>29)</sup>이다. 친족관계는 결혼 또는 혈연에 기반을 둔 인척관계(부, 모, 기타 자손, 조부모 등)를 연결시키는 혈통을 통해서 성립된 개인 간의 연결인 것이다. 결혼은 두 명의 성인 간에 일어나는 성적 접촉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결합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상당히 포괄적인 인척 관계를 형성시킨다. 서구사회처럼 핵가족제도를 유지할 경우, 본인이 접하게 될 인척의 수가 제한되게 된다. 하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대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척들을 접하게 된다. 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밖의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은 결혼으로 성립된 배우자의 친척이 된다.

가족 관계는 항상 광범위한 친족 집단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모든 사회는 핵가족(nuclear family)으로 불려왔던 하나의 가구에 동거하는 두 명의 성인과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의 전통 사회의

28) 위의 책, p.69.

29) 앤터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1992, p.349.

경우, 혈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핵가족은 보다 포괄적인 친족 연결망 속에서 존재한다. 결혼한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 이외의 친족이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거나 상호 밀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를 확대가족(extended family)<sup>30)</sup>이라고 말한다. 확대가족은 3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한 집단이 동일한 주거지내에 거주하거나 아주 상호 친밀하게 지내게 되는 집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북한사회는 특이한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혼성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특유의 정치적인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과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가’라는 2차 집단을 ‘가정’이라는 1차 집단에 접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각 가정에 다른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김일성과 김정은 사진이 걸려 있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즉 각 가정의 가장 좋은 벽면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정성껏 모시는 생활방식을 통해 수령을 ‘진정한 아버지’로 인식시키고자 하면서, ‘대가정’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김 부자의 세습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혈연·가문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사회 특유의 유일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정은 혈연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집단이다. 즉 혈연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혈연 가정’과 ‘수령·당·인민대중’의 위계적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한다. 혈연 가정은 남한의 혈연 가정과는 개념이 다르다. 남한 가정이 사생활 보호와 가족 중심·여가 중시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가족을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로 규정(가족법 제1조)하고 정권수립 초기부터 가족의 형태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제도에 알맞게 변형시켜 왔다. 그 구체적 사례가 ‘호적제도의 말살’과 ‘가정의 혁명화’ 사업이다.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사회의 잔재로 사회주의 건설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30) 위의 책, pp.351-352.

대신 1946년 9월 1일부터 공민증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친족의 범위도 6촌까지로 만 제한하다가 1990년 제정된 가족법에 다시 8촌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1940~50년대의 토지 사유제 폐지·재산 상속제 소멸 등 사회주의적 개혁정책과 1960년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이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가족의 의미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질되었다.

한편 ‘가정의 혁명화’는 가정을 가족이 함께 가꾸어 가는 삶의 보금자리로서가 아니라 2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조직으로 내세우려는 일종의 정치구호이다. 북한은 이 구호를 앞세워 가정을 하나의 정치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북한의 가정 내에서 부부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가족법(제 18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가부장적인 질서가 중요시되는 가운데 성별에 따라 그 역할이 엄격히 차별되고 있다. 즉 남편은 가정 내의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아내는 가사노동의 전담자 취급을 받으면서 부부관계에 대해 불만도 표시할 수 없다. 부부관계의 수직성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아내는 남편을 ‘우리주인’, ‘세대주’라 부르며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 남편은 “우리 집사람은 아무 것도 모른다. 여편네란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아이 잘 기르면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북한의 가정에도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변화의 고비를 맞고 있다. 남편이 직장에서 생활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식량 등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생존을 위해 각자가 살길을 찾아 나서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녀성』 등 북한의 노동당정권의 매체가 앞서 언급한 현실과 달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의 유지와 상호 양보를 미덕으로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하부단위인 가족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육친적 사랑뿐만 아니라 ‘동지적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양보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앞세운다. 건전하고 다정한 부부생활에서는 서로 양보심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양보가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도덕으로 되는데 있다는 것이다. 양보가 부부의 미덕으로 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도덕적 행동으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부부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더없이 존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것이 없으면 부부결합이 진실하고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같이 산다고 해도 실무적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부부사이에 양보가 없으면 인간존엄과 가치를 잃게 되면 서로의 믿음과 헌신도 사라지게 되며 그래서 양보는 부부의 미덕이라고 강조한다.

양보의 미덕을 주장하기 위해 “남녀 간의 관계는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지적 관계로 되어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교시까지 인용한다.

이렇게 북한의 노동당이 부부관계의 미덕을 앞세우는 원인은 다른 것에 있다. 바로 육친적 사랑과 동지적 사랑의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중국에는 최고 권력자와 당 그리고 인민을 하나로 묶어서 유기적인 총동원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부부사이의 사랑이 진실하고 참다운 사랑으로 되자면 육친적인 사랑이 동지적 사랑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이며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사상 감정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세포로서 가장생활을 하는 부부는 한 가정의 성원이면서도 혁명 동지라는 것이다.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사랑은 양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헌신하며 더 좋은 것, 처음 차려지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서 먼저 권하고 그 무슨 잘못도 폭넓게 이해하면서 서로의 양보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부부의 사랑은 단순한 육친적 사랑만이 아니라 동지적 사랑과 결합되어 참다운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sup>31)</sup>는 논리를 펴나간다.

북한의 노동당은 사회의 가장 최소단위인 가족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의 동지적 사랑을 강조하는 한편, 가정에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시한다.

북한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은 남편에 대한 내조만이 우선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헌신이다. ‘사회주의 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지니는 북한여성들은 자식에 대한 헌신과 봉사만큼은 남한의 어머니 못지않다. 그것은 탈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여성인데,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탈북한 후 나중에 남편이나 가족을 데리고 나오려고 시도하는 여성들이 많은 데에서도 확인이 된다.

우선 북한의 『조선녀성』은 김일성의 유훈교시를 통해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입니다”라는 말을 주입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김일성의 교시를 다시

31)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37호(2011년 제6호), 근로단체출판사, p.39.

강조한 이유는 2011년이 김일성이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를 발표한 50돌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소원은 일제식민지 통치로부터 나라를 찾아주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제도를 마련해준 김일성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 1960년대 초 전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하고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를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까지 밝혀준 것이 앞에 언급한 유훈교시라는 것이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의도를 드러낸다. 즉 어머니는 자녀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 먹는 나쁜 버릇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모두가 다 노동하기를 좋아하며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습관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sup>32)</sup>

둘째, 어머니는 이기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자식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온 사회가 하나의 가정으로 되고 사회의 단합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들은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은 화목하게 사는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앞세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도덕을 더욱 살려야 하며 모든 곳에서 화목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화합의 역사를 내세워 북한식 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 체제에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어머니들은 부화방탕한 생활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걷는 것과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고 강조한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말, 어머니의 모범은 평생동안 잊혀 지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맡은 일을 잘해나갈 수 있게 한다고 ‘모범적 교양’을 앞세운다. ‘모범적

32)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42호(2011년 제11호), 근로단체출판사, p.9.

교양'의 시초는 1960년대 이후 북한이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 즉 개인 우상화정책을 펴면서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이론적 변환을 시도하면서 출발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의 소년시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 수령이라는 우상화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0~90년대로 접어들면서 1970년대에 적극적으로 치중했던 산업의 중공업위주정책이 천리마기수론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피로화현상이 증대되고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자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노력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이었다. 이와 더불어 인민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설정하고 각 언론매체에서도 재해나 사건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자제하고 긍정적인 역사를 인용하면서 인민들에게 산 모범을 통한 교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게 된다, 그러한 정책이 바로 '모범적 요양'인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북한의 여성동맹은 어머니들에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 모범의 교양을 추진하여 참된 인간을 육성하라고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다.

자녀교양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이 긍정적 모범을 가지고 아들딸들을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을 통한 교양은 산 모범을 통한 교양방법으로서 이미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교양방법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창조되고 있는 선군시대 영웅들과 공로자들의 모범을 가지고 자식들을 교양하면 그들에게 주는 감화력은 매우 크며 그들처럼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참된 인간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sup>33)</sup>

북한의 아내는 1980~90년대부터 줄곧 슈퍼맘이어야 했다. 1980년대 『조선녀성』을 살펴봐도 북한의 주부계층은 훌륭한 어머니역할을 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내조까지 잘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직장인으로서도 충실한 역할을 해주기까지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슈퍼맘이다. 그런데 『조선녀성』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나 부성에 대해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다. 얼핏 기혼 여성이 주요 독자인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외조의 사례가 간혹 조명되는 것을 보면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자녀교육관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떠오르는 것은 집안일은 어머니, 바깥일은 아버지

33) 위의 책, p.9.

의 역할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성별분업론<sup>34)</sup>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가정주부만의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긴다.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뭉니뭉니 해도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해. 그래서 아들, 딸 낳고 깨가 쏟아지게 사는 게 여장의 행복이야”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남편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양면적인 가치가 북한여성의 입에서 동시에 나온다. 가정의 현모양처가 되는 것에 순응하는 의식을 전통적 의식이라 한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주장을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또 북한은 슈퍼맘을 언론매체를 통해 부추긴다. 그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슈퍼우먼이란 가정에서는 알뜰한 아내이자 좋은 엄마, 사회에서는 일 잘하는 여성에게 따라다니는 호칭이다. 1993년 잡지 『조국』에 실린 김화옥은 대표적인 북한의 슈퍼우먼이다.

평안남도 평성시 역전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집의 남편 김정렬 기사는 도로건설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아내인 화옥 여성은 남편의 문화정서적 취미로부터 출퇴근길의, 차림새에 이르기까지 늘 섬세한 관심을 돌리며 구미에 맞게 음식을 요리하느라 성의를 다하는 여성이다. 매사에 헌신적이고도 다정다감하고 상냥한 안해의 이 같은 사랑이 남편에게 언제나 새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36)</sup>

집안 미화부터 요리, 매사의 상냥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김화옥은 거의 만점 아내이다. 그러나 남편만 챙긴다면야 사실 이 정도야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들 셋이 있다. 김화옥은 아이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어머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만능 혁신자로 통한다.

김화옥 여성, 그는 직장에서도 혁신자이다. 그가 사랑정 사업소에서 맡아 하는 사업도 결코 험한 일이 아니다. 업무량도 적지 않지만 매우 책임적인 사업이다. 김화옥 여성은 맡은 임무를 언제나 깐지게 잘 수행하면서도 사업소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다른 일에도 앞장서군 한다. <sup>37)</sup>

34) 김귀옥 외, 앞의 책, p.93.

35) 위의 책, pp.101-102.

36) 위의 책, p.105.

37) 위의 책, p.106.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설을 분석해보면 최근 북한에서 여성들의 위상은 매우 상승했으며, 상당수의 여성들이 슈퍼맘과 슈퍼우먼의 역할을 주문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의 7.1경제조치이후 북한여성들은 단순히 어머니나 내조하는 아내역할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렇게 했다가는 식량배급 체계가 무너진 현실에서 가족들이 굶어죽을 실정에 처한 것이었다. 따라서 장마당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거래해서 이문을 남겨야 했다. 또 결혼 전 처녀시절에 근로자로 근무했던 주부계층들은 다시 공장이나 협동농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다.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들이 주부계층의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11년 3월호 「다시 찾은 모습」은 식료공장 기능공이며 동창생인 주부계층 혁신자 미옥과 영옥의 몇 십 년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같은 식료공장을 다닐 때 영옥의 슈퍼맘으로서 한계가 다음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영옥은 아들형제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남편에 대한 내조도 제대로 못하여 남편으로부터 힐난을 듣게 되자 공장 근무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

〈여보, 전 정말 힘들어요. 당신까지 그러시면 전 정말 공장에 다닐 것 같지 못해요. 영옥이 설분을 토하며 하소연하자 남편은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하듯 약을 올려놓았다.〉

〈제집 세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한다고 공장, 공장 하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던 영옥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공장일을 경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영옥에게는 원로기지확장공사며 발전소건설까지 벌려놓은 공장일들이 아득히 멀리 끝이 보이지 않았다. 당장 공장을 그만두고 집세건설이에만 신경을 쓰면 자신도 혈하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별들이 총총한 어느날 밤이었다.

건설장에서 돌아와 제일 늦게 들췌아들을 업고 퇴근길에 오른 영옥은 미옥에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광혁이 엄마, 난 공장을 더 다니지 못하겠어.〉

미옥은 말없이 걷기만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권기관에서 일하던 그의 남편은 군대때 상했던 허리아픔이 도져 중앙병원에 입원하다보니 미옥의 가정적 부담은 곱절이나 무거워졌다. 한때 춘향이라고 불리우던 미옥이의 딸덩이같이 환하던 얼굴이 지금은 검버섯이 짙게 내뿜고 때이른 주름살이 잡혔다.

한동안 침묵속에 걷기만 하던 미옥의 입이 열렸다. 〈철성이 엄마, 나도 하루에

몇 번씩 주저앉고싶다. 하지만 이걸 보고 공민적인 의무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만  
 량심이 허락지 않아.)

영옥은 멈춰섰다.

<량심? 넌 그럼 내가 량심이 없다고 생각하니?><sup>38)</sup>

영옥은 식료공장 혁신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미옥의 주택을 방문하고 잘 갖춰진  
 시간살이를 비교해보면서 마음이 흔들린다. 어느 날 식료품을 배급받아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조원택지배인으로부터 다시 공장에 출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인간  
 의 행복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긴다. 북한당국이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간 주부계층마저 다시 공장으로 끌어내려고  
 유도하는 현상을 감지하게 된다. 김정은 시대가 도래한 북한사회에서 주부계층은  
 그동안의 슈퍼우먼을 뛰어넘는 가혹한 노동력 착취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영옥동무, 지금생활이 재미있소?>

침묵을 깨며 조원택이 조용히 묻는 말이였다.

영옥은 말끝만 내려다보며 지배인이 어서 피해주기만을 바랐다.

재미있는가고? ... 두 아들을 군대로 떠보낸 뒤로는 때없이 찾아오는 적막감과  
 함께 이악하게 공장을 꾸려나가는 동무들의 활기가 부럽기도 한 그였다.

<영옥동무! 사람은 언젠가는 꼭 뒤를 돌아볼 때가 있는 법이요. 내 보기엔 그런  
 때가 지금 동무에게 온것 같소.

내 언젠가도 말했지만 인간의 행복이란 한가정에만 있는게 아니요.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떳떳이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소. 철성이도 아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싶어할거요.

난 동무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소. 동무야 실력있는 발호기사가  
 아니요.)

지배인은 떠났으나 영옥은 점도룩 서있었다.

진정이 담긴 지배인의 말은 조용한 수면우에 던져진 돌맹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은 영옥의 작은 세계를 삼켜버리려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다. 솔직히 영옥  
 은 미옥이가 부러웠다. 그러면서도 완강히 부정했다. 한가닥의 자체위안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깡그리 쏟아붓는다는 것이였다.<sup>39)</sup>

38)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 통권 제761호(2011년 제3월호), p.48.

39) 위의 책, pp.51-52.

북한 여성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행복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 북한의 노동당은 형식적으로 남녀평등권의 보장을 앞세우고 그다음으로는 강성국가의 문을 열어 나가야 할 선군시대의 여성 의식을 역설한다. 선군시대의 여성이 떠맡아야 할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남편과 아이를 잘 돌보고 난 다음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사회진출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조선녀성』은 “우리 여성들 앞에는 가정을 건전하게, 혁명적으로 꾸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조국과 사회앞에 훌륭히 내세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르고 있다. .... 선군시대 녀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면 다음으로 녀맹조직들에서 녀성들을 여러 부문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sup>40)</sup>고 선동한다. 다른 하나는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여러 부문에서 위훈을 세워가는 실천투쟁을 위하여 여성돌격대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녀성』은 “녀성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이다. 녀성돌격대활동은 무엇보다도 녀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여러 부문에서 위훈을 세워가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게 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가적품모를 지닐수 있게 한다”<sup>41)</sup>고 사상적인 무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문학』 2010년 제 12호에 게재된 라광철의 단편소설 「산촌의 피리소리」는 북한의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산촌의 피리소리」의 주인공 김유성은 제대군인 출신으로 애초에는 북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는 XX광산에서 일해보고 싶었으나 노동부장이 그를 산골마을 마양호수에 있는 천연기념물 마양송어를 양식하기 위한 ‘천연기념물 보호감독원’ 발령을 낸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검정 사냥개 검비를 데리고 마양호수를 매일 왕복 100리를 걸어 다니면서 송어의 기본서식지인 호수와 알쓸이철이면 알쓸이를 하러 거슬러 오르는 성천수를 따라 송어의 동태를 살펴보는 일이다. 마양은 읍에서 백리가 넘는 말을 방목하던 곳으로 김유성은 마양호수가 있는 립산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원래 그 일은 연로보장 나이가 지난 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한 최인국아바이가 맡고 있었으나 다른 후임이 생길 때까지 그 일을 임시로 맡기로 한 김유성

40)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37호(2011년 제6호), 근로단체출판사, p.33.

41)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39호(2011년 제8호), 근로단체출판사, p.22.

이 눌러앉게 된 것이다.

김유성은 주로 마양호수의 천연기념물인 송어가 피해를 입는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 주임무이다. 이를테면 수달이 마양호수에 들어가서 송어를 잡아먹는 것을 사냥개 검비를 활용하여 막는 일이나 근처 광산의 도로건설을 하러온 젊은이들이 낚시를 하면서 송어를 잡아가는 것을 못하게 막는 감독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유성은 그러한 단순한 노동에만 머물지 않고 감독사업뿐만 아니라 연구 사업까지 실천에 옮기는 혁신자역할을 한다. 심지어 도시에 위치한 양식연구소의 권수민연구사의 도움을 받아 마양송어의 양식화가 가능한지 실험을 하기도 한다. 결국 권연구사의 조언에 따라 강복판에 콘크리트 송어못을 만들어 송어의 알배기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듣게 되지만, 세멘트를 구하지 못해 통나무를 베어 ‘귀틀식 알배기장’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닥친 폭우로 인해 귀틀식 알배기장이 무너져 내려 송어가 빠져나가게 되자 급류에 휩쓸리지만 그물 망태로 송어 일곱 마리를 담아 샘터로 옮겨 양식송어의 인공 알쓸이 실험이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폭우에 휩쓸려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충실한 사냥개 검비가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데리고 와 유성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다. 중국에는 집념의 혁신자 김유성이 권수민 연구사와 함께 인공알쓸이 실험에 착수하여 마양송어의 대량 양식화의 길을 개척하여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마양송어가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게 기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소설의 서사구조의 기본얼개는 벽지의 산골마을에 거주하면서 국가적인 책무를 다하는 국가공무원이야기이지만, 김유성의 아내의 내조는 헌신적이지 못해 처절할 정도로 묘사된다. 원래 도시에서 자라나서 처녀 때까지 도시의 사무실에서 회계 일을 보았던 그녀지만 시집을 가서 남편을 따라 벽지인 산골마을에 와서는 합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억척 슈퍼맘이 될 수밖에 없다. 아내 조혜정은 일상의 주부계층과 마찬가지로 아이교육만큼은 도회지의 학교에서 마치고 싶어서 남편에게 읍에 내려가 살자고 조르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산골마을의 분교에서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것에 불만을 품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주부계층이 희망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욕망이 차단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산골마을에 사는 아내 조혜정은 하루 종일 수많은 일을 한다. 가족의 식사준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집짐승)을 키우고 약초와 산열매를 캐고, 심지어 겨울에 대비해 장작까지 패서 와야 한다.



집에서는 안해가 아침밥을 지으면서 돼지물을 끓이고 투끼와 염소먹이도 주느라고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다. 여자들이 하는 일 황소로도 감당 못한다고 그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일손을 놓지 않고 있었으나 그래도 일거리는 계속 남아 있었다. 산골생활이란 사람의 손이 가면갈수록 점점 일거리가 늘어나는것만 같다. 집짐승을 기르고 부엌발을 가꾸고 약초를 캐고 산열매를 따들이고 ... 도시에서 자라 시집오기 전까지 사무실에 앉아 회계일이나 보던 안해였지만 무슨 일이나 정열적이고 이악한 성미여서인지 이제는 토배기 산골녀인들 못지 않게 약초캐기든 산열매를 따는 일이든 막히는데가 없었다.

부엌의 뜯김에 감알처럼 빨그레하게 익은 얼굴로 장작단을 안아들이려고 마당으로 나오던 안해 조혜정은 이슬에 바지가랭이가 흠뻑 젖어 들어서는 유성을 보자 저도 모르게 가벼운 한숨을 내그었다. 그는 성어의 알쫂이철이면 낮이나 밤이나 줄창 강가에만 나가있는 남편이 민망스러웠던 것이다.<sup>42)</sup>

아내 조혜정이 해야 할 과업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아내는 시댁의 대소사도 챙겨야 한다. 작년에도 시아버님 생신에 남편이 가지 못해 혼자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 올해는 함께 참석해 보려고 말을 건네지만, 물매 급한 곳에서 송어들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늘 그 강바닥을 정리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조혜정이 남편과 함께 시아버님 생신에 참석하려는 이유는 집안이 한자리에 모여 앉는 기회에 한집에 모여살고 싶어 하는 시부모님들을 내세워 시내로 이사하는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서였다. 불만이 가득한 아내 조혜정은 “그럼 그 송어나 몇 마리 좀 잡아주세요. 당신이 마양송어를 맡아본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언제 한번 대접해본적이 없는데, 이번 생일엔 그 맛을 좀 보이자요. 그러면 아버님도 좋아하실거예요.”라고 제안하지만 일언지하에 다음과 같이 거절을 당하여 갈등이 첨예화된다.

유성은 아내의 그 말이 더 딱했다. 알쫂이가 시작되는 시기 송어를 잡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기요. 이제 마양송어의 양어화가 실현되면 그때 부모님들께 제일 먼저 가져가지요.)

혜정은 어이없는듯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여보, 꿈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양어를 할수 있다면 왜 그걸 천연기념물이라

42)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 통권 제758호(2010년 제12월호), p.66.

고 하겠어요. 당신은 지금 산점송을 집점송으로 만들어볼 꿈을 꾸는거나 같아요.)

〈그것도 사람이 마음먹기 달린거요. 지금 최첨단과학기술로 바다양어도 실현하고 있는 땀데 이제 연구소의 도움을 받으면 마양송어의 양어도 실현할 수 있을거요.)

〈여하튼 당신은 너무 무정해요.〉

혜정은 더 말하고 싶지도 않은 듯 돌아앉아버리고 말았다.

유성은 그보다 더 야속스러운 말을 들어도 지금은 할말이 없는지라 잠자코 안해의 잔등만 바라보았다.<sup>43)</sup>

「산촌의 피리소리」에서 주인공 김유성의 아내 조혜정이 해야 할 일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폭우로 인해 귀틀식 알배기장이 무너져 송어들이 모두 물에 떠내려가자, 그물망태기로 다문 몇 마리의 송어라도 샴터로 건져 올리려고 애쓰다가 혼절한 남편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사람도 아내 조혜정이고 누워있는 남편 대신 송어를 돌보는 것도 아내이다. 또 강 복판에 콘크리트 알배기장을 만들기 위해 없는 세멘트를 구해오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다. 「산촌의 피리소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유성의 아내 조혜정은 미국영화 「슈퍼맨」에나 나올법한 캐릭터이다. 현실에서는 있을법하지 않은 초인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아내가 이렇게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남편이 하는 일이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인민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의 창조적 방안이라는 점과 천연기념물의 생태환경 보존 성장문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의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유성을 바라보며 자책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우린 아직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소. 사실 난 이번에 마양송어와 같은 제 나라에 있는 그 좋은 물고기는 보지 못하고 종래 방식대로 우리 나라 강물에 익숙된 물고기들만 양어장들에 도입하려고 했댔소. 그러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하루빨리 높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관철한다고 생각했댔소. 그러나 동무가 보낸 편지와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깃들어있는 애국심에 대해 그리고 나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소. 제 나라에서 자라는 천연기념물인 그 물고기는 외면하고 쉽게 성과를 얻어보려고 생각하였으니 선군시대의 과학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소. 언제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최첨단을 돌파해나갈데 대한 장군님의 그 심오한 뜻을 망각했드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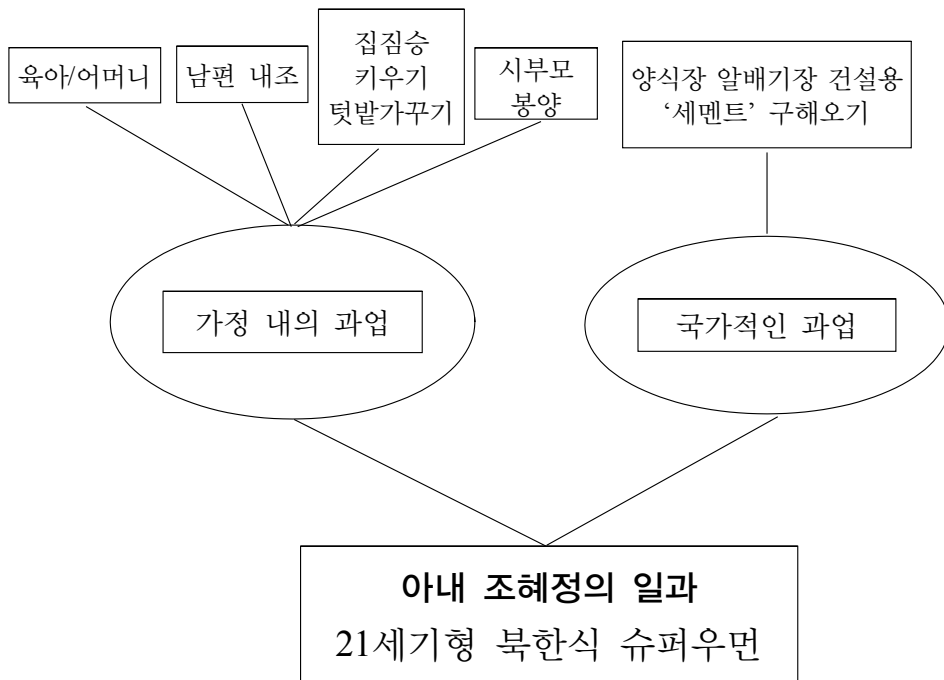
유성은 제스스로 자신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 연구사가 오히려 돋보였다.

43) 위의 책, p.67.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동무가 보내준 자료들에 기초하여 인공적으로 알을 성숙시키기 위한 컴퓨터모의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소. 이제 그 모의실험이 끝나면 직접 현지에 내려가 시험해보려고 이미 당위원회와도 토론이 있었소.〉

순간 유성은 너무 기쁘지라 저도 모르게 눈굽에 눈물까지 핑 돌았다.<sup>44)</sup>

「산촌의 피리소리」에서 아내 조혜정이 떠맡은 일들은 육아와 남편에 대한 내조 등 가족을 돌보는 문제와 집짐승을 키우는 등 자력갱생을 통해 가족들의 먹거리를 자체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마양송어의 양식화를 통한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먹거리 문제 해결 등 국가적이고 애국적인 창조방안 모색으로 매우 폭넓고 다양한 과업이다. 산골마을의 한 아낙네가 이 정도의 엄청난 슈퍼우먼의 역할을 떠맡고 있으니 도시지역의 아내의 역할을 얼마나 과중하겠는가? 21세기 북한 신여성상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나 나올법한 슈퍼맘과 슈퍼우먼의 조합형 인물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 조혜정이 떠맡은 과업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21세기형 북한의 슈퍼우먼 /슈퍼맘의 참모습

44) 위의 책, p.70.

### 제3절 ‘강성국가’ 건설과 조정자로서의 여성

북한의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아침에 사망한 이후 『조선녀성』도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2012년 1월호(통권 제645호)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를 통해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김정은 탄생 70주년임을 떠올리면서 강성국가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고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야 함을 선포하였다. 달라진 점은 신년 특집호에서 김정은을 처음으로 거론한 점이다. 그 표현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은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이자!”라고 대를 이은 충성을 소리높여 외치는 형식을 택한다. 공동구호에서 매년 상투적인 표현과 달라진 또 다른 점은 “고속화, 정밀화, 지능화된 고성능CNC설비를 더 많이 개발생산하라!”와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태도와 창조기풍을 따라 배워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치라!”, “현대과학기술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지식경제시대의 유능한 일군이 되라!”, 그리고 “<조선청년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대고조의 선봉에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전진하라!”<sup>45)</sup> 등의 구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호들은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중점분야에 해당된다.

특히 2012년 신년호 『조선녀성』은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한 김정일에 대한 추모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이 선군시대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서 최상의 높이에 올려주었다고 극찬한다. 김정일의 교시는 “우리 당은 언제나 녀성운동과 녀성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우리 녀성들을 사랑하며 믿고 있습니다”<sup>46)</sup>라고 북한여성들에 대한 믿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여성들에게 매우 가혹한 현실에 닥쳐왔음을 언급한다. 한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안은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 더욱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고 고난이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김정일을 중심으로 승리하고 잘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신념을 안고 공장과 농촌, 어촌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갔고, 일터로 나가는 남편들을 웃음 속에 바래었다고 강조한다. 또 아이들을 많이 낳아 선군시대의 총대감으로 역세계 키워나갔다고 여성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45)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44호(2012년 제1호), 근로단체출판사, pp.34-35.

46) 위의 책, p.50.

김정일이 북한여성들의 위상 향상에 어떤 도움과 기여를 했는가? 첫째 1995년 3월 8일에 역사적 노작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다>를 발표해서 혁명과 건설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세울 것을 강조했다<sup>47)</sup>고 공로를 밝힌다. 둘째, 3.8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출판보도부문에서 여성문제를 잘 취급할 것에 대한 문제, 남자들이 여성들을 축하해줄 것에 대한 문제 등 이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지적을 열거하고 있다. 해마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중앙보고대회, 연구발표회, 좌담회, 상봉모임, TV축하방송모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여 북한여성들의 기개와 긍지 그리고 크나큰 행복을 힘있게 과시했다<sup>48)</sup>고 강조한다.

셋째,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63돌이 되던 2009년 7월의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양방직공장을 찾아 공장의 노력영웅들과 새세대 노력혁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노력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2011년 4월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찾아 기업소 여성과외지원대의 발기자이며 대장인 한옥련을 만나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여성지원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었고, 10월에는 대흥청년영웅광산을 찾아 20년 전 수도를 멀리 떠나 광산으로 진출한 여성종업원들을 만나 중년나이인 그들을 평양 처녀들이라고 다정히 불러주고 평양의 부모형제들은 잘 있는가라고 다정하게 물었다<sup>49)</sup>고 하면서 김정일의 동선을 따라가며 추모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2012년을 맞이하여 끝없이 밀려오는 상실의 아픔을 역세게 던고 일어서서 불타는 충정의 맹세를 가슴에 새기면서 여맹조직들은 힘있는 사상전을 벌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인 김정은동지 두리에 일심단결로 굳게 뭉쳐 어떤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여성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겠다<sup>50)</sup>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여성』 최근호를 분석해보면, 북한당국이 여성들의 위상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역시 천리마 운동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펼쳐온 군중노선에 따라 남성노동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서 더 이상 생산성 증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노동력

47) 위의 책, p.50.

48) 위의 책, p.51.

49) 위의 책, p.51.

50) 위의 책, p.56.

의 보충을 여성들에게 의존하려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21세기 지식경제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여 섬세하고 치밀한 성격을 지닌 여성과학자와 여성노동력이 그러한 미래 산업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주체문예이론에서 비적대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여성들 특유의 모성애적 포용력과 조정력이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즐기차고 우직한 충성도에 있어서는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앞선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최근의 북한문학에는 남성들의 몇 가지 고민이 그대로 배어나온다. 국가적인 목표인 새로운 창안이나 발명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자인 남성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 청년들에게 과학 분야에 뛰어들라고 독려하지만, 막상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감을 느끼고 실리적인 선택으로 안전하고 별이가 좋은 무역회사 등으로 옮겨야 하는가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음날 졸업장을 들고 아버지가 일하는 기계공장으로 간 그는 설계실에 배치되었다. 설계실엔 여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부지런히 회귀를 샅피고 유순히 말도 받아주는 젊은 총각을 모두 좋아했다.

어지간히 정은 붙일수 있었으나 마음은 번거로웠다.

(조롱속의 세는 절반은 새가 아니다. 전자계산기를 더나 여기 설계실에 갇힌 나에게 무슨 앞날이 있을텐가.) 밤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다.<sup>51)</sup>

김일성종합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컴퓨터전문가인 김철진은 아버지의 권유로 편안한 기계공장의 설계실에 발령을 받았지만,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전자업무연구소 소장의 권유로 직장을 옮겨 컴퓨터와 전자계산기의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는 첨단과학자자가 되어 국가적인 표창도 받아 언론에 보도가 된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창안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다른 편안한 직장으로의 전직을 생각하면서 번민에 빠져든다.

철진의 귀가에는 어제 안해가 하던 말이 쟁쟁했다.

<난 인생이 무엇인지 다 말라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을 의해 한생 충실하는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알아요.>

51)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 통권 제757호(2009년 8월호), p.76.

언젠가 아버지도 이렇게 말했었지.

〈인간이 보답하는 리치는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실해야 하는거다. 그것은 자기가 딛고선 땅을 사랑하는거나 같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실하는것이 바로 당과 조국에 충실한 기초로 되는 법이다. 인간이 자기의 근본을 잃으면 자기자신을 망하게 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보답과 배신의 기슴석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배반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리를 저버리는데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철진은 자기가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지른번 했는가를 충절히 깨달았다.

반대로 안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가. 그가 남편을 받드는 근거에는 조국에 대한 Em 거운 애착과 보답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 있는것이 아닌가.

안해를 다 모르고 사랑한다는것은 한갓 뜯소리에 불과하지 않는가.

철진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안해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젠 사진을 찍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찍자구. 청송이의 사진은 내가 찍겠소.〉<sup>52)</sup>

김정일 시대 말기부터 이미 북한의 《로동신문》이나 『조선녀성』은 여성들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다. 천리마운동시기부터 군중노선을 통해 자력갱생을 외치다보니 남성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장이나 협동농장에서의 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건설과 간석지사업을 제대군인과 현역군대 인원을 동원해 건설했으나 그것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들 청년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선군정치를 소리 높여 외쳤으나 인민군의 고위 장성들만이 배를 불러갔지 실제적으로 인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줄 수도 없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현지도를 따라다니며 새롭게 권력계승 학습을 받았던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한 후 아버지시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2012년의 《로동신문》만 봐도 군대를 방문한 1면 사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 대신 인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공업 공장이나 식료품공장 등에 현지도를 많이 다니고 있다. 둘째, 여성들을 앞세우는 사진노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여성들의 새로운 노동력이 중요해졌다. 과학자, 의사 등 여성 인테리 계층의 육성이나 결혼 후 가정으로 돌아갔던 주부계층의 여성들을 다시 예전 공장으로 끌어내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셋째, 모성애를 가진 여성들을 지도자나 책임자급으로 임명하여 조정역할을 맡기거나 각 공장의 선전선동원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창조

52) 위의 책, p.77.

적 기풍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운동으로 150일 전투나 여맹돌격대 활동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 여성돌격대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가두여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다 혁명화한다면 가정혁명화도 절될뿐 아니라 녀성혁명화를 빨리 다그칠수 있습니다.<sup>53)</sup>

여맹돌격대활동은 일종의 북한식 군중노선이다. 겉으로는 광범한 여성들을 선군시대의 여성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위력한 대중운동이라고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전세대 여맹조직들이 국가에 헌신한 것을 역사적으로 강조한다. 여맹조직 등은 광범한 여성들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전세대여성들과 선군시대 공로자들의 투쟁기품과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는 오늘날 여성들이 당의 부름을 받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떠세우고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여 위훈을 떨치는 것보다 더 긍지 높고 보람찬 일은 없다고 애국심이라는 자긍심을 앞세운다. 결국 여성의 혁명화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하여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각 산업 분야에서의 낙후성을 일거에 뒤집어보자는 대중운동인 것이다. 그래서 ‘실천투쟁’이라는 말을 앞세운다. 말보다는 여맹조직원들이 행동으로 증산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공장으로 나아가 실천투쟁, 즉 증산에 앞장서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가적 품모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김일성의 오래전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여성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방도는 여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는 것이라고 핵심적 의미를 강조한다. 여성들이 가정에 파묻혀 지내면 이기주의의 잡사상이 싹트게 된다고 비판을 가한다.

이러한 여성돌격대활동을 선동하기 위해 여맹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인용하면서 적극 행동화를 유도한다. 강계포도술공장 개건공사에 참가한 강계시여맹

53)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39호(2011년 제8호), 근로단체출판사, p.22.



위원회 안의 여맹돌격대원들이나 여성강청년 1호, 2호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황해북도 여맹돌격대원들의 활동상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성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방도는 여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여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것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여성들이 가정에 파묻히면 안일해이되어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들이 싹트게 되며 발전하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연히 뒤떨어지게된다.

혁명적실천과정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로 성장해나간다.

녀맹돌격대활동은 녀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어려운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수양되고 단련되게 함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해나갈 수 있게 한다.<sup>54)</sup>

《로동신문》에 구체적으로 모범선동원으로 활약하는 여성 지도자를 박스기사로 처리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보았는데, 그러한 스토리가 소설문학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이채롭다고 하겠다. 김혜영의 「인간의 향기」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기본 서사구조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분조장 박윤식의 아내 우인향은 농장 9반의 모범 선동원이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강성국가 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150일 전투시기이다. 우인향은 중학교 문학소조시절 친구이며 경쟁자였던 화순이와 힘을 합쳐 농장의 말썽꾼인 기용만의 인간개조에 나선다. 어느 작품이나 소설가는 예술적 갈등을 짜놓는다. 북한주체문예이론서들은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비적대적 갈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호상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으로서 적대적 갈등과 달리 상용적, 비적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sup>55)</sup>고 설명한다.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계급적 모순과 대립, 투쟁을 반영한 예술적 갈등은 비상용적 적대적 성격을 띤다. 이와는 달리 사상적 지향의 공통성,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상호

54) 위의 책, p.22.

55) 김정웅, 『주체적문예이론의 기본2』,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242.

관계를 반영하는 예술적 갈등은 상용적, 비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적대적 갈등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완전히 청산된 사회주의 현실을 그린 문학예술창작에서 전면에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 사이에 적대적 모순과 대립, 충돌과 투쟁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다만,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에서도 갈등의 설정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살며,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도 새 것과 낡은 것,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 혁명적인 것과 비 혁명적인 것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sup>56)</sup>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향기」의 주인공 우인향이 설복하려고 하는 기용만은 소위 비적대적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로서 척결해야할 인물이다. 하지만 우인향은 분조내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를 제거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포용할 대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기용만은 자포자기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기용만은 다부진 체격에 근육이 잘 발달된 35살의 젊은이였다. 부리부리한 눈매며 우뚝한 코날 등 얼굴도 자못 사내씨게 생겼다. 중학교때부터 청소년체육학교에 다니면서 축구를 했는데 이때 벌써 《기계다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졸업하고 도 체육단에 뽑혀갈 정도였다.

그런데 2년만에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고 권이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가정생활에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자포자기에 빠진 그는 체육단에서 나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법기관에 단속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아직 미혼이라고 하였다.

지금 조화순네 1분조원들은 오전작업을 끝내고 들어오는 길에 선전실을 개축하는데 필요한 목재를 이웃작업반에서 날라오고 있었다.

인향은 화순이와 함께 맨뒤에서 서까래감을 하나씩 들고 걸으면서 홀로 판자를 메고 수곡수곡 걸어오는 기용만의 뒤모습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누구도 알아보고싶지 않은듯 고개를 짓수듯한채 옮기는 걸음이 별로 힘이 없어보였다.

〈기동무가 지금 나이 서른다섯이나 되도록 외톨로 있으니 안됐어. 빨리 장가부터 보내야 할텐데...〉

인향의 동정어린 말이였다.<sup>57)</sup>

56) 위의 책, pp.242-243.

57)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 통권 제772호(2012년 2월호), p.51.

<어쩐지 용만동무한테 옥매힌 감정이 있는것 같은데...화순인 짐작되는데 없니?>

<무슨 일이 있었게?>

화순은 가늘게 한숨을 짓고나서 대꾸했다.

<전작업반장이 있을 때였는데 그는 기용만을 몸쓸놈이라고 평소에 늘 미워하고 따돌림을 주었던단다. 그러던 어느날 작업반선전실에서 회의를 하는 사이에 앞마당에 세워놨던 자전거 한 대사 없어지지 않았겠니?>

어떻게 된 일인가고 모두들 술렁대는데 한참후에 글썄 기용만이 그 자전거를 타고 척 나타나지 않았겠니?

물어보니 급한 일이 있어서 이웃마을에 타고갔다왔다는거야.

반장이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남의 자전거를 끌고가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욕을 하니 도리어 제편에서 펄펄 뛰지 않겠니. 제가 자전거를 훔치기라도 했는가 하면서 말이야. 그러다보니 서로 말들이 거칠게 오갔지. 기용만이 반장이 늘쌍 자기를 빼돌서하니 본다고 옥감을 품고 있었던지라 일이 좀 크게 번져졌지 뭐. 그담부터 집 구석에 들어박혀 한동안 일조 안 나오더구나. >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화순이 너도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보니?>

<글썄..... 좋은 점두 없진 않은데 걸핏하면 말썽을 일으키군 하니 정말 골이 아프다. 난 이젠 기용만이 일이라면 두손 들구 나왔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믿어주구 따뜻이 품어주구 올바로 일깨워줄 생각을 해야지 않겠니. 그렇게 저저마다 그를 쏘외보듯 하구 따돌리면 그가 갈길이 어디겠니? 그래, 선동원인 너도 그를 그렇게 탄세상사람처럼 대했단 말이냐?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 .....>58)

「인간의 향기」의 주인공 우인향은 이러한 말썽꾸러기 기용만을 가슴에 품어 안는다. 조화순과 강건너 풀 500톤까지 베어 와서 부상당한 기용만 뭍으로 할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드디어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 말썽꾼기용만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 취했수다! 누님의 향기에 내 취했수다>라고 하면서 150일 전투에 농장적인 혁신자가 되고 최고 노력일 수득자가 된다. 하지만 조화순은 폭우 속에서도 강 건너 풀베기한 풀단들을 옮기다가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 죽는다. 우인향은 자신의 시누이 박윤미를 기용만의 아내로 연결시켜 주어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58) 위의 책, p.52.

그때로부터 2년후.

우인향은 선군시대 인간개조의 선구자로, 온 나라가 다 아는 농촌당초급일군의 전형으로 중앙의 경험토론투무대에 서게 되었다.

24년간의 선동원생활과 3년간의 부문당비서사업경험을 이어거하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이렇게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동원 조화순동무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희생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위훈의 불씨를 안겨주었습니다. 기용만동무도 그러한 사람들중의 한명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반이 아니라 농장적인 혁신자로, 최고로격일수득자로 뒤였으며 그해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진행된 군적인 축구경기대회에서도 최고득점명수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역할로 우산리가 단연 1등을 하였고 그는 만사람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의 집에서는 기용만, 박윤미동무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로 떠나오던 날 용만동무는 밤새 마련한 향기로운 꽃묵음을 한아름 안고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서동지, 이제 평양에 가면 만수대언덕부터 찾게 되겠지요. 저의 마음이 담긴 이 깃다발을 어버이수령님동상에 드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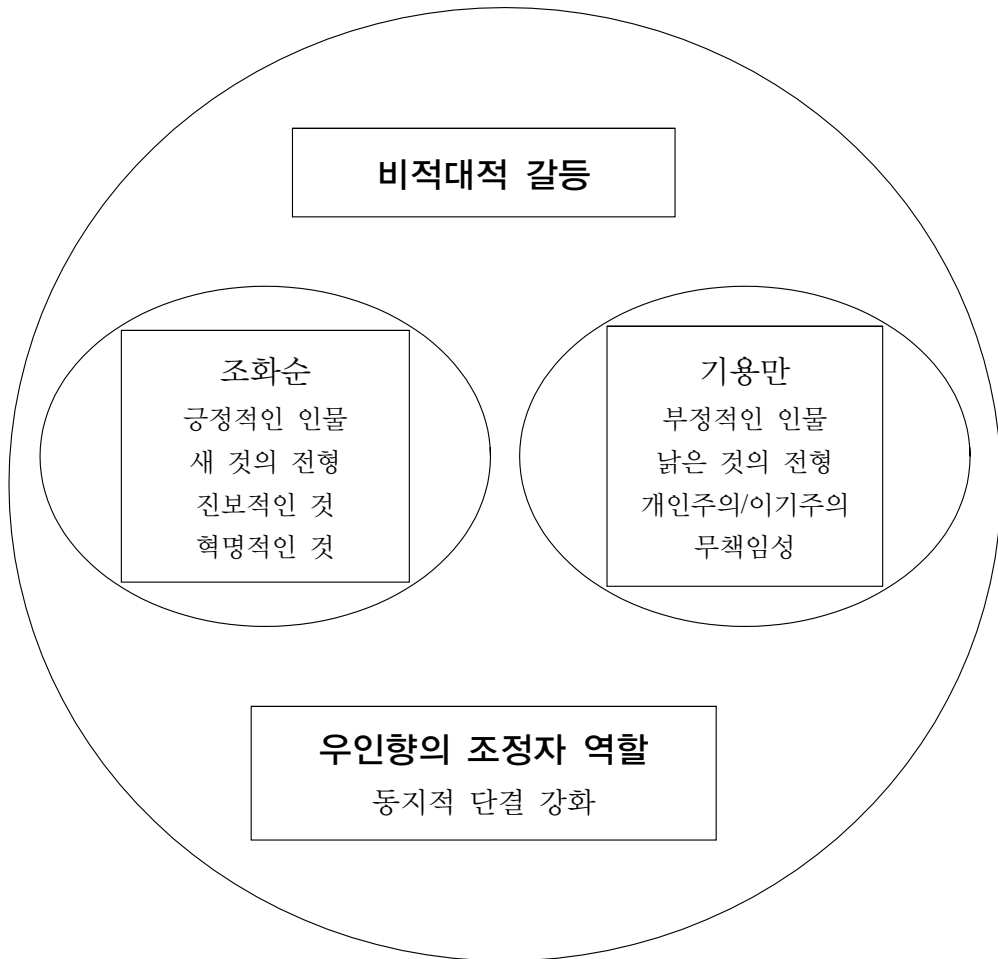
이 기용만이 이제는 새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거라고 저의 맹세를 꼭 아려주세요.><sup>59)</sup>

「인간의 향기」의 주인공 우인향은 북한의 선동원이자 혁신자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인향을 신여성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다. 특이하게 우인향의 자작시 낭송으로 끝을 맺고 있는 「인간의 향기」는 그전과 다른 여성상을 창조해냈다. 그것은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남성들을 이끌어다가서 협동농장의 쌀농사 증산에 기여했다는 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성 분조장이나 부문당비서들도 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소위 말썽을 일으키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분조원을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고 도움을 주어서 회개시켜서 인간개조를 이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위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창조성과 의식성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작품에서는 문제아 기용만에게 인간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어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인간의 향기」의 주인공 우인향은 남성들이 가지지 못한 모성애를 가진 여성지

59) 위의 책, p.60.

도자이다. 그러한 여성특유의 모성애를 활용하여 조직의 화합을 깨는 조직원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어 안아서 인간 개조를 성취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조정자로서의 신여성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직의 융합을 더욱 다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서 인간사랑의 향기를 조직원모두에게 느끼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조정자로서의 신여성상은 군중노선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서 자력갱생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21세기의 김정은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조정자로서의 신여성상

#### 제4절 인민생활 밀착형 경공업의 혁신과 ‘신여성’ 상

2010년과 2011년의 『조선여성』을 분석해보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자는 캠페인과 더불어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과 여성돌격대운동을 힘차게 펼치자는 논설들이 많이 눈에 띈다.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란 김정일이 1984년 8월 3일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전군중적 운동으로 생활필수품을 생산 할 것을 지시한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경공업 분야의 증산을 위해서는 여성노동력의 인입이 중요함을 깨닫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업별로 여성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근 통계자료가 없다. 하지만 1980~90년대 자료를 보면 경공업의 경우,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성동맹 등 여성인력의 투입을 독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sup>60)</sup>

사실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자는 캠페인은 김일성이 주도하던 1970년대부터 줄기차게 펼쳐왔지만 커다란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국가예산의 대다수를 군사비에 쏟아 붓고 미사일과 핵개발 등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인민생활을 취한 생필품 증대에 쓸 예산여력이 없는 것이다. 김일성은 1970년 2월 27일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연설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김정일이 그러한 교시를 이어받아 노력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최근 강계포도술공장 개건공사에 참여한 강계시 녀맹위원회 안의 녀맹돌격대원들과 레성강청년1호, 2호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황해북도 녀맹돌격대원들의 돌격대활동을 따라 배우기를 군중노선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을 혁명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강성대국건설대전 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로 만든다는 것이다.

녀맹돌격대활동은 무엇보다도 녀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여러 부문에서 위훈을 세워가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게 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가적 품모를 지닐 수 있게 한다.

혁명투쟁의 성과여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

60) 통일원, 1986, 『북한의 여성생활』, 통일연수원, 17쪽,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있을까』, 대동, 1997, p.33, 재인용.

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김순철의 단편소설 「다시 찾은 모습」은 식료품공장 생산원인 3대혁명기수출신의 동창인 박영옥과 미옥의 인생의 갈림길 선택이 가져온 삶의 변화양상을 추적한 작품이다. 박영옥은 대학을 졸업한 샌님같은 설계원 총각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서도 식료품생산에 매진하다가 남편과 아이들의 뒷바라지가 미진하자 과감하게 공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의 삶에만 주력한다. 이에 비해 그의 친구 미옥은 인민군대를 제대한 후 공업대학에 다니던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을 두었지만 공장을 그대로 다니면서 공장 현대화사업에 공을 세워 혁신자로서의 대접을 받는다. 미옥은 그전 시대와 달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신여성’에 해당된다. 우연히 미옥의 집을 방문한 영옥은 세간의 가재도구를 비교해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공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혁신자,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노동자를 찬양하는 작품으로 집에서 놓고 있는 주부계층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캠페인성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집위치와 구조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들어와보니 무척 부러웠다. 생각했던 것보다 집은 품위있게 꾸려졌던 것이다. 대동강 타일공장에서 생산한 타일들을 조화롭게 붙인 세면장이며 부엌까지 돌아본 영옥은 눈처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생산부원동지가 공장일에만 열성인줄 알았는데 가정살림도 소문없이 잘 꾸렸는데요.》 《뭐 내손으로 해놓은것은 별로 없어, 집은 공장에서 혁신자라고 배정해주고 살림살이도구까지 다 갖추어서 꾸려주었다.》

영옥은 공장에서 매해 다층살림집을 한동씩 지어서 종업원들에게 배당해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지로 자기 등무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니, 생각되는 바가 정말 컸다.<sup>62)</sup>

최근 북한이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소비품 증산운동(경공업)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자, 놓고 있는 유희인력인 주부계층을 공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방책으로 소설문학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2012년 강성국가 진입의 해를 맞이하여 평양 등 대도시만

61) 북조선녀성동맹, 『조선녀성』 통권 제639호(2011년 제8호), 근로단체출판사, 2011.8, p.22.

62)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 통권 제761호(2011년 제3월호), p.52.

이라도 생필품 부족현상을 막아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석남진의 「비날론을 사랑한다」도 주부계층 여성을 공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캠페인성 작품이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10여 년간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추어 섰다. 따라서 이 작품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재가동에 관한 혁신이야기에 해당된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2카바이드직장 수리작업반장 김준선은 아내 박선미, 딸 금선이와 갈등을 빚는다. 그 이유는 ‘정들여 길렀던 개’ 문제로 비롯된다. 김준선은 직장의 부하로 몸이 약한 이성산에게 몸보신으로 단고기를 먹이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김준선은 작업반에서 토끼도 키우고, 염소도 길러서 젖을 짜서 매일 작업반원들에게 먹인다.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던 박선미는 여성돌격대로 자주 공사장에 지원노동을 나갔다가 남편이 하는 작업들의 위훈소식을 듣고 남편을 이해하게 된다.

박선미는 어느 날 남편이 가져온 곤색 작업복을 입어보고 옛날 수직방사공장 혁신노동자로 근로하던 추억을 떠올리고는 다시 남편과 함께 공장으로 출근한다는 내용이다. 종자론은 김정일의 만들었다는 대표적인 주체이론이다. 식물의 씨앗, 종자로부터 싹이 트고 가지가 뻗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종자로부터 형상의 꽃이 피어나며 문학예술작품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김정일은 종자론에서 종자의 개념에 대해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sup>63)</sup>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종자는 작품에서 작가가 창조해내는 인간의 문제와 연계된다. 문학예술작품은 일정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다. 인간학인 문학예술작품에 그려지는 인간과 그 생활은 반드시 일정한 인간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한다. 어떠한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인식교양적 역할이 규정지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문학예술작품의 핵인 종자에는 바로 생활을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발견한 인간문제가 체현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비날론을 사랑한다」에서 종자는 바로 혁신적인 남편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적인 이기주의만을 생각했던 아내의 생활 속에서의 깨달음이다. 남편은 가족에 대한 작은 사랑보다는 직장 동료에 대한 큰 사랑을 추구한 것이라고 아내

63) 김정웅,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2』,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11.



박선미는 뒤늦게 인식을 한다.

아내 박선미는 딸애와 함께 오랫동안 키웠던 개를 남편이 직장 부하의 몸보신에 사용하기 위해 죽이려는 처사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다.

작기와 딸애가 기르던 개를 서슴없이 남을 위해 바치겠다고 하니 어거야 너무하지 않는가. 혹시 이사람에게 나와 가정이 전혀 안중에도 없는것이 아닐까? 중년나이에 이르러 젊은의 탄력을 잃고 실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박선미의 얼굴이 의혹과 불안으로 찌프러졌다.

선미는 체구가 크고 이목구비도 큼직큼직했다. 성격도 여자치고는 보기드문 대들인데 그때문인지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것도 적극적이었다.

아무리 다정한 부부간일지라도 때로 의견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들의 부부다툼이 크게 격화되지 않은것은 박선미가 매사에 남편에게 양보하고 자기를 자제하였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참기가 힘들었다. 남편은 딸 금선이가 손을 잡고 흔들며 건질하게 하소연하는것도 들은체 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선은 <아버진 정말...> 하고 서러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앵달아져서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만약 남편에게 아버지로서의 정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저렇게 묵석처럼 행동할 수가 있을까?

선미는 도저히 남편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단고기로 몸보신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성산이란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몸이 좀 허약해보이는 청년인데 2년전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딸 금선이를 들이받았던적이 있었다. 그때 금선이는 넘어지면서 왼쪽볼편에 상처가 생겼다.<sup>64)</sup>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수 있는 개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아내는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남편이 부하직원의 몸보신을 위해 딸 금선이가 애지중지하는 개를 처분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성산은 언젠가 자전거를 잘못 몰고 가다 딸 금선이와 충돌하여 얼굴에 상처까지 입힌 사람이다. 그러니 분노는 사그라질 줄 모르고 남편에게 가족에 대해 조그만 배려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이 자주 거론하는 비적대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64) 석남진, 「비날론을 사랑한다」,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통권 제776호(2012년 6월호), p.29.

것이다.

「비날론을 사랑한다」에서 비적대적 갈등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내 박선미로 묘사된다는 점에 반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아내는 낯은 사상의 잔재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낙후된 생활인습을 가지고 있어 교양개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편은 당과 사회와 직장을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비해 아내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이론서들은 낯은 사상 잔재와 낯은 사업장풍을 반대하는 투쟁도 심각한 계급투쟁이라고 설명한다. 비적대적 갈등은 계급투쟁을 기초하고 있고, 계급투쟁을 반영하고 있는 것만큼 반드시 심각하게 설정되고 전개되어야 하며 궁, 부정 사이의 날카로운 투쟁의 결과 긍정이 승리하고 부정이 극복되어가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5)</sup>

「비날론을 사랑한다」에서 아내 박선미가 반추해보니 남편이 가정보다도 직장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 시기는 작업반장으로 임명된 후부터였다고 회상한다.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차 심해지고 자신은 남편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문득 그 여자는 시든 꽃이 꽃병에서 밀려나듯이 남편의 마음속에서 점차 밀려나는 존재처럼 자기를 느끼었다. 자기가 밀려난 그 자리는 리성산을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차지해버렸다.

그렇다. 안해와 가정에 대한 남편의 관심이 떠지기 시작한것은 작업반장으로 임명 되어서부터인것같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가정보다 작업반을 위해 정력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된것이였다.

온 나라가 한창 강행군의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반장으로 되어 그가 벌려놓은것은 작업반휴계실을 새로 꾸리는 일이였다. 그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때에 왜 그런 일을 벌리는가고 의문을 표시하는 선미에게 힘들수록 생활을 각천적으로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략)……

작업반휴계실을 꾸린 다음에 남편은 작업반에서 토끼기르기를 벌려놓았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면서 반원들을 모두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의아해하는 선미에게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다같이 토끼기르기공부를 하자는거요.〉<sup>66)</sup>

65) 김정웅, 앞의 책, pp.247-248.

그러나 아내가 여맹돌격대에 속해 28비날론연합기업소 작업장에 지원노동을 하러 나가면서 남편의 작업반원들이 남편의 위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생각을 다시 먹고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식사 후 바로 끓아떨어지는 남편의 얼굴이 상해가는 것을 느끼고 닭곰탕을 만들어 영양보충을 시키려하지만 남편은 작업반원들 전체에게 닭곰탕을 먹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아내 선미는 김정일이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미는 뼈저린 자책을 하고 “당신을 미처 따르지 못하는 날 용서해요. 내 더 힘껏 당신을 도와나서겠어요.”라고 잠도 못 이루면서 생각에 젖는다. 결국 선미는 딸 금선이와 함께 닭곰탕을 끓여 합성직장에서 비날론의 기초물질인 초산비닐을 생산하기 위한 시운전에 몰두하면서 용접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과 작업반원들에게로 달려간다. 그 순간 선미는 남편이 한가정의 세대주라기보다는 작업반의 존경받는 세대주로 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어느 날 선미는 남편이 여자작업복을 하나 타온 것을 보고 남편의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그래, 난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있소. 당신이 비날론을 뿔어내는데서 생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다는것을 다 안단 말이요.

선미는 불쑥 눈물이 솟구쳤다.

아,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인가. 남자의 사랑은 이런것인가.

남편이 작업반원들을 위해 바치는 정, 비날론을 위해 쏟아붓는 열정과 헌신, 비날론에 대한 꿈울 수 없는 사랑……그 모든 것에 안해에 대한 사랑도 함께 존재해온 것이었다. 남편이 바치는 그 모든 사랑은 하나로 융합되어 하나의 큰 사랑을 이루었는데 그에게서 팔과 다리를 잘라낼 수 없듯이 그의 사랑에서 그 어떤것을 따로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선미는 남편의 이런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더 생각해주시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여기기도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움을 느끼었다. 그와 함께 남편이 더없이 돋보이면서 그에 대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이 사무쳐오는 것이었다.<sup>67)</sup>

선미는 사회주의 경쟁총화에서 남편 작업반이 1등을 한 공로로 가져다준 작업복을 입어보고는 자신도 결혼 전에 다녔던 수직방사공장에 다시 출근하기로 마음을

66) 위의 책, p.33.

67) 위의 책, p.38.

정한다. 얼마 전에 꿈에서 수직방사직장의 기대에서 비날론띠섬유를 뽑아내던 모습을 떠올리며 남편에게 공장에 다시 출근하면 어찌겠냐고 물어본다. 선미는 남편이 비날론생산공정이 16년간이나 멈춰 서서 병이 생긴 것에 대해 회상하게 된다.

결국 석남진의 「비날론을 사랑한다」의 종자는 아내 선미가 남편의 국가에 대한 헌신적 노력에 대한 참의미를 깨닫고 자신도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실정을 감안하여 수직방사직장에 재취업하겠다는 생각을 굳히는 결심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종자론은 가족과 가정만을 생각하는 전통적인 주부들의 생각을 낡은 사상 잔재나 낙후한 생활습성으로 비판하면서 주부계층의 재취업을 통해 노동력 부족사태를 해결하려는 북한당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경공업 부문에 몰두하고 있는 21세기 김정은 시대의 성취목표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공업부분의 현대화 작업에 여성인력을 충원하려는 세부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틀후 선미가 남편의 작업반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10여년전에 함께 일하던 작업반장이 그를 찾았다.

〈선미동무, 어디 갔댔소?〉

선미가 남편의 작업반에 지원을 하고 가는 길이라고 하자 반장은 머리를 끄덕인다.

〈김준선작업반이 지금 위훈을 창조하고 있지. 거기에 선미동무도 한몫 하고 있었구만. 그런데 이젠 직장에 나올 생각이 없소? 방사직장 시운전을 해야겠는데 기능공들이 부족하오.〉

선미는 가슴이 후둑 뛰었다. 방사기가 돌아가는 동음이 귀가에 울리는것만 같았고 그 소리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제가 다시 나온다면 받아줄가요?〉 선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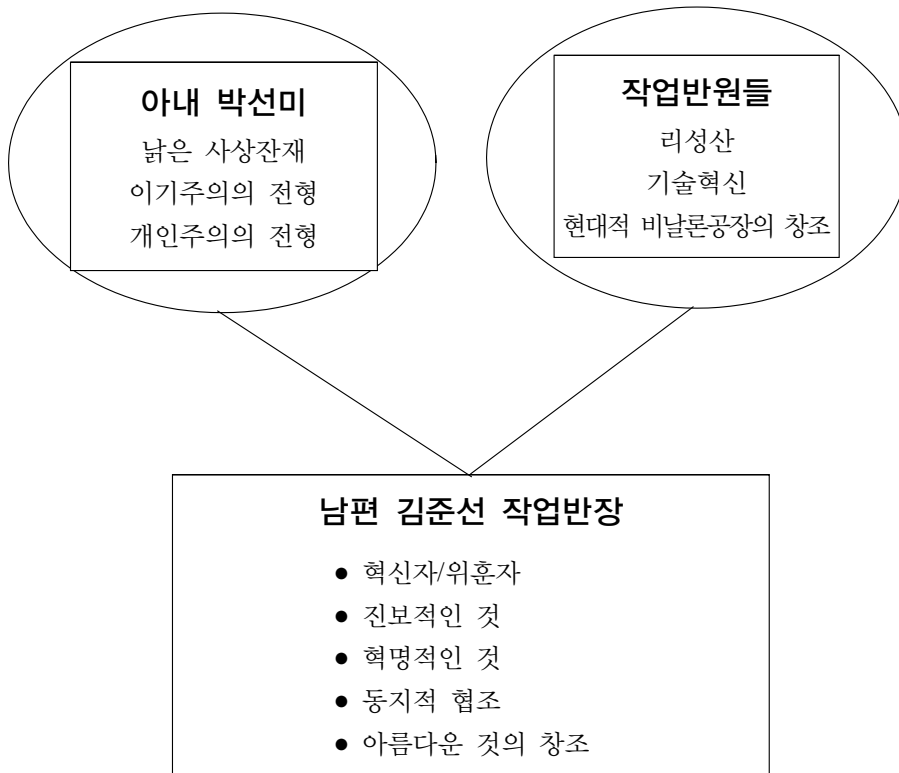
〈무슨 소릴 하오. 선미동무의 몸만 일없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고마와요.〉

선미는 기분이 떠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다음부터 그냥 마음이 흥그러웠다. 그러면서도 과연 자기 몸이 육체적인 부담을 이겨낼수 있겠는가고 온근히 불안을 느끼기도 했다. 또 어느때없이 긴장한 전투를 하고있는 남편의 뒤통자리를 짚어야 하겠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출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갈마들기도 했다.

그날 밤 선미는 이 생각, 저 생각 자반뒤집기를 하느라 잠 못들었다.<sup>68)</sup>

68) 위의 책, p.37.



〈그림 4〉 남편과 아내사이의 비적대적 갈등

## 제6장 결 론

북한사회에서 변화는 과연 있을까? 여러 가지로 회의를 품는 학자들이 많은 듯 보인다. 특히 3대 세습이후 북한의 변화속도가 늦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통일로 가는 길이 요원해졌다는 푸념도 있다. 김정일의 급서이후 군부 집단 지도체제의 등장을 희망했던 많은 정치학자들의 실망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젊은 김정은의 후계 체제 안착은 그만큼 통일의 시간이 30~40년 늦게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의 변수는 매우 크다. 중국의 든든한 후원이 없다면 쉽게 붕괴 될 위험도 상존한다. 북한 인민들의 궁핍이 심화된다면 체제불안요소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험요인들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후원자들인 김경희, 장성택, 최용해 등의 친인척과 측근들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택의 중국 방문(2012.8.13.~8.18.)은 차관 등 중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장성택의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에 대해 북한 시장의 기능회복을 요구했으며 동북 3성의 지방자치정부와 협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장성택의 애초의 의도만큼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군부 수장인 이영호와 북한군 총 참모장인 최용해와의 권력투쟁에서 최용해의 손을 들어주고 이영호를 모든 직책에서 전격 해임했다. 북한통치의 앞으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아버지 김정일이 추구했던 선군정치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최근의 북한의 《로동신문》을 분석해보면, 김정은이 인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공업 공장이나 생필품공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변화양상을 보였다.

우선 북한의 여성들은 북한식의 가부장제적 사회주의에 포함되어 살아간다.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를 돌보아주는 아버지로서의 수령, 어머니로서의 당, 그리고 자녀로서의 인민이 사회정치적 혈연관계에 의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식량배급이나 협동농장의 분배 등은 가족단위로 실시함으로써 가족이 중요한 배급단위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가족은 평등한 일반가족과 혁명적 가족의 양면성을 띠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또 사회주의 이론에 따라 부부 모두 가족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 책임을 지며,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주의 혁명주체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성차에 의한 역할분업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국가와 당에 의해 여성들에 대한 노동력제공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 형상이다.

7.1 경제조치로 국가 배급망이 무너지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장마당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자 북한여성들은 전통적인 어머니와 아내역할에서 슈퍼맘이나 슈퍼우먼의 역할을 주문받게 되었다. 주부의 제3의 역할은 장마당에서 쌀과 각종 야채를 구해오거나 집집승을 키워서 가족의 생계에 대한 보다 큰 역할을 해야만 했다. 북한여성들은 소위 슈퍼맘의 확장성에 스스로 만족감을 표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와 21세기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1960 ~ 70년대에 구사했던 ‘청춘’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청춘을 강조하는 문학작품의 등장에서 청년들의 활동만을 부각시키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이후부터는 처녀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인 소설작품으로는 1991

년에 발표한 류정옥의 「매력」과 1996년의 조근의 「녀전사의 길」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에 발표한 한원희의 「갈매기」가 있다. 이렇게 처녀들의 직장에서의 활동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생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북한현실에서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당국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설문학에서는 청년계층 사이의 로맨스를 활용하여 서사구조의 갈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즉 처녀와 총각 사이의 사랑에 대한 진솔한 감정 표현과 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개념 차이에 따른 번민 등이 묘사된 작품들이 많다. 특히 198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투성을 벗어나 소설문학에서의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는 후로 더욱 청춘예찬과 낭만적 사랑에 대한 표현이 급증했다. 그러면서도 총각과 처녀들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믿으며 동반자로서 미래의 행복을 열어나갈 상대를 찾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국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희생적인 상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소설문학에서는 묘사하고 있다. 즉 새 세대 청년들로서의 성격을 북한문학은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한원희의 「갈매기」(2000년)는 이러한 경향의 대표작품이다.

그러면 김정일시대와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여성상의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일까? 물론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만 1년도 채 안 된다. 따라서 자료추출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로동신문》과 『조선녀성』 그리고 『조선문학』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의 작품 분석과 그 이전작품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변별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본론에서 분석한 것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 짓도록 한다.

첫째 북한여성들에게 건강한 여성상을 주문하면서 21세기의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전문가형 근로인테리’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노동당은 여성 과학자와 여성 기술자가 많으며 그들이 헌신하여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경제시대이므로 최첨단 과학기술로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CNC화를 통해 최첨단과학기술의 돌파구를 열어준 이가 바로 김정은동지라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0년 1월 1일 당이 CNC화를 주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변영옥의 단편소설 「까치봉의 큰집」의 주인공인 하선금은 북한소설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가형 근로인테리 계층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만큼 21세기의 북한사회가 조금씩 국제적인 관점에 맞춰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당국이 아무리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소위 주체사상과 고립적 사회

주의를 강조하더라도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통적인 혈맹국가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선금은 자주성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북한에서 여성으로는 드물게 도농업건설 설계연구소의 설계기사이다. 그녀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설계연구소에 머물지 않고 발전소 건설현장에 뛰어들어 예성장 물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까치봉의 큰집」의 소설 서두에서 하선금은 솜옷을 입고 진자주색 목도리를 두른 채 불룩한 배낭을 짊어지고 눈 덮인 까치봉을 오르고 있다. 인간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녀는 처녀설계사가 아니다. 하선금은 남편과 아들 위성을 가진 가정주부이다. 그런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발전소건설장의 설계사로 당의 부름을 받아 떠난다. 일반적인 북한의 가정주부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인물로 묘사된다.

하선금은 자주성만 지닌 것이 아니라 창조성도 지닌 인물이다. 북한의 주체문예 이론서에서 ‘창조성’은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창조성을 지닌 인물성격이라는 점에서 하선금은 김정일 시대의 주체소설문학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 모두의 공통점은 현장에서 사회주의 현실주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정일시대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거칠고 개척적인 현장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분투하고 투쟁하는 격동적인 삶을 주로 그려나갔다. 또한 전문가형 근로인테리보다는 근로대중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김정일의 교시가 자주 내려졌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서는 근로대중들을 다룬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전문가형 인테리계층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전문가형 근로인테리로서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선금은 분명히 전문가형 근로인테리 계층이다. 대학을 나오고 도농업건설 설계연구소의 유능한 설계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까치봉의 큰집」은 특이하게 전문가형 근로인테리 계층인 하선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소설은 김정일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김정은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시켜준다. 김정일의 교시에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선금은 노동력집중형의 일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가 달라진 것은 여성에게서도 전문가형 근로인테리의 전형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하선금은 오랫동안 발전소건설장의 물길굴 설계를 맡아 해오던 현민석연구사가 불치의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당위원회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것으로 묘사된다. 보조연구사였



던 하선금이 중요한 발전소 건설장의 설계를 책임지는 정식연구사로 부임한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정해졌다면 페미니즘이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실정에서는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직위부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일자리까지 모두에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노동력이 부족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둘째, 『조선녀성』은 가족주의 전략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설을 분석해보면 최근 북한에서 여성들의 위상은 매우 상승했으며, 상당수의 여성들이 슈퍼맘과 슈퍼우먼의 역할을 주문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의 7.1경제조치이후 북한여성들은 단순히 어머니나 내조하는 아내역할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렇게 했다가는 식량배급 체계가 무너진 현실에서 가족들이 굶어죽을 실정에 처한 것이었다. 따라서 장마당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거래해서 이문을 남겨야 했다. 또 결혼 전 처녀시절에 근로자로 근무했던 주부계층들은 다시 공장이나 협동농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다.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들이 주부계층의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호 「다시 찾은 모습」은 식료공장 기능공이며 동창생인 주부계층 혁신자 미옥과 영옥의 몇 십 년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같은 식료공장을 다닐 때 영옥의 슈퍼맘으로서의 한계가 작품에 잘 드러난다. 영옥은 식료공장 혁신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미옥의 주택을 방문하고 잘 갖춰진 세간살이를 비교해보면서 마음이 흔들린다. 어느 날 식료품을 배급받아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조원택지배인으로부터 다시 공장에 출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인간의 행복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긴다. 북한당국이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간 주부계층마저 다시 공장으로 끌어내려고 유도하는 현상을 감지하게 된다. 김정은 시대가 도래한 북한사회에서 주부계층은 그동안의 슈퍼우먼을 뛰어넘는 가혹한 노동력 착취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식료공장을 다닐 때 영옥의 슈퍼맘으로서의 한계가 작품에 잘 드러난다.

『조선문학』 2010년 제 12호에 게재된 라광철의 단편소설 「산촌의 피리소리」는 북한의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산촌의 피리소리」에서 아내 조혜정이 떠맡은 일들은 육아와 남편에 대한 내조 등 가족을 돌보는 문제와 집짐승을 키우는 등 자력갱생을 통해 가족들의 먹거리를 자체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마양송어의 양식화를 통한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먹거리 문제 해결 등 국가적이고 애국적인 창조방안 모색으로 매우 폭넓고 다양한 과업이다. 산골마을의 한 아낙네가 이 정도의 엄청난 슈퍼우먼의 역할을 떠맡고 있으니

도시지역의 아내의 역할을 얼마나 과중하겠는가?

셋째, 김정일의 말기부터 북한의 노동당은 ‘강성국가’ 건설과 조정자로서의 여성 역할 주문을 강하게 하고 있다. 《로동신문》에 구체적으로 모범선동원으로 활약하는 여성 지도자를 박스기사로 처리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한 스토리가 소설문학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이채롭다고 하겠다. 김혜영의 「인간의 향기」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기본 서사구조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분조장 박윤식의 아내 우인향은 농장 9반의 모범 선동원이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강성국가 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150일 전투시기이다. 우인향은 중학교 문학소조시절 친구이며 경쟁자였던 화순이와 힘을 합쳐 농장의 말썽꾼인 기용만의 인간개조에 나선다. 「인간의 향기」의 주인공 우인향은 이러한 말썽꾸러기 기용만을 가슴에 품어 안는다. 조화순과 강건너 풀 500톤까지 베어 와서 부상당한 기용만 뚫으로 할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드디어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 말썽꾼기용만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 취했수다! 누님의 향기에 내 취했수다>라고 하면서 150일 전투에 농장적인 혁신자가 되고 최고 노력일 수득자가 된다.

「인간의 향기」의 주인공 우인향은 남성들이 가지지 못한 모성애를 가진 여성지도자이다. 그러한 여성특유의 모성애를 활용하여 조직의 화합을 깨는 조직원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어 안아서 인간 개조를 성취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조정자로서의 신여성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직의 융합을 더욱 다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서 인간사랑의 향기를 조직원모두에게 느끼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조정자로서의 신여성상은 군중노선의 피로도도가 극에 달해서 자력갱생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21세기의 김정은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2010년과 2011년의 『조선녀성』을 분석해보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자는 캠페인과 더불어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과 여성돌격대운동을 힘차게 펼치자는 논설들이 많이 눈에 띈다.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란 김정일이 1984년 8월 3일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전군중적 운동으로 생활필수품을 생산 할 것을 지시한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경공업 분야의 증산을 위해서는 여성노동력의 인입이 중요함을 깨닫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순철의 단편소설 「다시 찾은 모습」은 식료품공장 생산원인 3대혁명기수출신의 동창인 박영옥과 미옥의 인생의 갈림길 선택이 가져온 삶의 변화양상을 추적한 작품이다. 박영옥은 대학을 졸업한 샌님 같은 설계원 총각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서도 식료품생산에 매진하다가 남편과 아이들의 뒷바라지가 미진하자 과감하게 공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의 삶에만 주력한다. 이에 비해 그의 친구 미옥은 인민군대를 제대한 후 공업대학에 다니던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을 두었지만 공장을 그대로 다니면서 공장 현대화사업에 공을 세워 혁신자로서의 대접을 받는다. 미옥은 그전 시대와 달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신여성’에 해당된다. 우연히 미옥의 집을 방문한 영옥은 세간의 가재도구를 비교해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공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이다. 경공업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생필품 공장은 당비서, 지배인을 비롯해서 중요 직책을 여성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떠맡고 있는 것도 혁신자 여성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김순철의 「다시 찾은 모습」인 것이다.

석남진의 「비날론을 사랑한다」도 주부계층 여성을 공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캠페인성 작품이다. 2.8비날론 연합기업소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10여 년간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추어 섰다. 따라서 이 작품은 2.8비날론 연합기업소의 재가동에 관한 혁신이야기에 해당된다. 선미는 사회주의 경쟁총화에서 남편 작업반이 1등을 한 공로로 가져다준 작업복을 입어보고는 자신도 결혼 전에 다녔던 수직방사공장에 다시 출근하기로 마음을 정한다. 얼마 전에 꿈에서 수직 방사 직장의 기대에서 비날론 락업유를 뽑아내던 모습을 떠올리며 남편에게 공장에 다시 출근하면 어찌겠냐고 물어본다. 선미는 남편이 비날론 생산 공정이 16년간이나 멈춰 서서 병이 생긴 것에 대해 회상하게 된다.

결국 석남진의 「비날론을 사랑한다」의 종자는 아내 선미가 남편의 국가에 대한 헌신적 노력에 대한 참의미를 깨닫고 자신도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실정을 감안하여 수직방사선직장에 재취업하겠다는 생각을 굳히는 결심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종자론은 가족과 가정만을 생각하는 전통적인 주부들의 생각을 낡은 사상 잔재나 낙후한 생활습성으로 비판하면서 주부계층의 재취업을 통해 노동력 부족사태를 해결하려는 북한당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경공업 부문에 몰두하고 있는 21세기 김정은 시대의 성취목표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신여성들이 성과를 올리게 될 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자력갱생의 한계는 그 동안 북한의 현대사에서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서구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다. 또 자본과 기술의 유입만으로 북한사회가 발전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형성이고, 노동당에 의한 시장개입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에서 많이 확인된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이 중국에서 원자바오총리로부터의 들은 충고의 말을 잘 새겨 정치적으로 모험과 실험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북한의 새로운 ‘신여성상’의 구축은 김정은과 그 참모들의 경제적 개혁실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로동신문〉

2009년 5월 9일자 《로동신문》  
 2009년 5월 15일자 《로동신문》  
 2009년 5월 24일자 《로동신문》  
 2009년 5월 27일자 《로동신문》  
 2009년 5월 29일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6일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16일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18일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21일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23일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24일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31일자 《로동신문》

### 〈조선여성〉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 637호, 근로단체출판사, 2011.6.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 639호, 근로단체출판사, 2011.8.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 642호, 근로단체출판사, 2011.11.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 644호, 근로단체출판사, 2012. 1.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 645호, 근로단체출판사, 2012. 1.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 647호, 근로단체출판사, 2012. 3.

### 〈조선문학〉

석남진, 「한 녀교원의 사랑」, 『조선문학』(1996년 9월호)  
 김명진, 「얼굴」,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2009년 3월호)  
 「청춘시절과의 약속」,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2009년 8월호),  
 라광철, 「산촌의 피리소리」,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2010년 12월호)  
 김순철, 「다시 찾은 모습」,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2011년 3월호)

- 김혜영, 「인간의 향기」,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2012년 2월호)  
변영옥, 「까치봉의 큰집」,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2012년 3월호)  
석남진, 「비날론을 사랑한다」, 북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2012년 6월호)

## 〈국내외 논저〉

-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1997.  
김석향, 「북한사회의 시대적 특성 다각도로 풀어내기」, 『한국사회학회 1998년 상반기 발표논문집』, 1998.  
김선옥 외,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여성관련 법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992.  
김애실,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이배용 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대출판부, 1997.  
김정웅,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2』, 평양, 문예출판사, 1992.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남대현, 『청춘송가』, 평양, 문예출판사, 1987.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 2003.  
배은경 외 편, 『성·사랑·사회』, 한국방송대출판부, 2006.  
오승련, 『주체소설문학건설』, 평양, 문예출판사, 1994.  
오영환, 『작가의 문체』, 평양, 문예출판사, 1992.  
오일환·정순원,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 을유문화사, 1999.  
오춘식,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이상에 대한 형상문제」, 『조선문학』(1991년 11월호), 평양, 문예출판사.  
장혜경 외,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2000.  
최길상, 『주체문학의 새 경지』, 평양, 문예출판사, 1991.  
함인희, 「북한의 성불평등 구조」, 「북한의 가족제도와 일상생활」, 박준영 외 공저, 『북한인식과 한반도』, 살림, 1999.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북한 여성들의 삶과 꿈』, 사회문화연구소출판사, 2001.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김희영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1.  
앤터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옮김, 을유문화사, 1992.

##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1장 서론	176
제2장 이론적 배경	178
제3장 연구방법	196
제4장 연구결과	207
제5장 결론	218
[부록] 1 1차 개발 설문지	221
[부록] 2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 효과성 최종 확정 문항	236
[참고문헌]	247

---





## 표 목차

---

<표 1> 2011년, 2012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연구과제 현황 및 연구목표	180
<표 2> 핵심 집단 면접 일시 및 내용	197
<표 3> 자문회의 일시 및 자문내용	198
<표 4>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구성개념	199
<표 5> 초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 구성 내용	201
<표 6> 중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 구성 내용	202
<표 7>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 구성 내용	204
<표 8> 효과성 지표개발 단계 및 연구내용	206
<표 9> 조사대상자의 성별	207
<표 10>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208
<표 11> 초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요인분석 결과	209
<표 12> 중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요인분석 결과	210
<표 13>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요인분석 결과	212
<표 14> 초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214
<표 15> 중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215
<표 16> 고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216

---

## 그림 목차

---

<그림 1>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190
<그림 2> 효과성 측정 과정	195

---



## 요 약 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효과성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이다.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하여 효과적인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효과성의 개념 정립과 하위요소 구체화를 통한 측정도구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1년, 2012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연구과제 현황 및 연구목표, 통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 등을 교차분석하여 측정개념들을 구성하였다. 시범학교 연구목표로는 통일의식, 통일의지, 공동체의식, 통일대비 능력 등의 지표가 추출되었고, 통일교육의 목표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등과 통일교육의 주안점인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통일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 시민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 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과로 발견된 민족관, 통일관, 북한관, 대북 및 안보문제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초·중·고 학교급별 특수성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즉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상황 중심(또는 생활 중심),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중심의 교육,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의 언어와 역사, 전통 등을 가지고 있음을 교육,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내지는 통일의지를 내면화,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 등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통일과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문항, 분단의 원인과 과정, 통일의 필요성,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의 중요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이질성 극복,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통일준비 노력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의 이중성, 북한 사회의 특징과 작동원리, 체제선전 주장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을 추출하였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일문제를 종합적·체계적·논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문항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 속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통일과정과 그 이후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과 통일은 남과 북의 합의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도록 하고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탈북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해결방법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 아니라 그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자유·평등·민주·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지를 점검해주는 문항풀을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FGI,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등을 통해 교차분석하여 일차적으로 개발된 초등학교 총 25문항, 중학교 41문항, 고등학교 38문항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여 초·중·고 각 2개 학급 60명씩 총 360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효과성 지표는 총 21문항 5개 요인으로(Cronbach's Alpha  $\alpha = .892$ ) 구성요인은 통일환경 4문항( $\alpha = .779$ ), 통일의지 3문항( $\alpha = .829$ ), 통일관 4문항( $\alpha = .686$ ), 통일방안 4문항( $\alpha = .698$ ), 통일교육 6문항( $\alpha = .647$ )이다. 그러나 이미 신뢰성이 검증된 관계로 25문항 6개 요인으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도 있다.

중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는 통일노력 6문항( $\alpha = .845$ ), 통일관 5문항( $\alpha = .847$ ), 통일의지 3문항( $\alpha = .818$ ), 통일의식 5문항( $\alpha = .787$ ), 통일방안 6문항( $\alpha = .761$ ), 통일활동 5문항( $\alpha = .757$ ), 안보관 6문항( $\alpha = .703$ )의 총 7개 영역으로 총 36문항으로( $\alpha = .959$ ) 개발되었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는 총 23문항으로( $\alpha = .929$ ) 통일의식 5문항( $\alpha = .904$ ), 통일의지 3문항( $\alpha = .753$ ), 민족공동체의식 5문항( $\alpha = .753$ ), 통일관심 4문항( $\alpha = .749$ ), 통일방안 6문항( $\alpha = .736$ )의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를 통한 재검증 연구 실시 둘째, 시범학교 / 미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명히 밝혀낼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는 추가 연구 수행 셋째, 통일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많은 변인에 대한 검증 및 매개과정 등에 대한 질적인 연구

수반 넷째, 시범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 수반되어야 하는 학교장의 의지, 담당교사의 보상, 담당교사의 수, 활동 프로그램의 수 등 시범학교 사업 운영에 대한 지표의 개발 다섯째, 학교급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위영역 지표 체계에 기반한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여섯째, 본 지표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재검증(Triangulation, 다각검증) 실시 일곱째, 예산 및 시간 제약, 표집방법의 한계에 따른 더 많은 대상으로의 검증, 객관성,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많은 검증 단계 실시 여덟째,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모색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미처 실시하지 못했던 학교급에 기초한 통일교육 효과성의 지표 탐색, 시범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담당자의 고충으로서 외연화된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의 요구 충족, 체계화되고 객관화된 평가도구로서의 기초자료 제공,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확대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정책적 입안 자료로의 활용 등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연구의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앞서 제시한 후속연구의 과제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청소년에게는 통일의식의 잠재력 향상 및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 발현하고 통일인식 제고 및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천교육자에게는 구체화된 측정도구 개발을 통한 통일교육의 과학적·효과적인 측정의 계기 마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표준화된 효과성 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각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적 지원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발전적인 프로그램 및 사업 실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 제1장 서론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는 2006년에 연간 2,000명을 넘어섰고, 2009년에는 2,927명, 2010년 2,423명으로 집계되었다. 1999년 이후 2011년 4월까지 누적 탈북주민의 총수는 23,100명에 이른다(북한이탈주민재단 <http://www.dongposarang.or.kr> 입국현황자료, 2012). 이러한 국내입국 탈북주민 수의 증가와 더불어 학령기 탈북주민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2009년 4월 자료에 따르면 누적 탈북주민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1,478명이 학령기인 6~20세이다. 그 중 국내의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14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의 77.4%에 해당된다.

증가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북한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에 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래문화를 형성하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이 접하는 첫 사회적 관계이자 향후 지속적인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남한 청소년들은 핵가족화와 초자본주의의 시대속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기에 앞서 남북갈등, 통일무관심 현상 등에 휩싸여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면서 통일세대이지만 통일역량을 약화시키는 존재로 문제의 중심에서 있기도 하다(민성길, 2000).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 및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통일·안보교육 시범학교는 전국 56개교로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4개교이다. 이러한 시범학교의 연구성과물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일반학교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공교육체제에서의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통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편의 하나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의식조사를 연령별, 성별, 학교계열별 등 기본적인 틀에 국한해 분석할 뿐 통일교육의 수요자인 청소년에 대한 통일교육의 효과성과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박동주, 2005). 그리고 지금까지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할

방안이 없어 통일교육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범학교에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각기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사의 역량, 표준화된 지표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 등으로 교사 주체 또한 평가검증에 있어 확신성과 정확성을 갖지 못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검증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리고 탈북학생의 초기적응 교육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착단계에서의 교육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학생이 현재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환경에서의 교육 내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며, 현재 정부의 지원 아래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범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성과를 정확히 밝혀낼 필요성이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실시된 통일교육 효과성의 구성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통일교육의 정책적 지향점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하여 효과적인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 효과성의 개념 정립과 하위요소 구체화를 통한 측정도구 개발로 인하여 통일교육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통일의식의 잠재력 향상 및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 발현하고 통일인식 제고 및 확산에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공교육 체제내에서 실시되는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효과성의 논의와 각 측정도구의 분석과 비교를 통해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장, 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적인 프로그램 및 사업 실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효과성 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각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대한 대내외적 공신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사회에 적합한 통일교육의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통해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 운영 현황

통일부의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문화 형성 및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을 위해 정부에서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통일교육 자료와 통일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즉 통일교육에 대한 시범적 운영과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가 확인되면 일반학교에 보급하도록 하는데 실행목적이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실시운영은 1년 혹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7개로 총 23개이다.

통일부에서는 이들 학교에 교육방향, 교사연수,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학생들의 체험적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시범학교에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한 통일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교과 외의 활동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초청 교육을 비롯한 발표회 분단현장 견학 실시, 통일 미술제, 통일글짓기, 통일토론회, 통일동아리 활동, 통일퀴즈 등 전문화된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특화, 운영된다. 그리고 교사들은 통일교육 연구반 등을 편성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며 발표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개발한다(박동주, 2005).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앞에서 제시한 통일교육 목표 및 주안점을 바탕으로 각 학교급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습 과정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급별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새로운 통일교육 교수 방법과 학습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활용하여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 교과단원에서 학습 요소를 찾아내어 계기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지도 시 자료의 활용에 있어 시사성, 정확성, 신뢰성에 기초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자료를 잘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2).

각 학교급별 교과과정의 지도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개념이나 기능 중심의 통일교육보다는 상황 중심(또는 생활 중심), 합리적인 가치 중심의 교육보다는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접근, 당위론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중요시해야 한다. 즉,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 예컨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의 경기력 상승,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과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뿐 아니라 나아가 기차를 타고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한 점 등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혜택을 강조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초등학생들은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의 언어와 역사, 전통 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모습 등 북한 어린이의 생활 모습과 북한의 언어생활, 민속놀이 등 생활 주변의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에 나타나는 동질성 차원의 북한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 등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내지는 통일의지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중학교 단계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통일과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분단의 원인과 과정, 통일의 필요성,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의 중요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이질성 극복,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통일준비 노력 등에 중점을 둔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의 이중성, 북한 사회의 특징과 작동원리, 체제선전 주장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일문제를 종합적·체계적·논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습득한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토대로 통일문제를 한반도라는 시각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정세 속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통일과정과 그 이후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은 남과 북의 합의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의 통일문제를 수업 상황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탈북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해결방법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통일 후에 나타날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 아니라 그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자유·평등·민주·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2011년, 2012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연구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11년, 2012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연구과제 현황 및 연구목표

2011년				
연번	시도명	학교명	연구과제명	연구목표
1	서울	서울상지초	재미있는 통일수업과 체험행사를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2	서울	전동중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의 꿈을 키우는 실천·체험중심 통일교육 운영	통일의식
3	서울	서서울 생활과학고	통일준비를 위한 관심도 고취와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방안 모색	통일역량
4	부산	백운초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외식함양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을 중심으로-	통일의식
5	부산	학진초 (북한이탈학생 교육학교)	북한이탈학생이해교육을 통한 평화 통일 의식 함양	통일의식
6	부산	명진중 (북한이탈학생 교육학교)	현장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의 꿈 키우기	통일의지
7	부산	감천중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 의식 함양	통일의식
8	대구	대구천내초	다양한 눈높이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9	대구	대구일중	통일해(海)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10	인천	인천부광초	학생 참여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외식 함양하기	통일의식

2011년				
연번	시도명	학교명	연구과제명	연구목표
11	인천	연화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다양한 행사활동을 통한 학교통일 교육실천 방안 연구	체험형 통일교육
12	인천	인천논현고	IPTV를 활용한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의 신장	통일대비 능력
13	인천	가정여중	I-STEP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14	인천	인천장도초	HA[Harmony]HA[rmony]HA[ppy]프로그램을 통한 탈북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 만들기	학교적응
15	광주	도산초	눈높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 감수성 함양	통일감수성
16	광주	운남중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의식 함양	평화통일 의식
17	광주	첨단고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한 성숙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18	대전	대전 삼천중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평화통일 실현의지제고	평화통일 실현의지
19	울산	동부초	통일대비 체험활동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20	울산	성안중	IPTV 콘텐츠활용 및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21	울산	대현고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통일 교육 실천방안 연구 -IPTV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성 제고-	통일의식
22	경기	탄현중	북한이해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 무관심 세대의 통일 실천의식 함양	통일 실천의식
23	경기	문산초	365 통일희망 체험활동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24	경기	삼죽초	북 유초등학생 입국초기 교육 지원 방안	교육지원
25	경기	풍덕고	토의, 토론교육과 연계한 통일교육 실천방안	통일교육 실천
26	강원	대진중	참여중심 통일교육 과정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내면화 방안	민족공동체 의식내면화
27	강원	화천 실내초	눈높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맞춤형 통일교육	통일의식
28	강원	철원 장흥초	IPTV 콘텐츠 활용과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의식 제고	통일의식

2011년				
연번	시도명	학교명	연구과제명	연구목표
29	강원	임계중	체험활동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30	충북	청주 서촌초	체험중심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31	충북	이월중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대비능력 함양	통일대비 능력
32	충남	은양초	민족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33	충남	탕정중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통일의식 제고	통일의식
34	충남	합덕여자고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통일의식
35	전북	군산흥남초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36	전북	군산 서흥중	민족공동체 교육 프로그램구안 적용을 통한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37	전남	웅치초	통일교육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남북한 평화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38	전남	영광여중	체험중심교육활동을 통한 통일 의지함양	통일의지
39	전남	완도금일고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형학교 통일교육 실천방안	통일의식
40	경북	영주동부초	통일의 길을 따라 [선돌이의 꿈]지도 자료 개발활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41	경북	상주 화령중	실천·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42	경북	김천상업고	체험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43	경남	창원 용호초	통일교육 학습모듈 개발, 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44	경남	위천중	테마별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함양	통일대비 능력
45	경남	김해고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46	제주	우도초	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47	제주	추자중	북한사회 바로알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48	제주	서귀중앙초	클립 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 함양	통일의지

2012년				
연번	시도명	학교명	연구과제명	
1	서울	서울동일초등학교	체험과 협력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통일대비 능력
2	서울	서울광남초등학교	U세대의 통일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통일·인성 교육 모듈 구안·적용	통일인성
3	서울	서울공릉초등학교	다양한 문·예·체 체험활동을 통한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4	서울	양재고등학교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통일교육 모듈 연구	통일의식
5	부산	남천초등학교	학교 IPTV 콘텐츠 활용 및 통일체험활동을 통한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6	부산	감천중학교	배움, 나눔, 감동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하기	민족공동체 의식
7	대구	대구진월초등학교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통일교육 수업모듈 연구	통일의식
8	대구	대구일중학교	다양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세대의 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9	인천	인천학산초등학교	마중물 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 함양	통일의지
10	인천	하점초등학교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통일 3Q(IQ, EQ, BQ) 높이기	통일의식
11	인천	인천남중학교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12	인천	대청중고등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과 통일 올레길 탐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13	인천	연화중학교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전교과 및 창의영역 수업모듈 연구	통일의식
14	광주	송정서초등학교	체험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15	대전	대전송강초등학교	FunFun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일의 꿈 가꾸기'	통일의식
16	대전	대전용운중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민족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17	대전	대성중학교	창의체험을 통한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의식
18	울산	월평초등학교	IPTV와 NIE를 활용한 통일교육과정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관 함양	통일관
19	울산	대현중학교	학교통일교육을 통한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20	울산	범서고등학교	팔도 통일 스탬프제를 통한 통일안보 의식함양	통일안보 의식
21	경기	문산초등학교	365통일희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통일대비 능력

2012년				
연번	시도명	학교명	연구과제명	
22	경기	풍덕고등학교	맞춤형 학교통일교육 모듈 개발 적용을 통한 청소년 통일 의식 제고	통일의식
23	경기	매원고등학교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통일 의식 함양	통일의식
24	경기	금릉중학교	한민족 동질성 회복 체험활동을 통한 SNS세대 평화통일 실현의식 함양	통일의식
25	경기	탑동초등학교	체험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 및 국가 안보 의식 함양	통일안보 의식
26	경기	두일초등학교	3S(Society, Subject, Smart) 학습모듈을 적용한 협력과 나눔의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27	강원	상평초등학교	모두를 아우르는 세대 공감을 통한 통일 의식 높이기	통일의식
28	강원	방산초등학교	학교 통일교육모듈 적용을 통한 미래 주역 통일의식 제고	통일의식
29	강원	임계중학교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통일의식
30	강원	간동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31	충북	서촌초등학교	IPTV 활용과 Web2.0 학습을 통한 미래대비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32	충북	미원중학교	학생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민족공동체 평화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33	충북	소태초등학교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평화통일의식 기르기	통일의식
34	충북	장락초등학교	통일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평화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35	충북	보은정보고등학교	실천·체험중심의 학생참여활동을 통한 통일 대비 능력 신장	통일대비 능력
36	충남	대관초등학교	맞춤형 활동중심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37	충남	반포중학교	융합형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안보의식 함양	통일안보 의식
38	전북	고창남초등학교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39	전북	발산초등학교	통일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통일 의식 함양	통일의식
40	전북	이백초등학교	통일교육 모듈적용을 통한 미래세대 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41	전북	군산자양중학교	체험활동과 IPTV 통일교육콘텐츠를 활용한	통일의식

2012년				
연번	시도명	학교명	연구과제명	
			평화통일의식 함양	
42	전북	이리여자 고등학교	다양한 통일체험교육을 통한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43	전남	웅치초등학교	통일체험활동을 통한 평화 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44	전남	영광여자중학교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배양	통일의식
45	전남	임자종합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활동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46	경북	물야초등학교	IPTV 활용과 체험활동을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의식 꽃 피우기	통일의식
47	경북	청하초등학교	Easy&Fun 통일의식강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실천적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48	경북	양북초등학교	체험중심 통일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49	경북	효령초등학교	참여중심 통일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50	경북	영창중학교	남·북한 이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평화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51	경북	현서중고등학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의식 기르기	통일의식
52	경북	김천상업 고등학교	「365 통일희망」 체험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통일의지
53	경북	오천초등학교	통일 드림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통일실현의지 함양	통일의지
54	경남	수산초등학교	통일바라기 교육활동을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55	경남	명곡여자중학교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56	경남	김해대청 고등학교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학생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민족공동체 의식
57	제주	우도초등학교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남북 평화통일 의식 함양	통일의식
58	제주	남광초등학교	통일체험학습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59	제주	추자중학교	통일교육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의식



통일의식, 통일의지, 민족공동체 의식, 통일대비 능력

2011, 2012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연구과제 목표를 살펴보면, 통일의식, 통일의지, 민족공동체 의식, 통일대비 능력 등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초·중·고 시범학교에서 실시한 측정도구 문항중에서 이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기본 문항으로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제2절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다음으로는 통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을 살펴보았다.

### 1.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통일교육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은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둘째, 평화통일 지향 셋째, 개인적·당파적 목적 이용 금지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유투쟁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래지향적 통일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오랜 분단으로 훼손된 민족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미래지향적 통일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결합된 구조를 이루는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를



게 용해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준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키우도록 해야 한다.

## 2) 건전한 안보관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들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안보의 기초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안보위협 요소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제반 가치와 제도들을 지켜나가려는 건전한 안보관을 갖추는 데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 3) 균형있는 북한관

균형있는 북한관이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로서 인식하는 한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관점을 말한다. 북한주민은 장차 민족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나갈 상생·공영의 대상이지만, 북한체제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적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하에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의 5가지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 2. 통일교육의 주안점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 시대를 이끌어나갈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심어주고,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실천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 의지 확립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과 혜택을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이 분단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민족사적 당위성에 더하여 통일이 국가뿐 아니라 개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줄 때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 의식을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바람직한 통일의 달성은 우리가 얼마나 통일 의지를 다지고 미리부터 체계적으로 통일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미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키우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통일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통일 준비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보여 줌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인 통합만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과정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통일미래 세대들이 통일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키워주어야 한다.

## 3)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가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 형태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에게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 4)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북한주민을 동정심이나 우월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자 상생·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5) 국가 안보의 중요성 인식

한반도에는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여러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유지·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6)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상생과 공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이 같은 이중적 상황을 직시하고, 북한을 균형 있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의 퇴행적 행태와 비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 의식을 길러주되, 북한 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2012년 통일교육 추진방향에서는 ‘새로운 정세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보현실, 통일준비, 북한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조, 더욱 굳건해진 안보태세와 대북 자신감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필요성 등 미래지향적 의미에 초점, 타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시적 안보교육 체제 마련, 학생 및 교원 교육에 타부처와 유관기관의 인력풀, 프로그램 등 적극 활용, 안보교육의 기회 확대와 함께 직접 체험, 영상물 보강 등 콘텐츠 개선·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그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세대의 통일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을 통한 통일교육 확대와 현장체험, 캠프 등 다양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실시, 교장(감)·교사 등 교원 대상 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 「경진대회」,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통일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원연수원, 학생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등 유관기관의 통일교육 과정 확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 ☐ 남북한 상호불신과 소모적인 대결 의식을 불식하고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 남북한 신뢰회복과 상호이익 추구를 통하여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대비한다.
- ☐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 ☐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오랜 분단과 체제·이념의 차이로 인한 현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통일의를 확고히 한다.

###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그림 1〉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제3절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

2011년, 2012년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연구과제를 분석해보면, 각각의 연구과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통일의식, 통일준비를 위한 관심도 고취와 통일역량, 통일의꿈, 통일의지, 통일대비 능력, 통일 감수성, 평화통일 의식, 평화통일 실현의지, 민족공동체의식, 통일실천의식, 통일인성, 통일안보 의식 등의 함양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파악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도구를 살펴보면 용어에 따른 정확한 개념들을 측정하기보다 통일의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측정하면서 시범학교 연구과제명의 특성에 맞춰 용어들만 차별화한 것이었다(예를 들면 통일 감수성, 통일 역량, 민족공동체 의식 등).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의식이란 '① (어떤 일·현상·대상 등을)생각이 미치어 대상으로서 알거나 깨닫거나 느끼는 것, ② (어떤 대상을)특별히 두드러지게 느끼거나 마음에 두는 것, ③ 개인·집단·민족 등이 사회·역사 속에서 생활하거나 생존하는 동안에 형성되는, 사물에 대한 견해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말한다. 한편, 서양에서 처음으로 '의식'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데카르트였다.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라는 데서 출발하여 지금에 와서는 이른바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결국 '의식'이라는 것은 관찰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통일 의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통일 의식의 개념은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전반적인 심리적·정신적 과정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조현정,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하위개념들을 아우르는 '통일 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연구에서 어떻게 그 개념들을 측정하고 하위영역들을 구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김민정(2012)은 광주지역 청소년의 통일의식 조사연구에서 통일의식의 개념을 민족관(북한 지원, 통일 이유, 남북한 경기 응원, 북한 돕기 참여) 4문항, 대북관(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북한체제, 북핵문제) 4문항, 대북정책관(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선호하는 대북정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 대북 정책의 평가, 통일을 위한 정부의 중점 과제) 4문항, 통일관(통일에 대한 관심/무관심 이유, 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방법, 통일시기, 통일 이후의 국가체제, 통일을 위해 할 일, 통일정책 이해) 8문항의 4가지 영역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통일에 관한 인식을 따로 요인분석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김미영(2010)의 다문화 교육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에서는 통일관(통일에 대한 관심도 2문항, 통일에 대한 인지도 4문항, 통일에 대한 평가 2문항), 북한관(북한에 대한 관심도 2문항, 북한에 대한 인지도 7문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2문항)의 2가지 차원에서 통일의식을 측정하였다. 유현영(2010)은 토의학습이 초등학생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에서 통일의식의 구성요소를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의 의미, 통일의 의지와 필요성, 분단상황에 대한 인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영혜(2010)는 ICT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아동의 통일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통일의식의 하위영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5지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그 구성내용은 통일의 필요성(통일의 필요성 인식, 통일의 당위성, 통일 문제에 관한 대화 여부, 통일이 필요한 이유, 통일 후 사회의 변화 전망, 동질성 회복의 중요성 인식), 북한 사회 이해(북한에 관한 관심 정도, 북한사회이해, 통일교육이 북한이해 도움정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자세,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정도, 북한사회의 경제난 원인 파악), 통일대비 인식(통일 주체 의식,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일, 통일 형성 참여도, 남북한 통일의 방법, 통일이후 사회의 문제점 파악)이다.

오진아(2009)의 청소년의 통일의식 연구에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설문지를 토대로 남북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19문항을 사용하였는데,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통일에 대한 생각, 위 문항에서 선택한 이유, 북한에 대한 생각, 분단으로 인해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북한의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할 사항, 통일의 국내외적인 장애 요인,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상, 통일 한국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길 바라는가, ‘도덕’교과의 통일공부가 통일에 대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도덕’교과의 통일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나, 다음번 통일 관련 수업을 받는다면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가, ‘도덕’교과의 통일관련 수업 후 수업 이전과 다르게 느낀 것,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등의 내용이였다.

조현정(2008)은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이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성별, 학년, 거주지, 월평균 수입, 아버지의 학력 등을 측정하고 통일의식으로 통일의 의미, 통일의지, 통일의 필요성, 분단의 책임, 분단국으로서의 고통,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등 11문항을 측정하였다.

김창영(2008)의 연구에서는 통일 의식 영역을 5개 즉 민족관(북한에 대한 지원, 통일의 이유, 남북한 경기 응원, 북한 돕기 참여 유무), 북한관(북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북한체제, 북핵문제), 통일관(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 이유, 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방법, 통일시기, 통일 관심도), 통일대비관(통일이후의 국가체제,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통일정책이해),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자료 활용도, 북한의 정보출처, 수업 관심도, 통일교육 수업시간, 학교 통일교육의 연계성)로 총 22문항을 제시하였다.

김영하(200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주민 활용 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통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분석하였는데 통일 의식으로 북한 사회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에 대한 친밀도,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이 필요한 이유 등을 들었다. 이정우(2006)는 사회과 교사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에서 통일 찬반 여부, 통일 이후 체제에 대한 견해, 통일에 대한 거리감, 통일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 등을 통일 의식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장명현(2005)의 접경지역 고등학생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에서는 통일의식의 하위변인으로 평화의식, 민주시민 의식, 남북이해 의식 등을 알아보았다. 이섭(2005)은 ICT 활용 수업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일의식을 통일여건, 통일문제, 대북 및 안보문제에 관한 의식 등의 3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성장환(2003)은 초등학생의 통일에 관한 의식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여건, 통일 문제, 대북 및 안보문제에 관한 의식 등 통일 의식을 3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통일여건에 관해서는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남북한 실상에 대한 인지도와 인지경로, 남북한 간의 이질성 정도 및 분단의 현실에 관한 의식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의 방법,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대북 및 안보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위해서 대북관, 대북정책의 효용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배한동(2001)은 대학생의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통일에 관한 기본 의식으로 남북한 주민 간 이질성 정도 평가,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이익, 통일가능 시기,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청소년과 여성, 그리고 386세대간에 통일 의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함인희, 한정자(2000)의 연구에서는 통일 의식을 구체적으로 통일관과 북한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통일관에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희망, 분단상황에 대한 예측과 통일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통일의 걸림돌과 통일비용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시켰고, 북한관에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특정 학교급에만 국한하여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 고찰한 연구가 부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통일부에서 제시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및 목표를 고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시범학교 등의 실천현장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통일교육과 밀접하지 못한 내용들을 측정하고 분석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이 체계성을 지니지 못한채 약 10여개의 문항으로 나열되어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결과 도출된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록과 같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 제4절 효과성의 의미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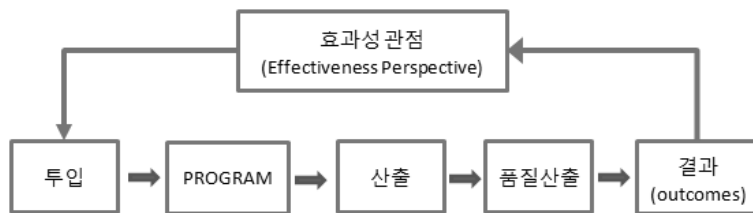
교육정책의 성과와 효과성(effectiveness)은 학생이나, 학부모, 주민, 국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실행과정에서 투입된 재정이나 기타의 노력에 대한 효과의 수준은 어떠한가,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등을 종합 분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책평가의 기준은 정책의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평가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운영에 있어서 경제성의 원리 또는 효과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을 능률성이라 한다. 즉 최소한의 노력과 경비 등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을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라 칭한다. 또 하나는 교육행정학에서 사용되는 학술용어로서 조직구성원들의 만족도 또는 조직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뜻한다(김원경, 2006).

교육정책의 효과성이란 개념은 교육행정학에서는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다. 효과성은 노력 그 자체보다는 노력의 결과를 중요시하며 바로 한 단계 상위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만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원래 의도했던 것인가 등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원하는 것으로 ‘효과 목표’라 하는데 이는 절차적 목표와 구분되며, 효과목표의 달성정도를 말한다. 효과목표란 정책운영의 외부, 즉, 정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설정한



것이고, 절차적 목표는 정책의 내부적 운영과 관련된 목표로서 정책의 집행에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수행하는 행정기능의 실적에 역점을 둔다(배인명 외, 2003: 182).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얻어진 최종성과를 목적(목표)의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평가가 개발된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과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프로그램의 중복성, 프로그램 내용의 이질성, 프로그램 목표의 불일치, 비표준화된 도구 사용, 다양한 측정도구의 부재, 측정도구와 측정내용의 불일치, 통계분석의 한계, 부적절한 통계기법과 평가설계의 적용 등을 언급할 수 있다(김영숙 외, 2003).



〈그림 2〉 효과성 측정 과정

효과성 평가가 목표달성의 정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효과 평가에서의 관심을 갖는 변화의 결과는 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것이다. 평가의 방법 및 도구는 기록물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거나 이용자의 기능과 상태,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척도화된 질문지조사법, 프로그램 실시전과 후의 두 시점을 비교하는 실험설계,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비교하는 실험설계 등의 수혜자 상태의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주요평가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정무성, 2008).

일반적으로 평가지표의 수는 평가를 위해 선정되어야 할 평가지표보다 많은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 수의 평가지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정 방법은 크게 규범적 접근 방법과 기술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된다(권기욱, 1992, 145-147). 규범적 접근 방법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연역적 접근 방법으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특성을 규명하고, 그 특성에 관련된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론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술적 접근 방법은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평가지표를 수집하

여 분석·종합하는 귀납적 접근 방법으로, 수집된 평가지표 중에서 영역별·준거별로 적용된 빈도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관련된 경험적 자료가 편파되지 않도록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지표별 활용 빈도 등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박동열, 2000, 17-18). 특히 한정된 수의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기초 작업을 마련한 다음,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지표를 분석·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3장 연구방법

### 제1절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학문적 개념들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지 및 연구논문 및 일반 서적, 잡지, 신문, ERIC자료, Internet 및 Website검색 등의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내용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효과성 정립을 Top-down 방식으로 도출하여 통일의식에 관한 내용들과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통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 즉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에 중점에 두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Bottom-up 방식으로 초·중·고 시범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설문지를 검토하여 공통문항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교차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확보하여 효과성에 관한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였다.

#### 2. 핵심 집단 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에서는 핵심 집단 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개념과 구성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1년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 시범학교 담당교사를 핵심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2012년 4월 27일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통일교육의 효과성 영역, 구성개념, 운영 경험, 교급별 차별성 혹은 공통점, 설문조사시 유의할 점 등을 자문 받았다. 또한 연구 초점의 명료화, 조사 및 분석틀 설정 등을 도움 받았다. 핵심 집단 면접에서 교사들은 구조화된 통일관련 지식보다 자연스럽게 통일에 관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통한 가치와 태도 함양, 학생 응답반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설문문항수 등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효과성 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2> 핵심 집단 면접 일시 및 내용

일시	내용	면접 대상자
2012년 4월 27일 금 4시~8시	-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 운영 경험 - 통일교육의 효과성 영역(교육대상 위주로) - 교급별 통일교육의 구성개념 도출	2011년 초·중·고 통일교육 시범학교 책임 운영 담당교사

### 3.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표 3>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자문에서는 연구진행을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구성개념 도출에 대한 안면타당도, 지표 개발을 위한 문항 검토, 실험설계 및 sampling 방법 등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부에서 제시하는 초·중·고 통일교육의 구성개념 도출에 대한 안면타당도, 지표 개발을 위한 문항 검토 등과 관련된 자문을 실시하였고, 3차 자문에서는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 실시 및 설문 실시 후 학생 반응에 관한 코멘트,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한 문항 윤문 등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 자문회의에서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 해당하는 질문이 중복된다는 의견과 33번. 북한은 때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를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우호적인 대상 ②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 39번.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튼튼한 안보 ② 등등 ~, 41번. 북한 주민은 동포애와 인류

에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동포애와 인류애 차원에서” 때문에 당연하다는 답 밖에 할 수 없어 문제 수정을 요구한다는 내용 등의 자문을 받았다. 4차 자문은 요인분석결과에 따른 요인 naming의 적절성과 전체적인 문항 채택 등을 자문받았다. 요인분석에 따른 구성요인의 naming은 먼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구성변인을 고려하였고 다음으로 시범학교 통일교육 효과성 측정에서 사용된 변인명을 적용하였다. 또한 각 구성된 문항들의 공통적인 속성 및 theme을 추출하였으며 용어가 반복하여 사용되는 경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지표 체계를 완성하였다.

〈표 3〉 자문회의 일시 및 자문내용

구분	일시	자문내용	자문위원
1	2012년 5월 26일 토 5~7시	- 통일교육의 구성개념 도출에 대한 안면타당도 - 지표 개발을 위한 문항 검토 - 실험설계 및 sampling 방법	청소년 및 통계관련 정책연구원 박사
2	2012년 6월 21일 목 10~12시	- 통일부에서 제시하는 초·중·고 통일교육의 구성개념 도출에 대한 안 면타당도 - 지표 개발을 위한 문항 검토	통일교육 공동연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계 종사자
3	2012년 8월 10일 금 10~1시	-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 실시 및 설문 실시 후 학생 반응에 관한 코멘트 -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한 문항 윤문	2011~2012 중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담당교사, 언론매체 종사자
4	2012년 8월 21일 화 5~7시	- 요인분석결과에 따른 요인 naming 의 적절성 - 전체적인 문항 채택에 대한 검토	통일교육 공동연구 경험이 있고 박사수로 이상으로 청소년실천현장 종사자

#### 4. 문항 조사 및 분석

##### 1단계 : 구성개념 도출

1단계에서의 주된 작업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여 구성개념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척도를 개발하는 방법은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방법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론적 접근방법에서는 문항이 구성개념문항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문항 선정과 절차를 이론에 기반하여 관련된 문헌들에서 구성개념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험적인 방법도 적용하여 연구자들과 전문가와의 논의과정을 통해 각 활동별 주요 요소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공통적인 추출 후에 교사 또는 현장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심층 분석하여 구성개념과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 척도를 구성하였다.

〈표 4〉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구성개념

시범학교 연구목표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주안점	선행연구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효과
통일의식 통일의지 공동체의식 통일대비 능력	+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통일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 시민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 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민족관 통일관 북한관 대북 및 안보문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 중심(또는 생활 중심),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중심의 교육</li> <li>-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의 언어와 역사, 전통 등을 가지고 있음을 교육</li> <li>-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함</li> <li>-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내지는 통일의지를 내면화</li> <li>-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 예컨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의 경기력 상승,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과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뿐 아니라 나아가 기차를 타고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한 점</li> <li>-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방과 후 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분단의 원인과 과정, 통일의 필요성, 남북관계의 이 중성 및 안보의 중요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이질성 극복,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통일준비 노력 등에 중점</li> <li>-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일문제를 종합적·체계적·논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li> <li>- 동북아와 국제정세 속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통일과정과 그 이후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함</li> <li>- 통일은 남과 북의 합의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li> <li>-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탈북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li> </ul>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p>동모습 등 북한 어린이의 생활 모습과 북한의 언어생활, 민속놀이 등 생활 주변의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에 나타나는 동질성 차원의 북한이해 교육을 실시</p> <p>- 이산가족 등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p> <p>-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p>	<p>의 이중성, 북한 사회의 특징과 작동원리, 체제선진 주장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등을 이해</p>	<p>문제의 실상과 해결방법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p> <p>-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 아니라 그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자유·평등·민주·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p>

### 2단계 : 예비 문항개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적 연계구조의 적절성 등을 자문 검토 받았다. 그리고 우선적 선택 항목과 현실적 절충 방법에 대해서도 자문 받았다. 효과성 측정을 위한 문항개발은 각 영역의 구성개념에 대해 기존에 개발된 척도들을 수집, 종합하여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 교사의 자문을 얻어 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성개념에 따른 문항 개발은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는 척도이므로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설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Allen & Yen, 1979). 그리고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혼돈이 없도록 통일성과 균일성을 꾀하였다.

### 3단계 : 타당도 검증

1차,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영역별 구성개념과 개발된 기초문항의 적절성을 검증받았다. 내용타당도 확인 작업 시, ‘구성개념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개념의 도출과정이 적정한가?’, ‘구성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개별 문항의 난이도가 연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가?’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조사에 활용할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을 구성할 때 2011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실시된 문항들을 토대로 초·중·고 공통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문항은 약 21문항으로 설문지 앞부분부터 구성하였다. 뒷부분은 선행연구 및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 그리고 각 학교급별 통일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 초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 구성 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3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4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5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6	북한의 생활문화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7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8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9	통일관련 활동 참여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10	북한에 대한 파트너 인식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목표
11	통일의 당위성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12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13	통일의 의미 및 통일 한국의 모습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14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에 대한 인지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15	미래지향적인 통일 및 통일의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16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한 우리의 통일 환경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17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통일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18	통일이 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가 더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초등 특징
19	향후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점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초등 특징
20	북한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와의 유사성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초등 특징
21	이산가족 등의 문제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 선행연구
22	여러 원인 때문에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생각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23	남과 북 분단의 피해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 선행연구
24	통일교육 혹은 통일 관련 체험활동의 참여 경험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25	통일교육 환경 구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중학교용 문항은 초등용 25문항에 비해 41문항으로 많이 구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통일부의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답아야 할 내용이 초등학생 보다 많기 때문이었다.

〈표 6〉 중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 구성 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1	통일교육 환경 구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2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2	분단의 원인과 과정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3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3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의 중요성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4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4	민족공동체 형성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5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5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6	북한의 생활문화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6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7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7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8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8	북한사회의 특징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9	통일관련 활동 참여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9	북한 체제 선전 주장의 괴리성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0	북한에 대한 파트너 인식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목표	30	북한주민의 생활 및 가치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1	통일의 당위성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1	건전한 안보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12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2	민족통합 상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3	통일의 의미 및 통일 한국의 모습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3	안보위협외의 대상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4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에 대한 인지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4	나의 역할과 책임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5	미래지향적인 통일 및 통일의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5	실천의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6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한 우리의 통일 환경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36	통일교육을 통한 민주절차 학습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7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통일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37	민주절차 행동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8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한 우리의 통일 환경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38	함께 성장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19	남과 북 분단의 피해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 선행연구	39	튼튼 안보 전제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20	통일교육 혹은 통일 관련 체험활동의 참여 경험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40	북한의 비민주성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41	동포애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중등특징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은 초·중학교에서 측정하는 공통문항들과 통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주안점 그리고 고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7〉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 구성 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0	통일교육 혹은 통일 관련 체험활동의 참여 경험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2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1	통일교육 환경 구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3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 정도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2	안보위협 요소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4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3	통일 주변국과의 합의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5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4	통일과정 갈등 해소 방안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6	북한의 생활문화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5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해결방법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7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6	북한 현상의 근본 요인 파악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8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7	통일교육의 보편적 가치 기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9	통일관련 활동 참여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선행연구	28	건전한 안보관 바탕의 통일 노력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0	북한에 대한 파트너 인식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목표	29	민족공동체 통합 상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1	통일의 당위성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0	안보 위협 대상으로의 인식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2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1	나의 역할과 책임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출처
13	통일의 의미 및 통일 한국의 모습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2	실천의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4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에 대한 인지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3	통일교육을 통한 민주절차 학습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5	미래지향적인 통일 및 통일의지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선행연구	34	민주절차 행동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6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한 우리의 통일 환경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35	상생공영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7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통일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36	튼튼 안보 전제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8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한 우리의 통일 환경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37	북한의 퇴행적 행태와 비민주적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19	남과 북 분단의 피해	시범학교 공통 설문문항 &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 선행연구	38	인도주의적 민족공동체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의 주안점 & 고등특징

#### 4단계 : 윤문작업

자문회의를 통해 재차 수정된 문항들의 표현을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기 위해 윤문작업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기초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용어나 문장들에 대한 수정을 거치고 문법과 문장을 다듬는 윤문 작업을 거쳐 설문에 사용할 척도를 완성하였다.

〈표 8〉 효과성 지표개발 단계 및 연구내용

단 계	연 구 내 용
1단계 구성개념 도출	통일교육의 구성개념과 관련된 문헌 고찰, 통일교육의 목적과 목표 고찰을 통해 주요 요소 분석
↓	
2단계 예비문항 개발	각 구성개념과 관련된 기존의 척도 문항을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여 개발
↓	
3단계 타당도 검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구성개념과 개발된 기초문항의 적절성 검증
↓	
4단계 윤문작업	문항에 대한 윤문작업과 수정, 보완
↓	
5단계 본 조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통일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 실시
↓	
6단계 문항스크린	기술 통계치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문항 스크린
↓	
7단계 최종 척도 구성	최종 통일교육의 효과성 요인과 문항 결정

### 5단계 : 본 조사

본 조사에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범학교 학생과 시범학교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2012년 6월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정도로 개인마다 응답시간의 차이는 있었다. 표본 추출은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초·중·고 각 2개 학급 60명씩 총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 구성은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한 설문문항은 총 25문항이었으며 중학교는 41문항, 고등학교는 38문항이었다.

## 제4장 연구결과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선행연구에서 통일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경제적 수준을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 범주가 그리 크지 않은 관계로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문조사 문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16개 시·도의 형태 혹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 형태가 활용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남자 54명(45.0%), 여자 66명(55.0%)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다소 많이 조사되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남자 61명(50.8%), 여자 59명(49.2%)로 조사된 남학생이 더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 48명(39.7%), 여자 73명(60.3%)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표 9〉 조사대상자의 성별

(괄호 : %)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54(45.0)	61(50.8)	48(39.7)
여자	66(55.0)	59(49.2)	73(60.3)
합계	120(100)	120(100)	120(100)

학교급에 따른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62명(51.7%), 중학생의 경우 81명(67.5%), 고등학생의 경우 85명(70.2%)였다. 다음으로 응답이 높은 비율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약간 잘 산다로 각각 38명(31.7%), 24명(20.0%)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약간 못산다(18명, 14.9%)로 응답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순이었다. 3순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잘산다(18명, 15.0%)였으나 중학생의 경우는 약간 못산다(9명, 7.5%)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약간 잘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명(9.9%)이어서 세 집단간 응답한 경제적 수준의 순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10〉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괄호 : %)

경제적 수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매우 못산다	0(0.0)	1(0.8)	3(2.5)
약간 못산다	2(1.7)	9(7.5)	18(14.9)
보통이다	62(51.7)	81(67.5)	85(70.2)
약간 잘산다	38(31.7)	24(20.0)	12(9.9)
매우 잘산다	18(15.0)	5(4.2)	2(1.7)

## 제2절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해 해당 영역 문항 전체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을 실시하였고 주성분분석에서는 각 변수들의 분산구조보다 각 요인의 특성을 알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OBLIMIN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또 적절한 요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고유치 1이상인 기준을 사용하였다.

### 1. 초등학교용

초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으로 초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들이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로 신뢰도를 확인해본 결과 1요인에서는 4문항에 Cronbach's Alpha  $\alpha$  계수가 .779로 높게 나타났다. 2요인은 6개 문항으로  $\alpha$  = .829로 신뢰도 계수가 높았으며 3요인은 3개 문항으로 묶었을 때는 신뢰도 계수가  $\alpha$  = .671이었으나 4개 문항으로 묶었을 때는 신뢰도 계수가  $\alpha$  = .686으로 증가하여 3요인의 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요인의 경우 4문항으로 Cronbach's Alpha  $\alpha$  = .698로 나타났으나 5요인의 4문항은  $\alpha$  = .505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6요인의 6문항은  $\alpha$  = .647로 초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로 채택할 수 있었다. 5요인의 4문항을 제외한 전체 21문항의  $\alpha$  = .892였으며 5요인의 4문항을 포함한 전체 Cronbach's Alpha  $\alpha$  = .903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자에 따라 25문항 모두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문항으로 활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11〉 초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요인분석 결과

문항	구성성분					
	1 통일환경	2 통일의지	3 분단피해	4 통일방안	5 통일노력	6 통일교육
통일환경	0.714	-0.005	-0.196	-0.043	-0.082	0.009
통일중요	0.688	-0.056	-0.104	-0.265	-0.039	0.362
북한실상	0.683	0.167	-0.300	-0.110	0.018	-0.214
통일 후	0.681	-0.449	-0.024	0.084	-0.044	0.217
통일의지	0.649	0.122	0.148	0.186	-0.175	-0.244
통일문제	0.613	-0.115	0.199	-0.104	-0.532	0.003
통일방식	0.605	-0.431	0.046	0.093	-0.153	0.076
분단국가	0.604	-0.190	-0.403	0.115	-0.002	-0.320
분단극복	0.602	0.430	-0.035	-0.049	-0.006	-0.024
함께살기	0.602	-0.540	0.014	-0.329	-0.045	0.030
이산가족	0.588	-0.183	-0.284	0.073	0.401	-0.245
북한생활	0.555	0.161	0.250	0.347	0.003	-0.095
통일방안	0.551	0.383	0.073	-0.309	-0.060	0.119
통일설명	0.538	0.490	-0.058	0.046	0.105	0.307
통일의미	0.521	0.141	0.199	0.100	0.347	0.199
통일교육	0.498	0.054	0.328	0.323	-0.072	-0.153
북한문화	0.489	0.262	0.059	-0.433	0.262	-0.072
노력	0.487	0.043	0.431	-0.388	-0.066	-0.189
통일이후	0.487	-0.314	-0.193	0.209	0.372	0.283
통일활동	0.463	-0.069	0.444	0.043	0.389	0.050
통일	0.524	-0.651	0.077	-0.152	-0.022	-0.105
방식차이	0.476	0.519	-0.229	-0.066	0.060	-0.368
북한인지	0.453	0.490	-0.021	0.113	-0.228	0.358
분단피해	0.347	0.036	-0.617	0.199	-0.228	0.126
환경시설	0.486	0.011	0.281	0.499	-0.063	-0.059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Oblimin

주) 요인분석결과 KMO값의 경우, 0.836(Chi-Square: 1136.778, df: 300, Sig: 0.000)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의 설명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8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별로 신뢰도를 확인해본 결과 1요인에서는 6문항에  $\alpha = .845$ , 2요인 5문항  $\alpha = .847$ , 3요인 3문항  $\alpha = .818$ 로 매우 높았다. 4요인의 경우는 5문항에  $\alpha = .787$ , 5요인 6문항으로 Cronbach's Alpha  $\alpha = .761$ , 6요인 5문항은  $\alpha = .757$ , 7요인 6문항  $\alpha = .703$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8요인은 5개 문항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548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8요인으로 신뢰도를 알아봤을 때 신뢰도 계수가 .957로 높았으나 8요인을 제외한 경우 신뢰도는 .959로 증가하여 8요인을 제외하여 총 36문항으로 중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중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요인분석 결과

문항	구성성분							
	1 통일노력	2 통일관	3 통일의지	4 통일의식	5 통일방안	6 통일활동	7 안보관	8
통일노력	0.753	-0.009	-0.354	-0.019	0.103	-0.114	0.034	-0.099
분단극복	0.741	0.086	-0.346	0.068	-0.251	-0.112	-0.039	0.021
국제안보	0.723	-0.236	0.058	-0.214	0.293	0.074	0.004	0.152
통일환경	0.718	-0.183	-0.048	-0.051	0.373	0.147	-0.016	-0.115
통일중요	0.714	0.430	-0.242	0.116	-0.037	0.071	-0.041	0.176
민족공동체	0.711	-0.238	0.175	-0.153	-0.153	0.044	0.003	0.069
통일의지	0.709	-0.180	0.049	-0.205	0.331	0.122	0.114	0.021
통일과정	0.705	-0.196	0.083	-0.153	-0.128	-0.011	-0.285	0.128
역할책임	0.695	0.025	0.102	-0.154	0.160	-0.150	-0.242	0.237
가치관	0.692	-0.119	0.288	0.100	-0.136	0.054	-0.163	-0.017
안보관	0.686	-0.144	0.186	0.066	0.025	-0.030	-0.182	-0.317
가치관정립	0.686	0.224	0.237	0.107	-0.139	-0.036	-0.163	0.143
실천의지	0.684	0.432	0.190	0.021	-0.046	-0.306	-0.110	-0.047
함께성장	0.679	0.460	0.171	-0.083	0.010	0.016	-0.104	-0.152
분단원인	0.661	-0.456	0.095	-0.053	0.077	0.080	0.131	0.056
튼튼안보	0.661	0.271	-0.071	0.002	-0.307	0.106	0.033	-0.217
통일설명	0.660	-0.027	-0.330	-0.076	-0.228	0.014	0.215	0.084
방식차이	0.660	0.075	-0.343	0.124	-0.286	-0.100	-0.020	-0.242



문항	구성성분							
	1 통일노력	2 통일관	3 통일의지	4 통일의식	5 통일방안	6 통일활동	7 안보관	8
통일문제	0.658	0.055	-0.215	-0.351	0.167	0.065	-0.137	-0.357
절차학습	0.656	0.084	0.054	0.234	0.087	-0.364	-0.044	0.130
통일방안	0.655	0.048	-0.514	0.068	-0.070	0.089	0.041	-0.047
북한특징	0.646	-0.249	0.184	-0.194	-0.104	-0.118	-0.188	0.295
민족통합	0.639	0.270	0.313	-0.149	0.218	-0.032	-0.081	-0.111
북한인지	0.632	-0.360	-0.258	-0.203	-0.033	-0.141	-0.051	-0.319
안보중요	0.632	-0.488	-0.034	-0.069	0.090	-0.177	0.015	0.016
통일활동	0.625	-0.081	-0.247	0.407	0.330	-0.123	-0.016	0.036
북한문화	0.619	0.036	-0.342	0.010	-0.017	0.308	-0.239	0.119
통일의미	0.618	0.189	-0.374	-0.040	-0.058	0.053	0.133	0.340
절차행동	0.611	0.196	0.332	0.080	-0.250	-0.295	0.293	-0.011
북한실상	0.595	-0.250	0.095	0.102	0.308	0.207	0.152	-0.018
현실괴리	0.586	-0.388	0.182	-0.190	-0.139	-0.280	0.224	0.076
이중성	0.580	-0.333	0.185	-0.021	-0.224	-0.125	0.071	0.020
비민주적	0.543	-0.191	0.119	0.181	-0.273	0.319	0.119	-0.210
안보위협	0.473	-0.011	0.318	0.252	-0.350	0.462	-0.197	0.063
통일필요성	0.397	0.701	0.002	-0.112	0.166	0.150	0.159	0.142
함께살기	0.598	0.611	0.001	0.000	0.184	0.073	0.013	0.094
민주통일	0.423	0.310	0.435	-0.034	0.139	0.305	0.117	-0.207
통일교육	0.257	-0.320	-0.028	0.770	0.170	-0.018	0.114	-0.023
환경시설	0.380	-0.044	0.118	0.718	0.138	-0.001	-0.101	0.027
분단피해	0.328	-0.279	-0.009	-0.103	-0.123	0.475	0.316	0.193
동포애	0.543	0.284	0.165	0.008	0.021	-0.182	0.590	-0.065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Oblimin

주) 요인분석결과 KMO값의 경우, 0.847(Chi-Square: 2939.575, df: 820, Sig: 0.000)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의 설명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 개발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요인의 경우 문항에  $\alpha = .904$ , 2요인 3문항  $\alpha = .753$ , 3요인 5문항  $\alpha = .753$ , 4요인 4문항에  $\alpha = .749$ 로 나타났다. 그러나 5요인의 경우 3문항에

$\alpha = .526$ , 6요인 3문항에  $\alpha = .583$ 으로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7요인의 경우 6문항에  $\alpha = .736$ 을 나타냈으나, 8요인의 경우 4문항에  $\alpha = .509$ , 9요인 5문항에  $\alpha = .394$ 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지표의 경우 4요인, 5요인, 8요인, 9요인을 제외한 5개의 요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개 요인만을 구성하여 전체 신뢰도를 알아봤을 때는 23개 문항에 신뢰도 계수 .929를 나타내었다.

〈표 13〉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효과성 요인분석 결과

문항	구성성분								
	1 통일의식	2 통일의지	3 공동체역시	4 통일관심	5	6	7	8	9
통일중요	0.764	-0.202	-0.104	0.117	0.145	-0.144	-0.112	-0.151	-0.028
통일의지	0.754	-0.213	-0.192	0.058	0.071	-0.166	0.126	0.023	0.137
통일필요	0.684	-0.524	-0.135	0.049	0.128	0.133	0.012	0.013	0.116
민주통일	0.672	-0.504	0.035	0.088	0.038	-0.038	0.071	0.047	0.216
함께살기	0.669	-0.531	-0.062	0.042	0.130	0.118	-0.085	0.010	0.001
실천의지	0.662	-0.207	-0.052	-0.388	-0.099	0.126	0.205	0.053	0.158
통일노력	0.659	-0.177	0.218	0.023	0.056	0.276	-0.033	0.122	-0.060
민족공동체	0.655	-0.443	-0.003	-0.067	0.300	0.067	-0.072	0.081	-0.030
통일의미	0.654	0.024	0.061	-0.276	-0.073	-0.119	-0.133	0.124	0.190
통일환경	0.641	0.009	0.006	0.053	-0.138	-0.312	0.098	-0.224	-0.068
인도주의	0.641	-0.327	0.177	-0.071	0.186	0.061	-0.073	-0.019	-0.158
보편가치	0.629	0.393	0.047	-0.054	-0.143	0.089	-0.154	0.012	-0.022
상생공영	0.628	-0.287	0.046	-0.162	-0.013	0.122	-0.077	-0.195	-0.359
북한문화	0.627	0.017	-0.188	0.248	-0.202	-0.166	0.014	0.148	0.173
북한실상	0.623	0.171	0.272	0.099	-0.095	-0.115	0.129	0.235	-0.262
통일문제	0.607	-0.251	-0.067	0.025	-0.345	0.161	0.334	-0.032	0.065
나의노력	0.591	-0.140	-0.222	0.167	-0.369	0.091	0.224	0.132	-0.026
분단극복	0.563	0.117	-0.072	0.371	-0.175	-0.275	-0.167	-0.321	-0.144
튼튼안보	0.559	-0.077	0.376	-0.121	0.073	0.151	-0.206	0.138	-0.133
통일방안	0.554	-0.136	-0.176	0.318	-0.057	-0.467	-0.104	0.058	0.089
국제안보	0.533	0.203	0.082	-0.137	-0.222	0.146	-0.456	-0.306	0.015

문항	구성성분								
	1	2	3	4	5	6	7	8	9
	통일의식	통일의지	공동체역의식	통일관심			통일방안		
역할책임	0.526	0.351	-0.129	-0.037	-0.304	-0.014	0.109	0.408	-0.263
해소방안	0.521	0.404	-0.082	-0.202	0.207	-0.097	-0.191	0.295	-0.206
통일활동	0.500	0.318	-0.490	0.092	0.088	0.117	-0.151	-0.015	0.081
민주원리	0.494	0.446	-0.374	-0.137	0.172	0.158	0.158	-0.262	-0.066
북한인지	0.488	0.286	-0.024	-0.104	-0.232	0.333	-0.011	-0.143	0.182
현상요인	0.462	0.302	0.124	-0.323	-0.169	-0.227	-0.134	-0.131	0.227
인권문제	0.461	0.289	0.119	-0.400	-0.148	-0.187	0.027	0.173	0.037
방식차이	0.455	0.401	0.323	0.167	0.003	0.075	-0.223	0.006	0.287
환경시설	0.325	0.427	-0.394	0.112	0.374	0.043	-0.018	0.220	0.265
퇴행형태	0.150	0.380	0.366	0.300	-0.091	0.315	0.249	0.136	0.074
통일교육	0.288	0.402	-0.572	0.165	0.363	0.118	0.173	-0.083	-0.099
위협대상	0.418	0.201	0.567	0.145	0.202	-0.111	0.304	-0.152	0.230
안보위협	0.406	0.274	0.437	0.112	0.280	0.028	0.240	-0.263	0.085
통일설명	0.375	0.170	0.054	0.550	-0.166	0.116	0.051	-0.150	-0.326
절차행동	0.489	0.133	-0.101	-0.525	0.097	0.134	0.199	-0.184	-0.141
분단피해	0.223	0.045	0.213	0.432	0.191	0.283	-0.274	0.201	0.022
통일합의	0.387	0.206	0.295	-0.110	0.384	-0.395	0.159	0.073	-0.205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Oblimin

주) 요인분석결과 KMO값의 경우, 0.836(Chi-Square: 2389.611, df: 703, Sig: 0.000)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의 설명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절 초·중·고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

지금까지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라 초·중·고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의 지표 체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효과성 지표는 총 21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요인은 통일환경 4문항, 통일의지 3문항, 통일관 4문항, 통일방안 4문항, 통일교육 6문항이다. 그러나 이미 신뢰성이 검증된 관계로 25문항 6개 요인으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도 있다. 최종 문항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표 14〉 초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지표체계	해당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통일환경	12, 14, 18, 16번 (4문항)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일이 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가 더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지	1, 15, 17번 (3문항)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에 맞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관	7, 10, 21, 22번 (4문항)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산가족 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여러 원인 때문에 분단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방안	4, 5, 13, 20번 (4문항)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모습, 언어생활, 민속놀이 등이 남한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통일교육	2, 8, 9, 11, 23, 25번 (6문항)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과 북의 분단은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통일교육 혹은 통일관련 체험과 관련하여 교육 환경 및 시설, 기자재 등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중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는 통일노력 6문항, 통일관 5문항, 통일의지 3문항, 통일의식 5문항, 통일방안 6문항, 통일활동 5문항, 안보관 6문항의 총 7개 영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5〉 중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지표체계	해당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통일노력	3, 7, 12, 16, 17, 20번 (6문항)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은(TV 방송, 도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의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통일관	15, 22, 26, 27, 30번 (5문항)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일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계십니까?
		북한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지	21, 31, 34번 (3문항)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북한주민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	1, 4, 8, 18, 35번 (5문항)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체계	해당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통일방안	2, 5, 19, 24, 28, 32번 (6문항)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북한 사회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북한은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라고 생각합니까?
통일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대해 학습하셨나요?		
통일활동	6, 9, 13, 14, 33번 (5문항)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안보관	10, 11, 23, 25, 29, 36번 (6문항)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이중성을 알고 있습니까?
		북한의 체제선전 주장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알고 있습니까?
		북한은 때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다소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는 총 23문항으로 통일의식 5문항, 통일의지 3문항, 민족공동체의식 5문항, 통일관심 4문항, 통일방안 6문항의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개발되었다.

〈표 16〉 고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지표체계	해당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통일의식	7, 8, 9, 12, 14번 (5문항)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지표체계	해당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에 맞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지	18, 19, 20번 (3문항)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라고 생각하니까?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민족공동체 의식	10, 13, 17, 22, 23번 (5문항)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일교육을 통해 자유·평등·민주·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까? 북한주민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상생·공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관심	1, 3, 4, 11번 (4문항)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은(TV 방송, 도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통일방안	2, 5, 6, 15, 16, 21번 (6문항)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탈북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 아니라 그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 요인들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일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대해 학습하셨나요?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효과성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이다.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효과성의 개념 정립과 하위요소 구체화를 통한 측정도구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1년, 2012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연구과제 현황 및 연구목표, 통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 등을 교차분석하여 측정개념들을 구성하였다. 또 FGI,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개발된 초등학교 총 25문항, 중학교 41문항, 고등학교 38문항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여 초·중·고 각 2개 학급 60명씩 총 360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효과성 지표는 총 21문항 5개 요인으로(Cronbach's Alpha  $\alpha = .892$ ) 구성 요인은 통일환경 4문항( $\alpha = .779$ ), 통일의지 3문항( $\alpha = .829$ ), 통일관 4문항( $\alpha = .686$ ), 통일방안 4문항( $\alpha = .698$ ), 통일교육 6문항( $\alpha = .647$ )이다. 그러나 이미 신뢰성이 검증된 관계로 25문항 6개 요인으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도 있다.

중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는 통일노력 6문항( $\alpha = .845$ ), 통일관 5문항( $\alpha = .847$ ), 통일의지 3문항( $\alpha = .818$ ), 통일의식 5문항( $\alpha = .787$ ), 통일방안 6문항( $\alpha = .761$ ), 통일활동 5문항( $\alpha = .757$ ), 안보관 6문항( $\alpha = .703$ )의 총 7개 영역으로 총 36문항으로( $\alpha = .959$ )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는 총 23문항으로( $\alpha = .929$ ) 통일의식 5문항( $\alpha = .904$ ), 통일의지 3문항( $\alpha = .753$ ), 민족공동체의식 5문항( $\alpha = .753$ ), 통일관심 4문항( $\alpha = .749$ ), 통일방안 6문항( $\alpha = .736$ )의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다. 교육활동에서의 효과성은 교육목표 외에도 교수자, 교수학습 방법, 교육환경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하고 좀 더 견고한 통일교육의 효과성 지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범학교 / 미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명히 밝혀낼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는 추가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에 유용한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었다. 향후 통일교육 및 정책적 지원에 따른 효율성을 검증해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지표 및 문항들로 시범학교 / 미시범학교의 통일교육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통일교육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보다 많은 학교들이 확산되어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많은 변인에 대한 검증 및 매개 과정 등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효과성은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육적 활동의 중요성은 학습자가 교육내용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 본 연구수행을 통해 체계화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밝히는 지표 및 문항 개발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미처 실시하지 못한 질적인 지표 개발 및 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범학교 사업 운영에 대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적 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궁극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직접 대상인 청소년의 의식변화, 실천태도 함양 등에 관한 내용을 지표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성을 발현하고 그 효과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 수반되어야 하는 학교장의 의지, 담당교사의 보상, 담당교사의 수, 활동 프로그램의 수 등 보다 다양한 변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과제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급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위영역 지표 체계에 기반한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효과성 지표의 하위영역으로 통일환경, 통일의지, 분단피해, 통일방안, 통일교육 등이 5개 요인이, 중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하위영역으로는 통일노력, 통일의지, 통일관, 통일의식, 통일방안, 통일활동, 안보관 등 총 7개 하위영역이 개발되었다. 또 고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효과성 지표 체계로 통일의식, 통일의지, 민족공동체의식, 통일관심, 통일방안 등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개발되었다. 20여 개의 문항이 학교급에 상관없는 공통문항으로 1차 개발되었으나 설문조사 및 요인 분석을 통해 학교급에 따라 어떤 문항은 선택되고 어떤 문항은 탈락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각 학교급의 특성에 맞는 각 하위영역 지표별로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증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지표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재검증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문헌 및 초점 집중 면접, 자문회의 등을 통해 1차 통일교육 효과성 문항 및 지표를 추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지표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적절성 등을 Triangulation(다각검증)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학문적, 이론적 체계도 보다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예산 및 시간 제약, 표집방법의 한계에 따른 더 많은 대상으로의 검증, 객관성,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많은 검증 단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실천현장에서의 검증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책적으로도 이를 지원해주고 조력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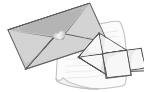
여덟째,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모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 체제내에서의 통일교육의 효과성 그것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목표대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며 통일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상으로의 정책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내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밖 여러 청소년시설 및 기관, 단체에서 만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성 지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미처 실시하지 못했던 학교급에 기초한 통일교육 효과성의 지표 탐색, 시범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담당자의 고충으로서 외연화된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의 요구 충족, 체계화되고 객관화된 평가도구로서의 기초자료 제공,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확대방안을 모색 해볼 수 있는 정책적 입안 자료로의 활용 등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연구의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앞서 제시한 후속연구의 과제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청소년에게는 통일의식의 잠재력 향상 및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 발휘하고 통일인식 제고 및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천교육자에게는 구체화된 측정도구 개발을 통한 통일교육의 과학적·효과적인 측정의 계기 마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표준화된 효과성 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각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적 지원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발전적인 프로그램 및 사업 실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 [부 록] 1

## 1차 개발 설문지

〈초등학생용〉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통일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문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자료로만 이용되고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2. 7.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02-944-5131, ynkim@iscu.ac.kr)

1. 성별 : 남 ( ) 여 ( )

2. 우리집은?

- ① 매우 못산다 ② 약간 못산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산다 ⑤ 매우 잘산다

## [통일교육과 관련된 질문]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대단히 관심이 많다.



2.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3.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은(TV 방송, 도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 ① 전혀 안하고 있다.      ② 노력을 안 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노력하고 있다.    ⑤ 매우 노력하고 있다.

4.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 ①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② 한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 ③ 두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④ 세, 네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 ⑤ 여러 가지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6.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7.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에 맞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통일이 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가 더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과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뿐 아니라 나아가 기차를 타고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모습, 언어생활, 민속놀이 등이 남한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1. 이산가족 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2.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여러 원인 때문에 분단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3. 남과 북의 분단은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4. 올해 통일교육을 받아 보거나 통일 관련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 ① 전혀 없다
- ② 1~2회
- ③ 3~4회
- ④ 5~6회
- ⑤ 매우 많이 받았다.

25. 학교에서 통일교육 혹은 통일관련 체험과 관련하여 교육 환경 및 시설, 기자재 등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 ① 모르겠다
- ②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
- ③ 대체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 ④ 대체로 구비되어 있다
- ⑤ 매우 잘 구비되어 있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중학생용〉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통일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문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고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2. 7.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02-944-5131, ynkim@iscu.ac.kr)

1. 성별 : 남 ( ) 여 ( )

2. 우리집은?

- ① 매우 못산다 ② 약간 못산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산다 ⑤ 매우 잘산다

## [통일교육과 관련된 질문]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대단히 관심이 많다.



2.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3.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은(TV 방송, 도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 ① 전혀 안하고 있다.      ② 노력을 안 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노력하고 있다.    ⑤ 매우 노력하고 있다.

4.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② 한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④ 세, 네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⑤ 여러 가지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6.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7.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에 맞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남과 북의 분단은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올해 통일교육을 받아 보거나 통일 관련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① 전혀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매우 많이 받았다.
21. 학교에서 통일교육 혹은 통일관련 체험과 관련하여 교육 환경 및 시설, 기자재 등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① 모르겠다                                  ②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  
 ③ 대체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④ 대체로 구비되어 있다  
 ⑤ 매우 잘 구비되어 있다

22.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3.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4.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의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5.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6. 통일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나는 북한의 이중성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8. 북한 사회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9. 북한의 체제선전 주장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30. 북한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북한은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북한은 때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4.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5.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6. 통일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대해 학습하셨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7.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8. 북한주민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9.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0. 북한은 다소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1. 북한 주민은 동포애와 인류애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용>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통일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문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고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2. 7.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02-944-5131, ynkim@iscu.ac.kr)

1. 성별 : 남 ( ) 여 ( )

2. 우리집은?

- ① 매우 못산다 ② 약간 못산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산다 ⑤ 매우 잘산다

## [통일교육과 관련된 질문]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대단히 관심이 많다.



2.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3.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은(TV 방송, 도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 ① 전혀 안하고 있다.      ② 노력을 안 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노력하고 있다. ⑤ 매우 노력하고 있다.

4.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 ①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② 한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 ③ 두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④ 세, 네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 ⑤ 여러 가지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6.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7.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에 맞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남과 북의 분단은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올해 통일교육을 받아 보거나 통일 관련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① 전혀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매우 많이 받았다.
21. 학교에서 통일교육 혹은 통일관련 체험과 관련하여 교육 환경 및 시설, 기자재 등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① 모르겠다 ②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  
③ 대체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④ 대체로 구비되어 있다  
⑤ 매우 잘 구비되어 있다

22.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상 존재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통일은 남과 북의 합의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탈북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6.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 아니라 그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 요인들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통일교육을 통해 자유·평등·민주·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북한은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0. 북한은 때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통일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대해 학습하셨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4.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5. 북한주민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상생·공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6.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7. 북한은 다소 퇴행적 행태와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8. 북한 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 록] 2

초·중·고 시범학교 통일교육 효과성 최종 확정 문항

〈초등학생용〉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대단히 관심이 많다.
  
2.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3.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② 한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④ 세, 네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⑤ 여러 가지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5.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에 맞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통일이 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가 더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모습, 언어생활, 민속놀이 등이 남한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18. 이산가족 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여러 원인 때문에 분단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남과 북의 분단은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학교에서 통일교육 혹은 통일관련 체험과 관련하여 교육 환경 및 시설, 기자재 등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① 모르겠다 ②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  
③ 대체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④ 대체로 구비되어 있다  
⑤ 매우 잘 구비되어 있다

[배경변인]

1. 성별 : 남 ( ) 여 ( )
2. 우리집은?  
① 매우 못산다 ② 약간 못산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산다 ⑤ 매우 잘산다
3.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4. 내가 해당되는 곳은? (절대 비밀보장됩니다)  
① 새터민 ② 남한 출생

## 〈중학교용〉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대단히 관심이 많다.
  
2.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3.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은(TV 방송, 도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① 전혀 안하고 있다.      ② 노력을 안 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노력하고 있다.      ⑤ 매우 노력하고 있다.
  
4.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② 한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④ 세, 네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⑤ 여러 가지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6.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7.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19.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0.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의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1.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통일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북한의 이중성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4. 북한 사회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5. 북한의 체제선전 주장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6. 북한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북한은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북한은 때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0.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통일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대해 학습하셨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4. 북한주민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5.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6. 북한은 다소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배경변인]

1. 성별 : 남 ( ) 여 ( )

2. 우리집은?

① 매우 못산다 ② 약간 못산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산다 ⑤ 매우 잘산다

3.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4. 내가 해당되는 곳은? (절대 비밀보장됩니다)

① 새터민                      ② 남한 출생

### 〈고등학교용〉

1. 평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대단히 관심이 많다.
  
2.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알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3. 북한을 알기 위한 나의 노력은(TV 방송, 도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① 전혀 안하고 있다.      ② 노력을 안 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노력하고 있다.      ⑤ 매우 노력하고 있다.
  
4.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관심 없다.      ② 전혀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5.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통일관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통일의 의미를 알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북한의 실상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의지를 함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에 맞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탈북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 아니라 그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 요인들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통일교육을 통해 자유·평등·민주·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북한은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통일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대해 학습하셨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북한주민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상생·공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북한 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배경변인]**

1. 성별 : 남 ( ) 여 ( )
2. 우리집은?  
① 매우 못산다 ② 약간 못산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산다 ⑤ 매우 잘산다
3.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4. 내가 해당되는 곳은? (절대 비밀보장됩니다)  
① 새터민 ② 남한 출생

## [참고문헌]

- 권기욱(1992), 대학평가론. 서울:성원사.
- 고용노동부(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김미영(2010),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하(2007), 북한이주민을 활용한 중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에 미친 영향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4(3호).
- 김윤나(2010), 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청소년학연구, 17(11), 27-46.
- 김윤나(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나(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윤나, 서보람(2007), 새터민 아동·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분석, 아동권리연구 제11권 제1호(학진등재지).
- 김원경(2006), 참여확대를 통한 지방교육정책 효과성 제고 모색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연(2004), 도시·농촌 초등학생의 통일 의식 비교 연구 :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성길(2000).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동주(2005), 고등학교 통일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시범/비시범 학교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동열(2000),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교육 효과성 평가지표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하나(2008), 청소년들의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인명 외(2003), 정책평가론, 서울:시대고시 기획.
- 배한동(2001),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 서울:집문당.
- 성장환(2003), 대구·경북 초등학생의 통일의식 조사 분석, 초등교육연구논총, 18(3).
- 유현영(2010), 토의학습이 초등학생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섭(2005), ICT 활용 수업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혜(2010), ICT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아동의 통일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정우(2006), 사회과 교사의 북한 사람,북한,통일에 대한 인식:사회과 교사 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38(1).

조현정(2008),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이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이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일교육원(2012), 2012 학교용 통일교육 지침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교정시설 및 소년원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0), 탈북학생 학교 및 사회적응 진단도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2010), 탈북학생 기초학력진단도구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 탈북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강의안 및 워크북 작성.

함인희, 한정자(2000), 집단별 통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 청소년 · 여성 · 386세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5권.

# 북한 문화예술정책과 공연예술계의 실천양상 분석 : 1980년대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전망

김정수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

제1장 서론 .....	253
제2장 '수령형상'과 '민족'의 조우(遭遇) :	
1980년대~1990년대 중반 .....	255
제3장 '감성'과 '선군(先軍)'의 결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	281
제4장 '과학', '추억', '중국과의 교류' : 현재와 미래전망 .....	311
제5장 결론 .....	318
[참고 문헌] .....	321

---





## 요 약 문

본 글의 목적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 문화예술정책과 공연예술계의 실천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예술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문예담론이 공연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북한 예술관련 연구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감성의 시대인 21세기, 북한의 공연예술에 대한 공연적 관점의 연구, 즉 이데올로기를 떠나 감성적 차원에서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희곡/연기/무대/음악 등의 연구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것이다. 이 같은 믿음으로 시작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8년 김정일의 지도로 <성황당>이 제작된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연극계는 <성황당>의 재공연에 집중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조선중앙년감」에 새로운 연극공연 소식이 부재함은 1980년대 초반 연극계가 잠시 소강상태였음을 말해준다. 연극계가 소생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다시 김정일 주도로 ‘혁명연극’이 창작되면서부터이다. 198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혁명연극은 1990년대 중반까지 맥을 이어갔다.

이 시기의 문예담론은 김정일의 담화에서 발견되듯이 ‘주체사상’과 ‘민족’의 조우(遭遇)였다. ‘민족’담론은 물론 ‘체제수호’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정치 담론에서 배태된 문예담론은 무대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주체 철학, 조선의 사람에게 조선음악/조선화/조선춤을 보여줄 것, 민속 문화를 장려할 것,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것을 강조했고, 이는 곧 연극계에 수용된다. 연극은 내용과 양식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희곡의 주제는 동시대와 연관된 ‘현재적 자주성’이, 연극의 주인공은 김일성의 이상화를 위해 ‘결합’있는 인물이, 연기(演技)는 현실적/사실적/운문적 화술이, 무대는 ‘선명/간결’과 ‘부드럽고 명료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화 기법이, 음악에서는 민족적 선율의 통속적/민요적 리듬이 구현된 것이다. 문예담론의 출생비밀이 무엇이었던 작품만을 놓고 본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 연극에서는 분명 다양성이 포착된다. 작품의 본질적 주제는 고정되었으나 공연작품의 배경이 각기 달랐고 등장인물들이 애국지사, 민족주의자, 농부 등 다양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계가 안아야 하는 ‘김일성 이상화’라는 천형(天刑)이 한계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 배우들의 높은 기량과 ‘한계를 안은 다양성’의 시도는 분명 돋보인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문예담론은 ‘선군’으로 선회한다. 문학예술계는 ‘선군혁명문학/선군혁명음악/선군혁명미술/선군영화’로 지칭되었다. ‘선군’은 창작 원리로 흐르는 본류가 되었고, 이전 시기 강조되었던 ‘조선민족제일주의’ 역시 여전히 무게 있는 지류로 본류에 합류했다. ‘선군담론’은 ‘선군’과 ‘감성’의 결합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모든 성과작의 주인공을 군인/군인가족으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기에서는 진지함과 희극성, 유모가 결합되었다. 강한 군인정신을 인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희극성의 출생 비밀 역시 고난의 행군을 웃음으로 극복하자는 정치적 맥락이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희극성을 구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모두 그 기량이 돋보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배우들은 진지함과 유머를 감각 있게 조화시켜 나갔다. 무대와 음악/춤의 창작 원리에서 1980년대의 ‘민족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분명 변화가 포착된다. 변화는 무대에서 ‘영상화면’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점, 음악에서 ‘군’의 기백을 보여주기 위해 외치는 듯한 슈프레히콜 방식이 적극 도입된 점, 춤에서 군과 인민이 어울려 역동성을 강화한 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군정치’에 따른 ‘선군문예정책’은 연극에서 주인공의 획일화와 강력한 춤/노래로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980년대 말에 있었던 ‘다양성’이 ‘획일화’로 방향을 수정했음이 포착된다. 예술의 생명은 단연 ‘창조성’과 ‘다양성’에 있을 터, 북한의 이 같은 정보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래의 북한 연극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일까. 과학을 주제/소재로 하는 과학물, 김정일을 추억하는 공연, 중국 고전극 공연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북한 연극은 정치의 변수와 함께 완만히/급하게 선회할 것이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재능 있는, 또는 재능을 쌓고 있는 모든 북한 연극인들에게 건투를 빈다. 연극인들이 서야 할 곳은 무대뿐이기 때문이다.

## 제1장 서론

오늘 우리 남한에서 북한의 공연예술에 대한 연구는 점차 심도를 더해가고 있다. 초기 공연소개를 중심으로 시작한 연구는 현재 북한의 문예이론과 맞물려 연극, 가극, 무용, 등 연구대상을 다양화하며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시기 자료의 한계를 안아야 했던 모든 북한 공연예술 관련의 선행연구는 경의를 표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이 북한의 문예정책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공연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북한 공연예술 관련의 연구가 예술전공자보다는 정치·사회·문학 전공자에 의해 일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연극은 ‘희곡’이라는 문학과의 공통분모를 안고 있기에 북한 연극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문예정책이나 희곡연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연극은 종합예술로써 연기, 무대, 관객, 음악, 희곡 등이 어울려 빚어내는 하나의 공연물이다. 이 어울림의 실제인 공연물이 북한의 문예정책과 맞물려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동시에 절실한 것이다. 둘째 이유는 공연예술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현장성을 담보로 하는 무대예술은 창조되는 동시에 소멸된다. 직접 공연을 관람한 경우에도 현존한 후 곧 사라지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공연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놓는다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 조심스러움을 딛고 기존의 문예정책 연구와 공연물을 연결시키는 연구, 기존 연구를 통합하는 ‘북한의 문예정책과 공연예술의 실천’에 대한 공연적 관점의 연구, 이데올로기를 떠나 감성적 차원에서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희곡, 연기, 연출, 무대, 음악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급하고도 절실할 것이다.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무대에서 어떻게 실천되는 것일까. 현장예술은 현존하는 관객을 전제로 하는바, 공연은 관객과 무엇을 공감했을까. 이를 이해한다면 현재 남북한의 소통을 위해 실행되는 다양한 연구와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감성의 시대인 21세기 감성을 통한 분단의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의 시대를 벗어난 우리의 후속 세대와 일반인들이 즐기는 공연예술 연구를 점검하고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일은 이같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문예담론에 대한 연극의 반향(反響)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공연예술에는 연극, 가극, 무용, 교예, 대집단체조 등이 있으나 ‘연극’으로 한정하는 것은 연극이 문학(희곡), 연기, 음악, 미술(무대)

을 모두 담고 있는 종합예술로써 공연예술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이며, 한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연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한 것은 연극을 통해 최근의 북한 예술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해보기 위해서이다. 본문은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문예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해 연극계는 공연의 문법으로, 즉 희곡·연기·연출·무대·음악으로 어떻게 반향(反響)했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답하며 진행될 것이다.

연구과정에서는 철저히 북한의 문헌 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북한의 연극관련 단행본, 신문, 잡지를 기본적으로 탐색할 것이며, 특히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조선중앙년감」과 북한의 대표적 예술잡지인 「조선예술」에 실린 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조선중앙년감」을 통해서 각 시기 북한이 성과작으로 꼽는 작품을 선정할 것이며, 「조선예술」을 통해서 연극 이론가 뿐 아니라 현장인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동시에 「조선예술」에 기고된 관객의 글 역시 중요시 여기고자 한다. 관객과 배우는 무대와 더불어 연극의 3요소이기에 관객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글 역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할 것을 밝혀둔다. 연극은 창작자(배우)/수용자(관객)의 입장에서 지극히 시청각적이고 물리적인 예술이기 때문이다. 각 시기는 등장인물, 연기, 무대, 음악에 초점을 두어 분석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은 어떠한 배경/특성의 인물인가, 연기는 어떻게 말하고 움직였는가, 무대는 어떠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는가, 음악은 어떠한 리듬과 분위기로 구현되었는가를 밝혀볼 것이다. 이와 함께 시청각적 예술을 글로 설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대와 음악설명을 위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연사진과 악보를 제시했음을 밝혀둔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 문예정책과 공연예술계의 실천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는 본 연구가 남한과 북한이 대화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서로의 특징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북한의 공연문법에 대한 기초 연구로,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책연구에 토대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제2장 ‘수령형상’과 ‘민족’의 조우(遭遇)

: 1980년대~1990년대 중반

### 제1절 문예담론의 풍경: 주체사상과 민족성

1980년대 북한의 문예담론에서 주목할 것은 단연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이다.<sup>1)</sup> 김정일은 주체사상과 민족을 관련지어 언급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임을 밝히고 주체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이란 무엇일까? 다음은 김정일이 밝힌 ‘주체사상’의 실체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 학설입니다. …(중략)…

물질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물질세계에서 인간은 유일하게 자주적 존재입니다. 동물은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으로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인식한 데 기초하여 자연을 자기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세계의 힘있는 주인입니다. 인간은… 인간사회의 고유한 사회적 운동법칙에 따라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의 핵심은 ‘자주성’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을 비유하면서, 동물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면, 인간은 자연(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바꾸고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 나가는 세계의 주인이며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김정일이 이같은 주장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거의 동일한 설명이 1972년 김일성에 게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1972년 9월 일본 「아미니치신문」에서 김일성은 주체사상

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447-471.

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한바 있다.<sup>2)</sup> 1974년부터 1985년까지가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며 1986년부터 1994년까지가 김정일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이었다는 황장엽의 회고를 참고한다면,<sup>3)</sup>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맥락이 무엇이든, 최근의 탈북인 역시 ‘주체사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답을 한다는 점이다.<sup>4)</sup> 그렇다면 197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분명 ‘인간의 자주성’,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믿는 철학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와 함께 동일한 글에서 김정일이 간략하나마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표현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 세계혁명 앞에 우리당과 인민의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 임무인 조선혁명을 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민족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김정일은 ‘주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는 연이어 ‘우리민족제일주의’란 먼저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민족에 대해서 높은 자부심을 갖는 것이라 설명한다. 남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결국 주인의식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지침은 경전 그 이상인바, ‘주체사상’과 ‘민족’은 80년대 북한의 문예계에서 핵심 코드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극에서 ‘주체’와 ‘민족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했을까? 다음 글은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2)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 역사·이념·권력체계-」, 한울, 2011, p.96.

3) 중앙일보, 1999. 9. 14.

4) 김복희(가명),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 보이스트레코더 녹음, 동국대학교, 2009. 5.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한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민족적형식에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주체사상을 담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문학예술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에 맞을뿐아니라 그 사상적내용의 수준이 가장 높은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음악이 제일이고 조선화가 제일이고 조선춤이 제일입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풍습을 무시하는 현상을 없애고 철저히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 지향과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작품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소설과 영화, 연극, 미술, 무용을 비롯한 다른 문학예술작품에서도…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민족적인것을 들고나가야…<sup>5)</sup>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구현은 곧 문학예술작품의 형식에서 ‘민족적’인 것을 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무엇이 ‘민족적’인 것이라 뚜렷히 정의하지는 않지만, 전체적 맥락을 보면 우리 고유의 생활감정과 음악/그림 등의 ‘전통적’요소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그는 같은 글에서 음악부분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하려면 ‘민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요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생활감정에 맞는 대표적인 예술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더 나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동정심이 많으며 레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녔다고 역설한다. 민족에 대한 강조가 감지되는데, 2년 후인 1989년 1월과 12월에는 더욱 강화된다. 연초에 언급한 ‘민족성’의 실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다음은 ‘민족’과 ‘전통’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이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를 장려하면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줄수 있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좋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명절과 쉬는 날에 씨름, 그네뛰기, 활쏘기, 윷놀이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활쏘기, 연띄우기, 썰매타기, 줄넘기, 숨박곡질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5)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선전부 책임일군들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7, 11. 30. 「김정일선집(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합니다...근로자들에게 기타와 하모니카를 비롯한 여러가지 악기와 낚시도구도 생산하여 팔아주고 그네뛰기, 널뛰기, 바줄당기기에 필요한 널판자와 바줄도 보장해주며...6)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민속놀이를 장려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씨름/그네뛰기/웃놀이 등을 들며, 어린이들에게도 이 같은 민속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민족성/전통성의 실체는 결국 우리 고유의 ‘문화’로 수렴되는 것이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그해 12월에 발표된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

민족성은 민족이 계승하는 전통에 체현되며 그에 기초하여 높이 발양됩니다. 따라서 전통을 무시하는것은 결국 민족성을 무시하는것으로 됩니다.

전통을 계승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구현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문화 유산과 전통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민족문화를 더 잘 건설하며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잘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7)

이 글은 북한의 연극이 주체사상/민족과 관련하여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말해준다. 김정일은 명백히 ‘전통을 계승’하면서, ‘항일의 혁명정신을 계승’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연이어 그는 민족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것을 당부하며 예술작품의 형식에서 ‘민족성’을 유지하고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고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담론의 배경은 북한 외부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 있다.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던 1989년 말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강조는 분명 외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부의 변화로부터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워 생존의 방향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체’와 ‘민족’이 담론으로 내세워진 배경이 아니라, 그 담론에 의해 공연의 실제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타났는

6) 김정일,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 1. 5. 「김정일선집(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7)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 12. 28. 「김정일선집(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가이다. 1980년대 북한은 혁명연극 <혈분만국회>(1984. 4.), <3인 1당>(1984. 5.), <딸에게서 온 편지>(1987. 3), <경축대회>(1988. 1)를 완성한다. 이 작품은 <성황당>(1978)과 함께 5대 혁명연극으로 지칭되며,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이 5개 작품의 모태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작품 모두는 1920년대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하면서 창작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1978년 김정일의 지도로 <성황당>이 재창작된 이후, 1980년대에는 <성황당>을 모범으로 1920년대 공연되었던 4편의 ‘혁명연극’이 재창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와 ‘민족/전통’이 문학예술의 키워드로 부상한 1980년대에 연극은 그 예술 강령을 어떻게 구체화했을까? 다음절에서 <혈분만국회>를 중심으로 4편의 공연물에 나타난 ‘주체/민족/전통/현대적 미감’의 실체를 밝혀보기로 한다.

## 제2절 공연물에서의 ‘주체’, ‘민족’, ‘현대적 미감’

### 1. 현재적 자주성과 결함 있는 주인공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장하는 ‘주체정신/철학’의 핵심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은 앞에서 언급한바 있다. 그렇다면 ‘주체’와 연극은 어떻게 이어질까?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철학을 담은 작품이란 곧 외부의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인물/주제/소재의 구현을 짐작케 한다. 국립연극단이 공연한 <혈분만국회>에 대해 북한은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연극창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형상방도를 빛나게 구현한 연극”이며 “주인공인 애국지사 리준의 우여곡절에 찬 운명을 통하여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진리를 심오히 밝혀”낸 작품으로 설명한다.<sup>8)</sup> 북한 관객 리대철은 이 작품이 ‘예리한 사회정치적문제성과 심오한 철학적성, 높은 예술적경지로 하여 연극발전과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고평한다. 리대철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국권회복을 이룩하기 위한 참다운 길을 찾지 못하고 몸부림치던 리준이가 큰 나라에 기대를 걸고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배를 가르는 피의 격사적교훈을 통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8) 「조선중앙년감」, 1985.

무엇을 믿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다시 말하여 연극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오직 자주정신만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히고 있다.<sup>9)</sup>

리대철에 의하면 <혈분만국회>가 의미 있는 작품인 이유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혈분만국회>에서 자주성이 주제/소재라는 점뿐 아니라, 이 작품의 심오함은 “미국놈들의 형상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에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며 털끝만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미제국주의의 위선’을 폭로한 공이 큰 것이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00년대 초 일제 강점기이다. 적대적 대상으로 일본이 등장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적대적 대상에 미국을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또 다른 북한 관객의 관평은 이 질문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나는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를 보면서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미일제국주의는 결코 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인간이 비극적운명을 면치 못하며 민족이 망국노가 된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절통하게 느끼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범죄적인 《두개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에 의한 조선침략이 감행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세대는 수없이 바뀌었지만 혁명의 과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sup>10)</sup>

관객 안종두는 <혈분만국회>를 보면서, ‘오늘’과 관련지어 평을 한다. ‘오늘’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 잘 나타나있듯이 과거에 승냥이었던 미국은 현재에도 ‘승냥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화예술지도부 장국범의 관평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혈분만국회>가 시대와 역사의 진리를

9) 리대철,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자주성의 진리를 밝힌 불멸의 화폭-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4. 6.  
10) 평양제2사범대학 학부장 안종두, “(반향) 세대는 바뀌어도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예술」, 1984. 7.

깊이 밝혀주었다고 그는 상찬하면서 “오늘 남조선의 전두환사대매국역적은 피맺힌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우리의 공명정대한 3자회담제한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나라를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분렬에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던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은 또다시 미제의 군화밑에서 굴욕과 천대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한다.<sup>11)</sup> 그의 울분이 정당하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혈분만국화>가 의미 있는 이유는 현재 남북한/남미관계를 반영/폭로하기 때문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3인1당>에서도 이 같은 맥락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김동범에 의하면 이 작품은 “지난날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량반계층들속에서 우심했던 비렬한 사색당쟁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작품이다.<sup>12)</sup> 조선말기가 시대적 배경이지만, 이 작품은 결국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만이 북한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나라는 분결과 파쟁으로 얼룩졌던 비운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혁명의 고질적 암으로 되어오던 종파를 뿌리채 뽑아버릴수 있었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경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되어 오직 혁명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혁명연극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이 행복, 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여줄뿐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와 혁명투쟁의 력사에 대하여, 목숨보다 귀중한 단결의 전통에 대하여 깊이 알게 해주며 일군들에게 혁명적 의리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일하며 살도록 힘있게 고무해주고 있다.<sup>13)</sup>

홍국원은 과거 분열과 파쟁으로 얼룩진 역사가 현재 김일성에 의해서 단합되었으며, 김일성/김정일의 훌륭한 지도가 있었기에 북한은 하나의 길로 전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3인1당>은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연극의 자주성은 곧 현재와 연관되어 있는 ‘현재적 자주성’인 것이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1987)를 통해 자주성의 현재성을 다시 확인하기로 한다. 리대철은 이 작품을 “배우지 않고 아는체하다가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며 사람은 알아

11) 문화예술부 지도부 장국범,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조선예술』, 1984. 7.

12) “(좌담회)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지침으로 삼고 - 혁명연극 《3인1당》 창조성원들과 함께”, 『조선예술』, 1987. 11.

13) 홍국원, “(관평) 력사의 교훈으로 단결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명작 - 혁명연극 《3인1당》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7. 11.

야 자주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배움의 참된 진리를 밝혀”준다고 설명한다.<sup>14)</sup> 인간의 자주적 의식은 타고난 것인데, 이것은 오로지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만 그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제는 리대철의 관평과 같이 현재성을 담보한다. 교원 엄정희의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는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를 보고 실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현시대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나는 자라나는 세세대들에게 인류가달성한 과학과 기술을 배워줄 사명을 지닌 교원으로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을 첫째가는 의무로 내세울데 대한 당의 요구를 얼마나 깊이 관찰했는가를 돌이켜보게 된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나에게 이러한 량심적가책을 안겨주면서 나의 본신혁명과업인 후대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우선 자신의 실무능력부터 높여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한다.

그걸 때만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심어줄수 있을것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 관철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을 것이다.<sup>15)</sup>

교원 엄정희는 현시대(1980년대)를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시대로 보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에 ‘온 사회의 인테리화’ 방침을 세우면서 과학과 기술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딸에게서 온 편지>는 동시대의 ‘배워야 한다’는 교훈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높여나감으로써...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기 위하여 억세계 싸워”<sup>16)</sup>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 즉 ‘자주성’은 1980년대 북한의 선결과제/존재전략과 맞닿아 있는 현재적 자주성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의 조건이다. <혈분만국화>는 역사물의 일종으로 이 작품에 대한 「조선예술」(1984. 6)의 극찬은 그 위상을 충분히 대변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이 우수한 이유가 ‘독립운동가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4) 리대철, “특색있는 불멸의 예술적화폭 -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7. 8.

15)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엄정희, “(반향) 배움에 대한 참다운 교훈”, 「조선예술」, 1987. 8.

16) 장국범, 앞의 글.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정당하게도 리준의 사상적 및 계급적 제한성과 혁명 전통의 계선밖에 놓이는 선행한 시기의 독립운동의 약점을 격사적사실 그대로 해부 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혁명의 격사적뿌리이며 만년초석을 이루고있는 항일 혁명전통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느끼게하였다.<sup>17)</sup>

리대철은 <혈분만국회>가 우수한 작품인 이유가 독립운동가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영웅적인 주인공의 행동이나 독립운동가들의 뛰어난 책략이 아니라 약점의 노출이 우수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일성 주도의 항일운동의 위대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도의 항일운동 작품과(혁명전통물) 김일성 이전의 항일운동 작품은(일반 역사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일까? 리령은 이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준다.

...만일 일반역사물창작에서 과거의 어떤 격사적인물의 사상적제한성을 외면하고 그의 반일애국사상이나 불굴의 의지 등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그의 풍격을 마치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처럼 높여놓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될 때에는 일반역사물과 혁명전통물의 계선이 모호해질 뿐아니라 혁명전통에 수령의 혁명격사와 인연이 없는 것이 끼여들수있으며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는 엄중한 후과까지 가져올수 있다.<sup>18)</sup>

이같이 리령은 항일혁명 역사물과 일반 역사물을 확연히 구분한다. 동시에 그는 일반역사물에서 주인공의 능력과 풍격은 절대로 김일성과 동일선상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김일성이 등장하기 이전의 항일운동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작품은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 주도의 항일운동이 그 순결성/위대성을 훼손 받는다는 것이다. 리령은 연이어 같은 글에서 ‘리준의 사상적 제한성’이 오히려 ‘오직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투쟁할 때만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고 강조한다. 혁명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김일성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 아닌, 반드시 ‘결함’ 있는 인간이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의

17) 리대철, 앞의 글. 1984. 6.

18) 리령, “혁명전통물과의 계선을 똑바로 긋고 형상하는 것은 일반역사물창작의 근본요구”, 「조선예술」, 1984. 7.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같이 북한에서 혁명연극의 자주성이라는 주제는 ‘현재적 자주성’이며, 주인공은 김일성의 탁월한 지도력을 강조하기 위해 용감하고 애국적이면서 김일성보다 의식수준이 낮은, 한계가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2. 현실적/개성적/운문적 화술의 연기

북한은 주체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연에서의 민족적 정서/현대적 미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연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演技)’에서 이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 영상자료로 확인할 때 <혈분만국회>에서 전개되는 북한 배우의 연기는 부분적 과장은 있으나 비교적 현실적/사실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연기라는 다음 글이 흥미롭다. 작업 초반에 주인공 리준을 구축하면서 실수를 범했다는 리령의 글을 보기로 한다.

우리는 리준의 제한성을 외면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그의 사회활동과 용감한 애국적거사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서 그의 애국적인 성격일면만을 부각하는데로 형상을 집중시키려는 연출적인 의도를 세우고 그것을 배우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연출작업에서 생활속에 발을 붙인 주인공을 그린것이 아니라 애국문화계몽운동과 의병투쟁, 《헤그밀사사건》 등 사회적인 관계속에서만 주인공의 성격을 추구하려고 하였다.<sup>19)</sup>

연출가 리단은 작업 초반 리준의 인물구축에서 살아있는 인간보다는 ‘애국적인 성격’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였다고 고백한다. 즉 현실성이 결여된, 영웅적 일면이 극히 강조된 비현실적 인간으로 리준은 작업 초반에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리단의 반성과 같이 리준은 ‘진정한 국권회복의 길을 찾아 피타게 모색하고 몸부림치는 산 인간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나아가야 할 투쟁의 길을 확신하고 신심에 넘쳐 처음부터 살기등등하여 도도하게 돌아치는 인물’, 즉 현실감이 부족하여 공감 획득이 어려운 인물로 작업 초반 구축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 인물 구축이 ‘현대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주목된다. 다음 글을 보기로 한다.

문학예술작품이 역사적사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소화함이 없이 해당시기에서

19) 인민배우 리단, 「산 인간성격의 창조와 연출가의 자세」, 「조선예술」, 1984. 6.

의 그의 긍부정적측면을 정확히 고찰하면서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견지에서 분석평가하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그린다(20)

이같이 김정일은 현대성의 원칙이란 ‘인물이나 사건을 과장하지 않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인물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구현이 현대적 미감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 있음직한 인물이 전개하는 연기, 보다 구체적으로 과장되지 않는 화술과 움직임은 무엇일까. 현재의 시점에서 <혈분만국회>의 연기를 평하면 북한이 선전할 정도의 연기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0년 전인 1984년에 제작되었을 때, 주인공 리준의 화술을 상찬하는 다음의 글은 이해될 수 있다.

... 말형상에서 배우는 처음부터 타고난 기성인물의 위치에 선 도도한 인물의 말투로 형성한것이 아니라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울분과 설움으로 땅을 치며 통곡도 하고 하늘에다 대고 웨쳐도 보는 존재없는 우국지사로서의 말로 진실하게 형성하였다.

배우는 제1장 리준의 집장면에서 주인공의 첫등장의 대상형상을 아주 인상적으로 하였다...

술을 마시고 곤드레만드레 취해 부축을 받아 집에 온 리준은 자기를 질책하며 격적하는 안해에게 《...이 나라엔 대낮이란건 없소. 캄캄한 그믐밤 뿐이지》, 《내가 무슨 들부쳐요? 저 한강의 물이 다 술이래두 내 당번에 마셔버리겠소.》라고 말한다.

배우는 땅속까지 잦아질듯 척 늘어진 몸자세와 다 풀리고 김빠진 낮은 목소리바탕에 깊은 들숨을 몰아내쉬는 한숨소리와 함께 울분섞인 소리, 느린 속도의 억양으로 대사를 형성함으로써 막전 뒤생활과 그의 심리세계를 인상적으로 부각시켰다.21)

이글은 <혈분만국회> 이전의 연기와 이후의 연기를 알게 해주는 중요 자료이다. 북한 연극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우가 애국지사를 도도한 목소리/장중한 움직임 등으로 연기한 듯 보인다. 그런데 <혈분만국회>에서 주인공 리준은 우국지사라고 해서 기존과 같이 도도한 말투가 아니라, 평범한 한 남자로서 울분과 설움을 토해

20) 장영, 「력사물창작에서 인물의 전형화 문제-혁명연극 <혈분만국회> 를 중심으로-」, 『조선예술』, 1984. 9.

21) 조창중, “시대와 인물의 성격에 맞는 우수한 화술형상-혁명연극 <혈분만국회> 의 화술형상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4. 6.

내는 연기를 보여준다. 배우는 호흡을 이용하여 한숨소리/울분섞인 소리/느린 소리 등을 다채롭게 구사하여 사실적 화술을 발화한 것이다. 화술은 물론 움직임과 함께 가게 된다. 리준은 우국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늘어진 몸’으로 한 장면을 구축한다. 다채로운 화술과 움직임은 곧 인물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구축하는 기본일터, 몸동작을 확인하기로 한다.



〈사진 1〉

옆의 사진은 1장의 장면은 아니지만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 장면은 북한의 설명과 같이 “국권회복을 위한 모든 희망을 잃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다.<sup>22)</sup> 리준은 확실히 도도한 영웅적 모습으로가 아니라 땅에 비스듬히 주저앉는 등 현실성을 강조한다. 리준의 옆에 있는 두 인물 역시 리준을 향해 비스듬히 앉아있음으로 초점을 몰아주어, 전체적인 장면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화술로 입체감을 주는 연기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학교를 세우고 계몽운동을 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던 꿈이 허사로 되고 오성학교를 세울때 쪼던 빛을 꺾으려고 집을 판 그는 《리원용놈은 나라를 팔아먹는데 제집이야 못팔아먹겠소?》라고 안해에게 말한다...

이 대사는...높고도 큰소리바탕에 얹은 소리빛갈로 울리는 이 말소리는 빈정대며 야유하는듯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울사5적》들에 대한 증오와 비난의 감정을 옹게 나타내주고있다.<sup>23)</sup>

리준의 역을 맡은 배우 김용범은 아내와의 대화 장면에서도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소리빛갈’, 남한의 표현에 의하면 ‘음색’을 활용한다. 음색에 적합한 떨림(vibration)을 활용하는데, 화술에서 음조/떨림/볼륨의 활용은 연기의 기본인바, 배

22) 사진출처와 설명, 「조선예술」, 1984. 6.

23) 조창중, 앞의 글.



우 김용범 역시 이 같은 화술의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화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주인공에 한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서대감역을 맡은 한진섭 역시 다채로운 화술을 전개했다고 전한다. 연로한 한진섭은 “자신의 연로한 생리적 특성을 오히려 역인물의 성격에 맞게 통일”시키면서 “3장 서대감의 집장면에서 대청마루의 술상을 마주하고 술을 마시며 하는 대사 《너의 그 절묘한 가야금소리도 이 가슴속에 쌓인 시름을 가져주지 못하는구나》를 탁하게 갈린듯한 낮은 목소리바탕에 울음섞인 말투로, 왜놈에게 국권을 빼앗긴 울분을 상감마마의 처지를 동정하는 감정으로 형상함으로써 임금에게 《충성》 다하는 그의 계급적 본질을 잘 표현”하였다고 한다.<sup>24)</sup> 실상 연기에 대한 평가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영상으로 확인할 때, 이 장면에 대한 북한의 칭송은 다소 과장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진섭이 다채로운 소리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하며, 작품의 제작 시기를 고려할 때, ‘다채로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화술과 움직임은 곧 인물의 개성과 연관될 터, 개성적 인물구축은



〈사진 2〉

특히 <3인1당>에서 돋보인다.

옆의 사진은 <3인1당>의 한 장면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정승의 움직임은 현실적/사실적이라기보다는 ‘과장’된 움직임이다. 작품 자체가 풍자극이기에 연극적 과장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연극적 과장이 인물의 적합성에 맞추어 ‘개성 있게’ 구현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상으로도 개성 있는 인물

구축이 확인되는데, 다음 홍국원의 글은 북한 역시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혁명연극 《3인1당》에서 세 정승은 외형적 특징에서나 기질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들이다.

24) 조창중, 앞의 글.

박정승은 체구부터가 곰같이 우렁하게 생긴 것처럼 행동도 우둔하고 무지막지하다. 칼부림과 완력을 좋아하는 그는 언제나 그것으로 하여 희극적인 행동을 낳게 되며 그것 때문에 망하고만다.

문정승은 체구부터 박정승과 대조된다. 수수대처럼 키가 꺾두룩하고 강마른 것이 겉으로는 왕족계열의 가문이라고 점잔을 피우고 허세를 부리지만 속은 묵은 여우처럼 간교하고 생쥐처럼 약삭바르기가 그지없다.

그리고 최정승은 난쟁이처럼 키가 작은 것이 사냥개처럼 검질기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활성과 표독성으로 꽉 차있다.<sup>25)</sup>

박정승, 문정승, 최정승은 모두 권력을 탐하는 유형화된 인물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배우들은 인물이 유형화 되었다고 해서 인물을 천편일률적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구축하려 노력한 것이다. 작업 초반에 인물구축에서 “산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게발놀리듯하던 괴이한 손동작과 발동작같은 비진실한 행동들”이 있었으나, “일소함으로서 연극의 모든 형상요소들은 일정한 시대와 인간들의 생활을 현실감이 나게 보여”준 것이다.<sup>26)</sup> 공연에는 절대적인 ‘현실성/사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대에서는 상대적인 현실성/사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풍자극’이라는 일정한 양식 내에서의 ‘진실한 연기’는 그 양식의 현실감을 관객에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와 <3인1당>에서 배우는 근거 없는 과장을 피하여 개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연기를 전개했다는 북한의 자찬은 객관성을 획득한다. 북한의 현대적 미감이라는 문예담론은 현실적/개성적 화술과 움직임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주목할 것은 현실적/개성적 화술이 민족적 정서와 조우한다는 점이다.

제7장 호텔뒤마당정원에서 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조선미술들을 《만국평화회의》에 참가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인제야 조선의 앞날에 려명이 비껴오기 시작하누나.》라고 하는 대사를 보통 다른 연극의 대사의 억양과는 달리 시적인 운률에 태움으로써 주인공이 기뻐하는 심리와 함께 시대맛을 독특하게 들구었다.

《혜쳐갈 망망대해 천리련듯 아득하니

25) 홍국원, “(관평) 력사의 교훈으로 단결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명작-혁명연극 《3인1당》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7. 11.

26) “(좌담회)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지침으로 삼고-혁명연극 《3인1당》 창조성원들과의 좌담회”, 『조선예술』, 1987. 11.

가슴속엔 시름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네  
 돛을 달고 노저으며 어기영차 힘을 내니  
 찾아온 이 기슭엔 꽃향기만 불어오네》

여기에서 《헤쳐갈 망망대해》부터 《어기영차 힘을 내니》까지는 가락에 맞추어 읊어주었고 《찾아온》부터 《불어오네》까지는 노래처럼 읊어주었다...<sup>27)</sup>

조창중에 의하면 배우는 특정 대사를 전개할 때, 일상적 대화투의 화술을 벗어나 리듬을 타는 화술을 전개했다고 한다. 이 리듬으로 ‘시대맛을 독특하게 돋구었다’는 것이다. 위의 《 》 대사를 보면, 3/4조, 4/4조의 시조를 연상케 함을 알 수 있다. 대사 자체가 시조적 리듬으로 구사된 것이다. 실상 이 같은 현상은 민족적 정서를 강화할 때 극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해방이후 남한의 극작가 유치진 역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살리기 위해 <춘향전>의 대사에서 운문성을 수용한바 있다.<sup>28)</sup> 이 경우 대사에 맞추어 배우는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게 되는데, 조창중의 설명처럼 북한의 배우는 대사의 일부는 가락에 맞추어, 일부는 더 나가 노래처럼 읊는다. 그러나 북한이 설명하듯 다른 장면의 화술과 표나는 차이가 있다고 하기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리듬있는 장면/화술이 구현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배우들은 대사의 어미처리에서도 민족적 정서를 반영하려 애쓴 흔적이 포착된다. 조창중의 글을 다시 보기로 하자.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화술형상에서는 말의 끝맺음역양처리에서도 시대맛을 잘 보여주었다.

말의 맺음역양처리는 말의 뜻과 감정, 민족적정서를 나타내는데서 아주 중요하다. 맺음역양처리에서 시대맛을 더욱 돋굴수 있는것이다.

아무리 작가가 이전시대에 맞게 《한숨만 쉬시옵니까.》 《넘겨드립니다.》, 《하나이다》 등과 같은 맺음말로 대사를 써놓았다 해도 말소리에 역양을 살려붙이는 배우 화술형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듯 한다면 비록 옷은 옛날옷을 입었다 해도 말에서 그 시대맛을 생동하게 느낄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29)</sup>

이같이 조창중은 대사의 어미가 고어적으로 처리되었음을 강조한다. ‘-옵니까’,

27) 조창중, 앞의 글.

28) 「극예술」 5권, p.22.

29) 조창중, 앞의 글.

‘-옵니다’, ‘-하나이다’ 등으로 어미가 처리되어, 배우는 이 대사에 자연스럽게 고어적 억양을 붙였으며, 그것이 ‘민족적정서’를 나타내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사소해보이지만, 공연의 실제에서 어미의 처리는 배우의 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극배우 전무송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사극은 어떤 틀이 있다구...(중략)...‘그랬느니라’ 이런단 말이야. ‘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리듬을 타고 템포가 느려질 수밖에 없지. 풀어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동작까지도 말의 리듬과 템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sup>30)</sup>

남한 배우 전무송은 대사 자체가 사극의 어조로 쓰여져 있을 경우, 배우는 자연스럽게 사극적 어조를 구사하게 된다고 전한다. 물론 리듬과 템포도 이에 따라 재조절되는 것이다. 북한 배우 역시 예외일수는 없는 터, ‘-옵니까’, ‘-옵니다’, ‘-하나이다’ 등의 대사를 운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의 지침대로 공연의 형식, 특히 연기에서 민족성을 수용한 극명한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성은 배우들의 연기에서 현실적/개성적/운문적 화술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3. 조선화 기법의 무대와 민족적 의상/소도구

북한은 무대에서도 ‘주체’와 ‘민족적 미감’을 강조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에서 1978년 <성황당>이 창작되었을 때 특히 무대가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김정일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탁월성에 의해 무대자체가 이동하는 ‘흐름식 무대’를 구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북한에서 모든 무대는 <성황당>을 모범으로 ‘움직이고 흐르게’ 제작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1980년대의 혁명연극의 무대제작에서도 ‘움직이는’ 장치는 기본이 되었을 터, 본 장에서는 ‘움직이는 무대’ 이외에, 민족성과 관련하여 어떤 기법이 무대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딸에게서 온 편지>의 무대를 보기로 한다. 리대철은 이 작품의 무대가 1920년대 우리 농촌을 사실적으로 구현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서정적인 양상에 어울리게 1920년대 우리나라 농촌의 향토적인 분위기와 민족적정서를 짙게 그리고 있다.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가에 자리잡은 아늑한 산골, 등불이 반짝이는 소박한 초가집들, 거러기때 날아가는 산골정서, 비록 가난에 쪼들리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30) 전무송, 본 연구자와의 개인인터뷰, 2006. 11. 24. 화정동, 제노 커피숍.

마음, 흙냄새가 풍기는 농군들의 근면한 모습, 마을에서 울리는 야학생들의 창가소리, 이 모든 것은 당대 농촌현실의 진실한 형상이다.<sup>31)</sup>

리대철은 <딸에게서 온 편지>의 첫 장면에서 ‘민족적 정서’를 강조한다. 무대는 우리의 친근한 농촌의 형상들을 초가집, 강가에 자리 잡은 산골 등으로 표현한다. 우리 농촌의 형상과 민족적 정서는 일반적 수준에서도 연결고리를 갖는바, 보다 주목할 것은 북한이 무대제작에서 ‘조선화’ 기법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정의하는 ‘조선화 기법’이란 무엇일까? 성두원에 따르면, “모든 장면들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물들과 배경들이 선명하고 간결”한 기법이며, “부드럽고도 연하면서 명료한 색채”가 그 특성이라고 한다.<sup>32)</sup> 무대의 직접 확인이 필수적인데, 영상 자료를 통해 <딸에게서 온 편지>의 무대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다.



〈사진 3〉

북한의 국립극장은 대형 무대이며 프로시니엄 양식에 속한다. 무대 자체가 폭과 깊이가 충분하므로 대형 구조물이나 원근감을 주는데 유리한 무대인 것이다. 옆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대는 기본적으로 원근감을 주면서, 단을 세우는 등 입체감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무대 상수와 하수의 나무 자체가 중심을 향해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강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영상으로 보는 색상이기에 확신 할 수 없지만, 색감 자체는 갈색과 짙은 청록색을 섞은 듯 하며, 부분적으로 채도가 높아 선명함이 드러나고 한다. 성두원의 해석을 기억하면, 이 같은 기법이 조선화의 기법이며 민족성을 반영한 무대인 것이다. 또 다른 작품 <혈분만국회>의 무대를 보기로 하자. 성두원은 <혈분

31) 리대철, 앞의 글.

32) 성두원, “《피바다》 식무대미술의 우월성을 과시한 무대화폭-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무대미술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4. 6.

만국회>의 무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한다.

민족수난의 비극을 말해주듯 캄캄한 하늘에 먹장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광화문의 커다란 윤곽을 보이게 하고 그앞을 역사철사로 묵이운 애국투사들의 행렬이 일제놈들에게 끌리어가는 서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인공 리준의 집장면을 거쳐 조선식,西式, 양식이 뒤섞인 《태평관》 료정장면과 이사한 리준의 집, 그리고 기준이 안해와 리별하는 한강 나루터의 장면을 비롯하여 헤그의 호텔장면에 이르기까지 연극의 기본장면들과 사이장면들은 모두 리준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대상과 환경, 시가노가 조선을 현실그대로의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생활과 극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과정에 인물의 성격이 조형적으로 부각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극의 무대미술은 무대를 고착된 몇 개의 장면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인물들의 생활과 극의 흐름을 억지로 북돋움으로써 극조적을 억제할뿐아니라 인물들의 행동을 구속한 낡은 형식의 무대미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sup>33)</sup>

성두원은 <혈분만국회>의 무대가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을 극찬한다. 리준의 집, 태평관, 한강 나루터, 호텔 장면들에 관한 설명인데, 영상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무대장치와 사실성이 확인된다. 무대는 장소가 변함에 따라 사실성을 극대화하여 보는 재미와 감탄을 낳게 한다. 각 장면에 대한 사진을 다 열거하는 것은 좁은 지면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조선예술」에 실린 <혈분만국회>의 사진을 제시하기로 한다.



〈사진 4〉

33) 성두원, 앞의 글.



〈사진 5〉



〈사진 6〉

위의 사진은 순서대로 태평관, 호텔, 리준의 집이다. 기본적으로 무대는 웅장하며 사실적 재현에 애를 썼다. 성두원의 설명과 같이 ‘장치와 소도구를 실감있게 제작하고 공간구성에서 원근감이 나게 무대를 폭넓고 깊이있게 쓰고 있’으며 2장인 ‘서울 《태평관》 장면은 2층으로 구성하여 인물을 립체적으로 움직이게 하였으며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은 회의에 참가한 군중들의 움직임에 맞는 구도속에 웅장하고 실감 있게’ 보인다.<sup>34)</sup> 웅장함과 사실성은 분명하지만 조선화의 흔적/민족적 특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흥미로운 것은 북한은 이 무대에서도

34) 성두원, 앞의 글.

민족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 연극의 무대미술은 또한 의상, 공예, 건축등 민족미술의 우수한 형식들을 시대와 인물의 성격에 맞게 널리 리용함으로써 형상전반에 민족적 특성이 진하게 발양되었다. 특히 장치미술에서는 자연풍경과 사회상을 반영한 배경그림들과 건축구조물들을 무대물로 재현함에 있어서 민족미술의 좋은 특징들이 잘 부각되었다. 장치물 및 의상, 소도구들이 역사주의적원칙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현대성의 원칙에서 옹게 형성되었다.<sup>35)</sup>

북한의 관점에서 <혈분만국화>의 무대를 읽어보면, 민족성이란 무대 자체뿐 아니라, 소도구/의상/공예/건축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3인1당>의 무대미술 역시 민족성을 갖는 것은 ‘고도로 세부화, 공예화하여 무대장치물과 의상, 소도구들이 역사적 구체성과 생활적 진실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무대예술의 민족적 특성을 보다 진하게 살려’주었고,<sup>36)</sup> 왕궁장면 역시 ‘세공화된 건축 및 단청무늬, 정각과 담정들의 돌기와들, 립체화된 석등, 아름다리나무, 정승들의 흉패, 무사들의 투구와 칼에 새겨진 무늬와 수놓아진 공예품같은 정교한 소도구들은 무대미술의 민족적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sup>37)</sup>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무대미술에서의 민족성이란 ‘조선화기법’ 사용뿐 아니라, 장면의 분위기/소도구/의상의 고증적 제작인 것이다. 고증적 제작이 민족성이라면, 주의할 것은 북한이 의미하는 ‘민족성’이 반드시 ‘조선의’ 집/의상/소도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수룡의 글을 보기로 한다.

의상, 소도구형상에서는 다음으로 민족적특성도 옹게 살리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연극 《경축대회》에서 사이고는 어느때든 가보로 내려온다는 군도를 몸에서 떼놓지 않으며 장소에 고려없이 찍히면 칼을 뽑아들고 위세를 뽐낸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일제의 취약성과 각탈성, 칼부림을 즐기는 야마도민족의 야수적기질을 엿보게 되는것이다.<sup>38)</sup>

35) 성두원, 앞의 글.

36) “(좌담회)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지침으로 삼고-혁명연극 《3인1당》 창조성원들과의 좌담회”, 「조선예술」, 1987. 11.

37) 앞의 글.

38) 김수룡, “의상, 소도구에 비긴 시대의 특징과 민족적 특성”, 「조선예술」, 2008. 2.



김수룡은 의상/소도구에서 민족적 특성을 살릴 것을 강조하면서, <경축대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군도’를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렸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성’이란 조선적 특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다. 적어도 공연에서의 민족성이란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의상/소도구의 제작이 되는 것이다. 실상 이것은 민족성이라기보다는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김수룡 역시 같은 글에서 ‘의상, 소도구형상에서는 우선 당시 시대상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물건들에 새겨진 력사의 흔적들을 정확히 찾아내어 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어야만 인물을 시대의 전형으로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후 그는 ‘민족성’과 ‘시대상’을 혼합하여 글을 전개한다. 김수룡의 주장은 다소 초점이 모호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에서 민족성은 조선적 특성뿐 아니라 각 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무대/의상/소도구의 제작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통용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민족성과 공연의 무대는 조선화 기법의 무대장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의상/소도구의 제작으로 조우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 제4항 민족적 선율의 통속적/민요적 음악

북한은 공연에서 음악은 극중 인물의 심리상태를 외면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음악은 극 전반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서 관객의 정서를 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혈분만국회>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음악이 흐르는데, 북한은 이 점을 고평한다. 다음은 <혈분만국회>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다.

연극에서는 주제가 《조선어 말해다오》를 애국계몽운동이 탄압당하여 주인공이 빈민속에서 모대길때 울리게 하였으며 애국의 충정으로 불타는 주인공의 세계를 보이는 대목마다 그것을 관현악으로 여러번 반복하다가 배를 가르는 절정장면에서 더욱 승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대가 바뀌어져 흐름식으로 흘러갈 때마다 정서적다리의 역할을 하는 견결음악들을 사용함으로써 연극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예술적감흥력을 높여주고 있다. 39)

39) 리대철, “력사의 교훈을 통하여 자주의 진리를 밝힌 불멸의 화폭 -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4. 6.

이와 같이 북한은 주제를 설정해놓고, 그 주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주인공에게 해당되는 음악은 주인공의 변민이나 애국적 충정장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극성을 청각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음악의 사용은 풍자극 <3인1당>에서도 동일함이 발견된다. “제1장에서 도사의 초상을 보여줄 때 올리던 환상적 음악을 연극의 제2장에서 박정승과 그의 심복인 안사인이 가짜도사를 만들어낼 흥계를 꾸미는 장면에 다시 올려줌으로써 파쟁군들의 비렬한 음모를 적라라하게 폭로시키고있으며 연극의 제4장에서는 가짜도사를 통해 왕으로 임명받은 최정승의 집에서 올리던 음악을 박정승이 자기 지반을 확장하기 위하여 고을원들을 새롭게 파견할 때와 자기대문에 미치기까지 한 딸을 보여줄 때 또다시 울림으로써 왕위에 오르지 못한 그의 울분을 말없는 형상속에서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북한의 언급을 참고하면서 영상을 확인할 때,<sup>40)</sup> 음악의 반복적 사용은 모든 작품에서 일종의 문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북한은 “주제가의 다양한 반복을 통해서 감정축적과 극적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sup>41)</sup> 물론 음악은 인물의 성격을 청각화 하는데도 기여한다.

끝으로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 연출형상에서는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혀준 《성황당》식 혁명연극에 음악과 방창을 잘 살려씀으로써 극정황과 인물의 심리세계를 개방하는데 적극 안받침하고있으며 연극의 극적감흥과 서정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연극에서는 첫 시작부터 음악이 관중들에게 작품의 양상과 문제성을 정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1장에서 딸의 편지를 찢어 담배를 말아 피우는 장면의 방창과 달수가 동분서주하며 글동냥을 다니는 장면의 방창은 주인공의 행동선과 밀착되어 달수의 희극적인 성격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하게 도입되고 있다.

5장 마지막에 극이 해결되는 장면에서도 음악과 방창을 옹기 배합하면서 연출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 방창이 울리는 속에 인물들의 움직임과 함께 그들이 야학으로 가는 행걸로 무대는 변한다.<sup>42)</sup>

40) 본사기자 리종철, “(연출평) 주체적 연극연출체계의 위대한 생활력 - 혁명연극 《3인1당》의 연출형상을 두고-”, 「조선예술」, 1987. 11.

41) 김득청, “음악은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형상수단의 하나 -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음악에 관하여”, 「조선예술」, 1984. 6.

42) 리몽훈, “풍만한 시대상과 아담한 극적형상 -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 연출형상을 놓고-”, 「조선예술」, 1987. 9.

<딸에게서 온 편지>에서도 음악은 달수가 동분서주하는 장면에서 사용됨으로 그의 희극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음악이 인물의 성격/분위기/장면전환에 기여한다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모든 공연의 일반적 문법이다. 실상 남한 대중 장르의 대표격인 뮤지컬에서도 작곡가는 주요 인물의 주제를 설정함으로써, 음악이 인물의 성격을 뒷받침하게 해주고 있기에 이 같은 원리는 공연예술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민족적’이라는 용어와 북한의 음악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음악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 민족성을 강화한 것일까? <경축대회>에서 사용된 음악에 관한 다음 글은 주목을 요한다.

차학철 : 이 혁명연극의 독특한 양상은 연극음악을 만드는데서도 일련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주제가 서장과 중장에서 분리되므로 두 장면의 양상에 어울려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제가창작에 품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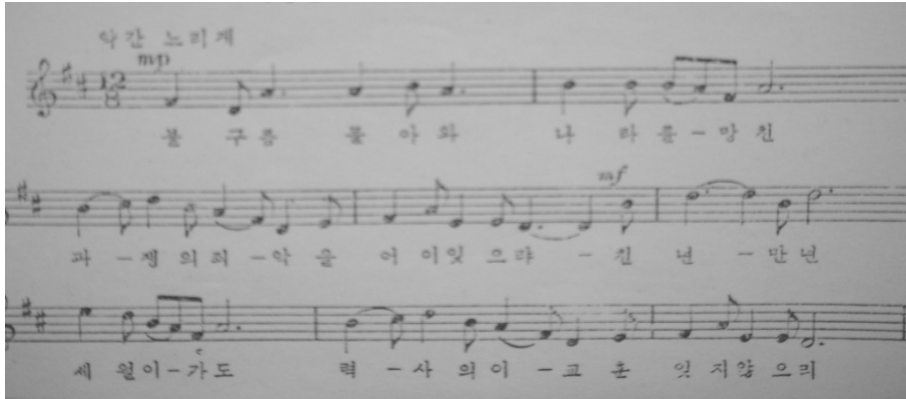
고심 끝에 우리는 민요 5음조식의 《상》 조식에 기초하여 각관적인 정서도 있고 해학적인 정서도 있는 민요적인 선율을 탐구함으로써 두 장면에 어울리는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sup>43)</sup>

이 글은 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기본방침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민요적 선율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그 분위기는 낙관적/해학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된 음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악보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경축대회>의 악보는 찾을 수 없지만, 다행히 <3인1당>의 악보가 발견되어 제시해보기로 한다.

#### <악보 1>

43) “(좌담회) 혁명연극 《경축대회》 창조자들과 함께”, 「조선예술」, 1988. 9.

이 악보는 <3인1당>에서 <룡상에만 올라타면 된단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작곡된 곡이다. 작곡가는 6/8박자로 ‘보통속도로 흥취나게’ 부를 것을 요구한다. 음악을 들으면 박자가 암시하듯 셈여림은 ‘강약약중간약약’으로 전개된다. 특히 악보상에서도 확인되듯이 “있건 없건 만들면 도사님이지”의 대목에서 음조는 친근한 민요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또 다른 부분의 음악을 보기로 한다.



#### 〈악보 2〉

이 악보 역시 <3인1당>에서 사용된 음악으로 <력사의 이 교훈 잊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작곡된 곡이다. 제목이 시사하듯 ‘미래의 다짐’을 전제로 하는 장중함이 그 특징인데 악보대로 시창하면서 노래를 들을 때, 어딘지 익숙한 느낌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익숙함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조금 방향을 돌려, 교예 분야에 사용되는 음악 선정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교예반주음악은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우고있는 통속적인 가요들을 교예에 맞게 편곡하여 명랑한 곡과 배합하여 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가요들을 교예예술의 특성에 맞게 편곡하여 교예반주음악으로 리옹하는 것은 우리의 교예음악의 인민성과 통속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교예예술을 참다운 인민적교예로,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교예로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sup>44)</sup>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있는 통속적인 가요들을 편곡할 것을 음악

44) “문학예술혁명과 빛나는 령도(12)-교예발전에서의 혁명적전환”, 『조선예술』, 1985. 1.

의 방침으로 지시했다. 물론 음악에서 민요는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편곡되어 인민의 미감에 맞도록 창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침은 곧 연극에도 통용되어야 했을 것이다. 즉, 연극에서 음악은 일반 대중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부르는 ‘통속적인 가요’, 또는 민요적 리듬을 편곡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실상 관객은 이 음악을 듣고 민족적 정서를 느낄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신세대 관객에게 이 음악이 ‘조선적 민족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공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기분을 민족적 선율의 ‘통속성’과 ‘민요적 리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제3절 소결론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 공연예술계의 창작원리는 김정일이 발표한 1986년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7년의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1989년의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주체철학, 조선의 사람에게 조선음악/조선화/조선춤을 보여줄 것,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문화를 장려할 것,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것을 강조했다. 이 담론은 물론 곧 연극계에 수용된다.

연극계는 ‘주체사상’과 ‘민족성’의 결합을 최대과제로 안으면서 공연의 내용과 양식에서 변화를 보였다. 1980년대 중반 완성된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3인 1당>, <딸에게서 온 편지>, <경축대회>는 희곡의 주제/소재로 ‘자주성’을 중심에 놓았다. 이 ‘자주성’은 동시대와 연관된 ‘현재적 자주성’이어야 했다. 북한에서 연극은 기본적으로 동시대의 인민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이 주제를 구현하는 주인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함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항일투쟁을 하는 애국지사라고 해도 김일성이 등장하기 이전의 애국지사는 사상의 한계가 있어야 김일성의 업적이 ‘순결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수령형상에 대한 북한의 강렬한 의지는 희곡에서 ‘한계있는/결함있는’ 인물의 구축을 독려한 것이다.

연기(演技)에서는 ‘민족성’의 담론을 수용하며 현실적/개성적/운문적 화술이 전

개되었다. 김정일은 반복하여 ‘민족성을 고수하되 현대의 미감’에 맞을 것을 요구했고, 현대적 미감은 곧 현실적/사실적 연기로 수렴된 것이다. 연기는 불필요하게 과장되지 않아야 했고, 이는 곧 개성 있는 인물구축으로 이어졌다. 배우들은 호흡을 이용하여 한숨소리/울분섞인 소리 등의 사실적 화술을 발화했고, 이에 맞추어 움직임 역시 다양해졌다. 음식과 음량의 다양성이 인물의 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외 배우들은 대사의 어미처리에 민족성을 극대화하여 적용한다. 대사 자체가 시조적 리듬으로 구사되었고, 이에 따라 운율적인 화술전개를 실현한 것이다. 영상자료로 확인할 때, 연기에 있어서 북한 배우들의 자질은 확실히 인정된다.

무대와 음악 역시 ‘민족성’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무대배경은 ‘선명/간결’과 ‘부드럽고 명료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화 기법을 적용하여 제작되었고, 장치/의상/소도구 등은 민족성과 시대상을 반영하여 구현되었다. 음악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통속적 음악을 편곡하여 사용했으며, 전체적인 리듬에서는 민요를 차용하였다. 쉬운 언어와 반복되는 리듬은 친근감과 익숙함으로 대중들의 무의식과 접촉하여 북한이 의도한 주제의 전달에 기여했을 것이다.

북한의 창작 형식이 민족의 정서에 부합하는지, 공연 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조선화 기법의 그림과 민요 편곡의 음악 등은 우리의 전통에 부합할 수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성과와 별도로 전통을 수용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우리민족의 정서를 공연에서 수용하려 한 점은, 물론 ‘체제수호’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었지만 서구의 문예사조에 간혹 이유 없이 휩쓸리는 남한의 공연예술계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 연극에서는 확실히 다양성이 돋보인다. 1970년대부터 강조된 조선화 기법과 흐름식 무대가 북한의 연극을 일정부분 획일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또한 김일성의 이상화를 위해 연극의 등장인물을 반드시 ‘결함 있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침 역시 ‘인물의 고정화’를 유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요 작품의 무대배경이 각기 다르고 등장인물의 배경 자체가 다양함으로써 이 같은 약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애국지사, 민족주의자, 평범한 농부 등 다양한 주인공은 연극 자체를 다채롭게 장식하는 일등 공신이었던 것이다. 1980년대의 북한 연극은 확실히 ‘한계를 안은 다양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 제3장 ‘감성’과 ‘선군(先軍)’의 결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 제1절 문예담론의 풍경: 군(軍)과 인민(人民)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은 사망했다. 외부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붕괴, 내부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듬해 첫날인 1995년 1월 1일 ‘다박살 초소’를 방문한다. 이 행보는 상징 이상일 터, 북한은 김정일의 단독 통치시기를 ‘선군혁명노선과 선군정치·사상으로 이끌어가는 선군시대’로 규정했다. 1998년 이후 정치에 대한 북한의 담론은 ‘군(軍)’을 우선으로 하는 ‘선군정치’로 수렴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예술계에는 어떤 새로운 담론이 수립되었을까?

‘선군’과 문학예술계의 접합이 쉽게 짐작되는데, 아쉬운 것은 1995년 이후 문학예술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 관련 글이 2편 정도만 발견된다는 점이다.<sup>45)</sup> 김정일이 단독 통치에 들어서면서, 문학예술계에 대한 직접적 지도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편의 글 중 다음 1996년의 글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될 북한 문학예술계의 방향을 잘 말해준다.

작가, 예술가들은 정세의 요구, 당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이 맥박치는 시와 소설, 영화와 미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작가, 예술인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각관을 안겨 주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sup>46)</sup>

북한에서 ‘작가/예술가들이 당의 요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지침은 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주목할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당의 강조점이 ‘선군’으로 모아

45) 1990년대 이후 『김정일 선집』에서 찾을 수 있는 문학예술에 관련된 글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 4. 26., 「김정일선집(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 6. 19., 「김정일선집(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 16.)가 있다.

46) 김정일,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 4. 26. 「김정일선집(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

졌다는 점이다. 1998년 10월 중앙방송은 김정일의 새로운 통치를 ‘선군혁명로선’, ‘선군령도’, ‘선군정치’로 개념화했다. 그렇다면 작가와 예술가들은 당의 요구, 즉 ‘선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학예술에서 ‘선군정신’을 구현해야 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은 이 같은 짐작을 확신으로 전환시켜준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 6년 세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소리높이 노래하였으며... 현명한 령도와 각별한 믿음속에서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에 적극 이바지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련이어 써낼수 있었다...장편소설 《열망》, 《백금산》, 《기관사》, 《백설경》, 연극 《소원》, 《오늘을 추억하리》를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가.

참으로 지난 6년기간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양식을 준 1만 5,000편의 작품들에는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한치 헛눈을 팔지 않고 시대와 조국과 숨결을 같이 해온 우리 시인, 작가들의 피타는 노력과 열정이 깃들여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위대하기에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더욱 개화발전할것이다.<sup>47)</sup>

2000년 방철림은 지난 6년간(1995~2000) 문학예술인들이 김정일의 선군혁명지도의 위대함을 찬양했으며, ‘선군 정치’에 이바지 하는 작품들을 연이어 창작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 소설, 연극 작품을 일일이 언급하며 6년 동안 창작된 1만5천편의 작품을 분명 ‘선군혁명문학’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2000년에 들어서 ‘선군’이 문학의 소재이자 주제로 자리를 점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sup>48)</sup> 이 흐름은

47) 본사기자 방철림, “위인의 손길 아래 빛나는 선군혁명문학”, 「천리마」, 2000. 11. p.71.

48) 방형찬은 ‘선군혁명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군혁명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 선 문학이다.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직접적이며 집중적인 발현으로 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기초로 하고있는 문학이며 혁명적군인정신이 충만된 문학이다...선군혁명문학이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또한 자주적인 인간전형창조에서 제기되는 주체사실주의의 미학적요구를 가장 원숙하게 구현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주체사실주의의 높은 단계에 올라 선 선군혁명문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영원히 자기 운명을 맡기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인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의 체현자로 형성한다...선군혁명문학은 집단주의적생명관과 체현자들을 형상의 중심에 세웠을뿐 아니라 그 형상화과정에서도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였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선군혁명문학은 환경과 성격과의 호상관계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인간성격창조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여기서 환경을 지배하고 개척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며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새생활을 창조하여 나간다는 의미이다.” (론설) 방형찬, “선군혁명문학은 주체사실주의 문학발전의 높은 단계이다”, 「조선문학」, 2003, 3.



문학뿐 아니라 예술계에 그대로 옮겨졌을 것이다. 2002년 12월에 조선중앙방송이 ‘선군혁명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2003년 「로동신문」(1.23)이 김일성 주석의 영상을 주제로 창작된 작품을 ‘수령영생미술’이라 지칭하고 “선군시대 주체미술의 최고 정화”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선군혁명미술’의 하나로 분류한 점, ‘선군문학예술’이라는 용어가 2003년 1월 「조선예술」에서 명백히 사용된 점은 이를 충분히 입증한다.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기로 한다.

선군문학예술작품창작은 선군시대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무엇보다 백두산3대장군의 불세출의 위인상과 우리 혁명의 격사적인 년대기들마다에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경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 우리가 가는 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이 앞당겨 진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각관주의를 안겨 주는 작품, 총대중시의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사상, 우리 정치체제는 보다 굳건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덕 없다는 정신을 가지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경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며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목숨 바쳐 지켜 나가도록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경도밑에 시대의 걸작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주체문학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극부분에서는 혁명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를 비롯한 20여편의 연극작품들을 창작형상하여 전국연극축전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올해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기 앞에 나선 창작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험한 진필길을 걷는 정신, 불타는 각동강을 건너던 정신으로 혁명적창작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sup>49)</sup>

이 같이 ‘선군’은 문학예술의 지침으로 확고히 자리를 점한 것이다. 2개월 후인 2003년 3월에 「조선예술」이 ‘선군영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선군영화를 ‘우리 당의 총대철학, 인민군 군인들의 생활을 기본으로 그린 영화,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운

49) (론설) 학사 송학성, “전승 50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선군문학예술작품창작성과로 빛내이자”, 「조선예술」, 2003. 1.

영화'로 정의한 점, 2003년 5월과 6월 「조선예술」이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생동하게 반영한 군사물 주제 무용, 특히 수령결사옹위 정신 주제의 무용을 더 많이 창작할 것'을 촉구한 점, 2003년 10월 25일 「문학신문」이 '아동영화도 어린이들을 선군사상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무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은 이를 다시 한 번 입증한다.<sup>50)</sup> '선군(先軍)'은 예술 창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군'과 맞물려 장려된 창작 형식은 존재했을까? 다음 김정일의 지도는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에 주목을 요한다.

당의 의도는 곧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입니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 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가치 있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습니다. 당의 의도를 모르고 창작한 예술작품은 혁명과 건설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sup>51)</sup>

김정일은 작가/예술가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할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바와 연결시킨다. 창작인은 창작형식에 있어서 '인민'의 요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다. 인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식은 곧 '민속문화/민족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민속문화는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에서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올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기본 조건이다. 이 글을 발표한 이듬해인 1997년에 민속문화와 인민을 연결시킨 김정일의 견해는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 나가려는 것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된 요구이며 지향이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인민은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녀이 짓밟히고 무시 당하는 것을 좋아 할 인민이란 있을수 없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조선민족

50) 오양열, "김정일 시대 북한 문예정책의 변화 양상과 향후 전망", 「예술경영연구」, 2008 제 13집, pp.11-12.

51) 김정일,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학예술부문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 4. 26., 「김정일선집(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 20.

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넋과 정기를 빛내어 나가도록 하는것을 민족성을 살려 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본고리로 보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sup>52)</sup>

김정일은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인민들의 공통된 요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합당하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남조선 사회의 양풍왜풍’에 맞서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민속문화를 포함한 민족문화 전통 되살리기 운동과 전통예술 및 계몽기 문학예술의 복원과 진흥을 크게 강조한 것,<sup>53)</sup>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 사상 제일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언어/풍습/생활양식 등 사회생활 전 분야에서 민족성의 구현을 촉구한 것은<sup>54)</sup> 새삼스럽지 않다. 선군시대 창작형식의 기본원리 역시 ‘민족성’과 ‘인민의 미감’인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따른 창작 형식이라면 ‘전통적 음악’, ‘조선화 기법의 무대’등이 연상되는데, 이 양식만이 구현되었다는 판단은 잠시 유보하기로 한다. ‘민족적 형식’에 대한 강조는 선군이전 시기인 1980년대에 비해 다소 약화된 듯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민’이 쉽게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창작 형식이 장려된 것으로만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절의 주요 연구대상 작품은 1990년대 경희극 <약속>, <축복>, <편지>, <동지>와 2000년대의 경희극 <웃으며 가자>, <계승자들>, <철령>, <생명>이다.

## 제2절 공연물에서의 ‘웃음’, ‘감동’, ‘군인정신’

### 1. 투지와 인간애를 겸비한 군인/제대군인의 주인공

조선예술이 1994년 9월호와 10월호를, 11월호와 12월호를 한데 묶어 출판한 것은 김일성의 사망이 94년 후반부터 최소 95년 초반까지 북한 예술계를 애도에 묻히게 했음을 잘 말해준다. 흥미로운 것은 긴 공백을 깨고 나온 국립연극단의 작품이 경희극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사전적 의미로 경희극은 “희극의 한 형태이

52)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 6. 19, 「김정일선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 20.

53) 박영정, 「북한 문화예술 현황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31.

54) 오양열, 앞의 글, p.16.

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고 부정적인 형상들을 가벼운 웃음을 통하여 비판개조하는 것이 특징”이다.<sup>55)</sup> 수령 사망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연극단의 첫 공연이 ‘희극의 한 형태’라는 것은 뜻밖일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최선이었을 것이다.

「조선중앙년감」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성과작으로 경희극 <약속>(1996), <축복>(1997), <편지>(1998), <동지>(1999)를 꼽는다. 그런데 이 작품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재미있다. 북한은 경희극 <약속>에 대해 “주체 84(1995)년 2월 5일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병사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신 실재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생동하게”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한다.<sup>56)</sup> 작품의 배경은 ‘여성해안포중대’이며, 주인공과 조연은 ‘병사들/군인들’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행복해’하는 군인이다. 이 양상은 <축복>에서도 발견된다. <축복>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90년대 조선의 기적을 창조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즐거움도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자아내는 특색있는” 극으로 “인민군군인들이 지니고 있는 백절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 명랑하고 낙천적인 군인생활을 보여 주면서 최고사령관과 군인들과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관계가 혁명적군인정신을 낳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 있다.<sup>57)</sup> 무대 배경은 ‘안변청년발전소’이지만, 등장인물은 역시 ‘인민군 군인들’이며, 그들은 낙천적 군인정신으로 생활 하는 것이다. 작품 <편지>와 <동지>를 연이어 보기로 한다.

- ...경희극 <편지>는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영농전투에 떨쳐나섰던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심오하고도 풍부한 사상에술적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과업이라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군인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과 우리 군대가 지니고있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sup>58)</sup>

- 경희극 <동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혁명경도의 손길 아래 전군에 차 넘치는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전통적인 미풍을 실제하고도 구체적인 생활속에

55)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p.182.

56) 「조선중앙년감」, 1997.

57) 「조선중앙년감」, 1998.

58) 「조선중앙년감」, 1999.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군대가 백전백승의 기상을 긍지높이 과시하고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해주고 있다. 극은 인민군대안에서 관병일치의 미풍을 더욱 활짝 꽃 피워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주인공이 자기의 첫 사단장사업을 설봉초소의 병사들속에 들어가 전사생활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sup>59)</sup>

1980년대 북한 성과작의 주인공이 <혈분만국회>에서는 1920년대의 독립투사, <3인1당>에서는 파벌싸움을 일삼는 민족주의자, <딸에게서 온 편지>에서는 평범한 농민 등 비교적 다양했던 것에 비하면, 선군정치 이후 연극의 주인공은 4작품에서 모두 ‘군인’으로 획일화 된 것이다. 그들은 한결 같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으며, 특히 <동지>의 주인공은 ‘각이한 성격의 병사들과 함께 병사생활을 하면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동지>의 주인공은 ‘부모 없이 남의 집에 홀로 두고 온 누이동생생각을 하면서 남몰래 속을 쓰고 있는 신입병사의 마음속 고충’도 헤아리고, ‘어릴 적부터 영예군인인 아버지의 삼륜차를 밀어주며 한생 군복을 입고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다하리라고 맹세도 컸던 상급병사의 속마음도 다 헤아려보며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따듯이 돌보아준다.’ 이에 따라 ‘병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탓에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문을 열지 못했던 소대장, 분대장도 자신들을 심각히 뉘우친다. 선군시대 주인공은 군인정신과 인간애를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물론 이 작품을 ‘친히 보아주시’었고, 이 경희극에 대해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심원한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한 만점짜리 작품이라고 최상의 평가를’ 내렸다. 1990년대 후반에 창작된 4작품의 공통점은 이 같이 군인/제대군인이 주인공이며, 그들 모두는 명량하고 따뜻한 품성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군인정신은 동료를 헤아리는 ‘감동적’ 품성으로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에 창작된 작품의 주인공은 어떤 모습일까? 북한은 2000년대의 성과작으로 <웃으며 가자>(2000), <계승자들>(2003), <철령>(2003), <생명>(2005)을 언급한다. 경희극 <웃으며 가자>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가는 길 험난해도 모든 난관을 웃으며 헤쳐 나가는 인민군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sup>60)</sup> 주인공은 1990년대의 작품처럼 군인들이며, 더 나가

59) 「조선중앙년감」, 2000.

주연급 인물들은 ‘군인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한편 <철령>의 주인공은 박두칠인데 “주인공 박두칠을 비롯한 인민들과 철무대대군인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눈사태에 막혀버린 철령을 넘는 과정을” 통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불철주야로 새겨가신 전선시찰의 자욱자욱이 얼마나 시련에 찬 험로역경이었는가 하는것을 눈물겹게 추억”하면서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확신”하는 작품이다.<sup>61)</sup> <계승자들>의 주인공은 설봄순으로 그는 돌격대 대대의 여성정치지도원이다. 이 작품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갈 충성의 열정안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인 백두관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한 돌격대부부와 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을” 주제로 한다.<sup>62)</sup>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설봄순은 ‘혁명의 성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국보로 꾸려갈 꿈을 안고 달려온’ 인물인 것이다. 이같이 2000년대에 성과작으로 손꼽히는 4작품 중 3작품의 주인공 모두가 군인/군인가족이며, 그들 모두는 부드러운 마음과 주체조선을 세운다는 꿈을 안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작품인 <생명>(2005)의 주인공 역시 군인/군인가족일까?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조한 경희극 《생명》은 집단주의는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이라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면서 이것을 떠나서는 개인의 운명도 사회주의의 운명도 지켜낼 수 없다는것과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극은 특별한 극적 정황도, 충격적인 사건이나 부정인물도 없이 보통때 평범한 어느 한 마을에서 한 병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이다.<sup>63)</sup>

작품은 짐작되듯 개인과 사회주의의 운명은 오로지 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제로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 역시 ‘한 병사’, 즉 군인임은 변함이 없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창작된 4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모두가 ‘군인’인 것이다. ‘선군’의 담론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성과작으로 손꼽히는 9편의 작품 모두에서 ‘개척정신의 군인’ 주인공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주인공이 ‘군인’인 것은 확연해진 터, 이 인물의 공통점은 존재할까?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경희극 <약속>의 작가 박호일이 자신이 창작한 주요인물에 대해

60) 「조선중앙년감」, 2001.

61) 「조선중앙년감」, 2004.

62) 「조선중앙년감」, 2004.

63) 「조선중앙년감」, 2006.

설명한 글이다.

맹병도로인이 자칭 <해설 및 통제 책임자>가 되어 사람들의 질서도 잡고 해설하여 돌려보내는 일도 맡아안는다... 여기에 휴가중에 있는 ... 배동팔청년이 자진 말라되며 또한 30여년간 홀로 사는 <과부치군 쉽지 않은 과부>인 견학단식당주방장 오복녀 여인이 합세한다. 그리하여... 맹병도는 <위원장>으로, 오복녀는 <부위원장>으로, 배동팔이는 <서기장>으로 <직무>를 받는다. 바로 이 세 인물이 이 경희극의 웃음을 안고있는 희극적인 인물로 된다...

작품의 중심에는... 입술이 부르트면서 애쓰는 중대장 진옥이와 정치지도원 오월이 그리고 녀성군인들이 서있다...<sup>64)</sup>

박호일이 <약속>에서 창작한 주요 인물은 진옥이/오월이 등이다. 이 여성 군인은 김정일이 지시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입술이 부르트면서도 애쓰는 투지의 인물이다. 그들은 평양을 견학하는 날에도 주어진 일에 매진하는 것이다. <축복>의 주인공 역시 유사해 보인다. “주인공 철명(대대장)은...상부의 조치로 꼭 휴가를 가야할 정황에 봉착하자...자기 녀동생을 애인으로 가장하여 작업현장으로 데리고...제일 어려운 작업장만 찾아다니며 작업을 계속”하며, 철명과 그의 동료들은 “갱이 무너져...죽음을 경각에 둔 시각에도 조금도주저하지 않고...갱막장을 향해 작업을 계속”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압축공기관이 열리자 밥대신 압축공기를 보내 달라고 하면서 잠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다.<sup>65)</sup> 주인공은 목숨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극단적인 인물인 것이다. <편지>의 주인공 연대장 역시 가족보다도 임무를 단연 우선시 한다. 그는 “사랑하는 딸이 수술을 받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동요함이 없이 혁명임무를 먼저 생각하고 전투지휘를 계속 해나가며...모내기를 끝내고”,<sup>66)</sup> <계승자들>의 주인공 설봄순의 남편은 “중앙지휘부에서 일하다가 공사중에 부상을 입고 돌격대에서 제대되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간것이 아니라 안해와 함께 백두관건설에서 청춘을 빛내일것을 결심한다.”<sup>67)</sup>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투철한 군인정신과 개척정신의 소유자라는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을

64) 박호일, “(창작수기) 새롭고 특색있는 경희극을 창작하기까지”, 『조선예술』, 1997. 1.

65) 조맹덕, “(관평) 즐거운 웃음도 있고 감동의 눈물도 있는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 『조선예술』, 1997. 7.

66) 안광일, “(평론) 우리의 위대한 현실을 격조높이 구가한 만점짜리 연극: 경희극 <편지>에 대하여”, 『조선예술』, 1998. 6.

67) 『조선중앙년감』, 2004.

것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강인함뿐 아니라 따뜻한 성품과 희극성을 소유한다는 점이다. <편지>의 조연인 병도, 복녀, 동팔이는 주인공을 돕기 위해 “두주먹을 부르쥐고 뛰어다닌다는 것이 오히려 본의아니게 휘방만 놓게”<sup>68)</sup> 되며, <축복>의 조연인 군인의 아내들은 “비록 녀성들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나 척척 맡아 책임으로 수행”하는 인물로 “부모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가 아니라 전우들이 일하는 작업 현장으로 달려와 시와 노래로써 전우들을 고무추동하는 아름다운” 소행을, “나이 많은 총각군인들과 일하는 과정에 서로 정이 들고 친숙해지는 기특한” 소행을, “오빠를 도와 공사장에 달려왔다가 두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의 영원한 방조자가 되는 장한” 모습을 보여준다.<sup>69)</sup>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불굴의 의지와 따뜻한 애정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편지>의 연대장 역시 “관리위원장이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사연을 알고 자기의 일처럼 가슴아파하며...” 김정일에게 올릴 충성의 편지를 함께 마련하자고 뜨겁게 고무해준다. <웃으며 가자>에서 “대대장의 안해인 주인공 박보금을 비롯한 군관의 안해들은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통하여 전후시기보다 더 어려운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노래를 부르며 웃으며 헤치는 혁명적락관으로 군대와 인민을 불러 일으키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구분대군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속에 공연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sup>70)</sup> 다 하며 동료들을 격려한다.

실상 이 같은 주인공은 지나치게 완벽하여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주어진 임무에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항상 동료를 배려하고, 동료의 사적인 생활도 염려하며, 모든 시련과 난관을 낭만적으로 극복하는 인물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 이상적 인물이 아닌, 이상화된 인물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의 정책이 우선하는 북한 연극에서 현실과 비현실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선군’의 담론은 연극의 주인공을 모두 ‘군인’으로, 이 군인들을 ‘투지’와 ‘인간애’를 겸비한 인물로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68) 박호일, “(창작수기) 새롭고 특색있는 경희극을 창작하기까지”, 『조선예술』, 1997. 1.

69) 조맹덕, 앞의 글.

70) 『조선중앙년감』, 2001.



## 2. 진지함/희극성/유모어가 결합된 연기

북한은 ‘선군’ 연극 작품이 중요한 이유로 “군인들과 우리 인민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 즉 덕성이야기를 작품의 중심에 세우고 극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작품의 극적건인력과 인식교양적기능을 보다 높인 것”을 들고 있다.<sup>71)</sup> 북한이 연극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지만 연극에서 ‘연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선군담론과 연기는 어떻게 접합되었을까? ‘투철한 정신’이 구현되어야 하기에 ‘진지함’이 기본인 것은 쉽게 짐작된다. 다음은 선군 이전과 선군시대 경희극 연기에 대한 차이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글이다.

지난 시기 경희극의 주인공들은 주로 사고와 행동, 의도와 실천에서 불일치를 안고 있는 인물로 형성되어 왔고 경희극의 생명이라고 할수도 있는 웃음의 색깔에서 해학적인 색채가 기본으로 되어 왔다.

따라서 지난 시기 경희극창작에서는 덕성형상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선군혁명시기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에서는 덕성형상이 작품의 중추를 이루고 그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형상이 전개되고 있다...<sup>72)</sup>

장명철은 지난 시기 경희극은 ‘웃음’과 ‘해학’이 연기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지함이 다소 퇴색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선군혁명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은 ‘덕성선’, 즉 김정일의 지도와 그를 따르는 인물들의 진지함이 작품의 기초라는 것이다. 물론 연기도 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할 터, 확실히 선군 시대의 연기는 이전에 비해 ‘진지함’이 강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희극 《약속》에서는 인물들의 기본사상정신적지향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관시키고 있다’는 장명철의 평가는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그런데 그는 연이어 경희극 <축복>에서 ‘로총각군인들의 장가가는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를 비롯하여 경희극적인 성격과 생활이 풍만하게 그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즉 ‘진지함’과 동일하게 희극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순영 역시 <편지>와 <동지>의 우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71) 장명철, “덕성형상창조에서의 새로운 발전-선군혁명명도시기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을 놓고-”, 『조선예술』, 2001. 12.

72) 장명철, 앞의 글.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되어 선군시대의 명작들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희극 《편지》, 《동지》 등의 작품들은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경희극 작품의 특성에 맞게 밝고 해학적인 명랑한 정서적색채로 양상을 잘 살려 나감으로써 예술적형상의 진실성을 더욱 높이고 경희극 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 주었다.<sup>73)</sup>

경희극 <편지>와 <동지>가 사회주의의 현실적 주제를 잘 담으면서 ‘해학적’이고 ‘명랑한’ 정서로 극을 전개해나갔다는 고평이다. 그렇다면 희극적 연기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된 연기일까? 영화와 달리 ‘순간’의 예술인 연극에서 무형예술인 ‘연기’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북한 연극에서의 ‘연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의 한계로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 남아 있는 희곡, 연기비평, 시청각 자료를 교차 분석한다면, 경희극 연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어려움일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편지>에 대한 명일식의 글에서 단서를 얻기로 한다.

경희극 <편지>가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시대정신과 국민일치의 사상에 대한 의의깊은 문제를 정극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거기에서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정극적인 생활과 의극적인 생활을 잘 조화시켜 경희극적 밝은 양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경희극에서 기본 희극적인 생활은 생산지도원 허풍기의 성격에 있다.

허풍기는 우리 농촌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부정적현상들인 허풍과 형식주의를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뚝 제일인것처럼 생각하고있는 희극적성격의 체현자이다.<sup>74)</sup>

희극성은 극중 인물에서 도드라진다. <편지>에서 허풍기는 대표적인 희극적 인물로 구현된듯이 보인다. 희곡을 통해 허풍기의 대사를 살펴보면, 조금 더 연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다행히 <편지>의 희곡이 「조선예술」에서 발견된다. 허풍기는 농장생산지도원으로 허로인의 동생이며, 허미옥의 아버지로 희곡에서 비교적 가벼운 인물로 그려진다. 간혹 농장의 쌀알을 훔쳐두었다가 자신이 필요한 것과 바꾸기도 하는데, 형인 허로인에게 혼나는 장면을 보기로 한다.

73) 김순영, “예술적형상의 진실성과 그를 살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 2003. 1.

74) 명일식, “(평론) 높은 시대정신과 국민일치사상을 훌륭히 보여준 시대의 명작: 경희극 《편지》에 대하여”, 「조선예술」, 1998. 8.

허로인 : 웬지, 너 농장날알을 깔구앉아있다가 바꿈질하는 그 버릇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풍기 : 무슨 말을 그렇게 하슈? 그 쌀을 내가 혼자 먹자구 깔구앉아있소? 다 농정을 위한 것이지...형님은 제발 젊은 사람들일에 뼈치각질하지 말고 로병분조일이나 착실히 하시라구요.

허로인 : 뭐가 어찌?

풍기 : 아, 오죽 농사 때문에 속을 썩었으면 몇 대 안남았던 이 머리털까지 다 빠졌겠소.

허로인 : 오냐, 너 그래서 젊은 아이가 재수없게스리 가을뻘대가 났구나. 가을뻘대 가.(손바닥으로 풍기의 뻘대머리를 짹짹 때린다.)<sup>75)</sup>

허풍기는 외형상 ‘대머리’로 설정된 듯이 보이며, 형인 허로인에게 지지 않고 말대답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인물의 움직임은 진지한 인물에 비해 빠르며, 화술의 템포 역시 빠르다. 희극적 인물들에게 공통된 양상인 것이다. 연기의 희극성은 대사뿐 아니라 인물의 외모와 제스처어/화술의 리듬에서 발생되었다고 하겠다. 희극성은 허풍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풍기의 딸인 허미옥과 순호와의 애정장면을 보기로 한다.

순호: (바싹 다가서며) 미옥이...내가...내가...좋지?

미옥: 응...오늘은 정말 고와... (순호의 옷을 살살 털어준다)

순호: 아...이거...(너무 좋아서 어쩔줄 모르다가) 미옥이!...(허며 와락 그러안는다는것이 그만 허공중을 그러안는다.)

미옥: (허리를 굽히며 장화를 바로 신다가) 왜 그래요?<sup>76)</sup>

이 장면은 코메디 장르 등을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희극적 장면이다. 순호는 미옥을 안으려고 큰 마음을 먹고 안는데, 하필 그때 미옥은 장화를 바로신기 위해서 몸을 굽히게 되고 순호는 그만 허공을 끌어안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순호의 얼굴표정과 손/몸동작은 ‘당황함’과 ‘무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충분히 계획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배우가 “풍부한 상상력과 함께 그 상상속에서 환기되는 감정변화상태를 눈빛과 얼굴근육, 손동작과 몸동작 등으로 신축성 있으면서도 뚜렷하게

75) 「조선예술」, 1999. 9.

76) 「조선예술」, 1999. 9.

보여 주도록” 하며, “자신 앞에 여러가지 정황에 따르는 물음을 제시하면서 연기형상을 숙련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up>77)</sup> 이러한 연기양상은 <철령>에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된다. <철령>에서도 희극적 인물인 허농달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경희극 《철령》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뿐아니라 희극적인물인 허농달의 형상도 특색있게 펼쳐보이고 있다...

경희극에서는 서로가 초면으로 철령에서 만나게 됨으로써 오해도 착각도 쉽게 발생할수 있는 생활적전제를 주었으며 서로 다른 성격들의 접촉인것으로 하여 성격적충돌을 가져오고 웃음을 낳게 하였다. 즉 지배인으로 사업한 전직관념으로부터 저도 모르게 《책임자》로 활동하려고 하는 주인공 박두철의 성격과 반죽 좋은 천성을 가진 허농달의 성격에 접잡지 못한 남자를 질색하는 어금희의 드센 성격은 도무지 어울릴수 없어 충돌을 가져오며 시종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sup>78)</sup>

<철령>의 허농달은 <편지>의 허풍기와 같이 가벼운 성격이며, 필요할 때 요령을 부리는 인물이다. 이 같은 인물은 극을 경쾌하게 이끌고 나가는데 기여한다. 또한 <철령>에서는 허농달뿐 아니라 박두철, 어금희에 의해 웃음이 유도되기도 한다. 다행히 <철령>에 대한 영상자료가 남아있어 보다 구체적인 장면과 연기분석이 가능하다.



〈사진 7〉



〈사진 8〉



〈사진 9〉

77) 김영옥, “연기훈련에 효과있는 줄거리 연기습작”, 『조선예술』, 2002. 3.

78) 안옥희, “참신한 인간성격의 탐구와 인물관계조직-경희극 《철령》을 보고-”, 『조선예술』, 2003. 8.

위의 왼쪽 사진은 ‘박두칠’역을 맡은 인민 배우 장유성이며, 가운데는 ‘허농달’의 역을 맡은 공훈배우 리성일, 오른쪽은 ‘어금희’역을 맡은 ‘백영희’이다. 배우의 외적 조건을 보아도 박두칠에게는 진지함과 신중함이, 체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마른 허농달에게는 가볍고 빠른 체스츄어가, 어금희에게는 부드러우면서 강함이 느껴진다. 이미지 캐스팅인 것이다.



〈사진 10〉

왼쪽 사진은 군인들이 인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라고 허농달에게 맡긴 빵을 허농달이 중간에서 빼돌렸다고 박두칠이 혼을 내는 장면이다. 물론 허농달은 그 빵을 빼돌리지 않고 중학생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장해야 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처사인 것이다. 이 장면은 특히 앞에서 언급한 <편지>

에서 허풍기가 형인 허노인에게 혼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사진을 통해 허농달의 몸을 보면 상당한 유연함이 발견된다. 안정적인 다리자세와 적당히 관객을 향해 튼 1/4 포지션은 배우의 노련함을 잘 말해준다. 영상을 통해 이 장면에서 전개된 허농달의 화술을 들어보면, 배우가 삼가야 할 조작된 ‘조(調)’는 들리지 않는다. 일부 여배우들은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화술을 전개하지만, 이 현상은 일부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어금희’역의 배우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조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류영진, 한철호, 길혜성이 이 작품에 대해 배우가 “인물의 성격과 생활에 맞게 대사형상을 창조하여 박두칠의 성격적특징을 옹계 살려내”었고, “대사형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성격과 정황에 맞는 말투와 말숨씨를 독특하게 잘 살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획득한다.<sup>79)</sup> 연기의 희극성은 빠른템포와 화술, 유연한 몸동작으로 극대화된 것이다.

또한 <편지>와 동일하게 <철령>에서도 두 연인의 사랑 장면이 희극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다음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남자의 리액션(reaction)이다.

79) 류영진, 한철호, 길혜성, “인물의 성격적특징을 부가시킨 인상깊은 명연기”, 「조선예술」, 2003. 12.



〈사진 11〉

남자는 여자의 사랑고백을 받은 후, 마치 가슴에 총알을 맞은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 사랑하는 여자의 사랑고백이 남자에게 이 같은 행복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후 여자는 남자에게 다가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남자는 심장에 충격을 받았다고 대응한다.

심장이 오른쪽에 있냐는 여자의 물음에 남자는 다소 무안해 하고, 이후 둘은 행복한 웃음으로 장면을 마무리한다. 눈보라가 치는 철령을 넘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연인 장면은 관객에게 긴장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알을 맞은 듯한 몸놀림이 필수적인 이 장면에서 영상으로 확인된 배우의 움직임은 상당한 훈련을 거친 듯 부드럽고 절제감이 있다. 배우가 자신이 서 있는 한 지점을 벗어나지 않으며, 좁게 설정한 반경에서 몸을 상하좌우로 꺾으며 움직여 사랑의 충격과 보는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관객은 배우의 몸짓을 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이 장면의 희극성을 향유하게 된다.

희극성은 물론 몸놀림만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진지한 인물인 박두칠 역시 웃음을 유도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몸놀림이 아닌 대사 자체에 의해서이다. 김철용은 이를 ‘유모아’라고 분명히 표현한다.

경희극 《철령》의 주인공 박두칠의 성격에서 특색있는것은 그것이 유모아적인 요소가 체현된 성격이라는것이다...

주인공 박두칠의 성격에서 유모아적인 요소는 초면의 녀성인 어금희에게 《바싹 바싹 다가드는》 세부, 계덕준이가 처녀에게 먹인것이 술인가를 확인하려고 맛을 보다가 그것이 오미자단물이라는것을 알아차리고도 마지막까지 다 마셔버리는 세부, 자기 아들별이나 되는 허농달을 동갑이처럼 대해주는 세부, 철령을 넘는 과정에 젊은 사람들조차 지쳐 주저앉을 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뽀뽀기동작까지 해보이면서 사람들 고무해주는 세부 등에서 표현된다...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속에 유모아적인 요소를 체현시키고 그것이 정극적인것과 함께 성격의 한 측면을 이루게 한것은 주인공이 새로운 경희극적성격의 인물로 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sup>80)</sup>

박두철은 비교적 진지한 인물인데, 그의 대사에서 ‘유모아적인 요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지나치게 바짝 다가서는 제스츄어, 술이 오미자인 것을 알면서도 다 마시는 모습,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뿔뿔기 동작을 해보이는 장면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특별한 제스츄어라기 보다는 상황과 맞물려 인물 자체가 만들어낸 웃음인 것이다. 이 같이 공연에서 희극성이 강화된 것은 물론 선군담론을 무대 위에 구현할 때 자칫 굳어질 수 있는 공연의 분위기를 이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와 공연은 별개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선군의 담론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연극의 연기에서 진지함/희극성/유모어를 강화시켰으며, 배우들의 슬랩스틱과 몸 동작을 부각시킨 것이다.

### 3. 조선화 기법과 영상화면 도입의 무대

2003년에는 선군작품으로 분류되는 경희극 이외에도 <승리의 기치따라>와 <조국 산천에 안개개인다> 등의 작품이 공연되었다.<sup>81)</sup> 이 작품은 이전에 공연된 작품으로, <철령>과 <계승자들>이 초연된 해에 재공연된 것이다.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의 영상자료는 발견할 수 없지만, 안성룡의 기록을 참고하면 대규모의 무대 장치가 감지된다. 예를 들어 연극 제2장 1경의 무대는 “아득히 뻗어간 산발을 배경으로 무대랴쪽에 드림장치에 의한 무성한 수림, 그 천고의 밀림속에 아담하게 세워진 사령부귀틀집, 뒤무대와 앞무대를 넓게 조성한 공간에 놓여진 몇 개의 바위와 붓나무, 통나무를 베여만든 걸상들 그리고 멀리 하늘가엔 기러기떼가 날”고, “어둠이 깃들자 밀영의 밤하늘가에 유평한 달빛이 흐”르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sup>82)</sup> 무성한 수림, 아담한 사령부 집, 바위와 붓나무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이다. 영상자료는 없지만, 다행히 공연사진은 남아있어 무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는 있다.

80) 김철룡, 리상혁, 김형준, “명작에 비긴 새롭고 특색있는 성격들”, 『조선예술』, 2004. 8.

81) 『조선중앙년감』, 2004.

82) 안성룡, “혁명연극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의 무대미술이 거둔 성과”, 『조선예술』, 2004. 3.



〈사진 12〉



〈사진 13〉

위의 두 사진은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의 무대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무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조선화 기법으로 그려졌음이 확인된다. 원근감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살렸으며, 부드러움이 조선화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 북한의 설명을 수용한다면, 곡선적으로 처리한 조선화 기법이 눈에 들어온다. 조선화 기법은 여전히 무대제작의 기본원리임이 분명 확인된다. 또한 “흐름식무대전환은 인물들이 투쟁하고 생활하는 환경 그리고 정황을 극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옮김으로써 생활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극적감흥의 지속성을 보장” 하였다는 안성룡의 언급을 보면, 이 무대는 움직이는 무대임이 확실해진다. 선군 이전시기의 공연과 같이 조선화 기법과 이동식 무대는 선군 시대 공연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대형영사’의 활용을 강조하는 다음 글이다.

특히 서정에서는 1930년대의 시대적환경을 말해주듯 대형영사로 배경막에 무겁게 드리운 검은 구름이 흘러가게 하고 동시에 중경으로는 광풍이 세차게 움직이는 나무들과 안개를 환등으로 펼쳐주고 그 다음은 계속 흐르는 먹구름을 뚫고 비쳐지는 붉은 서광과 함께 혁명연극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의 제명이 밝게 솟아오르도록 하였다. …연극은 또한 무대전환을 생활의 흐름, 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에 맞게 흐름식으로 잘 펼쳐보이고있다.<sup>83)</sup>

83) 안성룡, “혁명연극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의 무대미술이 거둔 성과”, 『조선예술』, 2004. 3.



이같이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의 무대디자이너는 서장에서 대형영사로 검은 구름이 흘러가게 하였으며, 중간막을 활용하여 광풍이 불어 나무들이 휘청거리는 모습과 안개를 영사로 처리하였다. 실상 북한은 서장에서 장엄함을 극도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 같은 서장의 무대처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선군 시대에 공연된 작품들의 서장 이후 장면이다. 먼저 1997년 공연된 <축복>을 보기로 한다. <축복>에는 ‘봉락된 갯에 갇힌 상태에서 살 길을 찾아 봉락된 구간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전에 그어준 화살표방향으로 물길 굴공사를 다그쳐 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sup>84)</sup> 역동적인 장면이 예상되지만, 무대 위에서 물길 공사를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의문이다. 영상이 도입될 가능성이 큰데, 다음의 글은 이에 대한 답을 준다.

결사전에 나선 군인들의 군상속에 세차게 내뿜는 석수와 갯안에 차넘치는 물, 육박의 총창마냥 통나무를 비껴 들고 물구멍을 향해 달리는 군인들의 모습과 떼목우에서 척암기를 틀어 잡고 발파구멍을 뚫는 군인들 그리고 물속에서 어깨로 떼를 받치는 군인들의 모습을 실사화면으로 영사하도록 하였다.<sup>85)</sup>

갯안에 차 넘치는 물, 통나무를 들고 달리는 군인들의 모습, 물속에서 어깨로 떼를 받치는 모습 등은 무대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무엇보다 무대에서 물을 쓰는 것은 공연 후 무대바닥을 훼손하기에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무대 위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처리한 것이다. 현존을 전제로 하는 연극에 영상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무대와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상의 도입으로 북한이 현실적 분위기를 강조하려 한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된다. 다음은 이듬해인 1998년에 공연된 <편지>에 관한 글이다.

이밖에도 농촌의 풍요한 가을전경을 영사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군민일치사상의 위력과 정당성을 보다 뚜렷이 시각화해 준 경희극 《편지》의 마검장면형상을 비롯하여 선군혁명시기에 창작된 많은 경희극작품들에서는 영사화면을 효과 있게 리용

84) 장명철, “영사화면의 효과적인 리용-선군시대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을 놓고-”, 『조선예술』, 2002. 4.

85) 장명철, 앞의 글.

하여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보다 현실감이 나면서도 두드러지게 형상하고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명백히 격점 찍으면서도 극적견인력을 더욱 높일수 있었다.<sup>86)</sup>

이같이 장명철은 경희극 <편지>의 마감장면에서도 영상을 이용하여 농촌의 풍요한 가을 풍경을 보여주었다고 분명히 전한다. 특히 장명철은 ‘선군혁명시기에 대부분의 경희극 작품들이 영사화면을 효과있게 이용’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편지>의 희곡에서도 희곡 자체에 영상의 활용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에, 그의 글은 객관성을 획득한다. 작가는 지문을 통해 영상의 활용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지문은 다소 길지만 <편지>의 영상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에, 모두 인용해보기로 한다.

모두: 결사전어로 나아간다. 김정일장군님의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 철석이와 옥심을 선두로 하나로 굳게 뭉쳐진 군대와 인민의 대집단이 붉은 화광속에 진격하는 모습의 군상으로 굳어진다.

△ 영사막이 내려온다.(화면)

천리만길 덮쳐드는 파도, 파도...

우리 혁명의 보루를 무너뜨리려고 기승을 부리며 달려드는 원썩들처럼 격강을 일으키며 덤벼드는 파도와 태풍은 우리의 도로며 다리, 전주대를 덮치며 길길이 광란한다. 그러나 한몸이 그대로 사회주의조국의 방파제가 되어 불사신처럼 일떠선 군대와 인민의 힘은 당할수 없는 것이다.

방파제에 어깨를 들이밀고 결사의 전투를 벌리는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모습의 화면으로 흘러간다. 이상의 화면우에 울리는 철석의 목소리...

△ 《아-》 방창이 터진다. 절벽을 들부시려고 덤벼들었다가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는 파도, 파도...드디어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황금의 배바다가 화면을 덮는다.

△ 영사막이 오른다.<sup>87)</sup>

공연 이전에 희곡 자체가 영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의 글을 면밀히 살펴보면, 배우들은 붉은 조명속에 ‘정지(stop motion)’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법은 연극에서 현존하는 배우와 영상을 연결시키는 일반적 방식이다. <편지> 역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정지된 배우를 배경으로 영상을 들어오게 한 것이다.

86) 장명철, 앞의 글.

87) 「조선예술」, 1999. 9.

결사적인 인민과 군인의 모습, 거친 파도는 극성을 높여주었을 것이다. 북한은 경희극 <동지>에서도 ‘영사화면을 효과 있게 리용함으로써 주인공들의 성격과 생활을 보다 진실하고 감명 깊게’ 그렸다고 자랑하며, 이 작품에서 ‘사랑하는 전사들을 찾아...치렬한 격전이 방금 끝난 최전연초소에 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감격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영사화면으로’ 보여주었다고 한다.

경희극 《동지》의 창조자들은 영사화면을 통하여 매 인물의 구체적인 얼굴표정과 감정색채를 두드러지면서도 섬세하게 파고 들으로써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 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매혹된 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를 폭 넓고도 깊이 있게 밝혀 낼수 있었고 장면의 감정흐름을 최대로 높여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강조할수 있었다.<sup>88)</sup>

1990년대 후반에 창작된 작품 <축복>, <편지>, <동지>에서 연출가는 영상을 통해 무대 위에 구현되기 어려운 장면을 처리하고, 더 나가 배우의 얼굴표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보다 섬세한 인물의 정서를 관객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북한의 자찬과 같이 인물 크로즈업은 극적 흥분을 더욱 높여주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2000년대 연극작품의 영상은 자료가 발견되기에 영상의 도입을 보다 명료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2005년에 창작된 <철령>의 공연 첫 장면이다.



〈사진 14〉



〈사진 15〉

위의 사진은 <철령>의 첫 장면이다. 물론 영상으로 처리되는데, ‘철령’이라는 글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며, 옆으로 세워졌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정면을 향한다.

88) 장명철, 앞의 글.

이로써 ‘상승’이라는 기호를 던지며 극의 장엄함과 주제를 암시하게 되는 것이다. 시청각을 활용하여 관객의 무의식에 기호를 심어주는 연극의 한 특징을 잘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어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지는데, 이 역시 영상의 화려함이 돋보인다. 첫 배우가 등장하기까지를 연이어 보기로 한다.



〈사진 16〉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여배우가 등장하여 첫 대사인 ‘철령에 눈사태가 났어요!’라고 외치기 전까지 무대는 조명과 더불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조명은 원근감을 주면서 푸른색으로 전반적인 긴장감을 창출한다. 흐름식 무대를 강조했던 1980년대에 비해 무대는 고정된 상태에서 영상의 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을 보아도 무대가 움직이는 장면은 잘 포착되지 않는다. 1980년대 북한은 공연에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무대가 움직이며 배경을 변화시킨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표나게 강조한바 있다. 김정일이 고안한, 북한의 공연에만 있는 ‘흐름식 입체무대’인 것이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흐름식 입체무대’의 장점은 압전이 없는 것이며, 그로써 관객의 감정을 끊지 않는 독특한 무대라는 것이다. 그런데 선군시대 작품의 무대는, 적어도 <철령>에서의 무대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면이 바뀌는 장면에서

무대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다음 두 장면의 무대를 자세히 보기로 한다.



〈사진 20〉



〈사진 21〉

위의 사진은 극 중간 정도의 한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한 장면이다. 무대를 자세히 보면 무대 상수와 하수의 나무들이 동일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색상으로 변화를 준 것이며, 중간 막을 이용하여 나무가 더 들어오고 나가게 하여 변화를 준 것이다. 무대바닥을 보아도, 기본 구조는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흐름식 무대미술’, 즉 이동하는 무대보다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이 거듭 확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철령>에서 뿐만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의 경희극부터 점점 더 강화된 것이 확인된다. 이 양상은 영상에 대한 북한만의 새로운 관심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면서 제작비 절감을 위해 영상의 활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원인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영상의 활용이 선군시대 작품들의 새로운 특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는 점이다.

#### 4. 민족적 선율/슈프레히콜 방식의 노래, 민족적/역동적 춤

선군의 연극에서도 민족성은 여전히 중요한 형상원리의 하나이다. 특히 음악에서 민족적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은 1980년대 이후부터 선군시대까지 동일하게 강조된다. 명일식은 극예술이 사용해야 할 바람직한 음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극에서 가사의 운율성과 서정성을 잘 살리자면 가사를 절가의 요구에 맞게 정형시로 써야 한다. ... 가사를 일정한 운율적인 규칙과 규범에 맞게 정형시로 쓰게 되면 시와 곡이 잘 밀착되어 가사의 사상/적내용과 풍부한 정서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것이다.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인 가사의 높은 형상성을 보장하자면 부르기 쉽고 알기 쉬운 통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사를 통속적으로 쓰려면 인물들의 사상감정을 꾸밈이 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를 통속적으로 알기 쉽게 쓰려면 한문투의 까다로운 말들을 피하고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들을 잘 다듬어 써야 한다.<sup>89)</sup>

명일식의 주장과 같이 북한에서 민족성을 위해 창작되어야 할 될 가사의 핵심은 정형시의 형태, 운율의 내포, 쉬운 언어이다. 압축하면 쉬운/소박한 언어와 정형적 운율이다. 이 원칙이 곧 선군시대의 연극에 적용되었음을 다음 <동지>의 가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시옥 : (노래를 부른다)

89) 명일식, “가극의 기본형상수단과 그 구현”, 『조선예술』, 2003. 3.

비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찬서리 내린다 해도  
 시남, 시옥 :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말아  
 아버지가 ... (울먹이며) 계신단다.  
 △ 노래는 군인들의 합창으로 변한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 - 아버지 -90)

등장인물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당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이 명쾌히 드러난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의 3/4/5 음절이 그 다음 가사인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주신다’와 ‘김정일 장군님의 우리 아버지’에 정확히 반복된다. 또한 노래의 가사는 일상적 언어로 구사되어 있고, 단순하여 기억하기 쉽게 계획되어 있다. <철령>에서는 이 같은 양상이 극대화된다.



〈사진 22〉



〈사진 23〉

이 사진은 공연도중에 여배우가 나와서 먼저 노래를 하고, 등장인물이 다같이 노래하는 장면이다. 노래는 흥겹게 ‘아리-랑’이 반복된다. 후렴처럼 모든 배우들이 ‘아리-랑’을 반복하며 민요적 선율로 작곡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이다. 배우의 몸동작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노소 모두가 팔을 들고 민속적 춤을 추고 있다. 선군 시대에도 연극에 민속적/민요적 음악이 구현되었음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민속적/민요적 음악 이외에 다른 방식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편지>의

90) 「조선예술」, 1999. 10.

희곡은 그 단서를 제공하기에 주목을 요한다.

△ 《아-》 방창이 터지며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진다.

군민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격조높이 강독한다.

철석 :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이시여!

옥심 :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는 농장벌에서.

둘이 :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사단장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하루,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농업전선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군민을 경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옥심 : 진정 지난해의 농업전투는 / 장군님 사상의 만풍년이고

장군님 경도의 만풍년이며 / 장군님 군민일치의 만풍년입니다.

철석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최후승리를 위한 이 강행군길에 / 장군님 앞에도

모두 :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군인1 : 우리 인민군대는 전군이 오늘의

《오중홉7련대》가 되어

달려드는 천만대적도 우리가 치고

조국건설의 가장 어려운 전선도

모두 : 우리가 맡겠습니다.

풍기 : 경애하는 장군님!

저희들은 지난해의 농업전투를 통하여

인민이 군대의 모습을 닮게 해주신

장군님의 높은 뜻 심장에 새기고

경영위원장 : 사상을 지켜도

모두 : 군대들처럼

경영위원장 :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 / 기어이 두벌농사를 지어

올해에는 반드시 온 나라에 / 만풍년을 안아오겠습니다.

사단장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이 땅, 이 하늘 아래에

김정일식사회주의의 성공함을

모두 : 보란 듯이 쌓고야말겠습니다!<sup>91)</sup>



희곡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면에서의 가사는 통속적이고 일정한 운율을 유지한다. 그런데 작가는 분명 ‘랑독’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낭독’이란 정확히 말하면, ‘노래’는 아닌 것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슈프레히콜<sup>92)</sup> 양식의 합창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등장인물 한명이 먼저 선창을 하고, 그 다음 두 사람 정도가 같이 중창을 하고, 또 다시 독창과 중창, 독창과 합창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슈프레히콜은 해방 이후 좌익 연극에서 간혹 사용했던 방식으로 북한에서는 낯선 양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 이상의 자료는 발견할 수 없기에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박영정의 견해와 같이 <편지>에서 노래의 형식을 갖춘 슈프레히콜 형식의 합창이 구현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sup>93)</sup>

노래는 자연 춤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터, 선군시대 춤에 대한 북한의 지침도 있었을까? 다행히 다음의 글이 발견된다.

조선춤은 발동작을 비롯하여 하체를 많이 쓰며 빠르게 돌아가는 서유립춤과 다리 팔놀림을 위주로 하면서 서정적으로 추는 것이 특징이다.

알맞춤한 속도와 유순한 흐름을 가지면서도 근기있고 함축성있는 다리굴신, 휘감거나 뿌리치는 다양한 팔놀림으로 우아한 포물선을 그어나가는 것이 조선춤의 독특한 모습이며 매력이다.

조선춤은 크고작은 동작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고 하나의 팔동작에도 율동이 어깨로부터 손끝까지 흘러 부위별동작들이 동경나지 않으며 조형적인 움직임과 자리길이 주로 곡선을 취함으로써 전반율동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맛을 가진다. 이와 함께 상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동작에서 무리하거나 고이는데가 없고 춤이 순간 정지된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율동호흡으로 움직이는 감을 주는 《정중동》(멈춤속에 움직임이 있다는 뜻)의 맛을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어깨를 으쓱으쓱하거나 발을 들썩들썩하면서 동실동실 돌아가는 것도 조선춤에서만 볼수 있는 건드러진 멋과 흥취이다...<sup>94)</sup>

91) 「조선예술」, 1999. 9.

92) 우리 나라에서 “슈프레히콜은 <카프>연극부에서 1932년부터 제기되어 실천된 공연방법론이다. ‘슈프레히콜’이란 무대장치나 의상없이 여러 등장인물들이 창작된 시를 간단한 제스처를 곁들여 돌아가며 낭독하는 형식을 말한다. 슈프레히콜(Sprechcor)은 독일어의 ‘말하다’(sprechen)와 ‘합창’(chor)의 합성어로 독일 노동자연극의 중요한 양식이다...일본에 처음 소개된 것은 일본 <좌익극장>의 제22회 공연(1931. 12. 31~1932. 1. 20)에 선보인 것이다. 이것을 본 신고송은 슈프레히콜 형식을 우리 나라에 도입하고자 소개했다.”, 최민아, “신고송 연극론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pp.26-27.

93) 박영정, “북한 경희극의 형성과 발전”, 「북한 연극/희곡의 분석과 전망」, 연극과 인간, 2007.

이 글은 북한이 이해하는 조선적/민족적 춤 개념에 대한 중요 자료이다. 박정순에 의하면 민족적 춤이란 팔놀림을 주로 하는 것, 포물선을 그리며 나가는 것, 곡선을 취하는 것 등이다. <편지>의 제3장 첫 장면은 지문에 의해 “음악속에 막이 오르면: 대단원을 이룬 군민이 흥성거리는 속에 남성군인들과 농장원처녀들이 한 데 어울려 씩씩한 춤마당을 펼치고” 있으며 “박수와 환호 속에 춤이 끝난다”<sup>95)</sup>고 설명된다. 이 지문을 보면, 경희극에서 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이외에 <편지>의 춤에 대한 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0년대의 작품은 <철령>의 영상자료로 직접 춤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움직이는 장면을 포착하였기에 선명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사진을 연보기로 한다.



〈사진 24〉



〈사진 25〉

사진에서 확인되듯이 이 춤은 사진 22)/사진 23)의 춤과는 사뭇 다르다. 사진 22)/사진 23)의 춤이 비정형적으로 무용에 대한 비전문가들에 의해 추어진 춤이라면, 사진 24)/사진 25)는 분명 디자인 된 춤이며, 몸짓에서 안무자들이 전문 무용수임이 확인된다. 무용수들은 팔을 많이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무용동작이 조선적인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팔놀림’과 ‘곡선’을 조선적인 것이라 규정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연극에서 위와 같은 모습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반드시 ‘곡선’만이 무용동작에 수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사진을 보기로 한다.

남자 무용수들과 여자 무용수들이 혼성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장면은 상당한 속도감을 보여준다. 군복을 입은 남자 무용수들은 발을 높이 들므로써 박진감과 역동성이 전체적 분위기를 지배한다. 남자 무용수의

94) 박정순, “춤형상에서 민족적정서를 살리기 위한 요구”, 『조선예술』, 2008. 6.

95) 『조선예술』, 1999. 9.



주위를 여무용수들은 속도감 있게 돌아가며 회전에서 비롯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부드럽고 곡선적이어야 할 무용에서 이 같은 변주는 어째서일까? 박정순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 〈사진 26〉

무용배우들은 춤동작을 하나 하여도 선군시대의 기백이 넘치고 민족적정서가 진하게 풍기게 하여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는 참다운 춤형상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sup>96)</sup>

박정순은 춤에서 민족적 정서가 진하게 풍기면서 동시에 ‘선군시대의 기백’이 넘쳐나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선군’은 연극의 춤에서 ‘역동성/빠름/속도감’을 추가시켰다고 하겠다.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민족성은 물론 그대로 유지된다. 음악의 선율은 민요적이어야 하고, 가사는 운율이 맞아야 하며, 춤에서도 부드러움과 소박함이 묻어 나와야 한다. 그 위에 선군담론은 슈프레히콜 합창과 강렬한 군무를 추가한 것이다.

### 제3절 소결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문학예술계를 지배하는 담론은 ‘선군’이었다. 김정일이 단독통치시기에 발표한 1996년의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와 1997년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는 창작의 원리를 방향 지워주었다. 이 지침은 1998년 10월 중앙방송에 의해 ‘선군정치’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문학예술계는 스스로를 ‘선군혁명문학’, ‘선군혁명음악’, ‘선군혁명미술’, ‘선군영화’로 지칭한다. 선군이 문학예술계의 새로운 주제이자 소재로 부각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중반부터 강조해왔던 ‘민족성’ 역시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여전히 문학예술계의 주요한 창작원리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선군’은 물론 연극 작품에 직접적으로 수용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96) 박정순, 앞의 글.

까지의 성과작으로 꼽히는 <약속>, <축복>, <편지>, <동지>, <웃으며가자>, <계승자들>, <철령>, <생명>의 주인공 모두는 군인/군인가족으로 고정되었다. 물론 이들은 투지와 인간애를 겸비한 인물들이다.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이상화된 인물이기에 실상 현실감이 부족하며 인물로서의 매력도 감소된다. 1980년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물이 등장했던 것에 비한다면 인물에서의 ‘획일화’는 확실하다고 하겠다.

주목되는 것은 획일화된 인물이 전개하는 연기는 유연하다는 점이다. 주연인물은 비교적 무게감 있는 연기를 전개하지만, 주연 인물 역시 부분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제스처와 화술을 보여주며, 희극적 조연인물은 빠른 템포의 화술과 슬랩스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물론 희극성을 강조한 이유 역시 정치적 맥락이었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하는 인민들에게 공연에서나마의 ‘웃음’은 정책적으로 장려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희극성을 구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모두 그 기량이 돋보인다. 적합한 액션(action)과 리액션(reaction), 리듬감 있는 화술, 부드럽고 절제감 있는 몸동작 등은 연극을 흥미롭게 이끌고 가는 주요 요소임이 분명 확인된다.

무대와 음악/춤의 창작 원리에서도 1980년대의 ‘민족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무대는 ‘민족성’을 위해 조선화 기법을 주요 방식으로 채택한다. 그런데 선군시대 연극에서 주목할 것은 무대에서 ‘영상화면’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군과 인민이 힘을 합해 파도를 극복하는 장렬한 장면 등은 배우들의 정지모습(stop-motion)과 함께 영상으로 처리된다. 더 나가 영상은 개별 배우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서 비장함을 극대화한다. 이에 따라 무대는 이전과 같이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스펙터클에 의존하지 않는다. 무대의 물리적 움직임에 의존했던 스펙터클은 영상화면으로 그 의존점을 옮긴 것이다. 음악/춤 역시 ‘민족성’을 기본으로 한다. 음악의 가사는 3·4·5음절을 반복하면서 민요를 편곡하여 사용하며, 춤은 ‘팔사위’가 많고 ‘선이 부드러운’ 조선적 춤을 차용한다. 기본적으로 1980년대와 유사할 수 있지만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군’의 기백을 보여주기 위해 음악에서 외치는 슈프레히콜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점과 춤에서 군과 인민이 어울려 역동적 춤을 구사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민족성’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래와 춤 자체가 ‘강렬함’을 위해 제작되었기에 북한이 말하는 ‘부드러운 조선적 미감’은 분명 감소되기 때문이다. ‘선군정치’에 따른 ‘선군문예정책’은 연극에서 주인공의 획일화와 강력한 춤/노래로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제4장 ‘과학’, ‘추억’, ‘중국과의 교류’ : 현재와 미래전망

2010년에 북한은 <오늘을 추억하리>와 <산올림>을 공연했다.<sup>97)</sup> <산올림>은 1961년 월산연극단이 강원도립예술극장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1960년대 ‘천리마 대고조’시기에 강원도 한 농촌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주제로 담고 있다. 박영정의 해석과 같이 이 작품이 2010년 경희극으로 재창작된 것은 ‘천리마 시대의 대고조’를 되살리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었다.<sup>98)</sup> 예측되듯 「조선예술」은 2010년 7월부터 대대적으로 <산올림> 관련 기사를 실으며,<sup>99)</sup> 작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더했다. 다행히 영상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공연에 대한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철령>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은 <산올림>의 공연사진이다.

97) 경희극 <산올림>은 2010년 4월 29일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첫 공연을 올렸으며, 9월 27일 청진공연까지 5개월간 전국순회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품은 10개 도시에서 180여 회 공연되었으며, 관객수 21만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98) 박영정, “경희극 <산올림> 열풍과 대고조 시대의 북한연극”, 『플랫폼』, vol.26. 2011. pp. 27-28.

99) <산올림>과 관련된 조선예술』의 글은 다음과 같다.

리문신, “(수기) 대를 이어 영원할 《산올림》이 되리”, 『조선예술』, 2010. 7.

최국선, “《산올림》이 주는 여운은 크다”, 『조선예술』, 2010. 7.

김수룡, “인상깊은 첫시작과 여운있는 마감형상”, 『조선예술』, 2010. 7.

안승천, “세기를 넘어 울리는 산올림 충격과 감동, 웃음과 랑만”, 『조선예술』, 2010. 8.

전수철, “(관평) 시대와 더불어 만사람의 가슴에 메아리치는 《산올림》”, 『조선예술』, 2010. 8.

김순림, “(단평) 희극적성격과 정황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한 본보기”, 『조선예술』, 2010. 8.

정리호, “랑만적인 리상의 대조를 통해 인물의 성격화를 실현한 명장면”, 『조선예술』, 2010. 9.

김철호, “인물의 성격을 생동하게 살려낸 인상깊은 연기형상”, 『조선예술』, 2010. 9.

송경호, “인상깊은 조명형상- 서로인의 집장면”, 『조선예술』, 2010. 10.

김억철, “연극의 극적견인력과 장면조직”, 『조선예술』, 2010. 10.

리춘명, “선군시대 배우화술의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준 화술형상”, 『조선예술』, 2010. 11.

전수철,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대전성기를 펼친 우리의 극예술무대”, 『조선예술』, 2010. 12.

손광수, “김일성상제관작품 경희극 《산올림》의 극작술특징”, 『조선예술』, 2010. 12.

정준하, “인상깊은 두 장면을 통해 본 대비수법의 형상적 효과”, 『조선예술』, 2012. 2.



〈사진 27〉



〈사진 28〉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대는 영상을 활용하고 입체적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무대배경은 조선화 기법으로 처리되었다. 연기에서 희극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철령>에 비해 배우들이 보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연기한다는 점, 군중들이 보다 짜임새 있게 움직인다는 점 등이 포착된다. 이 같은 강성대국 건설 소재/주제의, 천리마 대고조 시기에 적합한, 경희극적 양상이 2010년 이후에도 공연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확신할 수 없다. 북한의 문학예술계를 이끌던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에서의 변화와 문학예술계에서의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펴본바와 같이 김정일은 북한의 문학예술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주체와 민족의 조우’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군과 인민의 결합’으로 수렴시켰다. 그렇다면 이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 김정일의 사망은 예술계에 어떤 진동을 가져올 것인가.

먼저 과학소재/주제의 공연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조선문학」은 2009년 1월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보다 참신하고 감명 깊게 형상하고, 일심단결의 주제, 조국통일의 주제, 계급교양·혁명교양·사회주의교양의 주제에 힘을 돌릴 것을 요구’한바 있다.<sup>100)</sup> 또한 김정일은 2009년 8월 11일 CNC 노래를 창작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다음 글을 보기로 한다.

100)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선군문학 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키자”, 「조선문학」, 2009. 1.

검격도 새로운 주체98(2009년) 8월 11일.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 한 작곡가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CNC에 대한 노래를 아주 빨리 만들데 대한 무겁고도 중요한 과업을 주시었다...CNC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새로운 선율과 가사를 뽑아낼수가 없었던 것이다...첨단기계의 표상을 가사와 선율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결피를 잡을수 없었다...CNC를 문자 그대로 가사에 담자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그날 밤 작곡가는 피아노의자에 앉았다. 그는 하얀 건반우에 열손가락을 자신있게 얹었다. CNC공작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마냥 흥겨운 리듬을 타고 처음 들어보는 특색있는 노래선율이 힘있게 울려나왔다.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에 따라 만드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랑  
우리 식 (CNC기술이)

김정일은 사망 2해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던 작곡가를 불러 CNC에 대한 노래를 만들라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무겁고도 중요한 과업’을 내린 것이다. 작곡가는 고심 끝에 곧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연상케 하는 흥겨운 리듬을 창조했고, 이에 따라 곡을 완성한다. 이후 CNC관련 노래는 대중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가정오락회에서도 울려 퍼진다는 CNC관련 ‘돌파하라 최첨단’이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 프로그램에 따라 만드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랑 / 우리 식 CNC 기술

...

CNC라는 최첨단 《무기》가 우리 손에 쥐여진 이상 올해 인민생활향상의 총적과업은 드팀없이 실현될 것이다.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 / CNC는 자력생성의 본때  
장군님 가리키는 길 따라 / 돌파하라 최첨단을  
아 아리랑 아리랑 / 민족의 자존심 높이  
과학기술강국을 세우자 / 행복이 파도쳐온다.<sup>102)</sup>

101) 본사기자, “CNC노래가 창작되기까지”, 「조선예술」, 2012. 6.

102) 김광수, “(수필) 《CNC》 바람”, 「조선예술」, 2010. 7.

이 노래의 구체적인 악보는 아직 찾을 수 없지만, 이와 같이 CNC는 김정은 시대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악보는 아니지만 다행히 CNC 관련 노래 악보가 「조선예술」에서 발견된다. 다음은 리호성 작사/한진옥 작곡의 이 노래의 제목은 <비약의 속도 CNC바람>이다. 작곡가는 ‘빠르고 들썩이게’ 노래할 것을 당부한다.<sup>103)</sup>

빠르고 들썩이게 (♩=132) 작사 리호성, 작곡 한진옥

1. 선 - 군 의 천리마가 - 날 으 는 이땅우에 -  
 날 - 마 다 들려오는 - 철 단돌과 새 소식 -  
 장 군님헌신 의 그자-옥따라 조 국은번개 처 달 리-간다오  
 (후렴)  
 아 - 힘-이 솟 네 -  
 아 - 멋 이 로 세 -  
 비 약 의속도 C N C바람 전 변의세 월 -  
 펼 치 - 미 만 복을불러온다 네

### 〈악보 3〉

악보에서 확인되듯 리듬은 반복적이며 경쾌함을 특징으로 한다. 작곡가가 당부했듯이 빠르고 들썩이게 부른다면 행진곡풍의 느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후렴의 가사 자체도 현실 긍정적이다. ‘힘이 솟고 멋있는’ 사회에서 북한 인민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분위기가 연극에 반영된다면 CNC 소재/주제의 공연은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 템포 빠른 화술과 움직임의 연기, 테크닉이 화려한 무대가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103) 「조선예술」, 2010. 11.



다음으로는 예술계에서 ‘추억’, 그에 따른 김정일의 이상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김정일의 사망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김정일 이상화에 대한 자료는 최소 2008년부터 발견되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조선예술」은 담론을 통해 ‘백두산 3대장군의 업적과 풍모를 칭송하는 문학예술작품,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 업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sup>104)</sup> 또한 이듬해인 2009년 「조선문학」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에 따라 해결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울 것’과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보다 왕성하게 창작해 낼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sup>105)</sup> 실상 김정일의 이상화는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학신문이 2010년 12월에 한해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소설분야와 시문학 분야의 성과로 ‘아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등 이른바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김정일 사망 이전 김정일의 이상화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확실하다.<sup>106)</sup>

그렇다면 김정일이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비서국/군사위원회라는 당중앙위원회의 3대 핵심기구에 모두 선출된 후 혁명연극을 통해 적극적으로 김일성 이상화, 즉 수령형상 작업을 실행한 것을 고려할 때 김정일 사후 김정일에 의한 김정일 이상화 작업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2012년 로동신문의 신년공동사설을 보기로 한다.

나라의 전반적면모가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통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화려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룡림과 대흥, 회경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이 생겨났다.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기념비적인 무대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군중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졌다.<sup>107)</sup>

주목되는 것은 2012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에서 문학에

104) 「올해를 또 다시 선군예술 명작 창조성과로 빛내이자」, 「조선예술」, 2008. 1.

105)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선군문학 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키자」, 「조선문학」, 2009. 1.

106) “결정적 전환의 해를 빛내인 우리의 주체문학”, 「문학신문」, 2010. 12. 10.

107)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 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 1. 1.

술의 성과로 ‘연극’만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을 추억하리>라는 작품을 성과작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공연당시 <산울림>의 명성에 가려져 언급되는 횟수가 적었던 작품이다. 그런데 2012년 신년공동사설은 <산울림>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늘을 추억하리>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sup>108)</sup> 2012년 이후의 ‘추억’은 곧 ‘김정일’과 분리될 수 없을 터, 2012년 이후는 김정일의 업적/성과를 주제/소재로 하는 새로운 작품이 창작되거나, 김정일이 창작을 지도했다는 1970년대의 혁명가극, 1980년대의 혁명연극, 1990년대의 경희극 등이 재공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중국연극의 수용과 그에 따른 연극 양식에서의 변화이다. 북한은 2009년부터 러시아의 고전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을 재창작하여 2010년 3월 18일 북러 경제문화협정 체결 61주년 기념 공연으로 동평양대극장에서 무대에 올린바 있다. 김정일은 ‘로씨야의 고전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은 오늘도 혁신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며, 청년들을 비롯한 새 세대들에게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sup>109)</sup> 북한 문화예술계의 개방의 진동이 감지되는데, 특히 중국 연극과의 교류는 이를 더욱 확신시켜준다.

중국과 북한의 문화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08년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중국에서 공연된바 있기 때문이다. 「조선예술」(2008.9)은 “온 중국땅을 휩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꽃파는 처녀>가 “2008년 4월부터 50여일동안 온 중국땅을 열풍으로 휩쓸게 했다”고 선전한다. 그 여파인 듯 같은 해인 2008년 12월 「조선예술」은 중국의 전통예술인 ‘경극’을 소개하고 있다.

경극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유행되는 인기있는 극종류이다.

이 극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여러 가지의 지방극들을 베이징에서 더 발전시킨것이다.

경극은 1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108) <오늘을 추억하리>에 관한 글로는, 주영숙, “(평론)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더해준 부정인물들의 개성적인 연기형상”, 「조선예술」, 2012. 1

김순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철학적 형상”, 「조선예술」, 2012. 2

정준하, “인상깊은 두 장면을 통해 본 대비수법의 형상적 효과”, 「조선예술」, 2012. 2

방금철, “주체적인 연극무대미술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생동한 화폭 - 김일성상계관 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무대미술형상을 놓고-”, 「조선예술」, 2012. 3 등이 있다.

109) 전수철,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대전성기를 펼친 우리의 극예술무대”, 「조선예술」, 2010. 12.

청나라 건륭황제때부터 여러 가지 극종류가 베이징에 들어와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1830년대에는 호북지방의 한 극도 베이징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여러 지방극에서 쓰는 극제목, 음악, 복장 등 형식이 하나의 극형식에서 통합되면서 경극이라는 극종류가 새로 생기었다.

그 당시에는 경극을 《피황》 또는 《경조》라고 불렀다.

1850년을 전후로 정장경, 녀삼승, 장이규 등 배우들의 노력에 의하여 경극예술은 한단계 더 발전하였다.

경극은 다른 극보다 과장이 심하고 극성이 강하며 노래, 동작 등이 통일성을 이루어 색깔이 뚜렷하고 백자가 강렬한것이 특징이다.<sup>110)</sup>

경극에 대한 설명은 이같이 간략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정 치부 문공단의 중국현대무용극 《홍매찬가》 공연진행을 소개한 것은 다소 주목을 요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했던 기존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서 ‘우리 식’은 여전히 중요한 창작원리의 하나이다. 그러나 2010년 피바다가극단에서 중국의 민간전설에 기초하여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를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창조하여 널리 공연할데 대한 김정일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연준비를 진행한 점,<sup>111)</sup>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피바다가극단이 <홍루몽>을 공연했다는 점은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예상하게 해준다. 다음은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 공연한 <홍루몽>의 공연사진이다.



〈사진 29〉



〈사진 30〉

110) “중국 경극의 유래”, 『조선예술』, 2008. 12.

111) 전수철,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대전성기를 펼친 우리의 극예술무대”, 『조선예술』, 2010. 12.

북한의 선전에 의하면 북한이 공연한 <홍루몽>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중국은 ‘조선예술인들은 중국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에 기초하여 높은 수준에서 그것을 감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4대고전명작의 하나인 <홍루몽>에 대한 조선예술인들의 깊은 이해에 탄복하게 되었고, 극구성과 음악, 성악, 무용 등이 모두 훌륭하고 배우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 ‘원작의 내용을 잘 살리면서도 착상이 독특하고 예술적 형상도 성공한 가극이며 전문가로서 탄복을 금할 수 없고, 력사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시대의 미감에 맞게 고전작품을 가극으로 옮긴 조선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무대전환속도가 빠르고 무대미술과 의상이 진실하고 생동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보는 것 같았다’, ‘중국의 고전명작을 소재로 하고있는 이 가극은 조선말로 공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하는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렬한 예술적감화력으로 관중을 극세계에로 이끌어 갔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sup>112)</sup>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북한의 공연이 정치적/예술적으로 주목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 시점에서 이같은 교류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베이징에서 공연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던 북한이 중국의 소재를 차용하여 가극을 제작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소재의 단순차용일 수 있지만 예술에서 소재만의 차용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소재의 차용은 곧 양식의 차용/수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상은 모두 중국의상이며, 오른쪽 사진의 배우 제스처는 중국 경극배우의 제스처를 연상케 한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는 중국과의 공연예술 교류는 한층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 공연의 양식 또한 미세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 제5장 결 론

1978년 김정일의 지도로 <성황당>이 제작된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연극계는 <성황당>의 재공연에 집중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조선중앙년감」에 새로운 연극공연 소식이 부재함은 1980년대 초반 연극계가 잠시 소강상태임을 말해준다. 연극계가 소생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다시 김정일 주도로 ‘혁명연극’이

112)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준 조선의 가극 《홍루몽》 -가극 《홍루몽》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반향중에서-”, 「조선예술」, 2010. 10.

창작되면서부터이다. 1980년 중반부터의 혁명연극은 1990년대 중반까지 맥을 이어갔다.

이 시기의 문예담론은 김정일의 담화에서 발견되듯이 ‘주체사상’과 ‘민족’의 조우(遭遇)였다. ‘민족담론’은 물론 ‘체제수호’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정치 담론에서 배태된 문예담론은 무대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주체 철학, 조선의 사람에게 조선음악/조선화/조선춤을 보여줄 것, 민속문화를 장려할 것,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것을 강조했고, 이는 곧 연극계에 수용된다. 연극의 내용과 양식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제는 동시대와 연관된 ‘현재적 자주성’이, 주인공은 김일성의 이상화를 위해 ‘결합’있는 인물이, 연기(演技)는 현실적/사실적/문학적 화술이, 무대는 ‘선명/간결’과 ‘부드럽고 명료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화 기법이, 음악에서는 민족적 선율의 통속적/민요적 리듬이 구현된 것이다. 문예담론의 출생비밀이 무엇이었던 작품만을 놓고 본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 연극에서는 분명 다양성이 포착된다. 작품의 본질적 주제는 고정되었으나 공연작품의 배경이 각기 달랐고 등장인물들이 애국지사, 민족주의자, 농부 등 다양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계가 안아야 하는 ‘김일성 이상화’가 한계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 연극에서 배우들의 기량과 ‘한계를 안은 다양성’의 시도는 분명 돋보이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문예담론은 ‘선군’으로 선회한다. 문학예술계는 스스로를 ‘선군혁명문학/선군혁명음악/선군혁명미술/선군영화’로 지칭하면서 새로이 모습을 바꾸었고, 동시에 이전 시기 강조되었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여전히 무게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군담론’은 ‘선군’과 ‘감성’의 결합을 의미했고, 이것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성과작 모두의 주인공을 군인/군인가족으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기에서는 진지함과 희극성/유모가 결합되었다. 강한 군인정신을 인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희극성의 출생 비밀 역시 고난의 행군을 웃음으로 극복하자는 정치적 맥락이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희극성을 구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모두 그 기량이 돋보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대와 음악/춤의 창작 원리에서 1980년대의 ‘민족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분명 변화가 포착된다. 변화는 무대에서 ‘영상화면’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점, 음악에서 ‘군’의 기백을 보여주기 위해 외치는 듯한 슈프레히콜 방식이 적극적 도입된 점, 춤에서 군과 인민이 어울려 역동성을 강화한 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군정치’에 따른 ‘선군문예정책’은 연극에서 주인공의 획일

화와 강력한 춤/노래로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980년대 발아했던 ‘다양성’이 ‘ 획일화’로 고정되었다면, 예술의 생명은 단연 ‘창조성’과 ‘다양성’에 있기에 북한의 이 같은 흥보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래 북한 연극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일까. 과학을 주제/소재로 하는 과학물, 김정일을 추억하는 공연, 중국 고전극 공연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북한 연극은 정치의 변수와 함께 완만히/급하게 선회할 것이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재능 있는, 또는 재능을 쌓고 있는 모든 북한 연극인들에게 건투를 빈다. 연극인들이 서야 할 곳은 무대뿐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북한 문헌>

- 「근로자」, 「조선예술」, 「조선문학」, 「천리마」, 「조선문학예술년감」, 「극예술」,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저작집」, 「문학신문」, 「예술교육」, 「로동신문」, 「문학신문」, 「문학예술사전」,
- 「조선중앙년감」,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본사기자, “CNC노래가 창작되기까지”, 「조선예술」, 2012. 6.

방금철, “주체적인 연극무대미술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생동한 화폭 - 김일성 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무대미술형상을 놓고-”, 「조선예술」, 2012. 3.

정준하, “인상깊은 두 장면을 통해 본 대비수법의 형상적 효과”, 「조선예술」, 2012. 2.

김순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철학적 형상”, 「조선예술」, 2012. 2

주영숙, “(평론)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더해준 부정인물들의 개성적인 연기형상”, 「조선예술」, 2012. 1

\_\_\_\_\_,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 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 1. 1.

전수철,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대전성기를 펼친 우리의 극예술무대”, 「조선예술」, 2010. 12.

리춘명, “선군시대 배우화술의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준 화술형상”, 「조선예술」, 2010. 11.

\_\_\_\_\_, “결정적 전환의 해를 빛내인 우리의 주체문학”, 「문학신문」, 2010. 12. 10.

\_\_\_\_\_,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준 조선의 가극 《홍루몽》-가극 《홍루몽》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반향중에서-”, 「조선예술」, 2010. 10.

김억철, “연극의 극적견인력과 장면조직”, 「조선예술」, 2010. 10.

정리훈, “랑만적인 리상의 대조를 통해 인물의 성격화를 실현한 명장면”, 「조선예

- 술」, 2010. 9.
- 김철호, “인물의 성격을 생동하게 살려낸 인상깊은 연기형상”, 「조선예술」, 2010. 9.
- 전수철, “(관평) 시대와 더불어 만사람의 가슴에 메아리치는 《산울림》”, 「조선예술」, 2010. 8.
- 김순림, “(단평) 희극적성격과 정황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한 본보기”, 「조선예술」, 2010. 8.
- 최국선, “《산울림》이 주는 여운은 크다”, 「조선예술」, 2010. 7.
- 김수룡, “인상깊은 첫시작과 여운있는 마감형상”, 「조선예술」, 2010. 7.
- 김광수, “(수필) 《CNC》 바람”, 「조선예술」, 2010. 7.
- 리문신, “(수기) 대를 이어 영원할 《산울림》이 되리”, 「조선예술」, 2010. 7.
- 손광수,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의 극작술특징”, 「조선예술」, 2010. 12.
- 송경호, “인상깊은 조명형상- 서로인의 집장면”, 「조선예술」, 2010. 10.
- 안승천, “세기를 넘어 울리는 산울림 충격과 감동, 웃음과 랑만”, 「조선예술」, 2010. 8.
- 김성희, “당정책을 경희극화한 형상적비결”, 「조선예술」, 2009. 9.
- \_\_\_\_\_,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선군문학 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키자”, 「조선문학」, 2009. 1.
- \_\_\_\_\_, “중국 경극의 유래”, 「조선예술」, 2008. 12.
- 박정순, “춤형상에서 민족적정서를 살리기 위한 요구”, 「조선예술」, 2008. 6.
- 김수룡, “의상, 소두구에 비낀 시대의 특징과 민족적 특성”, 「조선예술」, 2008. 2.
- 최국성, “(평론)선군시대에 창작된 경희극에서 부정인물성격창조의 특징”, 「예술교육」, 2008. 2.
- \_\_\_\_\_, “올해를 또 다시 선군예술 명작 창조성과로 빛내이자”, 「조선예술」, 2008. 1.
- 림덕길, “(가극혁명의 나날에) 혁명연극 <<3인1당>> 창조에 깃든 위대한 령도”, 「조선예술」, 2007. 7.
- 김은희, “(연단)경희극에서 대사와 행동의 결합을 놓고”, 「예술교육」, 2007. 2.
- 리동관, “(평론)선군시대의 경희극들에 설정된 웃음의 계기와 정황문제”, 「예술교육」, 2006. 3.
- 인민예술가 강중모, “(수기)경희극 <<생명>>에 비낀 예지의 빛발”, 「예술교육」,



2006. 3.
- 황정남, “(관평)집단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준 감동깊은 호폭-경희극 <<생명>>을 보고”, 「예술교육」, 2006. 2.
- 안정숙, “선군혁명실록은 경희극명작의 종자원천”, 「조선예술」, 2005. 1.
- 리광만, “력사자료로 보존된 경희극”, 「조선예술」, 2004. 10.
- 김철룡, 리상혁, 김형준, “명작에 비긴 새롭고 특색있는 성격들”, 「조선예술」, 2004. 8.
- 안성룡, “혁명연극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의 무대미술이 거둔 성과”, 「조선예술」, 2004. 3.
- 류영진, 한철호, 길혜성, “인물의 성격적특징을 부가시킨 인상깊은 명연기”, 「조선예술」, 2003. 12. .
- 안옥희, “참신한 인간성격의 탐구와 인물관계조직-경희극 《철령》을 보고-”, 「조선예술」, 2003. 8.
- 명일식, “가극의 기본형상수단과 그 구현”, 「조선예술」, 2003. 3.
- 방형찬, “(론설)선군혁명문학은 주체사실주의 문학발전의 높은 단계이다”, 「조선문학」, 2003, 3.
- 김순영, “예술적형상의 진실성과 그를 살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 2003. 1.
- 학사 송학성, “(론설)전승 50돛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선군문학예술작품창작성과로 빛내이자”, 「조선예술」, 2003. 1.
- 장명철, “영사화면의 효과적인 리용-선군시대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을 놓고-”, 「조선예술」, 2002. 4.
- 안정숙, “(평론)선군시대 경희극작품들에 구현된 새로운 양상적 특징”, 「예술교육」, 2002. 4.
- 안정숙, “선군시대에 창작된 경희극들에서 주인공의 성격형상문제”, 「예술교육」, 2002. 4.
- 김영옥, “연기훈련에 효과있는 줄거리 연기습작”, 「조선예술」, 2002. 3.
- 장명철, “덕성형상창조에서의 새로운 발전-선군혁명령도시기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을 놓고-”, 「조선예술」, 2001. 12.
- 명일식, “(평론)경희극작품에서 웃음과 오해선의 설정”, 「조선예술」, 2001. 3.
- 본사기자 방철림, “위인의 손길 아래 빛나는 선군혁명문학”, 「천리마」, 2000. 11.
- 리월미, “연기색채규정과 그 실현을 통해서 본 연기성과 : 경희극 <동지>에 출연한

- 배우들의 연기형상을 놓고”, 「조선예술」, 1999. 10.
- 박건천, “우리 식의 극문학형태로서의 경희극의 새로운 발전”, 「청년문학」, 1998. 10.
- 명일식, “(평론) 높은 시대정신과 국민일치사상을 훌륭히 보여준 시대의 명작: 경희극 《편지》에 대하여”, 「조선예술」, 1998. 8.
- \_\_\_\_\_, “농장벌에 차넘치는 혁명적 군인정신 : 경희극 <편지>”, 조선화보사, 1998. 7.
- 안광일, “(평론) 우리의 위대한 현실을 격조높이 구가한 만점짜리 연극: 경희극 <편지>에 대하여”, 「조선예술」, 1998. 6.
- 조맹덕, “(관평) 즐거운 웃음도 있고 감동의 눈물도 있는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 「조선예술」, 1997. 7.
- 박호일, “(창작수기) 새롭고 특색있는 경희극을 창작하기까지”, 「조선예술」, 1997. 1.
- \_\_\_\_\_, “(사진과 글)경희극 <<끝장을 보자>>”, 천리마, 1997. 5.
- 김영송, 「문학작품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 문학 발전의 절박한 문제」, 『조선문학』, 1992. 12.
- \_\_\_\_\_,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금수강산, 1990. 4.
- (좌담회) 혁명연극 《경축대회》 창조자들과 함께”, 「조선예술」, 1988. 9.
- (좌담회)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지침으로 삼고-혁명연극 《3인1당》 창조성원들과의 좌담회”, 「조선예술」, 1987. 11.
- 본사기자 리종철, “(연출평) 주체적 연극연출체계의 위대한 생활력 - 혁명연극 《3인1당》의 연출형상을 두고-”, 「조선예술」, 1987. 11.
- 홍국원, “(관평) 력사의 교훈으로 단결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명작 - 혁명연극 《3인1당》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7. 11.
- 리몽훈, “풍만한 시대상과 아담한 극적형상 -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 연출형상을 놓고-”, 「조선예술」, 1987. 9.
-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엄정희, “(반향) 배움에 대한 참다운 교훈”, 「조선예술」, 1987. 8.
- 리대철, “특색있는 불멸의 예술적화폭 -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7. 8.
- \_\_\_\_\_, “문학예술혁명과 빛나는 령도(12)-교예발전에서의 혁명적전환”, 「조선예술」, 1985. 1.

- 장 영, 「역사물창작에서 인물의 전형화 문제-혁명연극 《혈분만국회》를 중심으로-」, 『조선예술』, 1984. 9.
- 문화예술부 지도부 장국범,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조선예술」, 1984. 7.
- 리 령, “혁명전통물과의 계선을 똑바로 긋고 형상하는 것은 일반역사물창작의 근본요구”, 「조선예술」, 1984. 7.
- 평양제2사범대학 학부장 안종두, “(반항) 세대는 바뀌었어도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예술」, 1984. 7.
- 김득칭, “음악은 《성황당》 식 혁명연극의 형상수단의 하나 -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음악에 관하여”, 「조선예술」, 1984. 6.
- 조창중, “시대와 인물의 성격에 맞는 우수한 화술형상-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화술형상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4. 6.
- 리대철,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자주의 진리를 밝힌 불멸의 화폭-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4. 6.
- 성두원, “《피바다》 식무대미술의 우월성을 과시한 무대화폭-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무대미술에 대하여”, 「조선예술」, 1984. 6.
- 인민배우 리단, 「산 인간성격의 창조와 연출가의 자세」, 『조선예술』, 1984. 6.
-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 6. 19, 「김정일선집(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 20.
- \_\_\_\_\_,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학예술부문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 4. 26., 「김정일선집(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
- \_\_\_\_\_,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 1. 5. 「김정일선집(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선전부 책임일군들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7. 11. 30. 「김정일선집(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 12. 28. 「김정일선집(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강 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예리론 총서 27 <성황당>식 혁명연극리론」, 문예출판사, 1985
- 강 진, 「위대한 령도, 빛나는 업적, 주체극문학의 새기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 김이라, 「3인1당」, 평양 문예출판사, 1988.
- 김정일, 「김정일 선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명일식, 「희곡창작과 대사」, 문학예술출판사, 2002.
- 박동식, 권용하, 「주체음악총서(8), 우리식의 무용, 연극 및 교예음악」, 1991.
- 최연경, 홍국원, 황지철, 「혁명적 작품창작에서 위대한 변혁」,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최창호, 「민족수난기의 연극1, 2」, 평양출판사, 2001.
- 홍의정, 「주체미술의 대전성기」, 조선미술출판사, 1987.
- \_\_\_\_\_, 「주체음악총서(4) <피바다>식 혁명가극 1」, 문예출판사, 1991.
- \_\_\_\_\_,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학예술업적 10, 주체적 무용, 교예예술의 새로운 전환」,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 〈남한문헌〉

- 박영정, 「북한 문화예술 현황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_\_\_\_\_, “경희극 <산울림> 열풍과 대고조 시대의 북한연극”, 「플랫폼」, vol.26, 2011.
-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 역사·이념·권력체계-」, 한울, 2011.
- 오양열, “김정일 시대 북한 문예정책의 변화 양상과 향후 전망”, 「예술경영연구」, 2008 제13집.
- 박영정, “북한 경희극의 형성과 발전”, 「북한 연극/희곡의 분석과 전망」, 연극과 인간, 2007.
- 최민아, “신고송 연극론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중앙일보, 1999. 9. 14.

### 〈인터뷰〉

- 김봄희(가명),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 보이스레코더 녹음, 동국대학교, 2009. 5.
- 전무송, 본 연구자와의 개인인터뷰, 2006. 11. 24. 화정동, 제노 커피숍.

### 〈영상자료〉

- DVD/VHS 자료(북한자료센터)
- 「3인1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경축대회」, 「철령」, 「산울림」



국가명칭표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형태에 따른  
통일의식 추이분석  
: 2006년~2012년 언론사별 보도태도 및 국가명칭 분석

여현철

Ⓢ코리아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제1장 서론	335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42
제3장 국가명칭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추이	353
제4장 언론의 국가명칭 보도 태도에 대한 특징 및 함의	388
제5장 결론	409
[부록] 검색어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비교	415
[참고 문헌]	417

---





## 표 목차

---

<표 1> 정보전달에 대한 신문사와 방송사의 특성 비교 .....	349
<표 2> 국가명칭에 따른 연도별 신문사 보도량 .....	354
<표 3> 국가명칭에 따른 연도별 방송사 보도량 .....	361
<표 4> 남북관계 분야 검색어, 언론별 보도량 .....	364
<표 5> '06~12' 언론사별 검색어 '개성' 부정적 보도지수 .....	382
<표 6>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A신문사 .....	393
<표 7>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B신문사 .....	396
<표 8>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C신문사 .....	398
<표 9>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D방송사 .....	400
<표 10>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E방송사 .....	402
<표 11> 언론사별 국가명칭 표기 비율 .....	406
<표 12> 언론사별 검색어에 따른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407
<표 13> 언론사별 남북경협 관련 보도태도 비율 .....	408
<표 14> 언론사의 연도별 선호 국가명칭 .....	410

---

## 그림 목차

---

<그림 1> 통일의식 추이변화 .....	340
<그림 2> 용어가 의식에 미치는 영향 .....	348
<그림 3> 남북관계 분야 검색어, 언론별 보도량(2006~2012년) 추이변화 .....	353
<그림 4>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A신문사 .....	358
<그림 5>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B신문사 .....	359
<그림 6>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C신문사 .....	359
<그림 7>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D방송사 .....	361
<그림 8>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E방송사 .....	363

---

---

<그림 9> ‘남측’ 검색어, 언론별 보도량(2006~2012년) 추이변화 .....	371
<그림 10> 연도별 검색어 보도량 - 종합 .....	372
<그림 11>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A신문사 .....	376
<그림 12>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B신문사 .....	376
<그림 13>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C신문사 .....	377
<그림 14>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D방송사 .....	377
<그림 15>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E방송사 .....	378
<그림 16> ‘06~12’ 남북경협 관련 보도태도의 비중 .....	380
<그림 17> ‘06~12’ 개성 검색어 보도량 추이 .....	381
<그림 18> ‘06~12’ 정상회담 관련 보도태도의 비중 .....	384
<그림 19> ‘06~12’ 핵 관련 언론사별 보도량 .....	386
<그림 20> ‘06~12’ 연평도 관련 언론사별 보도량 .....	386
<그림 21> 검색어-협력중시 보도량과 안보중시 보도량 비교 .....	387
<그림 22> 언론사별 총 보도량의 남북관계 인식 비교 : 성향 .....	389
<그림 23> 언론사별 총 보도량의 남북관계 인식 비교 : 비율 .....	390
<그림 24>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A신문사 .....	395
<그림 25>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B신문사 .....	397
<그림 26>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C신문사 .....	399
<그림 27>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D방송사 .....	401
<그림 28>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E방송사 .....	403
<그림 29> 연도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비교 .....	404

---

## 요 약 문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은 국호를 혼용해 사용하는 상황을 야기 시켰다. 같은 대한민국을 지칭하면서도 무의식 혹은 의식 중에 개인이 느끼는 단어의 내재된 의미에 따라 편이나 상황에 맞게 ‘대한민국’, ‘한국’, ‘남한’, ‘남측’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언론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는 단순히 사실이나 정보 보도 수준을 넘어 국민의 대북 인식과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쳐 현재의 통일 정책 추진과 향후 통일 한반도를 설계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국가명칭 사용에 대한 태도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사의 보도에 표기되는 국가명칭 중 대한민국 또는 한국, 남한, 남측이라는 각 용어의 사용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상황과 그에 따른 통일의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어떻게 의식이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언론사별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량 및 국가명칭 선택 변화추이를 분석해 언론사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고 보도태도(협력중시, 객관적 사실, 안보중시)를 비교해 보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남북 정세에 따라 보도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각 언론사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 정도와 남북관계에서 보이는 특유의 태도를 파악해 낼 수 있다. 특정 언론의 보도 내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도와 의미는 겉으로 쉽게 들어나지는 않지만, 해당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독자)들에게는 무의식중에 전달 될 수 있는 특성(문화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 교육사회화 측면)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각 언론사의 보도 속에서 표기되는 국가명칭인 대한민국, 한국, 남한, 남측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의미와 남북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반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2008년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2012년 6월 30일)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여 통일의식과 국가명칭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형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언론매체별 남북관계에 관한 보도량 추이분석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수치로 나타난 단순히 높고 낮음의 관심도뿐만 아니라 언론사별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 사안에 따라

보도량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언론 매체별 보도태도 양상 및 변화 분석이다. 각 언론사가 지니고 있는 국가명칭별 보도태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이를 통해 각 언론사가 남북 간의 협력 중시적 태도 또는 안보중시적 태도로 보도할 때 선호하는 국가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심층 내용분석을 통해서 ‘남북협력’과 ‘군사도발’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언론사들이 각 검색어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지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 말미암아 향후 국가명칭 문제에 대한 언론 매체의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어떠한 프레임 유형과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시도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식형성에 있어서 언론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대한 과정 탐색 및 역추정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그에 따르는 의식 형성 및 변화 요인을 언론사의 보도태도(성향)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가명칭을 통해 분단 67년이 되는 현 시점을 재조명하는 것 또한 새로운 접근방식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국가명칭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비용(통일세)에 관한 인식, 남남갈등·남북 갈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파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의 지평을 넓게 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언론사별로 선호하는 국가명칭에 대한 의미 파악 및 인식 분석,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량)태도의 분석은 통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범주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남남갈등과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남북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국호인 대한민국 이외에도 한국, 남한, 남측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단 67년이 된 현 시점에서 국가명칭 사용의 복합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명칭이 사용하는 사람 혹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국가명칭 선택은 남북관계에 대한 인지능력 내지는 의식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 등에서조차 우리나라의 국가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sup>1)</sup> 또는 한국, 남한, 남측이라는 용어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보도내용에서 선별되어 사용되었는지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통일의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어떻게 의식이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명칭의 통일된 표기·사용이야말로 통일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무관심 현상과 통일을 반대하는 의식 및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사회 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오늘날의 국민의식은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편협한 시각 또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팽배하게 나타나게 되어, 통일에 대한 의식 및 인식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남북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 현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통일에 대한 문제인식에 있어서 민족적·이념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현실적·실용적인 이유에 치중하여 통일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sup>

- 
- 1)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정부정체성을 민주주의로 채택하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미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쓰게 된다. 국호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석우(申錫雨, 1894-1953) 선생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개칭을 제안하여 1919년 4월 10일에 상해임시정부 의정원(국무회의)에서 결정(가부투표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후 1948년 남한 정부 제헌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 2) KBS의 자체 통일의식조사(2011)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인식은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47.1%),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27.3%) 등 통일을 바라는 응답이 74.4%로 많았다. ‘교류협력을 하면서 공존상태 유지’(19.9%)나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5.7%) 등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25.6%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식 감소 현상이 증대되는 이유를 언론사의 남북관계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독자)들에게 무의식중에 전달 될 수 있는 특성(문화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 교육사회화 측면)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각 언론사의 보도 속에서 표기되는 국가명칭인 대한민국, 한국, 남한, 남측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의미와 남북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 하에 각 언론사들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보도할 때 어떠한 국가명칭을 선호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도할 때 협력중시적인 또는 안보<sup>3)</sup>중시적인 측면에 치우친 연유에 비롯하여 통일의식이 감소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가명칭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현상을 방지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내용을 견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 내용 및 태도를 견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국가명칭, 통일에 대한 보도 빈도 횟수,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의 태도 방식에 대한 논의구성 방식이 일반 국민들의 통일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언론사의 보도태도 등을 통해 통일을 방관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의 시각과 인식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즉,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면, 향후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들이 국가명칭을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 경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남북관계의 내용을 중점으로 분석할 것이며, 남북관계 중에서도 협력중시적인 영향과 안보중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로 말미암아 통일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남남갈등 및 향후 남북갈등의 요인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남북주민들 간의 내적통합(의식 공유)을

3) 국가 이익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안보라고 볼 수 있다. 이 안보를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평화유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보중시적이라는 측면이 남북관계에서 단절 또는 대결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남측)의 것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마련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국가명칭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의 국가명칭의 선별 사용으로(언론의 선별적인 국가명칭 사용으로) 인한 통일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국내의 경우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언어(단어)의 사용이 적실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연구(언어(단어) 사용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 및 언론매체의 보도태도에 따른 정권별·시기별 분석은 다량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의 태도·성향을 언론사별로 분석한 연구는 유호열·박현선(20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sup>4)</sup>가 있다. 이 논문은 언론의 보도태도가 사회 구성원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연도별 언론사의 보도량 및 보도태도 변화 추이와 기사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언론사별 시각차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평가한다.

신문사들의 이념을 분석한 연구는 김경희·노기영(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sup>5)</sup>가 있다. 이 연구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을 분류하였고, 각자의 성향을 가진 신문들의 이념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수신문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을 진보신문보다 더 많이 활용하였으며, 진보신문은 보수신문보다 미국의 정부 관리와 미국 언론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언론의 프레임 혹은 보도 태도, 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다. 한국 언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로는 김성옥(20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연구”<sup>6)</sup>에서 언론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고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언론의 북한이탈주민 인식

4) 유호열·박현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 연구총서 2012-03.

5) 김경희·노기영,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韓國言論學報』, 55권 1호(2011년 2월).

6) 김성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연구: 신문기사의 유형 및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하승희·이민규(2012),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 연구”<sup>7)</sup>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사들의 보도 형태가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정권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신문의 이념과 관계없이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임 연구자들에 따르면, 뉴스가 현실의 객관적인 표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특수한 방식으로 구성한 이야기이며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sup>8)</sup> 또한 뉴스는 현실의 어느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강조 및 확대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해석 방향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여한다고 보고 있다.<sup>9)</sup>

본 논문과 유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선행연구로서 언론의 사회통일교육적 기능 분석 연구가 있다. 전백경(2000), “언론의 사회통일교육적 기능 분석”<sup>10)</sup>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방향을 제공하고 통일과정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언론’의 사회통일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언론의 목적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사회통일교육적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독일 통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 및 북한문제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대부분 방송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얻고 있어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과 이를 통한 사회통일교육적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언론 관련 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 이념·인식·성향 등 개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들과 결합함으로써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sup>11)</sup>

7) 하승희·이민규, “북한주민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2012년 5월).

8) Entman, R.,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1993), pp.52-53.

9) Gaye Tuchman,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Free Press」, (1978). 이창현·김성준, “북한관련 TV뉴스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제19호, 한국언론정보학회(2002).

10) 전백경, “언론의 사회통일교육적 기능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이처럼 언론의 남북관계에 대한 비중과 언론의 보도태도, 보도량, 특정 국가명칭 용어의 사용횟수, 그리고 보도 내용(협력중시, 안보중시, 객관적 사실)과 특정 용어 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의식 형성 및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인식과 언론사의 보도태도 등을 대비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국가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계 및 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먼저, 남한, 한국, 대한민국, 남측이 들어간 내용들을 분류하고, 이를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국제관계를 제외한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 내용만을 추출하여 그 내용을 세 가지 분류로써 협력중시(남북협력 측면), 중간(객관적 사실), 안보중시(남북갈등 측면) 형태로 구분한다.

또한 국가명칭 표기에 대한 언론의 지배적인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언론의 논조, 주제적 틀, 가치적 틀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주제적 틀과 가치적 틀을 동시에 분석해서 그 둘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균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안에 따라 보도성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문사 3개(A, B, C), 방송사 2개(D, E)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상반기)까지 약 7년 동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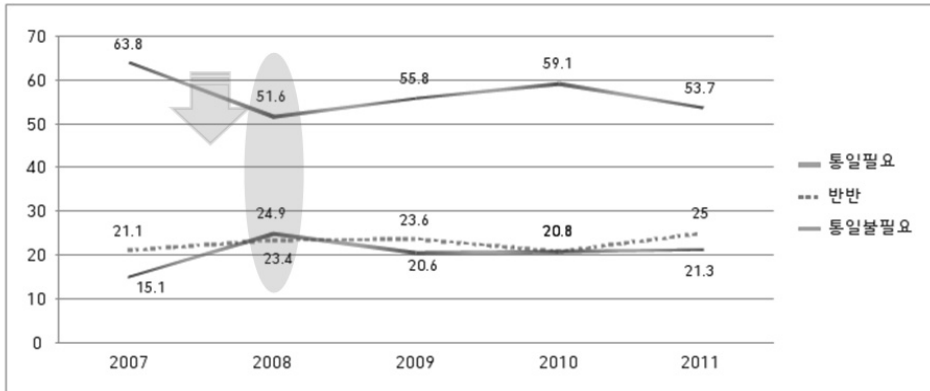
#### 1. 내용 분석

본 연구는 통일의식이 2008년에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사들의 보도태도 및 보도량, 그리고 국가명칭에 관한 보도태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언론매체별 남북관계에 관한 보도량 추이분석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전체 기사

11) 이준웅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48권 1호, 한국언론학회(2004).

에서 국가명칭(대한민국, 한국, 남한, 남측)에 대한 사용 횟수와 주요 쟁점과 주제들을 밝혀낸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사설 및 방송 보도에서의 주제 분석을 통해 최종으로 주제 프레임을 추출한다.



〈그림 1〉 통일의식 추이변화<sup>12)</sup>

둘째, 언론 매체별 보도태도 양상 및 변화 분석이다. 분석대상인 언론 사설 및 방송 보도에 나타난 핵심주제의 유형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협력중시, 안보중시, 중간(객관적 사실)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보도 기사량과 통일의식과의 관계를 대비시키고자 하며, 국가명칭의 사용 역시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sup>13)</sup>

각 언론사가 지니고 있는 국가명칭별 보도태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이를 통해 각 언론사가 남북 간의 협력중시적 태도 또는 안보중시적 태도로 보도할 때 선호하는 국가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심층 내용분석을 통해서 ‘남북협력’과 ‘군사도발’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언론사들이 각 검색어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지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분석하였다.

12) 김병로,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움』(2011), p.28의 표를 재구성함.

13) 손영준(2004)에 따르면, <A 신문사>를 구독하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대북 의견(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C 신문사>를 구독하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의견(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준,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8권 2호, 한국언론학회(2004), pp.240-266.

##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언론사들이 선호하는 국가명칭에 대한 분석과, 남북관계의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 등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sup>14)</sup>분석이다.

본 연구가 채택한 사회과학 조사방법은 키워드 검색, 내용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 대상은 보도의 양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문사 3개와 매체의 영향력 측면을 고려하여 방송사 2개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선정기준은 언론의 인식이나 태도, 프레임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분석대상으로 채택한<sup>15)</sup> 언론사 중 비교적 분명한 성향 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A>, <B>, <C> 이상 3개 신문사<sup>16)</sup>를 선정하였다.<sup>17)</sup>

또한 <D>, <E> 이상 2개 방송사를 선정하였는데, 두 개의 방송사 모두 정부의 입장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판단에 따라 두 언론사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A, B, C 이상 3개 신문사의 기사 및 사설 전체를 모집단으로 삼았으며, 그 중에서 또 남북관계만을 다룬 기사와 사설들을 전부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14) 언론의 현실 구성은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모두 체험할 수 없으며,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언론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는 언론 프레임 혹은 뉴스 프레임이며, 이것이 사건이나 이슈의 성격과 방향, 파급력 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프레임은 언론이 선택과 배제, 강조, 상징조작 등의 기법을 활용,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뉴스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자,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영신, “정치변동에 따른 한국 언론의 뉴스프레임 연구-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2005). 이용철, “탈북자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연구-프레임과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2006).
- 15)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 등은 언론의 논조나 프레임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분석대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 언론의 논조와 입장을 비교적 잘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광정례·이준웅,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탈북자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연구: 조선일보·한겨레신문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3권 6호, 한국언론학회(2009), p.203.
- 16) ‘대북지원’에 있어서 A가 보수 진영에, C가 진보 진영에, B가 중도 진영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성’ 차원에 따른 이슈별로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A·B·C는 보수 진영에, C는 진보 진영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주, “한국 신문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4권 3호, 한국언론학회(2010), pp.314-348. 김세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유사성과 차별성: 1면 구성과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전략 세미나 발표문(2010).
- 17) 언론사들이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태도 등을 구분하기 위해 협력중시, 중간(객관적 사실), 안보중시로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호열·박현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협력중시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남북협력 중에서 ‘개성공단’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선정하였으며, 안보중시적인 내용의 측면에서는 군사도발 중에서 ‘연평도 포격’과 ‘핵 실험’을 선정하여 이상의 4가지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A>, <B>, <C> 각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기사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기사 및 사설의 검색어는 ‘남한’, ‘대한민국’, ‘한국’, ‘남측’ 이상 4개이며 전수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된 기사와 사설은 신문과 방송, 매체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D>, <E> 각 방송사의 경우에는 뉴스 보도 전체를 모집단으로 삼았으며, 남북관계를 다룬 내용들을 모두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 수집은 <D>, <E>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위의 신문사(3개)와 더불어 국가명칭의 선호도, 사용횟수, 내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각 언론사별 보도 태도가 협력을 중시하는 것인지, 또는 안보를 중시하는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헌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남북관계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국가명칭 사용, 그리고 주요 학자들의 연구 자료, 국내에서의 언론매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의 보도태도에 따른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각 언론사의 명칭 사용 횟수, 그에 따른 선호도,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태도 등을 시계열 순으로 나타내었다.

각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의 분석(보도량, 보도태도)은 분석 단위를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양적 분석 방법(quantitativ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심층 내용분석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사건,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보도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분석 방법(qualitative analysis)을 각각 채택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제1절 이론적 검토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접근하는 기초 이론은 크게 문화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특정 단어가 특정 집단 혹은 제도에서 더 빈번히 사용된다던가 하는 문제는 그 집단이나 제도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언어란 의식 속에 심상이나 관념을 대리하는 상징으로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적응기제 중 하나이다. 언어발달의 이론<sup>18)</sup>은 행동주의 학습론, 생득이론(츨스키), 사회인지론, 사회문화이론 등이 있다. 이중 대중매체에서 특정언어 및 단어(지칭어)의 권장 사용 및 반복을 통해서 의식에 영향을 준다면, 언어는 순전히 학습의 결과로 획득된다는 행동주의 학습론으로 강하게 지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이 국가명칭의 선별사용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영향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라고 분류한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식의 확립은 대중매체에 의한 사회화<sup>19)</sup>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언론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는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언론이 현실을 사회적으로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sup>20)</sup>

## 1. 문화적 접근

### 1) 문화사회학(Cultural Sociology)과 문화의 사회학(Sociology of Culture)

오늘날 문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 논의들은 문화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사회학(cultural sociology)과 문화의 사회학(sociology of cultur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문화가 하나의 관점인지, 아니면 하나의 하위 영역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논쟁을 반영하는 이분이고 각각은 강한 프로그램과 약한 프로그램

18) 언어발달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 충족, 타인과의 교섭, 주위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정으로 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언어의 발달은 사회성발달을 조장하고 사고발달을 견실하게 한다. 세 번째, 언어는 인간관계를 깊게 하고 문제해결의 도구로서 어린이의 생활영역을 넓힌다. 네 번째, 언어의 발달은 사고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9) 뒤르켐(E. Durkheim)은 교육을 사회화의 과정과 동일시하였고 사회화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대중매체에 의한 사회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식이 나타나게 된다.

- ① 사회구성원에게 공통의식을 갖게 한다.
- ② 경험의 세계의 확장, 사회규범, 관습, 협동심, 관용심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③ 지능과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 ④ 대중매체의 내용과 성향에 따라 사람들의 정서적 불안감이나 성향 등을 유발한다.
- ⑤ 각종 행위의 모방대상이 된다.
- ⑥ 가치관의 형성 및 사회전반에 걸친 분위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 Herbert J. Gans,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9, p.305, Edward Jay Epstein, *News from nowhere: television and the news*. Vintage Books, 1974, p.272.

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문화사회학(cultural sociology)은 사회적 삶의 문화적 차원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명확한 사회적 삶에서 문화적 차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고립시키고 있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과 상징들이 여러 논쟁과 기관의 조직 등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사회적 삶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의 망에 걸려 버린 인간들의 왕성한 행위를 통해 생산되고 또 수용되는 과정을 강조하려는 노력이다. 즉, 문화사회학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면, 문화는 사회적 사건, 행동, 제도 또는 과정들이 인과적으로 엮일 수 있는 권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두껍게 서술될 수 있는, 서술되어야 하는 맥락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문화의 사회학(sociology of culture)은 문화적 대상에 대한 연구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문화적 대상이나 구체화되고 공유된 중요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주로 여러 다른 형태의 예술이나 문학에 관한 연구<sup>22)</sup>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문화의 사회학은 문화를 사회학 내부의 뚜렷하고 자주적인 하위 분야로 보고, 유의미한 사물들이 창조되고, 생산되고, 분배되며, 수용되고, 해석되며 그리고 소비되는 구조적, 역사적 과정을 강조한다.<sup>2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사회학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국가명칭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보도 내용에서 특정 명칭을 선별하여 쓰는지를 찾아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How Culture Works)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문화를 인간, 집단 혹은 제도적 행위의 상징적 측면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상징적 대상들(예술, 문학, 설문, 이념, 광고, 지도, 거리표지

21) Alexander, Jefferey. and Philip. Smith. "The Strong Program in Sociology: Elements of a Cultural Hermeneutics," in J. Turner(ed), Handbook of Sociological Theor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Chap. 7:135-150.(2002).

22) DiMaggio, Paul. "Classification in Ar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440-55.(1987).

23) Bourdieu, Pierre. *Distin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Bourdieu, Pierre. "The Forms of Capital." pp.96-111 in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edited by Richard Swedberg and mark Granovetter. Boulder, CO: Westview.(1986). : 문화가 내재적 방식으로 세계를 형성하는 텍스트를 제공하기보다는 행위자를 위한 전략적 자원, 즉 행위의 외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봤다. Swidler, Ann.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273-286.(1986). : 문화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변형시키기 보다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혹은 레퍼토리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판 등)과 그것들이 사회적 삶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문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주 훌륭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뿐 더러 특정 단어의 사용 등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sup>24)</sup>

결국 문화란 언어나 단어의 선택과 같은 상징들 속에 내재된, 역사적으로 전달되는 의미의 패턴들<sup>25)</sup>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어떻게 해내는지, 인간 집단의 삶의 방식<sup>26)</sup>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행위<sup>27)</sup>들을 독려하고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인간 활동의 상징적 영역<sup>28)</sup>에 다가서는지를 탐구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Ghaziani(2009)는 특정 문맥에서 문화의 한 측면에 몰두함으로써 문화연구에서 측정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한 발짝 다가서고자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조직화에 걸쳐 나타난 내부 갈등이나 ‘내분’을 비교한다.

내분이라는 현상을 통해 그의 문화 개념(집합적 자기-정의의 구성)이 어떻게 일상적인 조직 업무에 밀착되어 나타나는지, 또는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것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다. 본 연구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문화 개념의 활용을 통해 국가의 명칭 표기가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 전달하는지, 또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그런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sup>29)</sup>

24) Lizardo, Omar. "How Cultural Tastes Shape Personal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1: 778-807.(2006).: 문화적 선호 혹은 상징이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문화적 대상을 독립변수로 놓고, 문화적 선호나 상징이 단순히 경제적 혹은 사회적 영역의 무엇인가로 환원되어 버리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25)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1973: 89).

26) Williams, Raymond.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1976).

27) Wuthnow, Robert. *Meaning and moral order: Explorations in cultur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7).

28) Schudson, Michael. "How culture works: perspectives from media studies on the efficacy of symbols." *Theory and Society*, 18: 153-180.(1989).

29) 이와 같이 문화의 구체화를 추구하고자 할 때 방법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징들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주위 환경에 접목하는 것이다(Sewell 1999: 51). 의미들은 사회적 분쟁들을 별도의 조직적 업무들에 위치시킴으로서 더 쉽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이런 작업을, 상충하는 의미의 체계들이 문화연구와 관련된 측정의 문제에 조직적인 활기를 불러오는 필연적인 과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 2. 비고츠키(L.S. Vygotsky):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

### 1) 언어의 중요성

비고츠키에게 있어 언어적 사고(특히, 언어발달과 고등정신 기능)에 따르면, 단순히 지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언어자체가 사고기능을 하는 것이다.

언어가 개인 간 지시기능으로 소통하다가 발달하여 개인내부로 들어가(내적 언어) 상징기능을 하게 되는데 언어가 상징기능을 하게 되면 인간은 일반화, 연역적 추론, 과학적 추론,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추론의 기능들은 언어를 통해 발달하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비고츠키의 인지발달론의 중심은 언어이며,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의 전달, 그리고 사고의 내적 조절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언어가 우리를 실재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언어가 즉각적인 감각이나 지각으로부터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생각들로 반영되어 나타난다.<sup>30)</sup>

비고츠키 이론<sup>31)</sup>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언어 및 사고발달의 개인적 패턴을 언어가 조형되고 사용되는 사회-역사적 맥락(socio-historical contexts)에 관련지어 분석한다는 것이다(John-Steiner, 1990).

비고츠키 이론에서 아동들과 성인들이 개인적 활동에 몰입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 안에는 사회적 시각이 팽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즉, 인지가 사회적인 측면으로부터 개인적인 측면으로 전이된다고 보는 것이다.<sup>32)</sup>

인간의 인지활동의 발현에서 언어의 역할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나타난다. 신호를 통한 중재에서 신호들의 내면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비고츠키는 인간의 심리적 발달은 보다 낮은,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지각, 기억, 주의, 학습의 과정으로부터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신호들 즉, 언어를 통해 조정됨으로써 가능한 고등정신과정으로 전이한다는 것이다.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고등정신기능들은 인간의 생물학에 기인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적 생활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작들, 상징들,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맥락들에서의 행동의 조정자

30) Vygotsky, L. S.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48.(1978).

31)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비고츠키의 이론에 관해서는 김지현, “비고츠키의 지식점유과정과 언어매개기능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2000), p.77을 참조.

32) 이상원, “비고츠키 발달 이론의 초등 도덕과 교육에의 적용방안”,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pp.8-9.



들로서 기여하는 언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국가명칭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 시켜 생각해 본다면 언론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중요성, 그것에 대한 상징적 사고체계의 형성이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sup>33)</sup>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국민(독자 및 시청자)들이 남북관계의 내용을 접하는 도중에 국가명칭(‘남한’, ‘대한민국’, ‘한국’, ‘남측’)에 대한 잠재적인 의식 형성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통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 2)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고<sup>34)</sup>

“인간의 정신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순서화 되고, 체계화 되며, 논리적이며, 목적지향적인 것으로 되어 간다”(Vygotsky, 1987: 15)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비고츠키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고등정신기능(Higher mental functions)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회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문화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체제의 발달의 일부이며 그들의 전제는 한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의 학습을 통해 전수된다. 고등정신기능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면화 된 실제의 사회 행동의 조직 및 수단일 뿐이다”(Vygotsky, 1987: 21).

## 3) 안내된 참여를 통한 교육효과

비고츠키의 아이디어를 계승한 로고프는 근접발달영역에 대한 비고츠키의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서 학습자의 발달이 ‘안내된 참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학습자는 보다 능력 있는 동료 및 선생과 함께 하는 문화적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사고하는 도구, 문제 해결에 대한 더욱 성숙된 접근을 취하는 도구를 내면화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근접발달 영역에서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 학습자가 특정한 문화적 실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행을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대화적 관점은 학습자의 발달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sup>35)</sup>

33)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전체적인 사고(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이후의 정보가 제시되더라도 그 효과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정보 제시 순서의 효과라고 한다.

34) 구광현, “Vygotsky의 언어적 사고발달이론에 대한 소고: 아동의 문자해독 및 글쓰기 지도를 위한 시사점” 대신대학 논문집 제13집(1993) 인문과학편 p.30.

35) B. Rogoff.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on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Y: Oxford

### 3.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이론

츨스키(Chomsky, 1986, 1995)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그리고 두뇌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sup>36)</sup> 즉, 언어와 뇌는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쉬르의 언어기호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쉬르는 인간 사상 속에 언어의 위치를 기호학이라 명명하였다. 기호란 두 가지 측면 ‘기표’와 ‘기의’로 구분한다. 먼저, 기표란 기호의 물질적인 측면이고 오감을 통해 지각 가능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즉 표현된 모든 것은 기표라는 것이다. 기의란 기호의 정신적 개념이다. 즉 기표가 의미하는 바가 기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상호 전제관계이며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용어가 의식에 미치는 영향

기호 속의 발음을 시니피앙, 그 발음에 의해서 생기는 관념적 내용을 시니피에로 간주하였다.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기호는 기표와 기의를 함께 가져야만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기호의 특성인 자의성과 협약적 특성이 드러난다. 지도그림을 보고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것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된 현실로 인해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남한, 한국 등으로 다르게 표현해왔다.

물론 실제로 분단국가이고 외교적으로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라는 명칭을 쓰긴 하지만, 이는 결국 하나의 기표를 보고 하나의 기의를 떠올려 인식의

University Press, p.16.(1990).

36) 이해훈, “화용론”, 한국외대출판부(2009), Yan Huang. p.306.

통일성을 길러야 할 수용자에게 혼란을 주어 한 국가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통일 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미세하게나마 표현 언어를 혼동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언어지식에 대한 기저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즉 통일된 명칭표기의 부재로 인하여 통일 의식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방향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 제2절 분석 대상 및 분석 시기

본 연구에서는 국가명칭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 언론매체를 신문과 방송으로 선정하여 보도내용을 내용분석 하고자 한다. 신문과 방송은 언론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으나, 각 매체가 갖는 특성<sup>37)</sup>에 따라 시청자와 독자에게 같은 사안을 전달하더라도 그 양과 영향력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sup>38)</sup>

〈표 1〉 정보전달에 대한 신문사와 방송사의 특성 비교<sup>39)</sup>

구분	수용자	수용 범위	정보 선택권	정보 반복성	정보 양	전달 방법	메시지 수준	보도 태도
신문사	특정 다수	선별적	수용자 (독자)	재독 가능	비교적 대량	설명식	심층적, 해설적	주관적
방송사	불특정 다수	집단적	전달자	재시청 어려움	대량	주입식	간결, 압축	객관적

일반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와 북한 체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보로의 접근이 제한되어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정보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즉, 언론보도는 제한된 정보원과 국가의 통제를 거쳐 국민들에게

37) 다양한 매체들을 신문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신문은 타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영상이 아닌 문자라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며 의제설정 능력이 타 미디어를 통해서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최영재·최용준·손영준·김상호, “신문열독이 대학생들의 사회지식 습득 및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14호(2009).

38) 박용규, “한국언론의 북한보도 현황과 통일 지향성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논문집」, 제19호(1998).

39) 한국신문협회, “NIE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0-15 보고서」(2010) (재구성).

전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0)</sup> 언론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조사<sup>41)</sup>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의 57.1%가 “언론매체나 강연회 등을 통한 정부의 대 국민 설득노력 강화”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언론은 사회통일교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sup>42)</sup>

### 제3절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언론이 국가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도량을 조사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및 보도량 추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분석기간은 통계자료의 신뢰도와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인의 통일의식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들어 한국인의 통일의식이 급격히 낮아졌다. 국민의 통일의식 변화는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식변화가 급격히 나타난 2008년을 전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권 말기를 시작 시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여에 동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명칭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보도량과 보도태도, 심층 내용분석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도량 및 보도태도는 분석 단위를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양적 분석 방법(quantitativ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심층 내용분석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사건, 시대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보도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분석 방법(qualitative analysis)을 각각

40) 김경희·노기영,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제 55권 1호, 한국언론학회(2011).

41) 민주평통 새 천년 기획 특별설문조사 “2천년 대 통일전망과 주요 정책과제 - 전문가 2백인 대상 설문조사”, 민주평통 자료담당관실(1999).

42) 전백경, “언론의 사회통일교육적 기능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0), pp.13-14.

채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설득력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언론매체별 보도량 추이분석은 분석대상 언론사의 남북관계에 관한 보도를 검색·추출해 그 건수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매체별 보도량은 언론사의 관심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척도<sup>43)</sup>이다. 따라서 이를 비교시킴으로써 언론사들이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독자)들에게 어떠한 분포로써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언론매체별 보도태도 변화 추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언론사가 보도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의 제목과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보도태도 및 국가명칭의 선호도는 언론사별로 차별화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 심층 내용분석은 보도량 분석과 보도태도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내용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은 크게 남북경협과 군사도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요 분석시점 보도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어떤 비중으로 다뤄졌는지, 각 언론사별 보도내용은 어떤 방식을 택하여 보도하였는지, 각 시점별로 언론사는 어떠한 보도태도를 견지하였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언론사별 남북관계 기사에 대한 보도태도의 점수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기사에 대한 보도태도를 협력중시, 중간(객관적 사실), 안보중시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력중시에는 +1점, 중간(객관적 사실)에는 0점, 안보중시에는 -1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먼저 협력중시(+1점)로 구분한 기사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있어 협력중시적 인식을 심어주거나 협력중시적 태도를 담고 있는 기사이다. B신문사의 경우 2009년 11월 27일에 보도한 “남북 개성공단 담당자 20명 내달 함께 중국·베트남 시찰”<sup>44)</sup>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남북 간 합의로 개성공단 사업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관료와 공단 관계자들이 해외 현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함으

43) 윤영철,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의 극복과 언론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소통증진 방안연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09-04(2009).

44) B, “남북 개성공단 담당자 20명 내달 함께 중국·베트남 시찰”, 2009년 11월 27일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895331](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895331)

로써 남북 간 경제협력의 협력중시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D방송사에서 2007년 3월 15일 보도한 “북 외교관, 첫 한국 공관 방문”<sup>45)</sup>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이 공식 업무를 위해 해외 주재 우리 대사관을 방문했음을 보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협력중시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사마다 +1점을 부여하였다.

중간(객관적 사실)·객관(0점)으로 구분한 기사는 남북관계에 있어 남과 북의 입장 및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함으로써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보도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C신문사에서는 2008년 7월 8일 보도한 “북핵 검증체제 구축이 핵심, 북은 상응조치 이행에 관심”<sup>46)</sup>이라는 기사에서는 “한국과 미국 등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 핵신고 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검증 메커니즘 확립 및 검증 일정에 합의하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처의 조속한 완료에 필요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우선 관심사는 불능화와 핵신고의 물질적 상응 조처인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의 조속한 이행 완료를 이끌어내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차례대로 기술함으로써 남과 북의 입장을 균형 있게 분석하였기에 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보중시(-1점)의 기사는 남북관계에 있어 안보중시적 상황 및 전망을 보도함으로써 안보중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이다. 예를 들어 A신문사에서 2010년 8월 9일 보도한 “北 “물리적 대응 타격 빈말 아니다””<sup>47)</sup>라는 기사는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남한에 대한 물리적 타격을 경고하는 북한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면에서도 “역적패당은 오직 불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북한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였기에 -1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E방송사에서는 2012년 3월 14일 보도한 “북 외무성, 남 ‘탈북자 국제쟁점화’ 비난”<sup>48)</sup>이라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 함께 “남측이 떠들던 ‘급변사태’와 ‘불안정설’이 모두 풍비박산 나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45) D, “북 외교관, 첫 한국 공관 방문”, 2007년 3월 15일자.

[http://imnews.iD.com/news/2008/deplom/article/1511217\\_5658.html](http://imnews.iD.com/news/2008/deplom/article/1511217_5658.html)

46) C, “북핵 검증체제 구축이 핵심, 북은 상응조치 이행에 관심”, 2008년 7월 8일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97773.html>

47) A, “北 “물리적 대응 타격 빈말 아니다””, 2010년 8월 9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9/201008090012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9/2010080900125.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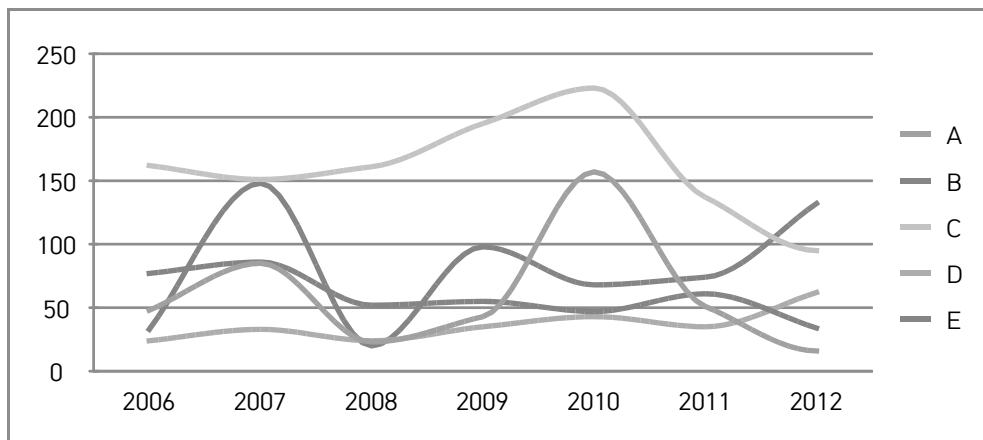
48) E, “북 외무성, 남 ‘탈북자 국제쟁점화’ 비난”, 2012년 3월 14일자.

[http://news.E.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16314](http://news.E.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16314)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는 북한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였기에 -1점을 부여하였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보도량 분석은 ‘남한’, ‘대한민국’, ‘한국’, ‘남측’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렇듯 자료 추출 및 분석은 검색어별로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분석은 ‘국제관계’를 배제시킨 뒤 ‘남북관계’만으로 분석하였다. 국제관계에 대한 국가명칭의 분석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가설처럼 특정 단어의 의미를 통해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나타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분석한 각 언론사의 연도별 보도량 추이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남북관계 분야 검색어, 언론별 보도량(2006~2012년) 추이변화

### 제3장 국가명칭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추이

#### 제1절 언론 매체별 보도량 추이분석

##### 1. 신문사(A·B·C)의 보도량 추이분석

2006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A·B·C신문사의 남북관계에 관련 사안을 다룬 연도별 보도량은 <표 2>와 같다. 해당 기간 동안 세 신문에 보도된 남북관계와 관련된 기사는 총 1,963건에 달한다.

〈표 2〉 국가명칭에 따른 연도별 신문사 보도량

(단위 : 건)

조사년도	언론사명	검색어			
		남한	남측	대한민국	한국
2006	A	9	10	0	39
	B	28	17	33	16
	C	30	175	33	99
2007	A	29	42	3	53
	B	36	13	28	22
	C	51	231	25	75
2008	A	14	28	0	9
	B	17	16	21	14
	C	60	134	14	87
2009	A	24	35	1	18
	B	17	17	23	19
	C	74	111	14	107
2010	A	14	17	128	15
	B	16	22	21	10
	C	76	26	28	119
2011	A	24	12	9	18
	B	28	10	20	13
	C	58	4	15	64
2012	A	4	2	3	9
	B	10	2	4	20
	C	43	0	12	40
총합	A	118	146	144	161
	B	152	97	150	114
	C	392	681	141	591

위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 7년 간 남북관계 분야 관련 사안을 보도한 양은 B신문사 513건, A신문사 569건, C신문사 1,805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가장 많이 보도한 신문사는 C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신문사가 타 신문사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북 관계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신문사와의 보도량 합이 크게 증가와 감소의 수치를 보이는 년도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B신문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폭의 증가와 감소 수치만을 보이며 일정한 수준의 보도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C·A신문사와는 달리 B신문사는 기존 수준의 보도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언론사의 중간(중도)적인 성향과 보도량이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 1) 시기별 남북 관계와 보도량 추이

#### (1) 2006~2007년 분석

2006년은 전반기에 북한 핵무기 문제로 인해 남북 긴장이 고조 되었으나 후반기에 수해 피해로 인한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 분위기가 오르내린 한해였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햇볕정책은 그 결실을 맺어 2007년엔 남북한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이루어져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이 논의 되는 등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한해였다. 2006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C신문사와 B신문사는 큰 증감 없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보도량을 보인다. 반면 A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양에 보도를 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남북한 화해무드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언론의 반작용으로 판단된다.

#### (2) 2008년 분석

2008년 세 신문사의 보도량 총합에 있어서 주목할 만 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각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B신문사는 보도량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A신문사 역시 전년도의 보도량 급증과는 정반대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17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로, 대북 노선의 변화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북한 간 정치적 상황이 경색되었다. 이는 B신문사의 경우 조사 기간 중 가장 큰 변화 폭을 보이며 보도량이 감소했음을 통해 언론에 노출 시킬 만한 남북 간 정치적 사안이나 사건이 적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A신문사의 경우 조사 기간이 반년인 2012년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의 보도량을 보인다. 이는 단순히 남북 간 정치적 사안이나 사건이 적음뿐만 아니라 기존 진보 성향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보수 성향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갈등에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보도함을 자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A신문사와 상이한 성향의 C신문사의 남북관계 보도량이 B신문사

의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했음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 (3) 2009년 분석

PSI갈등 고조와 북측의 개성공단 압박 등 2009년 역시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는 경색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신문사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보도량을 보인 것과 달리 A신문사와 C신문사의 남북관계 관련 사안 보도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C신문사의 경우 전년도 보도량의 소폭증가와 연장 선상에 놓을 수 있다.

반면 A신문사는 전년도와 비슷한 남북 분위기 속에서도 보도량은 오히려 정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대량살상무기 보유로 인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 파괴 무기 확산방지 구상) 갈등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봉쇄와 같은 사안에 맞추어 집권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기 위함으로 분석할 수 있다.

### (4) 2010년 분석

2010년 A신문사와 C신문사는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신문사의 경우 가장 큰 변화량을 보여주며 보도량이 대폭 증가한다. 2010년에는 정부의 기존 대북 강경책의 유지와 함께 남북 갈등이 고조 되었으며 3월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이 침몰하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남북 공동 월드컵 본선진출이 이루어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통해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듯 했으나, 11월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갈등은 다시 한 번 극에 달한다. 인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북한의 도발에 전 국민이 분노했고 이에 맞추어 A신문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C신문사의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과 남북 갈등이 심화 될수록 보도량을 증가시켜 집권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경우 그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의혹을 샀고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갈등을 빚었다. 이는 조사 기간 중 신문 3사의 총 보도량의 가장 많은 것을 통해서 2010년도가 남-북, 남-남 갈등이 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최대의 보도량 속에서도 B신문사는 2009년도 보다 소폭 감소한 보도량으로 신중한 보도 태도를 보인다.

#### (5) 2011~2012년 분석

2011년에는 A·C신문사의 보도량은 대폭 감소했으나 전년도 같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여 2009년도의 보도량과 비교해 보면 A신문사는 소폭 증가, C신문사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갈등고조가 계속 이어진 2011년도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남북의 지속적인 군사적, 정치적 신경전이 진행되었으며, 남북 관계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A신문사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도량이 증가한 경향을 유지하며 집권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C신문사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조사기간 중 가장 적은 보도량을 보여주며, 보도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이어진 보도량의 증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이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대북강경책을 비난하는 신문사의 기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비해 신문 3사의 총 보도량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B신문사의 경우 남북 관계 관련 사안 보도가 소폭 증가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남북갈등이 더욱 심화될 때 오히려 신중하게 보도하는 중도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12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북한 붕괴 등의 상황까지 우려될 정도로 기존 남북 긴장보다 더 큰 긴장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 갈등으로 인한 긴장상황이 아닌 북한 지도자의 급사로 인한 긴장 상황 속에서 A신문사와 B신문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량은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극도의 긴장상황 속에서 신중한 보도 태도를 보여준 B신문사는 오히려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A신문사의 경우에는 B신문사의 보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예측하기 힘든 혼란 상황에서 A신문사는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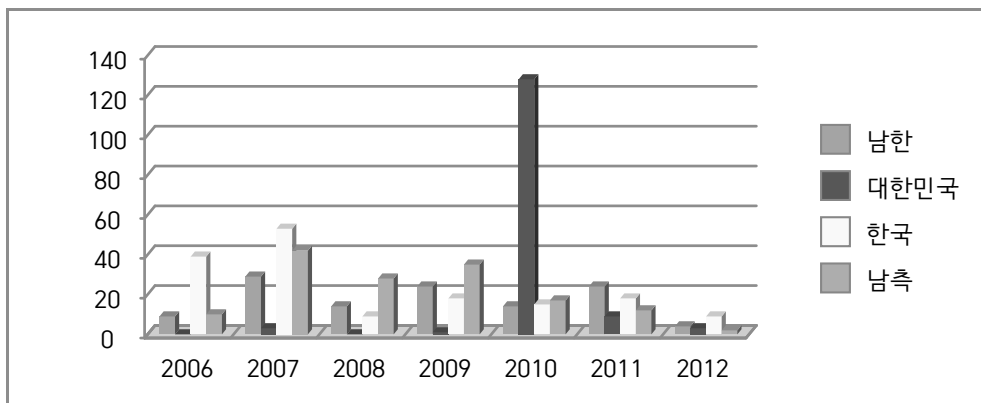
#### 2) 신문사의 남북관계 보도량과 정치성향과의 관계

본 연구를 통해 신문 3사(A·B·C)는 남북관계 관련 사항 보도량을 통해 정치성향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성향과 보도량이 정비례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판단 및 분석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신문사의 보도태도, 그리고 세부적인 보도경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1) A신문사

A신문사의 경우 그 기저에는 보수언론이라는 성향이 짙게 깔려 있으나 집권 정부의 성향과 여론, 남북관계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보도량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노무현 정부 기간이었던 2006년, 2007년과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모두 수시로 보도량의 추이가 변화한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보도량 추이에 특정한 선호 경향을 갖기 보다는 남북관계와 대한민국 내 상황 등 여러 요인 따라 보도량 추이가 신문 3사 중 가장 민감하게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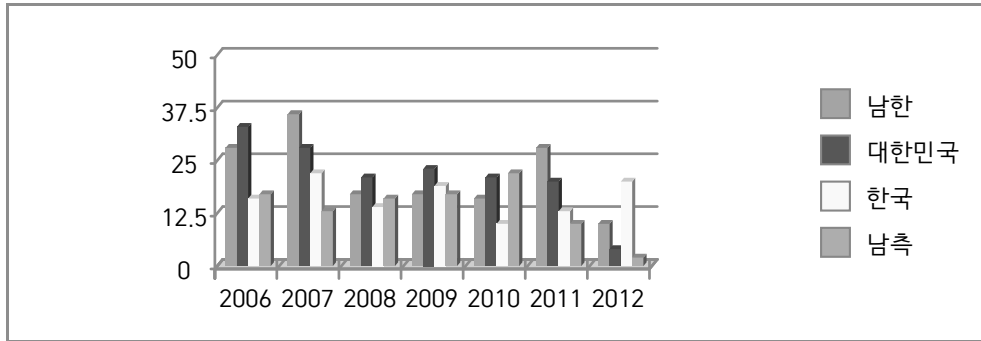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A신문사

<그림 4>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10년에 ‘대한민국’의 사용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보도에서 기존의 ‘한국’, ‘남한’ 또는 ‘남측’ 이라는 명칭 대신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을 제외하면, ‘남한’, ‘한국’, ‘남측’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했다.

#### (2) B신문사

B신문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기존보다 적은 보도량을 보여주지만 변화량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긴장 상황이나 화해 무드 속에서도 A신문사와 C신문사와는 달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매우 신중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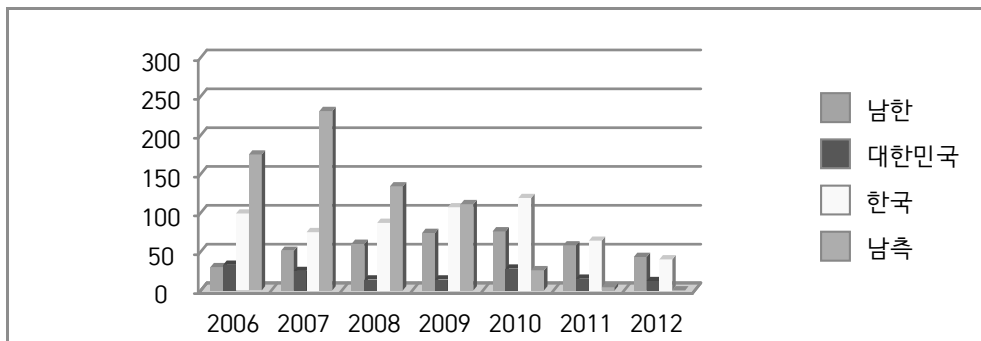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B신문사

B신문사는 보도량의 시기별 큰 변화는 없으나 국가명칭의 사용에 있어 타 언론사들과 비교했을 때, ‘남한’의 사용 비중이 높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시기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1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타 검색어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남측’의 경우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사용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 (3) C신문사

C신문사의 경우 지속적인 남북 갈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던 2011년을 제외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남북관계 관련 사안 보도량이 꾸준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A신문사가 보도량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다양하게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C신문사의 경우는 집권 정부 성향과 국민 여론에 의해서만 보도량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비교적 둔감한 변화를 보여 준다.



〈그림 6〉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C신문사

C신문사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과 2007년에 ‘남측’의 사용 빈도가 다른 검색어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 들어서면서 ‘남측’의 사용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다른 검색어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사용 빈도를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용 빈도가 ‘남한’이나 ‘한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남한’보다 ‘한국’의 사용 빈도가 타 언론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 (4) 신문사 보도량 평가

이상의 세 신문사의 남북관계 관련 사안 보도 추이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기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남북관계 관련 사안 보도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분석 결과이다.

이를 통해 A신문사는 보수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정부 성향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보도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C신문사는 진보적 성향과 함께 정부 성향에 따라 보도 태도 변화가 있다. B신문사는 비교적 일관된 보도 태도를 견지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방송사(D, E)의 보도량 추이분석

D방송사와 E방송사의 보도량 추이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2006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방송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량은 D방송사가 1,293건, E방송사가 1,427건으로 총 2,720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의 보도량은 E방송사가 D방송사에 비해 134건 많이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D방송사와 E방송사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사 기간 동안 방송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량 변화추이는 2007년과 2009년에 증가를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07년 D방송사, E방송사 모두 전년에 비해 보도량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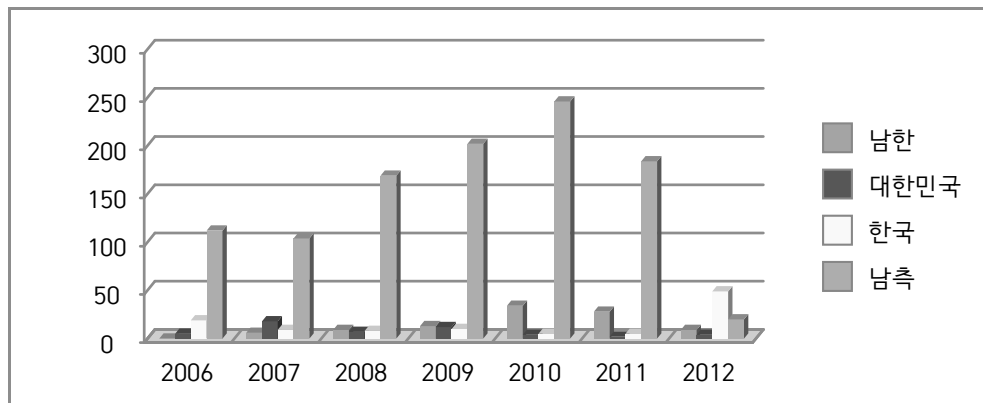
또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북한의 갈등이 지속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도에도 보도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두 시점에서 E방송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보도량이 급증했다.

〈표 3〉 국가명칭에 따른 연도별 방송사 보도량

(단위 : 건)

조사년도	언론사명	검색어			
		남한	남측	대한민국	한국
2006	D	0	112	5	19
	E	18	107	1	14
2007	D	6	104	18	9
	E	127	189	8	13
2008	D	9	169	7	8
	E	7	86	5	8
2009	D	13	202	12	10
	E	48	142	44	6
2010	D	34	246	4	5
	E	22	152	32	14
2011	D	28	184	2	5
	E	42	140	18	49
2012	D	9	20	4	49
	E	68	3	18	46
총합	D	99	1,037	52	105
	E	332	819	126	150

## 1) D방송사 보도 특징



〈그림 7〉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D방송사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의 경우 ‘남측’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에서

D·E 2개 방송사 모두 보도량이 증가했다. ‘남한’,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 특히 2012년 한해를 제외한 조사기간 동안 D방송사의 보도량 증감이 10건 안팎인 점을 볼 때 2012년 30건에 가까운 보도량 증가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로 북한이 전환되는 시점과 맞물려있음을 알 수 있다. D방송사의 보도량 증가가 기존의 증가량에 3배에 달한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남측’의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보도량이 꾸준히 증가 2010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남측’의 보도량은 100건 안팎이었지만 2008년 이후로는 약 1.5배에서 2.5배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2010년 ‘남측’의 보도량이 가장 높다는 점과 20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 상황이 적었던 2011년 ‘남측’의 보도량이 감소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D방송사는 타 언론사들에 비해 시기별로 국가명칭별 사용 빈도의 변동이 심한 편이다. 보도량이 월등히 높은 ‘남측’을 제외하면, 2008년과 2009년에는 ‘남한’, ‘대한민국’, ‘한국’의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하였지만, 2006년과 2012년에는 ‘한국’의 사용 빈도가 타 국가명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반대로 ‘남한’이 타 국가명칭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었다.

## 2) E방송사 보도 특징

분석 결과 E방송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과 그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도량의 증감이 D방송사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D방송사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는 중도적 경향을 보이며 북한의 동향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송사의 보도량 추이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2008년과 2010년에 E방송사의 보도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에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한 해로, 대북정책이 실용정책(강경노선)으로의 변화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점에 D방송사 역시 전년에 보도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E방송사의 경우 D방송사의 4배에 가까운 감소량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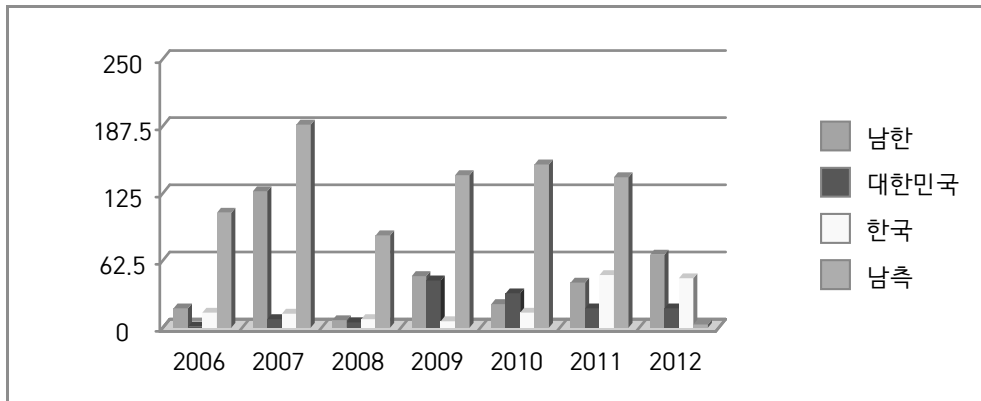
이후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감정과 대북 관계까지 악화된다. 이 시기 D방송사의 남북 관계 관련 보도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과 이후 2011년, 2012년 E방송사의 대북 관계 관련 보도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은 2010년 대폭으로 이루어진 E방송사의 보도량 감소를 더욱 주목하게 한다. 2010년 이후 E방송사의 지속적인 보도량 증가 추세와는 달리 D방송사의 보도량은 감소와 증가를 보여준다.

노무현 정권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통일의 기대감 까지 고조되던 E방송사의 2007년 남북 관계 관련보도는 급증했었다. 2008년 정권 교체 이후에도 E방송사의 남북 관계 관련 보도량은 급증하지만 금강산 피격사건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E방송사의 대북 관계 관련 보도량이 감소한 점은 E방송사의 보도량이 정권의 교체와 함께 그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권 교체가 대북 정책 방향의 전환으로 연결됨을 통해 유추해 볼 때 E방송사는 남북 사이에 특정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관련 보도를 꺼리는 경향과 함께 방송사의 성향과 상관없이 집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합하는 보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연도별 해당 검색어 보도량 - E방송사

D방송사와 마찬가지로 E방송사 역시 ‘남측’의 보도량이 다른 검색어의 보도량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측’ 경우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 보도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측’의 보도량을 제외하고 E방송사의 국가명칭에 따른 연도별 보도량을 보면,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한 ‘남한’의 사용량이 타 국가명칭보다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2007년에는 ‘대한민국’과 ‘한국’을 각각 20회 미만으로 사용한 것에 비하여, ‘남한’을 무려 120회 이상 사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이때의 ‘남측’의 보도량 역시 180회 이상 사용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8년까지는 10회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에 40회가 사용된 후 매년 평균 20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

반면 D방송사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집권 정부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남북관계 관련 보도량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었고 북한 급변사태까지 예상되었던 2012년도의 보도량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방송사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남북 간 사건의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3. 신문·방송사의 보도량 분석

2006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A, B, C 3개 신문사와 D, E 2개 방송사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회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총 5,607건의 보도량 중 신문사가 2,887건, 방송사가 2,720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남북관계 분야 검색어, 언론별 보도량

(단위 : 건)

조사년도	검색어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 총계
		A	B	C	소계	D	E	소계	
2006	남한	9	28	30	67	0	18	18	85
	남측	10	17	175	202	112	107	219	421
	대한민국	0	33	33	66	5	1	6	72
	한국	39	16	99	154	19	14	33	187
2007	남한	29	36	51	116	6	127	133	249
	남측	42	13	231	286	104	189	293	579
	대한민국	3	28	25	56	18	8	26	82
	한국	53	22	75	150	9	13	22	172
2008	남한	14	17	60	91	9	7	16	107
	남측	28	16	134	178	169	86	255	433
	대한민국	0	21	14	35	7	5	12	47
	한국	9	14	87	110	8	8	16	126
2009	남한	24	17	74	115	13	48	61	176
	남측	35	17	111	163	202	142	344	507
	대한민국	1	23	14	38	12	44	56	94
	한국	18	19	107	144	10	6	16	160
2010	남한	14	16	76	106	34	22	56	162
	남측	17	22	26	65	246	152	398	463
	대한민국	128	21	28	177	4	32	36	213
	한국	15	10	119	144	5	14	19	163

조사년도	검색어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 총계
		A	B	C	소계	D	E	소계	
2011	남한	24	28	58	110	28	42	70	180
	남측	12	10	4	26	184	140	324	350
	대한민국	9	20	15	44	2	18	20	64
	한국	18	13	64	95	5	49	54	149
2012	남한	4	10	43	57	9	68	77	134
	남측	2	2	0	4	20	3	23	27
	대한민국	3	4	12	19	4	18	22	41
	한국	9	20	40	69	49	46	95	164
총합	남한	118	152	392	662	99	332	431	1,093
	남측	146	97	681	924	1037	819	1,856	2,780
	대한민국	144	150	141	435	52	126	178	613
	한국	161	114	591	866	105	150	255	1,121

### 1) 신문사 보도량 및 특징

위의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약 7년 간 남북관계 관련 사안 보도 내용 중 국가명칭을 표기함에 있어서 A신문사의 경우 남한 118건, 대한민국 144건, 남측 146건, 한국 161건 순으로 사용하였으며, B신문사의 경우 남측 97건, 한국 114건, 대한민국 150건, 남한 152건 순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C신문사의 경우 대한민국 141건, 남한 392건, 한국 591건 남측 681건 순으로 사용하였다.

보도량이 가장 많은 횟수는 C신문사가 기록하였는데, 이는 다른 두 신문사에 비해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가장 많이 보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용 횟수는 B·A·C 신문사 순으로 C신문사가 가장 적은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C신문사가 남북관계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남한이나 한국, 남측이라는 표기보다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북 관계 관련 사안에 있어 C신문사는 압도적인 보도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표기량은 다른 두 신문사에 비해 가장 적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 A신문사의 경우 남한, 중도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 B신문사의 경우 남측이라는 표기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언론사의 성향과 국가명칭 표기 방법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조사기간 동안 세 신문사가 위에서 분석한 경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었다. 2007년 C신문사의 경우 대한민국과 한국의 표기는 전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남한과 남측의 표기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인 2006년 전반기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후반기에는 대북수해지원을 통해 고조된 긴장이 완화되는 등 남북 분위기가 큰 폭으로 요동치는 한해였다.

반면 2007년은 남북한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성사됨으로써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이 논의 되는 등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한해였다.

B신문사 역시 2006년과 달리 남한이라는 표기 방식을 대한민국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A신문사의 경우 2006년과 표기 횟수의 증가가 보이나 특정한 표기 방법에 변화가 아닌 전체적인 증가로, 경향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남북 관계에 많은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A신문사는 다른 해와 비교해보았을 때 남한의 표기 비중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향과는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2008년에는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북한 간 정치적 상황이 경색되고, 대북 노선이 변화한 시기이다. 따라서 표기 방식의 변화는 기존 진보 성향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보수 성향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A신문사의 변화와 달리 B신문사와 C신문사의 경우 기존 표기 경향을 유지했다.

2009년 C신문사는 2008년보다 남북 관계 관련 기사의 총 수는 증가한 반면, 대한민국의 표기량은 전년과 같아 대한민국이라는 표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기존의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C신문사의 변화와 달리 B신문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표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A신문사는 기존의 경향과 달리 남한의 표기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전체 보도량의 1/3수준으로 2008년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지지 경향을 계속 유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A신문사는 대한민국 표기 횟수가 급증하는 변화를 보인다. 특히, A신문사의 대한민국 총 표기 횟수가 144회인 점을 감안한다면 2010년 128회의 대한민국 표기는 매우 큰 변화임을 의미한다. 2010년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sup>49)</sup> 정부의 기존 대북 강경책의 유지와 함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여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후 11월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갈등은 다시

49) 본 논문 p.14 부연 설명 참조.

한 번 극에 달한다. 이는 2008년, 2009년도 A신문사의 남한 표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향과 반대로 남한 표기가 감소하고 대한민국 표기가 증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A신문사의 변화와는 달리 C·B신문사는 기존의 경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B신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슷한 경향의 표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남측의 표기량이 가장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A신문사가 보여주는 변화와 비교한다면 정권교체 이후 2008년부터 이어진 경색된 남북관계의 표기 태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신중한 모습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갈등고조는 2011년도까지 이어진다. 남북의 지속적인 신경전과 과거 보다 후퇴한 모습의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정치권과 사회에서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가 필요했던 2008년, 2009년과 같이 A신문사는 남한의 표기 횟수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C신문사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한과 대한민국의 표기 감소량보다 한국의 표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C신문사와 A신문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B신문사는 남측의 표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기존의 보도 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은 계속 되고 있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기존 남북 긴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 속에서 B신문사의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B신문사는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남한과 대한민국에 비해 한국을 적게 사용하는 일관된 표기 경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을 대한민국이나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표기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남북 상황이 예측하기 힘든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과거 민감하게 변화했던 C신문사는 기존의 경향을 유지했다. A신문사는 전년도 남한의 표기 횟수가 증가한 것과 반대로 남한의 표기 횟수는 줄고 한국의 표기 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A신문사는 본 연구에서 남한이라는 표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전체적인 경향은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명칭표기의 방식이 기존의 경향과 반대로 나타나는 등 가장 민감하게 변화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등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마다 명칭 표기의 방식이 전체적인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

다. 특히 그 변화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뚜렷하다. 즉 A신문사는 표기 방식의 전체전인 선호 경향과 함께 국민 정서와 이명박 정부 입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국가명칭을 표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따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국가명칭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A신문사가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존의 표기 경향을 반대로 하는 것과 달리, C신문사의 경우 대한민국을 선호하지 않는 기존의 표기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함으로써 민감한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A신문사가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시기에 변화가 민감한 것과 달리, C신문사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과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였던 2009년도에 변화를 보여 줌으로써 진보 정권에서 민감하게 변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B신문사의 경우 남북관계가 가장 악화되었던 2010년과 남북관계를 예측하기 힘든 시기인 2012년을 제외하면 남측과 한국을 선호하지 않는 표기 방식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남북관계 변화에 둔감한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이 대한민국의 약칭의 표현(약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으로 국가명칭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세 신문사의 국가명칭 표기 추이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명칭 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분석 결과이다. 이를 통해 A신문사는 보수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정부 입장에 맞춰 표기 방식을 사용하며, C신문사는 때에 따라 기존의 표기 방식을 더욱 강화하며, B신문사는 비교적 일관된 표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방송사 보도량 및 특징

E방송사와 D방송사의 국가명칭 표기 추이를 파악한 결과는 앞의 <표 4>와 같다. 2006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방송사의 국가명칭 표기 방식에 있어서 E방송사의 경우 대한민국 126건, 한국 150건, 남한 332건, 남측 819건 순으로 사용하였으며, D방송사의 경우 대한민국 52건, 남한 99건, 한국 105건, 남측 1,037건 순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조사기간 중 남측의 사용 횟수이다. D방송사의 경우 남측의 사용 비율은 80%, E방송사의 경우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방송사 모두 남측의 사용을 매우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측의 표기량을 제외한다면 조사기간 중 D방송사의 경우 남한과 한국의

사용횟수가 비슷한 가운데 대한민국 사용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으며, E방송사의 경우 대한민국과 한국의 사용량이 비슷한 가운데 남한을 가장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기량에 있어서 남측과 나머지 명칭에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남측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의 표기량을 살펴보면, 조사기간 동안 두 방송사는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따라 명칭 사용에 있어 때로는 전체적 사용 경향에 맞추어, 때로는 전체적 사용 경향과 다른 변화가 있었다.

2007년 E방송사는 2006년에 비해 남한의 표기가 대폭 증가했다. 대한민국과 한국의 표기량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남한의 표기량만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비록 적은 양이지만 D방송사의 경우 전년에 남한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6번의 남한 표기량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2006년은 남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오르내린 한해였다.

반면에 2007년은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확대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통일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진 한 해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6년 D방송사와 E방송사의 대한민국과 한국의 사용량이 2007년과 큰 변화가 없음에도 E방송사의 남한 표기량의 대폭 증가와 D방송사의 남한 표기량이 소폭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대북 정책 노선이 바뀌고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기였다. 이러한 남북 상황을 반영하듯 두 방송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는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2007년 E방송사의 남한 표기 횟수가 127건에서 2008년 7건으로 대폭 줄어든 경향을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2009년 D방송사는 2008년과 같이 세 표기량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E방송사의 경우 한국의 표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대한민국의 표기량은 대폭 증가했으며, 남측의 사용량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E방송사는 남측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남한과 대한민국의 표기량이 비슷함을 확인 할 수 있다.

2008년에는 PSI갈등과 개성공단 사태 등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냉각 상태는 2009년도에도 이어진다. 이렇듯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인해 냉각된 남북관계와 E신문사의 국가명칭 표기량이 E신문사의 전체적인 표기 경향과 다른 것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방송사의 표기량이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2010년의 남북

정세가 2009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D방송사의 남한 표기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D방송사의 네 가지 국가 표기 방식에 큰 호불호가 없었던 점을 비추어 본다면 D방송사의 남한 표기량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의 남북 긴장 상태는 2011년도에도 계속된다. 이는 D방송사가 전년과 같은 경향의 표기량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E방송사의 경우 변화를 보이는데 2010년 한국의 표기량이 가장 적었던 것과 달리 2011년 대한민국의 표기량이 가장 적어진다. 하지만 한국이 대한민국의 약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E방송사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남북 긴장상태가 계속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로 인해 남북 긴장상태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긴장상태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몇 년간 유지해 왔던 국가명칭 표기량에 변화를 준다. D방송사의 경우 2010년, 2011년 동안 가장 선호한 표기 방식이 남한이었던 반면 2012년에 들어 한국의 표기량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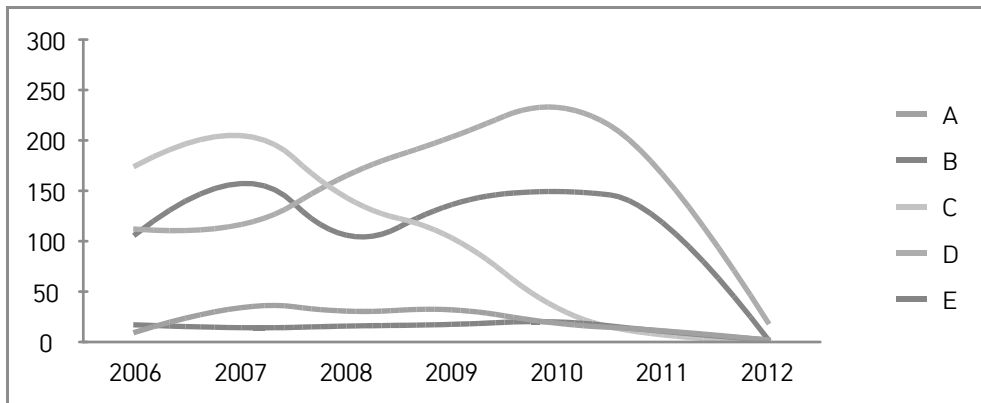
특히 2012년 조사기간이 다른 해와는 달리 반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표기량을 보인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E방송사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한국의 표기량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표기량은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의 남북긴장은 기존의 군사적 충돌이나 정치적 대립과는 달리 북한 체제가 무너지거나 제2의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sup>50)</sup>되며, 이전의 표기량을 뒤엎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E방송사의 경우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상황 보다는 집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은 2007년의 경우 남한 표기량이 급증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역효과를 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는 남한과 대한민국 또는 남한과 한국을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표기함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대북 정책과는 무관하게 남북 긴장이 고조된 2012년도에는 E방송사의 전체 표기량과 비슷한 경향의 표기량을 보여줌으로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실시 하고 있다. 즉 E의 경우 특별히 어떤 표기 방법을 선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권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명칭을 표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0) 문화일보, “김정은 실재적 통치 어려워 내분-대외도발 가능성 상존” 2012년 1월 6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106010332321110030>



D방송사는 2006년 한 번도 표기하지 않았던 남한을 2007년에는 사용하는 등, E방송사와는 달리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상황에 따라 표기량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8년, 2009년도에는 네 가지 국가명칭 표기량이 비슷하게 나타나 경색된 남북관계에 맞추어 명칭 표기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군사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나빠진 2010년과 2011년도에는 남한의 표기량이 급증한다. 또한 김정일 급사로 인해 남북 긴장이 고조된 2012년도에는 한국의 표기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D방송사는 남북 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국가명칭을 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남측’ 검색어, 언론별 보도량(2006~2012년) 추이변화

다음으로 압도적인 표기량을 보이는 남측을 살펴보면 위의 <그림 9>와 같다. 흥미로운 점은 보도량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문사가 ‘남한’, ‘대한민국’, ‘한국’의 표기량은 방송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표기량은 반대로 압도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남북관계의 내용 보도에 있어서 정치색이 신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되는 방송사의 특징과 ‘남측’이라는 국가명칭이 다른 국가 명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징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방송사는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상황에 따라 표기량의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앞서 살펴보았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2007년도에는 남측의 표기량이 증가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전년과 상황이 달라진

2008년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북 긴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2009년에는 표기량이 증가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2010년에는 표기량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한편, 20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 상황이 적었던 2011년에는 남측 표기량이 다시 한 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남북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국가명칭을 표기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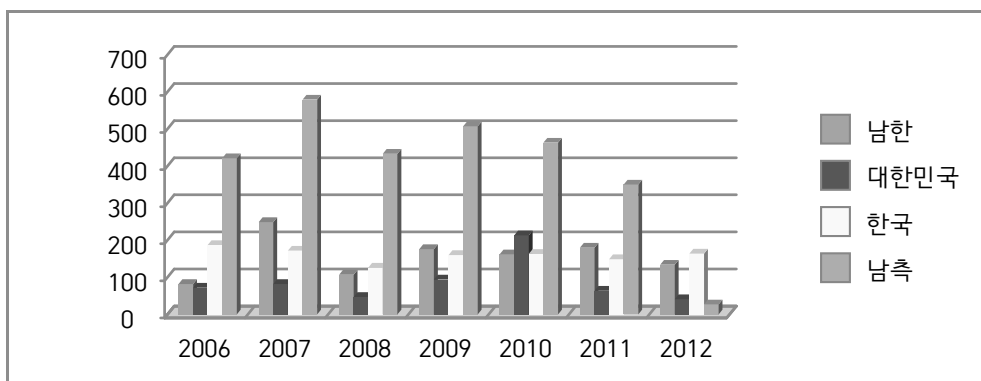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두 방송사의 국가명칭 표기 추이는 방송사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명칭 표기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보다는 두 방송사가 남북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어떠한 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에 따라 두 방송사는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남북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경향에 맞추어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 (1) 시기별 각 언론사의 보도량 비교 분석

언론사의 남북관계 관련 기사 및 뉴스의 연도별 보도량을 종합하면 <그림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앞서 분석한 결과 남북 관련 주요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신문과 방송의 보도량 변화 추이가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08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언론사의 보도량 변화 추이가 뚜렷이 나타남으로 2008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2008년 이전인 2006년과 2007년은 노무현 정부의 집권시기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유지, 실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호조를 유지했고 2007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절정에 이른다.



<그림 10> 연도별 검색어 보도량 - 종합

이에 따라 2007년 언론사들의 보도량은 2006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세부적인 언론사별 보도량 추이는 조금씩 다르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대북정책 노선이 변화하고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언론사의 남북관계 관련 사안 보도량은 전과 달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보도량이 급감한 수치를 보인다. 역시 세부적인 언론사별 보도량 추이는 조금씩 다르나 D신문사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관계 관련 보도량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이전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보도량 증가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2007년 이전부터 남북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해 2007년 그 절정에 다다랐다면 2008년부터 2010년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2010년 그 절정에 다다른 시기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대남도발과 대한민국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왔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보도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모든 언론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를 2008년과 비교하면 대부분 언론사의 보도량이 증가하는데 C신문사만 2008년에 비해 보도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0년에 비해 2011년의 보도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B신문사와 E방송사의 경우 오히려 보도량이 증가하여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조사기간이 반년인 것을 고려할 때 2011년과 보도량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정일 사망 이후 남북관계가 예측하기 힘든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 (2) 각 언론사 보도량 변화 추이 비교에서 나타난 특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언론사의 보도량 변화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신문사와 D방송사는 타 언론사에 비해 주요 사건에 따른 보도량 변화가 둔감하게 나타났다. 이는 B신문사와 D방송사가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언론사의 성향보다는 남북 간 사건의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보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A신문사와 E방송사의 경우 보도량 추이에 있어서 굉장히 유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두 언론사는 집권 정부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도량 추이가 달라지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A신문사의 경우 보수언론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그 추이가 달라지나 E방송사의 경우에는 집권 정부의 성향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집권 정부의 성향에 맞는 보도를 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C신문사의 경우 위의 두 경우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대북 기초를 보여주지만 국민 여론에 의해서도 보도량 추이가 변화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언론사별 보도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C신문사는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B신문사와 A신문사는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대해 서로 비슷한 정도로 C신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단, A신문사의 경우 시대상황과 사안에 따라 보도량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B신문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비슷한 보도량의 추이를 보였다. 방송사의 경우, E방송사가 D방송사보다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방송사의 경우에는 시대상황과 사안에 따라 보도량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D방송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도량 추이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제2절 언론 매체별 보도태도 추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가명칭에 관한 언론매체별 보도태도 변화 추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도량 분석에 이어 보도태도의 변화 추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언론매체들의 남북관련 보도에 대한 태도를 협력중시, 안보중시, 중간(객관적 사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검색어 가운데 ‘남한’을 예로 들자면, 협력중시적 태도를 보인 신문사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 협력 사업 후속 조치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안에 대해 보도”한 A신문사의 보도<sup>51)</sup>,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 문제에 대해 남측 못지않은 비난을 쏟아낸 북한 측 입장”을 전한 B신문사의 보도<sup>52)</sup>, C신문사에서 보도했던 “2007년 정상회담에서의 남북 여성 지도자

51) A, “2007 남북정상선언/경협 구체안 속속 발표(안변단지 건설 사업, 대우조선이 맡는다)”, 2007년 10월 6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06/200710060000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06/2007100600007.html)

52) B, “北 '독도는 겨레의 영토'...南과 한 목소리”, 2011년 8월 1일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882882](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882882).

간담회”<sup>53)</sup>를 예로 들 수 있다.

방송사 보도의 예로써는 D방송사의 “김정일, 남한행 가스관 통과 허용”<sup>54)</sup>과 E방송사의 “대북 밀가루 지원 관련 보도”<sup>55)</sup>를 ‘남한’으로 검색한 협력중시적 태도 보도의 예로 분류하였다.

안보중시적 태도의 보도 예로써는 “NLL의 재설정을 요구하며 철도시험운행을 일방 취소한 북한의 태도”를 다룬 A신문사의 보도<sup>56)</sup>와 남한의 “대량 파괴 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참여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다룬 B신문사와 C신문사의 보도<sup>57)</sup>가 있으며,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남한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북한 언론의 태도”를 다룬 D방송사의 보도<sup>58)</sup>와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표적지 사용 문제”를 다룬 E방송사의 보도<sup>59)</sup>가 있다.

중간(객관적 사실)적 태도의 보도 예로써는 A신문사의 “남북 간 모스크바에서의 외교전 보도”<sup>60)</sup>와 B에서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 보도<sup>61)</sup>, C신문사의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결렬” 보도<sup>62)</sup>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남북 의회대표단 간의 논쟁”을 다룬 D방송사의 보도<sup>63)</sup>와 “김정일 사망 후 붉어진 조의 방문 문제”를 다룬 E방송사의 보도<sup>64)</sup>가 있다.

53) C, “서울과 평양 참 가까워...환대에 감사”, 2007년 10월 2일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40183.html>

54) D, “김정일, 남한행 가스관 통과 허용”, 2011년 8월 27일자.

[http://imnews.iD.com/news/2011/society/article/2914822\\_8452.html](http://imnews.iD.com/news/2011/society/article/2914822_8452.html)

55) E, “김정일 사후 첫 대북 밀가루 지원”, 2012년 1월 20일자.

[http://news.E.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71276](http://news.E.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71276)

56) A, “철도시험운행 일방 취소”, 2006년 5월 25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25/200605257005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25/2006052570059.html)

57) B, “北신문, 南 PSI 참여시 강경 대응 시사”, 2008년 1월 28일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24997](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24997)

C, “북 “서해 안전향해 담보 못해”, 2009년 5월 27일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57320.html>

58) D, “北신문, 南 인권문제 제기는 도발”, 2008년 11월 25일자.

[http://imnews.iD.com/news/2009/deplom/article/2244443\\_5625.html](http://imnews.iD.com/news/2009/deplom/article/2244443_5625.html)

59) E, “북, 김정일 표적지 사용에 “전면적 군사보복””, 2011년 6월 4일자.

[http://news.E.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25142](http://news.E.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25142)

60) A, “모스크바로 달려가는 남·북 외교 당국자들”, 2010년 12월 14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4/201012140006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4/2010121400065.html)

61) B, “李대통령, 서울 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 2008년 4월 1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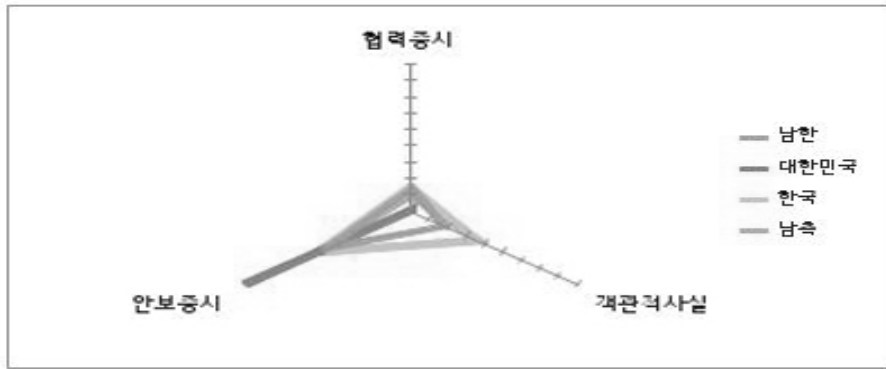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115720](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115720)

62) C,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 성과 없이 끝나”, 2009년 3월 2일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41789.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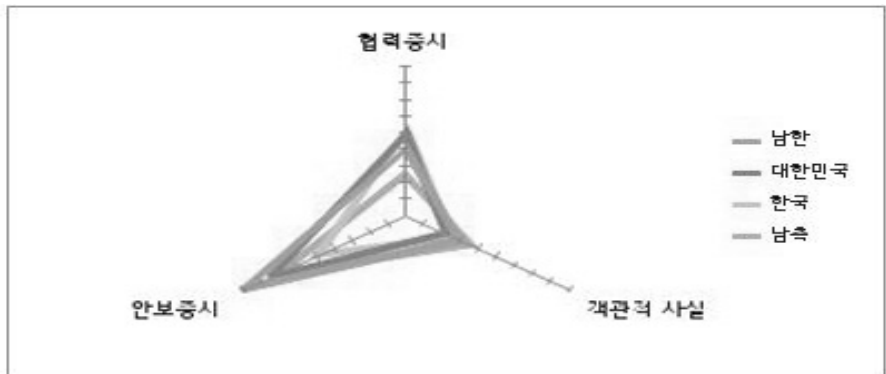
63) D, “남북 의회대표단, 광명성3호 발사 놓고 ‘실전’”, 2012년 4월 4일자.

[http://imnews.iD.com/news/2012/politic/article/3043341\\_10152.html](http://imnews.iD.com/news/2012/politic/article/3043341_10152.html)



〈그림 11〉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A신문사

A신문사의 남북관계 관련 기사에서 ‘남한’, ‘대한민국’, ‘한국’, ‘남측’의 사용빈도는 타 언론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도태도는 대체로 협력증시, 안보증시, 중간(객관적 사실)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보도의 영향으로 인해 극단적인 안보증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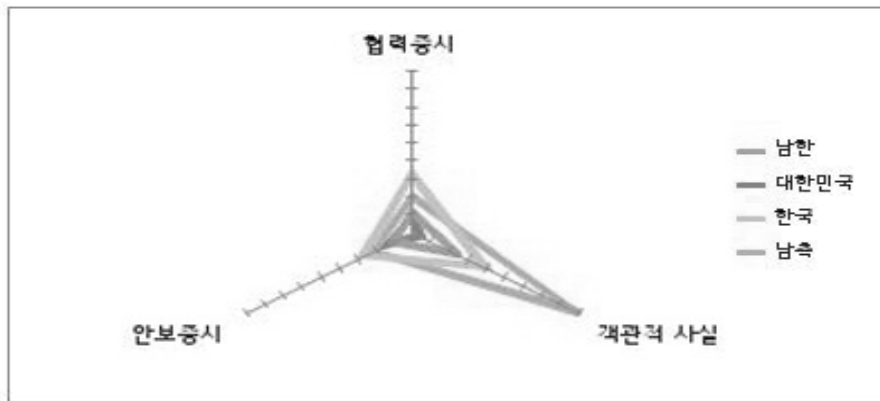


〈그림 12〉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B신문사

B신문사의 각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검색어에서 안보증시적 의미의 기사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협력증시적 의미로 검색되는 경우가 중간(객관적 사실)적 의미로 검색되는 경우보다 많았

64) E, “북 “남측 조문 모두 수용”...남 “원칙 지킨다””, 2011년 12월 24일자.  
[http://news.E.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52116](http://news.E.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5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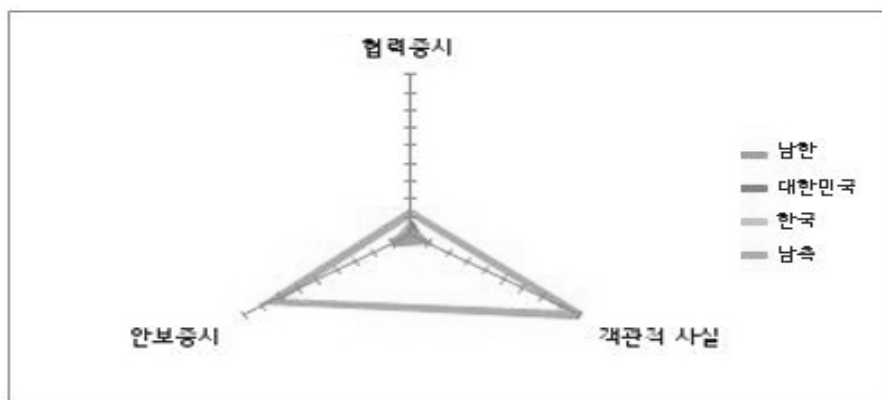
다. 하지만 ‘한국’ 검색어는 협력중시적 의미로 사용된 빈도와 안보중시적 의미로 사용된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C신문사

C신문사의 검색어별 보도 태도 비중을 보면, ‘한국’의 경우 협력중시적, 안보중시적 그리고 중간(객관적 사실)적 태도로 고르게 사용되었다. ‘남한’의 경우 대체적으로 협력중시적인 의미와 안보중시적 의미의 기사에 사용되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C신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타 언론사에 비해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거의 안보중시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남측’의 경우 다른 신문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기량을 보여주며, 주로 중간(객관적 사실)적 태도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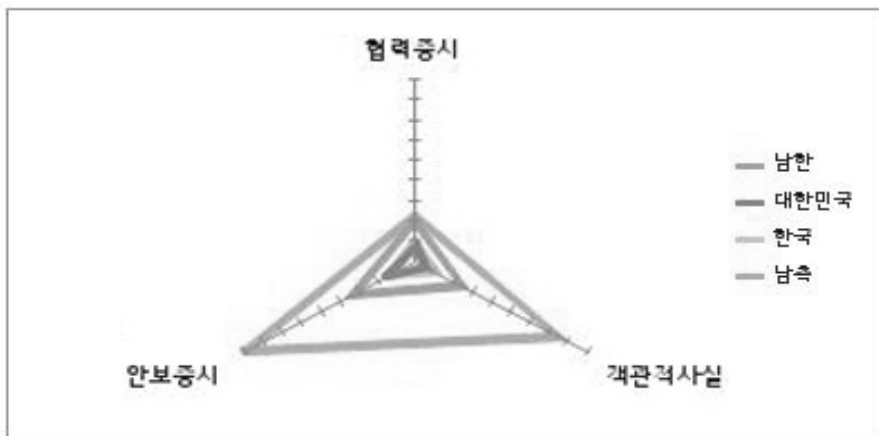


〈그림 14〉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D방송사

D방송사의 각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 검색어의 경우 협력중시, 중간(객관적 사실), 안보중시적 의미로 고르게 사용되었으며, ‘남한’ 검색어는 대체로 안보중시적 의미와 중간(객관적 사실)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협력중시적으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우 협력중시적 의미와 안보중시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간(객관적 사실)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다른 두 가지 보도 태도에 절반 정도만 사용되었다.

특히 ‘남측’의 경우 다른 명칭과 비교 했을 때 압도적인 표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남측’의 표기 비중은 안보중시적 의미와 중간(객관적 사실)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림 15〉 검색어별 보도의 태도 비중 - E방송사

E방송사의 각 검색어 별 보도 태도 비중을 살펴보면, ‘남측’ 검색어가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 ‘남측’의 경우 D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안보중시적 의미와 중간(객관적 사실)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남한’은 전반적으로 안보중시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협력중시적 의미와 중간(객관적 사실)적 의미로 사용된 비중은 비슷하다. ‘대한민국’과 ‘한국’ 검색어는 ‘남한’ 검색어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검색되었다. ‘한국’의 경우 협력중시적, 안보중시적 그리고 중간(객관적 사실)적 의미가 고르게 분포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우 주로 안보중시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제3절 심층 내용분석

언론의 국가명칭에 대한 선택적 사용이 통일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언론사의 국가명칭별 보도량과 보도태도를 계량화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진행한 양적 분석으로 추이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고려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주요 이슈인 남북협력과 군사도발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성공단’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하 정상회담)은 남북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남북관계의 협력중시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더욱이 단순한 동포애나 당위성에 의한 관계 개선이 아닌 상생과 상호간 발전을 위한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핵 실험’과 ‘연평도 포격’은 군사도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관계의 안보중시적인 측면을 단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4가지의 큰 사건은 언론사의 논조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북관계에 한하여 대척점에 있는 이슈를 각각 2가지씩 선정한 뒤, 보도량을 언론사 별로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군사도발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와 국제 및 국내사회의 여론이 일관되게 비판적이며, 군사도발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밖에 보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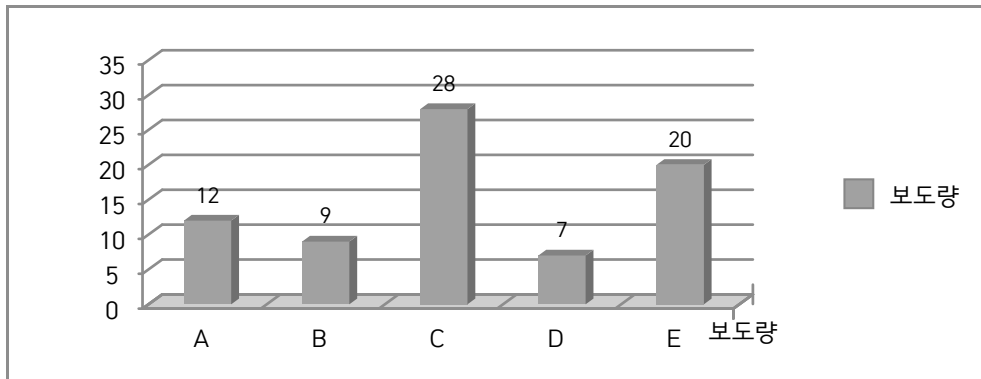
따라서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협력중시적 보도와 안보중시적 보도, 객관적 사실 보도 혹은 혼재형 보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남북협력 중에서도 특히 ‘개성공단’에 관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1. 남북협력

남북관계<sup>65)</sup>의 관계증진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경협’과 ‘정상회담’이다. A·B·C 이상 3개 신문사와 D·E 이상 2개 방송사가 남북관계 관련해 보도한 방송 혹은 기사 중 남북경협에 대한 것은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언론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 중 남북경협에 대한 보도량을 별도로 분류하면 다음 <그림

65) 일반적으로 ‘남북관계’ 개념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의 남북관계, 즉 ‘남북협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6> '06~12' 남북경협 관련 보도태도의 비중

남북관계에 관한 보도 중 남북경협에 대한 보도는 A신문사 12건, B신문사 7건, C신문사 28건, D방송사 7건, E방송사 20건에 그쳤다. 이는 각 언론이 협력중시적 남북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남북경협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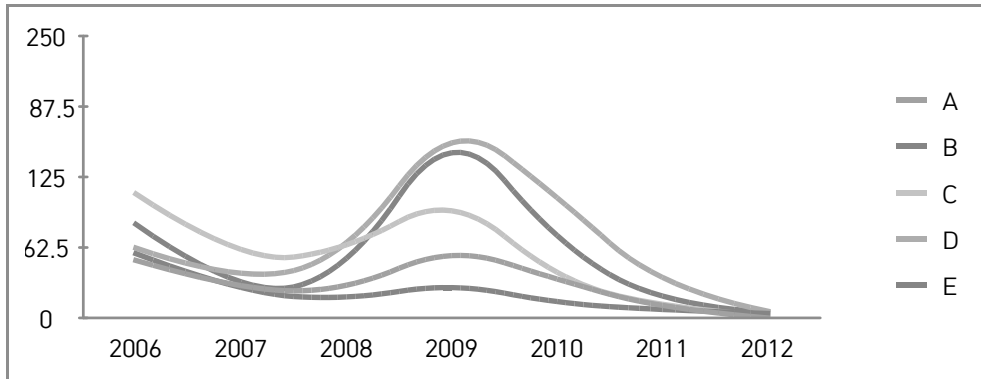
신문사들이 보도한 남북경협 관련 기사의 보도량에 있어 A신문사와 B신문사의 보도 빈도가 보도 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C신문사의 약 1/2 수준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도를 적게 내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에서는 E방송사가 D방송사의 약 두 배 이상의 보도량을 나타내고 있어 E방송사가 D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경협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1) 개성공단

‘개성’ 검색어 보도량 추이는 아래의 <그림 17>과 같다. 검색어 ‘개성’의 경우 언론사의 보도량 추이는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이유로 설명 할 수 있다. 먼저 ‘개성’이라는 검색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개성’의 경우 일반적인 남북관계 관련 보도에서 보다는 개성공단 관련 사태와 같이, 특정 보도에서 주로 언급 된다. 따라서 전체 언론사들의 보도 추이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압박을 가했던 2009년도에 ‘개성’ 검색어 보도량이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도별 수치는 신문사(A, B, C)에 비해 방송사(C, D)가 더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문사 중에서는 C가 다른 신문사에 비해 큰 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06~12' 개성 검색어 보도량 추이

심층 분석을 위해 언론사 별로 '개성'에 대한 부정적 보도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나타나 있다.

부정적 보도지수의 총합을 살펴보면 E방송사(40.0%), A신문사(38.0%), C신문사(19.0%), D방송사(12.0%), B신문사(3.0%)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중에서는 A신문사가 부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송사 중에서는 E방송사가 '개성공단'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신문사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2007년과 2011년을 제외하면 모두 양수를 기록, 개성공단에 관해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은 남북한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화해무드가 최고조에 달한 해였다.

또한 2008년 집권정부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 성향으로 바뀌면서 부정적 보도지수는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에 들어 부정적 보도지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 2011년도에는 음수를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

〈표 5〉 '06~12' 언론사별 검색어 '개성' 부정적 보도지수

검색어	인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합
A신문사	긍정	13	18	2	6	6	6	0	51
	중간	10	1	3	4	6	1	0	25
	부정	28	5	19	54	22	1	0	129
	점수	15	-13	17	48	16	-5	0	78
	<b>부정적 보도지수</b>	<b>29%</b>	<b>-54%</b>	<b>71%</b>	<b>75%</b>	<b>47%</b>	<b>-63%</b>	<b>0%</b>	<b>38%</b>
B신문사	긍정	15	14	6	7	1	5	3	51
	중간	25	6	3	2	7	1	0	44
	부정	17	2	7	22	5	1	1	55
	점수	2	-12	1	15	4	-4	-2	4
	<b>부정적 보도지수</b>	<b>4%</b>	<b>-55%</b>	<b>6%</b>	<b>48%</b>	<b>31%</b>	<b>-57%</b>	<b>-50%</b>	<b>3%</b>
C신문사	긍정	31	21	5	7	0	2	0	66
	중간	47	20	8	57	30	7	2	171
	부정	32	7	47	47	4	0	0	137
	점수	1	-14	42	40	4	-2	0	71
	<b>부정적 보도지수</b>	<b>1.0%</b>	<b>29.0%</b>	<b>70.0%</b>	<b>36.0%</b>	<b>12.0%</b>	<b>-22.0%</b>	<b>0%</b>	<b>19.0%</b>
D방송사	긍정	13	5	1	37	7	4	0	67
	중간	39	24	34	84	72	18	6	277
	부정	10	1	19	59	29	3	0	121
	점수	-3	-4	18	22	22	-1	0	54
	<b>부정적 보도지수</b>	<b>-5.0%</b>	<b>-13.0%</b>	<b>33%</b>	<b>12%</b>	<b>20.0%</b>	<b>-4.0%</b>	<b>0%</b>	<b>12.0%</b>
E방송사	긍정	11	5	1	27	6	2	2	54
	중간	14	10	7	41	29	9	1	111
	부정	22	2	30	110	31	0	2	197
	점수	11	-3	29	83	25	-2	0	143
	<b>부정적 보도지수</b>	<b>23.0%</b>	<b>-18.0%</b>	<b>76%</b>	<b>47%</b>	<b>38.0%</b>	<b>-18.0%</b>	<b>0%</b>	<b>40.0%</b>

B신문사의 경우 조사 언론사 중 가장 낮은 부정적 보도지수의 총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0%를 상회하는 부정적 보도지수를 보이거나, 높은 음수와 양수를 오르내리는 지수를 보여준다. 이는 B신문사가 비교적 중간(중도) 입장을 견지한 채 개성공단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해당 사안에 맞추어 보도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C신문사의 경우 19.0%의 부정적 보도지수의 총합을 보이고 있다. C신문사의 결과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08년 29.0%의 부정적 보도 지수 이다. 해당 년도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해다. 따라서 2008년 C신문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가 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29.0%의 부정적 보도지수를 기록한 것은 C신문사가 남북분위기나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에 대해 객관적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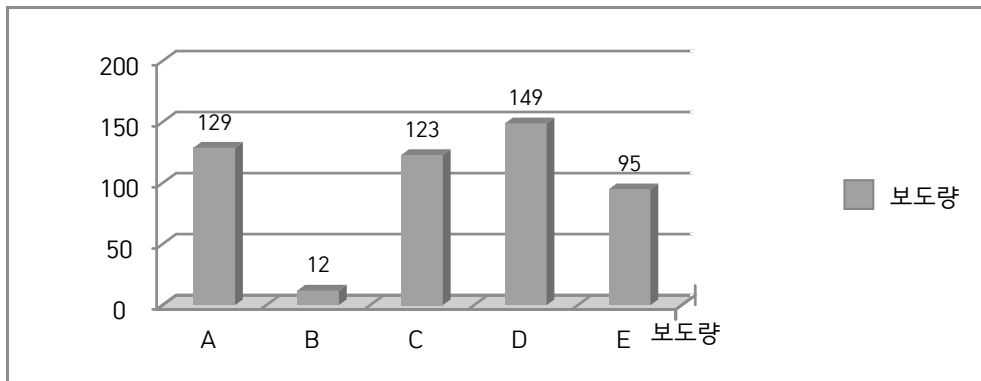
D방송사의 경우 12.0%라는 낮은 양수의 부정적 보도지수 총합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0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2010년 까지 부정적 보도지수는 양수를 기록한다. 상대적으로 갈등상황이 2010년에 비해 적었던 2011년도와 김정일 급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혼란스러웠던 2012년은 -4.0%와 0%를 각각 보여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두 특징을 통해 D방송사의 경우 방송사나 집권정부의 정치 성향보다는 남북 간 사건의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방송사의 경우 부정적 보도 지수의 총합이 40.0%로 조사 언론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음수를 기록한 2007년과는 달리 전년인 2006년의 경우 23.0%로 높은 부정적 보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수 성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8년부터는 매우 높은 양수의 부정적 보도 지수를 기록한다. 특히 남북 관계는 2008년 이후 2010년 까지 점점 악화되는데 부정적 보도지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진보성향의 정부 집권시기에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 보수성향의 정부 집권시기에는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 부정적 보도지수가 낮아지는 형태로 E방송사의 경우 집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부합하는 형식의 보도 태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 2) 정상회담

다음으로는 정상회담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A·B·C 이상 3개 신문사와 D·E

이상 2개 방송사가 남북관계 관련해 보도한 방송 혹은 기사 중 정상회담 대한 것은 남북경협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언론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 중 남북경협에 대한 보도량을 별도로 분류하면 다음 <그림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8> '06~12' 정상회담 관련 보도태도의 비중

남북관계에 관련한 보도 중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는 A신문사 129건, B신문사 12건, C신문사 123건, D방송사 149건, E방송사 95건에 달했다. 이는 남북경협 관련 기사 보도량 대비 A신문사 10.8배, B신문사 1.3배, C신문사 4.4배, D방송사 21.3배, E방송사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각 언론이 남북 경협에 비해 정상회담에 갖는 관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회담 관련 기사 보도량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은 남북경협에 비해 정상회담이 좀 더 높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고, 이에 따라 남북 경협에 비해 높은 보도량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보도량을 95건에서 149건까지 보여주는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B신문사의 경우 12건의 보도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A신문사와 C신문사가 비슷한 수준의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B언론사가 정상회담 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사에서는 D방송사가 조사 언론사들 중 가장 높은 보도량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E방송사의 경우 B신문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남북경협과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가장 협력중시적인 측면으로

평가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두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규명해낼 수 있다. 남북경협을 협력중시적 남북관계의 시그널로 평가하고 보도량이 높은 측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남북경협을 안보중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보도량이 낮은 측은 남북관계 자체를 안보중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위의 보도량을 분석해 보면, 남북경협에 있어서 A신문사와 B신문사, D방송사는 안보중시적인 시각, 즉 남북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C신문사와 E방송사는 남북경협에 대해 협력중시적인 시각, 즉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A신문사, C신문사, D방송사, E방송사가 협력중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B신문사는 안보중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신문사와 E방송사는 남북경협과 정상회담에 있어서 협력중시적, B신문사는 안보중시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고 A신문사와 D방송사는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협력중시적인 측면으로 평가 될 수 있는 두 사안에 관해서도 언론사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있어서 언론사의 보도태도에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 등 다른 요인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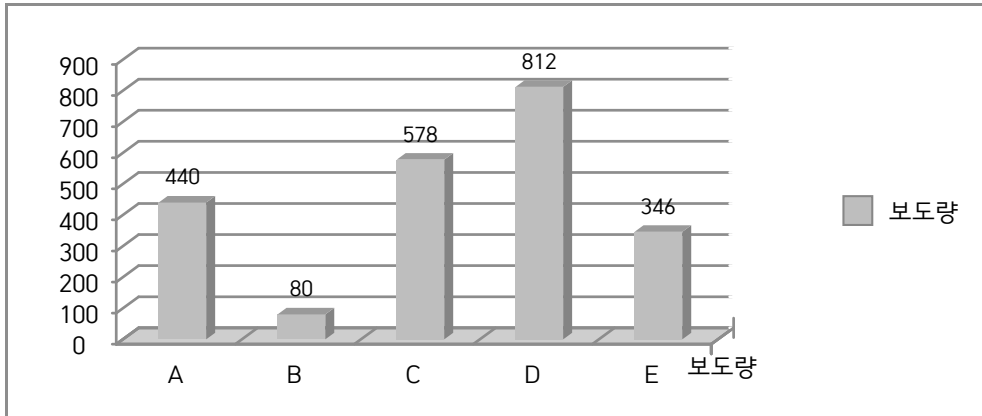
## 2. 군사도발

### 1) 핵 실험

남북관계 냉각과 단절을 대표하는 검색어로는 ‘핵 실험’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 언론사가 비교적 높은 보도량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별 남북관계 관련 기사 및 방송 보도 중 ‘핵’과 ‘연평도’에 대한 기사를 별도 추출하여, 언론사별로 보도량을 집계하면 아래 <그림 19>와 <그림 20>과 같이 나타난다.

핵을 주제로 한 기사 보도량은 A신문사 440건, B신문사 80건, C신문사 578건, D방송사 812건, E방송사 346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남북경협과 정상회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핵이라는 문제는 안보의 위협이라는 측면과 평화지수의 감소, 즉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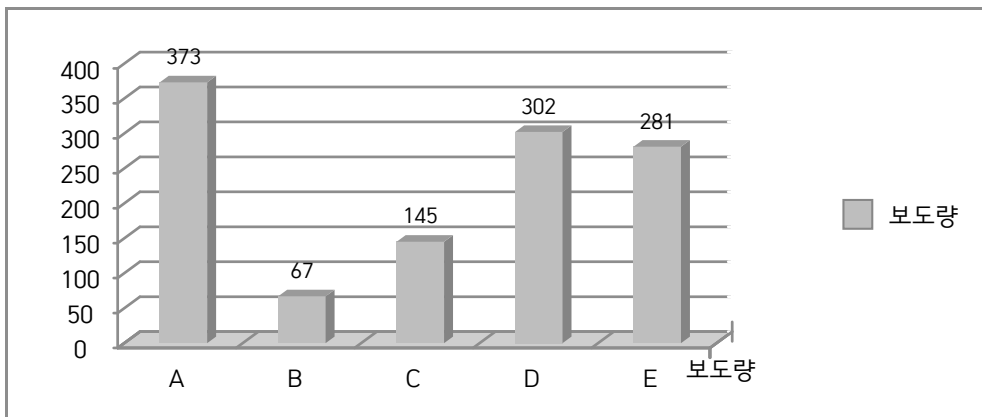
단순 보도량만 비교할 때는 D방송사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B신문사가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D방송사의 뒤를 이어 C신문사, A신문사, E방송사의 순으로 관심도(보도량)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9> '06~12' 핵 관련 언론사별 보도량

## 2)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으로는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남북관계 관련해 보도한 방송 혹은 기사 중 연평도 대한 것은 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 중 연평도에 대한 보도량을 별도로 분류하면 다음 <그림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0> '06~12' 연평도 관련 언론사별 보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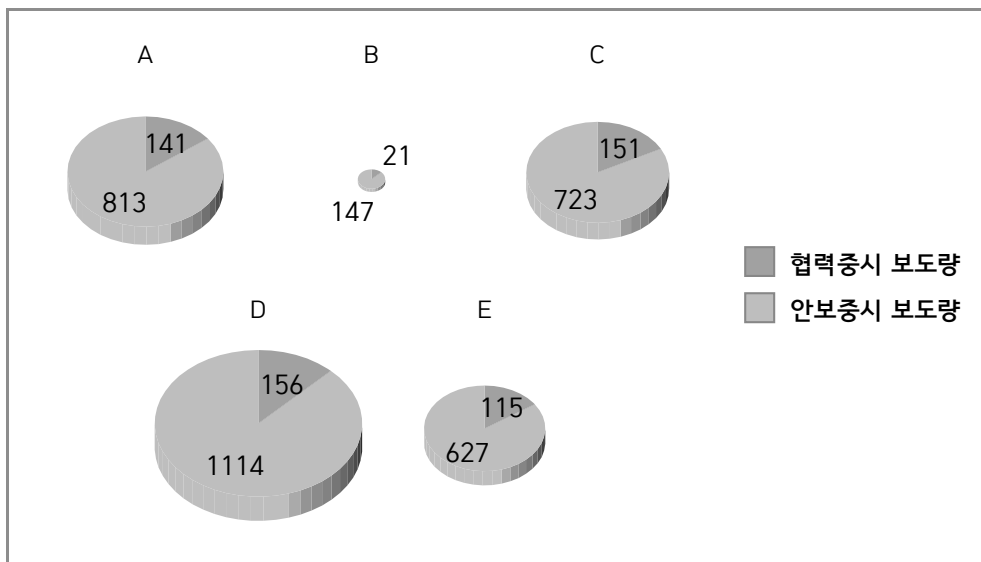


남북관계에 관련한 보도 중 연평도에 대한 보도는 A신문사 373건, B신문사 67건, C신문사 145건, D방송사 302건, E방송사 281건에 달했다. 이는 핵관련 보도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보도량이다.

연평도 관련 기사 보도량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점은 C신문사의 보도량이다. C신문사의 경우 핵관련 보도에서 2번째로 높은 보도량을 보여주었지만, 연평도 관련 보도량에서는 2번째로 낮은 보도량을 보여준다. 이것은 ‘핵’과 ‘연평도’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두 검색어 모두 남북관계 냉각과 단절을 대표하지만 ‘연평도’의 경우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처음 이루어진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를 낳았다. 이는 국민정서와 국제 및 국내사회의 여론을 차갑게 하였으며, 민간인 사상자를 낳은 군사도발이라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이러한 ‘연평도 포격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함께 C신문의 정치 성향이 진보 성향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21>은 먼저, 개성공단과 정상회담 보도량을 합해서 협력중시 보도량으로 나타내었고, 핵과 연평도 보도량을 합해서 안보중시 보도량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21> 검색어-협력중시 보도량과 안보중시 보도량 비교

흥미로운 점은 각 언론사의 보도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로 나타낸 그림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협력중시 보도량과 안보중시 보도량의 합중 협력중시 보도량의 비율은 A신문사는 14.8%, B신문사 12.5%, C신문사 17.3, D방송사 12.3%, E방송사 15.5%로 5% 안 밖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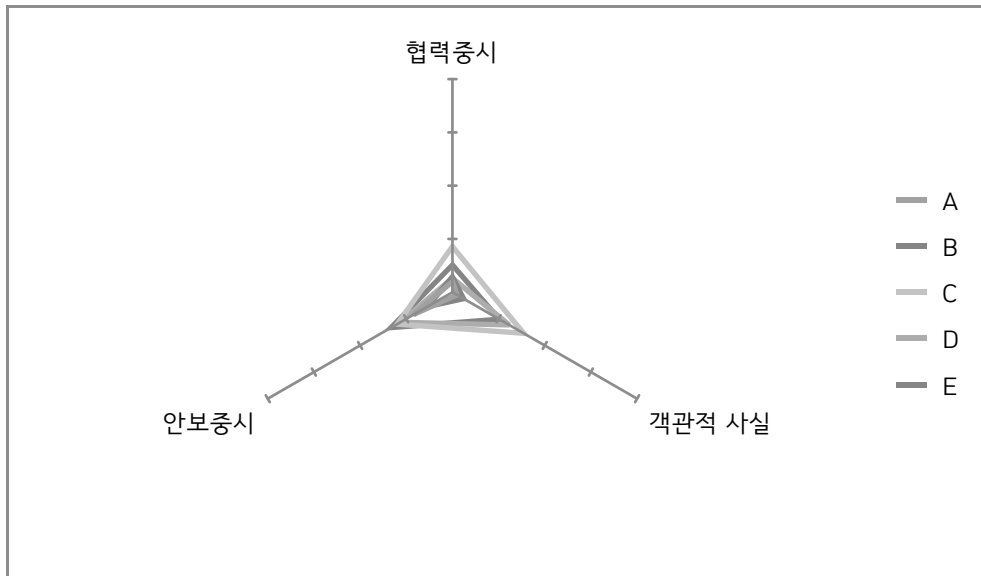
언론사별로 보이는 보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C신문사가 가장 협력중시 보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E방송사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보수성향의 A신문사의 경우 3번째로 높아 협력중시 보도와 안보중시 보도가 오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B신문사와 D신문사가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 제4장 언론의 국가명칭 보도 태도에 대한 특징 및 함의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각 언론사별 보도 추이를 토대로 하여 국가명칭의 언론 보도 태도의 특징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매체별 보도태도의 변화 추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도량 분석에 이어 보도태도의 변화 추이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언론사별 남한,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개별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협력중시(+1), 중간(객관적 사실)(0), 안보중시(-1)로 구분하였다.

### 제1절 언론 매체별 보도 형태

아래의 그림은 남한, 한국, 대한민국, 남측 이상 네 가지 검색어들의 총합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각 언론사별 보도를 협력중시, 안보중시, 중간(객관적 사실)의 세 가지 성향으로 분류한 도표이다. 각 언론사별 총 보도량의 차이는 있으나 도표의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모양을 통해 각 언론사별 성향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C신문사, D방송사, E방송사는 협력중시, 안보중시, 중간(객관적 사실)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나 이에 반해 A·B신문사는 그 비율이 균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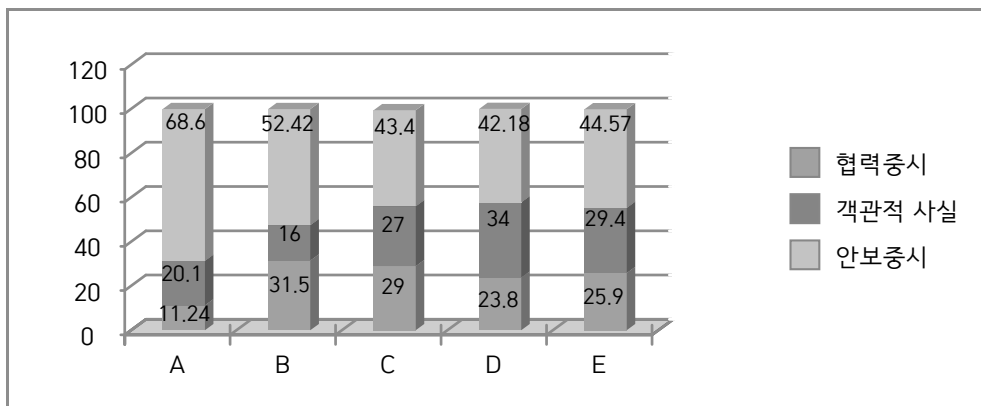
〈그림 22〉 언론사별 총 보도량의 남북관계 인식 비교 : 성향

먼저 언론사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중간(객관적 사실)이나 협력중시에 비해 안보중시 비중이 높다. 안보중시적 성향 위주의 B신문사와 A신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3사 역시 약간이나마 안보중시적 성향의 기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안보중시적 성향의 기사가 높은 이유는 조사기간의 2/3 이상인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왔다는 점과 이러한 정부의 대북 정책아래 남북은 끊임없는 신경전과 첨예한 대립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그림 22>에서 주목할 언론사는 A신문사이다. A신문사는 총 보도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E방송사와 비슷한 수준의 안보중시적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E방송사와 C신문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협력중시-중간(객관적 사실)-안보중시의 비율이 균등한 반면, A신문사는 안보중시 쪽으로 매우 치우쳐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신문사의 협력중시-중간(객관적 사실) 기울기가 E방송사, 그리고 C신문사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A신문사의 안보중시적 성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A신문사와 마찬가지로 B신문사 역시 A신문사를 제외한 다른 언론 3사와는 다른 형태의 도표를 보여준다. 하지만 A신문사가 안보중시적 성향의 기사 보도를 선호하는 형태의 도표를 보여 줬다면 B신문사의 경우 중간(객관적 사실) 성향의 기사

보도를 꺼리는 형태의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22>에서 B신문사 도표의 다음 두 특징을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로 총 보도량이 훨씬 적은 D방송사의 중간(객관적 사실) 성향 보도량과 비슷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협력중시-안보중시 기울기는 A신문사를 제외한 언론 3사와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특징은 B신문사가 중간(객관적 사실) 성향의 기사 보도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성향은 B신문사가 비교적 편향되지 않은 정치색으로 남북관계 관련 기사 보도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자극적인 기사보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3> 언론사별 총 보도량의 남북관계 인식 비교 : 비율

위의 <그림 23>은 2006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각 언론사별 총 보도량의 남북관계 인식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도 A신문사와 B신문사의 보도 비율이 C신문사, D방송사, E방송사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A신문사의 경우 압도적으로 안보중시적 경향의 기사 비율이 높으며 B신문사는 중간(객관적 사실) 경향의 기사가 현저히 적음을 수치로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B신문사의 경우 선호하지 않는 중간(객관적 사실) 성향의 기사 보도 대신 안보중시적 성향의 기사 보도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2>에서는 A신문사와 B신문사와 같이 특징적인 보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그림 23>에서는 <그림 22>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C신문사, D방송사, E방송사 사이의 차이점을 좀 더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C신문사, D방송사, E방송사의 안보중시적 성향 기사보도의 비율이 비슷하

다는 사실에서 아래 C신문사의 경우 D방송사, E방송사 보다 높은 비율의 협력중시적 성향의 기사 보도율을 보여준다. 그 비율이 조사 언론사들 중 두 번째로 높는데 앞에서 살펴본 B신문사의 보도 경향을 고려한다면 B신문사와 C신문사의 2% 수준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결국 C신문사의 협력중시적 성향의 기사 보도 비율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C신문사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남북관계 관련 기사 보도에 있어서 협력중시적 성향 기사보도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D방송사의 경우 C신문사와 E방송사와는 달리 중간(객관적 사실) 성향의 기사 보도 비율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그 비율은 5개 언론사 중 가장 높는데, 이러한 사실은 D방송사가 남북관계에 있어 비교적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C신문사와 D방송사의 보도 경향의 교집합 위치에 있는 E방송사의 경우 그 특징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뚜렷하게 보도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E방송사의 보도 경향이라면 E방송사의 경우 정치적 성향보다는 남북 정세나 국민적 관심 등 남북관계를 제외한 다른 외부적 요인에 좀 더 보도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그림을 통해 각각의 언론사 별로 네 가지 검색어(남한, 한국, 대한민국, 남측)에 따른 보도 성향을 살펴봄으로써 각 언론사의 성향을 파악 할 수 있었다. A신문사의 경우 안보중시적 성향의 기사보도를 선호하며, C신문사의 경우 협력중시적 성향, D방송사는 중간(객관적 사실) 성향 기사보도에 집중했으며 B신문사와 E방송사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기사보도의 초점을 맞췄다. 또한 B신문사의 경우 다른 외부요인과 동시에 안보중시적 성향 역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위의 두 그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 제2절 언론 매체별 통일외의식 추이 변화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하였던 네 가지 검색어의 각 언론사들(A·B·C·D·E)의 보도를 3점 척도를 활용하여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의 산출을 통해 검색어의 의미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국가명칭 표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형태에 따른 통일외의식의 변화를 추론할 수 있다.

보도태도는 각 단위기사 및 뉴스의 헤드라인을 포함하여 남한, 대한민국, 한국의 명칭을 언급한 기사들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 형성과정에 미쳤을 영향력의 방향을 ‘협력중시적/중도적 또는 혼합적/안보중시적’으로 구분한 뒤 단위기사 및 뉴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sup>66)</sup>

이를 위한 보도의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의 산출을 위해 사용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

### 총 보도 중 검색어별 안보중시적 기사의 비율

긍정적 보도 = +1 점 부여  
 중간적 보도 = 0 점 부여  
 부정적 보도 = -1 점 부여

$$\frac{|\text{부정적 보도량}| - |\text{긍정적 보도량}|}{\text{총 보도량}} \times 100 = \text{남북관계 부정적 보도지수}(\%)$$

본 연구에서는 해당 년도의 개별기사 내용을 판단하여, 남북관계에 대하여 협력중시적으로 보도하였다면, +1점을, 안보중시적 이라면 -1점을 부여하였다. 즉 해당 기사의 각 점수가 양수(+)이면 협력중시적임을, 음수(-)일수록 안보중시적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언론사 및 신문사의 총보도량에 대한 안보중시적 보도량과 협력중시적 보도량 값의 차이의 비중을 구하고, 백분위 지수로 변환하였다.

이는 총 보도량 중 안보중시적 보도량에 비중을 쉽게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검색어별 기사들의 보도태도를 살필 수 있다. 즉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에서는 백분위 지수가 큰 양수(+)일수록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검색어별 추이변화에는 2차 곡선을 적용하여 변화의 각을 완만하게 만들었으며, 회귀선을 적용함으로써 검색어 의미변화의 전반적인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A신문사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아래의 <표 6>을 통해 A신문사의 안보중시적 보도 태도와 보도 지수를 확실히

66) 언론사의 보도태도 분석 및 점수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함인희·김석향·박현선·한정자,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대상별 차별화 방안 모색』, 통일부 용역과제(2000)를 참조하였음.

살펴 볼 수 있다.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 가운데 2007년 ‘한국’이라는 검색어에서 한번 음수를 보인 것과 2006년, 2007년에 ‘대한민국’으로 검색된 기사가 없는 점을 제외한다면 모두 양수를 보이고 있다. 보도 태도를 의미하는 지수 역시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와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

〈표 6〉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A신문사

검색어	인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합
남한	협력중시	2	5	2	5	4	2	1	21
	중간 (객관적사실)	1	8	3	2	5	9	0	28
	안보중시	6	16	9	17	9	13	3	73
	점수	-4	-11	-7	-12	-5	-11	-2	-52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44.4%</b>	<b>37.9%</b>	<b>50.0%</b>	<b>50.0%</b>	<b>27.8%</b>	<b>45.8%</b>	<b>50.0%</b>	<b>42.6%</b>
남측	협력중시	0	6	2	5	1	0	0	14
	중간 (객관적사실)	4	22	10	11	5	1	0	53
	안보중시	6	14	16	19	11	11	2	79
	점수	6	8	14	14	10	11	2	65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60.0%</b>	<b>20.0%</b>	<b>50.0%</b>	<b>40.0%</b>	<b>60.0%</b>	<b>92.0%</b>	<b>100.0%</b>	<b>45.0%</b>
대한민국	협력중시	0	0	0	0	0	2	1	3
	중간 (객관적사실)	0	0	0	0	0	0	0	0
	안보중시	0	3	0	1	128	7	2	141
	점수	0	-3	0	-1	-128	-5	-1	-138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0%</b>	<b>100%</b>	<b>0%</b>	<b>100%</b>	<b>100%</b>	<b>55.6%</b>	<b>33.3%</b>	<b>95.8%</b>
한국	협력중시	0	18	0	4	1	1	0	24
	중간 (객관적사실)	3	29	3	4	4	13	2	58
	안보중시	36	6	6	10	10	4	7	79
	점수	-36	12	-6	-6	-9	-3	-7	-55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92.3%</b>	<b>-22.6%</b>	<b>66.7%</b>	<b>33.3%</b>	<b>60.0%</b>	<b>16.7%</b>	<b>77.8%</b>	<b>34.2%</b>

주: 〈표〉에서의 점수는 앞서 제시된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아닌, 기사의 보도태도에 대한 점수를 의미함. 즉, 기사의 보도태도가 안보중시적이라면 음수(-)이며, 협력중시적이라면 양수(+)임. 만약 점수가 양수라면 이는 해당년도 기사들이 협력중시적 보도태도의 기사가 해당 점수만큼 더 많았음을 의미함.

이러한 사실은 전체적인 A신문사의 보도 태도가 남북관계에 있어 안보중시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 경향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검색어 ‘남한’과 ‘남측’, ‘한국’의 사용에서는 총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42.6%, 45%, 34.2%로 나타나며 즉, 50%를 넘지 않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사용에서만 95.2%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칭을 사용한 기사의 거의 대부분이 안보중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대한민국’을 포함하고 있는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100%를 기록한 2007년에는 보수진영이 정권 탈환을 노린 대선이 있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정권 교체이후 계속 된 남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군사도발이 이어져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집권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강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이다.<sup>67)</sup> 즉, A신문사의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칭 사용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2006년에는 ‘대한민국’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는 0%인 반면 ‘대한민국’의 약칭인 ‘한국’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는 92.3%라는 사실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할 수치는 2007년 ‘한국’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전체 조사기간 중 유일하게 음수(-22.6%)라는 것이다. 2007년 ‘남한’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또한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러한 점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당시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sup>68)</sup>

‘남측’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2011년도에 92%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100%에 달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 년도가 2011년도라는 점과 2012년 ‘대한민국’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최하를 기록하고 있어 그 기간이 서로 맞물리고 있다. 이는 2011년도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와 정치권에서 늘어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과 A신문사의 보수 정부에 대한 지지 성향과 맞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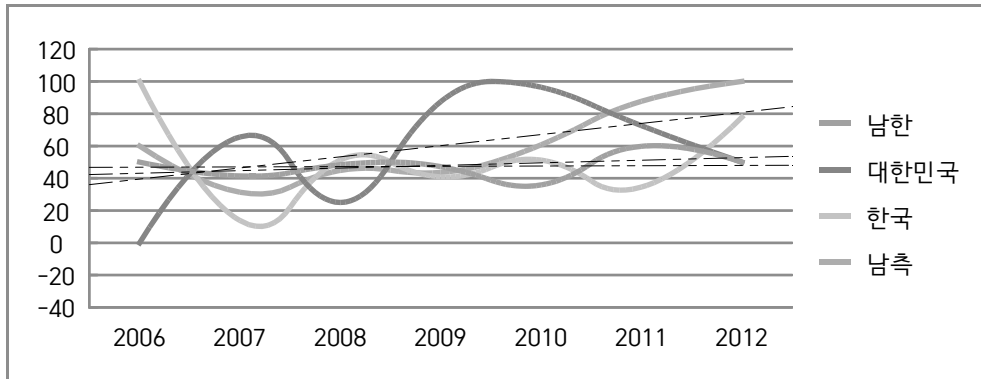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적 수치를 제외하고도 A신문사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는 매우 높은 편으로 중간(객관적 사실) 수치인 0%를 기록한 2006년, 2008년 대한민국의 경우 보도량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볼 때 남북관계 관련 보도에 있어 매우 안보중시적

67) 문화일보, “<北 연평도 포격 도발> “정부, 정신 차려라” 시민 격분”, 2010년 11월 24일자, C, “MB표 대북정책 실패...3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안했다”, 2010년 12월 1일자.

68) A, “2007 남북頂上상선언 / 경협 구체안 속속 발표”, 2007년 10월 6일자.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기사 보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태도를 더욱 강하게 보여준다.



<그림 24>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A신문사

## 2. B신문사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표 7>을 살펴보면 B신문사 역시 안보중시적 보도 태도를 지니고 있다. 조사기간 전체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 7.0%로 ‘남한’의 경우 27.0%, ‘남측’의 경우 37%, ‘대한민국’의 경우 25.3%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가명칭을 ‘한국’으로 사용한 조사기간 동안의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가 -64.3%에서 62.5%까지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여 2007년 ‘남측’의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가 -1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남한’과 ‘남측’, ‘대한민국’이 조사기간 동안 단 한번도 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남북 분단 이후인 1948년 정식 국호로 정한 ‘대한민국’과 남북 분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남한’, 지정학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남측’이 아닌 ‘한국’에서만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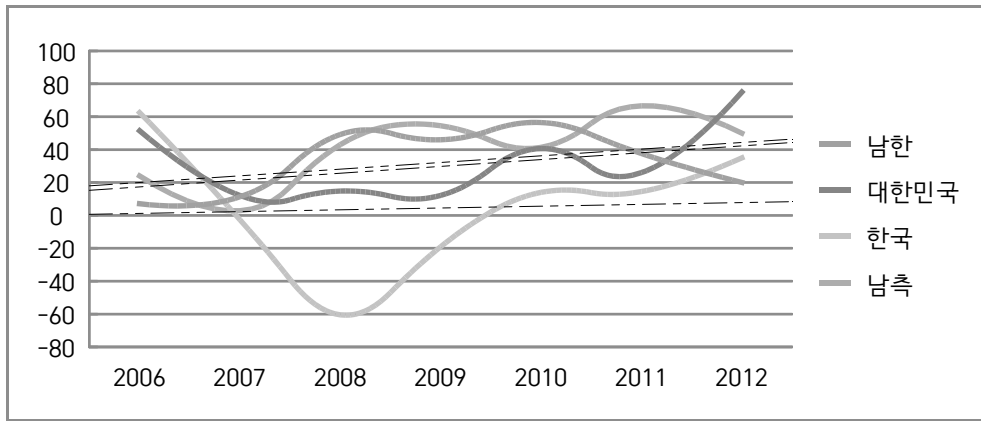
특히 ‘한국’을 국가명칭으로 표기한 기사에서 보이는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변화 추이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남북 관계가 매우 협력중시적이던 2006년에는 62.5%라는 안보중시적 수치를 보이는 반면 노무현 정부 때와는 정반대의 남북관계로 매우 안보중시적인 상황을 유지한 2008년과 2009년에는 -64.3%, -15.8%로 협력중시적 수치를 보이고 있어 남북관계와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가 정반대의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표 7〉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B신문사

검색어	인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합
남한	협력중시	12	15	1	4	2	5	4	43
	중간 (객관적사실)	2	6	5	2	2	8	0	25
	안보중시	14	15	11	11	12	15	6	84
	점수	-2	0	-10	-7	-10	-10	-2	-41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7.1%</b>	<b>0%</b>	<b>58.8%</b>	<b>41.2%</b>	<b>62.5%</b>	<b>35.7%</b>	<b>20.0%</b>	<b>27.0%</b>
남측	협력중시	5	5	2	1	6	0	0	19
	중간 (객관적사실)	3	5	4	5	3	2	1	23
	안보중시	9	3	10	11	13	8	1	55
	점수	4	-2	8	10	7	8	1	36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24.0%</b>	<b>-15.0%</b>	<b>50.0%</b>	<b>59.0%</b>	<b>32.0%</b>	<b>80.0%</b>	<b>50.0%</b>	<b>37.0%</b>
대한민국	협력중시	8	14	6	10	1	7	0	46
	중간 (객관적사실)	0	0	5	2	8	1	1	17
	안보중시	25	14	10	11	12	8	3	83
	점수	-17	0	-4	-1	-11	-1	-3	-37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51.5%</b>	<b>0%</b>	<b>19.0%</b>	<b>4.3%</b>	<b>52.4%</b>	<b>6.3%</b>	<b>75.0%</b>	<b>25.3%</b>
한국	협력중시	1	9	11	6	4	5	5	41
	중간 (객관적사실)	4	4	1	10	0	2	3	24
	안보중시	11	9	2	3	6	6	12	49
	점수	-10	0	9	3	-2	-1	-7	-8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62.5%</b>	<b>0%</b>	<b>-64.3%</b>	<b>-15.8%</b>	<b>20.0%</b>	<b>7.7%</b>	<b>35.0%</b>	<b>7.0%</b>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속되는 안보중시적 남북관계에 맞게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양수 값을 보이나 그 값이 다른 검색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즉 당시의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은 남북관계 기사는 국가명칭을 대한민국이나, 남한으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국으로 표기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는 ‘남한’, ‘대한민국’, ‘한국’ 검색어 모두 0%를 보이고 있으며 ‘남측’의 경우 조사기간 중 유일하게 -15%로 음수를 기록하고 있어 살펴볼만하다. 2007년은 남북관계가 매우 협력중시적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당시 있었던 17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수치라고 판단된다. 즉 남북관계 보다는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에 있어 최대한 중도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B신문사

### 3. C신문사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C신문사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총합을 살펴보면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양수를 기록해 안보중시적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조사기간 중 2006년부터 2007년은 진보 성향의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은 보수 성향의 정부가 집권했다는 사실과 두 기간이 보이는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은 C신문사가 남북관계에 있어 단순히 안보중시적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특히 ‘남한’, ‘남측’을 국가명칭으로 사용한 기사에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2006년 기록한 ‘남한’ -10.0%와 ‘남측’ 0%, 2007년 기록한 ‘남한’ -49.0%와 ‘남측’ -11.0%는 남북 평화 분위기의 지속 및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의 남북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sup>69)</sup> 또한 ‘남한’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는 5.0%라는 양수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던 2009년과 2010년

69) C, “남한시설과 북한 손 만나면 유럽도 거뜬히 공략할 것”, 2007년 5월 16일자, C, “남북경협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기대”, 2007년 8월 8일자.

에는 52.7%와 51.3%를 기록하고 이후에도 15%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인다.<sup>70)</sup>

〈표 8〉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C신문사

검색어	인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합
남한	협력중시	13	32	27	12	9	17	12	122
	중간 (객관적사실)	7	12	3	11	19	15	9	76
	안보중시	10	7	30	51	48	26	22	194
	접수	3	25	-3	-39	-39	-9	-10	-72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10.0%</b>	<b>-49.0%</b>	<b>5.0%</b>	<b>52.7%</b>	<b>51.3%</b>	<b>15.5%</b>	<b>23.3%</b>	<b>18.4%</b>
남측	협력중시	37	46	8	8	3	0	0	102
	중간 (객관적사실)	101	165	88	97	14	3	0	468
	안보중시	37	20	38	6	9	1	0	111
	접수	0	-26	30	-2	6	1	0	9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0%</b>	<b>-11%</b>	<b>22%</b>	<b>-2.0%</b>	<b>23%</b>	<b>25%</b>	<b>0.0%</b>	<b>1.0%</b>
대한민국	협력중시	10	12	5	2	4	5	0	38
	중간 (객관적사실)	3	4	5	2	4	3	3	24
	안보중시	20	9	4	10	14	7	9	73
	접수	-10	3	1	-8	-10	-2	-9	-35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30.3%</b>	<b>-12.0%</b>	<b>-7.1%</b>	<b>57.0%</b>	<b>45.5%</b>	<b>13.3%</b>	<b>75.0%</b>	<b>25.9%</b>
한국	협력중시	33	17	31	24	15	29	17	166
	중간 (객관적사실)	27	46	33	39	26	21	12	204
	안보중시	39	12	23	44	78	14	11	221
	접수	-6	5	8	-20	-63	15	6	-55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6.1%</b>	<b>-6.7%</b>	<b>-9.2%</b>	<b>18.7%</b>	<b>52.9%</b>	<b>-23.4%</b>	<b>-15.0%</b>	<b>9.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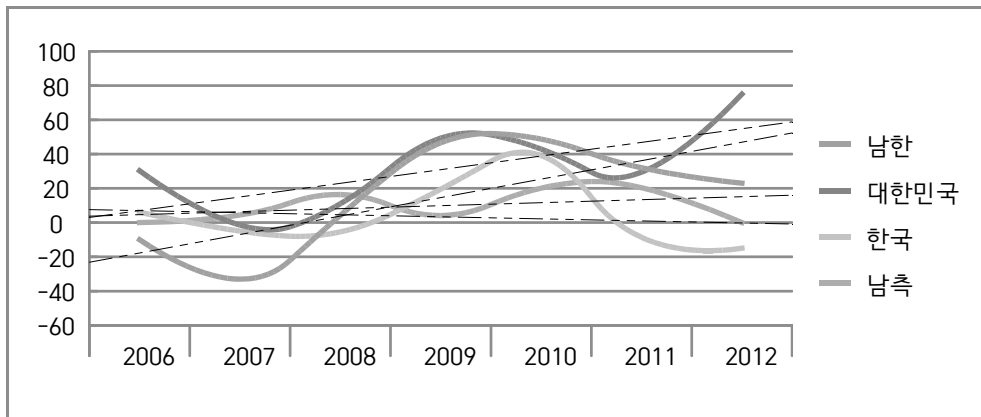
70) C, “북한 통과 가스관, 가능성은 ‘글썸요...’”, 2008년 9월 29일자. C, “개성공단 문 닫을 일만 남았다”, 2009년 5월 27일자. C, “1~4월 ‘남북교역’ 작년의 75% 그쳐”, 2009년 6월 9일자. C, “남북교역 1년 새 8.5% 감소”, 2010년 1월 18일자.

‘남측’ 역시 남한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는 22%라는 양수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2009년을 제외하면 2010년 23%, 2011년 25%로 비슷한 수준의 양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처럼 수치를 보이는 ‘남한’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2007년에 -12.0%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양수의 수치를 보이며 음수를 보인 2008년에도 -7.1%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경우 남북이 긴장상태에 빠진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한 조사기간 대부분 음수를 보이고 있으며, 양수를 보인 2006년에도 6.1%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C신문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칭을 표기 할 때는 매우 안보중시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이라는 국가명칭을 표기 할 때에는 협력중시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총합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우 25.9%, 한국의 경우 9.3%를 보여주고 있어 위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6〉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C신문사

#### 4. D방송사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D방송사의 보도 태도는 조사기간 총합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를 보면 뚜렷하게 구분시켜 볼 수 있다. 대한민국과 한국의 경우 0%를 상회하는 반면 남한과 남측의 경우 40.4%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며 남한과 남측을 국가명칭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안보중시적인 보도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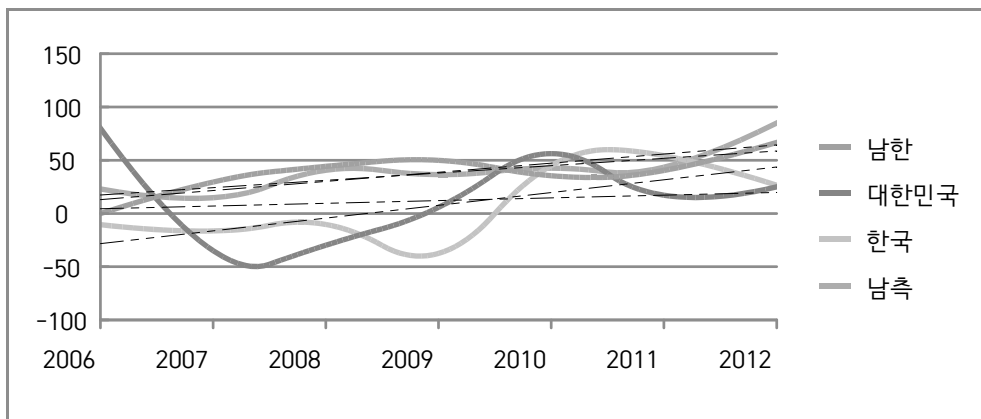
대한민국과 한국의 경우 전체 지수는 0%에 근접하나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66.7%에서 부터 80%까지, 한국은 -60%에서 부터 60%까지를 사이로 움직이고 있어 남북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표 9〉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D방송사

검색어	인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합
남한	협력중시	0	1	2	1	4	2	0	10
	중간 (객관적사실)	0	2	1	4	15	14	3	39
	안보중시	0	3	6	8	15	12	6	50
	점수	0	-2	-4	-7	-11	-10	-6	-40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0%</b>	<b>33.3%</b>	<b>44.4%</b>	<b>53.8%</b>	<b>32.4%</b>	<b>35.7%</b>	<b>66.7%</b>	<b>40.4%</b>
남측	협력중시	8	9	2	21	9	22	0	71
	중간 (객관적사실)	70	82	84	94	114	82	3	529
	안보중시	34	13	83	87	123	80	17	437
	점수	26	4	81	66	114	58	17	366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23.0%</b>	<b>4.0%</b>	<b>48.0%</b>	<b>33.0%</b>	<b>46.0%</b>	<b>32.0%</b>	<b>85.0%</b>	<b>35.0%</b>
대한민국	협력중시	0	15	1	4	0	1	0	21
	중간 (객관적사실)	1	0	3	4	1	0	3	12
	안보중시	4	3	3	4	3	1	1	19
	점수	-4	12	-2	0	-3	0	-1	2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80.0%</b>	<b>-66.7%</b>	<b>28.6%</b>	<b>0%</b>	<b>75%</b>	<b>0%</b>	<b>25%</b>	<b>-3.8%</b>
한국	협력중시	8	4	3	6	1	0	8	30
	중간 (객관적사실)	5	3	2	4	0	2	20	36
	안보중시	6	2	3	0	4	3	21	39
	점수	2	2	0	6	-3	-3	-13	-9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10.5%</b>	<b>-22.2%</b>	<b>0%</b>	<b>-60%</b>	<b>60%</b>	<b>60%</b>	<b>26.5%</b>	<b>8.6%</b>

특히 D방송사의 경우 2010년, 2012년을 제외한 대한민국과 한국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차가 최소 28.6%에서 최대 90.5%까지 보이며 대한민국과 한국을 국가 명칭으로 표기한 보도에서 그 태도가 서로 상이하다. 이는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D방송사는 당시의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는 국가명칭 중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특징에서 제외된 2007년은 남북정상회담<sup>71)</sup>, 2010년은 천안함 사건<sup>72)</sup>, 연평도 포격<sup>73)</sup>, 2011년에는 김정일 급사라는 남북 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그림 27〉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D방송사

##### 5. E방송사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E방송사의 경우 연도별로 남한과 대한민국, 한국의 국가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수치의 차이가 큰 경우도 존재하고 0%라는 수치를 기록하는 기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특징은 E방송사가 각 국가 명칭에 부여하는 의미 차이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남측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총합이 36.0%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이 31.0%로 비슷한 수준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

71) D, <뉴스데스크> “2007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4일자.

72) D, “북, 침몰사고 언급 없이, “미제, 남A 서해서 전쟁연습””, 2010년 3월 30일자.

73) D, “북한, 통상적인 한국군 사격 훈련 트집 잡아 ‘계획 도발’”, 2010년 11월 24일자.

명칭에 부여하는 의미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작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검색어별 남북관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 E방송사

검색어	인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합
남한	협력중시	0	69	0	3	5	1	6	84
	중간 (객관적사실)	3	50	1	10	5	17	20	106
	안보중시	15	8	6	35	12	24	42	142
	점수	-15	61	-6	-32	-7	-23	-36	-58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83.3%</b>	<b>-48.0%</b>	<b>85.7%</b>	<b>66.7%</b>	<b>31.8%</b>	<b>54.8%</b>	<b>52.9%</b>	<b>17.5%</b>
남측	협력중시	17	50	2	15	9	4	1	98
	중간 (객관적사실)	45	99	17	58	50	58	1	328
	안보중시	45	40	67	69	93	78	1	393
	점수	28	-10	65	54	84	74	0	295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26.0%</b>	<b>-5.0%</b>	<b>76.0%</b>	<b>38.0%</b>	<b>55.0%</b>	<b>53.0%</b>	<b>0.0%</b>	<b>36.0%</b>
대한민국	협력중시	0	5	1	6	8	7	4	31
	중간 (객관적사실)	0	3	3	9	0	4	6	25
	안보중시	1	0	1	29	24	7	8	70
	점수	-1	5	0	-23	-16	0	-4	-39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100%</b>	<b>-62.5%</b>	<b>0%</b>	<b>52.3%</b>	<b>50.0%</b>	<b>0%</b>	<b>22.2%</b>	<b>31.0%</b>
한국	협력중시	5	10	2	0	4	12	10	43
	중간 (객관적사실)	1	2	2	2	1	21	19	48
	안보중시	8	1	4	4	9	16	17	59
	점수	-3	9	-2	-4	-5	-4	-7	-16
	<b>안보중시적 보도지수</b>	<b>21.4%</b>	<b>-69.2%</b>	<b>25.0%</b>	<b>66.7%</b>	<b>35.7%</b>	<b>8.2%</b>	<b>15.2%</b>	<b>10.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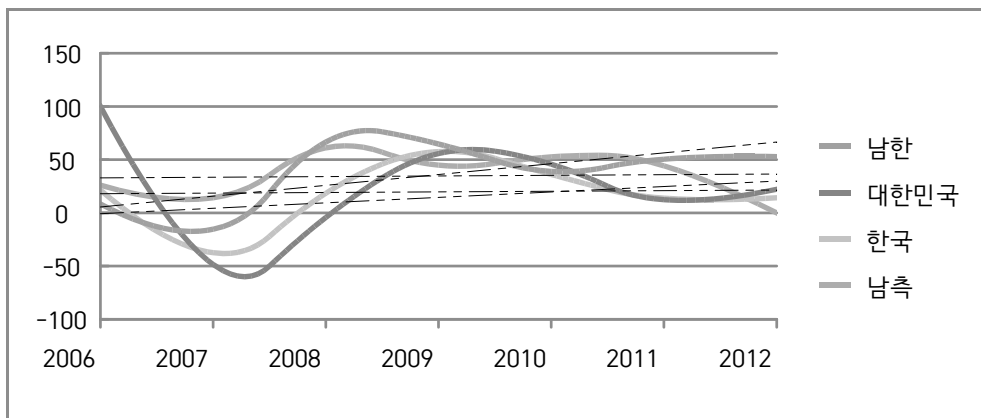
또한 E방송사에서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과 한국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각 연도별 수치의 차이이다. 매해 높지 않은 비슷한 수치 차이를 보이며 부호가 다른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6년에 78.6%의 높은 수치 차이를 보이거나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100%라는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한국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21.4%로 낮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경향만큼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대한민국의 약칭이라는 점에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런 뚜렷한 특징을 발견 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앞서 살펴본 B신문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과 대한민국에 큰 의미차이를 부여하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E방송사가 상대적으로 네 가지 국가명칭에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한과 남측의 경우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증가와 감소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과 남측이라는 국가 명칭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남(南)’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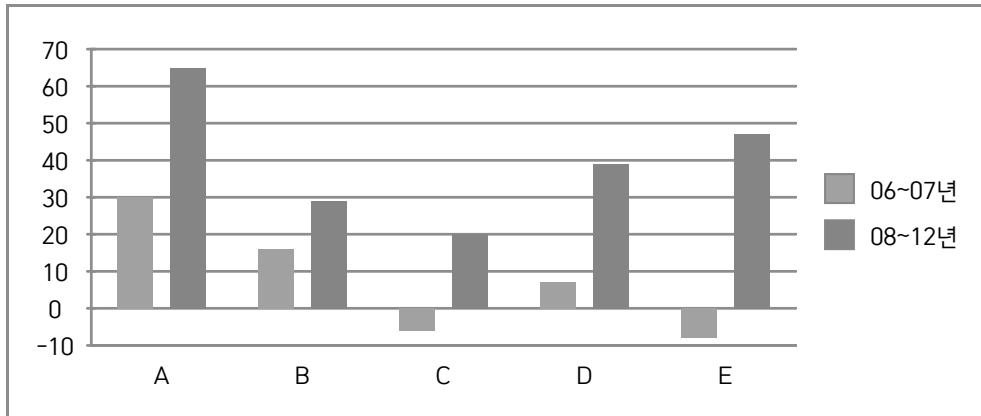
언론매체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와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를 분석해보면 각 언론매체들이 가장 안보중시적 태도를 보인 국가명칭과 협력중시적 태도를 보인 국가명칭이 차이가 있으며, 안보중시적 태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연도 역시 언론매체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별 추이변화 - E방송사

A신문사의 경우 대한민국에 가장 안보중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또한 대한민국에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석 결과를 보였다. B신문사의 경우 남측과 남한에 가장 협력중시적이었으며, 한국과 대한민국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다. C신

문사는 대한민국에는 안보중시적 태도를 한국에는 협력중시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남측과 남한의 경우 남북관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였다.



<그림 29> 연도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비교

D방송사는 남측과 남한에 안보중시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한민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남북사이의 분위기와는 별도로 사안에 따라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E방송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언론사에 비해 네 가지 국가명칭에 부여하는 의미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B신문사가 한국과 대한민국에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던 모습을 상기시킨다면 각 언론사 별로 국가명칭에 단순히 안보중시적인 태도나 협력중시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선호하는 국가명칭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의 <그림 29>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신문사와 방송사의 2006~2007년과, 2008~2012년의 두 기간 동안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 초반부의 <그림 1> 통일의식 추이변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식 추이 변화에서 강조하였던 것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 통일 필요성이 급감하게 되고 통일 불필요성이 급증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통일의식의 변화를 언론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B신문사를 제외하고는 각 언론사에서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각 언론사들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상승한 2008년 이후에는

이전의 2007년에 비해 통일 필요성이 감소하였음을 본다면,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태도가 국민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제3절 국가명칭 관련 용어 분석에 대한 시사점

기존의 연구들은 각 언론사별 보도 태도 및 성향만을 연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를 설명할 때, 어떠한 국가명칭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각 언론사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그러한 명칭의 사용이 일반 국민(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협력중시적 또는 안보중시적인 이미지를 형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앞서 논의 했던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면 통일의식의 변화와 언론사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문화사회학(cultural sociology)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문화 개념에 대한 사고의 한 가지 방식으로 여겨지는 집합적 자기-정의의 구성을 경험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논쟁적인 대화들은 독자(시청자)들에게 특정 명칭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비고츠키(L.S. Vygotsky)의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언론의 국가 명칭 표기와 이에 따른 보도 태도는 특정 국가 명칭을 특정 의미로 반복사용함으로써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자(시청자)들의 경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언론을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 명칭 표기와 이에 따른 보도 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언론 보도 성향을 통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재확인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주관적이며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소쉬르(Saussure)의 기호이론에서 기표를 보고 하나의 기의를 떠올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식의 통일성을 길러야 할 수용자에게 혼란을 주어 한 국가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통일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표현 언어를 혼동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언어지식에 대한 기저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언론이 인지하고 있다면 이는 의도적 의식 조작으로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위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언론사별로 남북관계 기사 보도량, 국가 명칭에 따른 보도 형태와 보도를 통해 선호하는 국가 명칭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남북관계

관련 기사 보도량은 C신문사가 1,805건으로 가장 높은 보도량을 보였으며, E방송사(1427건), D방송사(1,293건), A신문사(569건), B신문사(513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A신문사와 B신문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A신문사와 B신문사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표 11〉 언론사별 국가명칭 표기 비율

검색어	신문사			방송사	
	A	B	C	D	E
대한민국	21.6%	27.8%	28.8%	9.1%	19.7%
한국	36.3%	26.8%	7.1%	2.8%	12.3%
남한	17.7%	24.0%	38.6%	7.5%	12.9%
남측	24.2%	21.2%	25.5%	80.4%	55.5%

남북관계 관련 기사 보도에 있어서 각 언론사가 선호하는 국가 명칭 표기 방식을 종합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 명칭 표기량 보다는 표기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관계 관련 보도에 있어서 언론사별 총 보도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위의 <표 10>의 표기 비율을 통해 선호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의 경우 C신문사(28.8%), B신문사(27.8%)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A신문사(21.6%), E방송사(19.7%)가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으며 D방송사(9.1%)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A신문사(36.3%)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B신문사(26.8%)가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E방송사(12.3%), C신문사(7.1%), D방송사(2.8%) 순으로 선호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남한은 C신문사(38.6%)가 가장 높았으며 B신문사(24.0%)와, A신문사(17.7%)가 뒤를 이었고 E방송사(12.9%), D방송사(7.5%)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남측의 경우 D방송사(80.4%)가 가장 높았으며 E방송사(55.5%)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로 C신문사(25.5%), A신문사(24.2%), B신문사(21.2%)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C신문사와 E방송사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국가명칭과 선호하지 않는 국가명칭의 표기 비율의 차가 40.1%, 33.9%로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언론사의 경우 D방송사 20.7%, A신문사 10.2%, B신문사 9.1%로 차이

는 있지만 분명 국가명칭 표기에 있어 언론사 고유의 선호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신문사와 B신문사, D방송사의 경우 특정 명칭을 가장 선호하는 특성 보다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A신문사는 ‘대한민국’, B신문사는 ‘남한’, D방송사는 ‘한국’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C신문사와 E방송사의 경우 특정 명칭을 가장 선호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C신문사의 경우 ‘남한’을 가장 선호했으며, E방송사는 ‘대한민국’을 가장 선호했다. 결국 언론사 별로 선호하는 국가 명칭과 선호하지 않는 국가명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국가 명칭 표기에 따른 보도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위에서 진행했던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중 그 총합을 언론사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언론사별 검색어에 따른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검색어	신문사			방송사	
	A	B	C	D	E
대한민국	42.6%	27.0%	18.4%	40.4%	17.5%
한국	95.2%	25.3%	25.9%	-3.8%	31.0%
남한	34.2%	7.0%	9.3%	8.6%	10.7%
남측	44.5%	37.0%	13.0%	35.3%	36.0%

대한민국을 국가명칭으로 표기한 보도에서는 A신문사(42.6%), D방송사(40.4%) 순으로 높은 안보중시적 보도 지수를 보여주었고, B신문사(27.0%)가 그 뒤를 이었으며, C신문사(18.4%), E방송사(17.5%)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A신문사(95.2%)가 압도적으로 높은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를 보였고, E방송사(31.0%), C신문사(25.9%), B신문사(25.3%), D방송사(-3.8%) 순으로 이어졌다.

남한을 국가명칭으로 표기한 보도에서는 A신문사(34.2%), E방송사(10.7%), C신문사(9.3%), D방송사(8.6%), B신문사(7.0%) 순으로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를 보여주었다.

남측을 국가 명칭으로 표기한 보도에서는 A신문사(44.5%), B신문사(37.0%), E방송사(36.0%), D방송사(35.3%), C신문사(13.0%) 순으로 안보중시적 보도지수를 보여주었다. 조사기간 중 2/3의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었다는 점과 전체적으로 안보중시적 보도지수가 높다는 점은 분명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사 별로 보이는 수치의 차이와 같은 언론사 안에서도 국가 명칭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다는 점은 주목할 결과임에 분명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관계증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남북경협’에 대한 보도비율을 살펴보면 C신문사와 D방송사가 가장 협력증시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D방송사는 중간(객관적 사실), A신문사와 B방송사는 안보증시적 보도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표 13>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13> 언론사별 남북경협 관련 보도태도 비율

보도태도	신문사			방송사	
	A	B	C	D	E
협력증시	16.7%	28.6%	50.0%	0%	50.0%
객관적 사실	16.7%	0%	25.0%	85.7%	25.0%
안보증시	66.7%	71.4%	25.0%	14.3%	25.0%

남북관계의 관계증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남북경협’에 대한 보도에서조차 언론사 별로 보도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한편 ‘핵’, ‘연평도’에 대한 보도태도의 경우 모든 언론사가 일관되게 안보증시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국민정서, 안보위협 등에 대한 국제 및 국내사회의 비관적인 여론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타났던 북한 및 통일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은 정부의 대북 정책의 홍보 및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입장을 취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언론보도가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이질감 및 남북관계에 대한 안보증시적인 의식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관련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sup>74)</sup>이 필요하며,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시각과 객관적·중립

74) 이종민, “통일 대비 방송의 역할과 기능”, 「방송과 시청자」 제33호(1998.7), p.7,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참조.

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오보<sup>75)</sup>의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는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의 수집 및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의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저한 사전 검토나 확인의 과정을 통해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 언론은 보도에 있어서 우선적인 원칙이 ‘사건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 이전에 특종주의에 입각한 ‘선(先) 보도 후(後) 확인’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여서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등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지장을 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76)</sup>

다음으로는 언론사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된 보도 태도이다. 특히 그간 언론은 특정 정치나 이념 지향보다는 특정 정당, 정권과 이해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태도 아래 언론사들의 남북관계 보도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객관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보도 태도는 남북관계에 있어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언론사별로 또는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를 쏟아내게 된다. 이런 보도 형태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 뿐 아니라 남남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남남 갈등은 남북갈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냉전의 산물인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언론사가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보도가 언론사의 의무이다.

## 제5장 결 론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은 국호를 혼용하는 상황을 불러 일으켰다. 같은 대한민국을 지칭하면서도 무의식 혹은 의식 중에 개인이 느끼는 단어의 내재된 의미에 따라 편의나 상황에 맞게 대한민국과 한국, 남한, 남측을 복합적으로

75) CBS, “북한에 관한 오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000년 4월 20일자 방송.

76) 전백경, “언론의 사회통일교육적 기능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0), pp.30-31.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언론사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는 단순히 사실이나 정보 보도 수준을 넘어 국민의 대북 인식과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쳐 현재의 통일 정책 추진과 향후 통일 한반도를 설계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국가 명칭 사용에 대한 태도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그에 따르는 의식 형성 및 변화 요인을 언론사의 보도태도(성향)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가명칭을 통해 분단 67년이 되는 현 시점을 재조명하는 것 또한 새로운 접근방식이었다고 판단된다.

〈표 14〉 언론사의 연도별 선호 국가명칭

언론사별	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A	선호	한국	한국	남측	남측	대한민국	남한 한국	한국
	비선호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남한 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남측
B	선호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남측 대한민국	남한	한국
	비선호	한국 남측	남측	한국 남측	남한 남측	한국	남측 한국	남측 대한민국
C	선호	남측	남측	남측	남측 한국	한국	한국 남한	남한 한국
	비선호	남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남측 대한민국	남측 대한민국	남측 대한민국
D	선호	남측	남측	남측	남측	남측	남측	한국
	비선호	남한	남한 한국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 한국	대한민국 한국	대한민국 한국	대한민국
E	선호	남측	남측	남측	남측	남측	남측	남한 한국
	비선호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국	-	한국	한국	대한민국	남측

특히 남북관계 관련 보도에서 사용되는 국가 명칭이 언론사 별로 고유의 성향과 선호도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A신문사는 남한이라는 표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전체적인 경향은 유지하면서도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변화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남한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총 보도량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국민 정서와 보수 정부 입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국가명칭을 표기하고 있다.

B신문사의 경우 남북관계를 예측하기 힘든 시기였던 2012년을 제외하면 남측과 한국을 선호하지 않는 표기 방식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남북관계 변화에 둔감한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이 대한민국의 약칭이라는 점과 남측은 역사적 의미보다는 지정학적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으로 국가명칭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신문사의 경우 대한민국을 선호하지 않는 표기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형태로 매우 민감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과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였던 2009년도에 뚜렷한 변화를 보여 줌으로써 진보 정권에서 표기경향이 민감하게 변화했다.

D방송사의 경우에는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상황 등 남북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명칭 표기량이 변화했다.

E방송사의 경우 집권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명칭을 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량이 연관성을 갖는 것과 달리 방송사는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남북 상황에 맞추어 선호하는 표기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국가명칭의 선호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국가명칭에 따라 보도태도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신문사의 경우 대한민국을 국가명칭으로 사용한 기사내용에서 가장 안보중시적인 태도와 정치적 의도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다.

B신문사의 경우 남한을 국가명칭으로 사용한 보도에서 가장 협력중시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C신문사는 기사내용에서 사용한 국가명칭이 대한민국일 때는 안보중시적 태도를, 한국일 때는 협력중시적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남한이 국가명칭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었으며, 남측이 국가명칭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주로 객관적 사실 태도로 사용되었다.

D방송사는 남한에 안보중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한민국과 한국을 국가명칭으로 사용할 때는 발생하는 남북문제에 따라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측의 경우 다른 국가명칭과 비교했을 때 안보중시적 측면과 객관적 사실 측면에

대한 의미로 쓰인 표기량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났다.

E방송사의 경우 남측을 주로 안보중시적 의미와 객관적 사실 의미로 사용하였다. 남측을 제외한 세 가지 국가 명칭에서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즉 각 언론사 별로 단순히 선호하는 국가명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특정 상황에 맞추어 국가명칭 표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의 관계증진을 심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성’을 키워드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언론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인식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변화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일에 대한 생각 및 시각 또는 관점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명칭 선호도 및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명칭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고 통일을 위한 언론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연구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명칭 선호도 및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분석과 정권별 분석 등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태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쳤다. 그에 반해 본 연구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약 7년 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협력중시, 안보중시, 객관적 사실의 단계로 나누어 개량화 하였고,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따라 ‘남한’, ‘남측’, ‘대한민국’, ‘한국’ 이라는 명칭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사의 태도 및 통일의식에 대한 흐름과 변화를 확인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통일의식에 대한 문제는 그 특성상 단편적인 연구보다는 통시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2008년에 통일의식이 현저히 떨어진 점에 초점을 맞추어 신문사 및 언론사의 보도태도, 보도량,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인 국가명칭 사용에 대해 2006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를 검토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국가명칭 및 남북관계의 보도태도 및 보도량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국가명칭의 선별 사용에 대하여 언론 스스로가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언론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국가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특정용어의 사용이 기사의 내용과 연계되어 그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각인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넷째, 언론이 지닌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와 성향을 독자(시청자)들이 자각하고 같은 국가 명칭 속에서도 내재된 의미가 언론사 별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현재 언론의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감추어져있던 많은 언론이 지닌 정파성을 객관적인 시각과 비교 방법으로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 관련 기사 보도에 있어서 각 언론사들이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언론사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론사의 성향에 따른 보도태도를 띠고 있었으며, 국가 명칭 표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언론사 고유의 주관적 시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독자(시청자)들은 잠재의식 속 언론사 고유의 정파성과 주관적 시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결국 독자(시청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국가를 놓고도 국가명칭의 내재된 의미에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기도하며 때로는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을 인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남북한 두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통일 한반도를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에 있어 객관적 시각과 판단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 객관적 시각과 판단의 부재는 결국 남남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 및 의식 차이에 따른 남남갈등은 통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균형 잡힌 언론 보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 보도 내용(보도 태도)에 있어서 언론사들의 중립성을 잃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독자(시청자)들의 객관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자정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자(독자)들에게도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하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준(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언론사들은 남북관계 관련 보도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과는 무관하게 정파성이나 이익관계에 따라 보도량이 증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언론사들은 자체적 합의를 통해 국가 명칭 표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이를 줄이고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대 사안 발표, 공익광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등에 있어서도 국가명칭에 대한 표기 통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언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보도태도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안보중시적인 측면이 보도 될 경우 협력중시적인 사례 또한 보도함으로써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의 국가명칭에 대한 표기 방식의 합의, 그리고 보도 내용면에서의 객관성을 지닌 태도와 분량, 그리고 명칭 사용에 대해서 민(民)-관(官)-학(學)이 연계 하여 논의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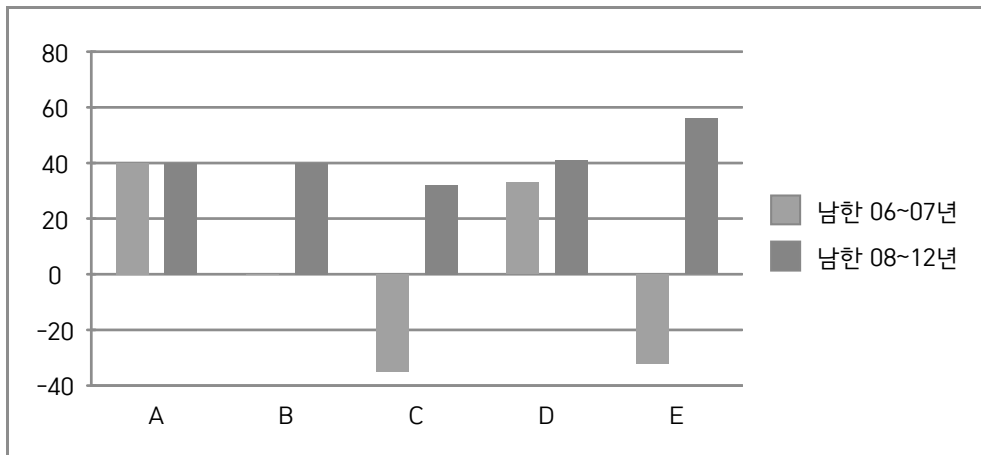
북한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이면서 함께 발전하고 포용해야 할 특수한 관계에 분류되어 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만큼은 우리의 민족이면서 통일을 위한 동반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국민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향후의 안정적인 통일은 물론이거니와 통일 후 한반도 사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남남갈등, 남북주민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기관인 언론사들은 남북관계의 보도로 말미암아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의식 및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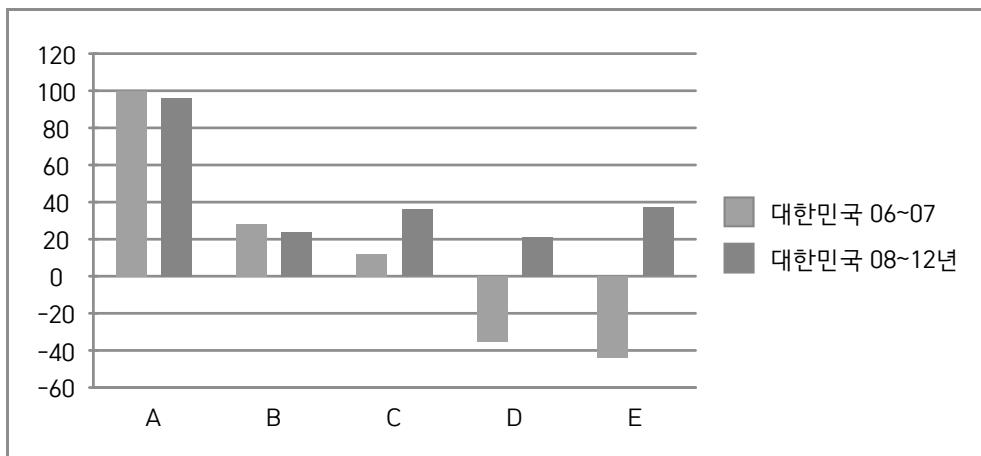
본 연구로 말미암아 향후 국가명칭 문제에 대한 언론 매체의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어떠한 프레임 유형과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시도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식형성에 있어서 언론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대한 과정 탐색 및 역추정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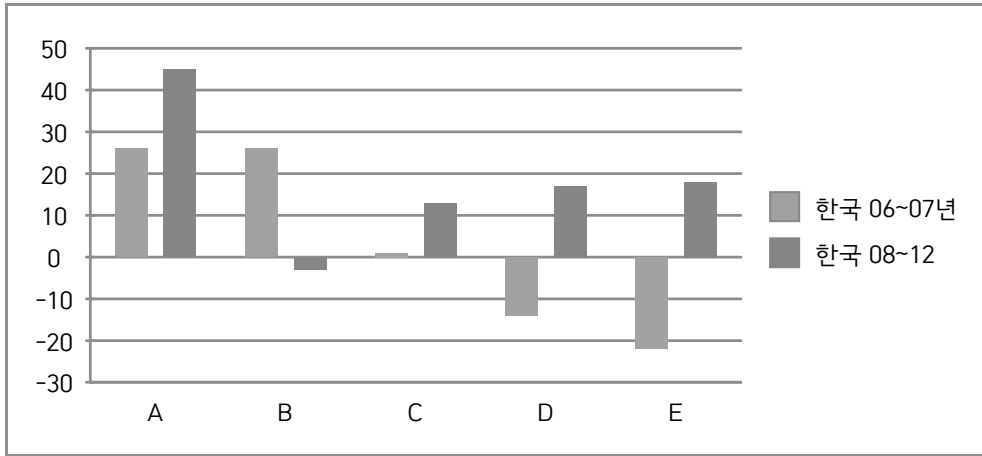
### 검색어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비교 (2006~2007년 / 2008~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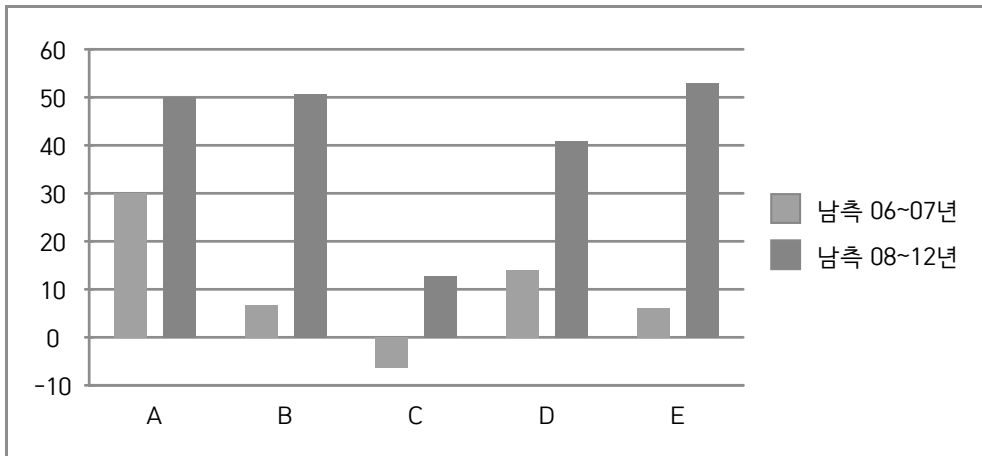
〈그림 1〉 검색어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비교 : 남한



〈그림 2〉 검색어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비교 : 대한민국



〈그림 3〉 검색어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비교 : 한국



〈그림 4〉 검색어별 안보중시적 보도지수 비교 : 남측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및 논문

- 고영신, “정치변동에 따른 한국 언론의 뉴스프레임 연구-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2005).
- 곽정례 · 이준용, “김대중 · 노무현정부 시기 탈북자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조선일보 · 한겨레신문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3권 6호, 한국언론학회(2009),
- 구광현, “Vygotsky의 언어적 사고발달이론에 대한 소고: 아동의 문자해독 및 글쓰기 지도를 위한 시사점” 「대신대학 논문집」 제13집 인문과학편(1993).
- 김경희 · 노기영,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韓國言論學報」, 55권 1호(2011).
- 김병로, “2011년 통일외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학술 심포지움」(2011).
- 김성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연구: 신문기사의 유형 및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2009).
- 김세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유사성과 차별성: 1면 구성과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전략 세미나 발표문(2010).
- 김지현, “비고츠키의 지식점유과정과 언어매개기능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서울대학교교육학 박사학위논문(200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 천년 기획 특별설문조사, “2천년 대 통일전망과 주요 정책과제- 전문가 2백인 대상 설문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담당관실(1999).
- 박용규, “한국언론의 북한보도 현황과 통일 지향성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논문집」, 제19호(1998).
- 손영준,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8권 2호, 한국언론학회(2004).
- 유호열 · 박현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정 2012-03 보고서」(2011).
- 윤영철,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의 극복과 언론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소통증진

- 방안연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09-04」(2009).
- 이상원, “비고츠키 발달 이론의 초등 도덕과 교육에의 적용방안”,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 이용철, “탈북자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연구-프레임과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2006).
- 이종민, “통일 대비 방송의 역할과 기능”, 「방송과 시청자」제33호(1998).
- 이준웅,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48권 1호, 한국언론학회(2004).
- 이창현·김성준, “북한관련 TV뉴스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9호, 한국언론정보학회(2002).
- 이혜윤,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2009).
- 전백경, “언론의 사회통일교육적 기능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 최영재·최용준·손영준·김상호, “신문열독이 대학생들의 사회지식 습득 및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14호(2009).
- 최현주, “한국 신문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4권 3호, 한국언론학회(2010).
- 하승희·이민규, “북한주민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2012).
- 한국신문협회, “NIE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0-15 보고서」(2010).
- 함인희·김석향·박현선·한정자,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대상별 차별화 방안 모색”, 통일부 용역과제(2000).

## 2. 언론 자료

문화일보

「CBS」



### 3. 외국 문헌 및 논문

- Alexander, Jefferey. and Philip. Smith. “*The Strong Program in Sociology: Elements of a Cultural Hermeneutics*,” in J. Turner(ed), *Handbook of Sociological Theor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2002).
- Bourdieu, Pierre. *Distin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1984).
- Bourdieu, Pierre. “*The Forms of Capital*.” Pp. 96-111 in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edited by Richard Swedberg and mark Granovetter. Boulder, CO: Westview.((1986).
- B. Rogoff,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on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Y: Oxford University Press」(1990).
- DiMaggio, Paul. “*Classification in Ar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1987).
- Edward Jay Epstein, “*News from nowhere: television and the news*”, 「Vintage Books」(1974).
- Entman, R.,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1993).
- Gaye Tuchman,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Free Press」 (1978).
-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1973).
- Ghaziani, Amin. “*Amorphous Mist? The Problem of Measurement in the Study of Culture*,” *Theory and Society* 38.(2009).
- Herbert J. Gans,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1979).
- Lizardo, Omar. “*How Cultural Tastes Shape Personal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1.(2006).
- Schudson, Michael. “*How culture works: perspectives from media studies on the efficacy of symbols*.” *Theory and Society*, 18.(1989).
- Sewell, William H. Jr. *The concept(s) of culture*. In V. E. Bonnell & L. Hunt (eds.), *Beyond the cultural turn: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society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99).
- Swidler, Ann.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1986).
- Vygotsky, L, S. “*Mind in Socie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 Havard University Press」(1978).

Williams, Raymond.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1976).

Wuthnow, Robert. *Meaning and moral order: Explorations in cultur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7).

#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essentials) 분석

## : 특성과 응집력을 중심으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1장 문제 제기 .....	428
제2장 이론적 배경 .....	431
제3장 범위와 구성원 .....	438
제4장 핵심집단의 특성 .....	452
제5장 핵심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안정성 .....	46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482
[참고 문헌] .....	486

---



## 표 목차

---

<표 1> 당의 핵심집단 구성원 .....	442
<표 2> 핵심집단 구성원 .....	442
<표 3> 권력서열 변화(2010. 9~2012. 4) .....	443
<표 4> 성비율 .....	453
<표 5> 연령 .....	454
<표 6> 출신지역 .....	454
<표 7>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 .....	455
<표 8> 혁명 유자녀와 고위층 자녀 .....	455
<표 9>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	456
<표 10> 학력 .....	456
<표 11> 출신대학 .....	456
<표 12> 해외유학 경험 .....	457
<표 13> 외국방문 경험 .....	458
<표 14> 소속 .....	458
<표 15> 지위 .....	458
<표 16> 인민군 계급 .....	459
<표 17> 분야별 공개 활동 현황(2011년 11월 20일 이후) .....	461
<표 18> 분야별 공개 활동 수행 빈도(2011년 11월 20일 이후) .....	462
<표 19> 군 공개 활동 횟수(상위 10명) .....	463
<표 20> 권력 중심성(Power Centrality) .....	464
<표 21> DISTRIBUTION OF POWER CENTRALITY SCORES .....	464
<표 22> 경제분야 공개 활동 횟수(상위 10명) .....	465
<표 23> 권력 중심성(Power Centrality) .....	466
<표 24> DISTRIBUTION OF POWER CENTRALITY SCORES .....	466
<표 25> 전체 공개 활동 횟수(상위 10명) .....	467
<표 26> 권력 중심성(Power Centrality) .....	468
<표 27> DISTRIBUTION OF POWER CENTRALITY SCORES .....	468

---

## 그림 목차

---

<그림 1> 군 공개 활동 네트워크(상위 10명) .....	465
<그림 2> 경제 활동 네트워크(상위 10명) .....	467
<그림 3> 전체 공개 활동 네트워크(상위 10명) .....	469

---

## 요 약 문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집단의 실체와 특성을 구명하고, 이들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열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엘리트 연구는 엘리트의 응집력 수준이 특정 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북한의 엘리트 연구는 주로 권력엘리트의 특성과 정치체제의 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선행 연구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내부 갈등이나 파벌형성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엘리트의 분열이나 권력 갈등으로 인해 해체되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권력엘리트의 응집력이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엘리트들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원인을 거의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트 응집력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또 북한권력의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핵심집단에 대한 연구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엘리트들 중 핵심집단의 응집력의 원인을 구명함으로써 엘리트의 분열이 일어나는 조건을 밝히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핵심집단의 사회적 배경 분석을 통해 핵심집단의 특성과 응집력의 원인을 구명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은 김정은에 대한 응집력이 강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핵심집단의 핵심 그룹은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인 로알패밀리, 혁명유자녀와 고위층 자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인 혁명 2세대에 속한 엘리트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핵심집단 48명중 21명(43.8%)을 차지했다. 또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최소 35년 이상의 당 생활과 군 복무 과정에서 간부충원 기준을 통과해서 핵심집단으로 진입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과 부의 공유라는 공통의 이해관계, 강한 동지적 연대의식,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한 엘리트 응집력을 형성하고 유지한다. 우선 북한정권은 엘리트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억압 체제를 활용한다. 북한정권은 핵심집단에 대한 권력과 부의 배분, 핵심집단의 구성원과 가족들에 대한 특권과 특혜 제공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충성을 유지했다.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시킨 또 다른 요인은 억압기제를 통해 형성된 공포였다. 김정일은 내부의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공포통치 수단으로 국가안전보위부·보위사령부·인민보안성 등 보위기구와 정치범수용

소를 운영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게는 잔인한 처벌이 가해졌다.

또 북한정권은 수령유일체제와 공산당 독재를 활용해서 강한 엘리트 응집력을 확보했다. 북한정권은 1967년 유일사상체제의 확립을 계기로 지도자와 핵심집단의 관계를 충성과 복종의 관계로 제도화시켰다. 김일성에 대한 핵심집단의 충성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확장되었고 다시 김정은에 대한 충성으로 계승되었다. 공산당은 전위당 노선, 민주집중제, 노멘클라투라 시스템 등 일련의 절차를 활용해서 수령에 대한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한다.

게다가 이념과 혈연적 동질성, 전쟁이나 혁명 등 극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된 강력한 연대의식 등 비물질적 요소를 통해 엘리트 응집력을 강화시켰다. 이것은 김일성과 만주파의 항일혁명 전통, 정치투쟁과 숙청을 통해 형성된 공동운명체 의식과 정서적 유대감을 계승한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에서 엘리트의 분열은 김정은이 권력집중에 실패함으로써 핵심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때 심화될 것이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려면 지배연합 내에서 김일성·김정일 정도로 권력집중에 성공해야 한다. 김정은은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핵심 엘리트들에게 당·군·내각·보위기관 등 핵심 권력기구의 권한을 분산해서 통치하는 과도기적 통치 구조를 확립했다. 그러나 핵심 엘리트들에 대한 권력분산이 장기화됨으로써 핵심 엘리트들의 권력이 확대될 경우, 김정은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핵심집단 내에서 자신에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김정은의 권력이 핵심 엘리트들에게 분산됨으로써 권력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권력집중에 성공해서 일부 핵심집단을 제거·교체·축소한 후에 비로소 김정은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지지와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집단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부의 공유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보장해야 한다. 독재자는 렌트 축적자로서 엘리트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평가를 받아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렌트 축적자의 역할에 실패함으로써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권력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재자는 핵심집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핵심층근의 충성심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이 렌트 축적자로서 권력과 부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핵심집단의 응집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성택은 김정은 정권에서 권력투쟁의 중심인물이다. 그는 당과 군부에 자기



사람들을 채워놓았고 심지어 돈줄까지 장악하고 있다. 장성택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력 배분과 이권 개입 과정에서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이나 군부 그리고 장성택 견제세력과 권력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김정은이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장성택과의 협력관계가 깨지고 권력 갈등이 발생할 경우 김정은과 장성택 사이에 심각한 정치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부의 반발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에게 중대한 도전 요인이다. 리영호 숙청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경제적 이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표면적으로 별다른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옮기는 일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핵심집단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권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군부의 불만이 축적되면 김정은에 대한 반발이나 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당의 군 장악 작업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권력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에서 무력기관과 권력기관들 사이에 상호경쟁과 견제, 충성경쟁으로 인한 권력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군부와 당, 군부의 각 기관, 당의 각 기관 사이에 더 많은 권력 지분과 경제적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경쟁이 존재한다. 각 기관은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보장받기 위해 충성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기관간의 권력과 이권 경쟁은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군부 내에서는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가 상호견제와 감시, 충성경쟁을 통한 이익집단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군부·내각·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등의 권력기관은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이권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 있다. 김정일은 기관들 사이의 알력과 경쟁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정은이 이러한 알력과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기관 간 경쟁은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단기적으로 핵심집단의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김정은의 불완전한 리더십,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군부의 반발, 권력기관 간 경쟁과 갈등 요인으로 인해 핵심집단의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심각한 권력 갈등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핵심집단의 구성원들과 그들 내부의 권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제1장 문제 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집단의 실체와 특성을 구명하고, 이들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열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엘리트 연구는 엘리트의 응집력 수준이 특정 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엘리트 연구의 본질적 과제 중 하나는 엘리트의 응집력이 어느 정도인지 집단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의 행동의지가 표출되는지를 밝히는 일이다.<sup>1)</sup>

북한의 엘리트 연구는 주로 권력엘리트의 특성과 정치체제의 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sup>2)</sup>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엘리트 층원구조나 엘리트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력엘리트의 특성을 구명했다. 북한의 엘리트집단은 내부 갈등이나 파벌형성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권력 갈등으로 인해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김정일 정권의 엘리트 연구도 거의 유사한 결론을 제시한다. 김정일 정권은 권력엘리트들 중 주요인물을 교체하면서 세대교체를 진행했으나 엘리트집단의 특성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sup>3)</sup>

북한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구조와 김정은 체제를 다룬 연구는 북한의 집권엘리트는 중첩성과 지속성이 높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엘리트의 네트워크가 내부에서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낮고, 상징적 수령인 김정은의 카리스마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의 집권엘리트가 실질적 집단지도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1인권위와 집단지도의 공존체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선행연구들은 북한체제가 엘리트의 분열로 인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권력엘리트의 응집력이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엘리트들이

1)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9), p.95.

2)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서울: 한울, 200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서울: 선인, 2007);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내정치: 선군정치와 권력엘리트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2007. 12. 14); 전현준 등,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8);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1992).

3) 전현준,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8); 박형중 등, “Ⅲ. 권력엘리트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51-98.

4) 박영자,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Post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p.33, 61.

응집력을 유지하는 원인을 거의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트 응집력의 변화 가능성이 전망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엘리트의 응집력은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엘리트 내부의 권력관계와 이해관계가 변함에 따라 내부 분열이 일어남으로써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엘리트 응집력의 원인을 구명함으로써 엘리트의 분열이 일어나는 조건을 밝히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또 권력엘리트 연구는 북한권력의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핵심집단에 대한 연구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체제는 권력의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엘리트들 중에서 핵심집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집단을 구성하는 정치엘리트들이 누구인가,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은 어떤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핵심집단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집단은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 분열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핵심집단의 구성원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핵심집단은 엘리트 이론가들이 제시한 엘리트 개념을 원용해서 개념화하고, 핵심집단의 구성원은 북한체제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해서 정한다. 핵심집단의 특성은 핵심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구명한다.

다음 단계는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구명할 것이다. 우선 핵심집단의 응집력은 핵심집단에서 새롭게 부상한 엘리트를 파악하고, 누가 김정은과 근접성이 있는지, 김정은의 권력 집중성(power centrality)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핵심집단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원인을 구명함으로써 엘리트 분열이 발생하는 조건을 밝힐 것이다. 권력엘리트의 응집력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인간집단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권력배분의 불균형은 인간의 속성상 권력투쟁을 낳기 때문에 권력엘리트 내부에는 권력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만약 권력엘리트 내부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권력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독재자와 권력엘리트 또는 권력엘리트 상호간에 권력 갈등이나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정성적 방법을 활용한다. 연구 자료는 북한의 엘리트에 관한 단행본과 논문, 북한 엘리트들의 동향을 보도하는 북한 언론기사, 북한의 엘리트 동향을 보도하는 국내외 언론기사, 북한 엘리트들과 관련한 통일부 자료, 탈북자 수기 등을 활용한다. 또 핵심집단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한다.

통계분석은 통계전문 프로그램인 SPSS12.0을 활용한다. 핵심집단의 통계분석 자료는 2012년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를 주로 활용했고, 통일연구원 북한정보자료센터(<http://nkinfo.kinu.or.kr>)에 수록된 주요인물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김정은의 권력 집중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시도한다. 사회연결망분석은 넷마이너(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분석 자료는 통일부에서 제공한 “김정은 공개활동 현황” 자료를 활용한다.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한다. 1장은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방법, 연구 구성을 기술한다. 2장은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엘리트, 핵심집단 등 주요 개념을 엘리트 이론을 기초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엘리트의 응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3장은 핵심집단의 범위와 구성원을 분석한다. 핵심집단의 구성원은 공식서열이나 당·군·정의 지위와 직책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공식서열이나 지위와 직책과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핵심집단 선정과정에서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4장은 핵심집단의 특성을 분석한다. 핵심집단의 특성은 핵심집단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연결망을 분석을 통해 구명한다. 핵심집단의 특성은 엘리트의 응집력을 구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5장은 핵심집단 응집력과 정치적 안정성을 분석한다. 이 장은 핵심집단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원인을 구명하고 핵심집단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밝힌다. 6장은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연구는 엘리트 이론을 적용해서 김정은의 핵심집단의 구성원과 특성 그리고 응집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정치엘리트 중에서 권력의 최상층을 구성하는 핵심집단에 대한 연구고, 핵심집단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원인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 연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집단의 특성과 응집력 분석은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정치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주체와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승인하며 반항하는 기능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다.<sup>5)</sup> 엘리트 이론은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다룬다. 북한의 정치엘리트 연구는 정치권력의 주체와 기능을 이해하는 일이다. 즉, 권력구조를 조사하고,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들은 응집력이 있고 자의식이 강한 소수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소수의 지배는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과정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정치엘리트 연구는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책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정치엘리트 연구는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엘리트의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게타노 모스카(Gaetano Mosca)와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의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는 중추적인 조직과 운동에서 전략적 노선선정(strategic locations)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적 결과에 통제적이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sup>7)</sup> 즉,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 엘리트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의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다.<sup>8)</sup>

모스카는 모든 사회에는 항상 소수이지만 모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향유하는 지배계급과 다수이지만 어떤 때는 합법적으로 어떤 때는 자의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지배계급에 의해 지도·통제되는 지배받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up>9)</sup> 이러한 엘리트 지배의 결정요인은 소수 인사들의 조직 능력에 달려있다.<sup>10)</sup> 엘리트 지배는 정치체제에 따라 권위의 흐름과 지배계급의 충원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정치 조직체에서 권위의 흐름은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제주의적 원칙과 위쪽으로 흐르는 자유주의적 원칙이 있고, 지배계급의 충원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기존의 지배계급의

5) 이극찬, 『정치학』(서울: 법문사, 2003), p.165.

6)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9), p.14.

7) John Higley, "Elite Theory in Political Sociology," p.3.

8) R. D. Putnam,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6), p.14.

9)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0), p.50.

10)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p.37.

자손들을 충원하는 경향인 귀족주의적 경향과 지배받고 있는 하층 계급 출신으로 지배계급을 충원하는 민주주의적 경향으로 구분한다.<sup>11)</sup>

파레토는 모든 사회의 역사를 엘리트와 비엘리트 간 역사로 보면서, 이것은 다름 아닌 심리학적인 요인에 의해 구성된 엘리트 형성의 역사라고 분석했다. 파레토는 모든 사회를 권력을 가진 통치엘리트와 권력을 갖지 못한 대중, 즉 비통치 엘리트라는 2가지 분석적 범주로 구분한다.<sup>12)</sup> 파레토는 엘리트의 지배를 조직 능력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기본적인 심리적 요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sup>13)</sup> 파레토는 인간의 비논리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잔기(residues), 파생체(derivations), 사회적 이질성(social heterogeneity)이라는 이론적 요소를 도입했다. 잔기는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과 본능을 가리킨다. 파생체는 인간의 욕구와 행동에 대해 설명할 필요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된 생각의 능력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논리의 겉치장(veneer of logic)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이질성은 엘리트와 비엘리트, 통치엘리트와 비통치 엘리트 사이의 구별을 의미한다.<sup>14)</sup>

파레토는 엘리트의 지배와 교체를 잔기(residues)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파레토는 다수의 중요한 잔기를 결합의 본능(instinct of combinations)과 집합체의 유지(persistence of aggregates)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제1류의 잔기인 ‘결합의 본능’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여러 관념들을 결합해 보려는 충동으로써 예술, 이데올로기, 정치적 연합과 권모술수 등 활발하고 창의에 가득 찬 본능에서 발생한다. 제2류의 잔기인 ‘결합체의 유지’는 한번 확립된 상태를 그대로 확고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으로써 영속과 안정 그리고 질서를 추구하는 본능으로 표현된다. 파레토는 이러한 잔기와 그것에 대응하는 본능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떤 상태로 배분되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제1류의 잔기를 가진 여우형 엘리트와 제2류의 잔기를 가진 사자형 엘리트로 구분한다. 여우형 엘리트는 국민들의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통치한다. 그들은 대중을 사로잡을 만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고 당면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며 그때그때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한다. 사자형 엘리트는 폭력의 사용이 빈번하게 동원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11)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pp.394-417.

12) John Higley, Jan Pakulski, “Pareto’s Theory of Elite Cycles: A Reconsideration and Application,” p.3.

13)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p.45.

14) Alan Zuckerman, “The Concept ‘Political Elite’: Lessons from Mosca and Pareto,” *The Journal of Politics*, vol. 39, 1977, p.336.

다. 개개인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공적인 질서의 유지가 통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적대자들을 철저히 억압한다.<sup>15)</sup>

모스카와 파레토 이후에 등장한 엘리트 이론가들은 개념의 이론적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엘리트 이론가들은 엘리트를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했다. 라스웰(Harold Lasswell)은 정치엘리트를 정치체의 권력보유자들로 구성되는 최상층 권력계급이라고 정의한다.<sup>16)</sup> 보토모어(T. B. Bottomore)는 정치권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위한 투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집단들을 언급하는 데 모스카의 정치계급을 사용한다. 보토모어는 정치계급 중에서도 사회에서 정치권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더 소규모의 집단을 정치엘리트라고 구별한다.<sup>17)</sup> 달(Robert Dahl)은 다수자보다는 그 수가 적으며 민주적 지배의 유물이 아닌 통제집단이며 중요한 쟁점의 결정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소수자를 지배엘리트(ruling elite)라고 규정한다.<sup>18)</sup> 마이젤(James Meisel)은 엘리트 지배를 소규모 지도자 집단이나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중들에 대한 집단적 조작으로 본다. 엘리트 구성원들은 그룹이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행동은 그룹이나 계급의 연대에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연대는 공통 의지 내에서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한다.<sup>19)</sup> 밀즈(C. W. Mills)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워엘리트(power elite)라고 개념화한다.<sup>20)</sup>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의 개념은 개념적·이론적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이론적 도전을 받았다. 정치엘리트 개념은 이론적 설명력이 향상되지 않았고 개념의 정밀성도 나아지지 않았다.<sup>21)</sup> 정치엘리트라는 용어가 아닌 개념의 창시자인 모스카는 정치엘리트라는 개념은 개념적·이론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모스카는 지배계급이라는 아이디어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자신의 이론은 정치적 이론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sup>22)</sup> 엘리트

15)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pp.46-47.

16) Harold Lasswell, "Agenda for the Study of Political Elites," Dwaine Marvick, (ed.), *Political Decision-Makers* (Glencoe: The Free Press, 1961), p.66.

17) T. B. Bottomore, *Elites and Society* (Middlesex: Pelican, 1964), p.10.

18) Alan Zuckerman, "The Concept 'Political Elite': Lessons from Mosca and Pareto," *The Journal of Politics*, Vol. 39, No. 2(May, 1977), pp.325-326.

19) James Meisel, *The Myth of the Ruling Class: Gaetano Mosca and the "Eli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8), p.4.

20) C. W. Mills,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p.3-4.

21) Alan Zuckerman, "The Concept 'Political Elite': Lessons from Mosca and Pareto," p.325.

22)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p.332.

의 정의는 라스웰의 정치적 엘리트와 보토모어의 정치계급과 같이 다른 라벨(labels)들이 같은 개념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거나 달의 지배엘리트와 마이젤의 엘리트나 지배계급과 같이 다른 개념들이 같은 라벨에 의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sup>23)</sup> 이 연구는 엘리트 개념에 개념적·이론적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스카와 파레토의 이론적 체계 내에서 정의된 정치엘리트 개념을 따를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치엘리트는 특정 사회에 항상 소수이지만 모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향유하는 지배계급이나 통치엘리트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소수의 지배계급인 정치엘리트의 존재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엘리트의 존재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나 북한에도 정치엘리트인 소수의 지배계급이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다수의 대중을 지배한다. 북한에서 ‘엘리트’는 “반당적 부르주아 사회학설에서 ‘선발 된 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로 규정된다.<sup>24)</sup> 북한이 엘리트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엘리트에 해당하는 사회계층을 지칭하는 ‘간부(cadr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은 ‘간부’의 개념을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꾼, 당의 골간 역량이며 당 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라고 정의한다.<sup>25)</sup> 간부의 개념은 정치엘리트의 개념과 유사하다.

엘리트 이론가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어느 사회에도 그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sup>26)</sup> 이들은 한 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이고 사회의 전반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엘리트들이다. 단독으로 통치하는 단일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는 소수의 지지집단, 즉 정치엘리트에 의존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sup>27)</sup> 이러한 생각은 미헬스(Robert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으로 개념화되었다. 미헬스는 소수의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과두제의 철칙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모든 인간집단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주장했다.<sup>28)</sup> 미헬스는 독일 사회민주당

23) Alan Zuckerman, “The Concept “Political Elite”: Lessons from Mosca and Pareto,” p.327.

24)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 p.1757.

25)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 p.64;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p.18-19 재인용.

26)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p.30.

27)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LLC, 2011), p.37.

28) R. Michels, *Political Parties* (Glencoe: Free Press, 1915), p.342.



에 관한 연구에서 정당의 통제권은 의회의 원내 당지도자와 당 사무국 관료들의 통합된 세력의 수중에 장악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기초로 과두제의 철칙을 제기했다. 그는 조직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바로 과두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엘리트 지배체제로의 지향을 부정하려 했던 조직조차도 결국은 과두제의 철칙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sup>29)</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도 과두제의 철칙이 적용되는 체제다.

엘리트이론에 대한 도전은 사회의 권력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대표하는 다양한 이익집단 사이에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다원론에 의해 이루어졌다.<sup>30)</sup> 다원론자들은 정치의 게임은 각기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고 본다. 다원론자들은 다원적이고 분화된 사회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한 운영은 가치나 충원과정과 그 기반 그리고 영향력의 행사방법이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사회의 영향력 장악을 둘러싸고 경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단일한 권력집단도 그 지역공동체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없다고 본다.<sup>31)</sup> 그러나 북한체제는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인민들이 정치권력 변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구별되기 때문에 다원론을 적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엘리트이론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북한체제는 모든 권력이 수령에게 고도로 집중된 수령독재체제다. 수령론과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10대원칙은 수령을 절대 권력의 소유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수령은 결코 절대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통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수령은 당·군·정의 소수 정치엘리트들에게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통치를 실행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권력을 이해하려면 권력의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소수의 지배계급인 정치엘리트를 이해해야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엘리트들 중에서 핵심집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핵심집단이라는 용어는 메스키타와 스미스(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의 저서 『독재자의 핸드북』(The Dictator's Handbook)에서 사용되었다. 메스키타와 스미스에 따르면, 지도자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배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승리연합을 구성한다. 승리연합은 그들의 지지 없이는 지도자가 존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람들만을 포함한다. 승리연합은 대체가능집단(interchangeables),

29) Ibid, p.418.

30)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p.14.

31) Ibid, pp.65-67.

유력집단(*influentials*), 핵심집단(*essentials*)으로 구성된다. 선거에서 핵심집단은 선출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의미한다. 독재는 대규모의 대체가능집단에서 선발한 극소수의 핵심집단과 비교적 적은 수의 유력집단에 의존하는 정부를 말한다.<sup>32)</sup>

메스키타와 스미스가 제시한 핵심집단은 정교한 이론적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엘리트 이론가들이 제시한 엘리트의 계층화에 대한 설명을 원용해서 핵심집단을 개념화해야 한다. 모스카는 엘리트들을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한다. 지배계급의 최상층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지배계급의 최상층 밑에 존재하는 하층 엘리트들은 좀 더 다수이고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sup>33)</sup> 파레토는 엘리트 내부의 핵심세력은 특전을 부여하거나 경제적·정치적 가치의 적절한 배분과 조정을 통해 최소한 단기적인 면에서 의도적인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sup>34)</sup> 밀즈는 엘리트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중핵 부분(*inner core*)과 결정에 단지 고려되는 인사들인 주변부분(*outer fringes*)으로 구별한다. 권력엘리트의 최고 중핵은 정치·경제·군부 중 어느 한 곳의 최상층부의 지배 지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주요 제도의 최상층 지위와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주변부분을 구성하는 엘리트들은 중핵부분보다 변하기 쉽고, 어떤 중대한 결정에 참가하지도 않으며, 주요한 여러 제도의 지위를 전전한 경력도 없으나 실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sup>35)</sup> 모스카와 파레토 그리고 밀즈의 개념을 차용하면, 메스키타와 스미스가 제시한 핵심집단은 소수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극소수의 최상층 정치엘리트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핵심집단은 공통의 의지를 가진 응집력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모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권력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향유한다.<sup>36)</sup> 핵심집단은 정치엘리트의 특성을 공유한다. 정치엘리트는 집단적 의식(*group consciousness*), 응집력(*coherence*), 공통의 행동의지(*conspiracy*)를 가진 집단이다.<sup>37)</sup>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의식, 응집력과 통일성은 엘리트들이 놓여 있는 공통

32)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독재자의 핸드북』(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12),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LLC, 2011), pp.41-49.

33)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p.404.

34)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p.48.

35) C. W. 밀즈, 진덕규 번역, 『파워엘리트』(서울: 한길사, 1995), pp.386-391.

36)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p.50.

37) James H. Meisel, *The Myth of the Ruling Class: Gaetano Mosca and the Eli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8), p.4.

된 상황이나 이익 그리고 집단의 연대적 행위에서 형성된 집단정신의 소산이다.<sup>38)</sup>

북한에서 핵심집단의 응집력은 독재정권의 일반적 특성에서 형성된 것이다. 독재정권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고 적들을 제거하는 제도를 고안해서 유지해야 한다. 모든 독재정권의 제도는 정권의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고 반대자들을 억압한다.<sup>39)</sup> 독재자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은 독재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억압능력은 사회통제나 반대세력 차단보다 유용하다. 왜냐하면 국가의 억압기제의 규모가 크고 사회 침투력이 강하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기층에서 반대세력의 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0)</sup> 독재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충성과 억압 변수를 체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조합해서 활용한다.<sup>41)</sup> 이러한 독재체제의 보상과 억압 제도는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보상은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억압은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의 공포를 야기한다.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집단의 응집력은 보상을 통해 형성된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억압을 통한 공포에 의해 유지된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 연구는 구성원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응집력의 원인과 분열 조건을 밝힘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전망하는 작업이다. 핵심집단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주요인물의 특성은 무엇인지, 핵심집단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또 핵심집단 응집력의 원인과 분열 조건을 분석해야 한다. 핵심집단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핵심집단에서 누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 응집력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응집력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핵심집단의 응집력 분석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전망을 제시해 줄 것이다.

38)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p.32.

39)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4.

40) 김진하, “김정은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2-20, p.4.

41)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pp.14-15.

## 제3장 범위와 구성원

### 제1절 구성원

사회주의 국가에서 엘리트의 구성원은 지위·직책과 공식서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정치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이 당에서 차지하는 지위다.<sup>42)</sup>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의 일당지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의 정치엘리트들이 국가기관의 직책을 겸직하는 당-국가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43)</sup> 그러나 북한체제에서는 공식서열이나 지위·직책과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북한체제에서 핵심집단의 구성원은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당에서 차지하는 지위·직책과 공식서열을 감안해서 정해야 한다. 북한에서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당의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전문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동시에 당·군·정의 최상층 권력기구를 겸직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메스키타는 북한에서 승리연합의 규모가 200여명을 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sup>44)</sup> 핵심집단은 승리연합 중에서 소수의 최상층 엘리트만 포함한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은 정치엘리트들 중에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소수의 핵심 엘리트들만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핵심집단 구성원들은 당의 최고권력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국과 전문부서, 검열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고, 당·군·정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45)</sup> 그러므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은 조선로동당의 최고권력기구다. 이 두 기구의

42) T. H. Rigby, "The Soviet Political Elite 1917-1922,"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 No. 4 (Oct., 1971), p.416.

43) Jan F. Triska, *Communist Party-State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Studies* (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1969), p.4.

44)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독재자의 핸드북』(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12),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LLC, 2011), p.44.

45)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규약," p.13.

구성원들은 당·군·정의 최상층부를 구성하고 있고, 핵심집단의 주축을 이룬다. 당 정치국에서 핵심집단은 상무위원인 김정은·김영남·최영림·최룡해 등이다. 원래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리영호 총참모장이 상무위원을 맡았으나 2012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조직 문제로 해임되었다. 이후 현영철이 신임 총참모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들 중 김정은은 핵심집단의 지도자로서 권력의 최정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룡해는 총정치국장으로 김정은의 군 장악을 보좌하고 있고, 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이다. 반면 김영남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최영림은 내각총리로서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지만 상무위원회가 실질적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과 군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영향력이 당 비서들에 비해 떨어진다.

정치국 위원은 김경희·김정각·장성택·박도춘·김영춘·김국태·김기남·최태복·양형섭·리용무·강석주·현철해·김원홍·리명수·전병호·변영립이다. 정치국 위원 중에서 김경희와 장성택은 김정은의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때문에 핵심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다. 그 외에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은 김정각·김영춘·현철해·김원홍·리명수 등이다. 김정각·김영춘·현철해 등은 김정은의 군 장악을 보좌하고 있고, 김원홍·리명수는 김정은의 보위기구 장악을 보좌한다. 변영립(29년생)은 오랫동안 내각에서 교육상 등을 맡았고, 201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에서 해임된 후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국 위원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낮다. 그러므로 변영립은 핵심집단에서 제외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오극렬·김양건·김영일·태종수·김평해·문경덕·주규창·곽범기·김창섭·리병삼·로두철·조연준·김락희·리태남·우동측 등이다.<sup>46)</sup> 리태남은 내각 부총리에서 해임되어 특별한 직책이 없고, 김락희는 내각 부총리이지만 당 비서국에서 주요 직책을 맡지 못했다. 리태남과 김락희는 정치국 후보위원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핵심집단에서 제외했다. 우동측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지만 뇌출혈설이 있고, 김원홍이 신임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낮다고 보고 핵심집단에서 제외했다.<sup>47)</sup>

46)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서울: 현프린트, 2012), p.9.

47) 윤일건, “우동측 北보위부 1부부장 행방모연…‘경질설,’” 『연합뉴스』 2012년 4월 17일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 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비서국은 북한의 당과 국가, 군대 그리고 사회조직을 조직·지도하고 노동당을 운영하는 사실상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비서국과 전문부서는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당·군·정의 통치 활동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 기구들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비서국의 중요성은 김정일이 월 1~2회 정도 비서국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의에는 비서들과 조직지도부 부부장들, 선전부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sup>48)</sup> 비서국 비서는 김경희·박도춘·김기남·최태복·김양건·김영일·김평해·문경덕·곽범기 등이고, 비서국 전문부서의 부장은 김경옥·조연준·김인걸·황병서·김평해·박봉주·곽범기·최희정·김영일·오일정·리영수·주규창·김정임·채의정·김기남·김양건·장성택·김영춘 등이다.<sup>49)</sup> 비서국의 비서와 전문부서의 부장은 대부분 핵심집단에 포함된다.

조직지도부는 중앙당, 행정부, 군, 사회단체, 기업소, 교육기관 등 모든 조직에 설치된 당위원회를 직접 지도·통제한다. 또 국가의 핵심기구들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와 별도로 당중앙위원회 직속의 정치기관을 두어 해당 기관을 관리한다.<sup>50)</sup> 조직지도부는 당·군·정의 모든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통제하기 때문에 조선로동당 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조직지도부는 부장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경희가 비서국 비서에 임명된 것을 고려할 때, 부장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직지도부는 조선로동당 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이고, 제1부부장과 부부장은 비서국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그러므로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과 부부장들은 핵심집단에 포함시켰다. 반면 김정임(당역사연구소 소장)과 채희정(문서정리실장)은 업무의 중요성과 정치적 영향력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핵심집단에서 제외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기구다.<sup>51)</sup> 북한은 당 우위체제의 특성상 당이 군사정책을 결정한다. 당 중앙군사위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정책의 최고결정기관

chpart=article&searchtext=%ec%9a%b0%eb%8f%99%ec%b8%a1&contents\_id=AKR20120416104400014(검색일 2012년 5월 3일); 김승재, “김정은 최측근 우동측, 뇌출혈로 쓰러져,” 『YTN』 2012년 4월 29일자, [http://www.ytn.co.kr/\\_ln/0104\\_201204290400300537](http://www.ytn.co.kr/_ln/0104_201204290400300537)(검색일자 2012년 5월 3일).

48)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p.22.

49)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p.9, pp.13-16.

50)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pp.24-25.

51)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규약,” p.13.

이다. 그러므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원은 핵심집단에 포함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총정치국·총참모부·호위사령부·국방위원회·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성·보위사령부 등의 최상층 엘리트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김정은, 최룡해(총정치국장), 현영철(총참모장), 김정각(인민무력부장), 장성택(당 행정부장),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 박원식(해군사령관), 리병철(공군사령관), 최부일(부총참모장), 김영철(정찰총국장), 윤정린(호위사령관), 최경성(제11폭풍군단장), 김락겸(전략로켓군사령관), 최상려(미사일지도국장) 등이다. 현영철은 2012년 7월 16일 신임 총참모장에 임명되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핵심집단에 포함되었다. 정명도 해군사령관은 해임되었기 때문에 핵심집단에서 제외했고, 신임 해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원식을 핵심집단에 포함시켰다.<sup>52)</sup> 그러나 현영철·박원식의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나 내각은 당의 지도에 따라 자신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국가기구이고 실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핵심집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내각 총리와 부총리들은 당 기구에서 중요 직책을 겸직한 경우만 핵심집단에 포함시켰다.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령도체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율을 어긴 당원에게 당적 책임을 추궁하며 당 규율 문제와 관련한 도당위원회의 제의와 당원의 신소를 심의·처리한다.<sup>53)</sup> 검열위원회는 당 내에 당원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통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김국태 검열위원장을 핵심집단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선정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 구성원은 총48명이다. <표 1>은 당의 최고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한 핵심집단의 구성원이고, <표 2>는 권력서열을 감안해서 핵심집단의 구성원을 정리했다.

52) 김태홍, “북한 정명도 해군사령관 최근 물러난 듯,” 『DailyNK』 2012년 8월 5일자,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96457>(검색일 2012년 8월 5일).

53)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규약,” p.13.

〈표 1〉 당의 핵심집단 구성원

기구		구성원
제1비서		김정은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위원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전병호
	후보위원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곽범기, 김창섭, 리병삼, 로두철, 조연준
비서국	비서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부장	김경옥, 조연준, 김인걸, 황병서, 김평해, 박봉주, 곽범기, 최희정, 김영일, 오일정, 리영수, 주규창, 김기남, 김양건, 장성택, 김영춘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주규창, 김명국, 김경옥,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최상려
검열위원회		김국태

\*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pp.9-16.

\*\* 김정임(당역사연구소 소장)과 채희정(문서정리실장)은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서 핵심집단에서 제외함. 정치적 영향력이 낮은 리태남과 김락희는 핵심집단에서 제외함.

\*\*\* 리영호와 정명도는 해임되었기 때문에 핵심집단에서 제외함. 신임 총참모장 현영철과 신임 해군사령관 박원식을 핵심집단에 포함시킴.

〈표 2〉 핵심집단 구성원

순서	이름	소속	순서	이름	소속	순서	이름	소속
1	김정은	당	17	현철해	군	33	김경옥	당
2	김영남	내각	18	김원홍	군	34	김인걸	당
3	최영림	내각	19	리명수	군	35	황병서	당
4	최룡해	군	20	전병호	당	36	박봉주	당
5	현영철	군	21	오극렬	군	37	최희정	당
6	김경희	당	22	김양건	당	38	오일정	당
7	김정각	군	23	김영일	당	39	리영수	당
8	장성택	당	24	태종수	당	40	김명국	군
9	박도춘	당	25	김평해	당	41	박원식	군
10	김영춘	군	26	문경덕	당	42	리병철	군
11	김국태	당	27	주규창	당	43	최부일	군
12	김기남	당	28	곽범기	당	44	김영철	군
13	최태복	내각	29	김창섭	군	45	윤정린	군
14	양형섭	내각	30	리병삼	군	46	최경성	군
15	리용무	군	31	로두철	내각	47	김락겸	군
16	강석주	당	32	조연준	당	48	최상려	군



핵심집단의 구성원은 제3차 당대표자회와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새롭게 부상했다.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권력서열 30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기별 권력서열의 변화를 보면, 김정은 정권에서 누가 부상했고, 누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인된 제3차 당대표자회부터 김정은이 당 제1비서로 선출된 제4차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의 권력서열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권력서열은 북한의 주요 행사에서 『로동신문』에 보도된 엘리트들의 순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표 3> 권력서열 변화(2010. 9~2012. 4)

	2010	2011		2012			
	9.28	12.17	12.20	1.1	2.16	4.14	4.25
1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2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최영립	최영립	최영립	최영립	최영립	최영립	최영립
4	김정은	리영호	리영호	리영호	리영호	<b>최룡해</b>	<b>최룡해</b>
5	리을설	김영춘	<b>김경희</b>	<b>김경희</b>	<b>김경희</b>	리영호	리영호
6	김철만	전병호	김영춘	김영춘	김영춘	<b>김경희</b>	<b>김경희</b>
7	김영춘	김국태	전병호	김기남	김기남	<b>김정각</b>	<b>김정각</b>
8	전병호	김기남	김국태	최태복	최태복	<b>장성택</b>	<b>장성택</b>
9	김국태	최태복	김기남	양형섭	양형섭	박도춘	김영춘
10	김기남	양형섭	최태복	강석주	강석주	김영춘	김국태
11	최태복	강석주	양형섭	<b>장성택</b>	<b>장성택</b>	김국태	김기남
12	양형섭	변영립	리용무	<b>김정각</b>	<b>김정각</b>	김기남	최태복
13	강석주	리용무	오극렬	김양건	김양건	최태복	박도춘
14	변영립	<b>김경희</b>	강석주	김영일	김영일	양형섭	양형섭
15	리용무	김양건	변영립	박도춘	박도춘	강석주	강석주
16	주상상	김영일	<b>장성택</b>	<b>최룡해</b>	<b>최룡해</b>	리용무	<b>현철해</b>
17	홍석형	박도춘	<b>김정각</b>	태종수	태종수	<b>현철해</b>	<b>김원홍</b>
18	<b>김경희</b>	<b>최룡해</b>	김양건	김평해	김평해	<b>김원홍</b>	<b>리명수</b>
19	김양건	<b>장성택</b>	김영일	<b>문경덕</b>	<b>문경덕</b>	<b>리명수</b>	김양건
20	김영일	주규창	박도춘	주규창	주규창	오극렬	김영일
21	박도춘	김락희	<b>최룡해</b>	우동측	우동측	김양건	김평해
22	<b>최룡해</b>	태종수	김락희	<b>김창섭</b>	<b>김창섭</b>	김영일	<b>문경덕</b>
23	<b>장성택</b>	김평해	태종수			태종수	주규창

	2010	2011		2012			
	9.28	12.17	12.20	1.1	2.16	4.14	4.25
24	주규창	<b>김정각</b>	김평해			김평해	곽범기
25	리태남	우동측	<b>문경덕</b>			<b>문경덕</b>	<b>김창섭</b>
26	태종수	김창섭	주규창			곽범기	리병삼
27	김평해	문경덕	우동측			김창섭	로두철
28	우동측	리태남	김창섭			로두철	조연준
29	김정각	오극렬				리병삼	
30	박정순	김철만				조연준	
31	김창섭	리을설					
32	문경덕	전하철					

- \*출처: 1. “김정일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기념촬영,”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29일.  
 2. 조선중앙통신 원문자료(제964호), “국가 장의위원회 구성,”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7일, 순차적으로 32명 정리.  
 3. 북한방송 원문자료(121), “김정일 조의 의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2011년 12월 20일.  
 4. 조선중앙통신 원문자료(제002), “김정은, 1.1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일.  
 5. 북한방송 원문자료(020), “김정은,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중앙방송』 2012년 2월 16일  
 6. 북한방송 원문자료(039), “김일성 생일 10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4일  
 7. “김정은 동지 조선인민군창건 8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5일.

<표 3> 북한의 권력서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김정희·장성택·최룡해·김정각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부상한 엘리트는 김정희이다. 김정희는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가 끝나고 김정일과 기념촬영을 할 때 서열 18위였고, 김정일 국가 장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서열 14위였다. 그런데 12월 20일 김정일 조의의식을 진행할 때 서열 5위로 뛰어올랐고 제4차 당대표자회 이후 서열 6위를 유지했다.

장성택은 김정일 사망 이후 점차적으로 권력서열이 상승했고 제4차 당대표자회를 기점으로 권력서열 8위로 뛰어올랐다.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장성택은 서열 23위였고, 국가 장의위원회 구성 당시 19위로, 김정일 조의 의식에서 16위로, 2012년 1월 1일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당시 11위로 상승했다. 장성택은 제4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서열 8위에 올랐다.

최룡해는 제4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권력서열 4위로 크게 상승했다. 최룡해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체제의 핵심인물로 부상했으나 권력서열은 22위에 불과했다. 그는 2012년 2월 16일 권력서열 16위였으나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군총정치국장에 임명되면서 권력서열 4위가 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서 군을 통제하는 핵심인물로 부상했다.

김정각은 김정일 국가 장의위원회 구성 당시 서열 24위에서 2012년 1월 1일 12위로 상승했고 제4차 당대표자회 이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면서 권력서열 7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제4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군에서 현철해, 보위기구에서 김원홍, 리명수, 김창섭, 당에서 리병삼, 조연준 등이 부상했다.

## 제2절 주요엘리트의 개인적 특성

핵심집단은 북한체제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실행을 담당한다. 핵심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집단을 구성하는 주요 엘리트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핵심집단에서 주요 엘리트는 김정은·김경희·장성택·최룡해·김정각이다. 김경희와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당·군·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룡해와 김정각은 김정은의 군 장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1. 김정은(29)

김정은은 1984년 평양에서 김정일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형제는 친형제인 김정철과 김여정이 있고, 이복형제인 김정남·김혜경·김설송·김춘송 등이 있다. 김정은은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일의 권력을 물려받았고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위에 올라 북한을 통치한다. 김정은의 어린 시절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프랑스를 거쳐 16세 때 스위스에 유학하여 체육(Gymnasium) 과정을 마쳤다. 그는 베른국제학교에서 1998년 8월부터 2000년 가을까지 재학했다. 그는 1년간 외국어교육 학생반에 있다가 6학년 때 정규반으로 옮겼으며 7학년(한국의 중학교 1학년)과 8학년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단계인 9학년에 재학하다가 북한으로 돌아왔다. 당시 수학교사였던 브르 교장은 “김정은이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렸으며 부지런하고 야심에 차 있었다”고 말했다.<sup>54)</sup> 김정은은 북한에서 2002년부터 2007년 4월

54)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서울: 늘품플러스, 2010), p.49.

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다.<sup>55)</sup>

김정은은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후계자로 떠올랐다. 김정일은 2009년 1월 8일 김정은을 당 내에서 후계자로서 내정했다. 김정일은 후계자 결정 교시를 통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리제강 제1부부장에게 하달했다. 리제강은 조직지도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소집해서 김정일의 결정사항을 전달했고, 각 도당으로까지 후계관련 지시를 하달했으며, 고위층들에게 후계자 결정 사실을 전파했다.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은 총정치국을 통해 북한군 대좌(대령급)까지 전달되었다.<sup>56)</sup>

김정은은 2009년 1월 30일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는 것으로 첫 대외활동을 시작했다.<sup>57)</sup> 김정은은 2010년 9월 27일 김경희·최룡해·김경옥·현영철 등과 함께 인민군 대장에 임명되었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외부에 공개되었다.<sup>58)</sup>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김경희·리영호·최룡해·김정각·김경옥 등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보좌할 엘리트들이 부상했다.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을 활용했다. 그는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계승하기 위해 헤어스타일, 복장, 파격적인 스킨십 등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 모습과 행동을 모방했다. 『로동신문』은 2012년 1월 28일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젊은 시절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최고 영도자,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젊으시다,” “젊으신 위대한 영도자를 받들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찬양했다.<sup>59)</sup>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7개월 만에 당·정·군의 제도적 권력을 물려받았다. 그는 김정일의 영결식 직후인 2012년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받았고,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에 선출되었으며,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최근 북한정권은 김정은의 개방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조선신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을 공개한 것, 2012년 7월 6일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에서

55) Ibid, p.89.

56) 최선영·장용훈, “北김정일, 3남 정운 후계자 지명,” 『연합뉴스』 2009년 1월 15일.

57) 정성장, “북한의 정권교체, 체제변화,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전망,”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방안』(2009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09년 11월), p.10.

58) 김동현,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임,” 『조선일보』, 2010년 9월 29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9/201009290031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9/2010092900316.html)(검색일 2012년 5월 30일).

59)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28일 정론.

‘백설공주,’ ‘미키 마우스’ 등 미국의 만화캐릭터가 등장한 것, 퍼스트레이디 이설 주와 함께 현지시찰을 하는 것 등은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개방형·공개형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김정은은 제1위원장의 정치스타일은 공개성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고, “젊은 영도자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과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고립된 나라, 폐쇄된 사회의 딱지로 조선을 비방 중상한 외국 언론도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강조했다.<sup>60)</sup>

또한 김정은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개혁적 조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에 양형섭은 AP통신과 인터뷰(1.16)에서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혁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4.6)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문제 해결을 제기했고,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에서 행한 첫 공개연설(4.15)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당국은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sup>61)</sup> 현재까지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김정일과는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리더십 유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 2. 김경희(67)

김경희는 1946년 평양에서 김일성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김정일의 동생이고 김정은의 고모이며 장성택의 남편이다. 김경희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모스크바대학에서 유학했다. 어머니인 김정숙은 그녀가 세 살 때인 1949년 출산 중 사망했다. 김경희는 김성애가 의붓어머니로 들어오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경희의 과거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탈북인 단체들에 따르면, 매우 대범하고 독한 성격이라고 한다.

김경희의 성격은 장성택과 연애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김일성은 군부 출신의 사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김경희가 장성택과 사귀는 것을 반대했다. 김경희는 김일성의 반대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김일성조차 두 손을 들었다.<sup>62)</sup> 하지만

60) 『조선신보』, 2012. 7. 26.

61) 오경섭, “북한의 신경제관리체계 평가와 전망,” 『정세와정책』 9월호, p.18.

62) 이준혁, “북 권력승계 숨은 1인자, 김경희,” 『한국경제매거진』, 제775호(2010년 10월 13일).

장성택과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김경희는 장성택과의 불화, 2006년 딸 금송의 자살 등으로 인해 2003년 9월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종적을 감췄다. 김경희는 이 시기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sup>63)</sup>

김경희는 1975년 당 국제부 과장을 시작으로, 1976년 당 국제부 부부장을 거쳐 1987년부터 김정일 사망 때까지 당 경공업부장으로 근무했다.<sup>64)</sup> 김경희는 오빠인 김정일을 위해서 막후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다. 김정일의 자녀 관리도 그녀의 역할 중 하나였다고 한다.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김경희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고,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인민군 대장에 임명되었으며, 당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sup>65)</sup>

김경희는 김정일의 로얄 패밀리로서 김정은 정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희는 김정일 사망 후 당 정치국 위원이자 비서국 비서로서 권력서열 6위로 뛰어올랐다. 그녀는 당 조직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정은의 권력을 떠받치는 핵심 후견인으로서 김정은에게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경희가 오랫동안 당 경공업부장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에서 광범기(정치국 후보위원 겸 부장), 로두철(정치국 후보위원 겸 내각 부총리), 박봉주(당 부장) 등의 당 기용과 6.28방침 실행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경희는 김정일 사망 후 극도의 스트레스와 당뇨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고, 2012년 7월 25일 평양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서 호위병의 부축을 받는 장면이 포착되었다.<sup>66)</sup> 김정은의 정치적 후견인인 김경희의 건강 문제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3. 장성택(67)

장성택은 1946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그는 김경희의 남편이자 김정은의 고모부다. 장성택은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모스크바대학에서 유학생생활을 했다. 그는 당 정치국 위원과 당 중앙위 부장으로써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알려져 있다.<sup>67)</sup> 장성택이 맡고 있는 당 행정부는 인민보안부, 검찰소·

63) 김철중·이용수, “작년엔 통통했던 북한 실세女 김경희, 최근 모습선 목·다리가 돌연...” 『조선일보』 2012년 8월 2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9/2012082901915.html?news\\_Head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9/2012082901915.html?news_Head1)(검색일 2012년 8월 29일).

64)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pp.50-51.

65) Ibid, pp.50-51.

66) 김철중·이용수, “작년엔 통통했던 북한 실세女 김경희, 최근 모습선 목·다리가 돌연...”

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책임지는 직책이고, 약 20만 명에 달하는 내무군을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68)</sup>

장성택은 김정일 정권에서 중용되었으나 항상 정치적 견제의 대상이었다. 김정일은 장성택이 당국제부 과장으로 근무할 때 중앙당 비서들까지 굽실거리며 그의 주위로 모여드는 것을 우려해서 79년 강선제강소 압연직장 초급당 비서로 쫓았다.<sup>69)</sup> 장성택은 당에 복귀한 후 1982년 당 청소년사업부 부부장을 거쳐 1988년 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시기에 광복거리 건설과 통일거리 건설을 담당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동정 보도가 끊겼다. 그는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 등으로 있다가 2004년 초 ‘권력욕에 의한 분파 행위’를 의심받아 업무정지 처벌을 받아 실각했으나 2년 만인 2006년 다시 당에 복귀했다. 장성택의 복귀는 2006년 1월 29일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에서 개최한 설 연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하면서 확인되었다.<sup>70)</sup>

2004년 숙청된 장성택의 재부상은 2005년 이후에 추진된 반개혁 세력, 즉 시장 세력의 득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2005년 초부터 박봉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반대가 시작되면서 2006년 1월 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부장으로 복귀했고, 2007년 당 행정부장직에 임명되었다. 김정일은 2010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이후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격되었다.<sup>71)</sup>

장성택은 2010년 자신의 최대 정적인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교통사고와 류경 보위부 부부장의 숙청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sup>72)</sup> 장성택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인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당 행정부장으로서 보위기구를 담당하는 장성택이 개입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은 2011년 1월 19일 김정일의 호출을 받고 관저로 들어가던 중 호위사령부에 체포·처형되었다. 류경은 장성택과 투톱으로 체제 보위 업무를 관장하던 인물로서 김정일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67)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pp.516-517.

68)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서울: 살림, 2012), p.20.

69)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중앙일보사, 1995), pp.137-138.

70) 김경탁, “김정일 권력대행자 장성택, 킹메이커?” 『BreakNews』, 2012년 9월 2일자.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96527&section=sc1](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96527&section=sc1)(검색일 2012년 5월 30일).

71) 박형중, “장성택 계열 주도의 외화벌이 흥행하면 그의 영향력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것,” 『NKVISION』 2012년 2월호, pp.31-32.

72) 이용수, “북한의 권력 3인방이 제거되고 난 뒤에...,” 『Chosun.com』 2012년 7월 30일.

장성택이 보위부 내에 류경의 라인에 의해 견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류경의 처형에 장성택이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낳았다.<sup>73)</sup>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은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인 동시에 정치적 위험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장성택의 주요 인맥이 김정은 정권의 핵심 요직에 진출했고, 돈줄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룡해(1986~1998년 사로청 위원장), 리영수(1978~1986년 사로청 위원장), 문경덕(1991년 사로청 부위원장)은 장성택의 사로청 인맥이다. 최룡해는 사로청 위원장 시절 장성택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04년 장성택이 분과행위로 숙청될 때 다른 측근들과 함께 밀려났던 인물이다. 문경덕은 당 중앙위 행정부부장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거쳐 2010년 당 비서로 임명되었다. 2004년 초 장성택이 ‘분과행위자’로 몰려 공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 문경덕도 다른 사로청 출신들과 함께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나 2009년 10월 보스 장성택이 부장을 맡고 있던 당 행정부부장으로 복귀했다. 리영수는 1985년 당 청년사업부 부부장을 거쳐 1995년 당 중앙위 부부장, 2010년 당 중앙위 부장으로 승진했다.<sup>74)</sup>

또 장성택은 돈줄도 장악하고 있다. 그는 외자유치 전담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를 총괄하면서 해외 투자유치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무역기관의 상당수가 장성택 라인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sup>75)</sup> 장성택이 2012년 8월 13일 5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외교를 펼치면서 그의 위상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중앙당 전문부서의 행정부부장인 장성택 부위원장이 당 비서인 김영일 국제부장을 앞세운 것은 매우 파격적이며, 장성택 부위원장이 중국의 부장급에 불과한 노동당 행정부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전이 국가원수급 수준에 맞춰져 있었다. 장성택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모두 만나고 돌아옴으로써 북한 권력의 실세임을 보여주었다.<sup>76)</sup>

73) 이승열,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외협상 목표: 고립의 심화인가, 변화의 시작인가?,” 『최근 북한정세와 변화전망: 고립의 심화인가?』(2012년 제2차 대북정책 심포지엄: 2012년 5월 10일), p.49.

74) 안용현, “포스트 김정일시대, 사로청(노동당 청년조직) 4인방이 장성택 핵심측근,” 『조선일보』 2011년 12월 24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4/201112240021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4/2011122400211.html)(검색일 2012년 5월 30일).

75) 오경섭,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국내정세,” 『정세와정책』 2월호, pp.18-19.

76) 차대운, “장성택 방중마치고 귀국,” 『연합뉴스』, 2012년 8월 18일자.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8/18/0511000000AKR20120818031151083.HTML>(검색일 2012년 5월 30일).



#### 4. 최룡해(63세)

최룡해는 황해남도 신천군 출생이다. 그는 김일성의 혁명동지인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신임을 받았고,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최룡해는 김정은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부상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김정은과 함께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고,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 비서로 임명되었으며,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당대표자회 직후 기념촬영에서 김정은의 바로 뒷자리에서 서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2년 4차 당대표자회에서 총정치국장에 임명되면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인민군 차수 칭호를 받았다. 현재 최룡해는 김정은의 북한군 장악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룡해는 김정일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룡해는 김정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김정일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sup>77)</sup> 김정일은 최룡해를 당조직지도부 청년지도사업과 과장을 거쳐 사로청 위원장으로 기용했다. 최룡해는 사로청 위원장을 하면서 당 청년사업부를 맡고 있었던 장성택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1998년 사로청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았다. 최룡해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미화 300만 불이 발견되었고 문란한 사생활이 발각되면서 직무정지를 당했다. 당시 상당수 연루자들이 처형을 당할 정도로 파문이 컸지만 최룡해는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비서로 좌천되는 정도의 선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sup>78)</sup> 2003년 당 총무부 과장으로 복귀했으나 장성택이 2004년 초 분과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 함께 공직에서 밀려났다. 그는 2005년 말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으로 복귀하자 2006년 황해도당 책임비서로 복권되었다.<sup>79)</sup> 장성택과 최룡해는 김정은의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5. 김정각(72세)

김정각은 1941년 평안남도 증산군에서 태어났다. 김정각은 당중앙군사위원회

77)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p.166; 정성장, “북한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 『정세와 정책』 2012년 5월호, p.3.

78) 백나리, “최룡해 당 비서,” 『연합뉴스』 2010년 10월 17일.

79) 장용훈, “김정은체제 분석과 전망,”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40호, p.3; 장진성, “최룡해, 남 같으면 처형됐을 인물,” 『NewDaily』 2011년 4월 17일.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인민무력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군에서 대대장을 시작으로 훈련소 참모장, 군단 사령관을 거치면서 군사실무를 쌓았다.<sup>80)</sup> 김정각은 2007년 10월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병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정치국 업무를 대행하면서 군부의 전면에 등장했다. 김정각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김정일의 시찰을 총 87회 수행했다. 김정각도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충성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sup>81)</sup> 김정각은 김정일 영결식에서 영구차를 호위했던 8명에 포함되었고, 제4차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인민무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각은 김정은의 군 장악과 권력 안정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4장 핵심집단의 특성

### 제1절 사회적 배경

정책결정자들의 사회적·교육적 배경이 그들의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정치사회학의 광범한 논리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공통된 사회적인 교육적 배경이 엘리트집단 내의 응집력을 촉진시킨다는 견해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sup>82)</sup> 그러므로 북한 핵심집단의 사회적 배경 분석은 핵심집단의 특성을 구명하는 작업이고, 응집력의 근원을 밝히는 기초 작업이다. 핵심집단의 사회적 배경 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일부에서 2012년에 발간한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와 통일연구원 북한정보자료센터(<http://nkinfo.kinu.or.kr>)의 주요인물 정보를 활용했다. 이 자료에는 김인걸(조직지도부 부부장), 현영철(총참모장), 박원식(해군사령관) 등의 자료가 거의 없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자료가 부족하다. 핵심집단의 사회적 배경 분석은 통계전문 프로그램인 SPSS12.0을 활용했다.

핵심집단의 사회적 배경 분석을 위한 변수는 성비율, 연령, 출생지역,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 혁명 유자녀와 고위층 자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학력, 출신대학, 유학 경험, 해외유학 장소, 외국방문 경험, 직업 경험, 소속, 지위, 겸직, 인민군

80)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pp.198-202.

81) 최영훈,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그는 누구인가?,” <http://blog.unikorea.go.kr/1882>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82) Geraint Parry, *Political Elites*, pp.97-99.

계급 등 16개를 선정했다.

핵심집단의 성비율은 <표 4>와 같이 김경희를 제외하면 모두 남성이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김정은 체제의 당·정 주요인물 분석·평가” 결과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5.7%였고 내각에서 상급 이상의 여성비율이 2%로 나타났다.<sup>83)</sup> 북한체제에서 당·정의 상층부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 핵심집단에 여성이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유일한 여성인 김경희는 김정일의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핵심집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경희가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핵심집단에 포함되었고 서열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는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당·군·정에 대한 통제와 중요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있다.

<표 4> 성비율

구분	빈도	퍼센트
남성	47	97.2
여성	1	2.1
합계	48	100

핵심집단의 연령은 <표 5>에 나타나는 것처럼 60세 이상이 36명(75%)를 차지한다. 29세인 김정은을 제외하면 당 비서를 맡고 있는 문경덕이 56세로 가장 젊었고 리용무가 89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다.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60대 13명(27.1%), 70대 13명(27.1%), 80대 10명(20.8%)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엘리트들을 제외한 핵심집단 구성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 38명 중 65세 이상이 34명(90%)로 나타남으로써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83) 통일부 정세분석국, “김정은 체제의 당·정 주요인물 분석·평가,” p.3.

〈표 5〉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20대	1	2.1
50대	1	2.1
60대	13	27.1
70대	13	27.1
80대	10	20.8
미확인	10	20.8
합계	48	100.0

핵심집단의 출신지역은 <표 6>과 같이 함경도 출신이 11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평안도 출신이 8명(16.7%), 평양시 4명(8.3%)의 순이었다. 핵심집단에는 강원도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집단은 지역적으로 함경도, 평안도, 평양 출신들이 2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 이 조사결과는 통일부의 “김정은 체제의 당·정 주요인물 분석·평가”에서 함경도(30.9), 평안도(23.3%), 평양(16.3%)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sup>84)</sup>

〈표 6〉 출신지역

구분	빈도	퍼센트
평양시	4	8.3
강원도	0	0
평안도	8	16.7
함경도	11	22.9
황해도	3	6.3
양강도	2	4.2
자강도	3	6.3
해외	1	2.1
미확인	16	33.3
합계	48	100

핵심집단에서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로알패밀리는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84) Ibid, p.3.

럼 김정은·김경희·장성택·양형섭·리용무 등 5명(10.4%)이다. 이들은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를 배경으로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거치면서 핵심집단에 진입했고, 김정은과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정치적 후견세력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정은 체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친인척 관계를 배경으로 핵심집단에 새롭게 진입한 인물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을 기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로알패밀리 중에서 김경희·장성택은 김정은의 권력을 떠받치는 후견인이고,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표 7〉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5	10.4
아니다	41	85.4
미확인	2	4.2
합계	48	100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로알패밀리를 제외하고 가정환경을 배경으로 핵심집단에 진출한 경우는 혁명 유자녀와 고위층 자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엘리트들이다. <표 8>에서 혁명 유자녀와 고위층 자녀라는 배경으로 핵심집단에 진입한 인물은 최룡해·김국태·현철해·오극렬·김영일·태종수·오일정 등 7명(14.6%)이다. 이들은 대부분 혁명유자녀 우대정책에 따라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핵심집단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핵심집단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은 <표 9>와 같이 15명(31.3%)이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유자녀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체제의 골간간부로 육성하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표 8〉 혁명 유자녀와 고위층 자녀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7	14.6
아니다	39	81.3
미확인	2	4.2
합계	48	100

〈표 9〉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15	31.3
아니다	24	50.0
미확인	9	18.8
합계	48	100

핵심집단의 학력은 <표 10>과 같이 미확인을 제외하면 모두 대졸이다. <표 11> 핵심집단 구성원의 출신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이 19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6명(12.6%)이었다. 그러나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군부 출신 엘리트의 학력이 미확인된 경우가 11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학력이 확인될 경우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의 “김정은 체제의 당·정 주요인물 분석·평가”에서 정치엘리트들의 출신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35.5%), 김일성군사종합대학(17.7%) 순이었다.<sup>85)</sup> 핵심집단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표 10〉 학력

구분	빈도	퍼센트
대졸 이상	37	77.1
미확인	11	22.9
합계	48	100

〈표 11〉 출신대학

구분	빈도	퍼센트
김일성종합대학	19	39.6
김일성군사종합대학	6	12.5
김일성정치군사대학	1	2.1
김책공대	3	6.3
김일성고급당학교	2	4.2
평양외국어대학교	2	4.2

85) Ibid, p.3.

구분	빈도	퍼센트
덕천공업대학	1	2.1
제2중앙정치학교	1	2.1
기타	2	4.2
미확인	11	22.9
합계	48	100

핵심집단에서 해외유학을 경험한 엘리트들은 <표 12>와 같이 16명(32.8%), 유학 경험이 없는 엘리트들은 20명(42%)이었다. 해외 유학경험자들은 김정은·김경희·장성택을 제외하면 모두 70대 이상이었고, 유학 장소는 대부분 소련(12명)과 동유럽(4명)이었다. 소련에서 유학대학은 당 출신은 주로 모스크바대학교였고, 군 출신은 모두 푸른제군사대학이었다. 엘리트들의 해외유학은 대부분 김일성 정권에서 이루어졌고 김정일 정권에서는 해외유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해외유학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16	32.8
없다	20	42
미확인	12	25.2
합계	48	100

핵심집단의 외국방문 경험은 <표 13>과 같이 10회 이하가 16명(33.3%), 10회 이상이 16명(33.3%), 없는 경우가 11명(22.9%)로 나타났다. 핵심집단 구성원의 외국방문 경험을 보면 핵심집단의 66.9%는 외국방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발전된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집단 구성원의 외국방문 경험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별다른 정책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외국방문 경험은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하는 경제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13〉 외국방문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1~10회	16	33.3
10회 이상	16	33.3
없음	11	22.9
미확인	5	10.5
합계	48	100

핵심집단 구성원의 소속은 <표 14>와 같이 당이 25명(52.1%)이었고, 군이 19명(39.6%)이었으며, 내각·최고인민회의가 4명(8.3%)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당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군의 물리력을 활용해서 정권을 보호한다. 향후 김정은 정권은 권력의 두 축인 당과 군 사이에 정치적 영향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14〉 소속

구분	빈도	퍼센트
당	25	52.1
군	19	39.6
내각·최고인민회의	4	8.3
합계	48	100

핵심집단의 지위는 <표 15>와 같이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 국방위원급이 38명(80%)이고, 상무위원 5명(10.4%), 중앙위 부장과 비서국 비서가 5명(10.4%)이었다. 북한에서 핵심집단은 대부분 정치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의 위원이나 후보위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표 15〉 지위

구분	빈도	퍼센트
상무위원	5	10.4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 국방위원	38	79.2
중앙위 부장, 비서국	5	10.4
합계	48	100



핵심집단 중 군부 출신의 계급은 <표 16>과 같이 차수 6명(12.5%), 대장 12명(25%), 상장 7명(14.6%) 순이었고, 유일하게 김락겸만 중장으로 확인되었다. 당 출신 엘리트들 중에서 인민군 계급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최룡해(차수), 김경희·장성택·박도춘·김경옥(대장), 주규창·황병서·오일정(상장) 등 8명이었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당 출신 엘리트들에게 인민군 계급을 부여했다. 이는 선군정치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군에 대한 당적 장악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표 16〉 인민군 계급

구분	빈도	퍼센트
원수	1	2.1
차수	6	12.5
대장	12	25
상장	7	14.6
중장	1	2.1
미확인	1	2.1
없음	20	41.7
합계	48	2.1

핵심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배경 분석에서는 핵심집단의 특성과 응집력의 원인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은 로알패밀리, 혁명 유자녀·고위층 자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인 혁명 2세대 등이 핵심집단 48명 중 21명(43.8%)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핵심세력이다.

김경희·장성택은 로알패밀리로서 핵심집단의 충성심과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룡해는 김일성의 혁명동지인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이고 김정일과도 매우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장성택의 인맥으로 분류된다. 김영일은 전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의 사위이고, 태종수는 전 부수상 정일룡의 사위다. 당 부장인 오일정은 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아들이다.

핵심집단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핵심집단에 진입한 엘리트들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핵심집단의 엘리트 충원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로알패밀리, 혁명 유자녀·고위

층 자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을 기용하는 귀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최소 35년 이상의 당 생활과 군 복무 과정에서 간부충원 기준을 통과한 후 핵심집단으로 진입한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들이다.

실제로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엘리트 충원은 계급적 토대와 출신성분을 중시했고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충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sup>86)</sup> 북한정권은 10대원칙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적으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sup>87)</sup>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이를 통해 강한 응집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보위기구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와 숙청이 이루어지는 북한체제에서 핵심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발적 충성과 공포에 의해 통제되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은 강한 응집력을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집단은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서 세대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심집단을 구성하는 엘리트들 중 50대 이하는 2명에 불과하고, 연령 미확인자들을 제외하면 90% 정도가 65세 이상이다. 이들은 대부분 김정은 정권에서 당·군·정의 핵심요직에 등용되어 핵심집단으로 진입한 엘리트들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이 사실상 김정일의 핵심집단과 유사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핵심집단의 연령 구성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권력집중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통치할 능력을 갖추면, 핵심집단 구성원에 대한 세대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과 장성택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핵심집단 분석을 보면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중심축은 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집단 구성원 중 25명(52.1%)이 당 출신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에서 군에 대한 당적 장악과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이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구상하던 시기에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당 출신 엘리트인 김경희·최

86)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185-186;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서울: 선인, 2011), pp.177-180.

87) 김정일,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117.

룡해·김정옥 등에게 인민군 계급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룡해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총정치국장에 임명되면서 군의 경제적 이권을 내각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했고 이에 반발한 리영호 총참모장이 해임되었다. 당과 군의 갈등은 핵심집단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제2절 사회연결망 분석

핵심집단은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동행하는 빈도가 높다. 특히 현지지도는 최고 지도자들이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각 분야의 정책집행 실태를 이해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지도활동을 말한다.<sup>88)</sup> 통상적으로 현지지도에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당·군·정의 핵심 엘리트들이 동행하므로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핵심집단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하면 김정은의 권력 중심성이 어느 정도인지, 김정은과 근접성이 높은 엘리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17> 분야별 공개 활동 현황을 보면, 2012년 11월 20일 이후 김정은은 총 98회의 공개 활동과 현지지도를 수행했다.

〈표 17〉 분야별 공개 활동 현황(2011년 11월 20일 이후)

	군	경 제	대 외	기 타	합계
2010	8	9	3	18	38
2011	32	27	10	33	102
2012	32	19	0	40	91
합계	72	55	13	91	231

출처: 통일부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표 18>과 같이 장성택·최룡해·김기남·박도춘·김정각·김영춘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총 68회를 수행한 장성택이었다. 장성택은 엘리트들 중에서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17회, 경제 분야 현지지도 16회 수행했다.

88)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02), p.1.

〈표 18〉 분야별 공개 활동 수행 빈도(2011년 11월 20일 이후)

이름	소속	군	경제	기타	총
김정은	당	32	19	47	98
장성택	당	17	16	35	68
최룡해	군	12	5	31	48
김기남	당	7	1	28	36
박도춘	당	11	4	19	34
김정각	군	8	1	24	33
김영춘	군	10	1	21	32
최영림	내각	4	1	24	29
김영남	내각	4	1	21	26
김경희	당	5	1	19	25
최태복	내각	4	1	20	25
현철해	군	8	4	13	25
김양건	당	5	2	16	23
김평해	당	4	3	16	23
문경덕	당	5	1	17	23
강석주	당	6	1	15	22
김원홍	군	12	2	8	22
박재경	군	14	1	5	20
김영일	당	4	0	15	19
김창섭	군	4	1	14	19
양형섭	당	3	1	15	19
주규창	군	4	1	14	19
김국태	당	2	0	15	17
김명국	군	11	3	3	17
이재일	당	4	7	5	16
이용무	군	2	0	13	15
태종수	당	3	0	12	15
황병서	당	7	4	2	13
오극렬	군	2	0	10	12
이명수	군	2	1	9	12
김영철	군	7	0	4	11

\* 리영호, 우동측은 수행자 분석에서 제외함.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수행한 주요 인물들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하면 권력의 중심성(power centrality)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프로그램의 하나인 넷마이너(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의 분석결과는 김정은의 공개활동에서 김정은에게 권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김정은을 수행하는 엘리트들과 김정은의 근접성(closeness centrality)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군 활동, 경제 활동, 전체 공개 활동으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 1. 군 공개 활동

김정은의 군 활동은 공개 활동에 동행한 상위 10명을 분석했다. <표 21>·<그림 1>과 같이 김정은의 권력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정은과 엘리트들 간 근접성은 장성택·박도춘 순으로 높았고, 박재경·김정각·현철해·최룡해·김원홍·김명국·김영춘 등의 근접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정은의 군 공개 활동에서 김정은과 장성택의 근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또 당 소속인 장성택·박도춘의 근접성이 군 출신 엘리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당의 엘리트들이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9> 군 공개 활동 횟수(상위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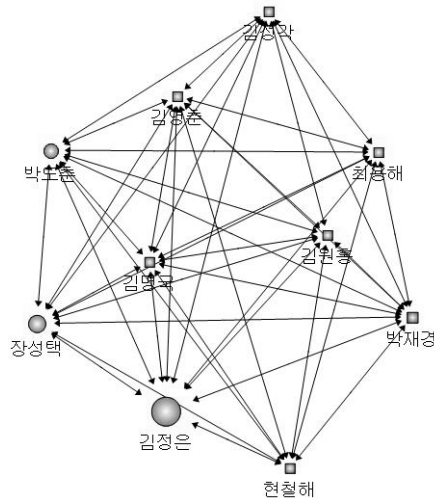
	내각	당	군
김정은	0	32	0
장성택	0	17	0
박재경	0	0	14
김원홍	0	0	12
최룡해	0	0	12
김명국	0	0	11
박도춘	0	11	0
김영춘	0	0	10
김정각	0	0	8
현철해	0	0	8

〈표 20〉 권력 중심성(Power Centrality)

PROCESS		
Menu	Analyze >> Centrality >> Power	
Options	Attenuation Factor : 0.0	
Time	2012년 9월 7일 (금) 오후 1시 21분 18초	
DATA		
Project	Untitled Project	
Workfile	2012-09-06 김정은 데이터 분석자료 군 공개 활동 상위 10명	
Input	1-mode Network	[T] Co-membership(2012-0906 김정은 데이터 분석자료 군 공개 활동 상위 10명)

〈표 21〉 DISTRIBUTION OF POWER CENTRALITY SCORES

MEASURES	VALUE	
	In-Power Centrality	Out-Power Centrality
MEAN	0.895	0.895
STD.DEV.	0.446	0.446
MIN.	0.622	0.622
MAX.	2.09	2.09
	In-Power Centrality	Out-Power Centrality
김정은	2.090331	2.090331
장성택	1.243614	1.243614
박재경	0.749564	0.749564
김원홍	0.646109	0.646109
최룡해	0.646109	0.646109
김명국	0.626014	0.626014
박도춘	1.035047	1.035047
김영춘	0.62197	0.62197
김정각	0.646961	0.646961
현철해	0.646961	0.646961



〈그림 1〉 군 공개 활동 네트워크(상위 10명)

## 2. 경제 분야 공개 활동

김정은의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을 수행한 상위 10명을 분석했다. <표 24>·<그림 2>와 같이 김정은은 군 공개 활동과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 공개 활동에서도 권력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정은을 수행한 엘리트들 중에서는 김정은과의 근접성은 장성택·최룡해 순으로 높았고, 이재일·마원춘·양청송·박춘홍·박도춘·현철해·황병서 등의 근접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제분야 공개 활동에서 김정은과 장성택의 근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경제분야 공개 활동에서도 확인했다. 김정은의 경제분야 공개 활동은 대부분 당 엘리트들이 수행했으며, 군 엘리트들은 최룡해·현철해 등 2명이 상위 10명에 포함되었다.

〈표 22〉 경제분야 공개 활동 횟수(상위 10명)

이름	내각	당	군
김정은	0	19	0
장성택	0	16	0
이재일	0	7	0
마원춘	0	6	0
양청송	0	6	0
박춘홍	0	5	0

이름	내각	당	군
최용해	0	0	5
박도춘	0	4	0
현철해	0	4	0
황병서	0	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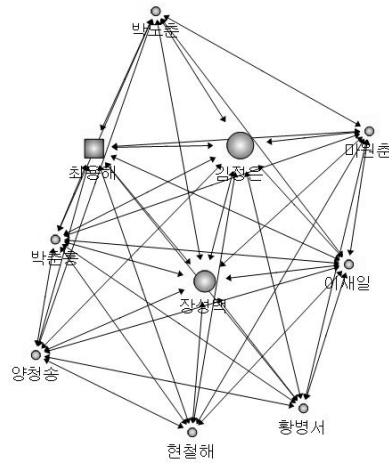
〈표 23〉 권력 중심성(Power Centrality)

PROCESS		
Menu	Analyze >> Centrality >> Power	
Options	Attenuation Factor : 0.0	
Time	2012년 9월 7일 (금) 오후 1시 50분 24초	
DATA		
Project	Untitled Project	
Workfile	2012-09-06 김정은 데이터 분석자료 경제분야 공개 활동 상위 10명	
Input	1-mode Network	[T] Co-membership(2012-0906 김정은 데이터 분석자료 경제분야 공개 활동 상위 10명)

〈표 24〉 DISTRIBUTION OF POWER CENTRALITY SCORES

MEASURES	VALUE	
	In-Power Centrality	Out-Power Centrality
MEAN	0.898	0.898
STD.DEV.	0.44	0.44
MIN.	0.595	0.595
MAX.	1.835	1.835
	In-Power Centrality	Out-Power Centrality
김정은	1.834512	1.834512
장성택	1.468308	1.468308
이재일	0.65321	0.65321
마원춘	0.595067	0.595067
양청송	0.595067	0.595067
박춘홍	0.599066	0.599066
최룡해	1.332616	1.332616
박도춘	0.634823	0.634823
현철해	0.634823	0.634823
황병서	0.634823	0.634823





〈그림 2〉 경제 활동 네트워크(상위 10명)

### 3. 전체 활동

김정은의 전체 공개 활동에 동행한 상위 12명을 분석했다. <표 27>·<그림 3>과 같이 김정은은 권력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고, 김정은을 수행한 엘리트들 중에서는 김정은과 장성택의 근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과 다른 엘리트들의 근접성은 최룡해·최영림 순으로 높았으며, 김기남·박도춘·김정각·김영춘·김영남·김경희·최태복·현철해 등의 근접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정은의 전체 공개 활동에서도 김정은과 장성택의 근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정은의 전체 공개 활동은 당·군·내각의 엘리트들이 고르게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전체 공개 활동 횟수(상위 10명)

이름	내각	당	군
김정은	0	98	0
장성택	0	68	0
최용해	0	0	48
김기남	0	36	0
박도춘	0	34	0
김정각	0	0	33
김영춘	0	0	32
최영림	29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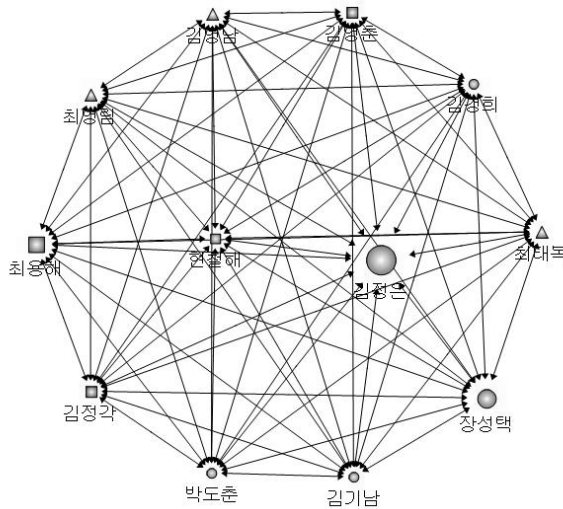
이름	내각	당	군
김영남	26	0	0
김경희	0	25	0
최태복	25	0	0
현철해	0	0	25

〈표 26〉 권력 중심성(Power Centrality)

PROCESS		
Menu	Analyze >> Centrality >> Power	
Options	Attenuation Factor : 0.0	
Time	2012년 9월 7일 (금) 오후 3시 07분 58초	
DATA		
Project	Untitled Project	
Workfile	2012-09-06 김정은 데이터 분석자료 전체 공개 활동 상위 10명	
Input	1-mode Network	[T] Co-membership(2012-0906 김정은 데이터 분석자료 전체 공개 활동 상위 10명)

〈표 27〉 DISTRIBUTION OF POWER CENTRALITY SCORES

MEASURES	VALUE	
	In-Power Centrality	Out-Power Centrality
MEAN	0.964	0.964
STD.DEV.	0.265	0.265
MIN.	0.765	0.765
MAX.	1.744	1.744
	In-Power Centrality	Out-Power Centrality
김정은	1.743771	1.743771
장성택	1.219273	1.219273
최룡해	1.071572	1.071572
김기남	0.811436	0.811436
김정각	0.858508	0.858508
최영림	0.905955	0.905955
김영남	0.872117	0.872117
김영춘	0.848933	0.848933
최태복	0.864938	0.864938
김경희	0.76539	0.76539
박도춘	0.795826	0.795826
현철해	0.812155	0.812155



〈그림 3〉 전체 공개 활동 네트워크(상위 10명)

## 제5장 핵심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안정성

### 제1절 핵심집단의 응집력

#### 1. 김일성의 핵심집단

어떤 유형의 정치시스템이든 지배엘리트 내의 정치적 과정은 레짐의 안정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엘리트의 응집력은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sup>89)</sup> 그러나 엘리트 분열은 반란·폭동·파업·대중시위 등 정치적 폭력의 잦은 발생, 연정과 내각 구성의 빈번한 교체, 쿠데타나 정부 전복의 발생 등 레짐의 불안정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야기한다.<sup>90)</sup>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집단의 응집력은 정치적 안정성을 전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핵심집단의 형성과 발전, 응집력 유지요인 등을 이해해야 한다.

89) Peter Rutland, The Search for Stability: Ideology, Discipline, and the Cohesion of the Soviet Elit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I V, No. 1, March 1991, p.25.

90) John Higley, Michael G. Burton, "The Elite Variable in Democratic Transitions and Breakdow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9, Vol. 54 (February), p.20.

북한의 핵심집단은 김일성과 만주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김정일의 통치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김일성과 만주파는 이념과 혈연적 동질성, 전쟁이나 혁명 등 극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된 강력한 연대의식 등 비물질적 요소를 통해 응집력을 유지했다.<sup>91)</sup>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 항일 투쟁에 참여했고 소련 하바로프스크의 88특별지격여단에서 생활하면서 강력한 연대의식을 통해 응집력을 유지했다.

김일성과 만주파는 강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당시 조선로동당은 단일한 정치집단이 아니었고 만주파·국내파·소련파·연안파 등 4개 파벌이 연합한 정당이었다. 조선로동당에서 4개 파벌은 공산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강한 응집력을 유지했다. 조선로동당은 전위당, 민주집중제, 노멘클라투라 시스템 등 엘리트의 응집력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일련의 절차를 활용했다. 조선로동당은 조직적 응집력과 이데올로기적 단일성을 통해 응집력을 유지했다.<sup>92)</sup> 그러나 4개 파벌은 건당·건국 과정에서 협력하면서 동시에 치열한 권력투쟁을 진행했다.

김일성과 만주파는 1953년부터 1956년 사이에 국내파·연안파·소련파 등 정치적 경쟁세력을 숙청함으로써 독점적 권력 장악에 성공했다. 북한의 핵심집단은 김일성과 만주파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실제로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는 빨치산출신과 그들에 의해 훈련되거나 그들과 가족관계인 사람들이 당 중앙위원회의 80%를 차지했다.<sup>93)</sup> 김일성과 만주파 중심의 핵심집단은 권력과 부의 공유라는 공통의 이해관계, 강력한 연대의식,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응집력과 이데올로기적 단일성 등을 통해 응집력을 유지했다.

## 2. 김정일의 핵심집단

핵심집단에서 김일성과 만주파의 권력관계는 1967년 수령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김일성의 행동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이나 정치엘리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김일성의 권력은 사실상 당보다 우위에 있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아들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 북한의 핵심집단은 김일성의 권위가 당의 권위보다 우세하고 권력이양을

91) 김진하, “김정은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2-20, p.5.

92) Peter Rutland, The Search for Stability: Ideology, Discipline, and the Cohesion of the Soviet Elit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I V, No. 1, March 1991, p.25.

93)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p.35.

경험하지 않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권력공백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김일성의 의견에 따라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을 지지했다. 북한의 핵심집단은 정권의 해체나 새로운 독재자에 의해 숙청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손실과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세습후계자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다. 세습후계자에 대한 지지는 핵심집단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암묵적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였다.<sup>94)</sup>

김정일이 실권을 잡으면서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당 사업의 기본이 되었다.<sup>95)</sup> 김일성의 절대 권력이 구축되었고 김일성에 대한 핵심집단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했다.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수령·후계자와 핵심집단의 관계를 충성과 복종의 관계로 제도화했다. 10대원칙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핵심집단의 절대적 충성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였다.<sup>96)</sup> 북한체제는 가산제적 전체주의 체제로 변질되었다.<sup>97)</sup> 김일성·김정일과 만주파의 관계는 가산제적 주-종관계로 변화되었다. 핵심집단은 김일성·김정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가신집단으로 전략했고,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공고한 전일적 체계를 형성했다.<sup>98)</sup> 김정일은 10대원칙을 통해 수령의 권위와 후계자의 권위를 일치시켰다. 이후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곧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의미했다.

김정일이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수단은 조선로동당과 각종 보위기구 등 억압기제였다. 억압기제는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핵심집단의 충성을 유지시키는 강제적 수단이었다. 조선로동당은 가장 포괄적인 독재조직이다. 당 조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단위에서 수령의 독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장악·지도한다. 해당 단위의 당 조직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정형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당원들과 비당원들의 사상동향과 정치적 동향을 세밀히 감시하고 상급조직에 보고한다.<sup>99)</sup>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보위사령부는 비밀경찰을 활용하는 억압기제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는 행정기관의 하부 말단에까지 배치되어 주민

94)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 (July 2007), pp.597-598, 607, 626.

95)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서울: 월간조선사, 2001), p.48.

96) 오경섭,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비교: 제도와 리더십의 동학을 중심으로』(성남: 세종연구소, 2012), p.24.

97)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2009년 제15권 1호, p.123.

98)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p.70.

99)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p.72.

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본부 당위원회 직속으로 보위부를 두고 당 중앙에 근무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비밀감시 사업을 진행한다.<sup>100)</sup> 국가안전보위부나 군 보위사령부는 노동당 중앙위부터 지방당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간부들의 전화를 감청·도청하며 필요에 따라 미행하고 체포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101)</sup>

군 보위사령부는 각 중대까지 보위담당 지도원을 배치해서 군인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등 권력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보위사령부는 총참모부와 각 군단사령부, 해군·공군사령부 등 북한군 전체에 보위부를 설치해서 감시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중앙당·지방당,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숙청을 주도했고 인민무력부장·총정치국장·총참모장 등 군부 내 주요 간부와 군사지휘관, 정치군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화 도청, 감청, 미행 등을 통해 반국가 사건을 적발한다.<sup>102)</sup>

김일성·김정일은 자신들의 절대 권력과 권력세습에 도전하거나 반발하는 핵심 집단의 구성원은 설사 그가 빨치산출신이더라도 용서하지 않았다.<sup>103)</sup> 김일성은 반종파 투쟁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했고 박금철·이효순 등 갑산파를 숙청했다. 또 1969년에는 김광협·김창봉·최광·이영호·석산 등 빨치산 출신 고위 장성들을 숙청했다. 김정일은 권력세습에 반대한 남일·지경수·지병학·김동규 등을 제거하거나 숙청했다.<sup>104)</sup>

김정일은 김일성의 핵심집단을 넘겨받았다. 김정일의 핵심집단이 응집력을 유지하는 요인은 김일성 때와 마찬가지로 충성과 억압이었다. 김정일은 충성과 억압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김정일은 핵심집단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렌트 축적자(rent collector)로서 핵심집단 구성원에게 권력과 부를 배분했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적인 보상을 제공해줌으로써 핵심집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sup>105)</sup>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주파 출신 엘리트들의 권력과 부를 보장해주었다.

100) Ibid, pp.72-73.

101)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p.21.

102) Ibid, pp. 68-69.

103)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p.41, pp.48-49.

104) Ibid, pp.48-49.

105) Sheila Carapico, "Successions, Transitions, Coups and Revolutions," *Middle East Policy*, Vol. IX, No. 3, Sep. 2002, p.109.

김정일은 원로간부 우대 정책을 시행했다. 김정일은 만주파 출신들을 당과 군의 요직에 기용했고 원로에 합당한 최상의 대우를 제공했으며 다른 간부들에게도 원로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도록 요구했다. 또 자신의 측근세력과 빨치산 출신 원로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의 측근을 해임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원로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최고위직을 유지했고 사망 후에는 애국열사릉이나 혁명열사릉에 묻혔다.<sup>106)</sup> 김정일은 빨치산 출신 엘리트들의 자녀들에게도 최상의 교육을 제공했으며, 당·군·정의 요직에 기용했다.<sup>107)</sup>

핵심집단은 인사권과 행정 결정권을 남용해서 북한 내 모든 이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적 특혜가 있다. 북한에서 핵심집단 구성원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외무역이나 시장 등에서 이권을 독점하면서 부를 축적했다.<sup>108)</sup> 핵심집단의 자녀들은 일명 ‘봉화조’로 불린다. 봉화조의 멤버는 오세현·장광호·김철·김철훈·강태성·리일혁 등이다. 오극렬의 아들인 오세현은 국방위원회 산하 ‘조선자원투자개발회사’ 중국대표부 대포로 근무하고 있고, 장성택의 사촌 동생인 장광호는 ‘대풍국제투자그룹’의 부총재 겸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세현, 장광호와 친밀한 관계인 김철의 아버지는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이고, 김철훈의 아버지는 김정일 서기실 부부장이다. 강석주의 아들인 강태성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조선구룡강무역회사’ 북경대표부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 전 스위스 북한대사 리수용의 아들인 리일혁은 무역성에서 광산개발과 황금평 지구와 나선지구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sup>109)</sup>

김정일은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달러와 금화, 외국 명품 등 각종 선물을 제공했고, 핵심집단 구성원 부인들과 자녀 결혼식에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정기적으로 수입했다. 김정일은 명절마다 2만 명 정도의 중앙당 본부 직원들에게 고급 양주 6병, 이태리 양복천, 각종 한약재, 외국 가공식품을 내려 보냈다.<sup>110)</sup> 핵심 엘리트들은 건강이 악화되면 김정일이 제공한 전세기를 이용해서 해외 유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경희 노동당 비서도 2011년 6월 신장 수술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리용철 전 조직지도부 제1부

106)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서울: 선인, 2011), pp.113-117, 157-158, 185-188.

107) Ibid, pp.223-227.

108) 장진성,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 『NewDaily』 2012년 3월 15일자; 장진성, “돈맛 안 특권층 자녀들이 시장지배,” 『NewDaily』 2012년 3월 23일자.

109) 김경민, “김정일 최측근의 2세들로 세습귀족 오극렬의 아들 오세현 등 2개라인,” 『주간조선』 2012년 7월 2일자.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13100015&ctcd=C06>(검색일 2012년 8월 1일).

110) 장진성,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 『NewDaily』 2012년 3월 15일자.

부장(2010년 사망) 등도 수시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sup>111)</sup>

김정일은 핵심 엘리트들에게 ‘선물아파트’를 하사했다. 김정일이 자신의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에게 하사한 주택은 방이 8개였고 욕실과 화장실이 각각 두 개였으며 트레이닝 룸도 갖추고 있었다. 주택 내부는 외국산 가죽 소파, 스테레오, 가라오케 등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채워져 있었다.<sup>112)</sup> 핵심엘리트들은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과 보통강구역 신원동, 대성구역에 거주한다. 평양시 창광동에는 중앙당촌이 있고 평양시 서성구역 석촌동에는 인민무력부촌이 있다. 오극렬·최룡해 등은 평양시 대동강 구역 문수동에 위치한 은덕촌에 거주한다. 은덕촌은 총 6동인데 1층에 한 세대가 살도록 설계되었다. 은덕촌은 24시간 인민무력부 청사경무부가 경비하고 있고, 내부는 이태리 붉은 대리석으로 치장돼 있으며, 한국의 에이스침대에서 선물한 가구들이 들어차있다.<sup>113)</sup> 또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인 오극렬의 딸 오혜영이 평양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자신의 측근을 배려했다.<sup>114)</sup>

그러나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을 위반하거나 권력을 위협할 경우 최측근도 예외 없이 제거했다. 1982년 김정일 40회 생일잔치에서 김정일의 오른팔이었던 리동호는 김일성의 절대화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sup>115)</sup> 김정일은 1992년 군대내 구소련 유학과 장교들을 제거한 프룬제 사건, 1995년 함북도에 주둔한 6군단간부들의 지휘체계 문란과 외화벌이 독직사건, 2000년 사회안전부 심화조 간부들 처벌 사건 등 일련의 숙청을 단행했다.<sup>116)</sup>

### 3. 김정일의 핵심집단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성과 억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충성심에 보상하고 신뢰성에 의혹이 생기면 언제든지 축출해야한다. 김정은은 핵심집단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렌트 축적자로서 권력과 부를 지속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핵심 엘리트들의

111) 양모듬·이용수, “북 ‘기쁨조’ 출신 女, 해외 고급 호텔서...,” 『Chosun.com』 2012년 9월 8일자

112) 후지모토 겐지 지음, 신현호 옮김, 『김정일의 요리사』(서울: 월간조선사, 2003), pp.22-23.

113) 장진성, “타워팰리스보다 호화로운 ‘선물아파트,’” 『NewDaily』 2012년 3월 23일자; 장진성, “최룡해, 남 같으면 처형됐을 인물,” 『NewDaily』 2012년 4월 17일자.

114) 최송민, “北여성, 20여년 만에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일은?,” 『DailyNK』 2012년 8월 15일.

115)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pp.77-81.

116)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대학원 2009, pp.34-35.



지지를 받아야 한다. 또 억압기제를 활용한 감시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가 누구라도 숙청함으로써 핵심 엘리트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야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핵심집단의 지지를 업고 최고통치자의 지위에 올랐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은 강한 응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48명 중 43.8%인 21명이 로알패밀리, 혁명 유자녀와 고위층 자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었고, 이들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 또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인정받아서 최고 권력에 진입한 엘리트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충성심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핵심집단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부를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고급 사치품을 선물하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사치품 수입이 김정일 때보다 70%이상 증가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에 사치품 수입은 2008년 2억 7214만 달러, 2009년 3억 2253만 달러였으나 2011년 5억 8482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특히 고급 승용차, 시계,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고급 양주와 와인 등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사치품은 김정은이 사용하거나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선물로 하사된다.<sup>117)</sup> 김정은이 핵심집단에게 사치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의 경제적 특권을 보장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경제적 특권을 침해하면, 엘리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결국에는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억압인 정치적 숙청을 통해 핵심 엘리트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김정은의 권력세습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정치엘리트들이 숙청되었다. 북한 핵심 엘리트 집단에서는 박남기 당계 획재정부장과 홍석형 당 경제담당 비서가 숙청되었고, 류경 보위부 제1부부장 처형,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해임, 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 철직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sup>118)</sup> 최근에는 김정은의 군 장악을 보좌했던 리영호 총참모장을 해임함으로써 누구라도 숙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핵심 엘리트들에 대한 숙청은

117) 조중익, “김정은 시대 ‘선물통치’…사치품 수입 70%↑,” 『DailyNK』 2012년 10월 4일; 이용수, “北 김정은, 술 마신 다음 날 속이 아프자…” 『조선일보』 2012년 8월 22일.

118) 이영중, “김정일 공포정치 … 총탄 99발로 류경 처형,” 『중앙일보』 2011년 6월 17일(검색일 2012년 5월 21일).

김정일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기 때문에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집단의 응집력은 김정은이 충성과 억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 제2절 핵심집단의 분열 조건

### 1. 김정은의 불완전한 리더십

김정은의 핵심집단이 충성과 억압을 통해 응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요인에 균열이 발생하면, 핵심집단의 분열이 촉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이 독재자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거나 억압이 약화됨으로써 더 이상 독재자에게 공포를 느끼지 않을 때 핵심집단의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집중을 통해 핵심집단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핵심집단 내부의 권력위협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배연합의 구성원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집중에 성공하면 지배연합은 김정은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sup>119)</sup>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려면 지배연합 내에서 김일성·김정일 정도의 권력집중에 성공해야 한다. 김정은은 수령독재체제를 계승했기 때문에 지배엘리트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에 있다. 김정은은 당·군·정의 최고직위를 공식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김정일 정도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국정 전반을 통제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당·군·정의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국정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확인되었다. 김정은은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핵심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분산해서 통치하는 과도기적 권력 구조를 확립했다. 김경희·장성택은 김정은의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당·군·내각·보위기관 등 국가권력 통제와 국정 운영을 보좌한다. 주요 권력기관에는 핵심 엘리트들이 배치되었다. 군은 최룡해·현영철·김정각,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원홍, 인민보안부는 리명수, 내각은 최영림이 배치되었다. 주요 권력기관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의 권한과

119) Milan W. Svolik,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April 2009, pp.478-479.

책임은 김정일 정권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이것은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도기적으로 성립되었다.

수령유일체제에서는 핵심 엘리트들에게 권력분산이 장기화될수록 이들의 권력이 커짐으로써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김정은은 권력집중을 통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집단의 일부를 제거하고 충성할 것이 확실한 다른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 일부 핵심집단을 제거·교체·축소한 후에 김정은의 미래가 보장된다.<sup>120)</sup> 김정은은 시급하게 권력집중을 실현하고 국정 전반을 장악한 후 지배연합 내에서 자신에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인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권력이 핵심 엘리트들에게 분산됨으로써 권력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정은은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북한정권은 김정은에 대한 당과 군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성맹세를 요구하고 있다. 군 원로인 리을설 원수는 노동신문에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우리 항일혁명투사들도 일편단심 그이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당·군·근로단체 간부들도 노동신문에 충성맹세를 기고했다. 북한 군부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인민군 장병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조선인민내무군도 수령결사 옹위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충성맹세 행사를 개최했다.<sup>121)</sup>

김정은이 이러한 충성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집단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부를 배분함으로써 공통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독재자는 경제정책을 실행하면서 형성된 렌트를 모아서 지배연합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렌트 축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sup>122)</sup> 독재자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sup>123)</sup> 독재자는 핵심집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핵심층근의 충성심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지지자들

120)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알라스테어 스미스, 『독재자의 핸드북』, p.106, 122.

121) 윤일건, “北원로 리을설 원수, 김정은 원수에 충성맹세,” 『연합뉴스』 2012년 7월 19일.

122) Louis J. Cantori, “Political Succession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 Policy*, Vol. IX, No. 3, Sep. 2002, pp.105-106.

123) Roger B. Myerson, “The Autocrat’s Credibility Problem and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2, No. 1, p.125.

의 주머니를 터는 일을 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일이다.<sup>124)</sup> 왜냐하면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재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렌트 축적자의 역할을 통해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부를 효과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응집력을 유지했다.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이 렌트 축적자로서 권력과 부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핵심집단의 응집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2.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

장성택은 김정은 정권에서 권력투쟁의 중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엘리트 중에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과 장성택의 근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정은과 장성택의 관계는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면서 동시에 경계 대상이다. 왜냐하면 장성택은 당과 군부에서 자기 사람들을 채워놓았고 심지어 돈줄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택은 권력재편 과정에서 당·공안·군 등 권력기구에 자신의 측근세력을 포진시켰다. 핵심집단 내에서 장성택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은 최룡해(총정 치국장), 문경덕(당 비서), 리영수(당 근로단체부장), 지재룡(주중 북한대사) 등이다. 또 김영일·김양건·김평해 등 당 비서와 부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도 장성택의 인맥으로 분류된다.<sup>125)</sup> 장성택은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외자유치 전담창구인 ‘합영투자원회’를 총괄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한 북한 무역기관 상당수가 장성택 라인으로 교체되었다. 장성택은 외화벌이를 통해 부를 집중시키고 있다.

장성택이 권력과 부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중대한 위협요인이다.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시점에서 김정은과 장성택 간의 협력관계가 깨지고 권력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은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장성택과 그의 측근세력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과 장성택 사이에 권력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124)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알라스테어 스미스, 『독재자의 핸드북』, p.59, 71.

125) 최선영, “김정은 체제 핵심세력은,” 『연합뉴스』 2011년 12월 21일.

장성택과 핵심엘리트들 간의 갈등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례로 장성택과 오극렬은 2010년 7월 외자 유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오극렬은 2009년 2월 이후 조선국제상회를 설립해서 외자 유치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성택이 2010년 조선대풍국제그룹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소속을 내각에서 국방위로 바꾼 뒤 오극렬의 조선국제상회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sup>126)</sup> 장성택과 오극렬의 이권 다툼이 권력 갈등으로 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리영호 해임과 군부에 대한 당적 통제는 당과 군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장성택 세력과 군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sup>127)</sup> 장성택과 군부의 갈등은 군부에서 반(反) 장성택을 내세운 권력 갈등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군부 세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권력 갈등이 발생하면 핵심집단의 응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sup>128)</sup>

### 3. 군부의 반발

군부의 반발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에게 중대한 도전 요인이다. 최근 리영호 총참모장의 제거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경제적 이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리영호 숙청은 표면적으로 볼 때 별다른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리영호 숙청은 군부의 불만과 반발을 촉발시키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군부를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인 동시에 위협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도 정권유지를 위해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군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으나 동시에 군부에 대한 당적 통제에 공을 들였고 군부의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당 조직지도부는 당생활지도과 13과를 통해서 총정치국을 통제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통제를 실행한다. 김정일은 군부의 당적 통제를 위해 조직지도부의 과장들에게 중장계급을 부여함으로써 필요시 언제든지 군대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sup>129)</sup> 김정일은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선군정치로 인해 확대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군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김정일은 김경희·최룡해·김경옥 등 민간인들이 인민군 대장 군사칭호를 부여했고, 일부

126)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pp.244-246.

127) 현성일, “리영호 해임 이후 김정은 권력구조,”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2-2, p.66.

128) 정영철, “북한주민들의 3대세습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안정성 진단,”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미래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12년 4월 23일, p.28.

129)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pp.7-10.

당 간부들을 당중앙군사위와 국방위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김정은은 당 제1비서로 취임한 후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이권을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김정은은 김경희·장성택과 함께 군에 대한 당적 장악을 강화하기 위해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했다. 총정치국은 당 조직 지도부나 당중앙군사위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해당 조직의 위임에 의해 군부에 대한 당적 통제를 담당한다. 정치군관은 군인이 아니라 당 간부가 군복을 입은 것이다.<sup>130)</sup> 최룡해는 군을 장악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한편 외화벌이 등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다. 리영호는 돈벌이 등 경제활동 주도권을 군이 아닌 내각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최룡해에 반발하다가 숙청당했다.<sup>131)</sup>

그러나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옮기는 일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핵심집단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권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군부의 불만이 축적되면 김정은에 대한 반발이나 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당의 군 장악 작업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권력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에서 무력기관과 권력기관들 사이에 상호경쟁과 견제, 충성경쟁으로 인한 권력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군부와 당, 군부의 각 기관, 당의 각 기관 사이에 더 많은 권력 지분과 경제적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경쟁이 존재한다.<sup>132)</sup> 각 기관은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보장받기 위해 충성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기관간의 권력과 이권 경쟁은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 4. 권력기관 간 경쟁과 갈등

북한의 권력기관은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다. 노동당·군부·내각·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등의 권력기관은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이권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sup>133)</sup> 북한의 핵심집단 내부에

130) Ibid, p.35.

131) 장용훈, “김정은 ‘노동당 부활’로 권력기반 다지기,” 『연합뉴스』 2012년 7월 17일.

132)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대내정책과 생존전략,”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4월호, p.25.

133)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p.88.

는 권력 갈등이나 정책 주도권 다툼으로 또는 이권경쟁이나 개인적 친소관계로서 연대하는 집단이 형성된다. 이러한 핵심집단 내부의 분파 형성과 기관 간 이권경쟁은 김정은의 권력이 약할 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권력기관 내부에도 분파가 존재한다. 1979년 주체사상 연구를 둘러싸고 황장엽이 이끄는 주체사사연구소와 당선전부를 등에 업은 사회과학원이 대립하고 있었다.<sup>134)</sup> 국제부는 황장엽이 당 국제담당비서로 있을 때 비서인 황장엽 중심세력, 김경희와 김용순(국제부 부부장)의 세력, 제1부부장으로 부장대리 사업을 하는 인물의 세력 등 3개의 세력으로 나뉘었다.<sup>135)</sup>

2000년대에 확인된 분파사례는 종파주의와 권력남용에 따른 장성택의 인맥 숙청사건(2004~2005), 당이 내각의 무력화를 위해 박봉주 등 내각 간부를 숙청한 사건(2006), 당이 남북경협 업무를 내각으로부터 환수하기 위해 민경련 등 대남일꾼을 경질한 사건, 군부 강경세력의 득세에 따라 군 고위간부를 교체한 사건(2008~2009) 등이다.<sup>136)</sup> 김정일 사망 이후 장성택은 당·군·보위기구에 자신의 인맥을 폭넓게 심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성택의 인맥은 김정은 체제에서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과 군부 간 권력 갈등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기지는 선군정치 이후 군부에 넘어가 있고 군대가 북한경제의 주요 명맥인 외화원천들을 독점한 상태다. 최근 김정은은 리영호를 숙청하면서 군부의 경제적 이권을 당이나 내각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군부의 특권을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축적시킴으로써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갈등은 권력 투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부 내에서는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가 상호견제와 감시, 충성경쟁을 통한 이익집단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기관들 사이의 알력과 경쟁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러한 알력과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sup>137)</sup> 김정은이 권력기관 간 경쟁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권력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핵심집단의 응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13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pp.192-193.

135) Ibid, p.222.

136)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p.292.

137)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대내정책과 생존전략,” p.25.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 논문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집단의 응집력과 분열 조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집단의 범위는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당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당비서국 부장과 비서를 포함시켰고, 이 중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엘리트들을 제외하고 총 48명을 핵심집단의 구성원으로 정했다. 핵심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해서 핵심집단의 특성과 응집력의 원인을 구명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은 김정은에 대한 응집력이 강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핵심집단의 핵심 그룹은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인 로알패밀리, 혁명 유자녀와 고위층 자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인 혁명 2세대에 속한 엘리트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핵심집단 48명중 21명(43.8%)을 차지했다.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은 최소 35년 이상의 당 생활과 군 복무 과정에서 간부충원 기준을 통과해서 핵심집단으로 진입한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들이다.

김정은의 핵심집단은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서 세대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정은의 핵심집단을 구성하는 엘리트들 중 50대는 1명에 불과하고, 75% 정도가 60대 이상이다. 연령이 미확인된 군부 엘리트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6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9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또 김정은의 핵심집단은 김정일의 핵심집단과 매우 유사하고 세대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이 김정일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도 김정일 정권과 매우 유사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의 핵심집단은 만주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만주파가 응집력을 유지한 요인은 이념과 혈연적 동질성, 전쟁이나 혁명 등 극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된 강력한 연대의식 등 비물질적 요소이다. 또 이들은 전위당, 민주집중제, 노멘클라투라 시스템 등 엘리트의 응집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일련의 절차를 활용하고, 조직적 응집력과 이데올로기적 단일성의 토대에 의존했다. 김일성의 핵심집단은 김일성과 만주파는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권력과 부의 공유라는 공통의 이해관계, 강한 동지적 연대의식,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응집력을 유지했다.

북한의 핵심집단은 김정일을 거치면서 충성과 억압을 통해 핵심집단의 응집력



을 유지했다. 김일성과 만주파의 관계는 1967년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계기로 충성과 복종의 관계로 변화했고, 김정일 권력승계와 맞물리면서 수령·후계자와 핵심집단의 관계가 충성과 복종의 관계로 제도화되었다. 김일성에 대한 핵심집단의 충성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확장되었다. 김정일은 가산제적 전체주의 시스템을 통한 권력과 부의 공유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충성을 유지하고 억압기제를 통해 형성된 공포를 통해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했다.

김정일은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충성을 이끌어냈고 억압기제를 활용함으로써 공포를 유발했다. 김정일은 핵심집단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보장했다. 후계자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적인 보상을 제공해줌으로써 핵심집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조건으로 만주파 출신 엘리트들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권력과 부를 보장해주었다.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시킨 또 다른 요인은 억압기제를 통해 형성된 공포였다. 김정일은 내부의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공포통치 수단으로 국가안전보위부·보위사령부·인민보안성 등 보위기구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했다. 보위기구는 엘리트들의 전화를 감청·도청하며 필요에 따라 미행하고 체포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위사령부는 총참모부와 각 군단사령부, 해군·공군사령부 등 북한군 전체에 보위부를 설치해서 감시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중앙당과 지방당,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숙청을 주도했고 인민무력부장·총정치국장·총참모장 등 군부 내 주요 간부와 군사지휘관, 정치군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화 도청, 감청, 미행 등을 통해 반국가 사건을 적발했다.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하지 않는 엘리트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을 단행했다. 김일성·김정일의 유일독재체제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정치엘리트들은 10대원칙 위반으로 숙청하거나 처벌함으로써 공포를 조장했고 이를 활용해서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했다.

김정은은 핵심집단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고통치자의 지위에 올랐다.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집단의 응집력은 권력과 부의 공유를 통한 충성과 억압기제를 통한 공포를 통해 유지된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집단 구성원들의 충성과 공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요인에 균열이 발생하면 핵심집단의 분열이 촉발된다.

핵심집단의 분열은 김정은이 권력집중에 실패함으로써 핵심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때 심화될 것이다.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려면 지배연합

내에서 김일성·김정일 정도로 권력집중에 성공해야 한다. 김정은은 4차 당대표자 회를 통해 핵심 엘리트들에게 핵심 권력기구의 권한을 분산하는 과도기적 통치 구조를 확립했다. 김경희·장성택은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당·군·내각·보위기관 등에 대한 김정은의 권력 통제와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있고, 군 장악은 최룡해·현영철·김정각,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원홍, 인민보안부는 리명수, 내각은 최영림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

그러나 핵심 엘리트들에 대한 권력분산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권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권력집중에 성공해서 일부 핵심집단을 제거·교체·축소한 후에 비로소 김정은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집중을 통해 지배연합 내에서 자신에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권력이 핵심 엘리트들에게 분산됨으로써 권력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정은이 핵심집단의 지지와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집단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부의 공유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보장해야 한다. 대개 독재자는 경제정책을 실행하면서 형성된 렌트를 모아서 지배연합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렌트 축적자(rent collector)의 역할을 한다.<sup>138)</sup> 독재자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sup>139)</sup>

김정은이 렌트 축적자의 역할에 실패함으로써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권력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독재자는 핵심집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핵심층의 충성심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이 렌트 축적자로서 권력과 부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핵심집단의 응집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성택은 김정은 정권에서 권력투쟁의 중심인물이다. 그는 당과 군부에 자기 사람들을 채워놓았고 심지어 돈줄까지 장악하고 있다. 장성택은 권력재편 과정에서 당·공안·군 등 권력기구에 자신의 측근세력을 포진시켰고, 북한의 외자유치 전담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를 총괄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장성택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력 배분과 이권 개입 과정에서

138) Louis J. Cantori, “Political Succession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 Policy*, Vol. IX, No. 3, Sep. 2002, pp.105-106.

139) Roger B. Myerson, “The Autocrat’s Credibility Problem and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2, No. 1, p.125.

핵심집단의 구성원들이나 군부 그리고 장성택 견제세력과 권력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김정은이 권력집중 과정에서 장성택과의 협력관계가 깨지고 권력 갈등이 발생하면,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정치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과 장성택 사이에 권력 갈등이 발생하면 이것은 김정은의 권력에 중대한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반발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에게 중대한 도전 요인이다. 리영호 숙청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경제적 이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표면적으로 별다른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옮기는 일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핵심집단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권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군부의 불만이 축적되면 김정은에 대한 반발이나 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당의 군 장악 작업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권력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에서 무력기관과 권력기관들 사이에 상호경쟁과 견제, 충성경쟁으로 인한 권력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군부와 당, 군부의 각 기관, 당의 각 기관 사이에 더 많은 권력 지분과 경제적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경쟁이 존재한다. 각 기관은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보장받기 위해 충성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기관간의 권력과 이권 경쟁은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군부 내에서는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가 상호견제와 감시, 충성경쟁을 통한 이익집단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군부·내각·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등의 권력기관은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이권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 있다. 김정일은 기관들 사이의 알력과 경쟁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정은이 이러한 알력과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기관 간 경쟁은 핵심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단기적으로 핵심집단의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김정은의 불완전한 리더십,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군부의 반발, 권력기관 간 경쟁과 갈등 요인으로 인해 핵심집단의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심각한 권력 갈등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핵심집단의 구성원들과 그들 내부의 권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1997.
- 김진하. “김정은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2-20.
- 밀스, 진덕규 번역. 『파워엘리트』. 서울: 한길사, 1995. Mills, C. W.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박영자.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Post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대내정책과 생존전략.” 『KDI 북한경제리뷰』2012년 4월호.
- 박형중. “장성택 계열 주도의 외화벌이 흥행하면 그의 영향력 현재보다 크게 확대 될 것.” 『NKVISION』 2012년 2월호.
- 박형중 등.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독재자의 핸드북』.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12.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LLC, 2011.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지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한울, 2007.
- 오경섭.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비교: 제도와 리더십의 동학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12.
- 오경섭, “북한의 신경제관리체계 평가와 전망,” 『정세와정책』9월호
-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2003.
- 이승열.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외협상 목표: 고립의 심화인가, 변화의 시작인가?” 『최근 북한정세와 변화전망: 고립의 심화인가?』. 2012년 제2차 대북정책 심포지엄: 2012년 5월 10일.
-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봄플러스, 2010.
-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서울: 살림, 2012.
-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장용훈. “김정은체제 분석과 전망.”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40호.

-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전현준.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2.
- 전현준 등.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내정치: 선군정치와 권력엘리트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2007. 12. 14).
- 정성장. “북한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 『정세와 정책』 2012년 5월호.
- 정성장. “북한의 정권교체, 체제변화,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전망.” 『한반도 통일과 정과 통일방안』. 2009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09년 11월.
- 정영철. “북한주민들의 3대세습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안정성 진단.”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미래전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12년 4월 23일.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규약.”
-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서울: 현프린트, 2012.
- 통일부 정세분석국. “김정은 체제의 당·정 주요인물 분석·평가.”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대학원 2009.
-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2009년 제15권 1호.
- 현성일. “리영호 해임 이후 김정은 권력구조.”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2-2.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후지모토 겐지 지음, 신현호 옮김. 『김정일의 요리사』. 서울: 월간조선사, 2003.
- Bottomore, T. B. *Elites and Society*. Middlesex: Pelican, 1964.
- Brownlee, Jason.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 (July 2007).
- Cantori, Louis J. “Political Succession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 Policy*. Vol. IX, No. 3, Sep. 2002.

- Carapico, Sheila. "Successions, Transitions, Coups and Revolutions." *Middle East Policy*. Vol. IX, No. 3, Sep. 2002.
- Higley, John. "Elite Theory in Political Sociology." <http://xa.yimg.com/kq/groups/26452858/582250183/name/Teoria+elites+Higley.pdf>(검색일 2012년 5월 25일).
- Higley, John, Jan Pakulski. "Pareto's Theory of Elite Cycles: A Reconsideration and Application."
- Higley, John, Michael G. Burton. "The Elite Variable in Democratic Transitions and Breakdow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9, Vol. 54 (February).
- Marvick, Dwaine (ed.), *Political Decision-Makers*. Glencoe: The Free Press, 1961.
- Meisel, James. *The Myth of the Ruling Class: Gaetano Mosca and the "Eli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8.
- Michels, R. *Political Parties*. Glencoe: Free Press, 1915.
- Mosca, Gaetano. *The Ruling Clas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0.
- Myerson, Roger B. "The Autocrat's Credibility Problem and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2, No. 1.
- Parry, Geraint. *Political Elit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9.
- Putnam, R. D.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6.
- Rigby, T. H. "The Soviet Political Elite 1917-1922."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 No. 4 (Oct., 1971).
- Rutland, Peter. "The Search for Stability: Ideology, Discipline, and the Cohesion of the Soviet Elit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I V, No. 1, March 1991.
- Svolik, Milan W.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April 2009.
- Triska, Jan F. *Communist Party-State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Studies*. 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1969.
- Wintrobe, Ronald.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Zuckerman Alan. "The Concept "Political Elite": Lessons from Mosca and Pareto." *The Journal of Politics*. vol. 39, 1977.

『평양방송』.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주간조선』.

『중앙방송』.

『한국경제매거진』.

『BreakNews』

『Chosun.com』.

『DailyNK』.

『NewDaily』.

『YTN』.





#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 북한이탈주민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윤인주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제1장 서론 .....	498
제2장 이론적 논의 .....	501
제3장 북한이탈주민대상 조사 개요 .....	508
제4장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실태 .....	513
제5장 북한 당국의 이중전략과 사적 자본의 생존전략 .....	536
제6장 결론 .....	546
[참고 문헌] .....	550

---



## 표 목차

---

<표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질문 내용 .....	510
<표 2> 북한이탈주민 면담 대상자 .....	511
<표 3>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의 사례 .....	513

---

## 그림 목차

---

<그림 1> 경제개혁으로 인한 재산권 변화의 유형 .....	504
<그림 2> 경제개혁으로 인한 재산권 변화와 체제전환과정의 사유화 유형 .....	506
<그림 3>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의 유형 .....	508

---



## 요 약 문

본 연구는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회주의경제의 개혁으로 인한 재산권 변화와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사유화에 비추어 북한 내 기업적 현상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이 어떤 산업 부문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적 현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과 사적 자본의 생존전략을 검토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북한 경제가 운영되는 원리를 일부나마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대부분자, 명의대여, 개인기업으로 대별된다. 이 중 명의대여가 가장 많고 대부분자와 개인기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법적으로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아 사적 자본을 대부분자와 같은 기업적 현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주체가 적고 투자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국영기업의 명의를 대여하는 형태가 많을 것이다.

면담 결과 수산업, 광업, 상업, 수공업 부문의 여덟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상기 유형을 따라 검토하였다. 사적 자본을 국가기관에 빌려주는 대부분자는 국가와 개인이 사업의 보상과 위험을 공유하면서 경영자 또는 기업가 개인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구조상 개인이 국가기관에 대부분자를 할 경우 보상은 국가와 개인이 공유하면서 위험은 개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명의대여는 개인명의의 사업운영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서 그나마 사적 자본이 재투자될 수 있는 기회이다. 북한 당국이 사적 자본을 국가경제로 흡수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개인기업은 북한 공식경제에서 형체가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자 및 명의대여와 달리 국가기관과의 연결고리가 없거나 약하다.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국가기관 혹은 공식경제와 접촉점이 발생할 뿐이다.

북한 당국은 사적 경제활동에 대해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사적 자본이 북한 경제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재원 추출 및 사회경제적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비사회주의 검열을 통해 체제 내 질서유지를 정당화하면서 강제하고 있다. 국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정부의 능력, 즉 국가능력 면에서 재정 자원의 추출, 사회경제적 발전의

조정, 상징과 합의를 도출하는 정당화, 무력을 위협 또는 사용하는 강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사적 자본의 주체는 북한 당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대응과 제도적 모순 속에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발달시켰다. 신흥자본가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득을 은폐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평범하고 소박한 살림으로 위장하는 사람도 있다. 재생산 측면에서 볼 때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한 사적 자본은 사장(死藏)되는 경향도 있다. 이 틈을 타고 제도적 실체 없이 사업을 조직하는 청부업자나 거간꾼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검열을 두려워하기보다 검열기관 간부와 만나는 계기로 삼아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확대시키는 접촉점으로 활용한다.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형성을 시사한다. 인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하는 고리대업은 사적 경제활동의 밑돈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북한에서 유통·금융업에 신용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노동시장에는 공식경제의 유희인력이 방출됨으로써 조직화, 세분화되고 있다.

사적 부문의 부활에 대해 북한 당국은 강한 제약을 가하기보다 그 운영과 확대를 조절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사적 부문을 용인할 수밖에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적 부문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사회주의체제와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자본·노동시장에서 제도적 모순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요컨대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사회주의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 노동력의 상품화, 생산의 무계획성, 사유재산과 같은 자본주의의 특징이 두루 나타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경제체제와 달리 이러한 현상이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현상이라도 그 형식은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에서 허용하는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변화 및 사유화 유형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변화는 동유럽과 중국에서 일어난 경제적 변화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동유럽과 비교할 때 북한에서 일어난 경제적 변화는 그 모습이 유사할지 몰라도 공산당독재라는 권력 및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피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본질과 성격에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독재를 유지하는 지향점에 있어 동유럽보다 더 유사하다. 하지만 중국이 민간부문의 재투자를 허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민간부

문의 재투자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점진적인 개혁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점을 생각한다면 향후 북한의 변화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시장화 초기에는 북한 경제에 대한 단편적인 실태파악과 정책 변화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계획경제의 변화 및 체제전환을 가져온다는 입장과 북한 당국의 선별적 조치로 계획경제가 유지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20년이 흐른 오늘날 보건대 2002년 7·1조치로 대표되는 경제개혁과 더불어 북한의 계획경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는 계획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시장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전환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북한 당국의 의도가 어떠한 간에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사실상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화는 제도적 변화로서의 시장경제화를 추동하여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체제에서 볼 수 있는 기업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적 현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판매, 서비스 따위의 사업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모습을 말한다.<sup>1)</sup> 1990년대의 자발적이고 방임적인 시장화를 거쳐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비교적 조직적인 경제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의 사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및 북한 내부 소식지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사적 자본을 가진 돈주의 등장, 국영기업에 대한 사적 자본의 대부투자, 국가기관의 명의대여, 불법생산, 고용과 임노동관계 등에 관한 실례가 들려온다. 이는 북한 내 새로운 경제활동 유형을 시사하며 북한 사회 변화의 일면을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사회주의경제의 개혁과정과 체제전환에서 유사하게 일어났던 현상과 비교하면서 북한 경제의 변화를 읽어내고자 한다. 또한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이 어떤 산업 부문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적 자본의 기업적 현상에

1) 국립국어원,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774601>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과 사적 자본의 생존전략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북한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원리를 일부나마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와 경제운영에 있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다룬 기존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혹은 비공식화에 관한 연구 중에서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일부 사례로 소개한 경우다. 여기에는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하여 시장, 사경제, 비공식경제, 경제개혁 등을 주제로 한 연구 대부분이 포함된다.<sup>2)</sup>

둘째,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질적인 사유화 현상을 규명한 연구다.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재산권과 소유권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화를 넘어 사유화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임강택·김성철(2003)<sup>3)</sup>은 비공식적인 재산권 이행의 관점에서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 운영 실태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박일수(2006)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 법제의 변화를 소개하고 토지경작, 개인부업, 소자본가, 개인임대 등을 통해 개인소유권 확대 양태를 설명하였다.<sup>4)</sup> 김종원(2009)<sup>5)</sup>은 7·1조치 및 시장 합법화와 같은 정책 선택이 예기치 않게 사유화를 진전시키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소개하였다.

2)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사경제와 시장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사경제 부문에 관한 연구로는 최수영(1998), 남성욱·문성민(2000), Lee and Chun(2001), 박석삼(2002), 최봉대·구갑우(2004), 김영희·김병욱(2008), Lankov and Kim(2008), Joo(2010) 등의 연구가 있다. 비교적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김영윤(1996), 박기돈(2000), 한상진(2002)은 북한의 사경제부문을 지하경제로 명명하였다. 정은미(2000; 2007)는 사경제 중에서도 농민시장의 변화와 발전에 주목하였다. 시장화에 관한 연구로는 정세진(2000), 이영훈(2004; 2005), 양문수(2005; 2006; 2010a; 2010b; 2011), 이승훈·홍두승(2007), 임수호(2008), Kim and Song(2008), 김병연(2009), 이석(2009), 이석 외(2009), 임강택(2009), 정은이(2009), Haggard and Noland(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오승렬(1996; 1999), 최봉대(2008), 김병연(2009)은 비공식 부문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었고 장경섭(1994), 서재진(2004), 김정호(2005)는 시장화로 인한 사회변화를 다루었으며 박형중(2002)은 소련, 박희진(2007)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비교 분석하였다.

3) 임강택·김성철,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서울: 통일연구원, 2003).

4) 박일수,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 변화에 관한 연구,”(마산: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6).

5) 김종원, “북한 사유화 현상에 대한 연구,”(서울: 서강대학교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2009).

셋째,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등을 주제로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조명한 연구가 있다.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는 상인과 돈주 또는 신흥(상업)자본가 등 비공식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개인을 다루고 있다. 김보근(2008)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를 이끈 중심 세력에 주목, 이들의 자본 형성과 운용 메커니즘을 고찰했다.<sup>6)</sup> 이종겸(2009)은 이러한 사적 자본의 출현배경과 시점, 사적 자본 소유자의 인적 배경, 자본 운영 전략 등을 밝혔다.<sup>7)</sup> 김영희·김병욱(2008)은 북한의 사경제활동을 관료들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관계자본 축적 양상과 연계하였다.<sup>8)</sup> 한편 공용철(2010)은 북한에서 노동계획이 약화되면서 비공식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통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설명하였다.<sup>9)</sup>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과 관련한 기존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자체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단편적으로 거론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현상의 실체와 의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분석해보려는 시도는 없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다룬 기존연구는 경제위기라는 구조적인 외부환경요인에 집중한 나머지 북한 경제 내부의 변화과정과 행위자의 역할을 충분히 연결시키지 못한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북한 내 사적 자본의 기업적 현상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경제위기라는 구조적인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행위자 요인으로서 북한 당국의 대응 및 사적 자본의 생존 전략을 고려하여 기업적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경제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6) 김보근, “북한 상인계층과 자본의 형성,”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 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논문집(2008.12.04.).

7) 이종겸, “북한의 신흥상업자본가에 관한 연구,”(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8) 김영희·김병욱,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 관계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2008).

9)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설명할 수 있는 유사개념을 추출하였다. 또한 북한 경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임강택』과 같이 북한에서 출간되는 문헌, 소식지, 뉴스 등을 통해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사례를 검토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사례를 파악한 후 서울 및 제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19명)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본 연구에서 꼭 필요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공식통계나 거시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북한 주민의 경제실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일부 편향된 시각이나 편중된 표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의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특히 기업적 현상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이 제한적이거나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상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다소 잠정적이고 향후 연구를 위한 시초 작업임을 밝혀둔다.

##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경제개혁과 재산권 변화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기존에 국가 소유였던 생산수단과 경제관리방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데 이 때 핵심적인 것이 재산권의 재할당(reassignment)이다.<sup>10)</sup> 이러한 초기 개혁은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위로부터의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de jure) 측면 뿐만 아니라 실질적(de facto)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1)</sup> 경제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화는 당국의 명시적인 법제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당국의 묵인 하에 자원을 활용하는 주체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차후에 정책으로 반영되는 예가 많다. 이는 재산권의 숨겨진 변화 과정(hidden process of changes in property rights)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

재산권은 하나로 규정되는 권리라기보다 재산에 관한 일련의 권리를 묶어놓은

10) 임강택·김성철(2003), p.1, 12.

11) Edella Schlager and Elinor Ostrom, "Property-Rights Regimes and Natural Resources: A Conceptual Analysis," *Land Economics* 68(39) (Aug 1992), p.254; 임강택·김성철(2003), p.12에서 재인용.

것이다. Pryor는 재산권을 재화, 서비스, 사물에 대한 권리의 묶음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집합으로 정의한다.<sup>12)</sup> 이와 유사하게 Demsetz는 재산권을 “일련의 권리를 모아놓은 것(a bundle of rights)”이라고 정의하고 통제(control)권, 소득(income)권, 양도(transfer)권으로 구분했다.<sup>13)</sup> Kornai는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재산권의 통제(이용)권(rights of control), (잉여)소득(처분)권(rights to residual income), 양도(이전)권(rights of alienation or transferability)으로 표현했다.<sup>14)</sup>

이와 같은 재산권의 세 가지 영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분리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도권은 통제권 및 소득권에서 분리될 수 있다. 이는 소유와 경영, 혹은 소유하는 권리(ownership)와 실제로 관리하는 권리(control)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권과 양도권은 소유하는 권리로, 통제권은 통제하는 권리로 대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권과 양도권은 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권리이다. 반면 통제권은 재산의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소유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산권을 보자면 통제권보다는 소득권과 양도권의 변화에 더 큰 의미가 있다.<sup>15)</sup>

사회주의는 소비재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경제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국가로 귀속시켜왔다.<sup>16)</sup> 사회주의경제에서 소유권은 국가적 소유(또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개인소유로 명확히 구분된다.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인 공적 소유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소유주체인 국가가 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다. 북한외의 경우에도 국가적 소유나 협동적 소유에 의거해 당국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적 소유에 관한 재산권 행사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생산수

12) Frederic L. Pryor, *Propert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in Communist and Capitalist N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13) Harold Demsetz,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in id., *Ownership, Control, and the Firm: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Oxford: Blackwell, 1967), 1, pp.104-116; Walder(1999), p.5에서 재인용.

14)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64-69.

15)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산권은 이와 유사한 개념인 소유권보다 광범위한 용어이다. 재산권(property rights)은 소유권(ownership)과 물권(real rights)을 비롯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채권은 물론 광업권, 어업권 등 다양한 경제적 권리를 포함한다. 반면 소유권은 그 객체가 물건으로 한정되며 재산권의 기본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과 소유권의 관계는 복잡하여 혼용되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다. 시장경제의 현실은 이러한 재산권과 소유권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지적재산권 등 물적 소유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증폭하여 이에 대한 권리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주식회사가 발달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소유권을 가진 주체와 재산권 행사에 대해 위임을 받은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임강택·김성철(2003), p.3, 4, 6.

16) 임강택·김성철(2003), p.4.

단의 국유화를 표방하는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사실상 소유에 관한 권리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정책을 택한 경우나 북한처럼 비공식경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재산권을 둘러싸고 미묘하고 중첩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sup>17)</sup> 사회주의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체계에서 재산권 변화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는 재산권 운용의 범주가 확대되는 것이다. 둘째는 상위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경영권이 이양되는 것이다. 셋째는 경영주체가 다양화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업, 지배인, 가족, 개인 등으로 경영주체가 확대되는 것이다.

Walder는 경영주체의 다양화 측면에서 중국에서 재산권의 변화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으며 얼마나 많이 진전되었는가에 대해 경험적인 질문을 제기했다.<sup>18)</sup> Walder에 따르면 기존 제도, 규정, 관습을 무시하고 재산권이 통째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재산권의 재할당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기 보다 섞여 있는 형태(hybrid property forms)로 점진적으로 실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Walder는 중국 내 국영기업에서 사영기업으로의 재산권 변화 과정을 일련의 스펙트럼으로 보고 그 중 다섯 가지 형태를 특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9)</sup>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단체 소유로서 기존의 국영기업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경영 인센티브 계약형’으로 ‘개혁형 국영기업’을 말한다. 통제권과 소득권을 개별 기업 또는 지배인에게 부분적으로 할당하고 성과향상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이윤분배에 관한 재조정이 가능하고 기업보유 자급에 대한 제약도 따른다. 이 두 가지가 지배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소유-경영(국가·정부-기업가) 주체 간의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공공자산 계약형’이다. ‘개혁형 국영기업’에 비해 통제권과 소득권의 상당부분이 지배인에게 할당된다. ‘개혁형 국영기업’이 감시형이라면 ‘파트너십 계약형’은

17) 임강택·김성철(2003),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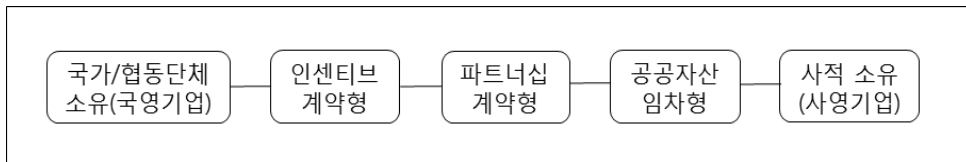
18) Walder, Andrew G,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Economy: Contours of the Process of Change,”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2, 4; 중국의 경우 개인에게 재산권이 넘어가는 일이 1980년대에는 미미했지만 1990년대에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1978년 덩소핑의 경제개혁 선언 이후 10년이 지나서였다.

19) Walder(1999), pp.6-10; Kornai(1992), pp.71-75.

파트너의 개념으로 국가와 개인이 사업의 보상과 위험을 공유한다. 이윤분배조건이 매년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 경영자 또는 기업가가 자기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과 다르다.

네 번째 유형은 지정된 기간 내 통제권과 소득권 전체를 양도하는 대신 고정적인 임차료를 청구하는 ‘공공자산 임차형’이다. 세 번째 유형인 ‘파트너십(공공자산) 계약형’은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지만 ‘공공자산 임차형’은 모든 위험과 보상을 기업가 개인이 부담한다. 다섯 번째 유형인 독립적인 사기업과 차이가 있다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자본장비에 이윤을 재투자하면 추후 이해관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정부는 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네 번째 유형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완전히 사유화된 상태, 즉 국가가 규제와 과세로만 관여하는 ‘사영기업’이다. 이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유형, 즉 국영기업과 사영기업 사이에 양자의 혼합된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다섯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 Walder, Andrew G,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Economy: Contours of the Process of Change,"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6-10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1> 경제개혁으로 인한 재산권 변화의 유형

## 제2절 체제전환과 사유화

체제전환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지만 그 본질은 사적 부문 활동(private sector activity)의 확대에 있다.<sup>20)</sup> 체제전환의 주된 구성요소인 사유화는 새로운 사적 부문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국영기업을 사영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가는 이행경제에서 사유화는 국가 산하 기관에 지나지 않던

20) 양문수(2010), p.278.

21) Lavigne(1995), p.155.

국영기업을 상업적인 기관으로-민영화하든 공기업으로 남겨두든-변모시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동유럽에서는 이를 시장화로 부르기도 했다.

Lavigne은 사유화의 의미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Lavigne에 따르면 협의의 사유화란 “국가라는 주체가 사적(private) 주체에게 재산권을 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sup>22)</sup>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즉 국영기업을 공개, 매각 등으로 민간 소유화하는 것과 비슷하다.<sup>23)</sup> 반면 광의의 사유화는 “경제활동의 탈국가화(destatisation)에 기여하는 제반조치”를 뜻한다. 이 때 사유화 역시 대규모 국유부문이 시장규칙과 경쟁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국영기업의 시장화 또는 상업화를 포함한다. 하지만 광의의 사유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적 소유권이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사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생산수단이나 국유자산을 장기 임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사영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민간부문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사유화는 자유화에 가깝다.

한편 사유화의 메커니즘은 소규모 사유화와 대규모 사유화로 구분된다.<sup>24)</sup> 소규모 사유화는 소규모 국가자산을 판매, 경매, 임차 등으로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무역·서비스, 트럭운송, 건설 부문에서 일어나는데 행상에서 시작해서 인적 자본에 의존하는 서비스 부문으로 발전한다. 많은 경우 2차 경제 또는 비공식경제에서 이미 존재해 온 기업 활동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전 주인에게 반환(restitution), 국유자산 매각(divestment), 민영화를 통한 조달(financing)이 있다. 대규모 사유화는 대규모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그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 때 국영기업을 효율적인 자본주의 기업으로 변모시켜 국유부문이 시장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국가에 수익이 생기지 않는 대규모 민영화, 국내 자본에 의지하는 자발적 민영화, 국외 자본에 의지하여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매각을 하는 방식 등이 있다.

Woo et al.는 이러한 사유화를 비국유부문의 형성, 곧 재산권의 분권화로 정의한 바 있다.<sup>25)</sup>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큰 관심사였던 사유화 또는 민영화는 결국 재산권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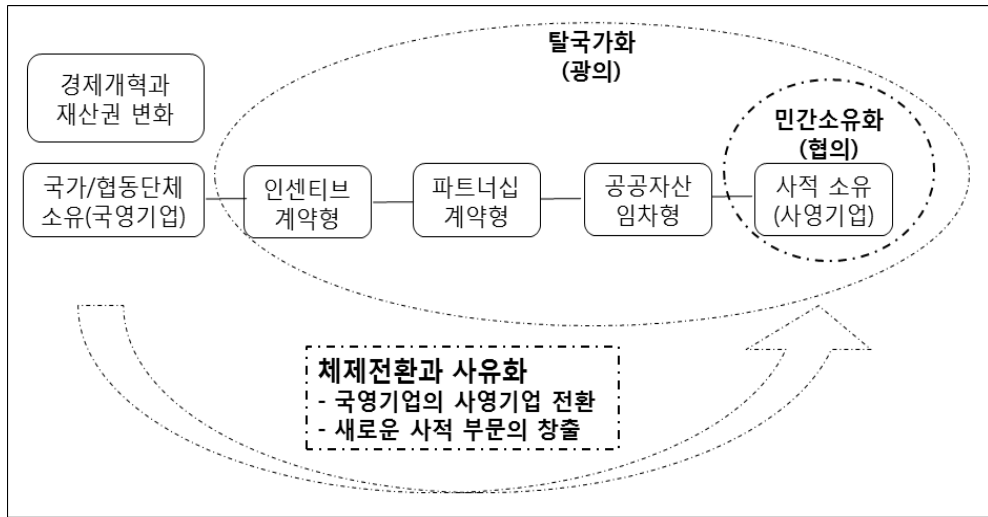
22) Lavigne(1995), pp.155-157.

23) 이두원(2000), p.33.

24) Lavigne(1995), pp.159-160.

25) Wing Thye Woo, Stephen Parker and Jeffrey d. Sachs (eds), *Economies in Transition: Comparing Asia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7), p.299; 이두원(2000), p.33에서 재인용.

이런 점에서 재산권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Walder가 제시했던 경제개혁으로 인한 재산권 변화 유형에 Lavigne이 정의하는 체제전환과정의 사유화를 결합시켜보면 <그림 2>와 같다.



\* Walder(1999), pp.6-10; Lavigne(1995), pp.155-157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2> 경제개혁으로 인한 재산권 변화와 체제전환과정의 사유화 유형

### 제3절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의 유형

북한의 경우 공식적으로 개혁·개방을 선언하지 않고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유화나 민영화라는 용어를 쓰기는 이른다. 하지만 공식적인 법·제도적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보면 비공식경제가 확대되면서 북한에서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권리행사가 단순히 소유권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6)</sup>

본 연구는 상기 논의를 토대로 경제개혁으로 인한 재산권 변화와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사유화의 관점에서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Walder가 제시한 재산권 변화 유형 중 사적 자본이 투입되는 형태는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유형, 즉 파트너십 계약형, 공공자산 임차형, 사영기업이다.

26) 임강택·김성철(2003), p.2, 6.



파트너십 계약형은 사적 자본이 국영기업에 대부투자되는 형태를 말한다. 공공자산 임차형은 사적 자본이 임대 형식으로 국영기업에 투입되는 형태를 말한다. 국가 명의를 빌려 개인기업가가 상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사영기업은 사적 자본이 자유롭게 기업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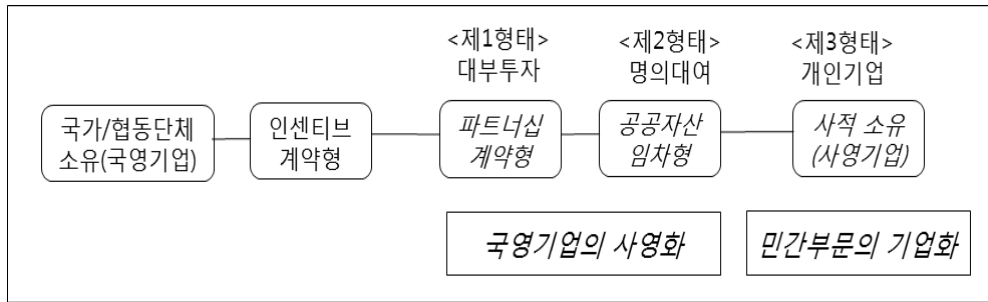
이러한 형태는 현재 북한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대부투자, 국가기관의 명의대여, 사적 부문의 개인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형태는 국영기업에 대한 대부투자 활동을 하는 유형(제조업, 서비스업, 자재조달, 임가공 등)이다. 이 경우 개인은 자신이 투자한 몫에 대한 수익금을 회수함으로써 잉여소득(처분)권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의 공장·기업소, 무역회사, 상점, 식당에는 해당 관계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사적 자본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2형태는 국영기업의 자산을 임차하거나 명의를 대여 받아 일체의 경영활동을 하는 유형(무역업, 서비스업, 제조업, 수산업, 광업 등)이다. 주로 자체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공장이나 기업소, 식당이나 상점을 개인이 인수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사용료와 수익금을 납부하는 형태이다. 핵심은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사업허가(무역회사의 경우 워크)를 양도 받는 것이다. 명의를 빌린 기관에 개인이 구입한 생산수단을 등록하기도 하고 해당 기관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생산수단을 개인이 임대받기도 한다.<sup>27)</sup> 겉보기에는 국영기업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본질은 사영기업에 가깝다. 특히 상점과 식당 부문에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형태는 신규업종에서 독자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유형(개인영농, 가내 수공업, 상행위, 운수, 의료행위)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경공업 중심을 발달하고 있으며, 국영기업과 경쟁 또는 협력 관계에 있다. 사회주의경제 내 지하 공장이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점유·이용(통제)권, 잉여소득(처분)권, 양도권을 불법적으로 불완전하나마 개인이 가지고 있다. 개인수공업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며, 담배, 신발, 옷 가공을 하는 개인기업이 대표적이다.

이상의 세 가지 형태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제1형태와 제2형태는 국영기업이 사영화되는 것이고 제3형태는 민간부문이 기업화되는 것이다.

27) 전자는 개인 자본으로 버스나 트럭을 구입해서 기관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다. 후자는 명의를 빌려주는 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건물을 산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경우다.



〈그림 3〉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의 유형

Walder가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세 가지 형태는 서로 다른 특징이 부각되는 분기점이 될 뿐이며 사실은 스펙트럼과 같은 연속선상에 더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제 1, 2, 3형태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토대로 실제로 북한에 존재하는 사적 자본의 기업적 현상을 이와 같은 재산권 형태를 따라 살펴볼 것이다. 이에 앞서 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의 개요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 제3장 북한이탈주민대상 조사 개요

본 연구의 주된 방법인 심층면접조사는 북한에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6일에서 2012년 9월 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연구자를 통해 소개받았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자에게 유사한 경험이 있는 지인을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면담은 면담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2~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 대상자에게 질문한 내용은 크게 사업 개요, 개인 배경, 기업 관리, 제도 측면으로 나뉜다. 사업 개요에서는 사업 현황과 산업 환경에 대해, 개인 배경에서는 가정환경, 경력, 인맥, 재산, 사업동기와 목표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기업 관리에서는 생산·설비, 구매·판매관리, 자금관리, 인력관리, 제품개발 및 사업전략 등을 질문하였다. 제도 측면에서는 국가기관 간부 및 사업 유관기관 관료와의 관계 및 동종업계 종사자와의 관계, 사유 재산권의 허용 범위와 한계, 비사회주의 검열

과 같은 법적·정치적 통제 및 시장화 억압 정책의 여파에 관해 질문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보면 전체 19명 중 남자가 절반(9명)정도이며 40대(9명)가 가장 많다. 탈북연도는 2005~2012년에 걸쳐 있다. 2007년 탈북한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고, 2007년 이전이 3명, 2007년 이후가 11명이다. 주 거주지로는 함경북도 출신(10명)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다. 주요 경력으로는 외화벌이 경험자가 5명, 밀수를 포함해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7명, 유통·수공업 등으로 시장에 직접 연관된 경우가 7명이다. 면담 대상자가 종사한 사업 분야는 수산업, 광업, 수공업, 유통업, 음식점업 등이고 근무한 기관은 내각 산하 기업소·공장, 당기관, 검열기관, 국가기관, 외화벌이기관, 급양관리소, 국영농장 등이다. 면담에 사용된 반(半)구조화된 질문지의 주요 내용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면담 대상자 구성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비(非)함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함경북도 지역 출신자가 절반정도이다.<sup>28)</sup> 또 탈북 후 한국으로 오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한국 입국자 중에서도 2008년 이후 탈북한 사람을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기업적 현상에 대해 면담해줄 대상자가 부족하였다.<sup>29)</sup> 연구계획 당시에 사례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했던 산업 가운데 축산업, 숙박업,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경제활동을 넘어 조직적인 경제활동을 해 본 대상자를 구하지 못한 점도 있다. 또한 사영기업 종사자를 만나고자 하다 보니 공장·기업소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사적 경제활동은 배제된 경향이 있다.

28) 북한 전체 인구 중 함경북도 지역의 인구는 10%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함경북도 출신은 70%에 가깝다.

29) 한국에 먼저 정착한 가족이나 친척의 지원을 받고 탈북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2012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에 가장 최근의 북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대상자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자체가 예년보다 절반으로 크게 줄었다.

〈표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질문 내용

대구분	중구분	세부내용
개요	사업전반	종사 산업, 품목, 규모(자본, 월/년 매출, 수익, 판로, 고용), 동업 여부, 사업기간(시작과 종료), 수익구조
	산업환경	불·호황, 진입장벽, 경쟁자 규모(동일 기관 소속자 내 경쟁 포함), 대체품 유무, 퇴출방법(양도가능여부), 다른 산업으로 이동 가능성, 성공·실패비율/사례/이유
개인	개인배경	직업, 부모 등 가정배경, 해외경험, 당/지방정부/보안간부 관계
	동기와 목표	사업 종사 계기, 마음가짐, 목표, 품목 선정 계기(환경, 기회)
	수입과 재산	월/년 수입, 재산, 저축
	가치관	정권과의 공동체 의식, 최고가치, 기업가정신, 사회적 책임
기업	생산·설비	사업 진행 흐름, 사업 공간, 설비 및 자재, 건물/기계/설비/가구/운송수단에 대한 투자, 품질유지 등
	구매·판매	자재구매: 조달방법, 조달비용, 지불단위·방법(선불, 외상, 유무상통) 상품판매: 주고객, 판매통로, 수량결정, 가격결정(변동), 광고, 차별화
	자금관리	밀천마련방법, 운영자금규모, 수익구조, 수익보고, 비용처리, 뇌물 및 수수료, 손익분기점, 파산위기 시 대처방법, 회계장부, 자금보유통화
	인력관리	고용자 수, 노동자를 구한 경로, 선발/해고, 급여내용(월급, 배급(가족분), 기타)과 지급방식
		계약방식: 구두/서면, 위반 시 대응방안
		임금결정, 임금변동, 인센티브
	제품개발	사업관련정보관리, 제품개발노력
	사업전략	종사 사업의 핵심, 주안점
생존전략	규제 및 간부와의 갈등 회피 방법, 검열·단속 대응법, 가짜수익보고	
제도	네트워크	국가(사법·보안)기관 간부와의 관계유지 필요성
		등록된 사업소에 대한 납부금, 뇌물(매출 및 수익 대비 비율/금액)
		다른 기업, 특히 같은 업종종사자끼리의 모임이나 연결망
	재산권	재산권 인정 여부와 범위, 한계
		자산, 장비처분 경로 및 방법
	규제	합법, 비법, 불법 구분
비사회주의 검열 주기, 방식, 처벌 범위		
법률 및 규칙 개정과 관련한 변화, 시장단속이나 화폐개혁 여파		

〈표 2〉 북한이탈주민 면담 대상자

면담자	출생연도	탈북연도	주 거주지	주요 경력
A(남)	1972	2009	황남 해주	외화벌이 일군(개인광산)/보안원 출신
B(남)	1960	2010	함북 청진	개인선박(과수농장) 선장
C(여)	1958	2007	함남 함흥	개인사업(외화벌이, 달리기)/공장 생산직
D(여)	1974	2010	양강 혜산	개인사업(차판장사)/무역와크 대여
E(남)	1957	2009	함북 회령	개인식당(급양관리소) 사장/ 개인사업/밀무역
F(남)	1972	2007	황남 해주	개인투자(조개양식)/검열기관 관리직
G(여)	1969	2011	함북 회령	개인사업 (술·양곡 판매, 중고옷·철 밀무역)
H(여)	1961	2005	함북 회령	주부/개인농사
I(여)	1962	2005	함북 무산	개인사업/공장 노동자
J(남)	1946	2007	함북 회령	개인사업/공장 기계공/공예품 밀무역
K(여)	1954	2007	함북 회령	주부/공장, 탄광 선반공
L(여)	1971	2006	함북 무산	개인사업(돈장사, 밀무역 거간꾼)
M(남)	1975	2012	함남 단천	자체금광 관리자/건설노동자/농장원
N(남)	1965	2009	함남 함흥 함북 회령	외화벌이 일군/ 개인사업(밀무역 거간꾼)
O(남)	1962	2008	평남 순천 평남 남포	국가기관 관리직/개인사업(외화벌이)
P(여)	1980	2008	함북 회령	개인수공업(담배)
Q(여)	1964	2007	함북 연사	개인수공업(사탕, 아이스크림)/ 개인사업(휘발유, 밀무역)
R(여)	1971	2011	평양	당기관, 평양OO백화점 관리직
S(남)	1963	2008	황남 해주	외화벌이 일군/국가기관 관리직

이 조사에 응한 면담자의 특징을 통해 주목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내 시장경제활동 참가자나 북한이탈주민의 남녀성비에 비해 면담 대상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sup>30)</sup> 소위 장마당경제로 불리는 북한 시장은 여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기업적인, 다시 말해 조직적인 경제활동에는 남성의 참여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맥과 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매대와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에게도 상대적인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면담 대상자 중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해 본 사람 혹은 이들이 들려준 사례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공하는 상인과 개인업자는 경제적 방법만 아니라 정치적 편익을 획득하는 데 능통하다. 국가의 제도나 체계적 후원은 개인 활동을 오히려 구속하기 때문에 이들은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sup>31)</sup>

셋째, 상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에서 북한식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말한다.<sup>32)</sup> 북한식으로 말하면 국가 후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기술 수법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들은 “나라가 비법으로 정한 바로 거기에 이윤이 있다”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특하고 짧은”<sup>33)</sup> 삶의 방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sup>34)</sup>

30) 한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70% 정도는 여성이다. 그런데 면담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소개 받은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등 생계형 단순 재생산인 경우가 많았다. 경제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북한 여성들이 탈북하는 수가 적은 것인지, 실제로 조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 여성들의 수가 적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둔다.

31)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임진강』 5호(2009), p.51, 55.

32)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은 기업이 처한 국가의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정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에 고객제일주의, 산업보국, 인재양성, 공정경쟁, 근로후생복지,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겸비한 기업가를 진정한 기업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02543](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02543)

33) 북한에서 “특하고 짧은” 것은 개인의 욕구와 본능이 가는 대로 사는 인생을 말한다. 반면 “가늘고 긴” 것은 당과 국가가 하라는 대로 사는 인생, 국가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인생을 의미하는데 이 삶은 늘 어렵고 가난하다는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림근오, “<선군의 통치 방식을 짚어보다> 2000년 해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임진강』, 7호(2010), p.20.

34) 손혜민(2009) p.48, 49, 50, 51, 54; D씨는 전형적인 상인으로서 (되거리)장사를 크게 했으면 했지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위협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반면 조직적 면모를 갖추고 식당을 운영한 E씨는 ‘특하고 짧은’ 삶을 즐기는 교화출소자이다.

마지막으로, 면담 대상자들의 탈북이유는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위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곤란한 처지에 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이유가 생활고인 것과 대조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sup>35)</sup>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든지 비사회주의검열과 같은 단속이나 정치적 처벌의 위기를 피해 북한을 떠난 경향이 있다.

## 제4장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실태

이 장에서는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면담을 통해 사적 자본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여덟 가지 사례를 골랐다. 수산업, 광업, 상업, 수공업 부문<sup>36)</sup>의 여덟 가지 사례를 2장에서 도출한 기업적 현상의 유형을 따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의 사례

번호	산업(사업)	면담자	유형
1	수산업(조개양식)	F씨	대부투자 (파트너십 계약형)
2	수산업(조개양식)	S씨	대부투자 (파트너십 계약형)
3	수산업(개인선박)	B씨	명의대여 (공공자산 임차형)
4	광업(개인광산)	A씨	명의대여 (공공자산 임차형)
5	상업(개인식당) <sup>37)</sup>	E씨	명의대여 (공공자산 임차형)
6	상업(차판장사)	D씨	개인기업 (사영기업)
7	광업(사굴)	M씨	개인기업 (사영기업)
8	수공업(담배생산)	P씨	개인기업 (사영기업)

35) 면담 대상자들에게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의 탈북이유라면 상인인 경우 화폐개혁 이후의 충격과 손해 때문이었고, 거간꾼인 경우 북한 당국의 단속에 못 이겨 조금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우연히 혹은 어쩔 수 없이 탈북한 경우는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이면서도 경제발전을 하는 것을 경험해보고자 호기심 섞인 도전을 했다가 돌아가지 못한 것이었다.

36) 광업과 수산업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적 부문의 자본과 노동이 결합된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이용 측면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절묘한 조합 혹은 단절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수도 있다. 상업은 생산보다는 유통·서비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 경제 내에서 사적 자본이 가장 발달한 부문이다. 수공업은 자본과 노동 측면에서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생산 활동을 대표하는 제조업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1절에서는 대부투자, 2절에서는 명의대여, 3절에서는 개인기업의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4절에서는 사적 경제활동에 연계되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해 보론 형식으로 검토한다. 경제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적 현상은 결국 자본과 노동의 거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제1절 대부투자

사적 자본을 국가기관에 빌려주는 대부투자는 일종의 파트너십 계약형이라고 볼 수 있다. 파트너십 계약형은 국가와 개인이 사업의 보상과 위험을 공유하면서 경영자 또는 기업가인 개인이 자기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구조상 개인이 국가기관에 대부투자를 할 경우 보상은 국가와 개인이 공유하면서 위험은 개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빌려준 돈으로 공장이나 기업소를 운영해서 이윤이 나면 개인은 원금과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면 공장이나 기업소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인은 기업 측이 빌려간 돈을 상환하게 만들 강제력이 없다. 혹은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측이 다른 핑계를 대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sup>37)</sup> 대부투자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고스란히 져야한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개인이 돈을 상환하게 만들 강제력 혹은 영향력을 가진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업소 지배인이나 외화별이기관, 검열기관 관계자 등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인맥을 통해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금은 물론 수익을 보장받는다. 검열기관 관계자가 외화별이 수산기지에 투자한 사례를 보자(사례 1). 이 경우 자연재해가 아닌 이상 대부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거의 확실

37)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은 사회주의상업부문을 상품공급, 구매, 사회급양, 편의봉사, 상품보관 관리로 구분한다. 음식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사회급양이 사회주의상업에 포함되므로 식당을 상업으로 분류하였다.

38) 대부투자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가능하다. 시멘트 공장의 주요원료인 석탄을 보장해주는 개인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여름에 석탄을 공장에 공급해주고 겨울에는 그 값에 해당하는 시멘트를 받는다. 여름에는 석탄이 싸고 겨울에는 시멘트가 싸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하여 평균시세(시멘트 3톤: 석탄1톤)보다 높은 4:1로 큰 이윤을 낸다. 어느 기업가는 석탄 100톤을 시멘트 공장에 주는 대신 겨울에 시멘트 400톤을 받기로 했으나 정작 때가 오자 판매지도원은 “생산품이 없다”고 잘라 먹었다. 공장보안서에서 신고했지만 “개인은 공장 자재로 장사를 못하게 되어있다”며 증거서류를 내놓으라고 했다. 판매지도원이 보안서에 미리 손을 써 놓은 것인데 개인기업과 국영공장 사이에는 서류상 거래가 없어 이 개인기업가는 돈을 다 떼이고 말았다. 손혜민, <해설> 몽당장사의 등에 업힌 세멘트련합기업, 『임진강』 15호(2012년 봄).



히 보장받을 수 있다.

보안부 경제감찰과에 있는 F씨(해주)는 중국 배들이 해수에 와서 바지락을 사가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 수산기지 단속을 나간다. 수산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 정도여서 마음만 먹으면 단속 대상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 예컨대 외화벌이 수산기지가 보유하고 있는 바다 양식장에는 인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가두인민반 구성원들을 고용한다. 이러한 고용 자체가 불법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화 상선에 제 때 물건을 싣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원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보안원들이 검열단속을 나가 주민들에게 소위 ‘목조르기’를 하면서 뇌물을 받아내는 것이다. 엘리트에 대한 국가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들 역시 시장이나 돈주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원칙대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좋은 평가를 받거나 포상 받는 일이 없다. 차라리 단속 대상자에게 소득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낫다. 그래서 F씨는 5년 정도 경제감찰과에 있으면서 조개양식을 하는 사람들과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투자기회를 확보했다.

F씨는 바지락 상선이 끝나는 4월부터 씨조개를 키우기로 했다. 씨조개는 톤당 150달러 정도인데 F씨는 10톤 분량인 1,500달러를 투자했다. 초기자금은 경제감찰 신분을 이용해 은행 지배인에게서 가져왔다.<sup>39)</sup> 씨조개 1톤이 1년 동안 자라면 3~4 센티미터 크기의 바지락으로 8톤이 된다. 8톤 중에서 수공비를 빼고 운반비, 휘발유 값을 다 제하고도 5톤은 남는다. 10톤을 묻을 경우<sup>40)</sup> 50톤이 남는다는 뜻이다. 톤당 850달러씩 판다고 하면 50톤에 해당하는 수입이 42,500달러이다. 적게 잡아 500달러씩 계산해도 25,000달러가 남는다. 평균 수입이 3만 달러 이상이라고 할 때 1만 달러는 생산자에게 주고 F씨는 나머지 2만 달러 이상을 갖는다. 매달 2천 달러 정도씩 월별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주민들은 바지락 생산자에게 사기를 당하기 쉽지만 F씨는 경제감찰과에 있어서 안전하다. 바지락 생산자도 F씨의 눈 밖에 났다가는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대부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개인재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납부금은 없다. 단지 F씨가 개인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기 위해 고여야 하는 뇌물이 있을 뿐이다. 직장에서 연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해주고,

39) (2000년 당시) 처음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지배인에게 ‘외화벌이로 돈을 벌려고 하니 1,500달러만 달라’고 요구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서 은행 지배인에게 1,000달러 정도를 쥐어주었다. 지배인은 또 빌려 가라고 했지만 F씨는 더 빌리지 않았다.

40) ‘묻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투자를 뜻하는 표현이다.

명절 때 간부 집에 먹을 것을 준비해주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명절 공급이라든가 간부들에게 차량에 기름을 제공해주는 식으로 뇌물로 나가는 비용이 수입의 10% 정도, 약 2천 달러다.

개인이 조개양식 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자연재해를 만나는 것이다. 바다 밑에 몇 정보씩 땅을 사서 씨조개를 뿌려두었다가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몇 만 달러씩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빚 상환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살인도 일어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은 빌린 돈의 액수가 클 경우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한다(보안원 출신(해주) A씨).

대부투자 형식의 또 다른 위험은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투자자 본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진행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해주에서 국가기관 산하의 원천동원과(외화별이 회사 지사격)에서 일했던 S씨의 경우(사례2)를 보자. 외화별이가 활성화되자 외화별이 기지에서 돈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요청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1톤당 350~500달러를 주고 대합조개를 사서 정기 상선(가을~봄)이 시작되는 10월까지 키우면 톤당 800달러에 팔 수 있으므로 최소한 톤당 3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대합조개는 씨조개 1톤이 자라면 2~3톤이 되므로 꽤 큰 액수다. 여기에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다.<sup>41)</sup>

S씨도 서식장에 씨조개를 뿌리는 데 8,000달러를 투자했다. 개인명의로 서식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의 명의를 빌려 서식장을 샀다. S씨는 외화별이 수산기지의 기지장과 거래를 했다. 기지장은 돈 한 푼 대지 않고 땅과 설비만 낸다. 상선 철이 아닐 때는 대합조개 값이 떨어져 톤당 500달러에 살 수 있다, 상선 철이 되면 1,500달러에 팔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폐사율도 미리 계산하고 시작했다. 대부투자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F씨는 모기에 물려가면서 직접 바닷가에 나가 3개월을 지켜봤다.

S씨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고 외화별이 기지에 일하는 사람들은 현지 사람들이다. 이들은 24시간 주야로 서식장 경비를 서고 조개도 직접 사온다. 투자 파트너인 기지장은 S씨에게 믿을 만한 사람 둘을 직접 골라 오라고 했다. S씨는 1년 치

41) 투자자들은 주로 군부, 보위부 간부, 아니면 재일교포들인데 대충 짐작으로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기관들이 홍보식으로 개인에게 땅을 사라고 할 때는 조개가 잘 자라지 않는 토질이 나쁜 땅을 준다. 아무리 씨조개를 갖다 부어도 폐사율이 높다. 서식이 잘 되는 땅은 팔지 않는다.

쌀과 석탄 2톤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고향에서 인부 두 사람을 채용해서 데리고 왔다. 이 두 사람은 상선이 올 때까지 3개월 동안 현지 사람들과 섞여 일하면서 조개를 빼돌리지 않고 잘 키우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식장에 가자마자 3일 만에 변절했다. S씨는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조개를 사서 땅에 묻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런데 그 날 밤 직원들은 조개를 다시 캐냈다.<sup>42)</sup> 캐낸 조개를 어딘가에 숨겨 놓았다가 다음날 S씨에게 다시 팔았다. 기지장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다. S씨는 계속 자신이 산 조개를 자기 돈으로 사고팔기를 되풀이 했다.

S씨와 기지장은 조개가 무럭무럭 자란 줄 알고 상선 철이 다가와 조개를 캐다. 8,000달러를 투자했는데 건진 것은 1,500달러였다. 몇 번을 캐도 더는 나오지 않았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쪼던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 S씨는 기지장에게 공동으로 변상할 것을 제시했다. 수익이 나오면 절반씩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나오면 절반씩 물어야 하는 것이다. 기지장도 동의했지만 말뿐이었다.

S씨는 2~3개월 후 보안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바람에 사건의 전말을 알았다. 경비를 섰던 직원 중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심문 과정에서 조개를 캐 것까지 실토한 것이다. 변상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겁을 주면 변상하기도 하지만 그 돈은 S씨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변상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설사 변상한다 하더라도 보안서에서 가로챈다. S씨와 같은 피해자는 해결됐다는 조서만 받아갈 뿐이다.

S씨의 사례는 북한식 파트너십 계약형인 대부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상과 위험을 공유하기로 계약을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가 연루되어도 개인은 재산을 행사하기 어렵다. 국가재산을 이용해 개인이 대부투자를 하는 것부터가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감찰과에 있는 F씨는 S씨와 같은 일을 당할 리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직위를 이용해 변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F씨에 따르면 경제감찰은 “국가의 재산을 떼먹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감시강화”를 말한다. 하지만

42) S씨는 그곳 내부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조개 거간꾼들이 많다는 것을 몰랐다. 직원들은 각자 경비를 서는 시간에 몇 kg씩만 빼내자고 약속하고 저마다 눈을 감아준 것이다. 밤에 어두운 데서 바다 모기에 물리면서 조개를 캐면 고생스럽기는 하다. 손 더듬을 하면 얼마 캐지도 못하지만 1~3개월간 지속하면 큰돈이 된다.

그 권한은 ‘자신의 재산을 떼먹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감시강화’에도 사용될 수 있다.

F씨와 S씨의 사례를 재산권 유형으로 비교하면 F씨의 경우는 전형적인 대부투자이고 S씨의 경우는 명의대여 유형으로 넘어가는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F씨는 자금만 투자할 뿐 사업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익금만 받았다.<sup>43)</sup> 반면 S씨는 외화벌이 기지의 명의를 임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업에 일부 참여하면서 대리인을 세워두기도 했다. 다음에 살펴볼 명의대여 유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리인 없이 투자자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다.

## 제2절 명의대여

명의대여 유형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서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대부투자와 비교할 때 개인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신 국가기관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개인명의의 사업운영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서 그나마 사적 자본이 안정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기회이다. 북한 당국에게는 사적 자본을 국가경제로 흡수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명의대여의 경우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입되는 사적 자본의 크기가 클수록 국가납부금의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절에서는 기관명의를 필요로 하는 수산업, 광업, 상업 분야의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생산수단인 고깃배를 개인 명의로 해둘 수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가 필수적이다. 이 때 국영기업인 수산사업소가 개인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sup>44)</sup>와 생산수단까지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개인이 기관의 명의만 빌리고 선박, 어장, 어업 도구 등 생산수단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후자는 수산사업소가 일체의 생산수단까지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국영과수농장 소속 부업선의 선주이자 선장이었던 B씨(사례3)를 보자. 200마력 짜리 배의 선장이었던 B씨는 다른 선주와는 차이가 있다. 먼저, 선주가 가진 배는 주로 포르래기이다.<sup>45)</sup> 또 선주는 바다에 직접 나가지 않고 선원들이 잡아오는 고기

43) F씨는 경제감찰이라는 신분상 걸로 드러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제약도 있다.

44) 고깃배라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명의를 빌리는 사람은 선주 또는 선장이다. 선주는 수산사업소 등의 명의를 빌려 고깃배를 등록해놓고 본인은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선장은 직접 배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인데 배의 주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5) 포르래기배는 샷밭이에게 돈을 주면 보름 정도 안에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만 팔아넘긴다는 점에서 다르다. 포르래기에는 보통 부선주가 키를 잡고 바다에 나간다. 비사회주의 검열 시 북한 당국은 배를 가지고 노동은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선주를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B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권 유형상 B씨의 경우는 공공자산 임차형을 취하고 있지만 운영구조는 파트너십 계약형에 가깝다. 개인재산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사적 자본의 확대 재생산보다는 개인생활 유지와 국영농장의 부업경리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의 개인선박은 국가계획분이나 이득금을 바칠 것이 없는 부업선이기 때문에 농장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따로 없다. 대신 명절 때나 4.15(김일성 생일), 공화국 창건일을 계기로 3천 명 정도 되는 종업원에게 한 사람당 낙지 서너 마리씩을 공급해주는 과제가 있었다. 그 밖에 초급당 비서에게 북한돈으로 15만원, 지배인에게 10만원, 담당 직원에게 담배(약 5만원)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보안원 등 검열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다. B씨가 소유한 배가 2~3일 씩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경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거쳐야 하며 발하출입증을 가지고 배를 검사 받고 선원 명단 및 공민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날 새벽에 들어올 포르래기배들을 포함해 200~300척을 세워놓고 검사하기 때문에 선장은 꼼꼼히 검열 받지 않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이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 조업을 마치고 들어올 때는 경비대에 낙지 30kg 정도를 제공한다. 명절기간에는 해상경비대가 뇌물을 노리고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B씨는 OO농장에서 6년간 일하다가 3년간 샷밭이로 배를 탄 후 500만원을 마련해 중고배를 샀다. 청진시 OO수산사업소 소속으로 관리하던 중고배가 있었는데 기름만 많이 먹고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본인이 소속된 농장에 넘기는 것으로 문건 처리를 하고 사왔다. 배를 사는 돈은 장인이 물려준 밭(소토지)을 팔아 300만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200만원은 친구에게 이자 없이 빌렸다.

어업 종사자들은 7월에서 10월 사이 낙지밭이 기간에만 일해도 1년은 먹고 살 수 있다. 7월부터 부지런히 배를 타면 샷밭이만 해도 50만원, 쉽지는 않지만 아주 많으면 150만원도 벌 수 있다. B씨의 경우 낙지를 하루 몇 톤 내지 몇 십 톤까지 잡는다. 조업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이 아니라 수산물 20~25kg(18만원-20만원) 정도를 직접 나누어 준다.<sup>46)</sup>

B씨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을 직접 모집했다.<sup>47)</sup> 8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배에

46) B씨는 수산물을 팔 때 기본적으로 1.5배 정도 마진을 붙였다. 먼 바다에 나가면 3일 정도 체류하는 동안 수산물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에 산 중고 포르래기배에 태워서 중간 중간에 육지로 들여보냈다.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 12명까지 받았다. 배를 타고 나가는 삿발이 외에 육지에서 일을 봐주는 식모 두 사람도 채용했다. B씨는 잡아온 낙지 물동량 중에서 술값과 기름값을 제하고 식모에게 모두 넘겨주었다. 식모들은 초급당비서 등에게 고일 뇌물, 선장의 아내에게 줄 생활비, 선원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부식물 등을 사기도 한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식모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이들은 B씨가 동네에서 잘 아는 이웃이면서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들이다.

식모들은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 어간에 육지에서 낙지를 넘겨받는 되거리<sup>48)</sup> 장사꾼 관리까지 맡는다. B씨가 운영하는 배처럼 큰 배가 들어오면 되거리 장사를 하는 여성들이 수십 명씩 줄을 선다고 한다. 이 때 누구를 줄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B씨는 이악한 아주머니(식모)에게 맡겼다고 한다. 잡은 고기가 남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sup>49)</sup>

B씨가 운영한 것과 같은 200마력짜리 배는 부두마다 대여섯 척이 있는데 선장간에 경쟁이 대단하다고 한다. 뱃사람들을 이끌 정도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로 원래 삿발이로 배를 타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 배를 하나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선장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한 두 해 해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북한은 남한처럼 법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여서 길에서 무슨 잘못을 한다고 해도 잡아가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없다. 거친 사람들에 많이 노출되다보니 돈만 있다고 선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술을 먹다가 매를 맞고 선장이 빠져죽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배를 소유했더라도 그 배를 운영할

47) 바다 연안에 배를 정박시켜놓고 마을 어느 집에든지 들어갈 수 있다. 북한에서는 배 한 척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해오라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이다.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뱃사람 몇 명이 필요한데 배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묻는다. 그 다음부터는 수다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바다 연선에 나가면 어릴 때부터 배를 탄 사람들이 많다. 배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이틀 일을 시켜보고 고를 수 있다. 술을 먹고 주정하는 행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술을 먹어도 제정신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 뽑는다.

48) 되거리는 물건을 사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넘겨 파는 일을 말하는데, 북한의 행정처벌법(제166조)과 민법(제155조)에서는 구매한 상품(물건)을 비싸게 파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손행선,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1), p.48.

49) 수산물을 넘겨받는 사람 중에는 그 지역에서 파는 사람,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가공해서 팔리는 사람도 있다. 가공을 맡길 경우에도 3:7, 5:5 등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다르다. 배에 타는 사람보다 수산물 가공을 하는 여성들의 형편이 나은 측면도 있다. 배를 타면 고기를 못 잡는 날도 있는 반면 가공은 비율을 정한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씨와 거래하는 아주머니들은 2년 정도면 집안경제를 다 일으켜 냉동기까지는 못 해도 웬만큼 다 갖추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50)

고깃배는 처분도 가능한데 중고이면 중고대로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OO농장에 등록된 배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빼오지는 못하지만 대신 다른 사람이 선장을 하도록 넘기겠다고 할 수는 있다. 이 때 농장의 초급당비서에게 승인 받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선장을 할 만한 사람인지 인물됨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광업 부문이다. 평안남도 일대 채굴, 지질, 석탄분야 전문가로 석탄공업관리국에서 2년간 근무한 바 있는 O씨는 국가가 손대지 못하는 작은 광굴에 각종 군대 명칭을 단 회사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한다.<sup>51)</sup> 순천, 개천, 덕천 등지의 큰 광산은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지만 미처 손대지 못하는 작은 광산에는 개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외화벌이 명목으로 들어가는 기지장은 결국 개인이다.<sup>52)</sup>

탄광부분은 외형적으로는 국가소유이지만 속성으로 볼 때는 개인들이 60~70%를 파고 들어갔다. 개인투자가 국가적 외부 형태를 띠고 탄광, 광산 등에 진행되고 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채굴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석탄이기 때문에 탄광 부문이 많다(광업부문 국가기관 관리직, O씨).

보안서에서 7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매부와 동업하여 당기관 산하 외화벌이 기지(해주)로 파견을 나갔다(사례4). 개인광산은 돈 있는 개인이 광산 책임자를 찾아가 이윤을 바치겠으니 갱 몇 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개인은

50) B씨는 선원들 집에 직접 가보고 가정형편을 수첩에 적어 두었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밀어 줄지 생각했다고 한다. B씨는 선장으로서 뱃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술값, 기름값 등을 빼 놓고 나머지 이윤을 한 집에 통째로 밀어주는 능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51) 2006년 말 북한 내각은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규정은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 기관, 단체가 국가의 허가를 받고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당시 기관, 기업소의 독립채산제와 경영권 강화 등 시장경제요소를 담은 7·1조치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문제는 대규모 기업소가 아닌 소규모의 기관, 단체가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인력 마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동으로 탄광을 개발, 운영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실제상황은 여러 기관의 공동개발방식은 물론 사적 자본에 의해 자금과 인력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北, 모든 기관·단체에 중소탄광 개발·운영권 부여>(종합),” 『연합뉴스』 2006년 12월 11일.

52) O씨에 따르면 2006~2008년 사이 권력기관들이 돈주에게 금 광산 개발을 독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 39호실, 보위부, 안전부 기관들이 금 광산을 개발하라며 돈주(기지장)들에게 호소했다는 것이다. 특수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 합영기업소(회사) 지배인(사장) 신분증’을 주고 자율적으로 금을 캐 수 있게 했는데 O씨에게도 기회가 왔다. 당시 O씨가 가진 5천 달러로는 사업을 하기에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돈을 받아서 4만 달러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광산 하나를 통째로 살 만한 여력이 없으므로 광산의 갱 일부를 인수받아 수익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금을 발견하면 광산책임자에게 돈(5천~1만 달러)을 주고 갱을 산 후 국가에 개발제외서 등을 바친다. 외국(중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면 합영회사형태가 되는데 당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환영한다.

자본이 있다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역회사와 같은 국영기업의 명의를 빌려야 한다. 아무리 국가가 돈이 없고 국영기업이 힘이 없어도 개인이 혼자 부를 축적하게 하지는 않고 국가와 수익을 나누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광산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장되었고 사기업의 운영자금규모가 국영자금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대규모 광산은 운영이 어려워도 국영으로 남아있지만 작은 규모는 대부분 개인기업이 침투해 있다. 예컨대 황해도 OO 광산에는 사기업이 백 수십 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사기업 종사자끼리 모이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통로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A씨는 매부와 동업하여 당기관 산하 외화별이사업소 책임자로서 부기지장을 맡아 광석 생산을 총괄하였다. CEO,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은 A씨의 사촌 매부로서 판로 운영을 돌보았다. 투자금으로는 매부가 2만 달러, 본인이 1만 5천 달러를 대고 3만 5천 달러를 모았다. 매부는 외화별이로 돈을 모은 사람으로서 해외판로를 책임졌다. A씨 본인은 보안원 출신으로 해외경험은 없었고 생산을 책임졌다.

초기에는 몰리브덴을 캐어 정광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가격 인하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1년 만에 접고 금으로 품목을 바꾸었다. 판로는 몰리브덴의 경우 국내수요가 없고 주로 중국으로 가서 밀매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가격반응이 느려서 중국에 나갔을 때 톤당 가격이 국내에서 예상했던 가격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황해도에서 신의주까지 운송비도 만만치 않았다. 반면 금은 값싼 자리에서 금 거간꾼에게 판매할 수 있고 생산량도 많고 단가가 높아서 유리했다.<sup>53)</sup> 주변 광산에서 금을 캐기도 하고 금광석을 사서 추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용인원은 18~25명으로 리 단위 (협동)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농)적위대 인원을 당비서에게 부탁하여 동원하였다. 농장은 1년마다 ‘충성의 금’을 바쳐야 하므로 그 금을 대주겠으니 노동력을 보내달라고 당비서와 협의했다. A씨는 고용된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돌려보내고 사람을

53) 금 시세는 대략 1g당 5만 5천원 정도였다고 한다. 하루 8시간 2교대를 돌려 15톤을 생산했는데 금은 톤당 8g~10g정도 나왔다.



바뀌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었다. 고용된 인원에게는 식량, 신발 등을 비롯하여 월 3천원 급여까지 제공했다. 일을 잘 할 경우에는 보너스도 있었다. 배급제가 하던 역할을 사기업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금을 캐는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 채용 수요도 많다. 한 달 급여는 주로 10만~20만원인데 비공식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 기술자는 수소문을 통해 대학이나 전문대 교원 출신으로 사직한 사람을 찾는다. 여성의 경우 사직이 곧 잘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이 나서 몸이 아파다는 식으로 핑계를 댄다고 한다. 직업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회계처리는 생산 얼마, 지출 얼마 등 산수 수준이므로 부기지장인 A씨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한다. 기관에 바치는 이득금은 금으로 낼 때도 있지만 주로 달러로 납부한다. 총수익에서 60%는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40% 중에서 10%~15%로 식량, 월급, 뇌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고용과 내부용으로 회계장부 두 개를 쓰면서 허위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이윤은 더 많다.

생산수단인 장비는 기존 광산에서 대여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그만둘 때 다른 사업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운송수단은 10톤 화물차 트럭을 외화별이기관에서 제공받았다. 대신 연료와 운전수 월급은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당 산하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나마 송장 같은 것을 발부받았고, 따라서 초소를 거치기는 해도 통제는 받지 않았다.

생산과 관리에는 국가나 당이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검열은 분기, 반년에 1번 정도 명절에 맞춰 나오는데 뇌물을 노리는 것이었다. 생산량이나 수익을 허위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윗선의 국장급에게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라도 뇌물을 주는 것이 수익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나누는 것보다 수익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이다.

당 조직도 있고 생활총화와 같은 행정통제, 조직통제는 있지만 세포비서가 부기지장 본인이었고 기장인 매부가 당 조직 책임자였으므로 갈등거리가 없었다. 개인 광산은 대부분 직접 투자한 사람 자체가 당원이기 때문에 권력관계로 인한 갈등이 적은 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상업 부문의 대표적인 명의대여 형태인 식당(사례5)의 경우를 보자. E씨는 신발공장 자재공급담당으로 20년간 일하다가 되거리, 골동품 판매<sup>54)</sup>를 거쳐 사회급양관리소 소속으로 개인식당을 운영했다. 신발공장 재직 당시 검찰소

54) 개성에서 무덤 몇 천개를 파다고 하는 E씨는 몇 만 불에서 최고 18만 달러까지 받고 유물(골동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검열을 받았는데 근거 없이 자신에게 혐의를 씌우는 데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용소에 8년간 있었다.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식당을 꾸릴 생각을 하고 2005년에 급양관리소로 적을 옮겨 5년간 운영했다. 사회급양관리소에서 준 간판을 달고서 인근지역에서 꽤나 큰 국수집을 경영했다.<sup>55)</sup> 식당 규모는 8명이 앉는 테이블이 22개 정도이고 접대 1명, 카운터 1명, 주방 4명(아내 포함)으로 사장인 본인을 포함해 7명이 일했다.

사회급양관리소 식당을 시작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일종의 권리금이 북한돈 800만원이었다. 또 수입에 관계없이 임대료 명목으로 한 달에 150만원씩 일정액을 입금했다. 사회급양관리소에서는 원자재 하나도 주지 않고 건물 값만 받았다.

초기자금은 개성에서 도굴한 골동품을 팔아 번 1만 달러를 이용했다. 그중에서 비품<sup>56)</sup>구입에 2,500달러와 건설과 인테리어에 천 달러 등 세팅 비용에 총 5천 달러를 사용하고 남은 5천 달러로 사업을 시작했다.

식당에 필요한 식재료는 하루 전에 시장에서 구입한다. 단골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 무엇을 몇 kg씩 달라고 전표만 끊으면 식당까지 배달해 준다. 단고기(개장), 수산물(동태, 짬, 오징어볶음) 등 각가지 요리를 제공한다. 이름은 국수집이지만 한 달에 150만원만 급양관리소에 납부하면 무슨 요리를 팔든 술을 팔든 상관없다.

수익은 본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매월 100만원 정도이다. 직원들에게는 한 사람당 3천원씩 주고 식량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거의 5천원을 주는 셈이다. 마진은 닭 한 마리를 1,500원에 사서 요리를 할 경우 2,500~2,800원에 파는 정도이다.

식당인근 OO교원대학생 1,800명이 매출을 많이 높여주었다. 식당을 아무리 멋있게 해놓아도 손님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E씨가 직접 식당 위치를 선정했다. 처음에는 3,000~4,000원짜리 국수를 팔았는데 가격이 높아서 사람들이 사 먹지 못했다. 그래서 E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릇에 천 원짜리 옥수수국수를 팔기로 했다. 500원에 팔아도 되지만 조미료를 넣고 값을 높여 천 원에 팔았다. 교원대학 식사가 형편없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 큰 이득을 봤다. 하루에 700~800 그릇 씩 판매하는데 70%는 학생들이 사먹는다.

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사회급양 간부들은 식당에서 공짜로 먹는다. 북한에는 약간이라도 간부라고 하면 어디에서든 공짜로 먹지 돈을 내는 법이 없다. 이들이 검열을 나오면 잘 봐달라고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급양관리소 소장과 초급당

55) 창고까지 하면 220평정도 되는데 7자로 꺾인 모양의 단층이었다.

56) E씨는 십양에 가서 2,500 달러를 주고 테이블과 밥그릇 등을 수입했다.

비서에게는 설, 2.16, 4.15 등 명절 때 바나나 같은 남방과일, 돼지고기, 개고기, 수산물(송어, 고급어족) 5kg 정도를 집으로 보낸다.

식당은 북한에서 명의대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태로 추정되는데<sup>57)</sup> 비교적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오래 전부터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합영법이 나오면서 재일교포들이 개인 식당과 상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것이 발전해서 직접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만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티를 내지 않는다. 자기 돈을 넣어서 식당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도 급양관리소 직원 이름으로 해두고 친척을 넣어서 운영을 맡긴다. (거간꾼(회령) N씨).

재일교포 출신인 S씨에 의하면 해주에서 식당은 거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재일교포들이 식당과 상점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북한 주민들도 따라 하기 시작했다. 특히 급양관리소 산하 식당과 수매상점은 거의 개인이 투자한다. S씨는 식당과 상점에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은 거의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평양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개인이 하는 식당이 많다. 60%정도는 개인이 투자했지만 문건 상으로는 투자액이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명의를 사용하고 당 간부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비사회주의 검열에 걸리지 않는다(당기관, 평양 OO백화점 관리직(평양) R씨).

### 제3절 개인기업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문은 북한 공식경제에서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개인기업이다. 대부투자 및 명의대여와 달리 국가기관과의 연결고리가 없거나 약하다.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국가기관 혹은 공식경제와 접촉점이 발생할 뿐이다. 이 절에서는 상업, 광업, 수공업 부문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개인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 옷 장사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차판장사 D씨의 경우(사례6)를 보자. D씨는 중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북한 내부에 되거리를 하고 있다. 소속된 기관이나 납부 대상은 없지만 무역에 필요한 워크를 사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지불한다.

57) 2005년과 2009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공장, 상점, 식당, 서비스업체, 무역회사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을 물은 설문에서 식당이 54.4%(2005), 58.5%(2009)로 소규모 사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p.123-125 참고.

혜산에 사는 D씨는 중국돈 15,000~20,000위안을 가지고 1997년부터 3년 간 한국에서 넘어 온 중고 옷을 장마당에서 팔았다. 중고 옷은 부르는 게 값이지만 돈 있는 사람은 딱 하나만 있는 그 옷을 입고 싶어서 사간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2002년부터는 원단 장사를 시작했다. 원단을 한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사람들의 취향 자체가 그런 쪽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옷이 중국에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원단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옷을 만들 수가 있었다. 옷은 유행이 지나면 팔리지 않지만 원단은 무엇을 만들든지 유행을 타지 않았다.

D씨는 중국에서 오는 샘플을 받아 보고 팔릴 것 같다 싶으면 (번호) 몇 번 원단을 몇 미터씩 보내달라고 주문을 했다. 중국에서 날짜를 지켜 물건을 보내면 D씨는 무역국에 수수료를 주고 물건을 가져온다. 워크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원단을 받아서 청진, 함흥, 평양, 평성 등지로 보냈다. 제일 많이 보낸 지역은 강선과 평성이다.

대금지불방식은 돈이 실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체하는 식이다. 개인들 자체가 금고가 되어 “혜산 어느 집에 가서 돈을 받으라”하면 그 집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식으로 돈의 유통이 활발했다고 한다.

매출액이 아닌 이윤 기준으로 한 달에 많이 벌면 북한돈으로 200~300만원, 10~11월에는 500만원도 번다.<sup>58)</sup> 매출액은 누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계를 하면 금액이 크다. 이번 절기에는 늦었지만 다음에 히트할 상품이다 싶으면 어느 정도 보관한다. D씨는 상품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한 달에 얼마간 임대료를 주고 현지 시장에서 보관하게 했다.<sup>59)</sup>

(상)대방이 주문한 상품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적절한가를 보고 수요를 타진하는데 원단을 천 미터를 요구한다고 하면 700미터만 주문한다. 마진을 먹는 사람들은 항상 과장해서 말하지만 들어가는 돈은 D씨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주문하는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했다가는 물건이 사장되는 날 D씨가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게 주문한다.

돈이 따를 때는 어느 상품을 하면 잘 되겠다는 방향이 보였다고 한다. 직접 옷을

58) (마진은) 남이 안 끄는 물건을 끝었다 하면 미터당 40%도 붙일 수 있다. D씨는 자신과 같이 혜산에서 무역을 크게 하는 사람은 인구 대비 10% 미만인데 서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안다고 한다.

59) 가끔 다른 도시에 가보기도 하는데 놀러가는 것도 있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가는 것도 있다. (상)대방이라고 소개받으면 기분이 우쭐해지기도 하는데 ‘우리 대방 OO엄마다’ 하고 소개를 받으면 옷가공하는 사람들까지 D씨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디자인해서 옷을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제작하게 한 다음 원단과 함께 보내면 히트 상품이 되기도 한다. 옷을 만든 사람이 보고서 이 원단을 얼마씩 독점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얼마 정도 후불을 하겠다고 할 경우 차라리 되거리를 하면 바로 돈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직접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이 어디서 났는지 물으면 어느 집에 원단이 있으니 가서 구하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저축은 외화나 금으로 집에 보관하는데 도둑 때문에 개인 감옥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돈이 있다는 걸 주변에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무섭다. 강도가 들어오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장사하기 때문에 돈이 항상 모자라다고 끝없이 강조하고 다닌다.

실제로도 여유 돈이 있을 새가 없는데 돈이 있다는 건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다. 끝없이 돈이 돌아야 한다. 북한돈이 들어오면 바로 환전해서 중국돈으로 물건을 사온다. D씨는 돈이 쏠리면 그 자체가 고여 있는 물과 같아서 썩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D씨는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이밍과 법을 끼는 것이라고 본다.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때는 이틀을 놓치는 바람에 상품 자체가 채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시점과 본인이 빨리 내보내는 시점이 관건이다. D씨는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관들을 알게 되었는데 검찰소를 통해 법관들을 끼고 국가안전보위부에 인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워크 수수료 같은 것도 없이 오직 검열만 피하면 되는 개인기업을 살펴보자. 이런 개인기업의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권력과 제도를 의지하지 않고 개인이 경제활동을 조직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명의대여식 개인광산과 규모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광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사굴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굴에서도 영세하나마 기업적 현상이 나타난다.

농장원 출신인 M씨는 자강도에 있는 사굴에서 석 달 정도 일했다(사례7).<sup>60)</sup> 사굴의 광주는 M씨의 매부로 축산사업소 노동자였다. 축산사업소는 관리공에게 맡겨

60) 이 자체금광의 위치는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산골이다. 기차역에서 내려서 자동차로 약 2백리를 더 들어가고 거기서도 통나무를 실어 나르는 열차로 3백리를 들어가야 한다. 국가의 통제라고는 읍 보안원들이 골 안에 와보고 세금을 거둬가는 정도이지 강력하게 쫓아내지 않는다.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을 듣고 보따리를 지고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두 들어오는데 들어온 물건은 다 팔고 나갈 수 있다.

놓고 본인은 갯에 와서 일을 했다. M씨의 매부는 2005년에 사굴을 시작했고 M씨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3개월간 함께 일했다.

OO골에서 일하는 사굴의 인원은 북한 각지에서 몰리는데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출신이 많다. 평북 구장군에서는 노동자들이 3천 명 정도 들어왔다. 그 외 나머지 인원이 5백 명 정도로 모두 3,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sup>61)</sup>

OO골 안에는 당시 광주가 7명이었는데 현지인이 3명, 외지인이 4명이었다. 광주는 제일 작은 경우 두 개, 많은 경우 대여섯 개씩 갯을 가지고 있다. ‘매카(맥을 잘본다는 뜻)’라는 별명을 가진 광주는 갯이 6개다. 광주는 총 책임자이고 그 아래 현장감독과 일공을 둔다. M씨는 현장감독이었고 양쪽 갯에 일공이 3명씩 있다. 양쪽 갯에는 조장이 한 명씩 있다. 1조장, 2조장, 현장감독, 책임자가 모여서 금의 무게를 잰다. 일공들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의식주를 해결 받고 당시 시가로 일당 북한돈 천 원, 월급 3만원을 받았다. 광주가 달라도 임금은 모두 같다.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만약 금이 많이 나오면 광주가 인심을 써서 고기를 사주고 작업복을 교체해주는 정도다. 현장감독은 광주로부터 금 생산량의 20~30%를 받는데 M씨는 광주가 매형이기 때문에 50%를 받았다.

광주가 너그러운 사람인 경우 1년에 1번 휴가를 준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없이 365일 일한다. 휴가는 보통 1주일정도인데 그동안 모은 돈을 가족에게 가져다주러 집에 가는 데 사용한다. 그 외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야 한다. 현장감독과 광주는 물론 쉴 수 있다. 현장감독이 하는 일은 5시에 일공들을 깨워 갯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오(12시)까지 금이 얼마나 나와야 할지 자기 갯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루에 한 번은 감독과 광주가 갯에 들어가 보기도 한다. 어느 정도 굴진해서 금이 얼마나 나오겠는지 탄돌 같은 것을 집어보면서 예상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광주들이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모여 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달에 보안원이 오면 광주 한 명당 금 2g씩 내자든지 하는 식으로 단속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세운다. 보안서에서는 갯의 수에 따라 할당량을 준다. 금 생산량을 적게 보고하더라도 1달에 1번 정도 10g씩은 내야한다. 현찰로 요구할 때도 있다. 보안원은 한 달에 서너 번 오기는 하지만 그 때마다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고기나 한 번 먹고 돌아가는 식이다. 보안서 자체가 자체금광 실태를 다 알지만 내쫓지 않는 것은 그렇게라도 돈을 거두어 보안서 식구들도

61) 이웃하고 있는 다른 도의 000군 OO골에도 약 5천 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살고 국가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아닌 허용한도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sup>62)</sup>

아무래도 사고는 많은 편이다. M씨가 일하는 3달 동안 2명이 깔려 사망했다. 광주가 금을 캐기 바빠서 동발목 없이 무작위로 일을 시키고 혹시 금맥이 터졌다하면 일공들 자체가 욕심이 나니까 확장을 한다. 동발목을 세우는 시간에 금을 캐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느릅나무가 질기지만 먼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소나무로 동발목을 만들었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사고가 나면 가족에게 알려주는데 시신은 고향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골 안에다 묻어준다. 광주는 자기 결심에 따라서 위자료도 어느 정도 지급한다.

금을 언제 팔지는 광주가 결심하기 나름이다. 돈이 좀 있다면 1년이 가도 팔지 않는다. 금 거간꾼들이 금을 사러 찾아오기도 한다. 골 안에서 파는 가격, 읍내에 나가서 파는 가격, 시내에 나가는 가격, 국경 나가는 가격이 모두 다르다. M씨의 매부는 M씨가 일하는 3달 동안 한 번도 금을 팔지 않았다. M씨는 자기 뚝으로 금을 약 25g정도 받고 읍에 나가 g당 3만 8천원에 팔고 100만원 가량을 마련했다. 읍에 나가면 금을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sup>63)</sup> 골 안에 벌써 소문이 다 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정보까지 유포되어 있다.

갱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데 양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6개월 동안 절반씩 금 생산량을 나누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양도하는 등 계약조건이 다양하다. 국가재산이지만 노력비, 공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소유라고 생각한다.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다른 사업으로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 M씨가 지내는 동안 갱을 새로 파는 것은 봤지만 광주를 그만 두는 사람은 없었다.

일공들도 바뀌지 않는다. 힘들어도 다른 살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공 중에는 여자도 있다. 식모와 통계원도 있다. 식모는 밥과 빨래를 해준다. 18~19살 난 아가씨들인 통계원은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고 금을 팔아오기도 한다. 광주마다 식모나 통계원을 한 명씩 둔다. M씨의 탄광에는 식모에 가까운 한 명이 있었는데 아침에 밥을 해놓고 같이 갱에 들어가서 일도 했다.

62) 보안원뿐 아니라 보위부, 행정위원회, 당기관(군당위원회)에서도 오지만 ‘오죽하면 자기 고향 다 버리고 개, 돼지 울음소리가 나는 산에서 일하겠는가’ 하고 눈감아준다고 한다. 대신 국가적 행사에는 다 참가하게 해서 선거도 한다. 원래는 자기 지역으로 가야하지만 몇 천 명씩 되는 사람들을 이동시키려면 교통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제자투표를 한다. 고향에 가서는 그곳에서 선거를 했다는 확인증만 보여주면 된다.

63) 금 장사, 돈 장사를 하는 사람은 대개 다 잘 사는 편이다. 오장육기(이불장, 옷장, 책장, 신발장, 찬장, 텔레비전, 녹음기,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사진기)에 피아노까지 있다. 직업은 무직, 부양인 주부들인데 남편이 간부다.

M씨는 갯에서 실패하는 일은 있어도 광주가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다른 갯을 또 파기 때문이다. 갯 2개를 파다가 한 쪽에서 금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라도 금이 나오기 마련이다. 양쪽에서 금이 나오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광주는 갯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 3개씩 판다.

금광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다. 광주는 지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대인관계, 특히 보안원과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만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연계된 개인기업으로 담배를 생산한 P씨의 경우(사례 8)를 보자. P씨는 가까운 이웃이 담배생산을 하는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 먼저 그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기술을 배우고 담배씨 제조하는 것을 보았다. 그 집은 비교적 담배생산을 크게 한 집이어서 12명을 채용했다.

P씨 본인은 6명을 채용했다. 담배는 일단 마는 사람, 필터를 다는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까지 최소 3명은 있어야 한다. 혼자서 담배를 맡 수도 있지만 힘이 들고 4~5일에 10보루 정도밖에 만들지 못한다. P씨의 경우 하루에 60보루 넘게 생산했다.

유치원 교사 출신인 P씨는 방학기간이나 학부형을 통해서 청진 등지를 다니면서 달걀, 고춧가루, 옥수수를 나르고, 올 때는 해산물을 가지고 오는 장사로 밑돈을 모았다. 2004년부터는 거의 직업을 그만 두려고 생각하면서 대대적으로 담배생산을 시작하기로 하고 유치원에 돈을 주고 직을 붙여놓고 나왔다. 당시에는 담배를 만들려면 밑돈이 3만원은 있어야 했다. 지금은 담배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50만 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 생산자는 P씨가 사는 아파트에만 두 집이 있었다. 회령시 전체로는 약 100군데 정도 될 것으로 P씨는 추정한다. 서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장사를 크게 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담배 질이 좋고 잘 만드는 집은 알려진다.

개인이 생산하는 담배이다 보니 품질 차이가 확연하다. 손끝이 예민해서 담배 굵기를 똑같이 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담배를 잘 마는 사람들은 소문이 나면 임금을 더 주고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

담배를 팔기 위해서는 판로를 구해야 한다. 판로는 시장, 그리고 농촌에 가서 팔려고 도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 판로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를 그냥 만들어 놓다 보면 1개월 동안 팔리지 않아 쉴 때도 있다. 그러다보니 담배를 마는 사람들도 판로가 보장된 능력 있는 물주를 선호한다.

P씨도 담배생산을 잘 하는 편에 속했는데 돈을 더 주고 다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오기도 했다. 담배 마는 사람들끼리의 세계가 통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 더 주겠으니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돈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10% 정도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움직인다. 이전 주인이 알더라도 자기가 그 만큼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P씨는 담배 마는 젊은이 3명을 고용했다. 선(先)작업으로 담배를 마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P씨의 집으로 와서 자기 몫을 가져간다. 잘라놓은 담배 건지와 담배씨를 주고 보내면 하루 이틀 상간에 10보루를 다 말아가지고 온다.<sup>64</sup> P씨가 직접 보고 잘 말았는지 평가를 하는데 잘 말지 않으면 건지는 버리고 다 부셔서 씨를 다시 사용하고 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품의 질을 보장하려면 말끔하게 말았을 때 겹치는 2mm정도가 하나같이 뺄지 않아야 한다. 임금은 본인이 하루에 타 가겠다고 하든지 한 달 치를 달라고 하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 그 때 그때 날짜와 일한 분량을 기록한다. 한 달 임금은 20일분에 2천~3천 원 정도로 공장에 다니는 것 보다 조금 많다.

그 다음에는 필터(뽕)를 붙이는 아이가 온다. 3cm정도 되는 필터를 미리 다 잘라 사전작업을 해주면 연결지, 필터, 말아 놓은 담배를 가져가서 붙여온다.

마무리 작업을 같이 하는 1명은 P씨 집에 상주했다. 두꺼운 마분지처럼 나온 종이를 접어 갑을 만들고 은지를 넣고 비닐을 포장한다. 담배 곱 날개에 비닐을 일일이 다 씌우고 열 개를 한 데다 넣고 대지를 또 포장한다. 종이와 비닐은 라진선 봉에 가서 중국에서 나온 재료를 산다. 종이와 비닐을 사오는 담배자재 장사꾼이 따로 있다. 차를 가지고 자재를 실어 오면 P씨는 50보루, 100보루 분을 사온다.

담배는 개인이 만들지 말라는 방침이 있어서 비사회주의 검열에 걸리는 품목이다. 검열 때는 싹 걷어버리고 이제는 안 한다고 발뺌한다. 국가납부금은 없지만 담당 보안원에게 가는 뇌물이 많다. P씨는 모조품을 만들어 팔아도 뇌물로 가는 담배는 정품으로 바쳐야 한다. 한 달 수입이 5~6만원인데 뇌물로 가는 고양이(크라벤: Craven) 담배는 만7천원이다. 어떤 달에는 여덟 보루를, 석 달에 열세 보루를 가져가기도 했다.

한 달 순수익은 많이 나면 10~15만원이다. 수익이 15만원이라고 하면 매출액은 35만원 정도이다. 마진이 거의 반은 떨어지기 때문에 담배 장사는 이윤이 많은 편이다. 버는 돈에 비하면 인건비는 10%, 자재비가 30~40%, 뇌물로 고이는 것이 15% 정도다. 회계장부는 직접 쓰고 북한돈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

64) 담배생산에 필요한 도구는 책상 위에 놓고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기계다. 손재간이 좋은 목수들이 만드는데 별로 비싸지 않다. 담배 마는 사람들은 각자 이 기계를 마련해야 한다.

탈북 당시 150~170만원 정도 모을 수 있었다.

P씨는 담배를 시작할 때 담배생산방법을 배워온 집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 집에 담배를 팔기도 하고 그 집에서도 P씨의 담배를 도매장사꾼에게 소개해주는 바람에 첫 달부터 수익이 났다. 적자가 난 적은 별로 없지만 담배가 잠기는 경우는 있었다. 다 팔지 못하면 여름철에 냉장고도 없이 보관을 잘못하다가 담배씨가 썩을 수도 있다.

주로 쌍바위, 솔샘, 바위섬 등 북한 담배를 많이 만들었고. 외제 담배는 말보루, 마일드세븐 등을 만들었다. 겉포장은 정품이랑 똑같아 구분이 어렵다. 공장에서 빼돌리기 때문이다. 가격은 어느 정도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다. 고양이담배가 만7천원인데 비해 P씨가 생산하는 담배는 한 보루에 2천원, 2천 5백원, 3천원씩 나간다. 모조 담배 사이에도 가격차가 있는데 잘 만든 담배는 비싸다. 일단 담배는 겉을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맛이 독특하고 좋아야 한다. P씨의 경우에는 맛을 전문으로 보는 남자가 있었다. 계절로는 가을에 장사가 잘 되는데 곡식을 거둬들이고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른다.

경쟁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담배생산방법은 전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야... 이거 힘들단다. 온 집안 청소도 못하고... 하지 말아라, 다른 거 해라”하고 말린다. 약 30%정도는 실패할 것으로 보는데 주된 요인은 팔지 못해서, 판로가 없어서이다.

비사회주의 품목이지만 담배생산을 숨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저 집은 담배 말아서 산다’는 것을 알지만 신고하지 않는다. 물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P씨는 유치원에 적을 걸어 놓고 여맹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저 여자는 직장도 안 나가는 것 같던데 인민반 생활도 안하고 돈만 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인민반장이 와서 직장 출근을 하는지 물어보는데 이때는 출근하고 이제 막 들어와서 담배를 만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민반장에게 조금씩 돈을 쥐어준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담당 보안원이다. 비사회주의 검열이 오면 담당 보안원이 미리 알려준다. 담배를 생산하는 사람끼리 이런 정보는 무조건 공유한다. 검열이 오면 집에는 숨길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가져간다. 평소에 잘 통하는 사이이면서 장사를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너무 가난해서 의심 사지 않을만한 집에 상품과 도구를 밀어 넣고 보관료를 준다. 혹은 P씨의 경우 보위부 사람에게 시집간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집에 보관하게 했다. 반대로 그 친구는 핸드폰 같은 품목을 P씨의 집에 보관했다.

## 제4절 토론: 자본·노동시장의 형성

### 1. 자본시장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돈주가 기관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본시장이 초보적으로나마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 자본시장은 사실상 사채이며 고리대업에 가깝고 이마저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사나 사업을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장사 밀천을 마련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판장사를 한 D씨는 월 15%이자로 중국 인민폐 2만 위안 상당을 4~6개월에 걸쳐 빌려준 경험이 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북한에서도 돈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D씨 주위에는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한다. 외화벌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든지 사업에 투자해서 시간이 걸려도 마진을 같이 나누자고 제안을 한다. 외화벌이 업자가 말하는 바에 확신이 있고 물건이 눈앞에서 오가게 될 경우 동업을 하기도 한다. D씨 주위에서 절반 정도는 이런 식으로 대부투자를 한다.

자본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하지만 개인 간의 사채 거래도 있다. 금을 캐는 사굴에서 일하고 목돈을 모은 농장원 M씨는 소속 농장에서 8.3입금을 허용하지 않아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 없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담보를 잡고 계약서까지 썼다. 계약서의 내용은 “000는 0월 0일 000에게서 현금 000원을 0프로 이자로 빌려가는데 원금은 0개월에 한 번씩 갚기로 한다”는 것이다. 계약대로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가져오면 다시 빌려준다. 이자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통용되는 것은 20%선이다. M씨는 돈만 굴려도 북한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돈을 빌리기도 갚기도 쉽지 않다. F씨는 북한에서 말하는 노력영웅과 공화국영웅에 빗대어 이 상황을 설명한다. 노력영웅은 평화적 시기에 건설 등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사람이고 공화국영웅은 전쟁 시기에 목숨을 걸고 큰일을 한 사람이다. 같은 영웅이라도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다. F씨에 따르면 북한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노력영웅이고 빌려 준 돈을 다시 받는 사람은 공화국영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적 자본의 주체는 대부투자보다는 명의대여방식으로 공적 부문에 들어가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 F씨는 개인이 공

장, 기업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아 거간 상인을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행했다고 설명한다. 공장, 기업소는 원자재를 가지고 생산한 상품으로 그 돈을 대신 갚기도 했다. 이런 방식은 2000년도에 와서는 거의 없어졌고 7·1조치 이후 2003~2004년경에는 명의를 빌리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한다. 함흥에서 달리기 장사와 외화벌이에 참여한 C씨도 국영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투자해서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보다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장사나 사업에 필요한 밑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밑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장에서 영세하게 장사를 시작할 때는 신용을 담보로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다. 먼저 물건을 떼 와서 장사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외화벌이나 건설부문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간꾼이 인맥을 담보로 사업을 성사시키고 나중에 사업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북한 경제의 중추를 차지하는 유통부문에는 신용거래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 D씨에 따르면 북한은 은행 같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개인과의 신용거래가 중요하다. 차관장사를 하면서 얼굴 한 번 모르는 사람에게 원단을 통째로 보내기도 한다. 그 사람은 훗날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책임지고 일을 해준다. 한 자리에서 물건을 통째로 떼먹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오래 거래하면서 돈을 벌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수년간 원단 장사를 하면서 D씨는 한 번도 협착을 당해 본 적이 없다.

은행처럼 돈을 이체해주는 관계도 형성되었다. 계산에서 평성으로 나가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평성에서는 금이나 약초가 계산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평성 사람이 계산에서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100만 원 당 만원 정도 은행처럼 수수료를 받고 돈을 이동해주는 것이다. 하루에 고객이 한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돈 거래만 전문으로 한다. 돈 이체할 건수가 없는지 기웃거리면서 양쪽 지역에 돈을 전달한다. 일종의 돈데꼬(환전상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돈데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한다. 수수료는 1%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거래하는 장사꾼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문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각해진다. 돈을 빌려주는 자본시장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국가 공권력이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의 공간이 발생한다.

N씨는 북한에서 “돈을 빌려줄 바에는 그냥 주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밑지고 장사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도 힘들뿐더러 돈을 빌려주

는 장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거간꾼인 N씨의 경우 재산을 은폐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재산 규모가 드러나는 문제도 있었다. 또 폭력이나 살인이 나면 본인도 다칠 위험이 있다. N씨 주위에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싸움이 나서 양쪽 다 감옥에 가는 일도 많았다.

B씨 역시 채무 문제로 인해 싸움이 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자기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돈을 빌렸다가 실패하면 재산을 몰수당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나기도 하는데 보안서에서도 말리지 못한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할 때는 못 본척하거나 피한다.

개인 간에 폭력이 오가도 법적으로 취급할 여지가 없다. 법적으로 보면 한쪽에는 빌려간 돈을 왜 주지 않느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왜 법에서 금지하는데 개인에게 돈 장사를 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그러다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강경하게 요구하지는 못하고 가족이나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재봉틀처럼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져간다(기계공(회령) J씨).

## 2. 노동시장

자본시장의 발달은 노동시장의 형성을 유도한다. 축적된 자본이 확대재생산을 향해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장·기업소가 돌아가지 않아 월급과 배급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에 실제로 공급되는 노동력의 규모가 상당하다. 앞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광업, 수산업 부문 외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문은 상업과 건설업이다.

달리기 장사와 외화벌이를 한 C씨는 주변에 개인적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40%정도였는데 그 중 절반은 다른 사람을 돈 주고 고용했다고 본다. 차판장사를 하는 D씨만 해도 원단을 차에 싣고 내릴 때마다 사람들을 고용했다. 포장당 가격이 매겨져 있다. 20팩이 도착하면 포장이 된 팩 단위 당 3천원씩 계산해서 6만원을 준다. 그러면 고용된 남자들이 다 같이 일을 완수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가진다. 500원씩만 더 얹어 주면 새벽 2~3시에도 나온다. 트럭은 트럭대로 전문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짐 실을 물건을 찾아 나선다. 중국에서 물건이 도착할 때는 언제 오는지, 어느 대방의 어느 회사 창고에 들어가는지 다 알고 찾아온다. 또 시장에서 과일이나 쌀을 몇 시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배달해준다.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언제까지 가져다 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

사적 자본이 노동력을 동원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미약하나마 노동시장에도 교

섭력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수요를 보고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유사직종 별로 연결된 인맥은 노동시장의 동원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노동 기술과 능력에 따라 임금이 어떤 형태로든 차등 지급되거나 선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당을 받고 일을 하러 다니는 그룹도 있다. 기지장들은 목공작업, 지붕작업, 실내작업 그룹 책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한다. 인력을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제시하는 일당에 차이가 나면 일당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같지만 일을 잘 하는 경우 보너스를 받는다. 쌀, 기름, 설탕을 보너스로 받으면 나눠 갖기도 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술을 사기도 한다(자체금광, 건설노동자(단천) M씨).

## 제5장 북한 당국의 이중전략과 사적 자본의 생존전략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적 자본의 기업적 현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과 사적 자본의 생존전략을 검토한다. 조직화된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과 반응은 어떠한지 이에 맞서 살아남는 사적 자본의 생존 방법을 알아본다.

### 제1절 북한 당국의 이중전략: 규율강화와 실리추구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대하는 북한 당국의 대응에는 규율강화와 실리추구라는 양면이 존재한다. 규율강화 측면에서 비사회주의 검열이 존재하지만 모든 활동을 상시로 단속하지는 않는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불법 경제활동에 크고 작게 연루되어있어 다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 검열기관을 둘러싸고 부패가 성행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자가 검열망을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적 자본의 활동을 때때로 묵인하거나 방임할 뿐 아니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국가에서 원자재와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계획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것은 사적 자본을 동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상기사항은 북한 당국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정치체제가 기능하는 것을 두고 볼 때 중앙의 정책입안자가 추구하는 보다 상위의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정치체제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인 국가능력에 관계된다. 국가능력

이 “국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정부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기본적인 네 가지 국가능력은 다음과 같다.<sup>65)</sup> 중앙의 정책입안자들이 “국익”으로 인지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재정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추출능력),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도하는 능력(조정능력), 상징과 합의를 이용해 지배하는 능력(정당화능력), 무력의 사용 혹은 위협을 통해 지배하는 능력(강제능력)이다. 정치체제의 생존과 기능에 요구되는 이 네 가지 능력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지만 실제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국가능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이중전략을 설명하고 비사회주의 검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추출능력으로 보면 북한 당국은 사적 자본이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을 일부 용인하면서 비(非)에 산수입에 동원하고자 한다. 조정능력으로는 계획경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적 자본을 통한 경제활동을 현상유지·관리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화능력으로는 비사회주의 검열을 통해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단속하고 개인이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시키고 있다. 비사회주의 검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력과 위협은 그 자체가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강제능력이다.

무역회사는 개인자본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국가의 추출능력이 발휘되는 구심점이다. 국가무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무역으로 돈을 거두어둔다. 1년에 10만 달러라는 계획이 떨어지면 무역회사는 책임지고 그 돈을 마련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에 상품을 뿌려서 개인들 몸 안에 있는 달러를 거두어들여야 한다.<sup>66)</sup>

이처럼 무역회사의 수입활동은 국내 중간도매상들이 가진 자본을 재정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차익을 남기고 그들이 가진 달러까지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역회사에 연계된 사경제 부문으로 유출되는 양도 상당하겠지만 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험이나 의지가 부족한 기관·기업소의 기존 구성원이 사업을

65) Theda Skocpol,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3-37; Shaoguang Wang, “The Rise of the Regions: Fiscal Reform and the Decline of Central State Capacity in China,” Andrew G. Walder(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89;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윤대규 편, 『북한 체제 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과주: 한울, 2008), pp.112-113.

66) 내각 소속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던 탈북자 K8씨의 증언, 양문수(2010), p.155.

하는 실적보다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민간인이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수수료를 떼고 사업을 해오는 실적이 더 나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쌀을 실은 배가 오면 인민위원회 무역과가 개인에게 달러를 받고 판매한다. 여기에 대해서 권고하랴든가 처벌하라는 지시는 없다. 국가가 재정이 없어 개인에게 파는 것뿐이다. 개인의 상거래도 국가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허용된다. 개인이 차지할 만큼 차지하더라도 이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바친다면 국가로서는 금지할 이유가 없다(달리기 장사(함흥) C씨).

외화벌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수단위에 속하는 국가OO원에는 자체 검찰소 검열위원회가 있다. 이곳 산하 외화벌이 원천동원과 간부가 돈을 벌고 잘 산다는 소문이 나면 검열이 들어온다. 개인재산을 가지고 추궁을 할 경우 국가를 위해 일하고 납부금을 냈다고 설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따지지 않는다(외화벌이 일군, 국가기관 관리직(해주) S씨).

개인 돈을 활용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라는 비공개 내각 결정이 나왔다는 증언도 있다(당기관, 평양OO백화점 관리직(평양) R씨).<sup>67)</sup>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사회질서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체제를 유지하자면 경제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돌리자면 정치체제에 위협이 되는 가운데 국가의 조정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지방정부 및 기업소에도 자력갱생을 요구해왔다. 지방정부가 광산을 개발하든 기업소가 8.3입금을 도입하든 스스로 운영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때 국가계획 외에 하지 말라는 사업을 추가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표를 더해서 사업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개인상업(회령) G씨).

기업소는 계획분이 나오더라도 전기사정이나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계획분을 미달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국가에서도 투자 없이 징수하는 모순을 잘 알고 있다. 공장, 기업소나 주민이 살아갈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놓으면 아사자가 늘고 체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열기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풀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온다(인민보안부 경제감찰과(해주) F씨).

그렇다보니 공장의 특별이나 개인이 공간을 마련해서 인조고기, 국수를 생산하

67) 당 일군들끼리 내부적으로 개인투자를 공식화하면 좋겠다는 논의도 했었는데 6.28조치에서 상업,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허용된다면 그것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당기관, 평양OO백화점 관리직(평양) R씨).



는 것도 용인된다. 국가에 전기세나 이득금을 들여놓으면 무방하다. 국가의 단속대상은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불법도강이나 밀수밀매, 송이장사, 금 장사 등 국가재산에 손을 대는 일이다(개인사업(회령) G씨).

그런 관점에서 개인이 국가기관의 명의를 대여하는 사업방식도 그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명의대여는 공식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은 형태에 해당한다. 예컨대 평양에 있는 어떤 기관에 적을 두고 함흥에 와서 장사를 한다고 하자. 승인받은 것 외에 불법적으로 다른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양의 본 조직 사람들만 모르면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방에서 장사를 하다가 돈을 엄청 번다는 소문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 장사를 크게 하다보면 그 지역 검찰과 보위부를 끼고 있어서 지방 차원에서 검열을 하지 못하고 중앙에 신소를 한다. 그렇게 검열이 들어오면 명의를 대여한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명의를 대여한 신분을 벗어난 장사를 했다가 그런 검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 도둑질 같은 범법행위가 아니라 장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거간군(회령) N씨).

설사 검열을 받더라도 그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보면 재산 몰수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발적인 경고조치에 끝나기도 한다. 특히 개인생산은 상품을 회수하는 정도이지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다. 마약 등은 특수 범죄에 들어가지만 일반 생상품은 괜찮다. 개인생산의 경우 상품을 회수해가도 얼마든지 다시 생산할 수 있지만 후속조치는 거의 없다. 또 생산을 하다가 걸리면 다시 회수할 뿐이다.<sup>68)</sup>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재산이라기보다는 상품과 상품을 만드는 도구 정도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숨겨놓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보안원 출신(해주) A씨).

한편 북한 당국은 사적 자본의 기업적 현상을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한 주기적 검열로 관리하고자한다. 비사회주의의 검열은 국가의 정당화능력 및 강제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다. 평양의 핵심기관에서부터 국경지역 시장 말단에 이르기까지 검열을 통해 드러나는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보자.

평양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흔했다. 그 중에서 몰락하는 사람은 매년 나오는데 전체의 절반 정도이다. 10~15년에 걸쳐 재산이 모이면 큰 타격을 받는다. 큰 잘못이 아니어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를 물으면 피할 사람이 없다. 예컨대 노무현대통령 방문단 중 누구를 맞이했다던가, 크게

68)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상품을 자꾸 빼앗기다 보면 짜증이 나서 개인이 스스로 그만두기도 한다.

사업할 손님 누군가를 맞이했다가 빌미를 잡혀 당하기도 한다(당기관, 평양OO백화점 관리직(평양) R씨).<sup>69)</sup>

북한에서 20여 년 간 평양, 회령, 함흥 등지에서 거간꾼으로 장사를 해 온 N씨에 따르면 대규모 비사회주의 검열은 5년에 1번 정도 있다고 한다. 어떤 때는 3년 연속으로 검열을 하면서 특정 행위를 근절하기도 한다. 한 번 검열이 들어오면 보통 6개월이다. 6개월~1년 정도 검열을 하는 사이에 문제되는 사람들은 잡혀간다. 그러면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그만한 장사꾼이 등장한다. 규모 있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4-5년이 지나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축적되었을 즈음에 다시 단속을 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는 검열을 해도 크게 단속할 만한 것이 없다.

대대적인 검열이 있으면 몇 사람만 감옥에 가도 영향력이 대단하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 밑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망하기 때문이다.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 검열에 걸릴 경우 그 사람에 연관된 사람을 쫓다 보면 40~50명씩 집단으로 걸려들 때도 있다. 정당화능력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비사회주의 검열을 통한 처벌은 희생양을 통한 본보기가 된다.<sup>70)</sup>

## 제2절 사적 자본의 생존 전략

공식적으로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북한에서 사적 자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부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시장의 경쟁은 기본이고 북한의 정책에 따른 부침과 각종 사찰기관의 감시, 이웃의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sup>71)</sup>

북한에서는 정치 제도나 국가 정책에 변동이 많다. 주로 방침이 바뀌는 것인데 방침의 유효기간이 1달 정도에 불과하다. 국가가 개인에게 잠정적으로 허용했던 권한을 회수해가는 경우도 많다.

69) “표적이 되면 피해갈 수가 없다. 매주 세뇌를 당하기도 하고... 조국이고... 가족형제가 자기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다. 평소에 대책을 세워두는 것은 아니다. 해외로 간다든지 하는 도피책 같은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제 보니 그런 생각을 못한 게 후회된다...본인만 혁명화를 갈 뿐 가족은 괜찮다. 단련대 갈 등급은 아니니까 회령 같은 곳에 혁명화를 가는데 ‘니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니’ 하고 재기에 대한 희망을 준다. 나도 회령에 혁명화를 1년 갔다.” (당기관, 평양OO백화점 관리직(평양) R씨)

70) “(비사회주의의 검열하면) 제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단두대에 올라선다. 동독에 올라선다는 말은 총살을 당한다는 소리다. 외화벌이 기지장 중에 동독에 올라 죽은 사람이 많다.” (국가기관 관리직, 외화벌이(순천, 남포) O씨)

71)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217.

방침이나 권한과 관련하여 무역업은 특히 불안정한 사업에 속한다.<sup>72)</sup> 수출에 관한 허가가 잘 나지 않아 그 문이 좁고 경쟁이 쉽게 포화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과의 인맥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계산을 잘 해가도 윗선에서 방침이 바뀌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무역 워크라고 하는 것이 금방 취소당하는 경우가 많다. 내세우는 이유는 ‘장군님의 의도와 다르다’는 것이다.<sup>73)</sup>

또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고 있어도 땅을 사든 차를 사든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부딪히면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 받지 못한다(국가기관, 기업소 관리직(평양) O씨).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 세대 중에는 부정수입을 은폐하고 소득에 명분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이다. 이런 돼지는 ‘저금돼지’라고 불린다.<sup>74)</sup>

명의를 대여해서 수산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가림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외화벌이 일꾼이자 거간꾼인 N씨를 보자. N씨는 대외무역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2년 되거리를 하다가 본인에게 맞지 않아 수산업을 하기 시작했다. 중앙사로청 은별회사(사로청 외화벌이회사) 소속 지도원으로 수산기지에서 선주로 배를 3척(28마력, 45마력, 200마력) 운영했다. 선장과 샅밭이를 채용하고 이들을 기관에 소속시켜 쌀 배급을 받게 했다.

기지를 가지지 않고 북한에서 장사를 하면 검열이 자꾸 들어온다. 하지만 수산기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검열을 피해갈 수 있다. 수입의 출처로 내세울 수 있는 간판이 생기는 것이다. 수산기지에서 나오는 어획량은 1년에 많아야 30~40톤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로청 측에 노동자들을 먹이겠다고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70~80%는 납부한다. 여기서 수익은 별로 남는 것이 없지만 이 기지를 간판으로 수익을 은폐하고 보이지 않는데서 다른 비법으로 돈을 번다(외화벌이 일꾼, 거간꾼 N씨).

72) 손혜민(2009), p.57.

73) 예컨대 외화벌이 일꾼이 중국과 협의를 해서 신선도가 보장되는 조건으로 중국 측에 과일 몇 톤을 보내기로 한다. 그런데 당장 과일을 따서 실어올 사람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그러면 곧 마진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일단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지불한다. 그런데 막상 국가에서는 그 과일을 일본에서 수입해갈 것이기 때문에 결재를 못해준다고 한다. 일본에서 더 비싼 값에 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무역 신소 같은 것을 국가보위부로 넣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장군님이 바라시는 의도가 아니’라고 할 뿐이다. 판로가 막힌 상태에서 과일의 신선도가 떨어져 시기는 놓치고 빛만 지게 된다. 외화벌이가 그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다(차관장사(해산) D씨).

74) 손혜민, “<취재기사> 생계업에서 개인기업으로 발전한 돼지 축산업,” 『임진강』, 8호(2010), p.80.

뚜렷한 활동이나 외화별이 기지장 같은 직함이 없는, 보이지 않는 돈주도 많다. 평성시장 같은 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지장들만이 아니다. 무역으로 컨테이너 3개씩 물량을 날라 오는 돈주가 어느 공장 기업소 노동자일 수 있다. 기지장 같은 이름이 있으면 주변에서 단속이 많고 시끄럽기 때문이다. 단속이 나와서 컨테이너 물건의 주인을 물으면 본인 것이 아니라 회사 것이라고 말하고 돈을 찢러 주면서 통과한다. 이렇게 간판 없이 하는 일이 더 많다(국가기관 관리직, 외화별이(순천, 남포) O씨).

특히 돈주를 비롯해 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장사를 좀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2~3만 달러 정도 된다. 이 사람들은 금을 2~3kg씩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집도 꾸미지 않고 티를 내지 않는다(차판장사(혜산) D씨).<sup>75)</sup> 특히 금 장사꾼은 사회적으로 표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신발 공장 노동자 같은 수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눈치를 채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는 어렵다. 공장을 담당하는 보안원이나 보위부는 금 장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돈을 보고 친하게 지낸다. 이 세 사람은 서로 친해서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것이다(외화별이 일군, 국가기관 관리직(해주) S씨).

화교 자본이 상점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화교가 자금력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돈주가 위장을 하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 상점은 거의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누가 운영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시내를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큰 돈주는 자기 돈을 직접 넣지 않고 화교를 내세운다. 화교가 공식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 조정한다. 검열이 나오면 화교는 대외연락부까지 거쳐야 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검열이 복잡하다. 이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다. 적을 걸어 놓고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목숨을 걸 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한 끼 식사 값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면서도 살아남는 것을 첫째로 여긴다(거간꾼(회령) N씨).

그러다보니 어떻게 하면 국가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업을 하는 청부업자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다.<sup>76)</sup> 대표적인

75) “이 사람들은 그저 금만 가지고 돈을 모으는 재미에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다 쓰지는 못해도 마음은 든든하니까. 어찌 보면 북한(당국)도 둔한 게... 개인재산을 자꾸 소멸하려고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은행 같은 데 넣으면 그 돈이 자동적으로 불려지겠는데... 이거는 돈을 조금만 벌면 비사회주의라 해가지고 자본주의요소라 해가지고 자꾸 질투하고 빼앗고 이러니까 국고가 더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차판장사(혜산) D씨).”

것이 아파트 건설업이다. 부동산 청부업자는 거간꾼과 마찬가지로 자금력이 없어도 인맥과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외화벌이 일군(해주), L씨). 자재가격과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 건설 사업 허가와 부지 승인을 받으면 초기자본을 약간만 투자받아도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비사회주의 검열을 피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비사회주의 검열이 아니라면 지역을 이동해서 잠시 몸을 숨기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회령 출신이면서 무산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무산에서 검열이 들어오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물론 무산에서 거래했던 사람이 적발되면 추적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조절만 잘하면 얼마든지 무마시킬 수 있다. 사실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 사람까지 잡기로 하면 전국이 다 연관되어 있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추적하지 않는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으면, 검열기관이 조사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상대의 인맥에 따라 판단한다(거간꾼(회령) N씨).

지역 내에서는 검열이 나오면 (또르래기)배를 타고 선주들과 섬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다. 무선전화로 검열이 언제 끝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금속을 다루는 사업자들은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놀러나가기도 한다. 비사회주의를 했다는 명단을 가지고 들이닥쳐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광산 지대에서는 꼭대기로 달아나기도 한다. 곡괭이 같은 도구가 남아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다음부터 못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갈 뿐이다(자체금광, 건설노동자(단천) N씨).

기본적으로 비사회주의 검열이 예정되면 검열기관의 하부 말단에서 기업주들에게 알려준다. 검열 시기를 알려주면서 당분간 대피해있으라고 귀뜸을 해준다. 검열이 많다보니 검열 강도에 대한 폭도 알고 있다. ‘이번 검열은 맞아도 살겠구나’ 혹은 ‘이번에 걸리면 큰 일 나겠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 있다. 검열기관 말단단위에서 검열 수위를 파악해서 알려준다.

그렇다면 비사회주의 검열의 효과는 있는 것일까. 집중적인 검열은 보름부터 한 달 어간이다. 이 동안에는 하던 일을 중단하기도 하지만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sup>76)</sup> 위험한 일이라도 마찬가지다.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위험한 일을 해야

76) 김보근(2008), p.53.

77) 시장 단속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통제라는 것은 단기간이어서 기껏해야 두 달이다. 북한 당국이라고 한 해를 통자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보안원 출신 A씨). 시장을 단속해도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캄패니아(캠페인) 형식으로 얼마간 진행될 뿐이지 가족을 살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시작된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주민들만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기계공(회령) J씨).

한다(공장 노동자, 개인상업(무산) I씨). 검열에 한두 번 걸리다 보면 요령이 생기기도 한다. 요령이 생겨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비사회주의 활동을 아예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개인식당(회령) E씨).

비사회주의 검열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 자본의 성장과 몰락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예컨대 송이버섯을 팔겠다고 넣어 둔 상태에서 검찰기관 검열이 들어왔다고 하자. 자본을 들여 투자한 상품을 다 빼앗기면 망한다. 거간꾼들은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열을 받고 2~3년에 한 번씩 검찰소나 보위부 사람들을 맞이해야 한다. 비사회주의 검열이 시작되면 그 지대에서 활동하지 못한다. 그 기간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소비한다. 1년에 몇 십만 달러를 버는 경우가 있더라도 비사회주의 검열 때문에 매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거간꾼(회령) N씨).

하지만 북한에서 사적 자본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검열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검열이라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인맥을 넓히고 사업을 키워간다. 북한에서 부동산 청부업은 인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S씨의 대학동창은 공병부대에 해당하는 7총국 출신으로 건설과 설계 노하우가 있었다. 군대 제대 후 대학에 편입해서 간부 자제인 학생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를 만났다. 그런 식으로 검찰소와 당기관 인맥을 형성해서 검찰소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허가받았다. 건설사업소에서 노동력을 동원하고 외화벌이 일군에게 초기 투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건설했다. 아파트 건설을 허가 내준 권력자들과 초기투자자에게 아파트를 한두 채씩 상납하고도 여섯 세대가 남았다. 이때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간부들 보다 더 높은 간부가 시샘을 하고 검열을 보냈다. 이 사람은 이미 남은 아파트의 절반을 뇌물로 주기로 타산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알고 지낸 간부보다 더 높은 간부가 검열을 보내고 그렇게 만나서 더 높은 단계에 인맥이 생기기를 고대하고 있다. 검열에 걸리면 처벌은 단련대 강제노동 2~3개월 정도인데 돈을 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화벌이 일군, 국가기관 관리직(해주) S씨).

금 장사꾼도 마찬가지다. 간부들을 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검찰소장이 교체되었다 하면 일단 무작위로 검열부터 실시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금 장사꾼은 인맥을 넓혀간다(차판장사(혜산) D씨).

거간꾼이었던 N씨는 검열을 계속 받고 검찰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인맥을 형성하기도 했다. 서로 친해지고 알게 되면 정보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인맥을 형성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비사회주의 검열을 나와도 유리하다. 검찰소 윗선에서는

지방에 뇌물 형식으로 의뢰하는 일이 많다. 지방 검찰소에서는 의뢰받은 건을 N씨에게 넘긴다. 검찰소에서 유력한 사람이니 알고 지내면 좋다고 소개하는 것이다. N씨는 언제 신세질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제공해준다. N씨는 이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돈은 차차 벌기로 하고 모두 응했다. 아무리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소에 준비를 해두면 N씨는 검열에 걸려 조사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 달러를 주고 해결할 일을 천 달러나 백 달러만 건네고도 살아나올 수 있다(거간꾼(회령) N씨).

이러한 신흥자본가들을 비호하는 권력자들은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위해 입이 무거운 사람을 선호한다. 권력자들은 돈을 중시하지만 사람을 많이 가린다. 뇌물을 받아도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을 사람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차판장사(혜산) D씨). 그 중에는 지방이나 도 차원이 아니라 중앙에서 주목하는 사람도 있다. 돈을 잘 벌기로 소문난 사람들은 검열을 이미 다 겪었다. 수용소 같은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있다. 보위부나 보안서에서는 검열 대상자에게 물리적 압박과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데 입이 무거운 사람은 살린다. 그런 고초를 겪고 검증된 인물이 경제적인 성공을 유지한다. 간부 입장에서 이들을 살리는 이유는 뇌물을 받아도 뒷말이 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다(외화별이 일꾼, 국가기관 관리직(해주) S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에서는 사업을 일으키기보다는 장사를 크게 하는 돈주들이 많다. 사업을 하다보면 언젠가 수용소를 가든지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차판장사(혜산) D씨). 영리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도 돈 있는 티를 내지 않는다. 반면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많이 버는 것처럼 흉내를 내다가 표적이 되는 사람도 있다(개인사업(회령) G씨).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의해야 할 일은 질투나 시기, 원한을 사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인민반에서 하는 아침 식전 동원이나 모래운반, 자갈 운반 등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돈을 더 내고 인민반 구성원들이 모래를 등짐으로 내지 않도록 차량을 보내준다(개인사업(회령) G씨). 이들은 인민반 동원에 스스로 앞장서기도 하지만 인민반장 스스로 먼저 와서 부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민반장 한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거간꾼(회령) N씨).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오지로 추방을 당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불안요소인데 인민반에서 나는 소문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반에서 힘든

일이 있다든지 돈을 내는 사업이 있으면 앞장선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민반에서 항상 한 몫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고발당하지는 않는다(차판장사(혜산) D씨).

## 제6장 결 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에는 사적 자본이 축적되었고 이를 기초로 조직적인 경제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사적 부문에서 일어나는 기업적 현상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였다. 또한 사적 부문의 기업적 현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과 사적 자본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개혁 및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산권 변화와 사유화 유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대부투자, 명의대여, 개인기업으로 유형화하였다.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명의대여가 가장 많고 대부투자와 개인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과 정치적 경직성이 결합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개인이 투자한 돈의 실질적인 회수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는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수익금에 대한 약속불이행 시 보복조치가 가능한 권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적 자본을 대부투자와 같은 기업적 현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주체가 한정되어 있다.

개인기업이 적은 이유 역시 북한의 정치적 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아 사적 자본이 운용될 수 있는 입지가 좁다. 따라서 사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적 자본도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면 국영기업의 명의를 대여하는 형태가 많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적 자본을 대하는 북한 당국의 대응을 국가능력 차원에서 검토하고 비사회주의 검열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사적 경제활동에 대해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이중전략을 펼치고 있다. 사적 자본이 북한 경제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자원 추출과 사회경제적 유지에 이용한다. 또한 비사회주의 검열을 통해 체제 내 질서유지를 정당화하면서 강제하고 있다. 결국 검열의 목적은 사적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허용하면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국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정부의 능력 면에서 재정 자원의 추출능력, 사회경제적 발전의 조정능력, 상징과 합의를 도출하는 정당화능력, 무력을 위협 또는 사용하는 강제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 당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대응과 제도적 모순 속에서 사적 자본의 생존 전략이 발달해왔다. 신흥자본가 중에는 길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득을 은폐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평범하고 소박하게 위장하는 사람도 있다. 재생산 측면에서 볼 때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한 사적 자본은 사장(死藏)되는 경향도 있다. 이 틈을 타고 제도적 실체 없이 사업을 조직하는 청부업자나 거간꾼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검열을 두려워하기보다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그 외 주변의 신소로 인한 검열을 당하지 않도록 신흥자본가들은 인민반 동원이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다.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형성을 시사한다. 인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하는 고리대업은 사적 경제활동의 밑돈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북한에서 유통·금융업에 신용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거주 이동의 자유가 제한적이고 인민반 생활을 통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회에서 장사나 사업을 지속하려면 활동 범주 내에서 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에는 공식경제의 유희인력이 방출되고 있다. 개인적인 재능과 기술을 이용한 부업에 본업처럼 매진하는 사람이 많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여 임금을 두고 교섭을 타진하는 일도 있다. 사적 부문의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거리들도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사회주의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sup>78)</sup>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이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 노동력의 상품화, 생산의 무계획성에 있다고 보았다.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된다는 점도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북한에서 사적 자본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기업적 현상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징을 두루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경제체제와 달리 이러한 현상이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현상이라도 그 형식은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에서 허용하

78)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7185](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7185)

는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Kornai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사적 부문의 부활이 비록 편협한 부분에서이기는 하지만 소유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sup>79)</sup>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적 경제활동에는 사회주의체제와는 이질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이런 요소는 사회주의체제 내 다른 부분과 완전하게 융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당국은 정치체제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지더라도 사적 부문의 자유로운 발전은 용인할 수 없거나 용인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사적 부문의 운영과 확대에 강한 제약을 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적 부문의 부활에 대해 북한은 강한 제약을 가하기보다 그 운영과 확대를 조절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사적 부문을 용인할 수밖에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적 부문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사회주의체제와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제도적 모순을 만들어 낸다. 자본시장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법·제도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현실과 법규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에서 예상하는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sup>80)</sup> 노동시장에 나온 노동자는 직장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8.3)입금해야 한다. 공식 부문의 직장에 소속된 사람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사적 부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직장에 납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북한 경제 내 사적 활동을 동유럽 및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전망해보고자 한다.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변화 및 사유화 유형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변화는 동유럽 및 중국에서 일어난 경제 변화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선 동유럽과 북한에서 일어난 경제 변화는 그 모습이 유사할지 몰라도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동유럽과 달리 북한의 경우 공산당독재라는 권력 및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피하지 않는다. 따라서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의 결과는 같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본질과 성격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독재를 유지하는 지향점에 있어 동유럽보다 더 유사하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미시적 요소가 같을지 몰라도 거시적 체제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기업적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났어도 중국이 구현하는 ‘사회주의

79) Kornai(1992), pp.566-567.

80) 북한에서 고리대는 폭리행위로서 법적 규제대상이고 노동교화형 처벌을 기본으로 한다. 손행선(2011), pp.48-49.

시장경제'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모습이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중국은 민간부문의 재투자를 허용하여 경제가 발전했지만 북한은 민간부문의 재투자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치 동일한 부속품이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트랙터를 만들기도 하는 것과 같다.<sup>81)</sup>

하지만 현재 중국의 모습은 1978년 경제개방 당시 목표했던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1981~1982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해바라기씨를 부는 사업시장이 커지자 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경제학계에서 논의할 정도였다.<sup>82)</sup> 후에 고용인원이 점차 세 사람, 열 사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도 향후 정치적·정책적 결단에 따라 어떤 체제로 가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트랙터의 부속품이 분리, 개조 작업을 통해 자동차에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북한 사회변화 및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일상경제활동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한국 국민을 비롯한 외부 관찰자들은 북한 사회 내부의 정보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기술한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은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심층면접의 대상자가 북한 전역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기업적 현상의 일반화 정도를 보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 상 기업적 현상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 외에 다른 대안이 많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이번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81) 이 부분에서 통찰력을 제공해주신 박형중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82) 당시 중국 학계의 논의는 공개석상에서 연변대 이동욱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 [참고 문헌]

-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의 평가를 중심으로,” 윤영관·양운철 편.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서울: 한울, 2009, pp.53-87.
-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김보근, “북한 상인계층과 자본의 형성,”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 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논문집 (2008.12.04.).
- 김영윤, “북한경제의 창: 북한의 지하경제와 주민생활.” 『북한』. 제296호(1996).
- 김영희·김병욱,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 관계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2008).
- 김정호, “「7.1경제조치」와 북한사회의 변화: 탈계획경제화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종원, “북한 사유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2009.
-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1호(2000).
- 박기돈, “북한의 지하경제현황과 유통관리체제.” 서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연구: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규모 추정』. 서울: 한국은행, 2002.
- 박일수,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 변화에 관한 연구,” 마산: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6.
- 박형중, “‘부분’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의 구분: 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5권 2호(2002).
- 박희진,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 비교연구: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07.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와 개혁.” 서

- 울: 통일연구원, 2004.
- 손행선.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1.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2호(2005).
- \_\_\_\_\_.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9권 3호(2006).
- \_\_\_\_\_.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 성격 · 메커니즘 · 함의』. 파주: 한울, 2010a.
- \_\_\_\_\_. “북한 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b).
- \_\_\_\_\_. “이중경제구조의 오늘과 내일.” 『박재규 편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서울: 법문사, 2011.
-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2호(1996).
- \_\_\_\_\_.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 석 외. 『북한 계획 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 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윤대규 편.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파주: 한울, 2008, pp.84-120.
- 이승훈.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통권 44호 (2005).
- 이종겸. “북한의 신흥상업자본가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강택 · 김성철.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 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정은미. “농민시장을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_\_\_\_\_.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 발전 연구: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2호(2009).
- 조정아 외.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편.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파주: 한울, 2008, pp.152-203.
- 최봉대·구갑우.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북한연구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발표논문(2004).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2010)』.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 한상진. “북한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과 경제변수들과의 관계분석.” 서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Demsetz, Harold.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in id., *Ownership, Control, and the Firm: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Oxford: Blackwell, 1967.
- Haggard, S. and M.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 Joo, Hyung-Min. “Visualizing the Invisible Hands: the Shadowy Economy in North Korea.” *Economy and Society* 39(1), Feb, 2010.
- Kim, Byung-Yeon and Dongho Song.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2(2), 2008.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ankov. A and Seok-hyang Kim. “North Korean Market Vendors: the Rise of Grassroots Capitalists in a Post-Stalinist Society.” *Pacific Affairs* 81(1), Spring 2008.
- Lavigne, Mari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Work: St. Martin’s Press, 1995.
- Lee, Keun and Hong-Tack Chun. “Secretes for Survival and the Role of the Non-State Sector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sian Perspectives* Vol. 25, No.2, 2001.
- Pryor, Frederic L. *Propert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in Communist and Capitalist N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 Schlager, Edella and Elinor Ostrom, “Property-Rights Regimes and Natural Resources:

- A Conceptual Analysis,” *Land Economics* 68(39), Aug 1992.
- Skocpol, Theda.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3-37.
- Walder, Andrew G.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Economy: Contours of the Process of Change,”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1-26.
- Wang, Shaoguang. “The Rise of the Regions: Fiscal Reform and the Decline of Central State Capacity in China,” Andrew G. Walder(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87-113.
- Woo, Wing Thye. Stephen Parker and Jeffrey d. Sachs (eds), *Economies in Transition: Comparing Asia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7.

『연합뉴스』

『임진강』





해외원조가 북한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원조효과성의 향상방안  
: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의 극복을 위한 대안모색

윤철기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

제1장 문제 제기 .....	562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몇 가지 가설 .....	564
제3장 대북 경제원조의 현황과 정치경제학적 성격 .....	574
제4장 탈산업화 경향의 심화와 대외의존도의 증가 .....	589
제5장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심화 .....	598
제6장 원조 효과성 증대를 위한 조건과 대안 모색 .....	611
제7장 결 론 .....	622
[참고 문헌] .....	625

---



## 표 목차

---

<표 1> 6자회담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2007년 6월~2009년 3월) .....	580
<표 2> 남북교역에서의 경화수입 추이 .....	581
<표 3> 한국의 대북 지원현황 .....	584
<표 4> 유엔 대북제재 .....	586
<표 5> 미국의 대북지원(1995~2011) .....	587
<표 6> 북중 무역동향 .....	589
<표 7> 화폐 개혁이후 북한시장 쌀 가격(kg) 추이 .....	591
<표 8>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 .....	594
<표 9> 북한의 수입품목별 변화 추이 .....	596
<표 10> 시장유통 제품 중 중국산 비율 .....	597

---

## 그림 목차

---

<그림 1> 코어(Core) 모델 .....	566
<그림 2> 북한식량작물 생산량 .....	575
<그림 3> 북한식량작물 증감률 .....	576
<그림 4> 북한의 시장 쌀가격 변화(2000~2009) .....	576
<그림 5> 북한의 식량원조 .....	577
<그림 6> 국가별 북한의 식량원조 비교(1995~2008) .....	577
<그림 7>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	593
<그림 8> 북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변화추이 .....	594
<그림 9> 북한 대외거래의 변화 .....	595
<그림 10> 북한의 수입품목별 변화 추이 .....	596

---



## 요 약 문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원조가 북한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원조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이러한 희망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특히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두 차례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미사일 실험 그리고 세 차례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대북원조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더 힘을 얻는 형국이다. 그러나 대북원조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은 자칫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주요한 레버리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기존의 원조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북원조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대북원조는 1990년대 북한경제가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게 되면서 시작된 1차 핵위기가 94년 제네바 합의로 종결되면서, 그 대가로 중유와 경수로 건설을 약속하게 된다. 즉 대북원조는 인도적 목적과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공여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북한경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은 매우 곤궁하다.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었다.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과 한반도에너지협력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은 중단되었다. 2002년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방북이후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2차 핵위기는 결국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졌다.

오히려 대북원조는 원조 공여의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을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은 해외원조(외연적 렌트)가 관료의 자기특권화를 위해서 사용됨으로써 발생했다. 원조형태는 식량과 에너지 원조 그리고 경화(硬貨) 지급이었다.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한국, 중국, 미국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공여국의 대북지원의 목적은 빈곤과 기아의 해결이라는 인도적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의 안정이었다. 그러나 대북원조의 목적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의 지배세력인 관료계급은 해외원조라는 외연적 렌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경제의 탈산업화와 경제위기가 지속되어 빈곤과 기아가 일상화되고 있다.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의 양상은 크게 계획과 시장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계획부문에서는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최근 때때로 북한 매체들은 주요 중공업 공장시설들의 재가동을 과시하는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타전하고 있다. 이는 북한경제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과거와 달리 생산시스템이 와해된 상황에서, 특정 경제 부문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이미 빈사상태에 있는 다른 산업 부문의 생산시스템은 더욱 더 복원되기 어려워진다. 특히 2005년 이후 다시 전통적인 계획경제 노선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계획경제와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은 단지 경제노선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공장과 기업소를 인전대로 하여 대중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배권력은 산업구조의 왜곡으로 탈산업화의 우려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통적 계획경제와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권력의 의도와 능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지속되고 있다. 권력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장(장마당)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관료계급은 시장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관료들은 시장화를 주도하는 신흥부유계층인 ‘돈주’들을 후견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재생산한다. 시장화 과정에서 관료가 특권을 재생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계획경제하에서는 관료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즉 관료의 정당성은 투자와 성장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그러나 시장화 과정에서 관료는 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시장화가 오히려 지배계급에 대한 정당화의 압력을 약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대신 관료계급은 투자와 생산 보다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관료계급은 시장화 과정에서 ‘비생산적 특권계급’이 되었다. 그 결과 북한 국내생산은 복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특히 대중 의존도)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북원조가 정치적 네덜란드 병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대북원조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대북원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외교적 레버리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북한 지배권력이 자발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북원조는 북한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원조의 중단 보다는 정치적 네덜란드 병을 치유하고 원조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엘젠한스(Elsenhans)의 ‘대중시장이론(mass

market theory)’을 기초로 대북원조의 장기적 방향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대중 시장론은 생산적 투자에 기초하여 완전고용을 성취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소득 향상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생산적 투자와 완전고용은 노동계급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사회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경제적 기초로 이해된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내부의 변화나 국제사회의 역할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북한체제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북한체제에서 ‘정치적 네덜란드 병’은 치유되기 힘들 것이다.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탈산업화 경향이 지속되면, 북한체제의 저성장과 저발전으로 인한 빈곤과 기아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북한과 국제사회가 서로 누가 먼저 변화될 것인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지속될수록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탈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와 생산의 복원을 위해서는, 북한체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안모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할 때다.

## 제1장 문제 제기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어느덧 십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북한경제는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에도,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에도 국제사회와 단절된 채로 남아 있었다. 북한은 단절을 생존의 이유로 인식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은 이 위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한다.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계획경제와 배급제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고 말았다. 물론 북한은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당내 노선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은 스스로 단절과 고립, 그리고 중공업 우위의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산업화 전략을 고수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은 내부의 힘만으로 해결되기 힘든 것이었다.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경제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외부와 연결되어야만 했다. 국내 생산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는 해외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와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 첫째,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전세계 50여 개국들의 식량원조가 전달되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지원이 두드러졌다. 둘째, 무역을 확대한다. 석탄을 비롯한 광물 자원 수출이 증가한다. 또 ‘밀무역’으로 일컬어지는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적 무역도 증가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확대이다. 경제특구, 물류와 항만까지 임대, 관광, 위탁가공 공장의 설립 등을 통해서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위기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 국내생산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 북한의 언론들은 때때로 주요 공장들의 가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선전하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인민의 상당수가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두 차례 핵실험, 세 차례의 인공위성 발사,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한 교류만이 아니라 국제 지원 역시 반복적으로 중단되었다. 물론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한, 중국의 대북지원 역시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대북지원과 협력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원조’ 문제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제원조에서도 무역이나 여타의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적 원칙이 지켜진다. 하지만 상호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원조 수혜국과 공여국 사이에는 무역이나 경제협력과 동일한 상호주의적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혜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일정정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일방적인 지원과 수혜가 관철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공여국 원조를 통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한다. 그런데 북한이 공여국의 이해관계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대북 지원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재점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 여론 역시 대북지원과 협력에 대한 ‘회의론’에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포용정책’을 줄곧 비판해왔다. 그들은 대북지원과 협력 사업의 결과, 식량, 에너지, 경화(hard currency) 등이 북한에 지원되었지만, 이러한 지원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대북지원 문제는 이른바 ‘남남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논란은 주로 대북지원이 북한인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여부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원조가 거시적 수준에서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국제사회는 원조의 실제 수혜자 문제를 두고 고심해왔다. 왜냐하면 원조 수혜국의 지배권력이 원조를 전용하거나 낭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조공여의 중단이 원조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조가 중단된다고 해도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원조공여의 목적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조 수혜자’ 문제에서 벗어나 거시적 맥락에서 원조가 수혜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치적 네덜란드 병(political dutch disease)’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해외원조가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네덜란드 병은 저발전 경제에서 천연자원과 같은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가 국내경제에서 지배계급이나 특권계급에 의해서 전유되고, 정치적 지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낭비됨으로써 탈산업화를 초래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정치 레짐(political regime)’의 특성을 덧붙여, 외연적 렌트와 국내경제의 탈산업화 문제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외연적 렌트는 비민주적이고 저발전된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정치사회적 지배를 지속시키기 위해 낭비됨으로써 탈산업화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초래하게 된다. 북한체제 역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해외원조(외연적 렌트)가 국내 경제에 유입되었다. 오랫동안 수령과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비민주주의사회의 특성과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저발전 사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 북한체제는 여전히 현존 사회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체제에 유입된 외연적 렌트를 수취하고 분배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체제를 지배하는 관료계급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치적 네덜란드 병’ 개념을 현존 사회주의에서 관료계급의 성격과 접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외연적 렌트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산업화가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몇 가지 가설

### 제1절 ‘정치적 네덜란드 병’의 개념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란 용어는 천연가스 개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경제가 1970년대 경기침체가 시작되어 80년까지 경제위기가 악화되는 현상을 분석한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한 경제기사에서 유래되었다.<sup>1)</sup> 이후 네덜란드 병이란 시사용어는 갑작스럽게 특정부문에 호황이 발생하여 오히려 다른 경제 부문에 타격을 주게 되어 국민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개념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천연자원 개발, 특화(specialization)부문의 국제시장 가격급등, 기술진보, 해외원조 등으로 인한 자본유입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탈산업화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 병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코어 모델(core model)’에 의해서 시작되었다.<sup>2)</sup> 코어모델은 기술진보로 인한 호황이 국민경제 미친 영향을 모델화

1) “The Dutch Disease,” *The Economist* (November 26, 1977), pp.82~83.

2) W. Max Corden and J. Peter Neary, “Booming Sector and De-Industrialization in a Small Open Economy,” *The Economic Journal* vol. 92, no.368 (December 1982), pp.825-848; W. M. Corden, “Booming Sector and Dutch Disease Economics: Survey and Consolidation,” *Oxford Economics Papers* vol. 36, no. 3(November 1984), pp.359-380

하였다. 모델의 전제조건은 첫째, 화폐적 고려를 무시한다. 둘째, 시장왜곡이 없으며, 완전고용 상태이다. 셋째, 실질임금은 완전탄력적이다. 넷째, 소규모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이다. 모델은 국민경제를 호황부문의 교역재(booming sector), 비호황부문의 교역재(lagging sector), 비교역재(non-tradable sector) 부문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호황부문의 성장이후, 국민경제의 변화를 지출효과(spending effect)와 자원분배효과(resource movement effect)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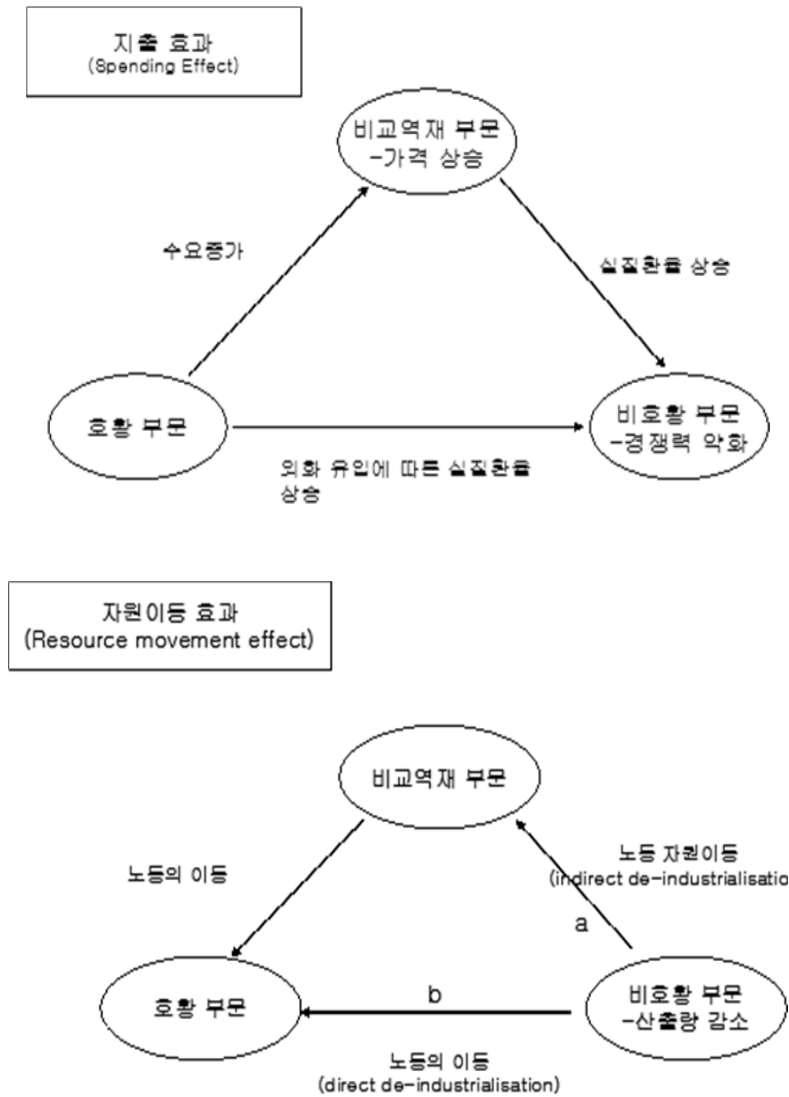
지출효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sup> 호황부문에서 초과 소득의 일부가 직접적으로 요소 생산자에 의해서 혹은 간접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세금징수를 통해 소비된다면 그리고 비교역재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높다면, 비교역재에 대한 교역재의 가격은 상승해야만 한다. 이것이 실질환율 절상(real appreciation)이다. 실질환율 절상은 교역재(호황부문과 비호황부문)의 자원을 비교역재로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비교역재에 대한 수요를 교역재에 대한 수요로 변화시킨다.

자원분배효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sup> 호황의 결과로 호황부문의 노동 한계생산이 증가하고, 그 결과 호황부문에 대한 임금의 수요는 증가한다. 단, 여기서 교역재 부문의 임금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 비호황부문과 비교역재로부터의 노동이 이동하게 된다. 비호황부문의 노동이동은 비호황부문의 산출을 하락시킨다. 이는 비교역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실질환율의 절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탈산업화(direct de-industrialization)’라 명명된다. 또한 실질환율이 일정할 때, 비교역재에서 호황부문으로 노동이 이동한다. 따라서 비교역재에 대한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지출효과에 의해서 창출된 비교역재에 대한 추가적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추가적인 실질환율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출효과에 의해서 발생한 탈산업화가 더욱 심화되고, 비호황부문의 노동이 비교역재로 이동하게 된다. 두 효과가 결합되어 비호황부문의 노동이 비교역재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일컬어 ‘간접적 탈산업화(indirect de-industrialization)’라 부른다.

---

3) Corden(1984), p.360.

4) Corden(1984), pp.360-361.



〈그림 1〉 코어(Core) 모델<sup>5)</sup>

네덜란드 병의 진원지는 ‘네덜란드’이지만, 현재 네덜란드 병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은 천연자원의 수출이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저발전 국가들이다.<sup>6)</sup> ‘네덜란드 병’은 자원개발이나 원조에 의존하게 되면서 저성장과 저발전의 틈에서

5) 이종직, “네덜란드병과 정치의 역할,”(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2005), pp.14-15.  
 6) Thorvaldur Gylfason, “Lesson from the Dutch Disease: Causes, Treatment, and Cures,” *Working Paper Series*(March 22 2001), pp.1-2.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sup>7)</sup> 풍부한 천연자원과 그로 인한 원자재 수출의 급등은 실제 교역에서 국내 통화의 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 결과 환율 변동성(exchange rate volatility)과 임금증가는 수출이 정체되거나,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되고, 심지어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현상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전통적인 네덜란드 병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저성장이나 탈산업화 경향을 설명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네덜란드 병에 대한 전통적 해석이 주로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이동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네덜란드 병의 또 다른 한 축은 정치적 문제들이다. 자원개발, 수출, 원조 등으로 인해서 유입된 경제적 이익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정치’ 때문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병의 정치적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네덜란드 병이 렌트추구(rent-seeking) 행위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는 경우이다. 대부분 자원개발, 원조, 수출 등을 통해서 유입된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의 배분과 사용과정에서 행위자들의 렌트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8)</sup>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 병의 원인을 정치적 환경, 특히 정치제도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이다. ‘정치적 네덜란드 병(political Dutch disease)’은 네덜란드 병 개념을 ‘정치 레짐’의 성격과 관련시켜 재해석한 개념이다.<sup>9)</sup> 이 개념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를 렌트를 둘러싼 권력관계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치 엘리트가 자원개발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엘리트의 분배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엘리트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게 된다. 둘째, 자원개발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중과 엘리트의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증가는 제조업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을 어렵게 한다. 결국 이는 인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대중의 소비는 초기에는 증가하지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후 대중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넷째, 자원 렌트가 증가하게 되면 초기에는 대중과 엘리트의 소득이 모두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비의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서 엘리트의 소득이

7) Gylfason (2001), p.5; Mwanaza Nkusu, “Aid and the Dutch Disease in Low-Income Countries: Informed Diagnoses for Prudent Diagnoses,” IMF Working Paper(March, 2004), pp.1-18.

8) Jeffrey Sachs and Andrew Warner,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97), pp.1-50; Jakob Svensson, “Foreign Aid and rent-seeking,”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1(2000), pp.437-461.

9) Ricky Lam and Leonard Wantchekon, “Political Dutch Disease,” *Working Paper*(April 10, 2003), pp.1-21.

더 커지게 된다. 즉 자원 붐(boom)은 저성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dictatorial regime)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한다.

외연적 렌트의 유입이 분배갈등에서 렌트추구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행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행위자 중심적 접근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외연적 렌트의 배분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자들의 렌트추구 행위에 주목한다. 실제로 네덜란드 병은 렌트추구(rent-seeking) 행위와 함께 발생하며, 그 결과 경기둔화가 더욱 더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둘째, 제도주의적 접근이다. 네덜란드 병은 렌트추구, 부패, 재정위기 등으로 현상화 되는데, 그 원인은 궁극적으로 정부정책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자원부국은 네덜란드 병을 피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들이 결국 낮은 투자율과 성장률의 원인이 된다.<sup>10)</sup> 이러한 사정은 해외원조(foreign aid)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원조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 증가가 오히려 공공재의 공급을 낮춘다. 또 단지 원조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렌트의 낭비가 증대될 수 있으며 생산적 공공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sup>11)</sup> 이때 원조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냐의 문제는 결국 수혜국의 정치제도(특히 민주주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원조를 비생산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가지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원조를 전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다.<sup>12)</sup>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천연자원이나 원조와 같은 외연적 렌트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네덜란드 병과 렌트추구) 발생을 정치제도의 문제와 관련시켜 설명했다는 점이다.<sup>13)</sup>

10) Sachs and Warner(1997); Svensson(2000).

11) Jakob Svensson, "Foreign Aid and rent-seeking,"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1(2000), pp.437-461.

12) Jakob Svensson, "Aid, Growth, and Democracy," *Economics and Politics*, vol. 11(1999), pp.275-297.

13)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는 렌트의 기원이 국민경제의 외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렌트의 외생성(externality)은 렌트수취 경제(rentier-econom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렌트수취 경제는 국내시장이 취약하지만 석유와 같은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저발전 경제를 분석하는 개념이다. 자연자원은 희소성(scarcity)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초과소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외연적 렌트'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후 자연자원의 원조나 무역으로 발생하게 되는 국제적인 소득이전(transfer)으로 발생한 초과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면서 '국제 렌트(international rent)'로 명명되기도 한다. 외연적 렌트나 국제 렌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azem Beblawi, "The Rentier State in the Arab World," *The Rentier State*(New York: Croom Helm, 1987), p.51; 이국영,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서울: 도서출판 양림, 2005), pp.290-297.

‘정치적 네덜란드 병(political Dutch disease)’은 천연자원 개발로 인한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의 유입이 렌트추구(rent-seeking)를 촉발하고, 국내 정치사회 세력 간의 분배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그 결과 투자율 하락으로 인한 저성장을 초래하게 된다. 렌트추구의 발생은 본질적으로 정치 레짐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 모델에서는 정치엘리트는 어떠한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 소득의 세대 간 이전이 곧 권력의 이전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은 민주화를 촉발하는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천연자원의 풍부함은 정치 엘리트로 하여금 후견인들에게 렌트의 더 많은 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결과 대중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렌트추구를 선택하게 된다. 이로써 권력과 대중 사이에 후견-피후견 관계가 형성된다. 권력은 렌트를 이용하여 정치적 저항을 억제하고 대중의 충성을 구매한다. 물론 권위주의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폭력 역시 이용할 수 있다. 정치적 네덜란드 병 개념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네덜란드 병’ 개념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를 렌트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권력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첫째, 지배권력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네덜란드 병에서는 렌트의 분배 몫을 이용하여 지배권력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렌트의 배분만으로는 권력과 대중간의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둘째, ‘대중의 자율성’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대중이 렌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중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을 정도로 국내시장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자원부국에서 국내시장이 취약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원수출의 결과로 얻은 수입이 국내에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게 되고, 결국 대중은 시장보다는 권력이 지불하는 렌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네덜란드 병 개념은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권력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예컨대 대중이 권력이 지불하는 렌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경우에 대중의 자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권력이 더 이상 렌트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이 역시 대중의 자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적 원인 이외에 대중의 자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 제2절 현존 사회주의에서 관료계급의 성격: 정당화와 자기특권화의 변증법

정치적 네덜란드 병의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내부의 권력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북한체제에서 지배계급의 성격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북한체제는 현존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서 공식적으로 지배계급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관계만으로 지배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현존 사회주의에서도 경제잉여의 생산, 분배, 사용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관료계급이 실재한다.<sup>14)</sup> 현존 사회주의에서 관료계급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관료는 한편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특권화의 경향을 가진다. 관료의 자기정당화와 자기특권화는 대중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결정된다. 권력관계에 따라, 때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경주하기도 하고, 때로 자기특권화의 경향이 강해지기도 한다.

관료의 정당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의 지지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료의 구성원을 확대한다.<sup>15)</sup> 현존 사회주의에서도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이 관철된다.<sup>16)</sup> 둘째, 관료는 당의 이데올로기적 해석권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권력과 특권을 보존한다.<sup>17)</sup> 셋째, 인전대(transmission-belt)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기구가 되고 만다.<sup>18)</sup> 넷째,

14) 관료의 자율성은 처음에는 혁명과정에서 형성되고, 이후에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강화된다. 바로(Bahro)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에서 관료주의는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 고통스럽게 옥죄여오지만, 생산력의 토대를 꿈쩍 못하게 하는 관료적 경제기구가 전체 관료화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Rudolf Bahro, *Die Alternative: Zur Kritik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Frankfurt am Mai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77), p.180.

15) Milnovan Djilas, *The New Class*(San Diego: A Harvest/Hbj Book, 1985), pp.49-50.

16) Bogdan Mieczkowski, *Dysfunctional Bureaucracy*(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p.149;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은 “관리의 수와 업무량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공무원 수의 증가는 업무가 늘어나거나 혹은 업무 아예 없어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Northcote Parkinson, 김광웅 역, 『파킨슨의 법칙』(서울: 21세기북스, 2003), p.23.

17) 바로(Bahro)는 현존 사회주의에서 관료에게는 ‘왜곡된 마르크스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노박(Nowak)은 현존 사회주의에서 지배이데올로기는 혁명과 유토피아의 근원지가 아니라 권력과 특권의 질서에 복무하는 ‘허위식’이라고 비판한다. Bahro(1977), p.197; Leszek Nowak, *Power and Civil Society*(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pp.93-120.

18) Wilczynski 1983; Mieczkowski(1991), p.156 재인용.



잉여생산물을 생산에 ‘투자’했다.<sup>19)</sup> 비록 관료는 결과적으로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은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이었지만, 관료는 지속적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했다. 다섯째, 당과 대중 혹은 관료와 노동간의 비호관계(*patron-clients*)를 형성하였다.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은 다음의 특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관료적 특권의 핵심은 잉여자원의 수취와 배분에 대한 권한이다. 주지하다시피 관료의 이와 같은 권한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자기특권화를 위해서 ‘권력의 보호’는 필수적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관료의 정당화와 자기특권화는 양립가능하다. 과도기 사회에서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계획, 경찰과 군대와 같은 강제적 물리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단들은 물론 권력의 보존만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실 관료의 정당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특권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관료는 스스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관료들의 일자리는 한 번 만들어지면, ‘신성불가침(*sacred cow*)의 영역’이 된다.<sup>20)</sup> 셋째, 관료적 권력과 특권은 강제력의 보호를 받게 된다. 감시와 처벌 제도에는 군과 경찰은 물론 정치적 숙청, 강제노동수용소, 여권과 비자발급 제한, 비밀경찰 등 개별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권력의 독점과 집중이 강할수록 대중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더욱 더 강력해진다. 이는 정치적 숙청과 사회통제와 동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스탈린주의’적 요소가 강한 국가일수록 사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은 일상적으로 나타난다.<sup>21)</sup> 넷째, 자기특권화의 방식은 계획경제이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획은 당의 명령을 대중에 전달하는 지배도구이면서 사회적 종합(*gesellschaftliche Synthesis*)의 수단이다.<sup>22)</sup> 다섯째, ‘소비’를 소홀히 한다는 점은 관

19) 엘젠한스(Elsenhans)는 저발전 사회의 국가계급은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배타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았지만, 현존 사회주의 사회처럼 축적을 강제할 수 있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로 이러한 점이 저발전 사회의 국가계급과 현존 사회주의의 관료계급과의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Hartmut Elsenhans, *State, Class and Development*(New Dheli: Dhaka, 1996), p.206.

20) Mieczkowski(1991), p.145.

21) 그래서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스탈린주의를 전체주의와 동일시한다.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거의 완벽한 무장력에 대한 통제와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의 완벽한 독점을 기초로 하는 폭력적인 경찰의 통제(*terroristic police control*)를 강조한다. 감시와 강제력의 사용 대상은 ‘정권의 적(敵)’만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된’ 계급을 포함한다. Carl Friedrich, “The Unique Character of Totalitarian Society,” *Totalitarianism*(New York: The Universal Library Grosset, 1964), p.53.

22) Renate Damus, *Der Reale Sozialismus als Herrschaftssystem: am Beispiel der DDR*(Lahn-Gießen: Focus Verlag, 1978), pp.194-195.

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을 가장 명백히 보여준다.<sup>23)</sup> 소비재의 부족은 관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소비재가 희소하므로 소비재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계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관료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소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재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관료는 소비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의 분배와 계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관료의 자기특권화는 부패를 포함하는 렌트추구(rent-seeking)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제3절 개념 재정립과 몇 가지 가설

북한체제와 같은 현존 사회주의에서 네덜란드 병은 자본주의 경제와 그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존재하지만 ‘추상적 교환’과 ‘자기조정적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양상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sup>24)</sup> 자원 배분은 기본적으로 당과 국가가 결정한다. 또한 대외경제에 개방되어 있기 보다는 폐쇄되어 있다. 환율의 결정 역시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네덜란드 병의 메커니즘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체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해외원조(외연적 렌트)가 국내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복원되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지속되었으며 탈산업화 경향이 심화되었다.<sup>25)</sup> 뿐만 아니라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 역시 심화되었다. 외연적 렌트의 유입이 북한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맞물려, 경제위기와 탈산업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자원개발로 유입된 외연적 렌트가 국내의 산업화에 사용되기 보다는 소수 특권계급에 의해 전유되어 권력의 보존과 특권의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네덜란드 병과 유사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해외원조, 자원수출, 경제협력 등으로 인한 외연적 렌트의 유입이 북한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맞물려 경제위기와 탈산업화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북한체제에서의

23) Mieczkowski(1991), pp.159-161.

24) Alfred Sohn-Rethel, *Geistige und körperliche Arbeit: zur Theorie der gesellschaftliche Synthesi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Karl Polanyi, 박현수 역,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서울: 민음사, 1997).

25) 북한의 탈산업화는 1990년대 경제위기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1990년 경제위기는 계획경제 시스템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의 실패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탈산업화의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외연적 렌트(특히 원조)가 북한경제에 유입되면서 2000년대 탈산업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외원조가 북한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치적 네덜란드 병’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은 외연적 렌트가 관료의 자기특권화를 위해서 사용됨으로써 발생했다. 관료의 자기특권화의 경향은 첫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시장개혁을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되었지만, 2005년 말 이후 보수노선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원배분 과정에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계획당국은 경제위기 이후 ‘생산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발전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위기로 동원 가능한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특정부문의 호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다. 국가는 4대 선행부문의 발전이 다른 부문의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가용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부문에 집중하게 되어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4대 선행부문을 제외한 그 밖의 경제부문에서 위기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는 결국 전체 국민경제에서 투자율의 회복이 중단된 채 탈산업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다.

둘째,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은 시장화 확산과정에서 관료의 렌트 추구(rent-seeking)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렌트추구의 구체적인 양태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계획의 집행과정에 발생하는 공장과 기업소에서의 ‘연성예산계약’의 형태였다면, 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는 상업적 거래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국내생산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렌트의 근원이 국내에서 외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원조와 외화벌이를 유입된 외연적 렌트는 국내의 취약한 산업부문에 투자하기 보다는 관료의 자기특권화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시장화를 주도하고 있는 ‘돈주’로 일컬어지는 신흥 부유계층들을 후견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긴다. 북한의 시장화는 대중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관료는 변화된 경제적 환경 하에서도 자기특권화 경향을 강화한다. 관료는 계획경제 보다 시장화 과정에서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관료의 정치적 비호아래 돈주가 주도하는 시장화의 확산에서 투자와 생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정치적 네덜란드 병으로 경제위기와 탈산업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국내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자 다시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해외공급에 의존하는 현상은 다시 국내경제의 탈산업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본래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공급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입(import)’이다. 과

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뒤쳐진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본재’에 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위기가 지속되면서 생필품과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 증가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경화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수입증가는 다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 제3장 대북 경제원조의 현황과 정치경제학적 성격

#### 제1절 대외 경제원조 증감

북한경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내생산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이를 가장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해외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공급에는 수입과 원조가 있지만, 북한은 원조에 우선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가 심각했기 때문에 북한은 수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자연히 원조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북한정부가 직접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북한 스스로는 식량부족 사태의 원인을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1995년 홍수 때문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사실 북한의 국내에서 곡물생산은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각하기 이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그림 2, 3> 참조). 대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1987년 이후에는 수입을 증가시켰고, 87년에는 인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을 10% 감소시켰다.<sup>26)</sup> 1991년에는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시켰다.<sup>27)</sup> 북한 식량위기는 단지 자연재해로 인한 우연적 결과가 아니라 계획경제와 농업생산 체계의 문제로 인한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에도 근본적인 농업개혁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협동농장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정도가 있었을 뿐이다.<sup>28)</sup>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는 북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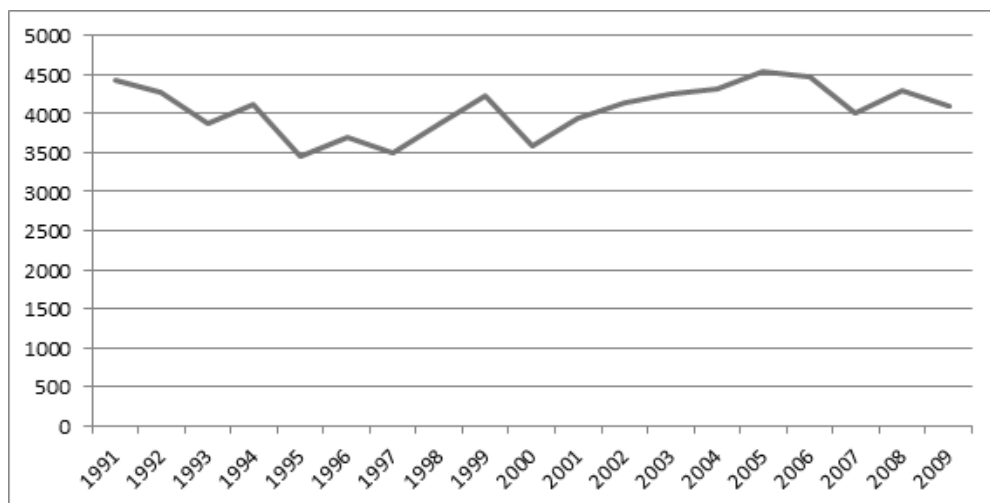
26)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서울: 통일연구원, 2004), p.18.

27) Robinson Noland and T. Wang, “Famine in North Korean: Causes and C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9, no.4(2001), p.743.

28) 2002년 7월 협동농장은 분조규모를 4~5명 가족단위로 축소하고, 2004년 1월부터 가족영농

수 없었다.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서 식량공급 부족은 지속되었다(<그림 2, 3> 참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원조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식량원조는 12,278,166 메트릭톤이 제공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은 3,248,618.4 메트릭톤(metric tons)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국으로 3,015,007 메트릭톤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2,400,422.6 메트릭톤을, 일본이 1,312,047 메트릭톤을 제공하였다(<그림 5, 6> 참조). 물론 식량원조는 2006년 이후 갑자기 감소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국내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두 차례의 핵실험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원조가 감소하고 경제제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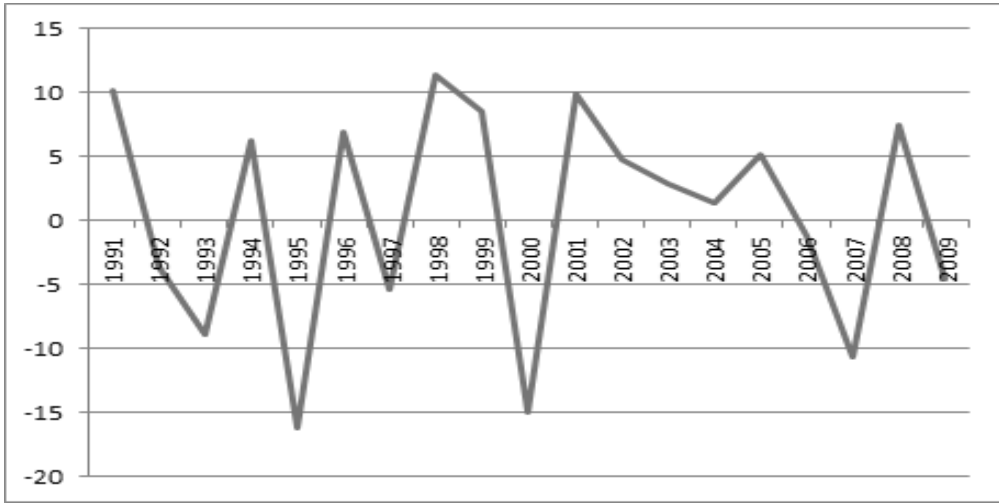
(단위: 천MT)



〈그림 2〉 북한식량작물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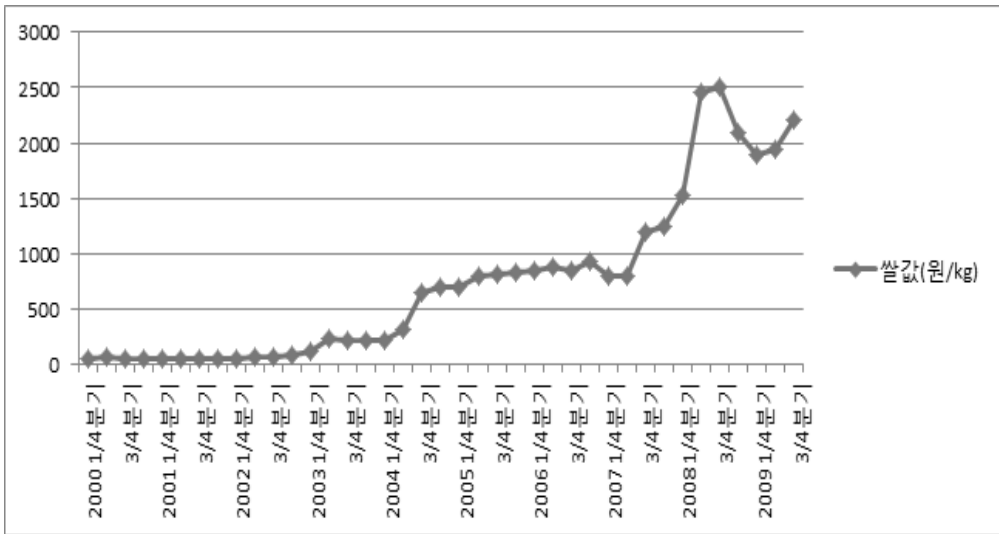
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또한 사경지 허용면적도 30~5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료를 신설하였다. 이영훈,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구조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

(단위: %)



출처: 통계청(2011), p.24; 식량작물량은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생산량을 의미한다.

〈그림 3〉 북한식량작물 증감률



출처: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133.

〈그림 4〉 북한의 시장 쌀가격 변화(2000~2009)



북한의 식량원조가 산업구조나 축적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정확히 검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북 식량원조가 대부분 ‘인도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문제와 관련시켜 사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농업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식량원조의 지원은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sup>29)</sup> 2000년대 공식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공언(公言)하지만, 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공언(空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그림 4>에 보는 바대로 식량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즉 식량원조는 제한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생산으로 채우지 못한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지만<sup>30)</sup>, 국민경제의 차원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에너지 원조는 북한원조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에너지 원조는 식량원조와 달리 북한이 핵 개발 중단에 대가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지분을 약속한 것이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촉발된 1차 핵위기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일단락된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시설(총발전량 약 2,000MWe)로 대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서 중유를 연간 50만톤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 1994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재개발을 선언함으로써 2003년 12월 중단되고, 2006년 KEDO가 공식해체 되었다. 신포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15억 6천 200만 달러이며, 중단 당시 사업공정률은 34.5%였다. 높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KEDO는 북한이 핵시설을 유지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용 대비 에너지난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또 2차 핵위기에 대한 다자주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6자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회담에서 북한의 에너지 지원 문제는 주요의제로 자리 잡게 된다.<sup>31)</sup> 2005년

29)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Redux?,”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8(2008), p.15.

30)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2008), p.15.

31) 6자회담의 주요 합의와 그 내용에 대한 정리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이수혁, 『북한은 현실이다』, (파주: 21세기북스, 2011), pp.99-100.



4차 회담의 결과 가시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여기서 다른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2005년 7월 12일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독자적으로 200만kW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 이행을 공약했다. 그리고 2007년 5차 회담의 결과 2.13 합의에서는 각 단계별로 중유공급을 약속했다. 1단계에서는 60일 이내 5만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을, 2단계에서는 중유 100만톤(초기 5만톤 포함)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가운데 2차례의 핵실험, 남북한 관계의 긴장심화 등으로 인해서 일부만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사실 에너지 부문은 지원이 거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표 1> 참조). 실제로 북한은 미국이 경수로 지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력산업에 공백이 생겼고, 에너지난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32)</sup> 북한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에너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게다가 미사일과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되자, 북한은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에너지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게 된다. 특히 희천발전소 등을 비롯한 수력발전소 개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인다.<sup>33)</sup>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대중동원은 다른 부문의 성장에 동원가능한 자원을 축소시키게 된다.

그밖에 대북원조의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는 ‘현금지원’이다. 현금지원의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점은 북한이 경화수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07년 6차 회담 이후 미국이 방콕델타은행(BDA) 계좌를 동결하였을 때, 북한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식량원조나 에너지 원조 등은 유동성과 환금성이 낮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화는 비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그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금지원은 원조공여국의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32) Yongho Ri, “Energy Futures and Energy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sian Energy Security Workshop*(November 6-7, 2006). p.1.

33) 2009년 6월 25일 김정일은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이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기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라는 제목의 경제담화를 발표한다. 2001년 10월 3일 이후 8년여만의 일이다. 2009년 6월 경제담화에서 수력발전소의 신설을 강조하고 있다. 희천발전소를 2012년까지 완공하고, 금야금발전소, 예성강 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발전소, 어랑천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건설과 중소형 수력발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보다 앞서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수력발전소 건설과 화력발전소의 ‘만부하’ 가동을 중용하였다. 또한 2010년 시년공동사설에서는 ‘희천 속도’를 새로운 천리마 속도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34)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수은북한경제』 봄호(2008), pp.19-41.

이 어려운 지원방식이다. 특히 북한처럼 원조의 배분과 사용에 있어서 공여국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대북송금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결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남남갈등이 정치사회에서 시민사회로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대북 현금지원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35)</sup> 남한의 경우에는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한국정치의 내용이 일단락 된 이후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부지 임대 및 임금지불 등의 형태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표 2> 참조). 이는 중국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대북원조에서 현금지원이 없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sup>36)</sup>

〈표 1〉 6자회담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2007년 6월~2009년 3월)

공여국	지원된 중유량 (MT)	중유에 상당(HFO Equivalent) 지원량(MT)	지원하기로 한 잔량
중국	50,000	150,000	0
일본*	0	0	200,000
러시아	200,000	0	0
한국	50,000	95,110	55,000 중유에 상당
미국	200,000	0	0
총계	500,000	245,110	310,000

\* 참고: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출처: Mark Manyin and Mary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June 2011), p.9.

35)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영 의원실에서 발간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1995년부터 대북 현금지원의 규모는 9억 4천5백만5천달러 정도 된다. 주요 송금자는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입주 기업 등 사업자들이다. 그 내역은 금강산 사업권, 관광대가, 공연, 통신료 등, 개성·평양 관광, 아리랑 축전 관광비용 등이다.

36) 중국은 대북지원이 60년 대외원조 역사의 시작이며, 그 지원은 북한의 공업과 농업 등 생산영역에 집중되었다고 주장했다.“중국,“북한 원조는 물자...현금 지원 전혀 없어””(연합뉴스 2011년 4월 26일자) 2012년 6월 6일 검색([http://www.ytn.co.kr/\\_ln/0104\\_201104261443401091](http://www.ytn.co.kr/_ln/0104_201104261443401091))

〈표 2〉 남북교역에서의 경화수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남북교역을 통한 경화수입	실질교역 흑자 <sup>1)</sup>	169	168	221	326	500	440	333
	관광관련 수입	13	15	14	12	20	20	0
	개성공단 임금	0	0	3	7	14	30	40
	계	180	180	233	341	534	490	370

주: 1) 남북교역 중 실질교역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합한 것을 의미함

2) 관광관련 수입은 2007년까지 금강산 입산료만을,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여기에 개성관광을 합한 것임.

출처: KOTRA 『대외무역동향』, 각년도와 통일부; 이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으로 대체가능한가,”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2010), p.5에서 재인용.

## 제2절 대북원조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해의 경제원조는 렌트(rent)에 해당된다. 렌트는 “권력과 특권에 의한 소득이전 (transfer)”이다.<sup>37)</sup> 렌트는 권력관계에 의해서 수취되고 배분된다. 반면 이윤은 잉여 가치의 실현된 형태로서 자본가에 의해 수취된다. 자본은 시장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윤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윤이 경제적 소득이라면, 렌트는 ‘정치적 소득’이다. 렌트의 배분과 사용은 그 사회의 권력관계에 따라 그 배분과 사용처가 달라진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렌트의 발생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정치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협적 판단이다.<sup>38)</sup> 물론 렌트 그 자체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렌트 분배가 권력과 특권의 재생산을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낭비를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렌트가 이윤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렌트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sup>39)</sup> 대표적으로 발전국가와 복지국가에서 국가개입주의로 인해 발생한 렌트는 이윤으로 전환되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발전국가에서 렌트는 공급측면에서 투자와 생산에 이용되었으며, 복지국에서는 수요측면에서 소득재분배와 투자유인에 기여했다.<sup>40)</sup>

37) Hartmut Elsenhans, *State, Class and Development*(1996), p.54.

38) Mushtaq Khan, “Rents, Efficiency and Growth,” *Rents, Rent-See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21-69.

39) Hartmut Elsenhans, “The Politico-Economics Basis of Limits and Opportunitie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under Condition of Globalization,”(한양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소 국제 포럼 발표문, 1997).

40) 윤철기, “렌트와 국가의 유형,”(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46-61.

경제원조는 렌트유형 가운데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 혹은 국제 렌트(international rent)로 분류된다. 외연적 렌트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에서 발생하게 되는 초과소득이다. 외연적 렌트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상에서 권력과 특권의 존재 때문에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외연적 렌트의 하위유형은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sup>41)</sup> 첫째, 원자재 렌트(raw material rents)이다. 이것은 원자재와 광물 자원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얻는 렌트이다. 대표적인 것은 석유 수출로 획득한 렌트이다. 이는 천연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sup>42)</sup> 둘째, 위치 렌트(location rents)이다. 이는 수에즈 운하와 같은 주요 교통 시설 혹은 교통 루트의 소유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렌트이다. 대표적인 예는 석유나 천연가스의 파이프 라인이 있다. 셋째, 전략적 렌트(strategic rents)이다. 군사원조나 재정원조의 형태로 국가에 지급된 보조금이나 연차관(soft loans)이다. 넷째, 정치적 렌트(political rents)이다. 개발이나 인권을 위해서 국가기구와 시민사회 단체에 서구나 아랍 공여국들이 지급한다. 공적 개발 원조(ODA)와 같은 지원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이주 렌트(migration rents)이다. 이주민들의 사적 송금형태로 국내 금융체계에 대규모로 유입된다.<sup>43)</sup>

대북 경제원조는 주로 ‘정치적 렌트’, ‘전략적 렌트’, ‘위치 렌트’ 등이 있다. 정치적 렌트와 전략적 렌트는 그 목적은 상이하지만, 배분과 사용이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수혜국은 원조를 받는 대신 공여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대북 경제원조를 지원하는 국가, 국제기구, 국내외 시민단체의 의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도적 지원이다. 둘째, 북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지원이다. 셋째,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이다. 넷째, 특정지역을 임대하여 항만과 생산기지, 그리고 관광특구 건설을 위한 지원이다. 다섯째, 북한지역의 개발 지원이다. 남한과 중국의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지역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41) Thomas Richter,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me Maintenance in Egypt,” *Debating Arab Authoritarianism*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pp.181-182.

42) Mustaque Khan, “Rents, Efficiency and Growth,” pp.33-35.

43) 한국은 물론 중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적 대북 송금 역시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북중 접경지역을 경유하여 송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대북 송금을 받기 위해서 중국의 차명계좌(중국식 표현: 위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인적교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 그렇지만 사적 대북 송금은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식적인 대북 경제원조만을 다루기로 한다.

대북 경제원조의 그 규모와 지원형태는 매우 유동적이다. 대북 경제원조는 대부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정책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반적인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공여자는 수혜국인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 역시 공여국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은 원조수혜의 전제조건들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핵무기 포기와 핵사찰을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했지만, 이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문제의 발단을 공여국의 잘못으로 돌렸다. 이와 같은 공여국과 수혜국 사이의 불신은 대북 경제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대북지원 방식과 수준은 남북관계의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북원조 문제에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들은 핵문제,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남정책, 주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대북정책, 국제사회의 대북여론, 집권세력이 대북정책과 이데올로기적 성향,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내부의 정치사회 세력 관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 가운데 대북원조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집권세력의 대북정책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외적 변수들 보다 남북한 공조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북원조의 선결조건으로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내세웠으며, 이 해결과정에서 남북한 관계보다는 6자회담에서 다자주의적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자연히 북핵문제와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대북원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남한의 대북지원 현황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경제위기 초기인 1995년도에 가장 높다가 1996년을 제외하고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 6.15 선언이 있었던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어 2010년부터는 김대중 정부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 이유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시작된 결과이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12일 북한제재를 위한 1874호를 결의한다. 1874호는 1차 핵실험 이후 발표된 1718호와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더욱 더 강력한 제재조치였다(<표 4> 참조). 이는 대북원조가 감소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증감율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 대북지원이 과거와 비교할 때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대북지원 가운데 민간차원의 지원은 크

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약 2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표 3〉 한국의 대북 지원현황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1995	<b>23,200만불(1,854억원)</b>	<b>25만불(2억원)</b>	<b>23,225만불</b>
	쌀 15만톤	담요 8천매	<b>(1,856억원)</b>
	직접 지원	국적 경유	
1996	<b>305만불(24억원)</b>	<b>155만불(12억원)</b>	<b>460만불</b>
	CSB, 분유, 기상자재	밀가루, 분유, 식용유	<b>(36억원)</b>
	UN기구 경유	국적 경유	
1997	<b>2,667만불(240억원)</b>	<b>2,056만불(182억원)</b>	<b>4,723만불</b>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b>(422억원)</b>
	UN기구 경유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1998	<b>1,100만불(154억원)</b>	<b>2,085만불(275억원)</b>	<b>3,185만불</b>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밀가루, 옥수수, 비료, 한우, 비닐, 등	<b>(429억원)</b>
	UN기구 경유	남북적십자 경유	
1999	<b>2,825만불(339억원)</b>	<b>1,863만불(223억원)</b>	<b>4,688만불</b>
	비료 11.5만톤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4만톤 등	<b>(562억원)</b>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2.10~)	
2000	<b>8,139만불(978억원)</b>	<b>3,238만불(387억원)</b>	<b>11,377만불</b>
	비료 30만톤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b>(1,365억원)</b>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	
2001	<b>7,522만불(975억원)</b>	<b>6,017만불(782억원)</b>	<b>13,539만불</b>
	내의 150만벌,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b>(1,757억원)</b>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2002	<b>8,915만불(1,140억원)</b>	<b>4,577만불(576억원)</b>	<b>13,492만불</b>
	옥수수10만톤, 비료30만톤, 말라리아방역	농기계, 의류, 의료장비, 씨감자 등	<b>(1,716억원)</b>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2003	<b>9,377만불(1,097억원)</b>	<b>6,386만불(766억원)</b>	<b>15,763만불</b>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향생제 등	<b>(1,863억원)</b>
	직접지원/WFP/UNICEF경유	한적/ 독자창구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b>2004</b>	<b>11,541만불(1,313억원)</b>	<b>13,250만불(1,558억원)</b>	<b>24,791만불</b>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10만톤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등	<b>(2,871억원)</b>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독자창구	
<b>2005</b>	<b>13,588만불(1,360억원)</b>	<b>7,666만불(779억원)</b>	<b>21,254만불</b>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비료 35만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밀가루, 의료설비, 농업용비닐 등	<b>(2,139억원)</b>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b>2006</b>	<b>22,740만불(2,273억원)</b>	<b>7,088만불(709억원)</b>	<b>29,828만불</b>
	비료 35만톤, 수해복구 지원,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등	<b>(2,982억원)</b>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b>2007</b>	<b>20,893만불(1,983억원)</b>	<b>9,568만불(909억원)</b>	<b>30,461만불</b>
	비료30만톤,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 수해복구,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의류, 의료설비, 연탄, 농자재 수해복구 등	<b>(2,892억원)</b>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b>2008</b>	<b>3,996만불(438억원)</b>	<b>6,460만불(725억원)</b>	<b>10,456만불</b>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의료장비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의류, 농자재, 연탄, 양묘장 자재 등	<b>(1,163억원)</b>
	직접지원/WHO/WFP/UNICEF/IVI 경유	한적/독자창구	
<b>2009</b>	<b>2,420만불(294억원)</b>	<b>2,858만불(377억원)</b>	<b>5,278만불</b>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지원, 의료인력교육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식량, 의약품, 생필품, 연탄 등	<b>(671억원)</b>
	직접지원/WHO/IVI/UNICEF 경유	독자창구	
<b>2010</b>	<b>1,780만불(204억원)</b>	<b>1,748만불(200억원)</b>	<b>3,528만불</b>
	신종플루 지원 신의주 수해지원 <sup>1)</sup>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밀가루, 분유, 옥수수, 의약품, 의류 등	<b>(404억원)</b>
	직접지원	한적/독자창구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2011	565만불(65억원)	1,173만불(131억원)	1,738만불
	영유아, 의약품지원	분유, 두유, 의약품, 밀가루, 말라리아 방역약품 등	(196억원)
	UNICEF 경유	독자창구	
2012	만불( 억원)	308만불(35억원)	308만불
6월 현재		밀가루, 아동복, 의약품, 의료장비 등	(35억원)
		독자창구	
합계	141,572만불(14,732억원)	76,521만불(8,627억원)	218,093만불(23,359억원)

1) '11.2 정산이 완료되어 '11년도 통계에 계상되었던 '10년도 수해지원액(72억원)을 실제 지원 연도인 '10년도 지원액에 포함 정정('11.6)

출처: 통일교육원,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2012년 6월).

〈표 4〉 유엔 대북제재

구분	결의 1874(2009.6.12)	결의 1718(2006.10.14)
무기 금수 및 수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 대외 수출 금지</li> <li>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물자 이전·수출 금지</li> <li>핵관련 통제품목 리스트를 2007. 11월 기준 NSG 리스트로 업데이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재래식무기 등록제도상 7개 무기류(탱크·장갑차·대포·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li> <li>대량살상무기(WMD) 및 대륙 간 미사일과 관련물자</li> <li>사치품</li> </ul>
화물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행·발 화물 검색</li> <li>기국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의심선박 검색</li> <li>금지품목 발견 시 국제법에 따라 압류·처분</li> <li>검색·화물압류·처분 검색, 부동의 등 관련사항의 제재위 보고</li> <li>의심선박에 대한 지원 서비스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금지품목(상기 금수 무기, 특히 WMD미사일 관련 물자)을 적재한 북한행·발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조조치 제공</li> </ul>
금융·경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MD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li> <li>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원의 신규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li> <li>WMD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MD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 또는 제재위 지정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자금·여타 금융 자산 및 경제재원 동결 및 자금, 금융자산, 경제재원 등 개인 단체에 대한 이전 금지</li> </ul>

출처: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 참조.



〈표 5〉 미국의 대북지원(1995~2011)

(2011년 12월 현재)

회기 연도	식량지원		KEDO 지원 (만달러)	6자회담 관련지원 (만 달러)		의약품 및 기타지원 (만달러)	합계 (만달러)
	물량 (메트릭 톤)	금액 (만달러)		원유	핵불능화		
1995	0	0.00	9.50	-	-	0.20	9.70
1996	19,500	8.30	22.00	-	-	0.00	30.30
1997	177,000	52.40	25.00	-	-	5.00	82.40
1998	200,000	72.90	50.00	-	-	0.00	122.90
1999	695,194	222.10	65.10	-	-	0.00	287.20
2000	265,000	74.30	64.40	-	-	0.00	138.70
2001	350,000	58.07	74.90	-	-	0.00	132.97
2002	207,000	50.40	90.50	-	-	0.00	140.90
2003	40,200	25.48	2.30	-	-	0.00	27.78
2004	110,000	36.30	0.00	-	-	0.10	36.40
2005	25,000	5.70	-	-	-	-	5.70
2006	0	0.00	-	-	-	0.00	0.00
2007	0	0.00	-	25.00	20.00	0.10	45.10
2008	148,270	93.70	-	106.00	25.00	0.00	224.70
2009	21,000	5.60	-	15.00	-	4.00	24.60
2010	-	2.90 <sup>a</sup>	-	-	-	0.60	3.50
2011	-	-	-	-	-	0.90	0.90
합계	2,258,164	708.15	403.70	146.00	45.00	10.90	1,313.75

자료: USAID, 미국 농무부와 국무부, KEDO

주석: 미국 정부의 민주주의 촉진(democracy promotion)과 난민 지원(refugee support) 프로그램은 대북지원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a.: 회기년도 2010년 2백만 9천 달러는 회기년도 2008년도에 제공된 세금의 예산조정

출처: Mark Manyin and Mary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p.3

미국의 대북지원은 역시 핵문제와 6자회담의 진척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미국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중반 현저히 감소해서, 2006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에 기초한 핵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보고에 따라서 2002년 가을에 에너지 지원을 중단했다. 2007년 미국은 에너지 지원을 다시 재개했다. 그 해 7월 6자회담 이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연변 플루토늄 핵시설을 동결하고 불능화하는 것을 대가로 중유공

급을 시작했다. 2008년 12월 미국은 약속한 중유 200,000톤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핵실험은 또 다시 미국의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sup>44)</sup>

또한 미국은 인도적 지원 단체를 위압하는 새로운 제한 때문에, 2006년과 2007년에 식량원조 역시 중단했다. 2008년 5월 부시 행정부는 대북 식량원조를 500,000 메트릭 톤(MT)(WFP 경우 80%, 비정부기구 컨소시엄 20%)을 발표했다. 이후 12월에 미국의 WFP로의 수송은 협의 이행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차이 때문에 연기된다. 2009년 3월 북한은 미국의 계획 가운데 NGO의 비율을 차단했다. 그 결과 미국은 전체 170,000MT(약 100 백만달러)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북한에 의료지원과 2010년 홍수피해로 인한 구호물자를 지원했다.<sup>45)</sup>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은 남한과 달리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의 강경일변도의 정책과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북지원 문제에서 원조배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46)</sup> 이는 원조 배분의 권한을 가진 북한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 원조물자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불신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는 미국 외교만의 특성이 아니라 최근 원조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핵문제로 북한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회복되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표 6> 참조).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에 UN제재 협의과정에서도 중국은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UN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후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방북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외교적 입장이 미국과 한국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 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중국을 통해서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은 동맹외교를 근간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견해가 일치하기 어렵다. 중국은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주해왔다. 북한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도

44) Mark Manyin and Mary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June 2011), p.1.

45) *ibid.*, p.2.

46) *ibid.*, pp.3-4.

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개발지원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자국의 동북지역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핵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북중 무역의 증가와 대북 무상원조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북중 무역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1,973,974(16.1)	2,787,279(41.2)	2,624,608(-5.8)	3,465,678(32.0)	5,629,192(62.4)
수출	581,521(24.3)	754,046(29.7)	808,728(7.2)	1,187,862(46.9)	2,464,186(107.4)
수입	1,392,453(13.0)	2,033,233(46.0)	1,815,880(-10.6)	2,277,816(25.4)	3,615,006(38.9)
수지	-810,932	-1,279,187	-1,007,152	-1,089,954	-700,820

주: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중국통계 DB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p.14.

## 제4장 탈산업화 경향의 심화와 대외의존도의 증가

외연적 렌트의 유입으로 오히려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탈산업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경제가 2000년대 이후에도 탈산업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먼저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시장화’ 때문이다.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계획경제하에서 억제되었던 사회적 수요가 시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산의 정상화’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실이라면, 사회적 수요가 일정정도 충족되어 인플레이션 상승추세가 약화되었어야 한다.<sup>47)</sup> 1998년을 기점으로 고난의 행군시기 급등했던 물가가 한때 안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2002년 7월 1일 <경

47) 북한의 경제학술지인 『경제연구』는 생산의 정상화를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조건에서 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고 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룡빈, “생산의 정상화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기본특징,” 『경제연구』, 제2호(2001), pp.12-14.

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가격과 임금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급등하였다.<sup>48)</sup> 인플레이션은 2005년 이후 보수노선으로의 정책적 선회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상승추세는 2009년 11월 30일 다섯 번째 ‘화폐개혁’이 단행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5차 화폐개혁은 사회적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이 시장의 확대를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수요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표 7> 참조). 화폐개혁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부문에 대해서는 100:1로 액면절하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 단기간에 화폐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화폐와 상품의 불일치 때문이다. 이는 통화량 조절의 실패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상품의 공급부족을 의미한다. 통화량 조절의 실패가 초과수요의 원인이라면 공급부족은 투자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위기 이후에도 생산수준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낮은 공장 가동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약 20~3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49)</sup> 실제로 북한의 공장 가운데 상당수의 공장들은 ‘고난의 행군기’에 완전히 가동을 멈추었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0)</sup> 물론 북한의 공식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기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2009년까지 공장가동률의 변화는 크지 않다. 화학섬유 같은 경우에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5~20% 내외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화학비료는 상대적으로 공장가동률이 높게 유지되어 대략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생산능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sup>51)</sup>

북한의 계획당국 역시 공장가동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특히 계획당국은 2007년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강조하면서, 국가역량을 이 분야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2009년 성진제강에서 무연탄으

48)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114.

49) 1996년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은 공식적으로 공장가동률이 20~30%수준이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북한의 공식통계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데에 있다. 실제 공장가동률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 김영남 외교부장의 발언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정영식, “빈사의 북한, 미·일에 “SOS” 손짓,” 『뉴스플러스』 제66호(1996. 1.2).

50) 예컨대 북한의 금성 트랙터(트랙터) 공장의 경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완전히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10~20%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이 돌아야 숨통 트인다.” 『중앙일보』 2004년 5월 6일자.

51)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p.34-35.

로 철강을 만드는 작업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 3월에는 17년만에 2.8 비날론 공장을 재건하였다. 또, 2010년 4월 남흥화학기업소에서 무연탄을 이용하여 질소비료 생산하였으며,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2011년 10월에 무연탄을 원료로 질소비료 생산을 시작했다.<sup>52)</sup>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11년 3월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기계, 화학 공업부문들의 지방산업 공장들의 ‘만가동’을 독려하고 있다.<sup>53)</sup> 그러나 계획당국의 정책의도와 현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재가동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대북온라인 소식지 『NK 지식인연대』에 따르면, 2.8 비날론 공장은 카바이트 생산공정 가운데 1개 정도만 가동되고 있고, 남흥 청년화학 공장은 생산공장 가운데 일부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성진제강소와 김철제철소 역시 기술적 미비로 시험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보도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하여, 무연탄과 연탄을 이용한 북한의 토착기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sup>54)</sup>

〈표 7〉 화폐 개혁이후 북한시장 쌀 가격(kg) 추이

단위	2009년 12월 초	2010년 1월말	2월중	3월	4~6월	7~8월
북한 원	20원대	600원대	300~400원	3월초 1,000원대 3월말 500~600원	400~500원	1,000원 내외

출처: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48.

사실 북한 언론들의 공식적인 발표를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정책적 뒷받침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가동이 시작된 공장들은 주로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과 기계와 화학 공업부문의 공장들이다. 이렇게 특정산업 부문에 집중적인 자원동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부문의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7> 참조). 북한의 경제당국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다른 부문, 특히 경공업과 농업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비추어볼 때 이것이

52) 조선중앙방송의 내용을 “[클로즈업] 함남 사람 평양 초창,” 『KBS 남북의 창』 2011년 11월 5일자에서 재인용.

53) “지방공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2011년 3월 10일자.

54) “북한, ‘주체공업’ 성과 과장선언으로 일관,” 『NK지식인연대』 2011년 6월 27일자(검색일: 2011. 9. 3).(<http://www.nkis.kr/board.php?board=kkknewsmain&command=body&no=348>)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좋았던 1950~60년대에도 산업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병목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정책적 지원으로 중공업 부문과 석탄화학 부문이 가동됨으로써, 빈사상태에 있는 경공업과 농업부문과의 생산력 격차가 더욱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중공업 부문에서도 공장가동률이 일정 수준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탈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산업부문의 상황을 보면 특정부문의 집중적 지원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 한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화학공업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성장이 지속되었다. 반면 농림어업의 경우 2008년 8%가량 성장했지만, 2007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9%였다. 경공업 부문 역시 2005년 3.8%, 2008년 1.3% 성장했지만, 2006, 2007,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는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며 농업생산을 채근했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인민경제생활 향상’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2005년 이후 보수노선으로의 회귀, 2006년 핵실험이후 대북 재재로 인해 심화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의 문제를 소위 ‘자력갱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rhetoric)에 불과한 것이다.

새롭게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은 지난 4월 15일(태양절) 연설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라며, 다시 한 번 인민생활 향상을 주장했다.<sup>55)</sup> 그리고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은 협동농장 분조 규모를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사실상 가족규모?), 계획 생산물을 국가 7 대 농장원 3으로 분배, 초과 생산량은 농장원 차지 서비스 및 무역 분야에서 국가기관 및 편의협동기관 명의로 개인자본 투자하는 것의 합법화 등이다.<sup>56)</sup> 김정은의 등장이후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국내 북한연구는 상반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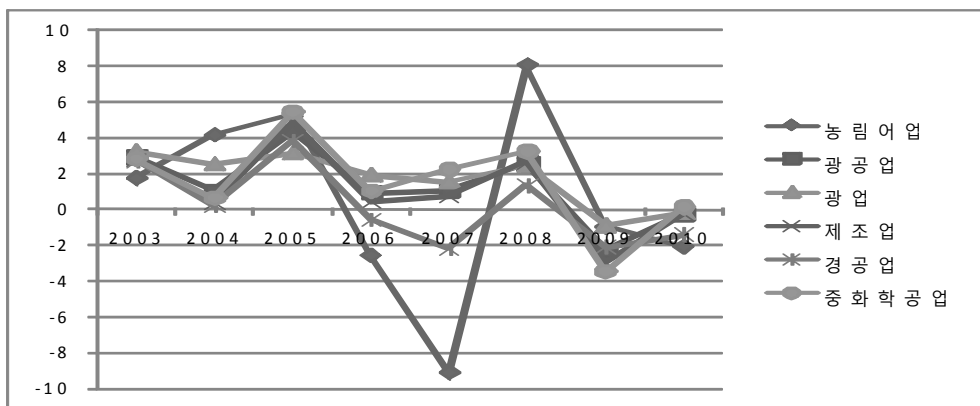
55) “북 경제 개혁 성공하려면, 김정은이 직접 챙겨야,” 『미국의 소리』 2012년 7월 24일 보도. 홈페이지(<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443946.html>) 참조.(검색일: 2012. 7. 30)

56) 박형중, “북한의 ‘6.28 방침’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12. 7. 24)

를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개혁과 개방의 신호탄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의 약탈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직 김정은 이후의 변화의 성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은 어렵지만, 이러한 변화가 적어도 현재까지 곤궁한 인민생활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태양절 연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주장하기 이틀 전, 북한은 광명성 3호를 발사했으며 궤도진입 실패를 스스로 시인했다.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시장화와 밀무역의 확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만약 당과 국가의 바램대로 인민경제 선행 부문과 경제의 ‘주체화’가 성공하여 이들 분야가 경공업과 농업을 선도했다면, 계획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제한적으로라도 수요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시장화 확산의 약화 혹은 쇠퇴로 표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화폐개혁 이후에도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sup>57)</sup> 화폐개혁은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계획체제로 결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부문 만큼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차별적인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 결과 구매력은 증가했지만, 대중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라도 이를 충족시키려 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단위: %)



출처: 한국은행; 북한주요통계지표(2011), p.81에서 재인용.

〈그림 7〉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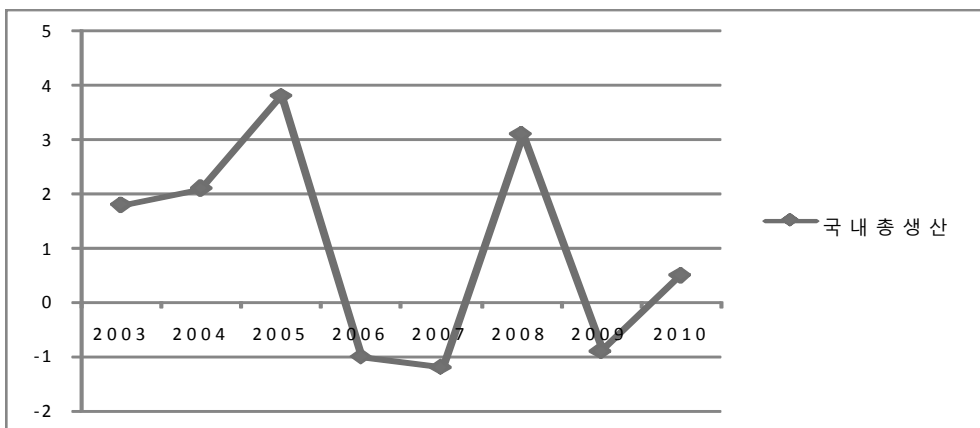
57) 화폐개혁 직후 춘궁기에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상승을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쌀값이 안정되었다. 그 이유는 시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강택 외(2011), p.48.

경제위기의 지속과 탈산업화의 징후들은 국내총생산의 낮은 성장률로 최종 확인할 수 있다. WFP/FAO/UNICEF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GDP의 성장률은 2003~2005년 사이에 그리고 2008년에 1.8~3.8%의 성장을 하지만 2006년과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 GDP의 성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8> 참조). 이러한 경향은 한국은행의 통계에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성장률의 차이는 있지만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9년에는 앞의 통계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었다(<그림 8> 참조). 특히 2005년 이후 낮은 경제성장은 보수노선으로의 정책선회 이후 계획경제의 복원을 위해서 시도된 일련의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준다. 결국 이는 북한경제가 ‘정치적 네덜란드 병’에 처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표 8〉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질 GDP 성장(%)	1.8	2.2	3.8	(-1.1)	-2.3	3.7	(-0.9)
실질 GDP 지표 (2002=100)	102	104	108	107	104	108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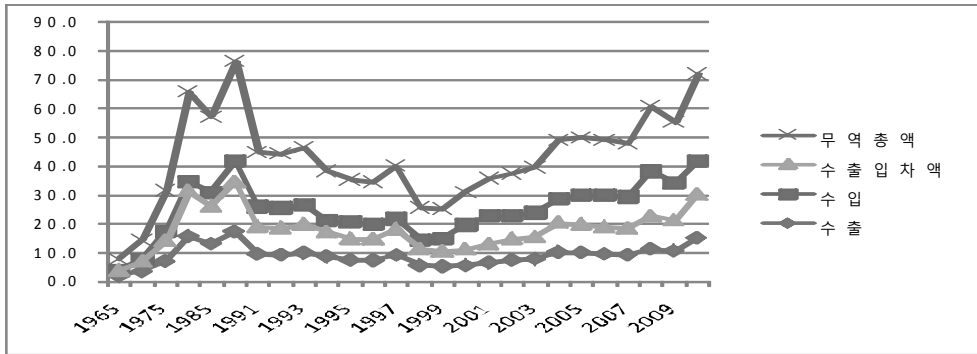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gust 2010 Country Report and earlier issues;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DPRK*(March 24, 2011), p.10에서 재인용.



출처: 한국은행; 북한통계시스템, p.81에서 재인용.

〈그림 8〉 북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변화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KOTRA;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1), p.74에서 재인용

〈그림 9〉 북한 대외거래의 변화

국내총생산의 부족은 무역 증가, 특히 수입 증가를 통해서 확인된다(<그림 9> 참조). 물론 무역총액의 변화를 볼 때, 최근 무역총액은 1990년대 초반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1990년대 경제위기 시점에도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며, 수출입 차액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점은 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전환이 일어난 시기로서, 소위 사회주의 시장과의 국제거래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더욱 악화된 공급부족을 수입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가파르게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 시기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내생산이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북한의 수입품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에는 ‘광물 생산품’과 ‘비금속과 이들의 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차츰 ‘직물과 직물품목’과 ‘기계류와 기계장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표 9>, <그림 10> 참조).<sup>58)</sup> 다음 주요한 교역대상국인 한국으로부터 반입된 품목들(원조 포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석유류, 농림수산물, 전기밥솥·중전기 등 전자전기제품 등이다.<sup>59)</sup> 이러한 해외공급이 국내 생산에서 차지

58)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59)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한국으로부터 들여온 물품들은 가공무역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를 포함하기에 모두 비생산적인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는 가공무역 단계에서 경화수입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국내생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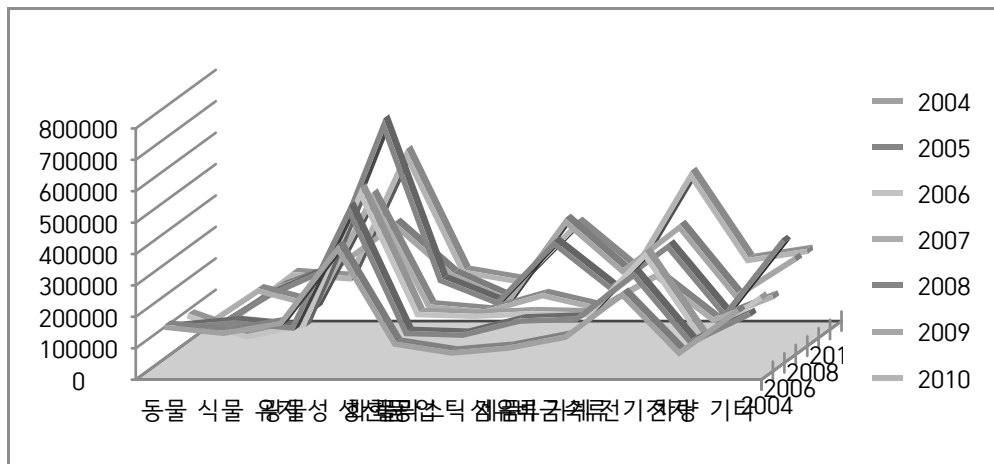
하는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00년대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에너지 부족 그리고 식량부족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산업부문의 회복이 극히 미진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원자재의 수입이 2004년을 전후로 급상승한다는 점은 국방공업과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공장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9〉 북한의 수입품목별 변화 추이

(단위: \$천)

	동물 제품	식물 제품	유지, 조제 식료품	광물성 생산품	화학 공업품	플라 스틱 제품	섬유류	비금속 류	기계, 전기 전자	차량	기타
2004	159450	140442	173117	409550	106413	78052	93232	128364	262911	77254	208126
2005	130845	148177	131095	502444	113770	108144	153175	159583	299923	84725	171405
2006	140193	75536	115045	532085	147294	141609	149894	145808	335975	69451	196118
2007	74903	195887	148033	491350	144997	128907	180755	138796	242414	102101	174163
2008	46013	155733	236613	694839	202484	130637	318848	176729	309246	91698	322638
2009	39900	155064	220938	352225	193470	113426	362538	204831	344829	124345	239466
2010	30780	167746	154835	547678	175552	144605	328137	178280	482670	212772	240716

(단위: \$천)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2010년.

〈그림 10〉 북한의 수입품목별 변화 추이

북한의 수입의존 현상은 공식적인 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비공식적인 거래를 포함시킨다면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밀무역’으로 일컬어지는 북한과 중국 간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sup>60)</sup> 첫째, 일제 중고자동차나 신차를 대상으로 하는 ‘되거리 무역’이다. 되거리 무역은 이익이 높기 때문에 개인만이 아니라 무역기관과 외화벌이 기관까지 뛰어들고 있다. 둘째,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물물교환이다. 주로 북측의 주석, 구리, 약재, 인삼, 수산물, 수렵물 등이 중국측의 쌀, 밀가루, 담배 등과 교환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상인이 중국제품을 밀수해 들여오는 경우이다. 밀수는 ‘보따리 무역’으로 일컬어지는 소규모 밀수와 국경수비대의 묵인아래 중개업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대규모 밀수가 있다. 밀무역의 세 가지 형태 가운데 첫 번째가 외화벌이를 위한 수출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국내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입이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인 밀무역은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산의 제품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중국 제품의 의존비율의 이렇게 높다는 점은 곧 국내 공급부족을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표 10〉 시장유통 제품 중 중국산 비율

(단위: 명, %)

		50%	60%	70%	80%	90%	95%	합계
식료품	응답자 수	40	10	26	39	29	-	144
	비율	27.8	6.9	18.1	27.1	20.1	-	100
공산품	응답자 수	-	8	11	25	55	58	157
	비율	-	5.1	7.0	15.9	35.0	36.9	100
전 제품	응답자 수	-	15	30	52	40	17	154
	비율	-	9.7	19.5	33.8	26.0	11.0	100

출처: 조명철 외(2005), p.156.

60)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118-124.

## 제5장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심화

국가가 수취한 외연적 렌트는 생산의 복원을 위해서 사용되기 보다는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연적 렌트가 관료계급의 자원동원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율성을 증대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본래 계획경제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생산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히 ‘국가예산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탈산업화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연적 렌트는 관료가 정책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그 결과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계획의 영역에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선행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방공업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2005년 말 이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중공업 우위의 축적노선은 강행되었다.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공업 부문에 대한 축적을 강화하는 일은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다. 북한의 계획당국이 중공업 우위의 축적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지배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중공업 우위의 축적노선을 고집함으로써 계획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하는 일은 ‘권력승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둘째, 관료적 자기특권화 경향의 다른 하나는 시장화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의 렌트추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렌트추구의 첫 번째 방식은 관료들이 직접적 상업적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역회사를 건립하여 외화벌이에 집중하게 된다. 두 번째는 시장화를 주도하는 ‘돈주’와 같은 신흥 부유계층을 후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 제1절 중공업 우위의 축적과 중앙집권적 지배 질서의 복원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이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선군정치의 표방에 발맞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경제 전략을 고수해왔다. 국방공업 우위의 발전전략은 과거 ‘중공업 우위의 발전전략’을 이룬바 선군시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간주된다.<sup>61)</sup> 그 근거는 국방공업의 우위의 발전전략이 중공업 우위의 이룬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공업과 중공업이 ‘생산기술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군수품의 품종이 늘어나고 그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더욱 더 깊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sup>62)</sup> 다시 말해 국방공업 우위의 발전은 중공업 우위의 발전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방공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국방공업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63)</sup> 그 이유는 첫째, 인민경제의 기술적 기초개선을 추동하기 때문이다. 국방공업이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민수부문에 도입, 보급되게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의 생산적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이 부문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군수품 생산과 연관된 부문들에서 생산하는 원료, 자재, 부분품들의 질을 높이도록 기술개선과 현대화를 향상시킬 것을 자극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국방공업과 다른 생산부문간의 ‘재생산적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빠른 발전을 이룩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재생산적 연계에서는 중공업의 역할이 강조된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전략은 전군 현대화와 전민 무장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이다.<sup>64)</sup> 그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군수생산을 정상화하고 군수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국방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전당, 전국, 전민이 국방공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군수생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내각’과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sup>65)</sup>

북한의 국방공업에 대한 실제 투자규모는 알기 어렵다. 다만 1990년대 경제위기

61) 조영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기본로선의 계승발전,” 『경제연구』 제4호(2006), pp.2-4.

62) 림광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토대강화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 『경제연구』 제3호(2006), p.5.

63) 황철, “국방공업우위의 경제토대는 강성대국 건설의 믿음직한 담보,” 『경제연구』 제1호(2006), pp.13-14.

64) 황철(2006), p.14.

65) 정영섭,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로선,” 『경제연구』 제2호(2006), p.11.

로 인해서 군수공장의 가동률 역시 감소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다.<sup>66)</sup> 그러나 공장 가동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과 실험발사가 지속되었다. 1993년 5월 29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로동1호’가 동해상에 발사된 것을 비롯해서, 98년 8월 ‘대포동 1호’<sup>67)</sup>, 2003년 2월, 3월, 4월, 10월 지대함 미사일 서해와 동해서 시험발사, 2005년 5월 동해상에서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킵 6기 발사, 2008년 3월 28일 서해상에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3발 발사 등이 그것이다.<sup>68)</sup> 그리고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일단락 된 줄 알았던 핵위기는 북한이 2003년 1월 또 다시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지속되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2009년 4월 25일에는 인공위성 ‘광명성 2호’을 발사했다.<sup>69)</sup> 이와 같이 미사일과 핵실험,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은 연구개발부터 발사실험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sup>70)</sup>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군사비 지출은 제한된 자원의 인위적인 집중투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다른 부문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등장이후에도 북한의 군비지출은 지속되고 있다. 4월 13일 북한은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sup>71)</sup>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 로켓이 기상관측용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추진체라고 주장했

66)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에 이미 군수공장들이 생필품 생산에 참여하였다. 김정일은 민수부문의 경공업 공장들의 기술이 낮고 생산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의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생필품 부족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군수부문(제2경제위원회)가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군수품 공장에서 생필품의 생산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자재’를 활용한 것으로서, 외화수입을 위해서 수출용 생필품을 생산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생필품 생산 산업은 거의 수행되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84-86.

67) 북한은 이를 대포동 미사일로 인정하지 않고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1998년 9월 8일 발표했다. “<광명성 1호>는 지구를 돈다,” 『로동신문』 1998년 9월 8일자.

68) 김은영, “북한 미사일 주요 일지 및 발표문,”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2009), pp.49-50.

69) 조선중앙통신은 ‘광명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실패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한국과 미국은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70) 국내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했는가를 둘러싼 논쟁을 한 적은 있는 반면 미사일과 핵실험에 관련된 체계적인 비용 산출은 없었다. 여기서는 연합뉴스의 대략적인 계산을 소개하면, 2009년 미사일 발사비용은 약 3억 4천 4백만 달러 정도이며, 여기에 핵실험 비용을 포함하면 7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 비용 얼마나 될까,” 『연합뉴스』 2009년 7월 4일자.

71) “北,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국방부 발표,” 『조선일보』 2012년 4월 13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3/2012041300434.html?Dep0=twitter](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3/2012041300434.html?Dep0=twitter)) (검색일: 2012. 7. 20)

다. 그러나 로켓과 인공위성 실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은 이로부터 이틀 뒤에 인민생활 향상을 발표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이다. 로켓과 인공위성 발사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이는 인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은 이를 대미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 들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게 됨으로써, 주변국들의 지원 역시 어렵게 만들 뿐이다.

북한의 전체 군사비 지출규모를 공식적으로 추계하기는 힘들다. 2000년대 최고 인민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예산에 따르면 국방비는 총예산규모에서 약 14.3~16%를 차지한다.<sup>72)</sup> 특히 2007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에서는 2006년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으로의 “불패의 군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다고 자부하였다. 또 2008년 4월 9일 제11기 제6차회의에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물질적 보장사업”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로켓발사가 김정일 위원장 영도력의 성과로 선전되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국방예산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외의 정치적 조건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국방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네덜란드 병을 유발하고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일이지만, 권력의 입장에서서는 정치사회적으로는 큰 이득이다. 먼저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군의 정치사회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1990년대 경제위기와 권력승계가 맞물리게 되면서 군은 한편으로 권력상층부에서 직접적으로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물리력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군의 정치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군은 3대 권력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화

72)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2000년대의 국방비 지출은 과거와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1988~94년까지는 연간 11~12%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1996~2002년까지는 14%대를 유지하다가 2002년 이후 1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한다. 물론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가예산과 지출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국내외 연구는 일반적으로 국가예산규모나 경제실적 및 경제성장률 등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는 반면 국방비 지출은 과소평가되어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표 11〉 북한 국가예산중 국방비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방비 비율	14.3	14.4	14.9	15.7	15.6	15.9	16	15.7	15.8	15.8	15.8

출처: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서울: 통일연구원) 각 년도 참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적 경제행위에 대해 검열,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 미사일과 핵실험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이다. 군사적 대립이 심각해지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각종 지원을 약속받게 된다.<sup>73)</sup> 또 주변국과의 군사적 대립관계의 형성은 국내 사회에 위기의식을 촉발함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국방공업 발전의 전제조건은 중공업의 발전이다. 국방공업에 필요한 생산수단은 금속, 기계, 화학, 전력 공업 등과 같은 중공업의 강력한 토대위에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은 선군시대의 중공업의 기본 발전방향은 국방공업을 위해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이 빨리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기계와 화학, 그리고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전자와 정보 산업의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북한은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이른바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규정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은 경제의 기본토대를 이루는 기초공업부문으로서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취급된다.<sup>74)</sup> 먼저 전기산업은 공장과 기업소들이 가동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석탄은 연료, 동력의 기본 원천이며 공장의 중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으로 묘사된다. 셋째, 금속공업은 경제강국 건설이 ‘밑뿌리’로 그려진다. 철강재 없이는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 수 없으며 여러 부문에 필요한 기계설비 생산과 기본건설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철도는 ‘나라의 동맥’으로서, 철도운수가 발전해야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으며 공장과 기업소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문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5)</sup> 첫째,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

73) 일반적으로 북한이 이처럼 핵개발과 군비증강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벼랑 끝 전술’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모험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이성적인 행위라고만 할 수는 없다. 넬센(Neelsen)은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컬어 ‘위협 렌트(Drohrente)’로 명명한 바 있다. John Neelsen, “Rente und Rentierstaat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Staat, Markt und Rente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Darmstadt: Westdeutscher Verlag 1997), pp.134-135.

74) 강철민,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절박한 요구,” 『경제연구』 제2호(2008), pp.15-16.

75) 럽병호,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앞세우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제3호(2008), p.11; p.18.



진할 것을 주장한다.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조기에 끝나치고, 중소기업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탐사와 개발을 확대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셋째, 금속공업 부문에서 이른바 ‘우리식 철생산방법’의 도입을 통해서 금속공업을 ‘주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넷째, 철도운수 분야에서는 운수수단의 정비보강과 더불어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통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혁할 것이 제기된다.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 국가예산수입을 발표하지 않다가 1999년 재개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구체적인 계획이 명기되지 않을 때가 많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 간헐적으로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sup>76)</sup> 따라서 실제로 국가예산수입 가운데 중공업 부문의 투자비중을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의 경제실적 및 국가예결산보고에 따른 성과들을 분석해볼 때 이른바 인민경제선행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전력부문은 희천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금속 부문에서는 철광석,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은 2003~5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또 2005~7년에는 철강, 화학, 공작기계 공업부문의 공장들을 개선하고 재건설하였다. 2009년 북한은 주체철 생산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우주기술, 핵기술, 생물공학발전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성과를 과시하였다.<sup>77)</sup>

북한이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부문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공업 우위의 스탈린주의적 공업화 노선을 채택했던 이유는 단지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중공업 부문은 경공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높은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노동력의 부족은 외연적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 현상이다. 이는 곧 모든 인민들의 위계적인 명령경제 시스템이 계획경제 체계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8)</sup> 자연스럽게 공장과 기업들은 당의 명령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인전대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sup>79)</sup> 그래서 중공업을 포기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처럼 오랫동안

76) 각 년도 통일부의 “최고인민회의” 분석자료와 통일연구원의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분석”를 종합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참조.

77) 북한정도의 경제수준에서 핵과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자원투입과 높은 비용은 결국 국내 다른 산업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첨단기술 분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수준과 생산성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경제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는 네덜란드 병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78) Leszek Kolkowski, 『마르크스주의의 주요흐름 3』(서울: 유로 2007), p.81.

중공업 우위의 축적노선을 유지한 국가에서 중공업의 포기는 ‘정당성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5년 이후 시장개혁 조치들이 약화되고 계획경제의 복원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국방공업과 중공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위해서는 역시 경공업 부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이를 『경제연구』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으로 설명한다.<sup>80)</sup> 현존 사회주의의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지면서 ‘외화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해 경공업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의 공급과 이용 간에 긴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경공업 부문은 원료와 자재에 대한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서 ‘인민소비품’<sup>81)</sup> 생산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82)</sup>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현존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공업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도 ‘큰 국가적 투자없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필요한 소비품’만을 생산하는 경공업 생산구조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원자재를 절약하여 소비품 생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경공업과 소비재 생산에서 이와 같은 인식은 극히 제한된 투자를 통해서, 소비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공업 부문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조는 지방공업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면 ‘국가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인민소비품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자금을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방법으로는 지방에 있는 유희 노동력, 유희 자재, 원료를 최대한 동원 이용할 경우, 노동력, 노동대상, 노동수단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 투자 없이 소비품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79) Radoslav Selucky,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23.

80) 한성룡, “현시기 경공업생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1호(2008), pp.20-21.

81) 북한에서 인민소비품은 대중소비품, 기호품, 사치품으로 구분되면, 그 생산유통 범위에 따라 국가계획지표에 의해서 생산된 인민소비품과 ‘8월 3일 인민소비품’으로 구분된다. 인민소비품의 품종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김시남·김철, “인민소비품의 품종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것은 지방공업발전의 중요과업,” 『경제연구』 제3호(2006), pp.18-19.

82) 김길남,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제3호(2007), pp.9-10.

다. 그렇게 될 경우, 지방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업이 살아남으로써 지역마다 인민소비품 생산기지가 되고, 식료품과 일용품에 대한 지방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83)</sup> 이른바 원자재와 동력의 문제를 내부예비의 동원 - 여기에는 가정의 폐설물, 유헴자재, 농산물까지도 포함된다. - 과 대중동원을 통한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sup>84)</sup>

물론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2001년에는 국가예산비율 가운데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사용된 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다음의 몇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다. 종자혁명 및 두벌 농사를 확대추진했으며, 닭공장과 양어장을 확충하였다. 또 경공업 부문의 생산기지 확충 및 현대사업이 제시되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경공업 부문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조차 찾아보기 힘들다.<sup>85)</sup> 2005년에는 경제건설을 위한 주공 전선으로 농업을 강조하면서 국가예산 지출을 32.5%나 증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지출은 ‘양곡수매 보조금’을 위한 재정적 지출이었을 뿐이다. 2006년은 농업부문의 지출비중(전년대비 14.5% 증가)이 공개되었으며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평양방직 공장, 박천견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신의주신발 공장, 각 도 기초식품 공장들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선이 추진되었다. 다수확 품종의 새로운 종자를 보급하고 선진영농 방법과 능률 높은 새로운 기재들을 창안 하여 도입하였다. 원사목장을 완공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구성닭공장, 광포오리공장등의 개건과 확장이 진행되었다. 2007년도에는 평양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 등에 선진기술공정이 도입되었으며, 회령시, 장강군, 의주군 등의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 개건 및 공장, 기업소, 생활필수품 직장, 작업 반들이 개건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다수확 품종이 도입되고, 미루벌 물길공사가 진행되었다. 평북도 돼지공장과 사리원, 강계, 함주 등의 현대적 축산기지가 조성되었다. 2008년도에도 역시 농업부문의 증가율(전년대비 5.4%)만 발표하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추진되었음을 잠시 언급했을 뿐이다. 2009년도에는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회의에서는 2010년 경공업과 농업에 역점을 둘 것이

83) 로명성,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2호(2007), pp.14-15.

84) 김균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지방공업의 역할,” 『경제연구』 제1호(2008), pp.11-13.

85) 2002-2004년도 시기는 7.1조치와 그 후속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이다. 이시기에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보다는 세재개편 등을 통해서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취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계획되었다. 이듬해 3차회의에서는 2010년 경공업과 농업생산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예산지출은 경공업 10.9%와 농업부문 9.4% 지출이 증가한 것을 제외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과연 이정도 수준의 예산지출로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지출이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경공업과 농업생산에 근본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다소 궁색한 결과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경공업과 농업의 근본적 전환은 2009년 6월 김정일의 경제담화 발표와 11월 30일 화폐개혁 등의 일련의 보수적 조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고 있는 관련 산업부문의 경제실적들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외의 추계를 살펴볼 때 북한에서 산업부문간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공장가동률의 회복수준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보수적 경제노선이 본격화되면서 산업부문간의 격차는 더욱 더 심각해졌을 확률이 높다. 2012년 강성대국의 시작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보다는 단기간의 과시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원배분의 왜곡은 더욱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석탄화학산업 부문의 공장들이 재가동을 시작했다는 북한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자원배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배분 왜곡은 북한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다른 부문의 탈산업화를 통해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제2절 비생산적 시장화의 확산: 관료와 돈주의 불온한 협주곡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은 시장화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북한의 시장화는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관료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특권을 재생산한다. 외연적 렌트는 관료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원천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들은 회사를 설립하고 무역과 원조물자 등에 대한 국내외의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sup>86)</sup> 관료들은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권력기관 산하의 무역회사들을 통해서 ‘외화벌이’

86)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2009), p.124.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sup>87)</sup> 특히 7.1 조치 이후에 무역회사들은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이 공식 허용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상품을 수입해 국내시장에 유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었다. 내각지시 24호(2003. 5. 5)는 “무역성,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임시로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들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명하고 있다.<sup>88)</sup> 이렇게 벌어들인 외연적 렌트는 권력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체제유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상층의 관료들은 수취한 렌트를 사용하여 중하위 관료들의 충성과 지지를 획득한다.<sup>89)</sup> 또 무역회사들이 수입한 상품들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유통되기도 하며, 관료는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sup>90)</sup>

무역회사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와크(허가권)’가 필요하다. 와크가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기에 와크의 획득은 매우 중요하다. 와크는 시장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되며, 관료는 와크를 이용해서 무역거래를 통제한다. 와크를 가지지 못한 회사들은 권력기관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무역활동을 하게 된다.<sup>91)</sup> 다시 말해서 권력기관들은 무역 와크를 이용하여 외화벌이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이나 회사에 와크를 빌려주고 경제적 이득을 챙긴다. 무역회사의 명의를 빌리는 상당수는 ‘돈주’로 일컬어지는 신흥 부유계층이다. 돈주들은 무역회사의 직함을 부여받고, 국내에서 수출품들을 모아 중국 무역회사에 수출하고 이익(렌트)을 수취한다. 무역회사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이익금 가운데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신의 상급기관에 상납한다.<sup>92)</sup>

또한 관료계급은 ‘돈주’를 후견함으로써 시장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87) 권력기구가 외화벌이를 통해서 권력을 보존하고 특권을 재생하려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영훈의 분할경제, 차문석의 특권경제, 박형중의 특권적 회사 경제(공정경제 + 특권기관의 회사경제), 홍민의 시장기생형 관료주의 등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관료적 특권이 외화벌이(외연적 렌트)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개념들이다. 이영훈,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빈곤의 늪에서의 Big Push?,” 『북한경제의 현황평가 및 향후전망』 The Aisa Foundation and IFES Joint International Workshop Proceedings (2008), pp.63-64;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2009), pp.335-340; 박형중(2009), p.125; 홍민, “북한 시장일상생활연구,”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pp.325-326.

88) 양문수, “북한의 대외무역 운용체계,”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pp.153-154.

89) 차문석(2009), p.339.

90) 양문수(2010), p.154.

91) 홍민(2010), p.325; 양문수(2010), p.147.

92) 양문수(2010), pp.163-164.

재생산한다. 돈주는 시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시장활동을 시작해서 부를 축적한 세력으로, 장마당에서 직접 물건을 나르거나 팔지 않고 중간상인을 고용하여 전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상(巨商)과 같은 존재이다.<sup>93)</sup> 현재 돈주는 시장에서 독점적 가격결정권을 기반으로 이익을 전유하고 있다. 돈주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점적 렌트를 전유하지만, 렌트를 생산부문에 재투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적 시장이 형성된 이유는 국내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급제한의 이유는 첫째, 생산의 영역은 여전히 계획경제 시스템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생산행위는 비공식적, 불법적인 것으로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돈주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획득한 독점적 렌트를 전유하지만, 렌트를 생산부문에 재투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 돈주의 투자는 주로 가내수공업과 초기 메뉴팩처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94)</sup> 셋째, 최근 북한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재화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재화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sup>95)</sup> 돈주의 독점적 가격결정권은 단지 돈주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료들과의 후견관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돈주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돈주는 현재 북한체제의 특성상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적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배계급(관료계급)의 ‘정치적 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sup>96)</sup> 돈주들은 국가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공채를 사거나 현금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감사장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평상시에 돈주와 상인들에 대한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며,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관망하지만 통제가 필요할 때 단속한다.<sup>97)</sup> 그런데 관료계급 내부는 시장화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sup>98)</sup> 관료계급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돈주는 비호의

93) 정은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시장의 자생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2009), pp.172-173.

94) 정은이(2009), pp.183-192;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달: 4대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pp.249-252.

95)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56.

96)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4권 2호(2011), p.54.

97) 양문수(2010), p.259.

98)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229-247;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관료와 돈주의 관계는 관료계급 내부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하고 비영속적인 후견-피후견(patron-clients)’ 관계이다.

돈주에 대한 관료의 정치적 비호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가져 온다. 관료와 돈주 사이의 후견관계의 형성은 돈주가 정권과 체제에 대한 일탈과 저항을 어렵게 한다. 사실 돈주의 경제적 자율성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돈주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관료계급에게 뇌물을 공여한다. 그런데 돈주의 렌트추구 행위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 - 시장화와 같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제정책 결정 - 을 도출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로비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이는 북한정치의 비민주적이고 독점적이며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또 돈주의 존재 자체가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돈주들은 정치적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주한다.<sup>99)</sup>

또한 관료는 돈주와의 후견관계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북한체제는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서,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배질서를 공고히 해왔다.<sup>100)</sup>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를 통해서 계획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공장과 기업소는 더 이상 당의 명령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인전대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 공장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방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sup>101)</sup>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적인 시장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료는 노동자들을 계획을 통해 직접 관리·통제하는 대신 돈주들과의 후견관계를 이용하여 시장을 통해서 관리하려 한다.

조직형태와 관료정치”(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160-215.

99) 윤철기(2011), pp.54-55.

100)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2011), pp.235-263.

101) 북한의 『경제연구』는 노동력이 남는 이유를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력이 남고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하고 있는 데, 사실상 이는 공장가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노동력이 남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리명진, “남는 로력동원리용의 필요성,” 『경제연구』, 제1호(2009), pp.26-28.

권력은 대중들의 시장참여를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관리한다. 물론 여전히 권력은 계획을 통해서 위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제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주요 공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한다. 또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동원을 통해서 관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5차 화폐개혁 과정에서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계획체제 내로 노동자들을 재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출근 집단’ 전부를 계획내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자연히 대중은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시장 역시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의 자율성도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계획에서와 같이 위계적이지는 않지만, 돈주가 독점적인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대중은 계획에서도 시장에서도 자립하기 어려우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피동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관료계급의 경제적 토대가 계획에서 시장으로 변화되면서 관료가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재생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계획체제하에서 관료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중공업 부문의 우선적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실제로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는 초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관료적 특권의 정당성은 투자와 성장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그런데 시장화 과정에서 관료는 더 이상 생산과 투자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계획을 포기하고 전면적 시장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관료는 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화가 오히려 지배계급에 대한 정당화의 압력을 약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대신 관료계급은 다양한 렌트추구 행위를 통해서 자기특권을 강화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관료계급이 계획경제에서도 특정 생산부문을 제외하고는 생산과 투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계획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권력상층부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생산부문의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즉 관료계급은 경제적 기반이 시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기특권화 경향이 심화되어, 결국 ‘비생산적 특권계급’이 되었다. 관료는 해외원조와 외화벌이 등으로 벌어들인 외연적 렌트를 이용하여 권력기관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다시 외연적 렌트를 벌어들



인다. 뿐만 아니라 돈주와의 후견관계를 이용하여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관료의 자기특권화는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활동에 대한 감시권한과 돈주와의 후견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관료는 시장화의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계획체제하에서 정당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관료는 투자와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 경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은 북한경제에서 ‘정치적 네덜란드 병’을 고착화 시킨다.

## 제6장 원조 효과성 증대를 위한 조건과 대안 모색

### 제1절 원조효과성 문제와 발전이론의 위기

최근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부분이다. 원조효과성 논쟁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 지원이 수혜국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센과 타르프(Hansen and Tarp)는 원조효과성 연구를 3세대로 구분한다. 원조효과성은 발전이론의 맥락에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원조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과연 원조가 그 필요한 요소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1세대 연구에서는 주로 원조와 국내 저축률의 문제를, 2세대 연구에서는 원조와 투자 및 성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3세대 연구에서는 원조와 정책 간의 상호관계를 기점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sup>102)</sup> 원조효과성에 대한 지난 연구를 통해서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원조가 경제적 변수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정책과 거버넌스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다.<sup>103)</sup> 이 선언문은 2003년 원조 조화를

102) Hansen and Tarp, 임을출 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란,”(파주: 한울, 2011), pp.165-204.

10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2012. 6. 30 검색

([http://www.mofat.go.kr/trade/development/worldconference/data/index.jsp?menu=m\\_30\\_130\\_40&tmenu=t\\_6](http://www.mofat.go.kr/trade/development/worldconference/data/index.jsp?menu=m_30_130_40&tmenu=t_6))

위한 로마 선언과 2004년 마라케시 원탁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원칙을 점검하고 이들 합의가 제시한 교훈과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파리선언에서 제시된 핵심원칙들을 보면 (1) 수혜국의 주인의식, (2) 수혜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 (3)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 (4) 성과지향성 관리, (5) 상호 책임성 강화 등이다. 여기서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혜국의 개발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발전략은 시민사회, 공여국, 개발사업 관련 민간기관 등 사이의 개발파트너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 함께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리선언은 공여국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공여국의 필요가 아니라 수혜국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원조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공여국들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정치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조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여국과 수혜국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원조효과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대북원조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사회는 국제사회가 가진 일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원조의 효과성이 낮은 주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네덜란드 병’ 때문이다. 정치적 네덜란드 병이 발생하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북원조가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인터넷 대북언론 매체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북지원 물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 가운데 지방주민들일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 대북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산업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한의 주요언론들이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공장가동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셋째, 가장 결정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시스템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전전략과 시스템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원조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한편 대북원조는 남남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북원조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 방편은 대북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감안할 때 대북원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

하는 세력은 드물다. 다만 원조가 배분과 사용이 군사적 목적이거나 지배권력을 위해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북원조의 배분과 사용에서 모니터링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 또한 북한체제의 변화는 기대에 비해 미미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일상화된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겹게 살고 있다. 그런데 만약 북한체제의 변화, 특히 주민생활 개선에 대북원조가 기여할 수 있다면 원조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가(Who) 문제해결의 책임을 질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물론 북한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파리선언 역시 수혜국의 책임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특히 북한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은 단순히 경제발전 전략이 아니다. 계획경제 하에서 중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대중에 대한 당의 지배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sup>104)</sup>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에너지난과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방공업과 4대 선행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산업구조의 왜곡과 불균형을 더욱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렇지만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을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진행되었다. 때때로 ‘인민경제 생활’을 강조하면서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발표하지만, 실제로 일회성의 국면회피 전략에 불과할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도 전향적인 발전전략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권력세습 이후 안정적인 지배질서의 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대북 개발원조의 지원형태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원조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북원조의 형태 가운데 대부분은 인도적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혹은 핵문제 해결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과 에너지 지원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사회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 내부에서 대북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104) Radoslav Selucky,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p.23.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두 차례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국제사회의 여론 역시 결코 좋지 못하다. 그렇지만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스스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후, 북한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6.28 조치’가 발표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내외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 내용 역시 앞으로의 개혁을 전망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 북한경제의 회복과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입의 방식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무엇(What)을, 어떻게(How) 해야 하는가. 원조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외에도 저발전 국가들의 저발전이 더욱 더 심화되면서 발전이론이 위기에 와있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발전이론은 오랫동안 주변부 국가들에 부족한 어떠한 요소들을 지목하고, 시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상대적 불평등, 무역, 정부개입, 인적 자본(human capital) 등이 부족하거나 부재했기 때문에 저발전이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sup>105)</sup> 저발전이라는 결과의 핵심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독립변수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의 부족만으로 저발전의 원인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현실은 이론과는 달랐다. 주변부의 저발전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과학에서 현실의 위기는 이론의 위기를 의미한다.<sup>106)</sup> 첫째, 근대화 이론이나 종속이론(Palma 1978; Ramos 1974; O’Brien 1975)과 같은 전통적인 발전이론(Chakravarty 1987; Pieterse 1996)이 주장하고 있는 전략의 위기이다. 대중들의 생활에 트리클다운 효과와 더불어,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근간을 정립하는 전반적인 접근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Adelman, 2001:104; Hirshman 1971:44; Behrendt 1971:402; Meier 1984; Hemmer 1978:252-254). 둘째, 발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위기이다. 동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와 같이 경제발전이 발생한 곳에서, 주류경제학은 이를 특정한 경제발전 모델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자본주의 세계

105) Irma Adelman, “Fallacies in Development Theory and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Frontiers of Development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104-117.

106) Hartmut Elsenhans, “Overcoming Rent by Using Rent: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Zeitschrift für Ökonomie*. vol.1 no.1, pp.89-92.

시장의 역동성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이용하였다(Lal 1983; Toye 1987).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시장과 무역의 문제로 취급하고, 이를 다른 국가들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즉 이론적 검약성(parsimoniousness)을 위해서 그리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핵심적 문제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요한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발전이란 문제는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발전’이란 용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발전은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개념이기 보다는 어떠한 ‘가치’를 내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 개념에 함축된 내용에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들이 있다. 제어스(Seers)는 발전을 다음 세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설명한다.<sup>107)</sup> 무엇보다 그것은 발전의 주요한 척도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need)’를 충족시키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기본적 욕구에는 첫째, ‘충분한 먹거리’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특정한 수준 이하의 영양섭취가 나타나게 되면, 인간의 육체적 에너지가 소진될 뿐만 아니라 건강이 악화되게 된다. 곧 영양섭취는 인간의 생존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둘째, 생계수단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만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발전의 중요한 척도는 ‘노동’이다. 인구의 다수가 노동할 수 없는 상태, 즉 실업의 상태가 지속될 때, 그 누구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실업 상태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발전의 주요한 바로미터는 ‘평등’이다.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불평등은 저발전 사회에서 종교적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인종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를 그 누구도 발전된 사회로 평가하지 않는다.

엘젠한스는 저발전의 핵심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108)</sup> 첫째, ‘구조적 실업’이다. Georgescu-Roegen(1960)과 같은 학자들은 구조적 실업이 재생산비용, 즉 노동자와 그의 (핵)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Sen, 1966; Dandekar 1962; Minami 1966) 보다 노동의 한계생산이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

107) Dudley Seers, “Was heißt “Entwicklung”?”, *Peripherer Kapitalismus: Analysen über Abhängigkeit und Unterentwicklung*(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pp.40-46.

108) Hartmut Elsenhans, “Overcoming Rent by Using Rent: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pp.93-94.

다. 단위 자본당 산출이 이러한 한계 생산보다 더 높다. 평균생산이 노동의 재생산 비용보다 더 낮은 그러한 사회에서, 인구의 일정부분이 이주하거나 기근으로 죽게 된다. 둘째, 저발전 경제는 낮은 1인당 소득과 낮은 대중소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계소득 가운데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50~70% 정도이다(Khan 1963; Ray 2000). 집, 의류, 가계 설비, 그리고 완벽하게 동등한 비중을 가진 잡화 - 대부분은 지역적으로 소규모의 “비공식” 부문에 의해서 생산된다. - 의 형태로 비식료품 소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잉여와 부족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저발전 사회에서는 국내시장의 형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에서 잉여가 발생한다. 그러나 생산된 잉여는 배분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되면서 동시에 부족을 발생시키게 된다.

발전은 실업과 저소득,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저발전의 극복은 결코 쉽지 않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 그리고 구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저발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발전의 문제를 핵심적 생산요소의 부족이란 문제로 진단하려 했던 발전이론들은 위기에 와 있다. 또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시장의 자율성이 증대하는 것이 중요함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시장과 자유무역에 의존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히 저발전 국가에서 시장이 과연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성취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발전 사회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

## 제2절 원조효과성의 대안: 대중시장이론

본 연구는 저 발전을 어떠한 요소의 부족이라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발전이론과 달리 ‘평등’을 발전의 주요한 척도로 인식하는 ‘대중시장(mass market)’ 이론을 수용하고자 한다.<sup>109)</sup> 대중시장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케인즈주의적 사고와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를 접목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성장에서 완전고용에 관한 케인즈주의적 사고를 자본주의의 이행으로 확대시킨다. 계급투쟁에 대한 마르크스

109) Hartmut Elsenhans, “Rising mass incomes as a condition of capitalist growth: implications for the world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1(1983), pp.1-39.

주의적 사고를 시민사회 내부에서 완전고용과 대중소득 증가를 밑거름으로 노동계급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비로소 정치경제적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엘젠한스에게 자본주의는 대중소득의 증가를 통해서 구매력이 증가함으로써 대중수요가 확보되어 대중시장이 형성될 때 비로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엘젠한스는 저발전 경제의 핵심적인 특성을 주변계층(marginality)과 렌트(rent)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으로 설명한다.<sup>110)</sup> 먼저 주변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주변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문턱(threshold)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한계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다수의 인구는 농촌에 잔류하게 된다. 농촌에 잔류하게 됨으로써, 현상적으로 주변계층은 실업의 상태에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소득은 최저생계소득의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변계층은 노동 한계생산성이 현저히 낮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산업예비군과 다르다.

인구의 다수가 주변계층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력과 특권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경향을 가진다. 정치적으로 수직적(위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정치구조 내에 균열이나 경쟁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논쟁은 ‘이윤’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만 자본주의적 경쟁을 촉발한다. 즉, 국내시장이 취약하고 렌트가 지배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탈중앙집권화된 정치구조의 출현은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권력과 부를 독점한 지배세력에 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실현되기 보다는 오히려 렌트 배분의 권한을 세력과 그것에 의존한 세력(주변계층) 사이에 후견-피후견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주변계층과 렌트가 공존하는 정치사회구조에서 ‘대중소득’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 ‘토지(농지)개혁’이 필요하다. 농지개혁은 농업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산업자본형성에 기여한다. 농업잉여가 증가하여 산업자본 투자의 근간이 된다. 다른 한편 식료품 가격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실질임금의 상승은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이윤실현의 원천이 된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은 농촌에 잔류하고 있던 노동력을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준다.

저발전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자생적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110) Hartmut Elsenhans, "Rent, State and Marke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ansition to Self-Sustained Capitalism," Paper for the 10<sup>th</sup> Annual Meeting of the Parkistan Society of Development Economist in Islamabad(April 1994).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중수요를 빠른 시간에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부를 배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속적이기 어렵다. 생산 없는 분배는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으로 대중수요를 재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주변계층이 특권세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비민주적 권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와 생산은 대중수요 증가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시민사회 내부에서 노동계급의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된다. 그러면 “적절한” 투자란 무엇인가? 노동시장의 진입 문턱을 높이지 않고, 인구의 다수가 고용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투자이다.<sup>111)</sup>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노동시장에 요구되는 기술수준은 모두 ‘자본’이 결정한다. 그런데 개별 자본은 ‘효율성’을 잣대로 높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은 국내경제 전반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발전 사회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낮고 숙련도는 극히 낮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투자와 기술수준의 선택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투자의 기준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가질 수 있도록 균형적 산업구조의 발전이 필요하다. 저발전 사회는 국내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발전 국가들은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나 절대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산업이나 원자재 산업에 특화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국제시장 가격을 이용해서 소수의 특권층은 외연적 렌트 또는 국제 렌트(international rent)를 수취하게 되지만 주변계층이 사라지지 않는다. 곧 부의 편중이 심각해지고, 대중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대중시장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주변계층이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된다.<sup>112)</sup>

한편 대중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 무역이라는 수단을 포기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출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유무역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재나 노동집약산업부문의 상품만을 수출해서는

111) Hartmut Elsenhans, “Rent and Technology Distortions: The Two Cul-de-Sac of State Correction and Market Orientation,” Third Pan-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s Conference(September 1998).

112) Hartmut Elsenhans, “State mining enterprise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Raw Material Report*. vol. 6. no. 2(1989)



곤란하다. 물론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같은 상품에 특화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동종의 상품에 특화하게 될 경우, 무역경쟁이 가속화되어, 고용창출 보다는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무역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켜 대중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산업부문에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sup>113)</sup>

완전고용을 기초로 한 대중소득의 증가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의 밑거름이다.<sup>114)</sup> 노동이 스스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정치적 예측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말한다. 물론 대중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곧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가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해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그 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 설령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 내부의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칫 권력과 자본 간의 결탁으로 민주화를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계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노동은 후견-피후견 관계를 깨뜨리고 권력과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민주주의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 제3절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현재 북한경제는 20%내외의 낮은 공장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공장들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과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을 지불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공장과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 역시 많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역시 제일 먼저 군대에 보내지고 나머지는 농장 자체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북한이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를 과시하고 있는

113) Hartmut Elsenhans, "A Convoy Model vs. an Underconsumptionist Model of Globalisation," New Orleans ISA Convention(March 2002) 20012년 7월 20일 검색 (<http://isanet.ccit.arizona.edu/noarchive/hartmutelsenhans.html>)

114) Hartmut Elsenhans, "Overcoming Rent by Using Rent: The Challenge of Developmnet," pp.92-93.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때, 북한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원동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2차 핵실험 이후 UN제재가 발표된 이후 중국의 대북원조와 투자가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북중 경제협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중국경제에 북한경제가 종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이 북중관계를 우려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관건은 북한경제에서 ‘생산적 투자’가 실현될 수 있는가 문제이다. 북중 경제협력은 지금까지 항만 등에 대한 임대와 석탄과 철광석과 같은 주요 원자재 수출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발표된 황금평과 나진선봉 지역에서 투자 개발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발표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장에서 일한 북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위장실업(disguised unemployment)’ 상태에 있다. 인구의 상당수가 최저 생계소득 이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주민들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살아간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대부분은 비생산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생적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이때 투자는 북한경제에 적절한 기술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투자는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발원조는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 보다는 위장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북한에 맞는 기술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지역의 개발과 북한경제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특구지역의 개발에서 단순히 북한 노동력외에도 원료와 부품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해외수출만이 아니라 북한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중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개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비료 지원과 식량지원만으로는 현재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현재 협동농장에 잔류하고 있는 농장원의 상당수는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면 산업부문의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은 모내기철과 가을걷이에는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당마저도 규제하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여전히 노동동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실제로 중학교(고등중학교)와

대학생들의 노동동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협동농장의 농업생산물 배분이 매우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장원 한 사람당 1년 생활비와 배급으로 쌀(입쌀)과 옥수수(강냉이)를 합쳐서 주게 되는데, 그 양은 1년 생활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농업생산량은 군대 등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은 물론 농장간부들에 의해서 전용되고 있다. 비록 폐기물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농업잉여가 생산되기 어렵다. 농업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동농장 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농업개혁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도, 또 최근 6.28 조치에서도 모두 농업개혁 조치가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현재의 협동농장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농업잉여의 생산과 배분 과정에서 노동착취와 불평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국제사회가 비료는 물론 농기계 지원과 종자개발 등 기술이전을 실시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지역에서 농업생산을 전담하는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여기서 나온 농업잉여를 식량지원 형태로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소위 바이오 에너지 개발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였다. 2012년 기상악화로 세계 곡창지대의 농업생산량이 급감했으며,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시장 가격 변동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농업잉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농업기술 이전시킴으로 장기적으로 북한농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투자와 생산을 진작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식 역시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와 단절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손잡고 대중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스스로 국내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보다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보다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유지하는 방식일 것이다. 어쩌면 지금 북한의 지배세력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일은

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국제사회로 나와 진정한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이다.

## 제7장 결 론

북한경제는 해외원조로 외연적 렌트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료의 자기 특권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탈산업화 경향이 지속되는 ‘정치적 네덜란드 병’에 직면해 있다. 북한체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명명할 정도로, 1990년대 경제위기는 심각한 것이었다. 그 결과 빈곤과 기아가 일상화되었고, 계획경제 시스템은 마비되었으며, 국내의 공장과 기업소들은 가동되지 못했다. 북한경제는 자체적인 재생산 체계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외연적 렌트의 유입이 오히려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 경향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존 사회주의에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는 관료계급의 정당화 압력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연적 렌트는 관료의 권력이 보존되고 특권이 재생산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은 계획과 시장의 영역에서 모두 발생하게 된다. 하나는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통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렌트추구이다. 그 결과 탈산업화 경향은 심화되고 대외의존도는 증가하게 된다.

북한경제에서 ‘정치적 네덜란드 병’을 치료하고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안적 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북한경제의 속살은 수많은 생채기로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는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공장과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이제 계획이 아니라 ‘시장(장마당)’이다. 탈산업화 경향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대중소득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생산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국방공업이나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산업연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할 뿐이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투자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설령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산업구조의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시장에서 투자는 국민경제를 위한 거시적 경제지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생산비용과 안정적인 이윤확보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북한체제에서 중요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당과 국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경제에서 투자와 생산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의 변화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특히 지배권력은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매개로 하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지배질서를 회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의 자기 특권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경제협력과 경제원조를 통해서 북한 국민경제에 필요한 적절한 투자를 진행하고, 생산의 복원을 돕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특구는 북한경제의 생산요소(특히 노동력)만을 이용하여 생산하였지만, 이것만으로 북한경제의 회복에 기여하기 어렵다. 개발원조가 북한경제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북한 국내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노동력은 물론 원자재와 부품의 수급을 북한 국내의 공장과 기업소로부터 수급함으로써, 북한경제가 자연스럽게 외부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개발원조와 국내생산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산업의 투자보다는 북한 국내기술에 걸맞는 산업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특구의 건설에서 농업부문의 특구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발표한 6.28 조치에서 가축농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도 발표된 바가 있었다. 이러한 미온적인 변화로는 근본적인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농업 부문 역시 경제특구 형식의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대중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개발원조는 북한과 같이 지배권력이 외연적 렌트를 자신의 특권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6자회담이 공전(空轉)되면서 북핵위기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남한의 역할조차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투자와 생산의 복원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

에서는 최근 황금평과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 투자를 발표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다. 물론 중국이 자국경제의 필요에 의한 항만임대나 물류기지 건설만이 아니라 북한의 국민경제에 필요한 개발투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즉, 북한경제에서 ‘정치적 네덜란드 병’은 문제의 원인을 알면서도 치료법을 찾기 쉽지 않은 ‘난치병(難治病)’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변화나 국제사회의 역할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체제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북한체제에서 ‘정치적 네덜란드 병’은 치유되기 힘들 것이다.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탈산업화 경향이 지속되면, 북한체제의 저성장과 저발전으로 인한 빈곤과 기아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북한과 국제사회가 서로 누가 먼저 변화될 것인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지속될수록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탈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와 생산의 복원을 위해서는, 북한체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참고 문헌]

### 〈북한문헌〉

- 강철민.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절박한 요구.” 『경제연구』 제2호(2008).
- 김균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지방공업의 역할.” 『경제연구』 제1호(2008).
- 김길남.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제3호(2007).
- 김룡빈. “생산의 정상화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기본특징.” 『경제연구』 제2호(2001).
- 김시남·김철. “인민소비품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 것은 지방공업발전의 중요과업.” 『경제연구』 제3호(2006).
- 럼병호.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앞세우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제3호(2008).
- 로명성.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2호(2007).
- 리명진. “남는 로력동원리용의 필요성.” 『경제연구』 제1호(2009).
- 럼광남. “위대한 령동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토대 강화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 『경제연구』 제3호(2006).
- 정영섭.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로선.” 『경제연구』 제2호(2006).
- 조영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계승발전.” 『경제연구』 제4호(2006).
- 한성룡. “현시기 경공업생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1호(2008).
- 황철. “국방공업위주의 경제토대는 강성대국 건설의 믿음직한 담보.” 『경제연구』 제1호(2006).

### 〈국내문헌〉

-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수은북한경제』 봄호(2008).

- 김은영, “북한 미사일 주요 일지 및 발표문,”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2009), pp.49-50.
-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2011).
-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2009).
- 박형중, “북한의 ‘6.28 방침’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2012. 7. 24).
- 양문수, “북한의 대외무역 운용체계,”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서울: 한울, 2010.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달: 4대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서울: 한울, 2010.
-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4권 2호(2011).
-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2011).
- 이국영,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 서울: 도서출판 양림, 2005.
- 이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으로 대체가능한가.”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2010).
- 이석, 『1994~2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영훈,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빈곤의 늪에서의 Big Push?,”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 및 향후전망』 The Aisa Foundation and IFES Joint International Workshop Proceedings (2008).
-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임강택·박형중,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특징.” 『통일정세분석』 통일연구원, 2009.
-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정은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시장의 자생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2009).
-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2009).
-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제14권 1호(2011).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홍민. “북한 시장일상생활연구,”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각 년도.

### 〈해외문헌(번역본 포함)〉

- Adelman, Irma. “Fallacies in Development Theory and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Frontiers of Development Economic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The Dutch Disease.” *The Economist* (November 26, 1977).
- Bahro, Rudolf. *Die Alternative: Zur Kritik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Frankfurt am Mai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77.
- Beblawi, Hazem. “The Rentier State in the Arab World.” *The Rentier State*. New York: Croom Helm, 1987.
- Corden, W. M. “Booming Sector and Dutch Disease Economics: Survey and Consolidation.” *Oxford Economics Papers* vol. 36, no. 3(November, 1984).
- Corden, W. Max. and Neary, J. Peter. “Booming Sector and De-Industrialization in a Small Open Economy.” *The Economic Journal* vol. 92, no.368 (December, 1982).
-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San Diego: A Harvest/Hbj Book, 1985.
- Elsenhans, Hartmut. “State mining enterprise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Raw*

- Material Report*. vol. 6. no. 2(1989).
- \_\_\_\_\_. *State, Class and Development*. New Dheli: Dhaka, 1996.
- \_\_\_\_\_. “Overcoming Rent by Using Rent: The Challenge of Developmnet,”*Zeitschrift für Ökonomie*. vol.1 no.1.
- \_\_\_\_\_. “Rising mass incomes as a condition of capitalist growth: implications for the world economy,”*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1(1983).
- \_\_\_\_\_. “Rent, State and Marke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ansition to Self-Sustained Capitalism,” Paper for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Parkistan Society of Development Economist in Islamabad(April 1994).
- \_\_\_\_\_. “The Politico-Economics Basis of Limits and Opportunitie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under Condition of Globalization,”(한양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소 국제 포럼 발표문, 1997).
- \_\_\_\_\_. “Rent and Technology Distortions: The Two Cul-de-Sac of State Correction and Market Orientation,”Third Pan-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s Conference(September 1998).
- Damus, Renate. *Der Reale Sozialismus als Herrschaftssystem: am Beispiel der DDR*. Lahn-Gießen: Focus Verlag, 1978.
- Friedrich, Carl. “The Unique Character of Totalitarian Society.” *Totalitarianism*. New York: The Universal Library Grosset, 1964.
- Gylfason, Thorvaldur. “Lesson from the Dutch Disease: Causes, Treatment, and Cures.” *Working Paper Series*(March 22, 2001).
- Haggard, Stephan and Noland, Marcus. “Famine in North Korea Redux?,”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8(2008).
- Hansen and Tarp, 임을출 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란,” 『원조와 개발 : 교훈과 미래 방향』 (파주: 한울, 2011).
- Khan, Mushtaq. “Rents, Efficiency and Growth,”*Rents, Rent-Seeking and Economic Development*(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Kolkowski, Leszek. 『마르크스주의의 주요흐름 3』 서울: 유로, 2007.
- Lam, Ricky. and Wantchekon, Leonard. “Political Dutch Disease.” *Working Paper*(April 10, 2003).
- Manyin, Mark and Nikitin, Mary.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gressional*

- Research Service*(June 2011).
- Mieczkowski, Bogdan. *Dysfunctional Bureaucrac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Neelsen, John. “Rente und Rentierstaat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Staat, Markt und Rente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Darmstadt: Westdeutscher Verlag, 1997.
- Noland, Robinson and Wang, T. “Famine in North Korean: Causes and C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9, no.4(2001).
- Nowak, Leszek. *Power and Civil Society*.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 Parkinson, Northcote. 김광웅 역. 『파킨슨의 법칙』 서울: 21세기북스, 2003.
- Polanyi, Karl. 박현수 역.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서울: 민음사, 1997).
- Ri, Yongho. “Energy Futures and Energy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sian Energy Security Workshop* (November 6-November7, 2006).
- Sachs, Jeffrey. and Warner, Andrew.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1997).
- Dudley Seers, “Was heißt “Entwicklung”?,” *Peripherer Kapitalismus: Analysen über Abhängigkeit und Unterentwicklung*(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pp.40~46.
- Selucky, Radoslav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23.
- Sohn-Rethel, Alfred. *Geistige und körperliche Arbeit: zur Theorie der gesellschaftliche Synthesi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DPRK*(March 24, 2011).

### 〈신문·통계·인터넷 검색자료〉

- Elsenhans, Hartmut. “A Convoy Model vs. an Underconsumptionist Model of Globalisation,” New Orleans ISA Convention(March 2002) 20012년 7월 20일 검색(<http://isanet.ccit.arizona.edu/noarchive/hartmutelsenhans.html>)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계청 북한통계 홈페이지(<http://kosis.kr/bukhan/>)

세계식량계획 홈페이지(<http://www.wfp.org/>)

한국무역협회 통계(<http://www.kita.net/>)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서울: 통일연구원) 각 년도 참조.

“빈사의 북한, 미·일에 “SOS” 손짓.” 『뉴스플러스』 제66호(1996. 1.2).

“공장이 돌아야 숨통 트인다.” 『중앙일보』 2004년 5월 6일자.

北 잇단 미사일 발사, 비용 얼마나 될까.” 『연합뉴스』 2009년 7월 4일자.

“[클로즈업 북한] 함남 사람 평양 초청.” 『KBS 남북의 창』 2011년 11월 5일자에서  
재인용.

“北 “경제쇠퇴설은 낭설”...한은통계 비난,” 『연합통신』 2011년 11월 10일자(검색  
일: 2011.11.14).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11/10/0511000000AKR20111110178800014.HTML>)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홈페이지(검색일: 2011.11.14).

(<http://www.wfp.org/videos/malnourished-children-suffering-dpr-korea-wake-food-shortages>)

“WFP, “북한 내 식량 비축분 사상 최저”,” 『미국의 소리』 2011년 8월 10일자(검색  
일: 2011.11.14).

(<http://www.voakorea.com/content/wfp-----127469778/1342662.html>)

“북 경제 개혁 성공하려면, 김정은이 직접 챙겨야,” 『미국의 소리』 2012년 7월  
24일 보도(검색일: 2012. 7. 30)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443946.html>)

“北,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국방부 발표,” 『조선일보』 2012년 4월 13일(검  
색일: 2012. 7. 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3/2012041300434.html?Dp0=twitter](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3/2012041300434.html?Dp0=twitter))

## 북한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정은이  
경상대학교 강사

---

제1장 서론 .....	637
제2장 북한무역회사의 성격 및 구조 .....	641
제3장 북한무역회사의 기능 .....	649
제4장 북한무역회사의 파급효과 .....	661
제5장 결 론 .....	673
[탈북자 인터뷰 조사명부] .....	676
[참고 문헌] .....	677

---



## 표 목차

---

<표 1> 북한 무역회사 .....	642
<표 2> 북한 무역회사의 주체 .....	643
<표 3> 중국 변경무역의 10대 세관 .....	647
<표 4> 주요공장기업소들의 조업연대 .....	664
<표 5> 단동지역 북한 수출입현황 .....	667

---

## 지도 목차

---

<지도 1> 남북한 철도연계 .....	669
-----------------------	-----

---

## 그림 목차

---

<그림 1> 북한 무역회사의 구조 .....	649
--------------------------	-----

---





## 요 약 문

이 연구는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시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북한 무역회사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 나아가 북한경제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으로는 위성 자료, 공간문헌자료, 탈북자인터뷰조사, 북한내부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중 접경조사를 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상호 교차분석·검증하여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보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 단동의 무역회사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역으로 북한 무역회사의 실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화교, 조선족, 한족에 대한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무역회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북중 무역에 대한 거시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무역회사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상사 또는 무역회사와 유사하지만 내각뿐만 아니라 주로 당, 군부, 내각 등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당, 내각, 군, 안전부, 주요 도급 기관 및 기타 주요 ‘특권기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생산기지(공장), 원천기지(수산물, 약초 등) 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생산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 수출할 수 있는 ‘와크’를 할당받지 못하면 무역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무역회사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무역회사는 1990년대 식량 배급체계의 붕괴이후 북한의 모든 기관에서 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식량, 생필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초기 무역회사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날라다 상부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도에 있는 무역회사 지사에 상품이 집중되면서 각 지사에는 무역회사 소속 물류창고가 생기고, 거기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났다. 전국의 돈주들이 무역회사 물류창고로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갔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전국 각 시장의 거간에 넘겨지고 거간은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로 넘기면서 소비재시장이 확대·팽창되었다. 즉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 질수록, 물류가 국내로 대량 유입될수록, 거래가 활성화되고 소비재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가 각 지역에 판매소(지사)를 설치하여 상품을 직접 도매로

유통하면서 외화상점체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수입상품이 판매소를 거쳐 전국의 종합시장으로 유통되는 경로(channel)로 확대, 발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종전에 비해 중국을 통해 옷감 등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해도 북한무역의 주체는 화교, 중국연고자, 중국 상인(조선족) 등 보따리 무역상인이었으며 회령, 무산 등이 시장의 중심도시였으나 점차 시장의 중심이 신의주, 평성으로 옮겨갔다. 1990년대 각각의 무역회사가 물류창고를 각도에 설치하고 판매소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평성시장이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성이 1990년대 이후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역회사의 판매소 기능에 있으며 무역회사 배후에는 신의주라는 북중 접경도시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가 커질수록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암달러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경제는 동원, 계획, 시장 메커니즘이 중첩된 외화벌이형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가 내부적으로 상이한 독립적인 경제구획으로 상호 격리 분리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상이한 지배구조와 경제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논리와 상반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제는 동원, 계획, 시장 메커니즘이 중첩되는 구조로 상호 연계하여 영향을 미치면서 특이한 경제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함과 함께 시작된 ‘외화벌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각 기관에까지 문어발식으로 뻗어 나아가 현재 북한경제 대부분에 침투되어 북한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북한 경제체제는 오래전부터 반드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연구에서 ‘외화벌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북한경제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부문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외화벌이는 ‘무역회사’를 통해 실현되고 있어 북한 무역회사의 실체와 구조를 밝히는 일은 외화벌이의 실체, 나아가 북한경제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한 최대의 무역도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무역회사의 실체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신의주시에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밀무역을 포함하여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무역도시’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단동지역의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신의주시의 무역실태 및 신의주시의 현황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차원에서 북중 무역형태를 고찰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북한무역회사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북중 무역에서 신의주시에 차지하는 위상 또는 신의주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특히 북중 무역관계는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북중 무역관계를 세심하게 분석해 보면, 무역회사의 실체, 외화벌이의 작동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외화벌이는 계획경제부문 밖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인 만큼 북한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요소의 하나로 나아가 북·중 접경도시의 특징이 도출될 것을 기대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대만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부터는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경로가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회사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신의주시의 특징, 접경도시 주민들의 삶, 나아가 접경도시의 특징,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더욱이

미시적 수준에서 외화벌이의 실태와 무역회사의 구조가 밝혀지면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나아가 다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제2절 연구범위: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시를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신의주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을 통해서 자료와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즉 이 지역은 북·중 접경지대이므로 사람, 정보, 돈, 물건 등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쪽에서 관망할 수 있어 연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의주시는 평안북도 도소재지인 북한 제 2의 도시로써 사진, 지도, 시가지 등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공개된 자료들이 많다. 둘째, 신의주시는 향후 개발도시로서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신의주는 예부터 중국과 왕래가 빈번하고 화교가 살았다. 즉 국제무역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의주(義州)의 중강에서 열리던 조선과 청나라와의 무역을 일컫는 ‘중강개시(中江開市)’ 및 의주상인을 일컫는 ‘만상(灣商)’이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sup>1)</sup> 또한 신의주시는 평양과 인접한 도시로 중국의 동북지역과 수도 평양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중요한 지점이다. 조선후기에 이미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무역통로가 신의주를 중계지로 형성되었던 것을 보아도 신의주시의 지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셋째, 신의주시는 평양과의 인접 도시로 평양의 동향을 읽을 수 있는 리트머스과 같은 존재이며 개혁개방의 신호도시이기도 하다. 넷째, 신의주시는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개인상공업이 발달하였다. 현재도 채하시장은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이다. 또한 신의주시는 ‘경공업 도시’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북한최고 최대 수준으로 중앙급 경공업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1) 1일제 식민지 시기에도 마찬가지이다. 1935년도에 신의주(9.6km<sup>2</sup>, 제방안령역)의 인구는 5만 4310명으로서 도 인구총수의 4.6%였고, 주민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조선사람이 71.7%, 일본놈이 15.3%, 중국인을 기본으로 하는 외국인이 13%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놈들과 중국인의 비율이 다른 시, 군들에 비하여 많은 것은 신의주시가 당시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만주와 직접 잇닿아 있는 출입문호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446

### 제3절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더불어 다양한 실증적 자료들을 활용하고 나아가 각 자료에 대한 교차분석(cross-checking)을 통해 자료를 검증, 분석하여 각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보충하고자 한다.

#### 1. 심층면접 방법(thick description)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재일탈북자, 북한화교, 재중조선인, 중국한족 등 북한주민과 연계가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심층면접(thick description)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이러한 면접기법을 통하여 필자는 면접 대상자의 북한사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고 나아가 현지인의 시각에서 현지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지역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세밀하고 총체적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2. 북한 연고자(緣故者) 활용법

‘연고자’는 남한과 북한, 중국과 북한 양측에 離散(이산)되어 북한 측의 가족 등을 부양하는 상황인 일종의 디아포라스(Diaspora)로, 이들은 전화 등을 통하여 북한 내외부와 실시간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혈연관계자이다. ‘연고자활용법’은 연고자가 주체가 되어 북 내부 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고자활용법을 적극 수용하여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의 시각을 북한연구에 적용하여 연구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 3. 북·중 접경지대 현지조사(fieldwork)

남북한 주민은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주민은 50년 이상의 단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괴리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학에서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북한을 파악하고 그들의 시각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현지조사가 어려운 지역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역연구자로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북·중 접경지대, 그 중에서도 중국단동지역을 현지조사지로 선택하고자 한다. 단동에는 우선 한국 식당, 조선(북한)식당, 조선족 식당, 중국

한족(漢族)식당,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이 혼재해 있어 적어도 5종류의 조선음식 맛을 볼 수 있다. 즉 단동이라는 공간은 남한사람, 북한사람, 조선족, 중국인(한족), 북한 화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북한연구자로서 제한적이거나 현지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공간이다. 더욱이 단동은 중국의 대북한 변경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 중국인, 북한, 화교 및 재중조선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북한과 관련된 정보, 물건, 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 4. 영상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지원 NGO·NPO, 저널리스트 및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현지인이 직접 북한내부를 촬영한 녹화물이다. 연구자는 이들 단체들이 취재원 등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입수경로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료를 제공받았으므로 자료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입수한 단체(개인)와의 면담을 통해 영상이 촬영된 일련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및 입수경로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영상자료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연구방법론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북한 내부사정을 가시적(可視的)으로 확인·분석할 수 있어 현지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 어려운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이 영상자료들은 1990년대 말부터 2011년까지 약 15년간에 걸쳐 꾸준히 촬영·수집된 영상물이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통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주민들의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가시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가능하다. 셋째, 관측된 과거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법칙성을 발견해서 이를 모형 화하여 추정하고 이 추정된 모형을 사용하여 미래에 관측 될 값을 예측하게 된다.

#### 5. 위성자료 분석

본 연구는 영상자료와 지도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Google Earth 등 공개된 위성사진·지도를 바탕으로 신의주 시의 외형적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관찰·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는 각 위성자료에 대하여 각 지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그 지역 출신의 탈북자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재검증 작업을 거쳐 영상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필자가 연구자로서 현지방문을 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 6. 문헌자료 분석

공간문헌자료: 조선지리전서, 조선관광지도서,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발간한 ‘조선향토대백과’ 등 공간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 제2장 북한무역회사의 성격 및 구조

## 제1절 북한 무역회사의 성격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회사’란 상행위(商行爲)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2인 이상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무역회사란 주로 무역하는 기업체를 뜻하는 일종의 ‘상사(商社)’와 유사하다. 북한 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무역법 10조에 따르면 “무역회사는 수출입활동의 담당자이다. 수출입활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상사 또는 무역회사와 유사하다.<sup>3)</sup>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수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무역회사는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무역회사와 성격을 달리한다.

첫째, 북한의 무역회사는 내각 뿐만 아니라 주로 당, 군부 등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에 입각하여 KOTRA 편 『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 : 해외 대북한 교역기업』, 丹東經濟研究所 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 『북한에는 어떤 무역회사가 있나』 및 통일원 『북한무역상사등 관련기관 일람』 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무역회사를 소속 중심으로 조사, 분류한 결과, 북한의 무역회사는 내각 산하, 군부 산하, 당기관 산하 등 주로 3개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2) 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넓은 뜻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932&categoryId=200000171>: 검색일 2012.8.10).

3) 이에 관해서는 중국 요녕성 소재 대북무역회사 ‘송상상무유한공사’의 홈페이지 참조([http://www.ssline.co/bbs/board.php?bo\\_table=tb31&wr\\_id=15&cate\\_id=5010](http://www.ssline.co/bbs/board.php?bo_table=tb31&wr_id=15&cate_id=5010): 검색일 2012.10.6).

(&lt;표 1&gt; 참조).

〈표 1〉 북한 무역회사

당 소속	조선능라888무역회사, 능라도무역회사, 대동강무역회사, 대성무역총회사, 대전 제1무역회사, 대성제 2무역회사 대흥수산물무역회사, 동호무역회사, 동흥무역회사, 백송무역회사, 백양무역회사, 삼지연, 삼천리, 삼흥무역회사, 상흥무역회사, 서경무역회사, 송도원무역회사, 송악산무역회사, 양각무역회사, 오석산, 옥류무역회사, 은덕, 은성, 은하기술무역회사, 은하무역총회사, 인풍무역회사, 창성, 청남무역회사, 청봉무역회사
군부 소속	조선금릉무역회사 조선남강무역회사, 보물무역회사, 봉화무역회사, 부강무역회사, 비단 비철금속, 수양산무역회사 승전무역회사, 압록강무역회사, 연광무역회사, 연봉무역회사, 연풍무역회사, 연봉무역회사, 조선연합무역회사, 오륜 무역회사
내각 소속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개서무역회사, 조선건재무역회사, 조선경공업무역회사, 조선경공업품무역회사, 조선경암무역회사, 조선고려무역회사, 조선과일무역회사, 조선광명무역총회사, 광복무역회사 기계무역총회사, 기술수출입회사, 남산무역회사, 농토산품무역회사, 두만강무역회사, 조선마그네시아크링카수출입회사, 만년보건총회사, 신합자회사, 명전의료회사, 목란무역회사, 백무무역회사, 조선변강무역회사, 변경무역회사, 변경양곡무역회사, 북장, 감삭무역회사, 상원무역회사, 석탄무역회사, 선박무역회사, 선반무역회사, 성천강무역회사 수산물무역회사 조선식품, 신흥무역회사, 용악산기계설비수출입회사, 용악산무역회사, 유색금속수출입회사, 임업무역회사, 장미무역회사, 장산무역회사, 장수무역회사, 전기무역회사, 종합설비수입회사, 지능무역회사, 청춘무역회사, 평양출판무역회사, 조선흑색금속수출입회사

출처: KOTRA 편 『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 : 해외 대북한 교역기업』, 丹東經濟研究所 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 『북한에는 어떤 무역회사가 있나』 및 통일원 『북한무역상사등 관련기관 일람』 이외에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입각하여 필자가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여 표로 분류

둘째, 북한의 무역회사는 <표 2>에서와 같이 대부분 당, 내각, 군, 안전부, 주요 도급 기관 및 기타 주요 ‘특권기관’ 산하에는 소속되어 있다. 특히 군부 무역회사로는 인민무력부 직영의 매봉무역총회사(1980년 설립)와 유진상사(1992년 설립),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의 룡성무역회사(1992년 설립)와 남해무역회사(1991년 설립),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의 비로봉무역회사(1998년 설립)와 모란회사(1992년 설립), 인민무력부 도로국 산하의 은하수무역회사(1991년 설립), 인민무력부 운수관리국 산하의 만풍무역회사(1987년 설립), 인민무력부 적공국 산하의 위성무역총



회사(1992년 설립), 인민무력부 군수동원총국 산하의 룡흥무역회사(1990년 설립), 공군사령부 산하 단풍무역회사(1988년 설립)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조선매봉회사, 조선청운산무역회사는 군부의 인민무력부 직속 무역회사이다. 이밖에도 조선봉화총회사는 북한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중앙의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이다. 조선 대성무역총회사와 조선대흥무역회사는 39호실 당기관소속이며, 이들 모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표 2〉 북한 무역회사의 주체

소속	무역회사명
39호실 소속	만경무역회사
39호실 소속	묘향무역회사
통일전선부	광명성무역회사
통일전선부	장미무역회사
당 중앙 군수공업부	은덕무역회사
당 중앙 군수공업부	금룡수출입상사
당 중앙 국제부	영광무역회사
당 중앙 국제부	대양무역회사
평야이 당위원회 및 39호실 산하	룡라도무역총회사
39호실	광명성무역총회사
39호실	대성무역총국
금수산기념궁전	능라888무역상사
정무원	남양무역회사
인민보안성	동흥무역회사
경공업성	은하무역총회사
경공업성	평양담배수출입회사
제 2경제위원회	룡악산 무역총회사
인민무력부 소속인 국경경비대 회사	은파산무역회사
인민무력부 경찰국 소속	비로봉 무역회사
인민무력부	매봉 무역회사
대외봉사총국	옥류무역회사
호위총국	칠성무역회사
국가보위부	신흥무역회사

셋째, 그러나 이러한 특권기관 소속의 회사라고 해도 수입할 원천기지 바뀌 말하면 외화벌이 원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무역회사설립 허가를 받지 못한다. 즉 생산기지(공장), 원천기지(수산물, 약초 등)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조선정성무역회사의 경우, 제약회사로서 약초를 모태로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기지, 연구소가 구비되어 있다.<sup>4)</sup> 북한의 최대 피복가공무역 회사인 조선은하무역총국 산하에도 신의주·성천강·원산 및 대동강 등 수출 피복 공장 과 동대원, 용성과 선교 피복공장 등 20여개의 의류공장들을 가지고 있다. 김책제철소나 무산 광산의 경우도 생산기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노동당 평양시당 위원회 소속 조선 룡라도무역총회사는 20여 곳의 수출전문기지, 선박운항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무역회사는 일반 무역회사와는 달리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생산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안성 소속 룡산무역회사의 경우, 보안성은 생산의 주체가 없다. 이럴 경우 삼국대거리를 시켜준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통나무를 사서 다시 일본에 팔거나, 일본에서 중고 자동차를 들여와 중국에 팔아 외화를 획득하는 이른바 중계무역의 방식이다.

넷째, 그러나 이와 같이 생산기지를 가지고 무역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특권 기관이라 해도 ‘워크’를 할당받지 못하면 무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여기서 ‘워크’란 무역품목과 액수에 관하여 중앙권력 또는 김정일이 할당 또는 허가해준 독점권이다. 이 무역독점권의 기원을 살펴보면 ‘중앙당경제’ 외화벌이사업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여기서 중앙당 경제란 정무원 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가 담당하는 계획경제부문(민수부문)과는 별도로 중앙당 재정경리부산하의 ‘39호실’이 담당하는 김정일 직속 경제부문으로, 김일성 생일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선물 사업에서 비롯되었다.<sup>5)</sup> 중앙당은 전국의 각 도·시·군별로 ‘5호관리소(외화벌이수

4) 연구소 및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정성의학종합센터는 1995년 정성제약연구소로서 출범한 뒤 초기부터 한국의 녹십자제약과 협력해 소변에서 추출하는 우로키나제 반제품을 생산했으며, 2006년까지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한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3265>: 검색일 2012. 9. 23). 또한 정성제약은 지난해 3월에는 알약품공장 준공식을 갖고 항생제, 해열제 등 기초의약품에서 전문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60여 종의 약품에 대한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했다. 알약품공장은 타정기(알약을 짜어내는 기계), 계수기(알약을 병 단위로 자동 포장하는 기계), 4면 포장기(4면을 동시에 밀폐하는 포장기계) 등 현대식 설비를 갖춰 알약, 캡슐, 과립 등의 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정성제약은 이 외에도 병주사제공장, 우로키나제공장, 고려의학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남측의 시설·기술 지원으로 최첨단 제약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5)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문제연구』 제54권 1호(2011a), pp.249-251 참조.

매소)’를 설치하고 이를 매개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특권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올렸다. 예를 들면 외화벌이에 동원된 일반 주민이 송이버섯, 명계, 명태, 명란 등의 상품을 채취하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된 5호관리소가 이를 헐값을 수매한다. 중앙당은 5호관리소를 통해 수매한 상품을 취합해 일본 등 자본주의 시장에 고가로 독점 수출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염가 상품을 수입하여 외화상점에 독점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차액을 올린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부를 비롯한 주석부·호위국·보위부·안전부 등 특권기관들도 ‘외화벌이수매소’를 차리고 중앙당외화벌이와 경쟁을 벌이면서 기존의 중앙당 수요독점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sup>6)</sup> 특히 서해갑문,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막대한 외화수요가 초래되면서 외화벌이는 문어발식으로 다른 기관까지 급속도로 확장되었다.<sup>7)</sup> 신의주 시의 경우도 조사결과, 1989년을 전후로 외화벌이 무역회사들이 20개로 급증하였으며 1990년대 배급제 붕괴 이후 200여개로 증가하였다.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당식당의 경우도 관련기관은 대외봉사국이지만 여러 비전문 단위에서도 하고 있다. 중국 단동에 있는 송도원 북한 식당의 경우 대외봉사국 소속이 아니라 체육성 소속이다. 외화가 나올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식당업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위가 얼마나 큰 와크를 허가받느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김정일의 내부권력운영에서 당, 정부, 군 등 어느 곳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선군시대에는 군부 산하 무역회사에 많은 와크를 부여하였으나 단동지역 조사 결과, 김정은 시기에는 당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군부산하의 무역회사를 상당 부분 당 소속으로 이전하였다.<sup>8)</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체제의 특성상 내각의 무역성 보다는 당과 군부의 권력이 상위에 있었다.

## 제2절 북한무역회사의 이윤 배분 구조

특권경제의 주체는 당, 내각, 군, 안전부, 보위부, 주요 도급 기관 및 기타의 중앙

6) 이에 관해서는 좋은 벗들 편(2000), p.150 참조.

7)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바람으로 사회주의 시장은 몹시 변질되었다……계획경제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쇠약이 가속화되었다. 특권기관들도 외화벌이를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이 힘들다는 절박한 충동을 주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듯 중앙당이 계획경제를 침해하고 유독 호화를 향수하니 군부나 사료청을 비롯한 특권기관들은 너도나도 명분을 내걸고 외화벌이를 시작하였다. 군부의 대표적 명분은 서해갑문, 수력발전소의 건설이었다(최진이 편, 임진강 2008년 3월 2호, pp.90-92).

8) 대북 사업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 이 시기는 2012년 7월 초부터이다.

과 하부의 각종 기관이며, 그 수단이 기관들이 산하에 외화별이 회사를 설립하고 외부자금과 인원을 끌어들이고, 주로 특정 무역회사 독점권에 기초한 외화별이 장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린다. 그 수익의 일부는 해당 기관의 조직 유지와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그 나머지 일부는 주요 간부, 외화별이 참가 외부 인원 등의 개인축재에 사용된다. 이러한 외화별이의 모체가 바로 회사이다. 이러한 외화별이 회사의 구조를 살펴보면 조사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맨 위에 총국이 있다. 이 총국은 각각 당, 내각, 군, 안전부, 부위부 등 특권기관소속이다. 예를 들어 강성총회사, 백호무역총국, 승리무역총국은 인민무력부 산하이며, 신흥총회사는 국가보위부 산하, 룡산총회사는 인민안보성 산하로 이들 회사는 모두 대표적인 군부 사업체다.

이러한 총국들은 각기 산하에 부문별로 여러 개의 무역회사를 둔다. 예를 들어 노동당 39호실의 핵심기관인 대성무역총회사(대성총국)는 무역성 소속으로 산하에 중공업, 경공업, 농수산물, 상업서비스 등 부문별로 10개의 전문무역회사(대성제 1-10무역회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금속(1국), 편직(2국), 수산물(3국), 농토산물(4국), 항(5국), 수입(6국), 인삼(7국), 전자연합(8국), 되거리무역(중개무역·9국), 대외상업(10국) 등 업종별로 10여개의 무역회사를 갖추고 생산, 무역 등 모든 경제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거대 그룹이다. 조선 능라도 무역총회사의 경우, 농산물, 수산물, 금속, 의류 등을 중심으로 산하에 제 1-8무역회사를 가지고 있다. 즉 총국 산하에 수산물, 약초, 광물 등 부문별로 각종 무역회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무역회사는 도(道)별로 소재지에 ‘지사’를 둔다. 수산물이라면 주로 원산 지사, 남포지사, 해주지사 등이 있다.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조선광명무역총회사의 경우, 산하에 10곳의 지방무역회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의 도시에 당기관, 군부기관, 내각 등 여러 기관소속의 무역회사들이 입지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각 지사들의 산하에는 시(市), 군(郡)별로 여러 개의 출장소를 둔다. 수산물의 경우 해주지사라면 조개류, 전복류, 해삼 등이 많이 잡히는 강령군, 웅진군, 태탄군에 출장소를 둔다. 청진지사라면, 약초나 산나물이 많이 나는 회령이나 무산, 남양, 나선 등에 출장소를 둔다.

각각의 출장소 산하에는 또 다시 여러 개의 리(里)에 분소를 설치한다. 분소는 송이, 약초와 같이 원천을 수매할 수 있는 현장(산지)이 된다. 예를 들어 송이라면 칠보 산이 입지해 있는 명천군 개상리, 포상리, 보촌리 등에 송이를 수매하기 위한 분소를 둔다. 여기서 원천 지도원은 외부에서 고용된 사람들로, 주민들이 황기를 1킬로그램을 가져오면 쌀, 식용유 몇 킬로그램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공시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바꾸러 온다. 혹은 원천지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여 차로 가져와 분소에 수거하는 일을 한다.

그 외에 세관이 있는 국경도시에 출장소를 둔다. 이 국경 출장소는 위에서 언급한 시, 군별로 설치된 출장소와 기능이 다르다. 전자가 원천을 수매하기 위한 출장소, 분소라면 국경지대에 위치한 출장소는 국내에서 거둬들인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출구로서의 출장소이다. 예를 들어 출장소의 구성을 보면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 즉 회사 사장, 부사장, 경리, 관리원, 직접 세관에 나가서 교역하는 사람들, 기관차 운전기사, 원천동원과를 두어 수산물, 고사리 수거하는 원천지도원, 식당 관리원 등의 직원들로 이들은 주로 외부에서 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출장소는 무산, 회령, 나선, 온성, 남양, 신의주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전국에서 물품을 수매하여 중국으로 넘긴다(<표 3> 참조).

〈표 3〉 중국 변경무역의 10대 세관

중국 측 세관 명칭	북한 측 세관 명칭	세관 등급	수화물 능력
단동육로철로세관	신의주세관	1급	
두만강철로육로세관	남양세관	1급	275
남평육로세관	무산세관	1급	20
고성리육로세관	삼장세관	2급	10
삼합육로세관	회령세관	1급	15
개산춘육로세관	온성세관	2급	10
권해육로세관	원정리세관	1급	60
장백육로세관	혜산세관		
집안세관	남포세관		

출처: 辽宁省金融学会篇, 『朝鲜经济问题研究』, 内部资料(2008: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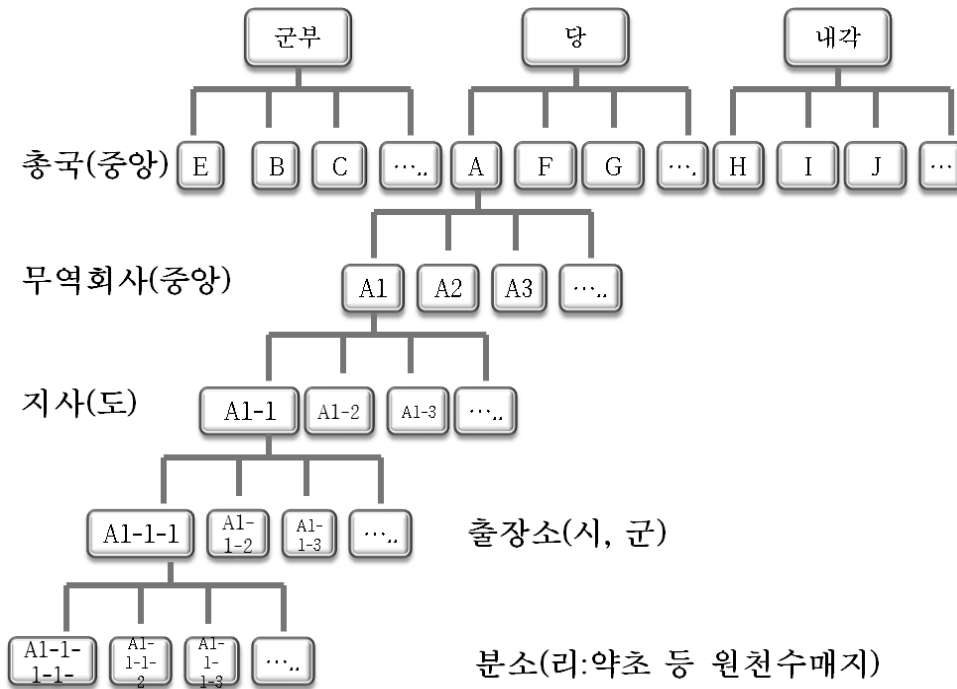
예를 들면 무산에 있는 38호실, 39호실 당 기관 소속의 수정회사는 중국에서 트럭 등 중기계를 들여온다. 그 대신에 광석, 연 정광, 금정광 등 정광 및 통나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한다. 이때 이 정광이나 통나무와 같은 원천은 무산에서 생산, 수매된 것이 아니라 양강도, 황해남도 등 전국에 퍼져 있는 출장소를 통해 들여온 것이다. 인민무력부 산하의 군부 소속 룡산회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룡산회사는 기존에 일본 중고자동차를 수입해 중국에 되팔아 이윤을 얻었던 이른

바 중계무역회사였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어 정광으로 눈을 돌렸다. 이 정광 또한 전국 각지에 나가있는 출장소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다. 광석은 주로 황해도에서 생산한 정광을 가공해서 들어온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군부 소속의 회사들이 황해남도 웅진에 공장을 만든다. 부산장을 만들어 광물의 순도를 높인다. 삼지강회사의 경우, 북한의 물길공사를 한다. 논밭에다가 대동강 물을 끌어다가 주는 물길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그러한 설비를 들어온다. 그 대신 수산물을 수출한다. 수산물 기지는 청진, 함흥, 서해면 해주, 온천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을 무산출장소에 집결시킨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함경북도 청진지사나 함경남도 함흥, 원산 등 북동쪽에 위치한 지사의 경우 주로 회령, 무산, 온성 등에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해주, 개성, 평성 등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신의주에 출장소를 두어 세관과 직접 교역을 하여 물품을 수출입 한다.

이러한 무역회사의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즉 가장 위는 당, 내각, 군부의 특수기관이 차지한다. 그 다음 총국이 있다. 예를 들어 39호실 산하만 보아도 A총국, B총국, C총국, D총국, E총국 등 수많은 총국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 각각의 총국 산하에는 각종 무역회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A총국 산하에는 A1, A2, A3, A4 등의 무역회사가 부문별로 존재한다. 그 다음 무역회사 산하에는 지사가 있다. 예를 들어 A1무역회사 산하에 A1-청진지사, A1-신의주 지사, A1-혜산지사, A1-사리원지사, A1-함흥지사 등이다. 이 지사 밑에는 각각의 시군에 출장소가 있다. 예를 들면 A총국 A1무역회사 A1-1지사 아래에는 (A1-1)지사 1출장소, (A1-1)지사 2출장소, (A1-1)지사 3출장소, (A1-1)지사 4출장소 등의 출장소가 시군별로 있다. 출장소 산하에는 다시 리 단위에 분소를 둔다. 예를 들면 (A1-1)지사 1출장소에는 리 단위에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1분소},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2분소},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3분소},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4분소},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5분소} 등에 설치한다. 그 외에 수출입을 위한 장소로서 세관이 위치한 지역이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의 도, 시, 군, 리에 당, 군, 내각 등 기관소속의 회사들이 집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 무역회사의 구조

### 제3장 북한무역회사의 기능

#### 제1절 이윤배분: 상급단위

‘와크’란 무역품목과 액수에 관하여 중앙권력 또는 김정일이 할당 또는 허가해준 독점권이다. 따라서 원칙상 기관이 와크를 받지 못하면 북한에서 무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 와크는 서로 교환 가능하며 심지어 사고 팔리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이 와크는 횡적으로 종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조사 결과, 예를 들어 A총국이 오징어 10톤을 중국에 수출할 권한이 있지만 50톤 정도의 임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50톤은 수행 못했을 경우 A회사는 계획을 대신 수행해 줄 회사를 찾는다. 만약 B회사가 오징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B회사에게 와크를 빌려준다. B회사의 경우 와크를 할당받지 못했거나 혹은 계획을 수행하고 잉여가 생겼을 경우, A회사의 와크를 빌리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면 A회사는 와크를 빌려준 대가로 중간에 수수료를 챙긴다.<sup>9)</sup> 이 와크를 빌려주는 일은 말단 단위 즉 분소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중국, 무역회사, 지사, 출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분소는 특정 산물이 채취되는 곳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지령만을 받은 상품만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송이버섯의 분소가 세워지는 칠보 산에서는 송이버섯만이 원천이기 때문에 분소 단위에서 와크가 사고 팔리는 일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와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때 상대가 중국이라면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무역지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 단동시의 경우, 대부분 무역회사의 출장소가 나가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단동세관으로는 먼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중국에서 차가 나가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북한에서 물류가 이동을 한다. 일방통행이어서 시간이 지체 되면 만위엔 정도의 벌금을 문다. 따라서 세관 주변은 항상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때 무역회사 지도원들의 역할은 계약서 작성, 자금 결제 등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대방(무역상대)을 잡아 소속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즉 외국에 나가있는 무역지도원들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서 이를 북한의 현지 무역회사와 연결시켜주고 수출 및 대금결제까지 성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회사 지도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예를 들어 100톤을 중국에 넘기기로 되어 있으나 중국 회사와 짜고 수산물 150톤을 넘기고는 100톤을 넘긴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가격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해진 광석 가격은 광석 1톤당 천 달러지만, 중국 회사에는 톤당 천 이백달러로 넘기고는 1톤당 천 달러로 넘긴 것처럼 계약서를 중국 측 회사의 동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 광석의 경우 한 톤당 1, 2 달러만 차이가 나도 총액에서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혹은 일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중국 측의 회사가 무역지도원에게 사례로 얼마의 돈을 준다. 특히 중국 단동시내에는 조선족 인구는 약 1.5만 명이며 화교 5400명, 단동으로 회귀한 화교는 8300명, 북한관련 무역일꾼이 1만 명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5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북한무역상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하다.

이와 같은 중간 수수료는 무역회사지도원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반면 일 년에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예를 들면 단동시에 상주하는

9) 와크를 가진 회사들의 권한은 대단하다.



A무역회사의 지도원은 한 사람당 1년에 1만 달러의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만일 가족이 4명이 중국에 나와 있으면 4만 달러(4\*1만 달러)의 액상을 상부기관에 받쳐야 한다. 만일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바로 본국으로 소환 당한다. 뿐만 아니라 당국에서 요구하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군부의 경우, 군부강성회사의 경우 군인들의 군복이 필요하다면 모든을 일 다 뒤로 하고 군복을 교체해 줘야 한다. 내각에 속한 광명성 회사의 경우 손해가 일어났다면 모든 자금이 손해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 당 기관에 속한 무역회사의 경우 축제, 축전이 있다면 그곳에 자금을 대 주어야 한다. 따라서 확대재생산이 어려우며 크고 권력 있는 기관에 속한 무역지도원일수록 힘들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하는 무역지도원들은 힘이 있는 기관에 속해있을 경우에 본국으로부터 수행해야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권력이 약한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무역지도원들은 중간 수수료로 얻은 이윤의 일부를 무역회사 상부에 상납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에 상주할 수 있는 자격과 자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단위의 제일 윗 단위에서 받는 뇌물은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무역지도원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외화별이가 되는 모두 품목이 무역대상이 된다. 또한 이들은 본인이 속한 무역회사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무역회사와 연결시켜 중계수수료를 챙기기는 일도 한다. 심지어 내각 소속의 일반 공장과의도 연결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A라는 피복가공 지방공업이 자금문제로 가동을 할 수 없다면 무역지도원은 중국 대방으로부터 주문을 수주받아 이 회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로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다.<sup>10)</sup> 지방공장의 경우, 무역지도원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 회사로부터 옷감, 실, 디자인 등을 수주받아 가공을 한다. 이를 통해 공장을 유지시키고 종업원들의 식량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수주를 받기 희망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은 때로는 무역지도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회사는 약 80여개가 있으나 무역회사라기 보다는 일종의 중국회사와 북한 회사를 연결시켜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일종의

10) 중국의 대북 사업가들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임가공업체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 공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국 의류업체는 이러한 북한 무역지도원들을 통해 북한 피복업체 기업에게 주문을 하여 의복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국 북경 올림픽 때 중국 선수들이 입었던 361도 브랜드 스포츠 의류는 대부분 북한에서 가공하여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임가공 공장들은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로 가동률이 높은 상태라고 한다.

에이전시와 같은 중계업자로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품목도 연결해 준다. 따라서 출장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출장소는 대부분은 작은 사무실 한 개에 직원이 많게는 5~6명, 적게는 2~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중국 단둥에서는 북한 무역상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东放商社(동방상사), 龙川商社(용천상사), 龙川机械商社(용천기계상사) 등에서 쿠키밥술(북에서는 ‘말하는 밥가마’라고 함)을 비롯하여 북한의 전력 사정을 감안하여 손발전기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LG 냉장고, TV, 기계 등 한국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고객이 있다. 이러한 북한개인무역상들 덕에 이러한 상점들은 1년에 몇 십억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꼬마식품, 한국 식품 등에서는 과자, 라면, 우유 등 100%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물건을 파는 한국 마트이다. 그 이외에 집 리모델링과 관련된 도배지, 장판지 등 한국 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많다. 이곳의 고객은 단둥에 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북한사람들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 북한의 개인 무역상들은 '신리여유(新柳)' 등 단둥의 몇 몇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대량 구입해 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떤 류의 도소매 상점들은 주로 옷을 비롯하여 가전제품이 이르기까지 70%가 한국 상품이라고 한다. 신리여우 상점에 가 보아도 1층 화장품, 식품매장은 한국 상품을 다루고 있으며 매장의 디자인, 광고도 한국의 것을 그대로 들여놓았다. 그 이외에 도매상점들도 있다. 북한의 개인무역상들이 바로 이러한 곳에서 고급 상품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들어간다. 이들이 이러한 고급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는 국내 판매보다는 주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또는 선물, 뇌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특정인에 한해서 외국에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북한 내부에서는 해외에 있는 무역지도원들에게 많은 상품 구입을 부탁한다.

이들의 파급력은 크다. 이는 컴퓨터를 실례로 들어 입증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대 조사결과, 컴퓨터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고가품이며 전략물자이기에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들 무역지도원들을 통해 컴퓨터가 북한 내부로 많이 들어가 있다. 최근에는 황해도와 같이 남한에 인접한 도시는 컴퓨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을 통해 많은 컴퓨터가 들어가 형편이 나은 가정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컴퓨터를 구비한다. 이제는 5장(가구) 6기(가전제품) 중 컴퓨터가 집에 있는지의 여부가 주민의 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황해도 등 남한과 전파가 통하는 지역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실례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한 드라마를 복사 DV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늘어났다. 이제는 위험을 무릎 쓰고 중국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DVD를 들여올 필요가 적어진 것이다.

## 제2절 중간단계에서의 이윤배분: 물류창고와 도매상점

대북 사업가 및 북중 접경지대 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 무역회사에 대한 분석 결과, 북한 대부분의 무역회사들은 중국에서 주로 수산물, 약초, 정광 등 1차 생산품을 수출하고, 거기서 얻은 이윤으로 일부는 중앙에서 내린 계획을 수행하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는 식량과 생필품 등을 수입해 들여온다. 이때 대부분 무역회사는 신의주, 무산, 회령, 남양 등 세관을 끼고 있는 국경출장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물류를 대량으로 들여온다. 이렇게 들여온 물류는 각 도에 설치된 무역회사 지사로 집결된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의 경우 회령, 무산, 나선 시군 급 출장소를 거쳐 들어온 물품이 청진지사에 집합된다. 북중국경도시 신의주 도시는 평안북도도 소재지이면서 세관을 끼고 있어 지사와 출장소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사에 물류가 집중되면서 각 지사에는 상품을 보관할 거대한 창고(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 포함)가 만들어진다. 세관을 통해 출장소로 직결된 후 도급으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고 옆에 도매할 수 있는 생필품 판매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즉 중앙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지사에서 보관을 했다가 분배를 해 나간다. 이로써 중앙으로 올라갈 것과 도매상에게 넘길 것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국경을 끼고 있는 큰 회사들이 도급에 나와서 모두 판매소를 가지고 있다. 청진, 혜산, 신의주 등에는 물류 창고가 생기고 물자교류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력부 소속 남강판매소이다. 남강판매소에는 12개의 창고가 있다. 여기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등 수많은 창고를 만들어 품목별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 물류보관 창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인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 가는 판매소가 되었다. 즉 전국의 도매상점이 된 것이다. 각 무역회사의 판매소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한 두 개 사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대량의 차판 장사들만이 접근할 수 있다. 한편, 판매소의 상품판매 가격은 국정가격이나 독점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에 가깝다. 왜냐하면 각 도에 판매소가 많아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긴다. 따라서 도매상을 상대로 판매유치를 하지는 않지만 다른 판매소에 비해 가격을 조금 내리는 판매소도 있다.

특히 신의주시는 평안북도 북서부에 있는 시. 동쪽은 의주군과 피현군, 남쪽은 용천군, 서쪽과 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丹東)과 접경을 이루는

국경의 관문도시이다. 압록강 하류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 전반적으로 평탄한 평야 지대로 되어 있다.<sup>11)</sup> 더욱이 신의주는 평의선의 종점이며 여기서 중국으로 통하는 철도가 이어진다. 평의선의 남신의주 역에서는 덕현선(남신의주-의주-덕현)과 백마선(남신의주-피현-염주)이 갈라진다. 도로는 신의주~평양, 신의주~의주, 신의주~피현간을 잇는다. 신의주항을 통해 압록강 하류의 섬들과 용암포-비단섬-철산-정주-남포-해주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화물수송이, 압록강 상류로는 의주-옥강-청성까지의 구간에서 화물과 여객 수송이 이루어진다. 또한 신의주-유초리-황금평리-비단섬 사이에 여객선이 다닌다.

그러므로 신의주시의 경우 평양 대부분의 무역총국들은 신의주에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각각의 창고를 두고 있다. 특히 신의주시의 강 건너 중국 단동시와 육로 및 철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단동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접경도시로 심양, 대련 등 중국의 경제도시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주에는 각 무역회사의 출장소와 지사가 집결되어 있으며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sup>12)</sup> 압록강 철교를 지나오면 바로 세관이 있으며 이 세관 주변에는 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세관창고 뿐만 아니라 각 무역회사의 창고들이 있다.

더욱이 신의주는 평양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로 전국적이 철로와도 상대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북한 최대의 무역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력이 가장 큰 회사들의 출장소와 창고가 교두와 가까운 곳에 입지해 있으며 교두와 가까운 곳에 회사와 창고들이 집결되어 있다. 신의주 주민들 또한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무역회사에 종사하거나 회사에서 들여온 상품들을 받아 도매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고는 사무실과 상품보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주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와 같이 신의주시에서는 각 출장소로부터 집결된 수산물을 냉동, 보관하여 교두로 넘기기 위한 거대한 창고가 입지해 있다.

조사 결과 이 창고는 신의주 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각각의 무역회사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 특히 광석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철로를 이용해야 한다. 광석 이외에도 육로보다는 철로를 통해 중국으로

11) 시의 중심부는 해발 평균높이 5~10m로 매우 낮으나, 동쪽과 서쪽으로는 군데군데 50~100m 정도의 언덕들이 있다. 산림은 시 면적의 약 8%이며 주로 북동부일대에 퍼져 있다.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432.

12) 신의주시는 평안북도 서북부 압록강 하구 남안에서 상류쪽으로 25km지점에 위치한 도소 재지이다. 북동쪽은 의주군, 동쪽과 동남쪽은 피현군, 남쪽과 남동쪽은 용천군, 북쪽과 서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단동시와 접하고 있다. 중국 단동시는 조중우의교를 통해 연결되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입구 중 하나이다.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429.

운반되면 편리한 물류들이 많다. 따라서 신의주시가 철로를 통해 물류를 중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은 철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무산, 회령 등 접경도시에 비해 무역도시로서 훨씬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3절 말단에서의 이윤: 무역회사의 사례

북한 무역회사의 이윤분배 구조를 살펴보면 상부에서 중간단계,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있다. 특히 말단의 경우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시장에 나와 있는 수산물의 경우 100%가 국내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물이 시장과 연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질적인 배의 주인인 선주가 외화벌이 기관의 명의를 빌려 조업을 한다. 여기서 수확한 수산물의 일부를 선주가 해당기관과 선원, 그리고 본인에게 나눈다. 노동의 대가를 수산물로 받은 선원들은 현지에서 수산물을 도매하러 온 도매상들에게 그 자리에서 넘기고 도매상들은 각 지로 흩어져 이를 시장에 도매, 소매한다. 선주 또한 동일하다. 자신의 이윤으로 남겨둔 수산물을 직접 도매상들에게 넘긴다. 그러면 도매상들은 각지의 시장에 나가 도소매로 내다판다. 즉 외화벌이를 통해 생산, 채취된 생산물들이 말단 단위를 통해서 시장으로 방출되고 있는 것이다. 석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석탄의 경우 실질적인 탄광의 주인인 사장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탄을 캐지만 일단 캔 탄은 수출용과 국내용으로 구분된다. 이 국내용은 외부에서 고용된, 시장능력이 뛰어난 자재지도원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유통된다. 이와 같이 무역회사, 외화벌이는 북한의 주민, 말단 단위, 시장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다음 사례들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이하의 사례는 북중 접경지대 조사,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대표적인 사례로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1. 사례 1 : 송이, 약초 수매

송이(약초)지령이 중앙(총국)에서 떨어지면 지사에서는 송이(약초)산지와 가까운 사군에 출장소를 설치한다. 출장소는 다시 산지에 분소를 설치한다. 분소에서는 송이를 수매할 능력 있는 원천지도원들을 외부에서 선발하여 파견시킨다. 이 원천지도원들은 현장에 나가 송이를 주민들로부터 수매한다. 예를 들면 A분소에서는 ‘송이 1등급 1킬로그램을 채취해 오면 설탕 9kg과 바꿔준다’라는 공시를 분소 앞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붙이면 주민들은 산에서 개별적으로 캔

송이를 분소 또는 수매지도원들에게 가져온다.

이때 주민들은 송이를 수매소에 건넨 대가로 설탕, 식량, 생필품 등 가장 빨리 시장에 나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교환 받는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품의 일부를 자가 소비 외에 나머지 잉여부문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다른 상품과 교환한다.

한편 원천수매 지도원들은 송이 액상 계획만 분소에 받치고 나머지 수거된 송이는 다시 밀수로 넘긴다. 왜냐하면 외화별이수매소에 받치는 송이가격은 일종의 국가기관이므로 낮다. 또한 지도원은 수거된 송이 중 등급이 낮은 송이만 남기고 3급 이상의 송이는 밀수로 중국과 거래하는 중개인에게 또는 직접 따로 분류하여 넘긴다.

분소에 집결된 송이는 중앙에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혜산, 회령, 무산 등 세관이 있는 각 시군의 출장소로 집결시킨 후 공식적인 무역 절차를 밟고 중국에 넘긴다. 일본이 주 무역대상국이었을 때에는 모든 송이는 원산에 집결시켜 바로 비행기로 실어갔다. 이때 송이를 넘길 때 세관 및 중국 대방과 짜고 이윤을 남긴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내린 액상 계획이 송이 100kg이라면 130kg을 넘기고 나머지 30kg은 축재한다. 혹은 중앙에서 송이 1kg그램당 중국에 넘기는 가격을 500달러로 정했다면 실지로는 600달러에 넘기고 이윤을 유보한다.

이 돈이 지사로 들어가면 지사에서는 이윤의 일부는 중앙 총국에 받치고(액상계획: 외화) 그 나머지는 국경출장소를 통해 직접 중국으로부터 값싼 식량과 생필품 등을 수입해 들여온다. 이것을 창고에 집결시키면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들이 와서 물건을 도매로 대량 구매해 한다. 즉 창고가 일종의 판매소와 같이 운영되어 여기서 나온 이윤으로 기관 유지비, 재생산, 개인축재에 쓴다.

## 2. 사례 2 : 수산물

수산물의 경우, 약초나 송이버섯처럼 산지로 갈 필요가 없다. 바닷가는 산지에 비해 비교적 교통이 좋아서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리 등에 설치된 분소 대신에 시, 군 출장소에 현지를 둔다.

이때 지사에게 예를 들어 낙지 1톤을 수매해야 한다는 지령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면, 지사는 시, 군 급의 출장소에서 지도원을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시킨다. 현지에 나간 지도원은 우선 배를 가진 선주(船主)들을 물색한다.

선주가 가진 배는 2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배지만 어쨌든 연료 및 고기 잡는 일체의 도구, 선원 고용 등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이다. 즉 일종의 개인기업형태이다.

지도원은 이러한 선주와 계약을 한다. 즉 선주는 기관에 얼마의 수산물을 받치기로 한 대신 기관명으로 공식적으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선장은 ‘얼마만큼’의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때 잡은 고기는 선주, 선원, 기관이 나누어갖는다. 일반적으로 선주와 계절노동자(선원)들은 잡은 고기의 6대 4의 이윤이 분배된다. 6은 선주가 국가(기관)의 계획을 수행하고, 그 나머지로 배 유지비, 선원고용, 고기잡는 도구, 이윤 등 다음에 조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돌린다.

이때 바닷가에서는 선주 및 선원들이 가진 수산물은 1차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도매상들이 차판으로 날라 간다. 이러한 도매 네트워크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수산물은 현금으로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물품 중 하나이다. 따라서 동해, 서해안의 바닷가 쪽에는 조개, 오징어 등의 철이 되면 어머 어마한 계절노동자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 최소한 식량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장소로 올라간 수산물은 지사에서 모여지고 지사에서 바로 출장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넘겨진다. 혹은 수상에서 직접 중국 배들과 교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익금을 가지고 중국에서 값싼 생필품과 식량을 들여온다. 지사에 집결된 물류 창고에서는 사례 1에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즉 전국 각지의 도매상들이 몰려와서 도매로 물건을 대량 해 간다.

### 3. 사례 3 : 금광석

북한에서는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 군부, 내각 소속의 무역회사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일성정치대학,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등에 소속된 외화별이 회사는 특수기관 중에 특수기관에 속한다.

그 중에서 16(일육) 정치학원 A출장소의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서 16은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에서 2자를 생략한 숫자이다. 이 16정치학원은 대남연락소 소속의 특수기관으로 다른 기관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 대학 또한 다른 특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학교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정치학원 총장은 외화별이를 할 수 있는 ‘와크’를 중앙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이때 총장은 외화별이를 할 자금과 능력이 없다. 이때 16(일육) 정치학원 총장과 인맥이 있는 두터운 돈주가 금광석을 캐서 운영자금을 받치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 외화별이회사는 학교유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이다.

우선 돈주가 학교에金を 받치자면 금광석을 직접 개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돈주는 16정치학원 총장의 허락 하에 해주시 도 소재지 아래 금이 많이 나오는 립산군, 웅진군, 태탄군이라는 곳에 가서 금광을 탐색하러 간다. 먼저 국가지질 탐사대라는 곳에 가서 광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문한다. 물론 금광은 미개발지역야 한다. 여기서 미개발지의 의미는 국가가 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한 광산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투자 가치가 큰 광산이다. 이러한 광산은 북한 전역에 퍼져있다. 예를 들면 무산광산의 경우, 내각 관할 무산광산의 주변에 광맥이 널려있다. 이러한 곳을 개인이나 무역회사가 가서 개발 허가권을 따고 개발을 하는 것이다.

우선 돈주는 도 지질탐사대에 뇌물을 주고 매장량을 알아본다. 이들에게 개발조건이 좋고 매장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달라고 의뢰한다. 이렇게 광산 개발 권할을 승인받기 위해서 도장을 스물 몇 개를 받는다. 그래서 광산개발권을 얻는데 보통 두 달, 석 달이 걸린다. 나의 경우 광산 개발권을 따기 위해 투자한 돈이 총 300불이다. 물론 이것은 뇌물이다. 이것은 매장량에 따라 다르다. 큰 광산이면 500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천불, 만 불씩 준다.

입지가 좋은 곳에서 광산 개발권을 획득한 돈주는 우선 설비를 갖추고 노력을 채용한다. 설비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노력은 리 협동농장의 관리원장 혹은 리 당 비서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 왜냐하면 어떤 농장이든 비상 군사노력으로 반드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상비하고 있다.

매 농장원들마다 일 년에 충성금 1그램을 당에다 받쳐야하는 과제가 떨어진다. 그러나 농장 원들이 농장 일을 하면서 틈을 내어 사금을 캐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 농장 원들의 금 과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리 당비서에게 제안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은, 부담되지 않는 숫자이다. 100그램에서 150그램 정도 밖에 안된다. 이 계획만 농장에 수행하면 당 비서는 사장에게 대신 노동력을 농장에서 대 준다. 리 당 비서 또한 농장원들의 금 과제 계획을 수행하면 본인의 업적이 되므로 노동력 지원을 흔쾌히 수락한다.

동원된 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을 준다. 희망에 따라서 현금 또는 현물로 준다. 보통 월급은 쌀 값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 한 달에 보통 쌀 30킬로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준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한 세대에 4명이다. 따라서 한 세대가 먹을 식량은 한 달에 30킬로 정도이다.



원래 이 30명 중 누군가 일이 생기면 다른 노동자로 항시 대체 할 수 있는 체제이다. 리 당 비서가 그렇게 보장해 주기로 약속 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노동자들이 고정되어 일을 한다. 모두가 최소한 가족들의 식량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다른 사람과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공장은 24시간 가동한다. 노동자들은 한 조에 10명씩 3교대가 일한다. 한 조당 8시간 일을 한다. 굴 안을 발파해서 금광석을 광차에 실어 나오면 그것을 자그마하게 사람 손으로 깬다. 깬 광석은 원통이 된 파쇄기 안에 넣어 밀가루처럼 가루로 만든다. 그것을 기술자 손을 거쳐 시약처리를 해서 금을 만들어 금을 생산한다.

이렇게 광산 옆에 별도로 금 생산 공장을 차린다. 그 이유는 순도를 높여 무게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국경으로 광석을 나르는 트럭 운반횟수가 줄어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을 차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을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금광석 그 자체를 그냥 중국에 넘기는 것 보다 금광석에서 금을 생산하면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금광석에서는 금뿐만 아니라 반드시 은이 함유되어 있어 은도 함께 생산하여 팔면 이윤이 광석으로 넘기는 것 보다 몇 배가 남기 때문이다.

물론 금을 개인이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원래 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것도 금이 아닌 금광석이었다. 이것을 중국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한 금광석은 특별히 순도가 높아 금으로 만들어 팔면 몇 배의 이윤이 남아 이것을 사장이 직접 신의주에 가서 화교에 넘겼다. 금을 사려는 화교는 신의주에 많다. 대신에 우리는 순도가 낮은 금광석을 타 지역에서 들여와 액상 계획만 맞추었다.

이와 같이 사장이 금을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속한 기관이 당 기관에서도 특수기관였기 때문이다. 대남연락처소속으로 간부들이 달고 다니는 완장과 뱃지가 있다. 그걸 달면 아무도 못 건드려 어디든 간다. 그래서 외화벌이를 할 때 특수 기관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다.

물론 금을 얼마만큼 생산했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 노동자들은 단지 분쇄기에 돌을 넣을 뿐, 광석이 가루로 변하여 시약처리 되면 금이 얼마 생산되는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생산량은 사장, 부사장, 그리고 기술자 3사람 밖에 모른다. 기술자 또한 80%까지 금을 수거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을 인수해 주면 계약을 종료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보통 기술자를 고용하는 데는 금 300그램이지만 초창기는 기술자가 없어서 거액을 주고 초빙해왔다. 이들은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금 광산으로 옮겨가 많은 돈을 번다.

뿐만 아니라 벽성군 등 등 금이 많이 나는 주변에서는 농장 원들이 금을 캐서 자전거나 차에 싣고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우리는 톤당 샘플을 떠서 가치를 파악하여 가격을 매겨서 얼마를 준다. 캐는 사람들은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대략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바로 안다. 우리는 이 광석도 받아서 금으로 생산해 내다 팔았다. 금강이 있는 주변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아 경쟁도 심하다.

#### 4. 사례 4 : 석탄(무연탄)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4과 소속 순천무연탄 기지를 소개한다. 이 기지의 사장은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탄광기지뿐만 아니라 몇 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기지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지령만 내릴 뿐 사실상 기지운영은 기지장에게 위임한다. 이때 기지장은 사장이 임명하고 기지의 직원들은 기지장이 임명한다. 서로 외화 벌이하는 기지에 적을 두려고 한다.

물론 사장은 광산의 실질 소유주다. 이러한 무역회사 소속 사장들은 돈을 가지고 외화를 벌 수 있는 기지를 탐색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다. 우리 사장은 석탄기지 이외에도 원산의 수산물 기지, 해주의 광석기지 등 최소한 5개 이상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 기지들은 사장이 모두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일단 시장은 원천 기지 지점을 정하여 순천으로 왔다. 사장이 순천에 온 이유 또한 폐갱을 사기 위해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폐갱의 광산 개발권을 사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인민무력부 산하의 무역회사 소속이라고 해도 국가적인 문서가 있어야 한다. 폐갱은 국가가 버린 갱을 말한다. 그러나 폐갱이어도 가치가 있는 갱이 북한에는 많다. 국가에서는 조금 캐먹다가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가고 손해 보는 공간이 많다. 개인이라면 열심히 끝까지 캐을 것이다. 이러한 폐갱을 개인들이 사서 개발하는 사례가 북한에는 부쩍 늘었다. 사장은 결국 순천에서 폐갱을 모두 2개 구입했다. 한 개당 3천 달러가 들었다. 또한 사장은 탄을 캘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 데도 투자하였다.

그러나 탄광의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렸다. 그래서 사장은 순천에 와서 숙식을 해야 하는데 숙식할 장소를 알아본 결과, 도 인민일보 기자였던 권력 있는 사람의 집을 소개받아 거기서 3달가량 머물면서 기지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인맥으로 탄광의 기지장은 바로 인민일보기자의 딸이 되었다.

기지장은 갱장, 검탄, 자재지도원, 식모, 창고장 등을 외부에서 고용하였다. 특히 외부에서 고용된 자재지도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수용 탄을 국내에 팔아 탄광 유지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지에서 생산된 탄은 수출용과 민수

용 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수출용 탄은 중앙에 받치고 즉 계획을 수행하고, 나머지 내수용은 팔아서 설비 유지, 종업원 월급 등기지의َانَ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지의َانَ의 운영 자금은 자재지도원이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재지도원은 기지가 장이 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선발한다.

자재지도원은 탄광에서 받은 탄을 주로 인맥을 이용하여 판다. 주로 석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개인기업에게 팔았다. 예를 들어 사탕, 증류, 신발 장사들이다. 증류장 사의 경우 이틀에 한차씩 쓴다. 최소한 10톤, 20톤을 쓴다. 그 다음 타도에 간다. 순천 외의 지역에 나가서 팔면 두 배, 세배 이상의 이윤을 얻고 팔을 수 있다. 탄이 나지 않는 지역에서 탄은 매우 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타 시장의 거간꾼에게 넘기고는 반드시 다음을 위해 전화번호를 받아온다.

특히 판이 잘 팔리다가도 중국이 수출 문만 닫으면 탄은 시간별로 내려간다. 아침에 1톤에 2만 오천원이었던 탄이 저녁이 되면 2만으로, 다음날 아침에는 만 8천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기지에서는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낮은 가격에 국내에 판다. 국내 주민들은 이때를 가장 좋아한다.

이때 돈 있는 사람들은 탄을 대량으로 사다가 ‘토장(土場)’에 묻어 놓는다. 탄을 캐는 산지가 있으면 반드시 탄을 쌓아 놓는 토장이 있다. 토장에다 탄을 파는 것이다. 그러면 토장에 개인장사들이 와서 탄을 사간다. 동시에 기지들은 수출할 때 탄이 모자라면 이 토장에서 석탄을 대량 산다. 나에게도 이 때가 기회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몽땅 사서 토장에 쌓아 놓았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판다. 시기별로 가격을 달리하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한다. 수출이 안 되면 석탄 값이 내려가기 때문네 최고로 좋다고 한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최고로 불리하다.

## 제4장 북한무역회사의 파급효과

### 제1절 판매소와 도·소매시장의 발달

무역회사들은 1990년대 초기 식량과 생필품을 날라다 상부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수행하였다.<sup>13)</sup> 다시 말하면 아직 물류 창고가 생기지 않아 무역회사의 시장에

13) 조사결과,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 당국이 제한하는 품목은 상당히 적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여 전열기류의 수입을 가끔 통제하는 정도이다. 북한에는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회사들이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대한 영향력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각 도에 있는 무역회사 지사에 상품이 집중되면서 각 지사에는 무역회사 소속 물류창고가 생기고, 거기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났다. 전국의 돈주들이 무역회사 물류창고로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갔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전국 각 시장의 거간에 넘겨지고 거간은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로 넘기면서 소비재시장이 확대·팽창되었다. 즉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 질수록, 물류가 많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소비재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함경북도 청진시 남강판매소를 들 수 있다. 남강판매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대량 구입하여 전국 각지로 흩어져 각 지역 종합시장의 상인들에게 도매, 소매로 넘기면 소매상인들이 종합시장에 앉아서 파는 구조이다.

특히 북한 당국(김정일)은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식량배급이 어려워지자 회사에서 자체로 먹고 살라는 방침을 내렸다. 동시에 식량배급제의 대안으로 ‘쌀시리’를 미봉책으로 제시하였다.<sup>14)</sup> 쌀시리는 국가기관, 기업소의 하부단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무역항이나 국경지대에 가서 식량을 외화로 구입하여 소속 기관 기업소 종업원들에게 배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전 인민적 배급제에서 기관이 책임지고 배급을 주는 기관배급제로의 변질이다. 따라서 식량 구입권한을 부여받은 기관기업소들이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몰려들어 무역회사를 통해 들여온 식량을 사 들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쌀시리는 국경지역 및 주민이 밀집된 대도시에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기관, 기업소가 일단 식량을 구입하러 이 지역을 다녀오면 추가적인 상업, 유통,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경과 내륙시장의 연계를 촉진시켜 전국을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형성하고, 국내외 정보네트워크도 가능하였다. 반복적인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신용거래가 발생하고 쌀시리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면서 노동, 자본, 정보시장이 싹텄다. 즉 기관 기업소들은 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도 구입하고 돌아갔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쌀 판매가 급격히 팽창하고, 판매소가 활성화 될수록 교역이 국경지대로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전국의 수많은 시장이 신경망처럼 다양한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외국물품에 대한 접근이

---

통제를 덜 한다. 세금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식량 등 전략물자의 수입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

14) 정은이, “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달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1호(2011b, pp.219-222.

용이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시장이 단일화되어 갔다.

## 제2절 외화상점의 몰락

원래 무역회사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외화상점에만 유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종래에는 외화상점의 물품들도 일본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품목 또한 가전제품이나 옷 등의 소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과의 무역이 중단됨에 따라 무역대상국이 중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기관에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게 되자 무역 품목이 다양해지는 등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무역회사가 각 지역에 판매소(지사)를 설치하여 상품을 직접 유통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외화상점이 경쟁력을 잃었다. 즉 무역회사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소(물류창고 및 매점)에서 도매로 도매상들에게 넘기면서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손쉽게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입상품이 무역회사의 판매소를 거쳐 전국의 종합시장으로 유통되는 경로(channel)로 확대, 발전한 것이다. 즉 판매소가 도매상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외화상점체계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1990년대부터 외화상점에도 중국산이 점유하게 되면서 시장과 차별성이 없어졌다. 주민들은 이제 외화상점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외화상점의 경우 건물세 등으로 가격이 시장보다 비쌌다. 즉 도매상점의 경우 주로 사무실과 상품보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소매상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소매점은 점포 이미지(store image)를 부각시켜 고객을 흡수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이의 입지와 점포구조 및 내부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상품매매업의 점포만을 뜻한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외화상점체계가 유명무실해지고 도매시장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서 소매시장도 확대되어갔다.

## 제3절 수공업의 발달

일반적으로 북한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의 최소 60%에서 최대 90%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 최근 내륙지역에서의 상황은 국경지역과 상황이 다르다. 국경지역의 경우 여전히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이 강세지만 내륙지역의 경우 담배, 신발, 옷, 사탕 등을 개인이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파는

상품이 증가하였다. 이른바 개인기업의 증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무역회사들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이 많은 만큼 중전에 비해 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특히 신의주의 경우 해방 전부터 수공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소비도시였다. 또한 해방 후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정책에 의해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으며 주요공업부문으로는 기계공업, 화학공업, 방직 및 피복공업, 일용품공업, 식료공업 등인데 이 공업부문들은 전국적 의의를 가진다.<sup>15)</sup> 신의주시 주요공장기업소들의 조업 년대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주요공장기업소들의 조업연대

조업 연대	공장, 기업소 이름
해방 전	동양금속공장(락원기계련합기업소), 기롭공장, 무수알콜공장(마이싱공장), 팔프공장
1945~1950	종합기계공장, 화장품공장, 신발공장, 판유리공장, 타올공장, 장공장, 종합섬유생산협동조합, 철제일용품공장, 어린이식료생산협동조합, 가구생산협동조합, 만년필생산협동조합
1951~1960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모방직공장, 신의주화학섬유련합기업소, 방직기계공장, 3.8피복기계공장, 8월 9일 공장, 종이공장, 범랑철기공장, 수지일용품공장, 영예군인편직공장, 과자생산협동조합, 5.1식료생산협동조합, 압강식료생산협동조합, 후방가족피복공장, 남신의주술공장, 자동차수리공장, 염색설비부속품공장, 제지기계공장
1961~1970	압강기계공장, 식료기계공장, 압강종이공장, 영예군인화학품공장, 옷공장, 가정용품공장, 약기공장, 운동구공장, 신발부속품공장, 벽돌공장, 전기용품공장, 구강재료공장, 화학공장, 압강화학공장, 다이야공장
1971~1980	압연공장, 납새 및 과일가공공장, 원주필공장, 독공장, 철도영예군인공장, 신의주석재공장, 제약공장
1980 이후	신의주탄광, 탄산소다공장, 자동화기구공장, 자동화요소공장, 재봉사공장

출처: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438.

신의주시는 특히 종이를 생산하는 신의주시제지공장과 펄프공장이 있고, 화장품 생산하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이 있다. 신의주시의 화장품 공장은 그 중에서

15) 즉 신의주시는 1989년 현재 25개의 중앙공업기업소와 62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있는데 1980년도 신의주시 공업총생산액가운데서 중앙공업은 88%, 지방공업은 12%를 각각 차지하였다.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439.

“봄향기”라는 ‘살결물’로 유명하며, 외화별이사업의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일용품을 생산하는 신의주 일용품 공장과 신의주 신발 공장 등 30여 개 공장들이 모여 있다. 공업기업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과 산업건축면적에서도 기계공업, 방직공업, 화학공업이 60%이상 차지한다. 즉 신의주시는 경공업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신의주에서는 개인 옷 가공기업들이 발달하였다. 특히 북한의 각 도에는 수출피복가공공장이 있다. 이는 구소련 때 전문 원피스 등을 수출하기 위해 만든 공장이다. 더욱이 조총련을 통해 들여온 재봉 등의 기계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복을 생산하는 기술자들도 많다.

이와 같이 신의주시에서 무역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평양의 관문인 평성시가 1990년대 이후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평성 시는 평안남도의 도 소재지로, 과학연구단지조성을 위해 1960년대에 만들어진 신도시이다. 과학의 메카로 일컬어지며 과학원을 비롯해 25개의 연구소와 이과대 등 과학자 양성기관들이 밀집해 있다.<sup>16)</sup>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신의주를 통해 중국의 원자재가 들어오자 평성에서는 개인 옷, 담배 가공업 및 기계 수공업도 함께 발달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평성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성옷(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완성된 옷) 보다는 국내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성복과 똑 같이 만들고 있으며, 어떤 상품의 경우 중국산보다 더 잘 만들어 질이 좋아 비싸게 팔린다. 중국산의 경우 질이 좋지 못해 내구성이 부족하지만 개인이 만든 상품은 재료도 더 많이 넣고 정성들여 만들어서 오래간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옷도 중국에서 옷감만 수출되면 바로 모방하여 만든다.

특히 이제는 담배 판매하는 도매업자, 옷을 판매하는 도매업자 등 상인 간 분업이 철저히 되어 있어서 각 지에서 온 도매상인들은 시장에서 헤매지 않고 바로 전문 업자의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평성은 전국에 상품을 배분할 수 있는 삼각지로, 평성을 중심으로 택배와 같은 서비스가 싹트고 있다. 특히 Google Earth 위성자료 및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결과, 평성에는 각 도급으로 나가는 소행버스가 있다. 2010년 최근 북한에 다녀온 조선족 대북사업가에 따르면 이 버스

16) 이 시에는 과학원이 있어 과학의 메카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명신사범대학·평성교원대학·봉화이학대학·공업대학·수의축산대학·광산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과 문화고등중학교를 비롯한 각 급 학교가 있으며, 유치원·극장·도서관·문화회관·평성경기장·중덕산체육관 등이 있다.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전서: 평안남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가 승객 수송 외에도 택배와 비슷한 짐 배달 업무도 대행해 준다. 예를 들어 타지의 담배 상인이 평성의 담배 도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를 부탁하면 평성에 있는 버스를 통해 배달이 된다. 이 버스회사에서는 택배비를 운송 수수료로 받는다. 이러한 교통망을 통해 평성에서 만들어진 옷, 담배 등에 전국으로 분포된다.

그러므로 전화는 상인들에게 필수이며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게 등짐을 지고 올 필요 없이 전화와 신용만 있으면 택배 업무를 수행해 주는 버스를 통해 물건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 제4절 도시의 발달과 지역 간 격차

신의주시는 주민수로 보아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도시이며 도 주민총수의 12.9%를 차지한다. 신의주시에는 35개의 동과 13개의 리가 있는데 도시에 해당하는 동에는 주민총수의 84.6가 살고 있으며 농촌에 해당하는 리에는 주민총수의 15.4%가 살고 있다.<sup>17)</sup> 신의주도시는 한군데 모여 이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3개 지역으로 갈라져있다. 도시의 기본구역(역전동을 비롯한 29개 동)은 제방 안에 건설된 지역 즉 원래 신의주시를 이루고 있던 지역으로 현재 당, 정권기관, 교육, 문화기관과 방직공장, 화학섬유공장 등 큰공장, 기업소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시 주민총수의 65%가 살고 있다. 1983년 현재 시 주민수의 89.5%가 로동자, 사무원이고 협동농민이 9.5%, 기타 협동조합원주민이 1%이다.<sup>18)</sup>

이러한 환경의 도시가 1990년대 이후 무역도시로서 급성장했다. 이는 단동지역 북한 수출입현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006년 현재까지 단동지역 북한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5> 참조). 바꿔 말하면 단동과 신의주간의 접경무역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17) 이는 89년 현재의 통계이며, 2008년 현재는 49동(역전동, 압강동, 남상동, 남하동, 친선1동, 친선2동, 신원동, 본부동, 판문동, 청송동, 백사동, 근화동, 채하동, 5·1동, 남중동, 남서동, 백운동, 개혁동, 남송동, 신남동, 해방동, 평화동, 신포동, 민포동, 수운동, 마전동, 동하동, 동중동, 동상동, 방직동, 련상1동, 련상2동, 류상1동, 류상2동, 와이동, 락원1동, 락원2동, 락청1동, 락청2동, 선상동, 송한동, 석하1동, 석하2동, 풍서1동, 풍서2동, 백토동, 남민동, 연하동, 고성동)과 9리(상단리, 하단리, 중재리, 삼교리, 삼룡리, 성시리, 포성리, 류조리, 다지리)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향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2005).

18)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p.446-447.



〈표 5〉 단동지역 북한 수출입현황(단위 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수출증액	수입증액
1996	8660	2150	11.25	-10.86
1997	12028	3013	38.89	40.14
1998	13189	3850	9.65	27.78
1999	14110	3805	6.98	-1.17
2000	15310	3100	8.50	-18.53
2001	17080	3020	11.56	-2.58
2002	18900	3300	10.66	9.27
2003	20900	5900	10.58	78.79
2004	23900	7500	14.35	27.12
2005	23600	19916	-1.26	165.55
2006	29540	16726	25.17	-16.02

출처: 辽宁省金融学会篇, 『朝鲜经济问题研究』, 内部资料(2008: 149).

사실 1990년대 초반 해도 북한무역의 주체는 화교, 중국연고자, 중국 상인(조선족) 등 보따리 무역상인이었다.<sup>19)</sup> 즉 1980년대 초부터 친척방문으로 오게 된 중국 조선족들은 북중 국경지역을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족의 방북은 단순히 친척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장사를 위한 방문으로 목적이 전환되었다. 이들은 한번 북한에 오면 한 달 동안 친척집에 머물면서 친척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을 상대로 친척집에서 물건을 사고팔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북한에 장사하러 오는 중국조선족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은 점차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도매상이 되었으며 결국 남양, 회령, 무산, 혜산, 신의주 등 북한의 주요 국경인접 군읍들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전용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들 도시의 시장들은 한때 ‘북한의 홍콩 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번성하였다. 특히 이들은 북한 상품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19) 정은이, “동포경제네트워크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 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 1호(2012b), pp.128-147 참조.

들여온 일본상품을 그대로 중국에 가져가 팔아 매매 차액을 획득하는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이었다. 이른바 중계무역상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의 도시는 무산, 회령, 혜산 등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무산, 회령에 상품이 집중되면서 함경북도의 도 소재지인 청진시에 소재하는 수남 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의주시 또한 북한에서 화교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살고 있어 신의주 채하시장이 전국 최대의 도매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각각의 무역회사가 물류창고를 각도에 설치하고 판매소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평성시장이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하였다. 이는 국경지대에 위치한 무산시장과 평성시장의 외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Google Earth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무산시장과 평성시장을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도 평성시장이 훨씬 더 발전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청진의 수남 시장과 신의주의 채하시장이 여전히 전국의 도매시장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Google Earth 위성자료에서 신의주 채하시장과 수남 시장의 외형을 관찰할 수 있다. 그 결과, 신의주 채하 시장의 경우 시장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뺨뺨이 들어서 있으며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규격화 표준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성시장의 경우 90년대 초반 해도 부각되지 않은 도시였으나 평성은 무엇보다 평양과 가깝다는 점, 철도망이 전국 각지로 잘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원인으로 현재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이 되었다(지도 1).

한편 원산시의 경우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였을 때는 수출입 출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곳을 통해 많은 일제 중고자전거, 중고자동차, 중고가전제품 등이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제일조선인들의 친척방문을 통해 많은 옷 등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이곳 원산의 무역회사의 출장소들이 많이 철거하였다. 이제는 단지 원산항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거하여 회령이나 무산, 나선 쪽으로 보내기 위한 출장소로서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상대국이 1990년대 들어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변한 것이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제5절 노동과 자본시장의 맹아, 형성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노동자가 대중동원에 나가야 할 경우 본인이 속한 기관기업소에서 발급한 정지증명서를 떼어 지원 나가는 기관기업소에 제출해야만 배급을 탈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지도자의 우상화 작업과 함께 등장한 ‘외화벌이’ 사업으로 인하여 장기 노동동원의 개념이 특수해졌다. 예를 들면 수산물을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조개 철, 송이 철, 고사리 철이 되면 산지로 외화벌이를 하러 가기위해 주민들이 동원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동원되어 일을 하자면 식량이 걸린다. 외화벌이란 계획경제 밖에서의 노동력 유출이므로 외화벌이기간동안 드는 비용은 노동자들이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 대체로 동원기간 동안 아주머니들은 현지에서 조를 만들어 단체로 방을 빌려 자체로 숙식을 해결한다."(탈북자 I씨).

즉 주민들은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계획경제 밖에서 움직이는 외화벌이에 참가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일한만큼의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이다. 외화벌이에 동원된 주민이 송이버섯, 약초 등 채취한 물자를 외화벌이수매소에 넘기면 그 대가로 식량, 설탕 심지어 TV나 양복기지 등 평소에 배급을 통해서 입수하기 어려운 수입물자가 지급된다. 이러한 물자는 현금으로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주민들은 이를 전부 소비하지 않고 남는 부문, 잉여부문을 장마당에 내다팔아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하는 데 쓴다. 즉 외화벌이 회사의 증대는 사적 고용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전문적으로 샅을 받고 일하는 싹벌이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이 생겨났다.

"아주머니들은 나진·선봉과 같은 곳에 조개를 캐러 아예 2, 3년씩 가서 일한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짧게 '싹벌이'하러 간다고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한다. 안면이 생기면 계속 일자리가 생긴다. 갯벌에 가면 '외화벌이'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 평양과 같은 곳은 상상도 못하지만 지방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대중화되어 있다."(탈북자 I씨).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소나 공장, 군부대 등의 기관명의를 빌려 개인이 ‘회사’를 차려 기관과 회사가 상호 공생관계를 갖는 일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가공조립의 차원을 넘어서 조잡하지만 기술자를 고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회사’도 출현했다. 예를 들면 강선재강소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차린 탈북자 K씨는 “전기등을 만들어 팔았다. 전기등은 일반 등보다 훨씬 비싸게 중국으로 팔린다. 장마당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건물을 빌리고 기계와 자재를 구입하여 공장을 차렸다. 전기는 강선재강소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노동자도 고용했다. 기술자 2명에 일반 노동자 10명을 고용했다. 임금은 일반노동자보다 5~6배 정도 더 많다. 여기 노동자들은 강선재강소와 상관없는 사회의 유희노동력이다.”고 서술했다. 게다가 1990년대에는 경제난과 함께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특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관까지도 ‘외화벌이’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산하에 ‘무역과’를 조직하여 실질적으로 기관의 생존을 뒷받침 해줄 만한 역량을 가진 ‘무역회사’를 모집했다.

이와 같이 북한 공장가동률이 30%이하라고 하지만 계획 외 부문 즉 외화벌이를 통해서 잉여 노동력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노동자들이 무역회사를 통해 외화를 벌기 위해 대거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실 중국은 이미 단순 노동력부족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단동 지역 조사결과, 북한의 서해안에서 잡은 수산물은 동강항(단동시에서 30분 거리 떨어진 곳)으로 집결된다. 이 수산물은 다시 단동시 신개발구에 위치한 수산물가공공장으로 운반된다. 그러나 이곳에는 가공할 만한 노동력이 없다. 여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15시간의 노동을 회사에서는 요구하지만 3시간도 일하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을 담당하는 평양도 무역회사에서는 북한 노동자만 해도 300명을 파견하여 이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이른바 무역회사가 이제는 인력까지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유명한 예술가들도 필요에 따라서 현장(외국)에 나와서 외화벌이를 한다. 예를 들어 평야에 위치한 만수대창각사의 경우 미술가, 화가, 조각가, 조형예술가 귀국숙 등 각종 방면의 예술가들이 있다. 여기서 만수대창각사 소속 427무역회사는 만수대창각사에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자재를 보장해 주고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해외에 되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이른바 해외에 나와 있는 영업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에 화랑 및 전사관 까지도 갖추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술가들도 직접 나와서 3, 4개월 정도 구매자가 요구하는 대로 같이 작업을 하여 작품을 완성하여 물건을 판 후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다.

북한 무역회사들이 기존에도 인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으나 이는 중국정부

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구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를 중국에서 허가한 것이다. 앞으로 12만 명 가량이 계약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단동 세관으로도 하루에 50명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남방 피복 가공공장에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 제6절 암달러 시장의 발달

북한에서 ‘돈 장사’는 외화의 암거래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1950년대 말부터 1984년에 걸쳐 실시된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에 건너오게 된 귀국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sup>20)</sup> 1970년대 후반부터 주민의 생필품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한편 외화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는 외화상점이 생겼다. 여기서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맛내는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일반주민이 배급이나 장마당을 통해서 입수하기 힘든 소비재를 판다. 더욱이 관혼상제와 같은 전통행사를 치러야 할 때 필요한 물품도 여기서 팔아 일반주민의 외화상점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러나 외화를 소지할 수단이 없는 일반주민은 외화별이동원에 참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외화상점에 대한 접근기회가 주어졌지만 1980년대 이후 외화를 소지한 귀국자가 늘면서 이들과의 외화 암거래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해외연고자를 둔 귀국자는 1970년대 말부터 해외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친척방문단’이 조직되어 ‘왕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를 매개로 북한으로 대량의 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는 귀국자와 북한주민간 외화의 암거래를 발생시키는 동인이 된다.

이러한 외화의 암거래는 점차적으로 외화상점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단에서 환차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형태로 변모했다. 예를 들면 적대계층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탈북직전까지 중국에 사는 친척의 도움으로 ‘돈장사’를 시작해 막대한 재산을 모은 탈북자 R씨는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1만 엔 당 북한 돈 8천5백 원에 교환된다. 함경북도 길주에서는 6천5백 원 한다. 따라서 길주에서 일단 엔을 사서 회령에 가지고 가서 팔면 2천원(북한 돈)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만일 엔화 4장을 바꾼다면 8천원의 이익이 떨어진다. 1991년 당시 한달 노임이 70원이므로 10년간 일해서 벌 수 있는 큰돈이다.”며 돈을 벌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20)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정은이,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을 통해서 본 북한체제의 재조명: 재일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4권 1호(2009) 참조,

한편 위조달러 거래도 많이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가 하며 신의주 등지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탈북자 I씨는 “위조지폐 10장을 팔아달라고 군대로부터 위탁 받은 적이 있다. 이들은 청진에 있는 군대로 평양에 다녀오면서 위탁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장당 2천원에만 팔아 달라고 했다. 나는 장당 7천에 팔아 총 5만원의 이윤을 남겼다. 여기서 거래된 위조달러는 주로 광조우 등 중국의 남방지역으로 유입되어 쓰인다고 한다.”고 서술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 상인, 북한화교들의 장사증가로 외화상점 주변에 외화를 사고파는 전문 암달러상이 급격히 불어났다. 특히 신의주 외화상점 주변이나 채하시장, 청진시의 포항구역과 신암구역 외화상점 앞이 가장 심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중국경무역의 증대가 일반주민의 외화수요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2000년에 들어서는 환차를 통해 암달러 장사를 하여 부를 축적한 ‘돈주’들이 급격히 생겨났다. 이는 무역회사와 관련이 있다.

각 기관기업소 별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증대되면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으로부터 생필품 및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기 위해서 외화가 필요하다. 부족한 외화는 개인 암달러상에게서 조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산, 바다 등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러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역회사는 지하금융업자들과 연계가 되어 있으며 무역회사의 확대는 암달러 시장을 확대한다.

## 제5장 결 론

이 연구는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시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북한 무역회사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 나아가 북한경제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으로는 위성 자료, 공간문헌자료, 탈북자인터뷰조사, 북한내부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중 접경조사를 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상호 교차분석·검증하여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보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 단동의 무역회사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역으로 북한 무역회사의 실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화교, 조선족, 한족에 대한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

중 무역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무역회사는 본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상사 또는 무역회사와 유사하지만 내각이 아닌 주로 당, 군부, 내각 등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당, 내각, 군, 안전부, 주요 도급 기관 및 기타 주요 ‘특권기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생산기지(공장), 원천기지(수산물, 약초 등)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생산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 수출할 수 있는 ‘와크’를 할당받지 못하면 무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무역회사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무역회사는 1990년대 식량 배급체계의 붕괴이후 북한의 모든 기관에서 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식량, 생필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초기 무역회사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날라다 상부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도에 있는 무역회사 지사에 상품이 집중되면서 각 지사에는 무역회사 소속 물류창고가 생기고, 거기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났다. 전국의 돈주들이 무역회사 물류창고로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갔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전국 각 시장의 거간에 넘겨지고 거간은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로 넘기면서 소비재시장이 확대·팽창되었다. 즉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 질수록, 물류가 많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소비재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가 각 지역에 판매소(지사)를 설치하여 상품을 직접 도매로 유통하면서 외화상점체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수입상품이 판매소를 거쳐 전국의 종합시장으로 유통되는 경로(channel)로 확대, 발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종전에 비해 중국을 통해 옷감 등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에게 일정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해도 북한무역의 주체는 화교, 중국연고자, 중국 상인(조선족) 등 보따리 무역상인이었으며 회령, 무산 등이 시장의 중심도시였으나 신의주나 평성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 1990년대 각각의 무역회사가 물류창고를 각도에 설치하고 판매소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평성시장이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성이 90년대 이후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역회사에 있으며 그 무역회사의 배후에는 신의주라는 북중 접경도시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가 커질수록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암달러 시장이 확대되었다.



즉 1990년대 이후 모든 기관의 외화별이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외화별이는 북한 경제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공적 기관의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는 거의 모든 단위는 스스로 기관유지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사실상의 배급제 붕괴로 국가배급제가 기관배급제로 변질되면서 특권기관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 등 모든 기관을 망라하고 외화별이회사를 설립하여 의존해 생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21)</sup>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는 동원, 계획, 시장 메커니즘이 중첩된 외화별이형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가 내부적으로 상이한 독립적인 경제구획으로 상호 격리 분리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상이한 지배구조와 경제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논리와 상반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한의 경제는 동원, 계획, 시장 메커니즘이 중첩되는 구조로 상호 연계하여 영향을 미치면서 특이한 경제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1) 배급제의 붕괴가 모든 기관에 외화별이를 할 정당성을 제공해 주었다(V).

## 〈탈북자 인터뷰 조사명부〉

이름	출생년도	학력	탈북시기	직업	출생지
A	1973	고등중학교	2008	탄광노동자	회령
B	1974	기능공 전문학교	2006	악기공장 노동자	회령
C	1959	고등중학교	1998, 2006	직포공장노동자	회령
D	1971	고등중학교	1998, 2004	악기공장노동자	회령
E	1981	고등중학교	2002	농장 원	회령
F	1974	고등중학교	2008	벽돌공장노동자	회령
G	1979	고등중학교	2008	탄광 노동자	회령
H	1967	고등중학교	1998	체육단원	회령
I	1974	고등중학교	2005, 2007	제지공장노동자	회령
J	1957	고등중학교	2009	구두공장노동자	회령
K	1967	고등중학교	2009	탄광노동자	회령
L	1982	고등중학교	2003	돌격대	회령
M	1956	고등중학교	2009	군대	회령
N	1940	전문학교	2003	탄광노동자	중국 왕청현
O	1971	고등중학교	2009	군대, 영예군인	회령
P	1962	대학교	2003	광산, 외화별이 출장소 부소장	무산
Q	1973	고등중학교	2003	군대, 무산광산	무산
R	1961	대학교	2005	외화별이지도원	신의주
S	1973	고등중학교	2007	수산물 도매	평성
T	1980	고등중학교	2001	돈 장사	무산
U	1951	대학교	1998	교원	무산
V		대학교	2004	사무원	사리원
W		고등중학교	2003	노동자	사리원
X	1965	대학교	2008	외화별이지도원	신의주
Y	1951	고등중학교	2006	노동자	신의주
Z	1963	전문대(통신)	2007	주택관리원, 외화별이지도원	순천

그 이외에 다수 한족 및 한국 대북 사업가

## [참고 문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향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2005).
-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전서: 함경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평양: 로동당출판사(1982).
- 김철민, “전 강성무역총회사 지사장-돈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통일한국』, 통권 제269호(2006년 5월호), 통일한국, pp.84-87
- 림금숙, “북한 자영업의 특징과 발전방향”, 『통일경제』 (2003).
- 사회과학원주체경제학연구 편, 『경제사전 제1권』, 평양: 평양과학출판사(1986).
-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 서울: 문예산책(1995).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2008).
-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 (2009),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157-200.
- \_\_\_\_\_,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제54권 1호(2011a), pp.220-283.
- \_\_\_\_\_, “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전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1호(2011b), pp.215-251.
- \_\_\_\_\_,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2012a).
- \_\_\_\_\_,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 제1호(2012a), pp.127-150.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2006),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최진이 편, “또다시 내 휘두르는 전국적 시장억제,” 『림진강』, 서울: 림진강출판사, 2008년 3월 제2호(2008).
- KOTRA 편, 『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 : 해외 대북한 교역기업. 북한의 무역회사』, KOTRA(2002).
- 丹東經濟研究所 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 『북한에는 어떤 무역회사가』,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9)

- 林金淑, “中朝边境贸易的现况及其对边境地区社会经济的影响”, 『延边大学学术会  
讨论文集』 (2005).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B%9C>: 2012.1.15 검색)
- 李佑泓. 『どん底の共和国—北朝鮮不作の構造』. 東京: 亜紀書房(1989).
- 金元祚. 『凍土の共和国』. 東京: 亜紀書房(1984).
- 朱建榮, “中朝關係の特殊性について”, 渡辺利夫編. 『北朝鮮の現状を読む』 日本  
貿易振興会(1997).
- 小木此正夫 編. 『北朝鮮ハンドブック』. 東京: 講談社(1996).
- 河合弘子. 『中国と朝鮮半島の經濟關係』. アジア政經学会(1996).
- V·ペトロ프 A·スターツ著, 下米伸夫·金成浩 訳. 『金正日に悩まされるロシア』.  
東京: 草思社(2004).
- 鄭雅英. 『中国朝鮮族の民族關係』 東京: アジア政經学会(2000).
- 林今淑, 李光哲. “中朝边境贸易的现况及其对边境地区社会经济的影响” 『东北呀  
论坛』(2004).
- 林金淑. “中朝边境贸易的现状及其对边境地区社会经济的影响.” 『延边大学学术会  
讨论文集』 (2003), pp.36-42. 2005.
- 中朝关系通史 编写组编. 『中朝关系通史』. 吉林人民出版社(1989).
- 辽宁省金融学会 篇. 『朝鲜经济问题研究』. 内部资料(2008).

2012 북한 및 통일관련

## 신진연구 논문집

---

인 쇄 : 2012. 11.

발 행 : 2012. 11.

발행처 :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 북한자료센터

☎ 02)592-2295

인쇄처 : 웃고문화사

☎ 02)2267-3956

---